본보고서

발간번호
78-6460000-000758-01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2021~2040)

전라남도
JeollaNamdo

CONTENTS

제 1 편 계획수립과 배경

24 제1장 계획의 개요

24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7 제2절 계획의 성격
28 제3절 계획의 범위
30 제4절 계획의 수립과정

34 제2장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34 제1절 지역현황 및 특성
51 제2절 여건변화 전망
59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73 제4절 기존 계획 평가
74 제5절 도민의식 및 수요조사

제 2 편 계획의 기본방향

102 제1장 계획의 기본방향

102 제1절 계획 비전과 목표
106 제2절 주요 계획지표
112 제3절 공간구상

제 3 편

전략별 추진계획

130 제1장 누구나 살기 좋은 활력있는 공간 조성

130 제1절 지역특성별 맞춤형 공간기능 강화
140 제2절 유연한 성장관리를통한 지역 활성화
152 제3절 광역·지역 간 SOC 재편 및 확충

166 제2장 환경과 공존하는 스마트 농수산생태계 구축

166 제1절 저탄소기반 고부가가치 미래 농생명산업육성
183 제2절 미래산업화를 통한 수산업 혁신동력 창출

198 제3장 그린·디지털 중심 산업 대전환 선도 거점 육성

198 제1절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속성장 기반 구축
214 제2절 에너지, 뉴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조성
236 제3절 차세대 바이오 기술 기반 글로벌 허브 구축

254 제4장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254 제1절 편안하고 안전한 삶터 조성을 위한 주거권 강화
273 제2절 신기술과 공공의료 강화로 도민 평생 건강보장
292 제3절 도민의 존엄을 보장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302 제4절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스마트 재난대응체계 구축

316 제5장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및 경관 조성

316 제1절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357 제2절 정감있고 문화가 깃든 남도경관 연출

394 제6장 글로컬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394 제1절 가장 한국다운 매력관광 중심지 구축
416 제2절 전남 고유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CONTENTS

제 4 편 계획의 집행 및 관리

428 제1장 행정계획

428 제1절 현황
431 제2절 공공가치를 지향하는 행정
434 제3절 정책추진과정의 민주적 참여와 협력
437 제4절 창의적이고 일 잘하는 유능한 조직문화 혁신

444 제2장 재정계획

444 제1절 재정 현황 분석
448 제2절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450 제3절 재정운용 기본방향
452 제4절 투자재원 조달계획

제 5 편 시군별 발전방향

458 제1장 광주근교권

458 제1절 나주시
461 제2절 담양군
464 제3절 곡성군
467 제4절 화순군

제 5 편

470 제5절 함평군
474 제6절 영광군
477 제7절 장성군

482 제2장 동부권

482 제1절 여수시
485 제2절 순천시
488 제3절 광양시
491 제4절 구례군
494 제5절 고흥군

500 제3장 서남권

500 제1절 목포시
504 제2절 해남군
508 제3절 영암군
512 제4절 무안군
515 제5절 진도군
518 제6절 신안군

524 제4장 중남부권

524 제1절 보성군
527 제2절 장흥군
531 제3절 강진군
535 제4절 완도군

CONTENTS

표 목차

35 [표 Ⅰ-2-1] 전라남도의 경·위도상 위치
36 [표 Ⅰ-2-2] 인구 및 세대수 변화
37 [표 Ⅰ-2-3] 전라남도 시군별 인구변화
38 [표 Ⅰ-2-4] 시·군별 고령자 비중('20년 기준)
38 [표 Ⅰ-2-5] 청년층 인구 변화
39 [표 Ⅰ-2-6]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 변화
39 [표 Ⅰ-2-7] 여성의 변화
40 [표 Ⅰ-2-8] 지역내총생산 변화추이
40 [표 Ⅰ-2-9] 15세이상인구 및 경제·비경제활동인구
41 [표 Ⅰ-2-10] 전국 및 전남지역 취업자 수 및 고용률(연도별)
42 [표 Ⅰ-2-11] 제조업 GRDP,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화
42 [표 Ⅰ-2-12] 제조업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43 [표 Ⅰ-2-13] 지역별·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2020)
43 [표 Ⅰ-2-14] 토지이용 구조의 변화
44 [표 Ⅰ-2-15]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현황(2020)
44 [표 Ⅰ-2-16]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화
44 [표 Ⅰ-2-17] 인구 1인당 도시지역 면적
45 [표 Ⅰ-2-18] 전라남도 도시계획 지정 현황(2020)
46 [표 Ⅰ-2-19] 교통인프라 확충 추이
47 [표 Ⅰ-2-20] 노선별 여객수송 및 화물수송실적('18)
47 [표 Ⅰ-2-21] 항공 여객·화물 수송량 추이
48 [표 Ⅰ-2-22] 전라남도 항만 화물 물동량 추이
48 [표 Ⅰ-2-23] 전라남도 산업단지 유형별 추이
49 [표 Ⅰ-2-24] 전라남도 시·군별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 추이
50 [표 Ⅰ-2-25] 전라남도 인기 주요관광지점 현황
50 [표 Ⅰ-2-26] 관광지 지정현황
76 [표 Ⅰ-2-27] 전라남도 거주만족도
77 [표 Ⅰ-2-28] 전라남도에 거주하려는 주된 이유
78 [표 Ⅰ-2-29] 전라남도에 거주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
78 [표 Ⅰ-2-30] 거주여건 만족도(100점 만점)
79 [표 Ⅰ-2-31] 권역별 거주여건 만족도

표 목차

79 [표 Ⅰ-2-32] 도·농간 거주여건 만족도
80 [표 Ⅰ-2-33] 전라남도 지역발전수준 평가
81 [표 Ⅰ-2-34] 지역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81 [표 Ⅰ-2-35] 권역별 개선과제
82 [표 Ⅰ-2-36] 지역발전 잠재요인
83 [표 Ⅰ-2-37] 지역발전 장애요인
84 [표 Ⅰ-2-38]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인지도
85 [표 Ⅰ-2-39] 권역별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 중요도
86 [표 Ⅰ-2-40] 권역별 미래발전 방향
87 [표 Ⅰ-2-41] 전라남도의 성장·발전을 위한 시기별 중점분야
88 [표 Ⅰ-2-42] 지역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89 [표 Ⅰ-2-43] 인구증대 및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
89 [표 Ⅰ-2-44] 청년인구 감소에 대응한 정책
90 [표 Ⅰ-2-45]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91 [표 Ⅰ-2-46]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91 [표 Ⅰ-2-47]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92 [표 Ⅰ-2-48]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93 [표 Ⅰ-2-49]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
93 [표 Ⅰ-2-50]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94 [표 Ⅰ-2-5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95 [표 Ⅰ-2-52]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96 [표 Ⅰ-2-53] 경관 보존 및 개선을 위한 정책
96 [표 Ⅰ-2-54] 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책
166 [표Ⅲ-2-1] 장래인구 및 노령화 전망
166 [표Ⅲ-2-2] 농가 인구 전망
167 [표Ⅲ-2-3] 농가소득 전망
168 [표Ⅲ-2-4] 식품산업 품목별 매출액 추이
170 [표Ⅲ-2-5] RCP8.5 기준 평균기온 전망
170 [표Ⅲ-2-6] RCP8.5 기준 연강수량(mm) 전망과 증가율(%)
170 [표Ⅲ-2-7] RCP8.5 기준 폭염일수 및 열대야일수 전망
183 [표Ⅲ-2-8] 연령계층별 어가 인구와 전체인구 비교

CONTENTS

표 목차

183 [표Ⅲ-2-9] 어가 수 및 어가 인구
184 [표Ⅲ-2-10] 연령별 귀어인 및 가구원
188 [표Ⅲ-2-11] 해양산업 구분(OECD)
189 [표Ⅲ-2-12] 세계 해양산업 부문별 전망
198 [표Ⅲ-3-1] 전라남도 제조업 및 주력업종 생산 현황
199 [표Ⅲ-3-2] 전라남도 산업단지 현황(`21년 1분기)
214 [표Ⅲ-3-3]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발전-누적)
214 [표Ⅲ-3-4]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 추이
215 [표Ⅲ-3-5] 2019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216 [표Ⅲ-3-6] 풍력 보급실적
217 [표Ⅲ-3-7] 무인이동체의 종류
222 [표Ⅲ-3-8] 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 기술융합 사례
236 [표Ⅲ-3-9] 전라남도 바이오 중소·벤처기업 현황 (2019)
236 [표Ⅲ-3-10] 전라남도 바이오 중소·벤처기업 현황 (2019)
238 [표Ⅲ-3-11] 전라남도 백신산업특구 내 인프라 현황
254 [표Ⅲ-4-1] 전라남도 지역별 주택유형별 30년이상 경과 노후주택수
255 [표Ⅲ-4-2] 전라남도 지역별 주택유형별 30년이상 경과 노후주택수 비율
256 [표Ⅲ-4-3] 전국과 전라남도 주택점유형태 비율
256 [표Ⅲ-4-4] 전국과 전라남도 주택유형별 주택수 변화
256 [표Ⅲ-4-5] 전라남도 읍면동별 주택유형별 주택수 변화
258 [표Ⅲ-4-6] 전라남도 1인가구 거주 주택유형
259 [표Ⅲ-4-7] 전라남도 연령별 1인가구 거주 주택유형
259 [표 Ⅲ-4-8] 2020년 기준 광역 시도 주택유형별 빈집현황
260 [표 Ⅲ-4-9] 2020년 기준 전라남도 시군 주택유형별 빈집현황
273 [표Ⅲ-4-10] 전라남도 진료비 증가 추이
274 [표Ⅲ-4-11] 전라남도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실 운영 기관 현황
275 [표Ⅲ-4-12] 전라남도 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
277 [표Ⅲ-4-13] 인구십만명당 법정감염병 발생률 추이(1960~2020)
278 [표Ⅲ-4-14] 전라남도 법정감염병 발생추이('03~'20)
278 [표Ⅲ-4-15]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현황(2019.11월 기준)

표 목차

287 [표 III-4-16] 전라남도 시군별 암검진 수검율
293 [표 III-4-17] 전라남도 사회복지 시설 현황
294 [표 III-4-18]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302 [표 III-4-19] 전라남도 자연재난발생 원인별 피해 현황(2016~2020)
302 [표 III-4-20] 전라남도 사회재난발생 원인별 발생 현황(2016~2020)
303 [표 III-4-21] 전국 도 단위 지역안전지수 현황
304 [표 III-4-22] 전라남도 시군별 지역안전지수 현황(2020)
305 [표 III-4-23] 전라남도 주요 재난 발생 변화(2016~2020)
316 [표 III-5-1] 섬진강유역 수자원의 이동 및 활용 경로
318 [표 III-5-2] 전라남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추이
337 [표 III-5-3] 전남 시·군별 대기오염물질 주요 배출원(2017년 기준)
364 [표 III-5-4] 경관자원 현황
375 [표 III-5-5] 전남 누정 및 별서정원 문화재 지정현황
380 [표 III-5-6] 산악 경관축 설정
381 [표 III-5-7] 조림 권장 수종
383 [표 III-5-8] 전라남도 경관자원 (해안과 섬 및 하천 위주)
384 [표 III-5-9]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발췌 내역
386 [표 III-5-10] 경관권역별 경관보전·관리 및 형성방향
499 [표 III-6-1] 미래트렌드에 대응한 관광정책
401 [표 III-6-2] 다양한 가치를 반영한 관광개발 추진체계
404 [표 III-6-3] 시군별 남해안 복합관광 거점 조성사업계획
405 [표 III-6-4] 체험형 해양·생태 관광명소화 사업
409 [표 III-6-5] 시군별 전남형 웰니스관광 활성화 세부 사업계획
410 [표 III-6-6] 시군별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세부 사업
410 [표 III-6-7] 시군별 청정 전남 안심관광지 구축 세부 사업계획
415 [표 III-6-8] 주요 부처별 주민주도형 공동체 지원사업
416 [표 III-6-9] 마한 유적 현황
417 [표 III-6-10] 전라남도 종가 기초 조사 현황
428 [표 IV-1-1] 전라남도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CONTENTS

표 목차

429 [표Ⅳ-1-2] 전라남도 및 시군 공무원 직종별 정원 현황
433 [표Ⅳ-1-3] 재정혁신 방안
433 [표Ⅳ-1-4] 조직·인사·평가제도 혁신
438 [표Ⅳ-1-5] 새로운 행정수요의 증가
438 [표Ⅳ-1-6] 조직·인사·평가의 혁신 방법
439 [표Ⅳ-1-7] 예측가능한 평가 및 인사시스템 혁신
439 [표Ⅳ-1-8] 평가방법의 변화
439 [표Ⅳ-1-9] 협업 추진방법
444 [표Ⅳ-2-1] 전라남도 본청 재정규모 추이(결산기준)
445 [표Ⅳ-2-2] 전라남도 본청 세입 현황(일반회계 결산 기준)
446 [표Ⅳ-2-3] 전라남도 본청 세출 현황(장관별 일반회계 결산 기준)
452 [표Ⅳ-2-4] 전라남도 본청 세입 전망(일반회계 기준)
453 [표Ⅳ-2-5] 전라남도 본청 경상적 지출 비중 추이(2010-2019)
453 [표Ⅳ-2-6]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기간 중 투자 가용재원 전망(안)

그림 목차

25 [그림 Ⅰ-1-1] 계획의 배경과 목적
27 [그림 Ⅰ-1-2] 계획의 성격
28 [그림 Ⅰ-1-3] 전라남도의 공간적 범위
29 [그림 Ⅰ-1-4] 계획의 범위
30 [그림 Ⅰ-1-5] 계획의 수립과정
35 [그림 Ⅰ-2-1] 월별 평균기온과 강수량
36 [그림 Ⅰ-2-2] 연도별 기온변화
53 [그림 Ⅰ-2-3] 여건변화와 국토영향(제5차 국토종합계획)
53 [그림 Ⅰ-2-4] 정책환경 변화 및 대응 키워드
54 [그림 Ⅰ-2-5] 지방소멸위기 시군(한국고용정보원, 2020)
55 [그림 Ⅰ-2-6] 수인성 감염병 발생, 자연재난 피해
56 [그림 Ⅰ-2-7] 전라남도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전남 으뜸미래전략, 2021)
58 [그림 Ⅰ-2-8] 여건변화에 따른 전라남도의 대응과제
59 [그림 Ⅰ-2-9]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조 : 비전, 목표, 전략
61 [그림 Ⅰ-2-10]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구상
62 [그림 Ⅰ-2-11] 전남 권역별 비전 및 특화방향(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65 [그림 Ⅰ-2-12] 전남 균형발전 공간구상
66 [그림 Ⅰ-2-13]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의 비전 및 목표
68 [그림 Ⅰ-2-14]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공간구상도
68 [그림 Ⅰ-2-15] 제6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비전 및 목표
70 [그림 Ⅰ-2-16] 전남권 권역별 관광개발 공간 구상
71 [그림 Ⅰ-2-17] 서남권 종합발전 기본구상 비전 체계도
74 [그림 Ⅰ-2-18] 도민 의식 및 수요조사 개요
75 [그림 Ⅰ-2-19] 전라남도에 대한 인식
76 [그림 Ⅰ-2-20] 권역별 전라남도 인식 차이
76 [그림 Ⅰ-2-21] 도농간 전라남도 인식 차이
80 [그림 Ⅰ-2-22] 권역별 지역발전 인식도 (100점 만점)
83 [그림 Ⅰ-2-23] 권역별 발전요인 인식
84 [그림 Ⅰ-2-24] 전라남도의 미래 가치
85 [그림 Ⅰ-2-25] 블루이코노미 분야별 중요도

CONTENTS

그림 목차

85 [그림 Ⅰ-2-26] 전라남도 미래발전 방향
86 [그림 Ⅰ-2-27] 전라남도 미래발전을 위한 선결과제
87 [그림 Ⅰ-2-28] 전라남도의 미래모습
104 [그림 Ⅱ-1-1] 추진전략별 주요 키워드
105 [그림 Ⅱ-1-2] 추진전략별 주요 프로젝트
106 [그림 Ⅱ-1-3] 전라남도 인구추계치
108 [그림 Ⅱ-1-4] 전라남도 총인구 변화
108 [그림 Ⅱ-1-5] 전라남도 가임여성 인구변화
109 [그림 Ⅱ-1-6] 전라남도 고령화율 변화
111 [그림 Ⅱ-1-7] 전라남도 SOC 구상도
112 [그림 Ⅱ-1-8] 남해안남중권 신성장 거점
113 [그림 Ⅱ-1-9]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
114 [그림 Ⅱ-1-10]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구상
116 [그림 Ⅱ-1-11] 전라남도 4대 권역 설정
117 [그림 Ⅱ-1-12] 전라남도 시군간 공간 상호작용 지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117 [그림 Ⅱ-1-13] 야간 인공위성에서 본 전라남도(EOSDIS Worldview, 2021)
118 [그림 Ⅱ-1-14] 광주근교권 특화 방향
119 [그림 Ⅱ-1-15] 동부권 특화 방향
120 [그림 Ⅱ-1-16] 서남권 특화 방향
121 [그림 Ⅱ-1-17] 중남부권 특화 방향
122 [그림 Ⅱ-1-18] 전라남도 지역발전축 설정
123 [그림 Ⅱ-1-19] 고속철도 및 광역철도 추진 현황
125 [그림 Ⅱ-1-20] 전라남도 국도 승격 현황
132 [그림Ⅲ-1-1] 전라남도 읍면동 별 소멸지수 분포(인구총조사 결과)
134 [그림Ⅲ-1-2] 빛가람 혁신도시
135 [그림Ⅲ-1-3] (사례)고금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도
143 [그림Ⅲ-1-4] 도시공간 관리체계 예시
146 [그림Ⅲ-1-5] 도시공간 재편과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151 [그림Ⅲ-1-6]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정책의 통합적 활용방안
155 [그림Ⅲ-1-7] 항만별 특화 전략

그림 목차

156 [그림 III-1-8] (예시) 첨단 항만 육성
157 [그림 III-1-9] (예시) 거점 공항 발전 구상
157 [그림 III-1-10] (사례)남해안 해양관광벨트
159 [그림 III-1-11] 전라남도 SOC 현황
185 [그림 III-2-1] 전라남도 어업생산량 및 어업생산금액
192 [그림 III-2-2] 전라남도 신안갯벌 생물권보전지역
193 [그림 III-2-3] 콜드체인 및 공급 인프라 개념도
195 [그림 III-2-4] 해조류 활성소재 생산시설 기능
205 [그림 III-3-1] 목포 남항 항만재개발사업 부지(용해동 1059 / 65,000㎡)
205 [그림 III-3-2] 친환경 선박기술 실증 인프라 구축 조감도
206 [그림 III-3-3] 중소형 선박수리 및 소형선박 건조 대상지
207 [그림 III-3-4] 스마트그린산단 구축 추진전략
209 [그림 III-3-5] 스마트공장 선도모델
210 [그림 III-3-6] 창원 스마트업 파크 조성
210 [그림 III-3-7] 스마트산단 구성안
211 [그림 III-3-8] RE100 전용 산단 조성 계획도(안)
212 [그림 III-3-9] 율촌 제2·3 산단 조성 계획(안)
212 [그림 III-3-10] 묘도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 구축(안)
213 [그림 III-3-11] 해상풍력과 조선 산업 구성 요소 간 연계성
213 [그림 III-3-12] 전라남도 해상풍력 산업육성 기업집적화 예정단지
215 [그림 III-3-13]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추이
217 [그림 III-3-14] 국가종합비행성능 시험장 조감도
218 [그림 III-3-15]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및 조감도
225 [그림 III-3-16] 허브 구상도
227 [그림 III-3-17] 해상풍력 발전단지
230 [그림 III-3-18] 에너지 섬 구상도
230 [그림 III-3-19] 전남 RE100 산업벨트 위치도
237 [그림 III-3-20]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현황
239 [그림 III-3-21] 2035년까지의 바이오헬스 미래기술 실현 전망
240 [그림 III-3-22] 국내 바이오산업의 퍼스트무버로 전환
241 [그림 III-3-23] 신약개발의 기술플랫폼 다양화

CONTENTS

그림 목차

242 [그림Ⅲ-3-24] 합성 생물학 응용 사례
254 [그림Ⅲ-4-1] 광역시도별 천명당 주택수 현황
261 [그림Ⅲ-4-2] 전라남도 빈집 등급별 유형조사 결과
269 [그림Ⅲ-4-3] 빈집철거 이후 마을쉼터 활용사례
270 [그림Ⅲ-4-4] 에너지 패시브 주택 개념
270 [그림Ⅲ-4-5] 에너지 주거단지 사례(독일 비스마르크)
271 [그림Ⅲ-4-6] 헬스케어 주택단지 개념도
272 [그림Ⅲ-4-7] 그린빌딩 사례(싱가포르 사례)
274 [그림Ⅲ-4-8] 전라남도 관외 진료비 증가 추이
275 [그림Ⅲ-4-9] 전국 시도별 응급의학 전문의 및 전담의사 근무 충족률
276 [그림Ⅲ-4-10] 전국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동 현황(2019년)
277 [그림Ⅲ-4-11] 인구십만명당 감염병 발생 추이 및 주요원인('01~'19)
282 [그림Ⅲ-4-12] 전라남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전략별 중장기 성과지표
285 [그림Ⅲ-4-13] 전라남도 진료권별 의료현황
286 [그림Ⅲ-4-14] 암연령표준화 사망률
288 [그림Ⅲ-4-15] 자살 연령표준화 사망률
290 [그림Ⅲ-4-16] 2067년 인구 10만명 당 의대졸업생 수 추정
290 [그림Ⅲ-4-17] 지역별 의사 수 현황
292 [그림Ⅲ-4-18] 전라남도 인구추이 및 연령별 인구현황
294 [그림Ⅲ-4-19]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295 [그림Ⅲ-4-20]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 / 복지예산 증가수준 타 지역과 비교 그래프
299 [그림Ⅲ-4-21] 지역복지 지원체계
306 [그림 Ⅲ-4-22] 전라남도의 폭염일수 전망 (RCP 8.5 시나리오)
307 [그림 Ⅲ-4-23] 전라남도의 한파일수 전망 (RCP 8.5 시나리오)
308 [그림 Ⅲ-4-24] 2004년 전후 재난관리계획체계
309 [그림 Ⅲ-4-25]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
317 [그림Ⅲ-5-1] 미세먼지 평균 농도 변화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
318 [그림Ⅲ-5-2] 연평균기온 변화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319 [그림Ⅲ-5-3] 폐기물 발생량 현황 및 2018년 기준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그림 목차

320 [그림 III-5-4]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전남의 폭염일수 전망
320 [그림 III-5-5]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 손실 예측
321 [그림 III-5-6]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경로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333 [그림 III-5-7] 전남의 PM-10 농도 추이
334 [그림 III-5-8] 전남의 PM-2.5 농도 및 미세먼지 나쁨 일수
334 [그림 III-5-9] 전남의 대기오염측정망 분포 현황(2020년 기준)
335 [그림 III-5-10] 대기오염 이동측정 시스템
335 [그림 III-5-11] 드론 이용 대기오염 실시간 측정
336 [그림 III-5-12]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위해성 평가 사례(울산)
336 [그림 III-5-13] 최근 10년간 전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338 [그림 III-5-14]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339 [그림 III-5-15] 시·도별 화학물질 유통량 및 배출량(2018년 기준)
341 [그림 III-5-16] 화학사고 발생 현황(2014년 이후)
341 [그림 III-5-17] 화학시설 안전장비(차량)
342 [그림 III-5-18] AI 기반 화학사고 대응 플랫폼(안)
342 [그림 III-5-19] 화학물질 누출 피해저감을 위한 완충시설
343 [그림 III-5-20] 시·도별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및 전남의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344 [그림 III-5-21]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비전 체계
344 [그림 III-5-22]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의 저탄소 공정
346 [그림 III-5-23] 도내 산림면적 변화(2000년 vs. 2015년)
347 [그림 III-5-24] 전남의 최근 30년간(1991~2020년) 강수량 및 강수일수 변화
347 [그림 III-5-25] 전남의 가뭄피해 현황
348 [그림 III-5-26] 물수급 네트워크 개념
348 [그림 III-5-27] LID 기법이 적용된 도시설계 모식도
349 [그림 III-5-28] 비점오염원 관리시설
349 [그림 III-5-29] 전남의 가뭄피해 현황
351 [그림 III-5-30]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 현황(2009~2018년)
352 [그림 III-5-31] 최근 10년간 생활계폐기물 발생현황

CONTENTS

그림 목차

353 [그림III-5-32] 2018년 기준 생활계폐기물 처리현황
354 [그림III-5-33] 환경시장 규모
355 [그림III-5-34] 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 개념도
356 [그림III-5-35] CCUS 개념도
357 [그림III-5-36] 법성포 숲쟁이 공원입구의 부조화한 페인팅벽화(영광)
357 [그림III-5-37] 축령산 진입부 상업시설 및 간이시설의 부조화 (장성)
358 [그림III-5-38] 법성포 매립지역의 해안선 처리와 갯벌훼손(영광)
358 [그림III-5-39] 율포해수욕장 배후 송림사이로 도로가 통과함(보성)
359 [그림III-5-40] 과도한 보라색 사용으로 자연경관과 부조화한 퍼플섬 색채사용(신안)
359 [그림III-5-41] 섬진강 변의 과도한 보도교(곡성)
359 [그림III-5-42] 주암호 주변의 과도하게 데크시설이 되어 있는 습지(보성)
360 [그림III-5-43] 과도한 시설하우스가 전원경관 훼손(담양)
360 [그림III-5-44] 컬러마케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도한 원색 지붕(장성)
361 [그림III-5-45] 향교 옆 원색의 간이시설(강진)
361 [그림III-5-46] 향교 주변의 산만한 경관(영암)
362 [그림III-5-47] 과도하게 인공적으로 디자인 된 상징보형물(강진 마량항)
362 [그림III-5-48] 도로의 공공디자인의 단순미와는 맞지 않는 상징조형물(보성)
363 [그림III-5-49] 가로변 특정 상업건물이 과도한 원색사용으로 경관훼손(무안)
363 [그림III-5-50] 가로변의 어지러운 안내판(보성)
363 [그림III-5-51] 스카이라인과 색채가 부조화한 나홀로 아파트(보성)
364 [그림III-5-52] 과도한 옥외광고물, 벽화 등 시각적 혼란 초래 상업건물(좌 보성, 우 무안)
365 [그림III-5-53] 취가정에서 조망되는 평촌들녘과 무등산 경관
365 [그림III-5-54] 월출산과 유채꽃 축제(영암)
366 [그림III-5-55] 대동저수지(영암)
366 [그림III-5-56] 영산강 하천죽림 녹화(담양)
367 [그림III-5-57] 득량만 일원의 해안풍경(보성)
367 [그림III-5-58] 돌산도 주변 다도해와 연안풍경과 여수 선소(여수)

그림 목차

368 [그림 III-5-59] 법성포 숲쟁이 공원(영광) 및 완도수목원 일원 난대림의 잠재력(완도)
368 [그림 III-5-60] 서해안의 갯벌(보성)
368 [그림 III-5-61] 신안군 병풍리 일원의 갯벌(신안)
370 [그림 III-5-62] 메타프로방스(담양)
370 [그림 III-5-63] 메타프로방스(담양)
370 [그림 III-5-64]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담양)
371 [그림 III-5-65] 주요 상업시설 종합안내판 디자인(담양)
371 [그림 III-5-66]승강장과 그늘 쉼터 디자인(담양)
372 [그림 III-5-67] 병영성 홍교(강진)
372 [그림 III-5-68] 선암사 홍교(순천)
372 [그림 III-5-69] 유마사 보안교(화순)
372 [그림 III-5-70] 고흥읍성홍교(고흥)
373 [그림 III-5-71] 경전선 옥곡역(광양)
373 [그림 III-5-72] 경전선 예당역(보성)
374 [그림 III-5-73] 초연정과 수석(순천)
374 [그림 III-5-74] 열화정(보성)
374 [그림 III-5-75] 함허정(곡성)
375 [그림 III-5-76] 남희정(담양)
380 [그림 III-5-77] 산악경관회랑축
380 [그림 III-5-78] 산악경관축
381 [그림 III-5-79] 산줄기연결망 보전
381 [그림 III-5-80] 훼손 경관 녹화
382 [그림 III-5-81] 전라남도 주요 어항 위치도
383 [그림 III-5-82] 전라남도 섬 경관 및 해안경관
384 [그림 III-5-83] 전라남도 해안 및 하천 경관축
388 [그림 III-5-84] 베란다나 가로기둥 등에 화분장식을 통해 경관향상(영국)
388 [그림 III-5-85]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 활용으로 지역활성화 기여(싱가포르 Gardens by the bay)
388 [그림 III-5-86] 양질의 정원을 공급함으로써 휴식과 힐링 공간제공 (싱가포르 Botanical Garden)

CONTENTS

그림 목차

389 [그림III-5-87] 업무빌딩이나 주차빌딩 등의 입면녹화사례(싱가포르)
389 [그림III-5-88] 순천만국가정원(순천)
390 [그림III-5-89] 기차마을 장미정원(곡성)
390 [그림III-5-90] 쌍산재 정원풍경(구례)
394 [그림III-6-1] 전라남도 방문 내외국인 관광객 추이
395 [그림III-6-2] 전라남도 권역별 해양·생태관광자원 현황
395 [그림III-6-3] 전라남도 해양 생태관광 추진 방향
396 [그림III-6-4] 전라남도 관광자원의 잠재력
405 [그림III-6-5] 관광거점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414 [그림III-6-6] 해안· 내륙 연계 관광루트 구축
416 [그림III-6-7] 전라남도지역 마한 유적 분포
417 [그림III-6-8]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계획
431 [그림IV-1-1] 전라남도가 추구할 미래사회적 가치
444 [그림IV-2-1] 전라남도 본청 재정규모 추이
445 [그림IV-2-2] 전라남도 본청 세입 중 각 항목 비중 추이
447 [그림IV-2-3] 전라남도 본청 주요 세출 비중 추이

2021~2040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제 1 편
계획수립과 배경

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제1장

계획의 개요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계획의 성격
제3절 계획의 범위
제4절 계획의 수립과정

제 1 장 계획의 개요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기조와 방향성을 반영한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2020~2040)」 수립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 실현을 지향,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6개 실천전략을 제시
  -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구체적인 기조와 방향성을 바탕으로, 국토관리 전략 및 정책에 부합되는 전라남도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
  - 특히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도약할 수 있는 국토관리의 변화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역단위의 종합계획 제시
- 급변하는 사회에서 2040년 미래 전라남도의 대도약을 위한 전라남도 지향점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
  - 국가 및 세계적 트렌드에 따른 전라남도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전라남도의 비전과 목표 제시
  - 인구구조 변화, 제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초광역화 등 새로운 메가트렌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증대
  - 특히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뉴노멀(새로운 표준) 확산
  - 도민의 의식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이 바라는 미래상을 담아 전라남도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정책과제의 체계화
- 전라남도의 비전 달성을 목표로 분야별 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전라남도의 풍요로운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장기전략 수립

2. 계획의 목적

그림 Ⅰ-1-1
계획의 배경과 목적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만료

전라남도 종합계획의 계획간 만료 시점 도래
- 부문, 시·군 종합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을 위한 광역 종합계획 수립 필요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2000~2020)
- 본계획 : 2000~2020
- 수정계획 : 2008~2020
- 재수정계획 : 2012~2020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정책적 기본방향 및 지역발전 방향을 수렴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메가트렌드와 국토 정책환경 변화

대내외 여견변화 등 계획수립과 관련한 메가트렌드 분석 및 반영
- 기술변화, 인구변화, 사회변화, 경제변화, 환경변화, 정치·경제 변화 등

기술변화 4차 산업혁명, 초고속기술, 초지능화, 첨단화, 초연결화 등

인구변화 고령화, 저출산, 1인가구, 다문화, 인구감소 등

사회변화 삶의 질, 여가중시, 워라밸, 건강, 공유의식 등

경제변화 저성장, 소득양극화, 일자리창출, 성장동력 약화, 글로벌경제변화 등

환경변화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에너지부족, 자원갈등, 자연재해 등

정치·경제 변화 지방분권, 직접참여, 소득증대, 균형발전, 국제협력 등

기타 감염병 확산 이후 정치·사회·외교 등 전반의 뉴노멀 확산 등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이 제시한 국토정책 방향에 전라남도의 여건과 잠재력을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토대 마련
  - 6대 실천전략을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전방향 제시

- 국토종합계획의 기조와 방향성을 최대한 살려 전라남도 도정 전반에 걸친 종합화된 미래지향적 계획의 수립

- 전라남도의 여건변화 및 전망, 도민이 원하는 전라남도의 미래상, 국내외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2040 전라남도 비전과 전략 제시
  - 지난 20년간의 전라남도의 여건변화 분석 및 향후 20년 전라남도의 미래 전망을 통해 전략적 기획 관점에서 전라남도의 주요 과제 도출 및 대응방안 모색
  - 전라남도의 권역별로 도민 의견조사를 통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을 수립
  - 국가적 및 국제적 메가트렌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라남도가 나아갈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슈 및 정책과제와 핵심프로젝트의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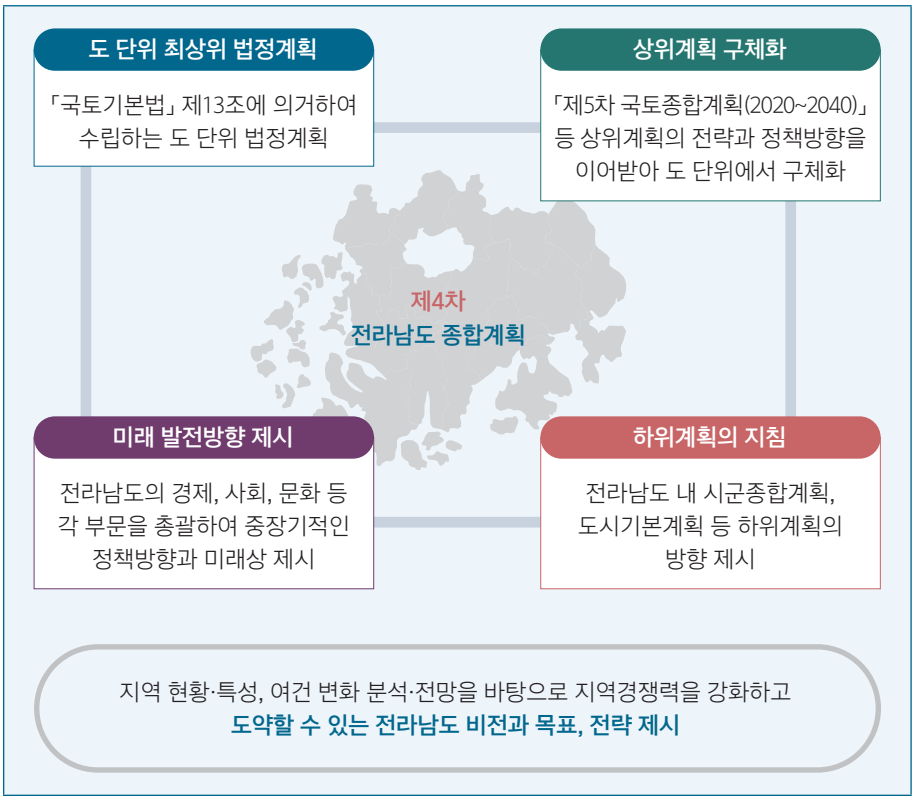
- 지역의 조화로운 성장을 목표로 한 지역발전 구도의 정립, 권역별 특화발전 및 권역간 공동발전과 함께 인접 지자체와 연계한 광역적 발전 방향 제시
  -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차제간의 계획의 정합성 확보
  - 최근의 광역 및 초광역 지역발전정책을 반영하고, 권역별 특화발전 방향 및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방향 제시
  - 환태평양, 환황해를 연결하는 제4의 신경제벨트로서 남해안경제벨트 추진의 당위성 및 방향성 제시

제2절

계획의 성격

-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에 전라남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담고, 시군의 지침서가 될 계획 수립
  - 전라남도의 2040년 미래비전 수립을 통해 전남의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미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제시
-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국토계획 실현을 위한 도 단위의 최상위 법정계획이자 실천계획
  - 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의 법정화로 확정 이후 법정계획으로서 효력(국토기본법 제6조, 제13조)
  -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의 장기발전 구상과 지역발전 전략을 연계하여 국토의 효율적 발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
  - 국토종합계획의 기조와 정책방향에 부합한 도 차원의 각종 부문별 정책과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 유도
-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국토발전 방향을 반영하고, 시군 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제시
  -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발전방향에 관한 시군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전라남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시·군 종합계획의 지침이자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
  - 전라남도 기초지자체의 하위계획(시·군 종합발전계획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군의 균형발전 도모

그림 Ⅰ-1-2
계획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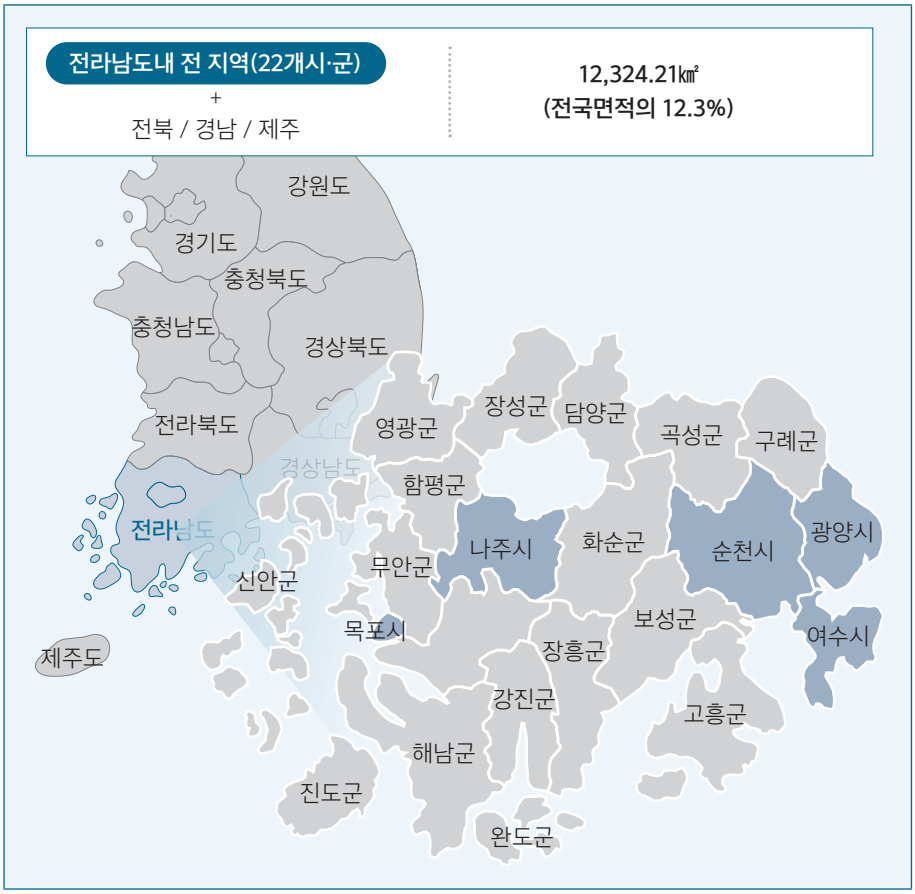
제3절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광역적(전북, 경남, 제주) 범위 확장

그림 Ⅰ-1-3
전라남도의 공간적 범위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0년
- 계획연도 : 2021~2040년

3. 내용적 범위

-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2~2020) 검토
- 전라남도의 현황 및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 전라남도 도정발전 비전과 목표, 공간구조 설정 및 지역별 기능 분담
- 전략 및 정책 방향, 각 부문별 발전전략,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
- 도내 공간구조 및 지역별 기능 분담,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시·군별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 계획의 실행을 위한 행·재정계획 수립

그림 Ⅰ-1-4
계획의 범위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0년
- **목표연도** 2021~2040년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전 지역(22개 시·군) + 광주/경남/제주
- 전국 면적의 12.3%(12,324.21㎢)

내용적 범위

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 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2~2020) 검토
- 전라남도 현황 및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 전라남도 비전과 목표, 공간구조 설정 및 지역별 기능 분담
- 전략 및 정책방향, 각 부분별 발전전략, 균형발전에 관항 사항
- 시·군별 발전방향 및 추친전략
- 계획의 실행을 위한 행·재정 계획
- 도내 공간구조 및 지역별 기능 분담,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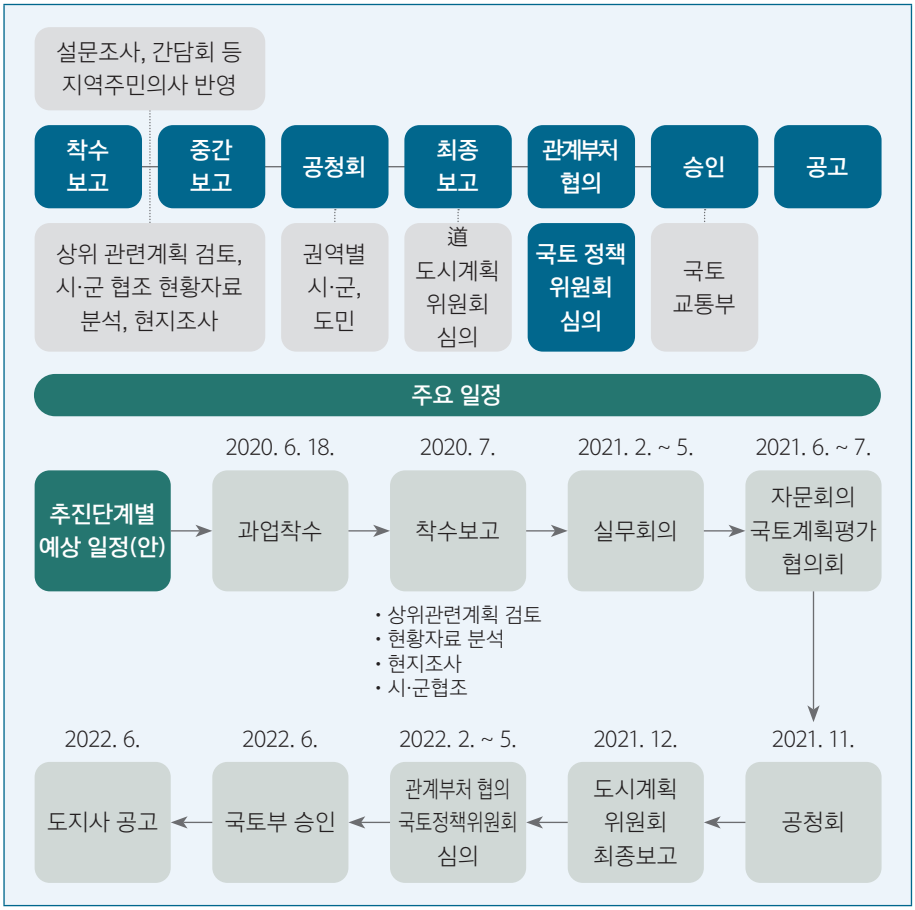
제4절

계획의 수립과정

1. 계획의 추진 일정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착수보고	2020.07.14.
국토계획평가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	2020.08.05.
22개 시군 계획수립 회의	2020.09.15./11.13.
도민 의식 설문조사	2020.10.~11.
전국 도단위 종합계획 수립 정책 토론회 개최	2020.11.10.
중간보고회 개최	2021.02.24
전문가 초청 2차례 실무(자문)회의	2021.03.~04.
실국 의견 조회 및 계획 보완	2021.06.03. ~ 06.16.
전라남도 권역별 간담회 개최	2021. 6월 초(3일간)
정책자문위원회 보고 및 의견수렴	2021.06.18.
외부 전문가/담당공무원 자문회의	2021.07.08.~07.15.
국토계획평가협의회	2021.07.21.
도민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2021.11.18.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1.12.09.
최종보고회 개최	2021.12.28.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2022. 4.

그림 Ⅰ-1-5
계획의 수립과정



제2장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제1절 지역현황 및 특성

제2절 여건변화 전망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제4절 기존 계획 평가

제5절 도민의식 및 수요조사

제 2 장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제1절

지역현황 및 특성

1. 지리적 여건 및 자연환경

지리적 여건

- 동아시아 한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한 동북아의 중심지이자 바다로 동해안과 서해안을 이어주는 벨트역할 수행
  - 서쪽으로는 중국, 동남쪽으로는 일본이 자리해 동북아의 중심이자 유라시아 대륙의 기점이며,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관문
  - 동쪽으로는 지리산과 소백산, 남쪽은 제주도와 마주하고, 북쪽은 노령산맥의 구릉성 저산지가 전라북도와 경계를 이룸
- 지형적 특색은 동고서저, 북고남저의 형태로 우리나라 일반적인 지형의 특색을 보이며 동쪽이 북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산지역
  - 남서해안은 침강량(沈降量)이 많은 해안으로 만과 반도, 좁은 해협, 그리고 2천 개가 넘는 도서가 불규칙적으로 분산된 리아시스식 해안 형성
  - 이들 도서는 육지의 침강 결과로 생긴 육도로서 대부분 산지 또는 구릉으로 되어있고 평지는 극히 적은 편임
- 전라남도 하천은 크게 3개의 수계(영산강, 섬진강, 탐진강)이며, 서남부와 서북부에 광대한 평야를 유역에 형성시켜 비옥한 농토를 제공
  - 노령의 줄기에서 발원하는 영산강수계는 서남부 및 서북부의 광대한 평야를 유역에 형성시켜 비옥한 농토를 제공하고 목포 연안으로 유입
  - 동부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섬진강은 전북에서 발원해 전남북의 동부 산악지대를 흘러내려 경관이 수려하고 경사도가 높아 웅장한 모습 형성
  - 남부지역의 좁은 탐진강 유역은 장흥군 일대와 강진군을 포함하며, 규모와 흐름은 작지만 동서의 점이지대적 성격을 보임

표 Ⅰ-2-1
전라남도의 경·위도상 위치

도청 소재지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단	지명	극점		
			동경	북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동단	여수시 남면 연도리 작도	127° 54′	34° 24′	동서간 극점간 : 262.8 육지부 : 145.3 남북간 극점간 : 175.9 육지부 : 136.4
	서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125° 05′	34° 06′	
	남단	완도군 소안면 장수리	126° 38′	33° 54′	
	북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126° 49′	35° 29′	

자료 : 전남통계연보(2020)

기상 및 기후

- 전라남도는 온난성 기후를 보이며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큰 대륙성 기후이고, 여름의 우기와 겨울의 건기가 나타나는 계절풍 기후
  - 해안, 도서, 내륙 산악지대에 있어 기온의 차이가 크며 해안선이 길고 바다에 접한 면적이 많아 대체로 해양성 기후를 보임
  - 내륙산악지대는 연안지역에 비해 기후의 교차가 크고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음
- 전라남도의 기후는 한반도의 기후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그 지리적 위치로 보아 한반도의 남서쪽에 자리해 바다에 면한 지역이 넓고 해안선이 길어 해양성 기후의 특징이 보다 강하게 나타남
  - 소백산맥, 노령산맥 등의 산악지대와 이들 산지로부터 발원한 하천들이 형성한 내륙의 분지 지역들은 해안 및 도서지방과는 달리 대륙성 기후의 특성을 보임

그림 Ⅰ-2-1
월별 평균기온과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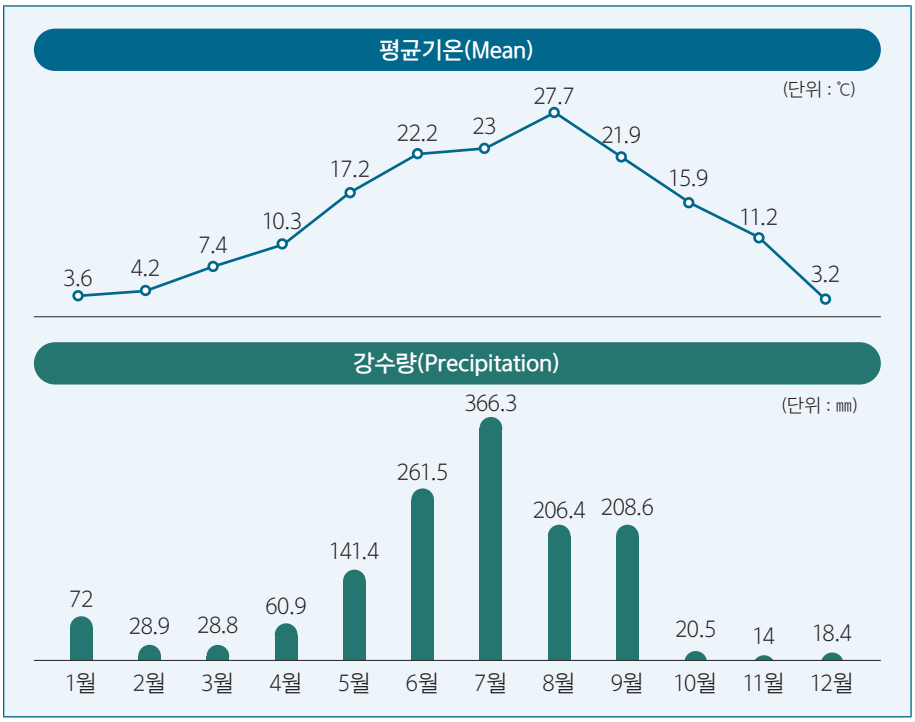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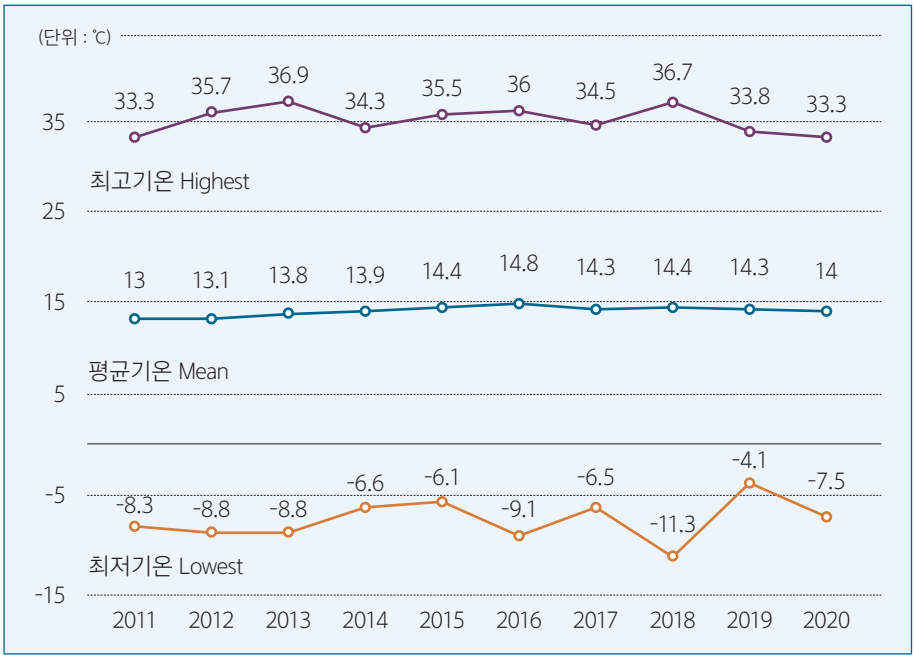


그림 Ⅰ-2-2
연도별 기온변화



2. 인구구조

총인구

- 전라남도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2010년 이후 연평균 0.3%씩 감소해 2017년에 190만명 선이 붕괴되었으며, 2020년말 기준 185만명으로 감소, 전국(5,183만명) 인구의 3.6% 차지
- 세대수는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인구수와는 반대로 연평균 1.1%씩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세대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표 Ⅰ-2-2
인구 및 세대수 변화
(단위 : 천명)

구분	전국			전라남도		
	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	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
2010	50,515,666	19,865,179	2.5	1,918,485	799,520	2.4
2011	50,734,284	20,033,142	2.5	1,914,339	805,051	2.4
2012	50,948,272	20,211,770	2.5	1,909,618	808,682	2.4
2013	51,141,463	20,456,588	2.5	1,907,172	815,769	2.3
2014	51,327,916	20,724,094	2.5	1,905,780	823,667	2.3
2015	51,529,338	21,011,152	2.5	1,908,996	833,901	2.3
2016	51,696,216	21,294,009	2.4	1,903,914	842,688	2.3
2017	51,778,544	21,632,851	2.4	1,896,424	851,376	2.2
2018	51,826,059	22,042,947	2.4	1,882,970	860,303	2.2
2019	51,849,861	22,481,466	2.3	1,868,745	872,628	2.1
2020	51,829,023	23,093,108	2.2	1,851,549	893,152	2.1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시군별 인구

- 전라남도 시군별 인구는 2020년 기준 2010년 대비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무안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 나주시와 무안군은 빛가람혁신도시와 남악신도시의 효과로 인하여 2010년 대비 각각 26천명, 12천명 증가
- 2010년 대비 인구 감소가 큰 지역은 목포시(21천명), 여수시(13천명), 해남군(11천명), 고흥군(10천명)순으로 나타남

표 Ⅰ-2-3
전라남도 시군별 인구변화
(단위 : 천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라남도	1,918	1,914	1,910	1,907	1,906	1,909	1,904	1,896	1,883	1,869	1,852
목포시	245	245	245	241	239	238	238	234	232	230	224
여수시	293	293	292	291	291	290	289	286	283	283	280
순천시	273	272	274	276	277	279	279	279	279	280	282
나주시	90	88	88	88	91	98	104	110	114	115	116
광양시	146	151	151	152	152	154	156	156	157	157	152
담양군	48	48	48	47	47	47	47	47	47	47	46
곡성군	32	31	31	31	31	31	30	30	30	29	28
구례군	27	27	27	27	27	27	27	28	27	27	26
고흥군	74	73	72	71	70	69	68	67	66	65	64
보성군	49	48	47	46	46	45	44	44	43	41	40
화순군	69	69	68	68	67	66	65	65	64	63	63
장흥군	42	43	43	43	43	44	41	40	39	39	38
강진군	42	42	40	40	40	39	38	37	36	35	35
해남군	80	78	78	78	77	76	75	74	72	70	69
영암군	60	60	60	59	59	58	57	56	55	55	54
무안군	74	76	76	79	82	82	82	83	82	81	86
함평군	37	36	36	36	35	35	34	34	33	33	32
영광군	57	57	57	58	57	56	56	55	54	54	53
장성군	47	46	46	46	46	46	46	46	46	46	44
완도군	54	54	54	54	53	53	53	52	51	51	50
진도군	34	34	33	33	33	32	32	32	31	31	31
신안군	45	44	44	44	44	43	43	42	41	40	39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시군별 고령자 비중

- 전라남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말 기준 전라남도 전체인구의 23.5%를 차지, 전국 평균인 16.4% 보다 매우 높은 수준
- 전라남도는 199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고령화 비율이 14%로 급증하여 고령사회 단계로 진입하였고, 2014년에 전체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단계로 진입함

표 Ⅰ-2-4
시·군별 고령자 비중
(단위 : 명, %)

구분	65세 이상 인구	비율	구분	65세 이상 인구	비율
전국	8,496,077	16.4	화순군	16,791	26.9
전라남도	435,880	23.5	장흥군	12,928	34.2
목포시	37,827	16.9	강진군	12,035	34.8
여수시	54,587	19.5	해남군	22,293	32.4
순천시	44,445	15.8	영암군	14,400	26.8
나주시	25,986	22.5	무안군	17,528	20.4
광양시	20,188	13.3	함평군	11,720	36.6
담양군	14,436	31.2	영광군	15,488	29.2
곡성군	10,185	36.3	장성군	13,400	30.1
구례군	8,882	34.5	완도군	16,244	32.5
고흥군	26,298	41.1	진도군	10,325	33.1
보성군	15,603	38.5	신안군	14,291	36.7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청년 및 여성인구

- 전라남도 청년(15~29세)인구는 2020년 기준 288천명으로 2010년 대비 58천명 감소. 청년층 비중은 전국 평균 17.9%보다 낮은 15.5%로 나타남
- 청년층 전출률이 2020년 28.2%로 전국 평균 26.5%보다 높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함
- 전라남도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청년층(15-29세) 비율은 2010년 10.9%에 비해 2020년 10.1%로 감소, 전국 14.8%보다도 낮은 수준
- 전국 여성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라남도는 2017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임
-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 인구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라남도는 인구수는 증가하나 비율은 정체 상태

표 Ⅰ-2-5
청년층 인구 변화
(단위 : 천명, %)

구분	전국				전라남도			
	청년 인구 (15-29세)	청년층 비중	인구 총전출	청년층 전출률	청년 인구 (15-29세)	청년층 비중	인구 총전출	청년층 전출률
2010	10,431	20.6	8,227	25.5	346	18.0	276	26.8
2011	10,274	20.3	8,127	25.0	341	17.8	266	27.0
2012	10,118	19.9	7,507	24.8	335	17.5	244	26.8
2013	10,010	19.6	7,412	24.1	331	17.3	247	25.7
2014	9,968	19.4	7,629	24.0	329	17.3	261	25.2
2015	9,956	19.3	7,755	24.3	329	17.2	246	25.9
2016	9,889	19.1	7,378	24.8	324	17.0	237	26.9
2017	9,765	18.9	7,154	25.2	317	16.7	231	26.8

구분	전국				전라남도			
	청년 인구 (15-29세)	청년층 비중	인구 총전출	청년층 전출률	청년 인구 (15-29세)	청년층 비중	인구 총전출	청년층 전출률
2018	9,630	18.6	7,297	25.5	310	16.5	232	27.2
2019	9,469	18.3	7,104	26.7	301	16.1	233	28.5
2020	9,262	17.9	7,735	26.5	288	15.5	249	28.2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국내인구이동통계」

표 Ⅰ-2-6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 변화
(단위 : 천명, %)

구분	전국			전라남도		
	인구수 (15세이상)	청년층 (15-29세)	청년층 비율	인구수 (15세이상)	청년층 (15-29세)	청년층 비율
2010	24,956	4,269	17.1	932	102	10.9
2011	25,389	4,229	16.7	941	104	11.1
2012	25,781	4,150	16.1	959	103	10.7
2013	26,108	4,053	15.5	963	110	11.4
2014	26,836	4,179	15.6	973	110	11.3
2015	27,153	4,253	15.7	987	110	11.1
2016	27,418	4,334	15.8	994	112	11.3
2017	27,748	4,333	15.6	988	106	10.7
2018	27,895	4,312	15.5	988	107	10.8
2019	28,186	4,331	15.4	999	107	10.7
2020	28,012	4,133	14.8	998	101	1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Ⅰ-2-7
여성의 변화
(단위 : 천명, %)

구분	전국				전라남도			
	여성인구		경제활동 여성		여성인구		경제활동 여성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2010	25,205	49.9	10,335	41.4	960	50.0	409	43.9
2011	25,327	49.9	10,520	41.4	958	50.0	411	43.7
2012	25,444	49.9	10,704	41.5	955	50.0	417	43.5
2013	25,553	50.0	10,862	41.6	955	50.1	416	43.2
2014	25,659	50.0	11,229	41.8	954	50.0	419	43.1
2015	25,771	50.0	11,426	42.1	955	50.0	425	43.1
2016	25,869	50.0	11,583	42.2	952	50.0	432	43.5
2017	25,923	50.1	11,773	42.4	948	50.0	432	43.7
2018	25,960	50.1	11,893	42.6	940	49.9	431	43.6
2019	25,985	50.1	12,097	42.9	931	49.8	436	43.6
2020	25,988	50.1	12,007	42.9	921	49.7	433	43.4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경제활동인구조사」

3. 산업·경제

지역내총생산(GRDP)

- 2020년 전라남도의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78.1조원으로 전국의 4.0% 차지하며, 전년 대비 1.2조원 증가
- 2020년 전라남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44,272천원으로 전국(37,389천원)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년 대비 870천원 증가

표 Ⅰ-2-8
지역내총생산 변화추이
(단위 : 조원, 천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역내 총생산 (조원)	전국	1,327.4	1,393.3	1,445.3	1,505.2	1,566.0	1,660.8	1,742.5	1,840.3	1,902.5	1,927.4	1936.0
	전남	61.7	63.2	64.5	66.4	66.2	68.8	71.6	73.7	75.4	76.9	78.1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천원)	전국	26,788	27,901	28,793	29,849	30,861	32,556	34,042	35,831	36,866	37,274	37,389
	전남	34,768	35,553	36,201	37,264	36,953	38,339	39,824	41,076	42,131	43,402	44,272
1인당 개인 소득 (천원)	전국	14,558	15,137	15,711	16,432	17,006	18,063	18,520	19,204	19,910	20,661	21,205
	전남	13,161	13,374	13,982	14,575	15,039	16,067	16,528	17,043	18,207	19,072	20,103

자료 :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지역소득」, 호남지방통계청「전라남도 제조업 변화 분석」

경제·비경제활동인구와 고용 추이

- 전라남도의 15세 이상 인구는 152만 5천명으로 2010년에 비해 6만명(4.1%) 증가함
- 경제활동인구는 99만 8천명으로 2011년에 비해 6만 6천명(7.1%) 증가, 경제활동 참가율은 1.8%p(63.6→65.4%)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52만 8천명으로 2010년 대비 5천명(0.9%) 감소함

표 Ⅰ-2-9
15세이상인구 및 경제·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p)

구분	2010	구성비	2020	구성비	증감	증감률
15세이상인구	1,465	100.0	1,525	100.0	60	4.1
(남 자)	703	48.3	758	49.7	55	7.8
(여 자)	762	51.7	767	50.3	5	0.7
경제활동인구	932	100	998	100	66	7.1
(남 자)	523	56.3	564	56.5	41	7.8
(여 자)	409	43.7	433	43.4	24	5.9
경제활동참가율	63.6	-	65.4	-	1.8	2.8
비경제활동인구	533	100	528	100	-5	-0.9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호남지방통계청「전남고용동향」

- 2020년 기준 전남지역 전체 취업자 수는 97만 4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대비 3.6%를 차지함
- 2020년 기준 전남지역의 고용률은 63.9%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보다 3.8%p 높음
- 최근 10년 이상 전남지역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 고용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

표 Ⅰ-2-10
전국 및 전남지역 취업자 수 및 고용률(연도별)
(단위 : 천 명, %)

구분	취업자 수				고용률			
	전국	전라남도	전국 대비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전국	전라남도	전남-전국 Gap	전년 대비 증감률
2008	23,775	927	3.9	-	59.8	63.8	4.0	-
2009	23,688	934	3.9	0.7	58.8	64.1	5.3	0.5
2010	24,033	912	3.8	-2.3	58.9	62.3	3.4	-2.8
2011	24,527	922	3.8	1.1	59.3	62.3	3.0	0.0
2012	24,955	943	3.8	2.3	59.6	63.2	3.6	1.4
2013	25,299	942	3.7	-0.1	59.8	62.6	2.8	-0.9
2014	25,897	945	3.6	0.3	60.5	62.2	1.7	-0.6
2015	26,178	962	3.7	1.9	60.5	62.8	2.3	1.0
2016	26,409	964	3.7	0.2	60.6	62.7	2.1	-0.2
2017	26,725	957	3.6	-0.8	60.8	62.1	1.3	-1.0
2018	26,822	961	3.6	0.4	60.7	62.4	1.7	-0.5
2019	27,123	974	3.6	1.3	60.9	63.4	2.5	1.6
2020	26,904	974	3.6	0.0	60.1	63.9	3.8	0.8

자료 :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최근 10년 제조업의 변화

- 제조업 GRDP는 '19년 기준 22조 9천억원으로 '09년에 비해 7조 9천억원(52.8%) 증가하였으나 전국 증가율 57.0% 보다는 낮음
  - 전국 제조업 GRDP 중 전라남도의 비중은 0.1%p(4.8→4.7%) 감소
- 제조업 사업체수는 '19년 기준 14,537개로 '09년에 비해 3,507개(31.8%) 증가하였으나 전국 증가율 34.1% 보다는 낮음
  - 전국 제조업 사업체수 중 전라남도의 비중은 0.1%p(3.4→3.1%) 감소함
- 제조업 종사자수는 '19년 기준 122,103명으로 '09년에 비해 29,276명(31.5%) 증가하였으며 전국 증가율 26.4% 보다 높음
  - 전국 제조업 종사자수 중 전라남도의 비중은 0.2%p(2.8→3.0%) 증가

표 Ⅰ-2-11
제조업 GRDP,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화
(단위 : 백억원, 개, 명, %)

구분		2009	구성비	2019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국	제조업 GRDP	30,967.3	100.0	48,603.5	100.0	17,636	57.0
	사업체수	328,565	100.0	440,766	100.0	112,201	34.1
	종사자수	3,262,933	100.0	4,123,817	100.0	860,884	26.4
전라남도	제조업 GRDP	1,497.5	4.8	2,289.0	4.7	791	52.8
	사업체수	11,030	3.4	14537	3.3	3,507	31.8
	종사자수	92827	2.8	122103	3.0	29,276	31.5

주 : GRDP는 당해년 가격(2019년 자료는 잠정자료), 구성비는 전국 대비
자료 :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호남지방통계청「전라남도 제조업 변화 분석」

- 전라남도 전체 산업 GRDP(총부가가치) 중 제조업 비중은 '19년 기준 33.6%로 '09년에 비해 0.1%p(33.5→33.6%) 증가함
  - 제조업 비중은 '11년(41.7%)에 가장 높았으나 이후 '13년까지 40.0% 이상을 기록한 후 감소
- 제조업 GRDP의 '09년 대비 증가율(52.9%)은 동 기간 전체 산업 GRDP(총부가가치) 증가율(52.2%) 보다 높음

표 Ⅰ-2-12
제조업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단위 : 백억원, %)

구분	2009 (A)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B)	증감 (B-A)	증감률 (B-A)/A
총부가가치	4469.6 (100.0)	5254.5 (100.0)	5479.3 (100.0)	5569.5 (100.0)	5777.2 (100.0)	5798.4 (100.0)	6061.4 (100.0)	6257.4 (100.0)	6460.6 (100.0)	6597.7 (100.0)	6804.4 (100.0)	2334.8 (0.0)	52.2
농림어업	391.2 (8.8)	426.6 (8.1)	463.9 (8.5)	461.5 (8.3)	475.9 (8.2)	459.5 (7.9)	478.2 (7.9)	479.2 (7.7)	506.3 (7.8)	518.0 (7.9)	500.1 (7.4)	108.9 (-1.4)	27.8
제조업	1497.5 (33.5)	2164.3 (41.2)	2286.5 (41.7)	2261.9 (40.6)	2331.5 (40.4)	2195.0 (37.9)	2180.2 (36.0)	2257.4 (36.1)	2368.8 (36.7)	2360.3 (35.8)	2289.0 (33.6)	791.5 (0.1)	52.9
건설업	430.8 (9.6)	380.9 (7.2)	436.2 (8.0)	463.8 (8.3)	433.3 (7.5)	404.1 (7.0)	433.5 (7.2)	435.8 (7.0)	438.1 (6.8)	481.2 (7.3)	599.1 (8.8)	168.2 (-0.8)	39.0
서비스업 및 기타	2150.0 (48.1)	2282.7 (43.4)	2292.8 (41.8)	2382.3 (42.8)	2536.5 (43.9)	2739.8 (47.3)	2969.5 (49.0)	3085.1 (49.3)	3147.4 (48.7)	3238.3 (49.1)	3416.2 (50.2)	1266.2 (2.1)	58.9

주 : ( )는 전라남도 총부가가치 전체 산업 대비 구성비
자료 : 통계청「지역소득」, 2015년 기준 당해년 가격

4. 토지이용

지목별 토지이용실태

-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2020)은 전라남도의 총면적 12,348㎢ 가운데 임야가 56.3%로 지정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지 26.7%, 대지, 공장용지 및 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 14.5%, 기타 2.6%를 차지하고 있음
  ※ 전국 대비 농지(16.6%), 임야(10.9%), 대지(9.5%), 공장용지(6.3%), 공공용지(13.5%), 기타(14.3%) 차지

표 Ⅰ-2-13
지역별·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2020)
(단위 : ㎢, %)

구분	농지	비중	임야	비중	대지	비중	공장용지	비중	공공용지	비중	기타	비중	계
전국	19,841.8	19.8	63,563.5	63.3	3,253.9	3.2	1,625.2	1.6	10,159.8	10.1	2,452.9	2.4	100,457.4
전라남도	3,293	26.7	6,951.3	56.3	308.4	2.5	102	0.8	1,374.9	11.1	318.6	2.6	12,348.1
목포시	8.4	16.2	11	21.3	12	23.2	2.4	4.6	11.4	22.1	6.9	13.3	51.7
여수시	105	20.5	300.4	58.6	24.4	4.8	23.3	4.5	37.6	7.3	23.9	4.7	512.6
순천시	164.2	18.0	615.8	67.6	23.5	2.6	7.1	0.8	86.6	9.5	15.9	1.7	911.4
나주시	227.9	37.4	232.3	38.2	23.7	3.9	6.6	1.1	105.8	17.4	14.4	2.4	608.8
광양시	65.5	14.1	297.7	64.1	13.8	3.0	26.8	5.8	47.3	10.2	14.9	3.2	464.3
담양군	107.3	23.6	273.3	60.0	13.1	2.9	3.8	0.8	51.2	11.2	7.8	1.7	455.3
곡성군	94.6	17.3	393.5	71.8	8.4	1.5	2.4	0.4	44.6	8.1	4.9	0.9	547.7
구례군	61.8	13.9	340.2	76.8	7.3	1.6	0.9	0.2	31.2	7.0	2.1	0.5	443.1
고흥군	242.6	30.0	451.3	55.9	16.5	2.0	3.1	0.4	85.1	10.5	10.2	1.3	807.7
보성군	163.1	24.6	411.2	61.9	14.3	2.2	2	0.3	68.4	10.3	6.2	0.9	664.3
화순군	122.8	15.6	575.5	73.1	13	1.7	3.4	0.4	65.4	8.3	8.3	1.1	787.3
장흥군	133.9	21.5	401.7	64.5	11.5	1.8	3.3	0.5	67.1	10.8	6.1	1.0	622.6
강진군	142.6	28.5	287.4	57.4	11	2.2	2.7	0.5	52.9	10.6	5.4	1.1	501.1
해남군	358.3	34.7	444.8	43.0	19.7	1.9	4.4	0.4	168	16.3	40.1	3.9	1,033.4
영암군	232.2	37.9	225.6	36.8	14.7	2.4	12	2.0	101.9	16.6	28.1	4.6	612.8
무안군	192.3	42.7	148.5	32.9	15.1	3.4	3.7	0.8	68.9	15.3	23.5	5.2	450.7
함평군	141.2	36.0	182.5	46.5	12.2	3.1	3.1	0.8	49.4	12.6	4.9	1.2	392.3
영광군	178.1	37.5	206.7	43.5	14	2.9	6.6	1.4	55.5	11.7	15.3	3.2	475.2
장성군	117.3	22.6	316.8	61.1	11.8	2.3	5.3	1.0	57.6	11.1	11.3	2.2	518.5
완도군	91.4	23.0	258.4	65.1	10.2	2.6	1.5	0.4	26.5	6.7	9.6	2.4	397
진도군	128.8	29.3	252.2	57.3	7.9	1.8	1.6	0.4	43.6	9.9	6.9	1.6	440.3
신안군	216.4	33.0	325.2	49.6	11.1	1.7	1.7	0.3	50.2	7.7	51.9	7.9	655.9

주1.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자료 : 통계청「지적통계」, 국토교통부「국토교통 통계누리」

- 대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등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년 현재 전체 면적의 약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지, 임야는 감소하는 추세
  - '20년 농지, 임야는 각각 3,293㎢, 6,951㎢로 '10년에 비해 각각 55㎢, 119㎢가 감소

표 Ⅰ-2-14
토지이용 구조의 변화
(단위 : ㎢, %)

구 분	2010	2015	2020	연평균증가율 (2010~2020)
계	12,246.7	12,313	12,348.2	0.08
대지	272.5	292.1	308.4	1.25
공장용지	60.9	79.9	102.0	5.29
공공용지	1,261.4	1,340.0	1,374.9	0.87
농지	3,347.9	3,326.6	3,293.0	-0.17

구 분	2010	2015	2020	연평균증가율 (2010~2020)
임야	7,070.7	6,998.5	6,951.3	-0.17
기타	233.3	275.9	318.6	3.17

자료 : 통계청「지적통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 ’20년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 6,212㎢로 전체 토지의 50.3%를 차지함
  - 관리지역은 3,170.8㎢로 2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은 1,418.7㎢로 11.5%,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65.7㎢로 5.5%를 차지

표 Ⅰ-2-15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현황(2020)
(단위 : ㎢, %)

구 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용도미지정 및 기타		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 국	15,253.3	15.2	23,902	23.8	49,082.5	48.9	6,543.3	6.5	5,631.5	5.6	100,412.6
전 남	1,418.7	11.5	3,170.8	25.7	6,212.0	50.3	865.7	7.0	680.9	5.5	12,348.1

자료 : 통계청「토지소유현황」

- 도시지역은 ’20년 기준 1,719.4㎢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의 면적은 증가하고, 미지정지역 면적은 감소함
  - 주거지역은 전체 도시지역 면적의 10.3%인 178.1㎢이고, 상업지역 1.4%(23.2㎢), 공업지역 9.9%(169.8㎢), 녹지지역 68.5%(1,177.7㎢)를 차지

표 Ⅰ-2-16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화
(단위 : ㎢, %)

구 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0	167.5	9.6	21.0	1.2	161.2	9.2	1,176.7	67.4	220.9	12.6	1,747.2
2,020	178.1	10.4	23.2	1.45	169.8	9.9	1,177.7	68.5	170.7	9.9	1,719.4

자료 : 통계청「도시계획현황」

- 전남지역 인구 1인당 도시지역 면적은 ’20년 기준 주거지역 134.44㎡, 상업지역 17.48㎡, 공업지역 128.13㎡, 녹지지역 888.95㎡임
  - 전남지역 인구 1인당 도시지역 면적은 전국대비 주거지역 2.36배, 상업지역 2.46배, 공업지역 4.99배, 녹지지역 3.35배 큰 것으로 나타남

표 Ⅰ-2-17
인구 1인당 도시지역 면적
(단위 : ㎡, 배)

구 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계
전국(A)	57.04	7.11	25.70	265.34	355.19
서울	33.69	2.66	2.06	24.24	62.65

구 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계
경기도	46.39	5.10	10.83	210.07	272.39
전남(B)	134.44	17.48	128.13	888.95	1,169.00
B/A	2.36	2.46	4.99	3.35	3.29

자료 : 통계청「도시계획현황」

-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여수시가 가장 넓고, 순천, 광양 순으로 넓은 도시계획구역을 갖고 있음

표 Ⅰ-2-18
전라남도 도시계획 지정 현황(2020)
(단위 : ㎢, %)

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라남도	178.1	10.4	23.2	1.4	169.8	9.9	1177.7	68.5	170.7	9.9	1719.4
목포시	14.8	13.1	2.0	1.8	8.4	7.5	29.7	26.4	57.6	51.2	112.5
여수시	25.6	7.4	3.0	0.9	59.0	17.1	215.0	62.3	42.5	12.3	345.1
순천시	22.0	11.1	3.1	1.6	4.9	2.5	167.8	84.8	-	-	197.8
나주시	16.6	15.9	1.3	1.3	3.7	3.6	82.5	79.2	-	-	104.2
광양시	17.7	10.0	2.3	1.3	48.8	27.6	83.3	47.1	24.8	14.0	176.9
담양군	10.0	7.5	0.3	0.3	0.6	0.5	122.5	91.8	-	-	133.4
곡성군	2.2	14.2	0.3	2.1	0.2	1.6	12.7	82.1	-	-	15.5
구례군	2.3	20.9	0.3	3.2	0.2	1.5	8.1	74.4	-	-	10.9
고흥군	3.5	10.6	0.6	1.7	1.8	5.5	23.1	70.8	3.7	11.4	32.7
보성군	3.0	12.4	0.6	2.4	0.1	0.6	20.3	84.5	-	-	24.0
화순군	4.5	6.1	0.6	0.8	1.2	1.6	67.8	91.6	-	-	74.0
장흥군	3.0	8.0	0.5	1.3	2.2	5.9	31.6	84.8	-	-	37.3
강진군	4.3	15.8	0.6	2.2	1.4	5.2	19.5	72.0	1.3	4.8	27.0
해남군	9.4	16.4	2.4	4.1	6.6	11.5	31.5	55.0	7.5	13.0	57.3
영암군	8.9	8.7	1.2	1.2	15.0	14.6	49.2	47.9	28.3	27.6	102.6
무안군	7.5	24.1	1.0	3.4	0.6	1.9	22.0	70.7	-	-	31.1
함평군	3.5	12.6	0.4	1.4	3.0	10.8	21.1	75.2	-	-	28.0
영광군	4.8	10.2	0.9	1.8	7.1	15.2	32.8	69.8	1.4	3.0	47.0
장성군	9.3	8.5	0.8	0.7	3.4	3.2	95.1	87.6	-	-	108.6
완도군	2.7	1-	0.6	2.3	0.5	2.0	19.3	72.4	3.5	13.3	26.6
진도군	2.4	10.3	0.3	1.5	0.9	4.0	19.3	84.2	-	-	23.0
신안군	0.3	7.9	0.1	1.7	0.1	1.4	3.3	89.0	-	-	3.7

자료 : 통계청「도시계획현황」

6. 사회간접자본시설

도로 및 자동차

- 2020년 기준, 도로의 총연장은 10,740㎞로 전국(112,977㎞)의 9.5%에 해당하며, 전국 평균 5.9%보다 높음
- 자동차등록대수는 1,100천대로 전국(24,366천대)의 4.5%에 해당하며, 전국 평균 5.9%보다 낮음
- 2020년 기준, 전라남도의 도로연장, 자동차등록대수는 2010년~2020년간 연평균 각각 0.5%, 4.4% 증가

표 Ⅰ-2-19
교통인프라 확충 추이
(단위 : 천대, %, ㎞)

구분	전국			전라남도		
	도로연장	포장률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연장	포장률	자동차 등록대수
2010	105,565	79.7	17,941	10,266(9.7)	72.5	714(4.0)
2011	105,931	80.4	18,429	10,288(9.7)	74.0	740(4.0)
2012	105,703	83.4	18,870	10,509(9.9)	79.2	767(4.1)
2013	106,414	82.5	19,401	10,532(9.9)	78.7	799(4.1)
2014	105,673	91.6	20,118	10,553(10.0)	88.4	842(4.2)
2015	107,527	92.1	20,990	10,594(9.9)	89.0	898(4.3)
2016	108,780	92.4	21,803	10,596(9.7)	89.4	952(4.4)
2017	110,091	92.8	22,528	10,590(9.6)	89.5	994(4.4)
2018	110,714	93.2	23,203	10,630(9.6)	89.6	1,032(4.4)
2019	111,314	93.5	23,677	10,636(9.6)	89.8	1,056(4.5)
2020	112,977	94.1	24,366	10,740(9.5)	90.7	1,100(4.5)

주 : ( ) 안은 전국대비 비율을 의미.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철도 및 수송량

- 여객 노선은 호남선(서대전~목포 252.5㎞), 전라선(익산~여수 180.4㎞), 경전선(경남 삼랑진~송정 277.7㎞)의 노선이 운행 중
- 기타 화물노선으로는 대불선(일로~대불), 장성화물선(안평~장성), 여천선(덕양~적량), 광양항선(황길~광양항), 신광양항선(초남~신광양항), 광양제철선(광양~태금)이 있음
- 2020년 여객수송량은 10,164천명으로 전국의 9.9% 차지, 화물수송량은 3,230천톤으로 전국의 12.3% 차지

표 Ⅰ-2-20
노선별 여객수송 및 화물수송실적('18)
(단위 : ㎞, 명, 톤)

구분	철도길이	여객수송	화물수송
전국	4,154.3	102,378,106	26,276,962
전라남도	765.3	10,164,247	3,230,254
호남선	252.5	4,701,590	21,407
전라선	180.4	3,432,885	188,601
경전선	277.7	2,029,772	419,663
대불선	12	-	5,560
장성화물선	3.6	-	-
여천선	11.6	-	755,291
광양항선	2.7	-	280
신광양항선	6.2	-	631,237
광양제철선	18.6	-	1,208,215

자료 : 국토교통부,「국토교통통계연보」

항공수송

- 전라남도에는 무안국제공항과 여수공항이 위치하며, 무안국제공항은 2007년 개항 이후 여객, 화물 수송량이 2008년~2019년 간 연평균 각각 19.2%, 17.3% 증가
- 2020년은 COVID-19 상황으로 인해 2019년 대비 여객, 화물 수송량이 각각 87.4%, 85.0% 감소
- 국내공항의 수요는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 집중되어 있어 무안, 여수 등 지역공항의 운항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
- 무안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항공이용 수요기반 취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14년도에 무안~제주 저비용항공사 유치 및 중국노선 확대로 2019년에 최대 성과를 달성

표 Ⅰ-2-21
항공 여객·화물 수송량 추이
(단위 : 천명, 천톤)

구분	2008		2010		2015		2019		2020	
	여객	화물	여객	화물	여객	화물	여객	화물	여객	화물
전국	69,953	3,506	81,200	3,851	118,646	4,094	157,673	4,533	65,027	3,435
전라남도	771.7	3.8	757.0	3.5	725.5	4.7	1531.1	9.7	759.8	3.1
무안공항	130.0	1.2	100.0	0.9	311.9	2.7	895.4	6.8	112.9	1.0
여수공항	641.7	2.6	657.0	2.6	413.6	2.0	635.7	2.9	646.9	2.1

자료 : 항공통계(www.airport.co.kr)

항만물류

- 전라남도 내 지정항만은 총 15개소, 무역항(목포, 완도, 광양, 여수) 4개, 연안항(송공, 흑산도, 홍도, 신마, 녹동, 나로도, 화흥포, 가거도, 진도, 갈두) 11개로 전국의 25.0%를 차지하며, 국가어항 33개(29.2%), 지방어항 89개(31.0%) 보유

- 2020년 말 기준 전라남도의 항만 화물처리실적은 300,076천톤으로 전국대비 20.0%로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특히 광양항은 철강, 석유화학, 컨테이너 등 복합화물 취급, 넓은 배후단지 보유로 국내·외 교역이 활발

표 Ⅰ-2-22
전라남도 항만 화물 물동량 추이
(단위 : 천톤,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전국	833,579	984,534	1,204,068	1,463,054	1,499,254
전라남도	151,619 (18.2)	187,978 (19.1)	233,538 (19.4)	298,423 (20.4)	300,076 (20.0)
목포신항	6,481	7,594	16,389	22,467	23,085
완도항	310	314	630	2,596	1,621
여수항	5,352	2,587	9,828	1,353	2,048
광양항	139,476	177,483	206,691	272,007	273,321

주 : 2020년 12월 말 기준. ( ) 안은 전국대비 비율을 의미.
자료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www.nic.go.kr)

산업단지

- 전라남도 내 산업단지는 총 104개소로, 국가산업단지 5개소, 일반산업단지 30개소, 도시첨단단지 1개소, 농공단지 68개소가 조성되어 있음
- 전라남도의 산업단지 수는 전국 산업단지 수의 8.5%를 차지하며 국가산업단지 10.6%, 일반산업단지 4.4%, 도시첨단단지 3.3%, 농공단지 14.4%임
-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2015년 대비 25.64㎢ 감소한 226.17㎢로 전국의 15.9% 차지

표 Ⅰ-2-23
전라남도 산업단지 유형별 추이
(단위 : 개소, ㎢)

구분		2005			2010			2015			2020		
		단지수	지정면적	증감면적	단지수	지정면적	증감면적	단지수	지정면적	증감면적	단지수	지정면적	증감면적
전국	계	587	1,232.38	40.26	902	1,336.09	-15.11	1,127	1,401.67	18.01	1,225	1,423.51	21.84
	국가	35	940.84	32.80	40	802.35	-60.34	41	789.72	0.58	47	487.21	-302.51
	일반	212	238.16	5.61	435	465.81	42.12	600	530.11	12.61	676	524.47	-5.64
	도시첨단	0	0.00	0.00	6	0.75	0.03	19	6.22	3.42	30	8.29	2.07
	농공	340	53.38	1.85	421	67.19	3.08	467	75.61	1.40	472	76.22	0.61
전라남도	계	57	225.38	1.38	80	247.19	-5.54	103	251.81	0.72	104	226.17	-25.64
	국가	4	181.56	0.39	5	173.92	0.06	5	174.31	0.33	5	174.89	0.58
	일반	12	36.46	0.00	26	64.36	-5.86	33	66.38	-0.22	30	39.52	-26.86
	도시첨단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1	190.0	0.19
	농공	41	7.37	0.99	49	8.91	0.26	65	11.13	0.60	68	11.49	0.36

주1 : 2005년 증감면적은 2001년 대비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증가면적임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 총람」

5. 문화관광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 현황

- 전라남도의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은 2020년 38,776천명으로 2015년 대비 912천명(2.3%) 감소함
- 2020년은 COVID-19 상황으로 인해 2019년(62,548천명) 대비 38% 감소
- 2020년 말 기준 도내 가장 많은 방문객이 다녀간 지역은 여수시(8,727천명), 목포시(5,519천명), 순천시(3,719천명), 담양군(3,276천명), 광양시(2,068천명) 순임

표 Ⅰ-2-24
전라남도 시·군별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2015 (A)	2016	2017	2018	2019	2020 (B)	증감 (B-A)	증감률 (B-A)/A
전라남도	39,688	42,785	50,792	50,736	62,548	38,776	-912	-2.3
목포시	992	2,080	2,595	3,889	5,903	5,519	4,527	4.6
여수시	13,585	13,164	15,085	13,653	13,543	8,727	-4,858	-0.4
순천시	7,679	7,918	9,067	7,991	10,168	3,719	-3,960	-0.5
나주시	1,160	1,196	1,449	1,606	1,752	1,023	-137	-0.1
광양시	481	335	1,775	2,949	4,435	2,068	1,587	3.3
담양군	2,654	2,954	2,794	2,134	3,980	3,276	622	0.2
곡성군	986	990	1,331	1,119	1,155	755	-231	-0.2
구례군	2,097	2,435	2,491	2,328	2,586	1,608	-489	-0.2
고흥군	299	302	583	1,045	1,671	755	456	1.5
보성군	924	850	1,062	1,144	1,280	556	-368	-0.4
화순군	1,637	1,738	1,563	1,659	1,657	1,139	-498	-0.3
장흥군	583	570	733	718	770	340	-243	-0.4
강진군	727	1,115	1,526	2,064	1,977	1,062	335	0.5
해남군	402	437	432	584	1,191	1,447	1,045	2.6
영암군	949	1,238	947	675	749	781	-168	-0.2
무안군	412	380	712	767	881	535	123	0.3
함평군	775	778	748	765	915	121	-654	-0.8
영광군	167	974	1,853	1,859	1,892	624	457	2.7
장성군	745	789	1,195	1,148	1,420	1,251	506	0.7
완도군	994	1,002	1,129	931	1,344	1,334	340	0.3
진도군	507	533	507	731	1,190	765	258	0.5
신안군	935	1,009	1,214	978	2,090	1,370	435	0.5

주 : 2013년 1월부터 추정방식을 통한 집계대상지 제외.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2020년 말 기준 도내 가장 많은 방문객이 다녀간 관광지는 여수 엑스포해양공원(248만명)로 전년대비 31.6% 감소

- 다음으로 순천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194만명), 여수 오동도(170만명), 광양 청매실농원(95만명), 여수 돌산공원(92만명), 담양 메타프로방스(91만명) 순

표 Ⅰ-2-25
전라남도 인기 주요관광지점 현황
(단위 : 천명)

순위	2019		2020	
	관광지	관광객	관광지	관광객
1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6,180	여수 엑스포해양공원(EDG)	2,481
2	여수 엑스포해양공원(EDG)	3,627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1,938
3	여수 오동도	2,908	여수 오동도	1,697
4	광양 청매실농원	2,499	광양 청매실농원	949
5	여수 돌산공원(여수해상케이블카)	1,666	여수 돌산공원(여수해상케이블카)	916
6	담양 메타프로방스	1,169	담양 메타프로방스	913
7	순천 낙안읍성민속마을	965	목포 해상케이블카	693
8	담양 죽녹원	901	담양 죽녹원	625
9	광양 백운산등산로	851	장성 내장사국립공원	580
10	영광 불갑사 관광지	846	광양 백운산등산로	551

주 : 2013년 1월부터 추정방식을 통한 집계대상지 제외.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관광자원

- 2020년 기준 전라남도는 관광지 28개소, 관광단지 6개소, 관광특구 2개소를 개발·운영하고 있음
  - 도내 관광지는 강진 대구면 도요지, 곡성 도림사, 지리산온천, 나주호, 담양호, 회산연꽃방죽, 율포해수욕장, 한국차소리 문화공원, 불갑사, 성기동, 마한문화, 영산호 쌀문화 테마공원, 영암바둑테마파크, 신지명사십리, 장성호, 홍길동 테마파크, 정남진우산도, 녹진, 아리랑마을, 해신장보고, 회동, 사포, 땅끝, 우수영, 도곡온천, 운주사, 화순온천, 대광해수욕장이 지정
  - 도내 관광단지는 여수 화양, 여수 경도해양, 해남 오시아노, 고흥 우주해양이 있으며 최근에 진도 대명리조트(2016), 여수 챌린지 파크(2019) 관광단지가 추가로 지정
  - 도내 관광특구는 구례군의 일부지역(토지면, 마산면, 광의면, 신동면) 약 78㎢, 목포 해안선 주변 6개 권역(북항, 유달산, 원도심, 삼학도, 갓바위, 평화광장) 약 7㎢ 면적이 특구로 지정

표 Ⅰ-2-26
관광지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계	24	29	34	34	36
관광지	21	26	28	28	28
관광단지	1	2	4	4	6
관광특구	1	1	2	2	2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제2절

여건변화 전망

1. 국가적 미래 트렌드[1)]

인구감소와 구조변화로 국토정책 방향의 전환 불가피

- 2040년 장래인구분포 분석 결과, 2019년 기준 국토의 거주 지역 가운데 인구감소 예상 지역은 81.03%, 인구증가 예상 지역은 18.96%로 전망(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치)
- 인구구조의 변화, 즉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자 비율 증가는 국토정책 목표와 전략 우선순위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전망
  - 2040년 고령자 가구가 증가로 전체 인구의 약 45% 내외 정도를 차지하고 1인 가구, 다문화 가구의 증가 등 인구 구조와 가족 형태 변화 예상
  - 기존 국토정책은 거시적·총량적인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였으나, 삶의 질·건강·안전 등 미시적· 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예상

경제성장 잠재력의 둔화와 양극화·노후화

- 글로벌 경제의 성장 잠재력 둔화와 함께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저성장 경제기조 지속 전망
  - 우리나라 잠재GDP성장률은 2020년 2.8%에서 2030년 2.3%, 2040년 1.5%로 지속 감소 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18)
  - 1970~80년대 산업화·도시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산업단지 등 국가기반 인프라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혁신성장 지체와 국민안전 위협 우려
  -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40년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단지 중 약 40%가 노후 산업단지로서 미래 국가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
  - 저성장의 지속으로 재정 투자 여력이 감소하면서 인프라 신규 투자보다는 도시재생, SOC 유지관리 등 기존 시설 이용의 효율화 요구 증가
-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커지면서 세대 간, 계층 간 양극화 등이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공정에 대한 요구 증대 전망
  - 2017년 기준 전 국민의 32.6%가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 상위 10%가 전체 사유지의 77%를 소유, 토지소유 상위 1%가 31.7%를 소유하는 등 토지소유의 편중이 고착화되는 추세
  - 생활SOC 등 공공서비스 수혜의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국가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과 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필요

기후변화 대응과 삶의 질에 대한 정책 요구 증가

- 기후 변화에 따른 대형 재난·재해 증가로 지구적 차원의 공조 필요

1) 「제5차 국토종합계획」 pp.15~18.를 재구성

- 미래 발생가능성과 파급력이 높은 글로벌 리스크로 극심한 기상 이변, 기후변화 완화·적응 실패, 자연재해, 인공 환경 재해 등 환경 요소 선정(World Economic Forum, 2019)
- 에너지와 자원 부족, 온실가스 국제 기준 준수 강화 등으로 에너지 과소비형 국토 이용 방식의 변화 요구가 증대할 전망

● 삶의 질·환경·안전·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환경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지면서 국토 이용과 생활 방식의 변화가 예상
- 국토 미래상 실현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삶의 질, 친환경 등을 중시해야 할 가치로 선정(국민의식조사,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혁신적 생활공간 조성과 국토관리

●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 등 데이터 분석기술 발달은 경제사회와의 융합, 국토관리와 생활공간의 지능화를 가속화시킬 전망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버스 노선 조정 등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책 수행 방식이 대두되고, 국민의 정책요구 수준도 높아질 전망
-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형 교통수단, 스마트항만·공항 등 교통·물류·인프라 혁신, 인공지능·수소 경제 등 다양한 신산업 출현으로 전 국토의 변화 예상

● 새로운 정책 수요와 기술의 결합으로 혁신적 국토 이용 방식의 확산
-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문화 향유 요구, 공유경제 행태 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확대
- 기술 발달로 인한 거리 단축, 산업입지 및 주거·이동·경제 활동에서 공간적 제약의 완화 등 국토 이용 방식의 변화 확산 전망

남북 교류·협력 확대와 국가 간 주도권 확보 경쟁 심화

●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와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합적 경제 기반 실현을 위한 인프라와 제도 정비 필요

●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경쟁 증가 전망
- 중국의 일대일로, 중-몽-러 경제회랑 조성 등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을 둘러싼 국가 간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신북방·신남방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문화·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국가 간 협력모델이 형성될 전망

분권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새로운 국토정책 거버넌스 요구

● 지방분권화의 전개로 지역의 주도권 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자치분권체제 확립으로 중앙-지방 간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 확대

– 인구감소, 4차산업혁명 등 자치환경 변화에 따라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 행정 효율성 제고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확산 전망

-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와 소통 요구 등 새로운 국토정책 추진 체계 실현 전망

– SNS 등 소통도구를 활용하여 국정 및 지자체 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가 확산되는 등 참여와 소통 기반의 거버넌스체제 운영 확대

그림 Ⅰ-2-3
여건변화와 국토영향 (제5차 국토종합계획)



2. 전라남도의 대응과제

그림 Ⅰ-2-4
정책환경 변화 및 대응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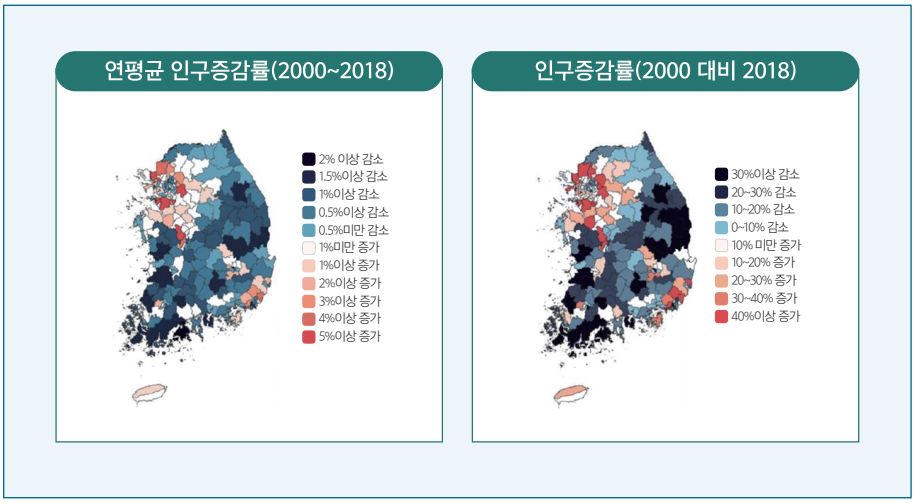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 전라남도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농어촌지역의 초고령화와 인구감소, 빈집으로 상징되는 지역쇠퇴 및 마을소멸이라는 위기를 낳고 있음
  - 주민등록인구 기준 2020년 전라남도 인구는 185만여명으로 2000년 213만여명 대비 13.1%(28만여명) 감소
  - 한국고용정보원(2020년)이 발표한 전국 지방소멸 위기 도내 시군 중 18개 시군이 포함(소멸 고위험 5개, 소멸위험 진입 13개)
- 전라남도민은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나머지 국토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시급성과 수도권 분산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
  - 수도권 집중은 부동산 투자 광풍과 이로 인한 주택가격의 급등, 주택난 및 전세대란 등을 발생시켜 다수 시민의 주거권의 위기와 국가경제의 불안정성을 걱정하는 모순을 경험
- 반면에 COVID-19 대유행으로 밀집, 밀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보다 자유로운 삶과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자원에 대한 재발견, 재인식의 확대

그림 Ⅰ-2-5
지방소멸위기 시군 (한국고용정보원,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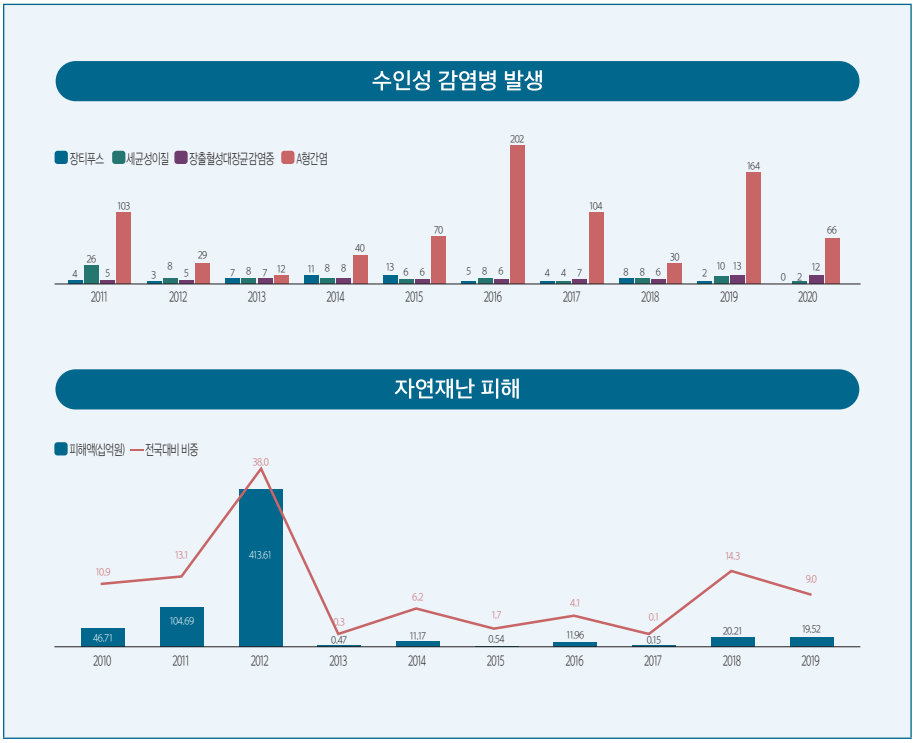
구분	10%미만 감소	10%이상 20%미만 감소	20%이상 30%미만 감소	30%이상 감소
강원	강릉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동해시, 속초시, 평창군, 철원군, 양양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고성군	정선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
충남	태안군	보령시, 논산시	공주시, 금산군, 청양군, 예산군	부여군, 서천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무주군 순창군	남원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전남	목포시	여수시, 담양군, 영암군	구례군, 화순군, 장성군, 신안군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경북	포항시, 김천시 울릉군	경주시, 안동시, 영천시,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의령군, 하동군	남해군, 합천군



폭염과 미세먼지, 장마와 폭우, 잦은 태풍 등 기후변화의 위기 인식

- 2020년 COVID-19 감염 발생 및 확산, 역대 가장 긴 장마와 폭우의 경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대한 도민의 인식이 높아짐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자연재난 총 피해액은 6.3천억으로 전국 대비 17.8%를 차지
  -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도내 폭염 온열질환자는 연평균 160여명으로 전국 대비 104% 차지
  - 쯔쯔가무시증 10만명당 발생률 전국 최다(43.65건) 등 매개체 전파 질환 및 수인성 감염병의 지속적 발생

그림 Ⅰ-2-6
수인성 감염병 발생, 자연재난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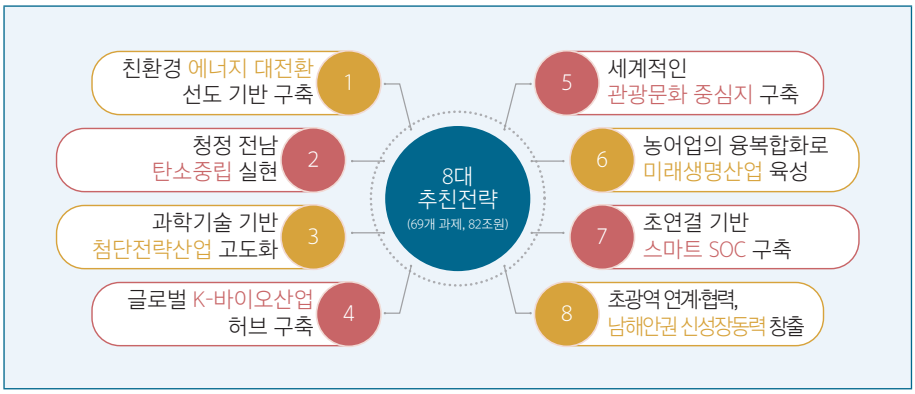


- 기후변화의 대표적 요인인 이산화탄소 발생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및 생산과 소비의 실생활에서 저탄소배출과 탄소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인식이 커지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오래전부터 전세계적 의제로 논의되어 왔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은 기존 에너지의 전환과 생산과 경제활동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어서 일상에서는 인식수준이 낮았음
-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대응해 전라남도는 블루이코노미 전략과 전남형 그린뉴딜을 발표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저탄소 경제산업, 생활구조를 바꾸고 있음

디지털기술 혁명으로 기업, 생산, 소비, 노동과 일자리의 변화

- 누구나 소통, 공유, 협업을 통해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빅플랫폼, 빅데이터 기업이 급성장하고, 인공지능(AI)기반의 매뉴팩처링 4.0(4차산업혁명) 또는 스마트시대 확산
  -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 필요한 정보, 지식, 구매, 교육, 교류와 소통 등 플랫폼이 일상의 방식이 되었고, COVID-19 상황 속에서 비대면은 이를 뉴노멀이란 새로운 사회질서와 문화의 생활양식으로 변화
  - 주택, 자동차를 비롯한 일상 생활환경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뉴미디어 환경에서 소통과 공유, 교류의 관계와 문화활동이 일상이 되고, 스마트팩토링, 스마트농업 등 모든 생산과 유통현장에도 점차 스마트화
- 디지털사회, 스마트시대에 기존 일자리 소멸에 직면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화두이며, COVID-19 위기는 고용위기 계층에 더 큰 시련을 주어 재난기본소득 도입 등 정부의 역할 강조
- 정부는 스마트 시대로의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뉴딜정책을 발표하였고, 전라남도는 에너지신산업, e-모빌리티, 차세대 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의 대전환을 꾀함

그림 Ⅰ-2-7
전라남도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 (전남 으뜸미래전략, 2021)



분권과 지역균형, 초광역협력과 주민자치 등 공동체 기반 지역발전

- 거대한 블랙홀의 수도권에 대응해 지역간 연대와 협력의 상생을 위한 시·도간 경제공동체 구축, 행정구역 통합 등 초광역협력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등장

– 2020년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분권이 강화되었으나, 지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균형을 이루는 지역성장과 발전은 여전히 한계와 숙제로 남음

- 내 삶이 바뀌는 일상생활과 행복을 더 중시하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대한 행정과 정책에 관심과 참여가 집중되고, 생활중심의 주민자치와 공동체 실현 욕구 증가
- COVID-19 방역과 위기극복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고,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성찰과 함께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 의식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인식

그림 Ⅰ-2-8
여건변화에 따른 전라남도의 대응과제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1.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그림 Ⅰ-2-9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조 : 비전, 목표, 전략



(1) 계획의 비전

-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2) 기본목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어디서나 살기좋은 균형국토를 조성
  -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어디에 살더라도 적정한 서비스를 누리고 기회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 추진의 한계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균형 국토를 조성
  - 중앙정부와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간 연대와 자율적 협력을 유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추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 접근성 기반의 생활 SOC 확충, 국토의 회복력 제고 등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심 생활국토 조성
  - 기후변화 등 환경이슈에 대응하고, 생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국토자원과 경관관리를 통한 국토매력도 제고
- 초연결·초지능화 시대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을 국토관리와 이용에 활용하여 국민의 편리함과 국토의 지능화 실현
  - 네트워크 효율화와 고속서비스로 전국을 평균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추진, 지능형 국토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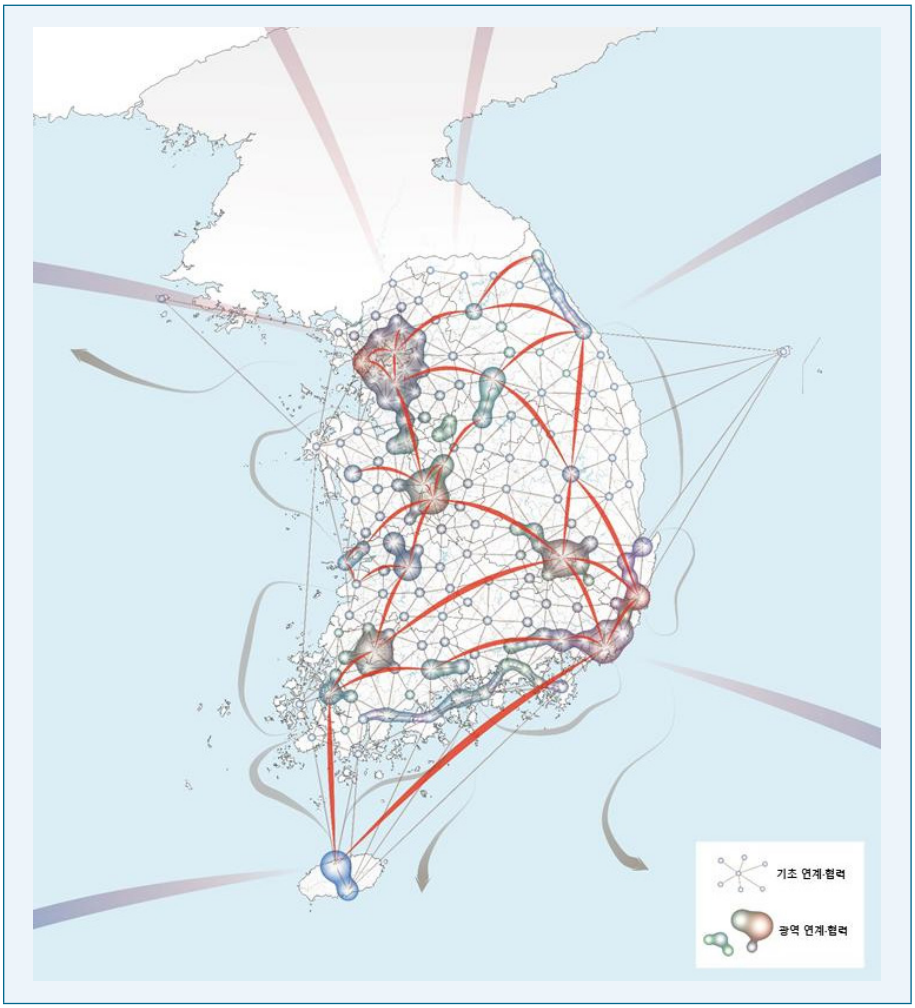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

-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 지역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 등 여건 변화에 맞는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제고
- 3대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이행하고, 유럽까지 이어지는 교통·물류기반 조성과 국제협력 강화 등 글로벌 위상 강화
  - 대륙연결형 국토 골격을 형성하여 글로벌 국가경쟁기반을 강화

(3) 6대 추진전략

-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그림 Ⅰ-2-10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구상



2.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2~2020)

(1) 계획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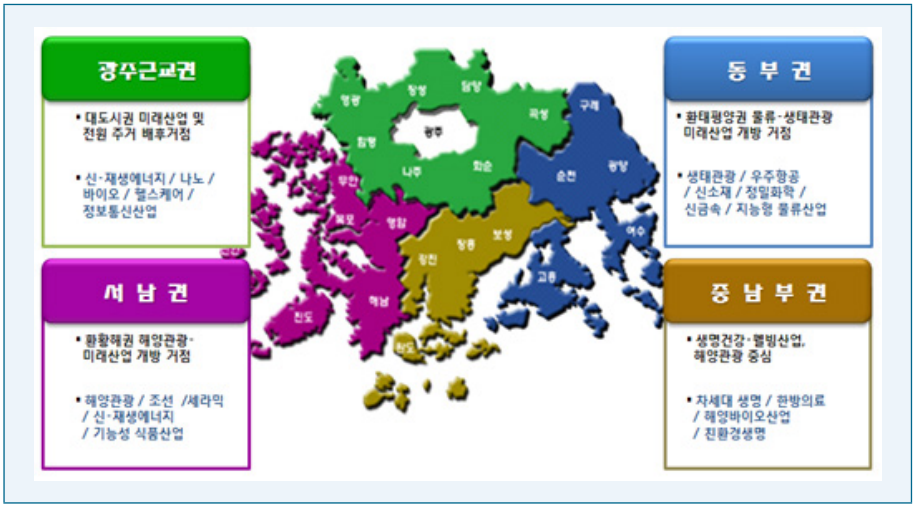
- 동북아의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

(2) 기본목표

- 동북아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물류·교통·정보망 확충
- 미래 신성장동력산업과 전통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환경산업 및 친환경생명복합농업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 신 해양관광 중심지로서 동북아의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
- 매력 있는 정주환경 및 선진 복지·교육 여건 구축

(3) 권역별 비전

그림 Ⅰ-2-11
전남 권역별 비전 및 특화방향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 광주근교권 : 대도시권 미래산업 및 전원주거 배후거점
- 동부권 : 환태평양권 물류·생태관광·미래산업 개방 거점
- 서남권 : 환황해권 해양관광·미래산업 개방 거점
- 중남부권 : 생명건강·웰빙산업, 해양관광 중심

(4) 발전방향

-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추진
  - 역동적 성장거점 확보를 위한 5대 성장거점 프로젝트 추진
  -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동북아 글로벌 복합경제 중심지 육성
  - 환황해시대 성장축 조성을 위한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등 신규 지정
- 기술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 육성
  - 7대 바이오 연구기관 등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물·생명산업의 메카 조성
  - 첨단 신소재산업 및 중소형·레저선박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 우주 강국 실현을 위한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활성화
  - 정보통신기술(IT)·나노기술(NT)·환경기술(ET)·해양기술(MT) 등 미래첨단 산업 육성과 집적시설단지 조성
  - 대불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과 목포신항,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의 연계개발 추진
  - 『ROUTE 13』 첨단산업밸리 조성
  -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
  - 지식기반산업 관련 거점시설의 지역내 유치, 기초인프라 확충, 산·학·연 연계기반 조성, 전문인력 활용체계 구축, 지방대학 특성화

- 전국 제일의 「녹색산업」 중심지 육성
  - 친환경 농·수·축산업 등 생명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 추진
  - 혁신도시와 서남권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벨트 조성
  - 친환경 녹색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녹색산업 발전거점 조성
  - 자연친화적 친환경 지역개발 추진
- 세계와 지역을 통합하는 글로벌 발전거점 및 광역교통망 확충
  - 세계를 향한 글로벌 개방거점기반 조성을 위한 공항·항만 등 SOC건설 및 활성화 추진
  - 수도권 및 동남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철도 및 도로망 구축
  - 도내 1시간 접근을 위한 지역 내 연계성 강화
  - 중국과 일본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양크루즈 기반조성 및 활성화
- 동북아의 문화관광 허브 조성
  - 동북아 문화·관광 허브 구축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한·중·일 공동 상품개발 등 공동마케팅 활성화로 동북아 해양문화관광 허브 조성
  - 역사·문화자원의 보전·활용과 영상·문화산업의 관광자원화
  - 농산어촌 및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한 생태 체험형 관광상품화 추진
  - 지리산권 광역관광과 서·남해안 해양관광루트 개발 및 연계 강화
- 자원의 체계적 개발과 자연환경의 효율적 이용
  - 생태·수질환경 복원을 위한 하천유지수량 확보
  - 대체 수자원 개발 및 수자원의 수요관리 강화
  -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재조정으로 효율성 증대
  - 자연생태계의 보전·복원 및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강화
- 자연친화형 정주여건 조성 및 복지수준 향상
  - 다양한 수요와 지역여건에 부응하는 웰빙형 정주여건 조성
  -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노인복지 및 장애인 인프라 구축
  - 보건·복지·교육 종합거점사업

3. 전라남도 균형 발전계획(2018~2022)

(1) 계획의 비전

-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2) 기본목표

-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활력있는 일자리 경제 구축

- 오감만족 문화관광 체계 구축으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 감동주는 맞춤복지 실현을 통한 따뜻한 공동체 전남 실현
- 인구감소에 대응한 도시재생 추진 및 살고싶은 농산어촌 조성
- 혁신도시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

(3) 추진전략

- 지역인재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4차산업혁명 대응 능력 제고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지역인재 확보 지원
  - 지역인재 지역재정착 유도 프로그램 운영
  - 4차 산업혁명 지역혁신선도대학 육성
  - 지역대학-지자체-공공기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산업 동력화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
  -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부품소재, 차세대 항공산업 기술혁신 집적지 조성
  -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R&D 기술센터 조성으로 연구인력 유입 및 연구 개발비 확대
-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실현을 위한 포용적 복지서비스구축
  - 포용적 균형발전을 통한 공간생활복지 실현
  - 지역 특성에 적합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 도서지역 교통기본권 및 정주기본권 확보
- 섬·해양과 내륙을 잇는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 섬·해양 레저관광 명품화 및 해양치유단지 조성
  - ICT 융복합을 통한 콘텐츠 분야 선도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인구감소에 대응한 도심재생 및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자체간 연계·협력
  - 활력있고 매력넘치는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 일자리사업 육성·확대를 통한 지역의 역량강화 및 활력 증진
- 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혁신공간 인프라 구축
  - 구도심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업 및 정주공간 제공
  - 이전기관 및 에너지관련 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
  - 혁신공간 성장을 위한 인프라 적기 구축
- 지역 간 국가균형발전 및 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대응 과제 발굴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성장 기반 구축

– 신재생에너지 및 고부가가치 부품 소재산업 육성

– 헬스케어, 우주항공 등 차세대 융·복합 유망산업 육성

–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하여 든든한 일자리 창출

그림 Ⅰ-2-12
전남 균형발전 공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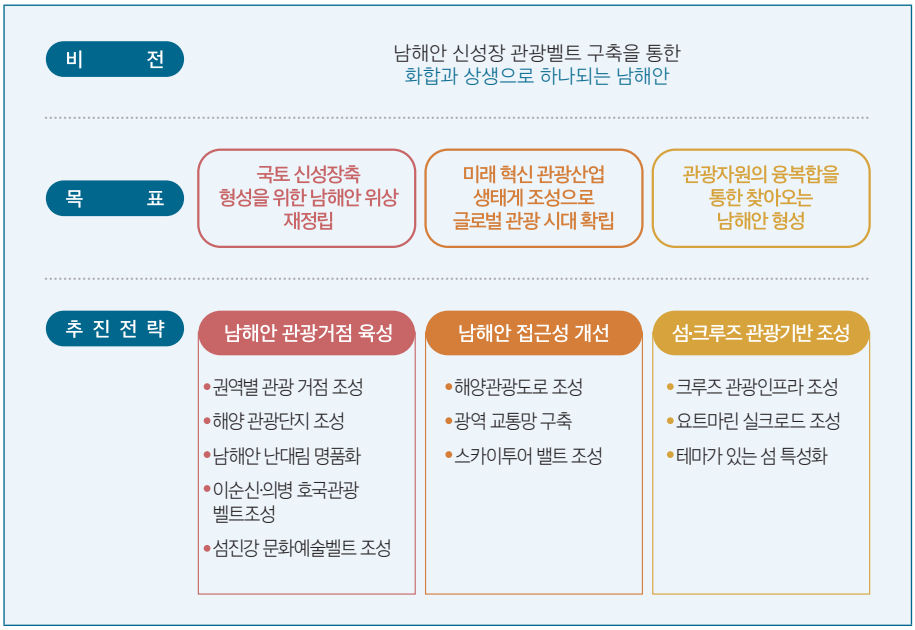


4.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2021~2030)

(1) 계획의 비전

-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

그림 Ⅰ-2-13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의 비전 및 목표



(2) 기본목표

- 동북아 5위 경제권 도약
  - 남해안권 1인당 지역총생산 규모 수준을 현재 동북아시아의 6위권에서 5위권으로 도약(1인당 GRDP 2만 8천 달러 수준 → 3만 5천 달러 이상)
- 새로운 국토성장축 형성
  - 남해안권을 독자적인 신경제 성장권으로 수도권과의 상호협력·발전체계를 구축하여 다핵적인 국토발전을 견인
- 2시간대 통합생활권 달성
  - 동서교류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광역경제권 형성으로 사람과 상품이 2시간대에 이동·교류할 수 있는 통합생활권 구축

(3) 추진전략

- 해안권 연계에 의한 광역관광벨트 형성
  - 섬·바다·갯벌 등 천혜의 자연·생태환경 및 남도 특유의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육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 남해안의 해안경관과 그 속에 담긴 매력요소들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국제적

해양관광 목적지로서 집객력 강화

- 해양자원을 활용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크루즈, 마리나 등 레저·여가시설 확충과 다양한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으로 고부가 해양관광 실현
- 남해안권 광역관광루트의 효율적 연계를 통하여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성장·육성

●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조성

- 조선, 화학, 철강, 기계 등 남해안의 주력산업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
- 전남·경남의 광역경제 협력을 통한 첨단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남해안 신산업 발전을 견인
- LNG벙커링 핵심기자재지원 기반 구축 및 선박수리 전문단지 구축사업 연계로 침체된 해운·조선·항만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 남해안을 사람·자본·물류를 유입하는 동북아시아의 국제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고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유라시아 관문도시로서 경쟁력 제고
- 남해안 노후 항만을 지역 특성에 맞게 재정비하고 관광·레저·문화·생활 기능 등의 강화를 통한 항만기능 복합화로 해양·항만도시로의 가치 재정립
- 산업 및 관광거점 연계 인프라 구축
- 남해안권의 공동번영을 위한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으로 환황해 및 환태평양 경제권의 중심지로서의 위상 제고
- 수도권·지역간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다양한 교통 네트워크 체계 형성 및 단절된 해안도로 구간 연결성 확보로 지역관광 접근성 제고

● 동서간 상생·협력벨트 조성

- 섬진강 양안의 우수한 자연 및 전통문화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광역관광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 권역 내 동서지역간 연계 강화 및 교류 촉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결 교통 인프라 확충
-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 육성 및 남해안권의 화합을 위한 협력 추진체계 구축으로 권역의 동반성장을 도모

(4) 관광개발 공간구상

● 서남해안권

- 섬·바다·갯벌 등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육성

  * (전남) 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남도문화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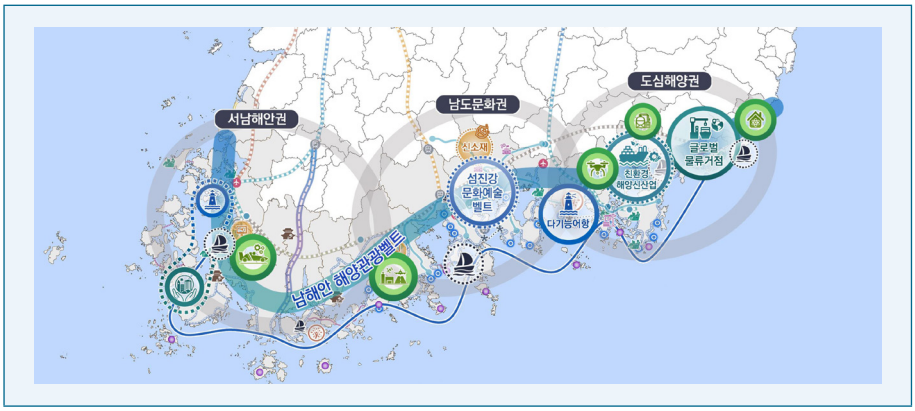
-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첨단 신소재산업 육성 등 광역경제벨트 조성을 통한 연계·

협력지대 구축

*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 (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 도심해양권
  - 첨단물류·도심·해양관광기능이 융복합된 해양신산업 중심의 국제물류·비즈니스 거점 조성
    * (경남)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등
    * (부산) 중구, 서구, 영도구 등

그림 Ⅰ-2-14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공간 구상도



5. 제6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2017~2021)

(1) 계획의 비전

- 남도 문화관광 가치지향으로 한국 관광선도

(2) 기본목표

그림 Ⅰ-2-15
제6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비전 및 목표



- 해양과 섬문화 가치 지향 ⇒ 해양전남
- 자연성 회복의 치유와 휴양지향 ⇒ 생명전남
- 남도 문화가 흐르는 문예르네상스 지향 ⇒ 문예전남
- 신성장 신브랜드 융복합 지향 ⇒ 창조전남

(3) 추진전략

- 글로벌 시대 관광경쟁력 강화
- 전남형 Only One 관광개발
- 신관광 테마 구현으로 SMART 관광산업화
- 비즈니스 및 커뮤니티 관광기반 조성
- 관광 협력 및 홍보, 마케팅 서비스 확대

(4) 관광개발 공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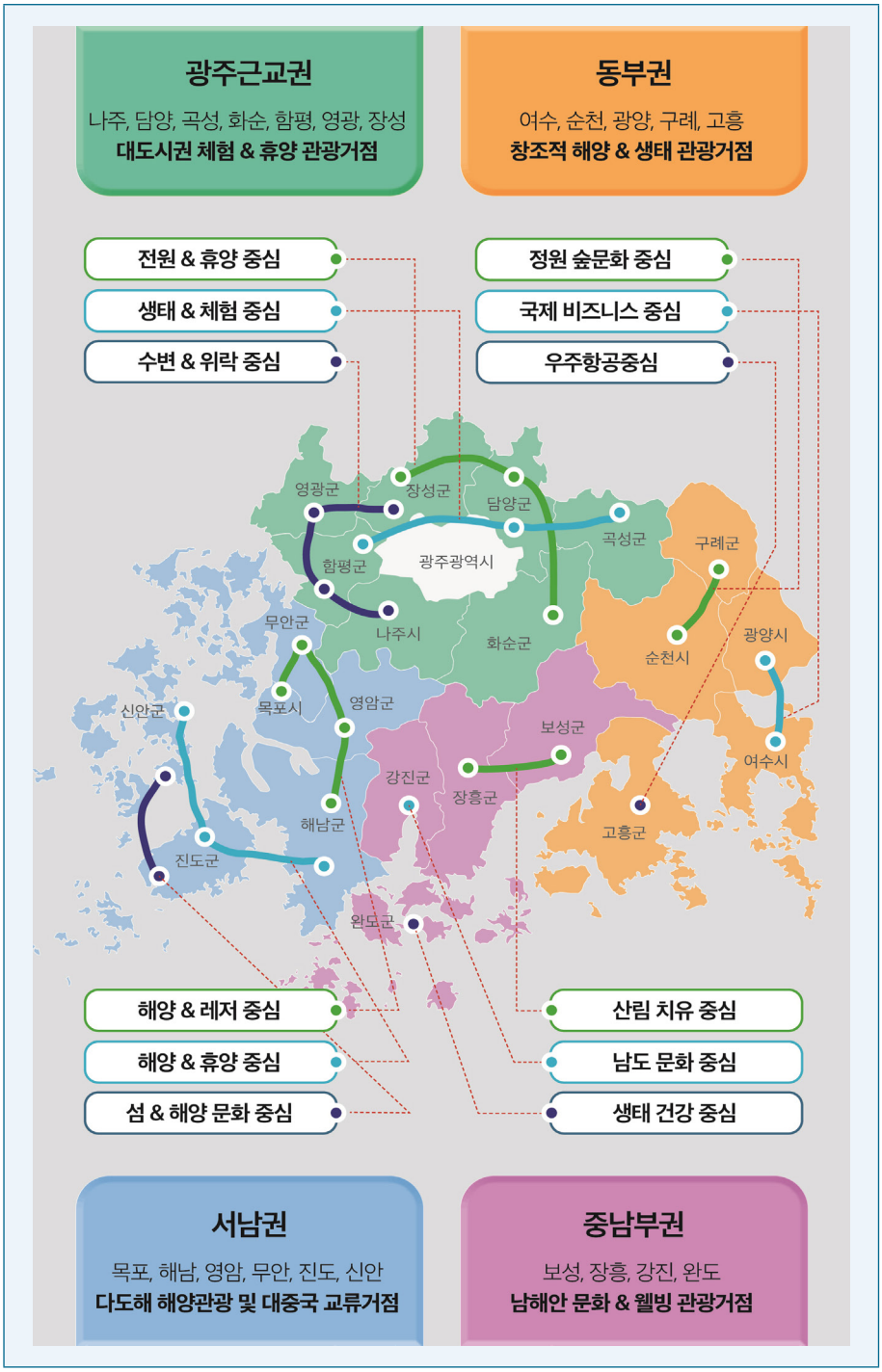
- 광주근교권
  - 대도시권의 체험·휴양관광 거점 조성
    - 도·농 교류형 휴양·휴식 관광지대 조성
    - 수변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역사·문화 관광자원 개발
    - 도시근교 관람 및 체험형 역사·문화 관광자원 개발
    - 권역내 관광지간 연계를 통한 다양성 확보
- 동부권
  - 창조적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
    - 강화된 거점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인접지역 파급효과 극대화
    - 지리산 권역과 순천만 권역,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생태·휴양 관광벨트 연계 강화
    - 타지역과 차별화된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지대 육성
    - 항공우주산업, 여수율촌산단, 광양제철소,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관광 기반 강화
- 서남부권
  - 다도해 해양관광 및 대중국 교류 관광거점
    - 중국, 일본 등을 겨냥한 체류형 해양문화 관광기반 구축
    - 다도해, 갯벌, 해안선 및 비교우위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지향
    - 권역내 관광자원의 연계 강화
    - 지역문화자원과 지역특산품 연계를 통한 관광의 지역 파급효과 극대화
    - '18년 새천년대교 교통, '20년 흑산공항 개항을 통해 주변 섬 지역 연계 관광 극대화

● 중남부권

– 남해안 문화·웰빙관광의 거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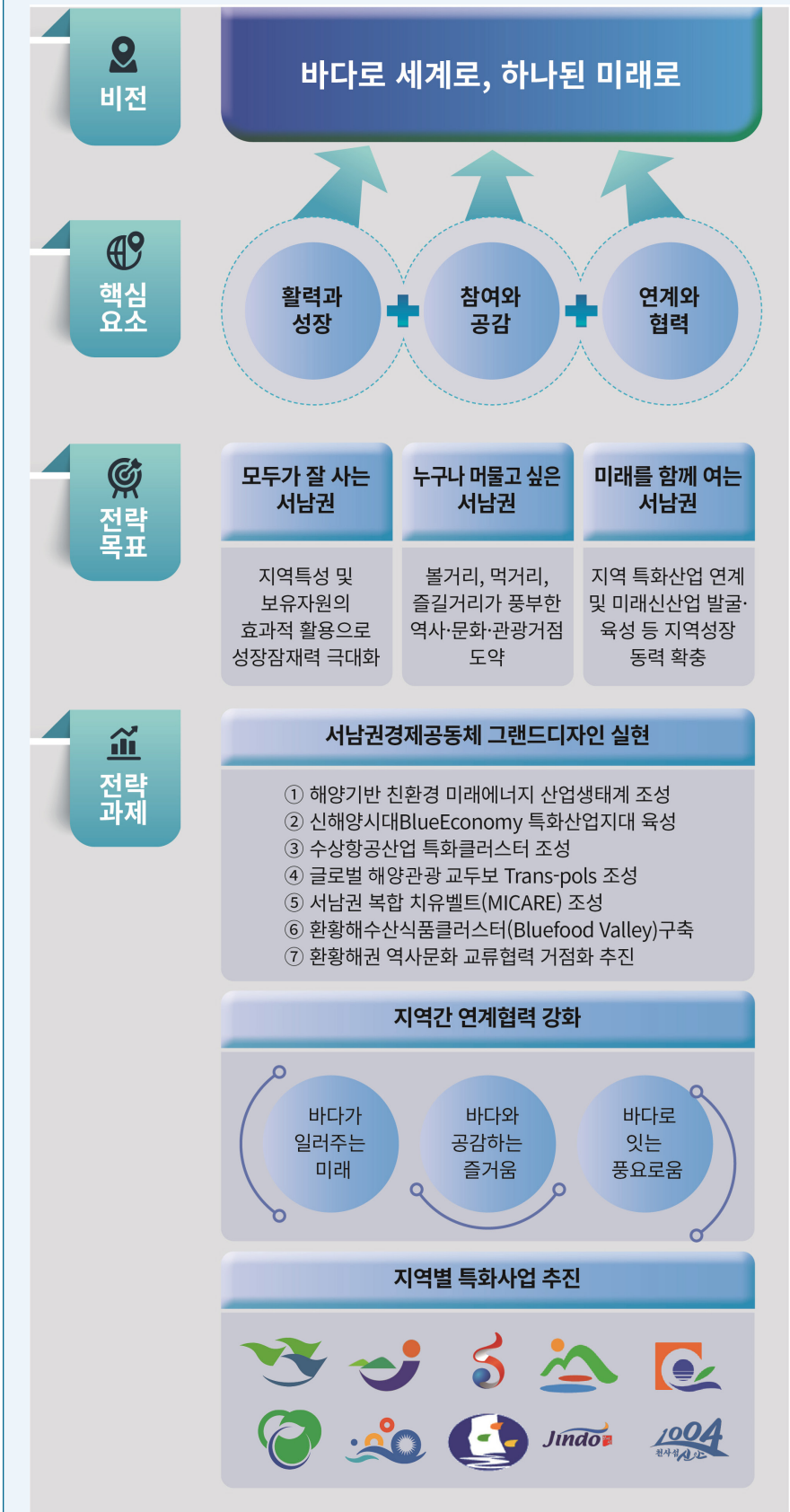
- 산림자원, 한방자원, 경관자원, 친환경 농수산물 등을 활용한 휴양·치유 관광지 개발
- 수산물, 친환경 농산물 등을 활용한 보양과 휴양기능이 중심이 되는 LOHAS형 관광개발
- 슬로시티, 슬로푸드를 중심으로 라이프형 건강관광지역 조성
- 남도의 역사문화와 문학자원을 통한 역사·특화벨트 구축

그림 Ⅰ-2-16
전남권 권역별 관광개발 공간 구상



6. 서남권 종합발전 기본구상(2019~2030)

그림 Ⅰ-2-17
서남권 종합발전 기본구상 비전 체계도



(1) 계획의 비전

- 바다로 세계로, 하나된 미래로

(2) 기본목표

- 모두가 잘 사는 서남권
  - 지역특성 및 보유자원의 효과적 활용으로 성장잠재력 극대화
- 누구나 머물고 싶은 서남권
  -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역사·문화·관광거점 도약
- 미래를 함께 여는 서남권
  - 지역 특화산업 연계 및 미래신산업 발굴·육성 등 지역성장동력 확충

(3) 전략과제

- 서남권 경제공도체 그랜드디자인 실현
  - 해양기반 친환경 미래에너지 산업생태계 조성
  - 신해양시대 Blue Economy 특화산업지대 육성
  - 수상항공산업 특화클러스터 조성
  - 글로벌 해양관광 교두보 Trans-plos 조성
  - 서남권 복합 치유벨트(MICARE) 조성
  - 환황해 수산식품클러스터(Blue-food Valley) 구축
  - 환황해권 역사문화 교류협력 거점화 추진
-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
  - 바다가 일러주는 미래
  - 바다와 공감하는 즐거움
  - 바다로 잇는 풍요로움
-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제4절

기존계획평가

분 야	지 표		단 위	계 획			2019 (현황)
				2010	2015	2020	
인 구	총인구		천명	1,918	1,953	1,983	1,869
경 제 (소득·생산)	지역총생산	명목 실질	십억원 십억원	72,223 59,482	102,182 73,700	144,570 91,314	76,948 74,618
	취업구조 - 1차산업 - 2차산업 - 3차산업		% % %	29.5 9.4 61.1	19.3 9.8 70.9	15.1 10.1 74.8	19.6 10.7 69.6
보 건 의 료 사 회 복 지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유아(0~4세) 천명당 보육시설수 노인(60세이상)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명	13.5 14.2 18.4 15.2 2.0	16.5 14.7 19.3 19.3 2.2	19.0 15.3 20.2 23.4 2.4	23.8 23.5 21.8 22.4 2.6
교 육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인구 십만명당 체육시설수		명 명 개소 개소	23.5 17.0 7.4 113.4	21.0 14.9 11.6 136.5	18.5 13.0 15.3 160.0	18.4 11.7 12.1 150.3
상·하수도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 %	74.8 69.5	84.0 78.0	93.9 87.1	90.7 82.1
환 경 보 전	주암호 상수원 수질 영산강 수질(나주지점) 1인당 폐기물 발생량		등급 등급 kg/일	Ⅰb Ⅲ 0.90	Ⅰa Ⅲ 0.85	Ⅰa Ⅱ 0.80	Ⅰa Ⅳ 1.12

주1. 실적치는 2020년 전라남도 통계연보(2019년기준), 비율은 목표연도('20년) 대비 비율
주2. 상하수도보급률은 '19년기준
주3. 환경보전 분야 실적은 2019년 전국수질평가보고서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9년도)

제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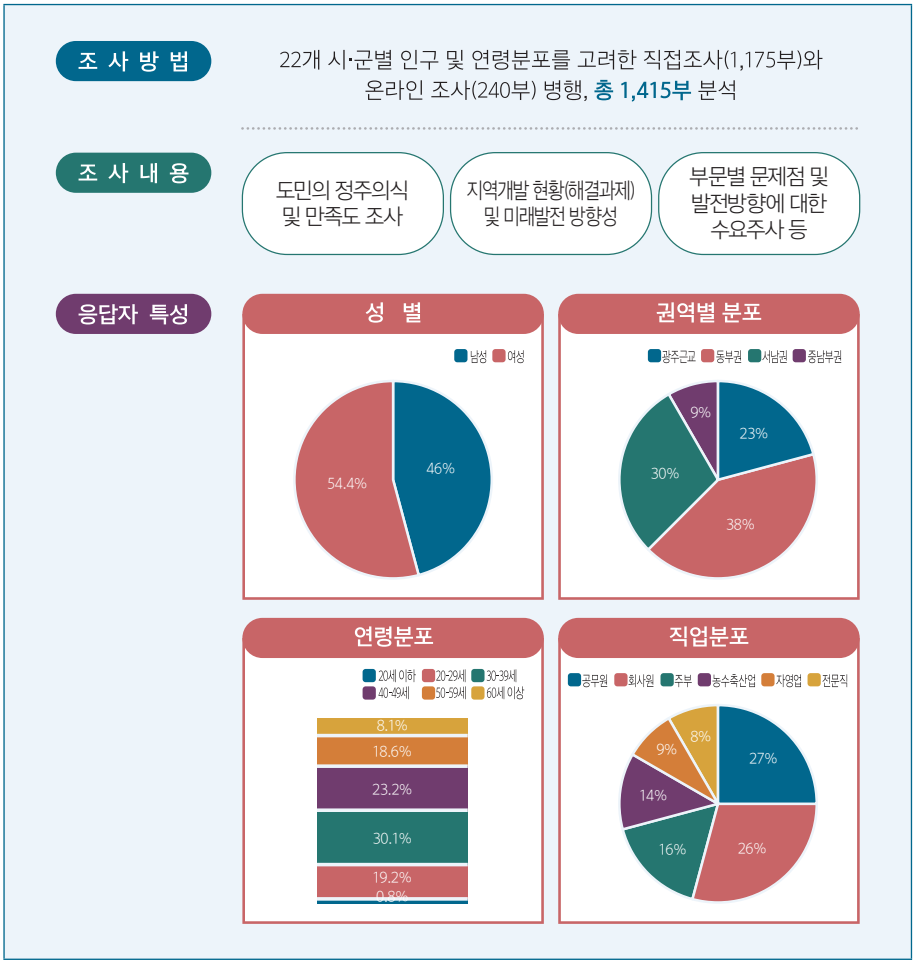
도민의식 및 수요조사

1. 조사 개요

조사 목적

- 도민의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 지역발전의 방향성 및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의 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
  -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전남형 뉴딜 등 역점 추진정책에 대한 지역민의 인지도 및 향후 중점 추진분야 등에 대한 조사 포함
-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오프라인 조사 실시

그림 Ⅰ-2-18
도민 의식 및 수요조사 개요



조사 방법 및 내용

- 조사기간 : 2020년 9월 23일~10월 14일 (3주간)
- 조사방법 : 전라남도 22개 시·군별 인구 및 연령별 분포를 고려하여 시·군의 협조로 직접조사(1,175부)와 SNS를 통한 온라인조사(240부)를 병행하였으며, 총 1,415부를 분석에 활용

- 조사내용
  - 전라남도 도민의 정주의식 및 만족도
  - 전라남도 지역개발 현황(해결과제) 및 미래발전 방향성
  - 부문별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한 주민수요 등

-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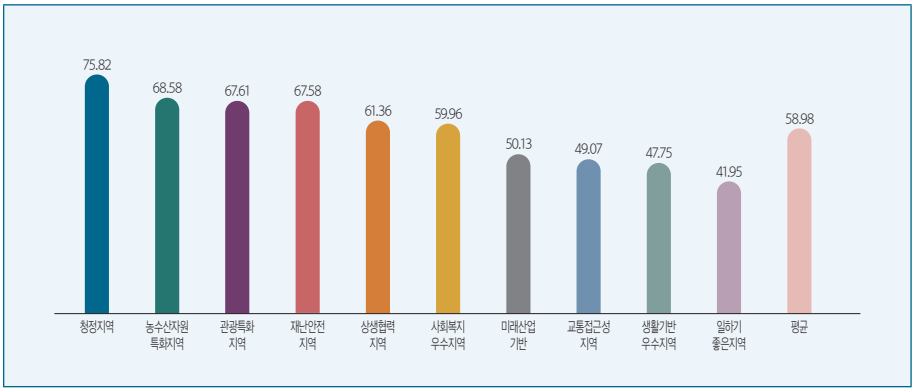
내 용	분 포
성 별	남성(45.63%), 여성(54.37%)
권역별 분포	광주근교권(23.41%), 동부권(38.23%), 서남권(29.64%), 중남부권(8.74%)
	동부권(41.95%), 서남부권(36.30%), 광주근교권(21.75%)
연령별 분포	20세 미만(0.78%), 20~29세(19.19%), 30~39세(30.14%), 40~49세(23.24%), 50~59세(18.55%), 60세(6.54%), 70세 이상(1.56%)
직업 분포	공무원(22.67%), 회사원(21.45%), 주부(12.83%), 농수축산업(11.90%), 자영업(7.56%), 전문직(6.20%), 학생(4.70%), 무직/기타(12.69%)
거주기간 분포	3년 미만(8.71%), 3~5년(8.42%), 6~10년(13.28%), 11~20년(16.77%), 20년 이상(52.82%)

2. 전라남도에 대한 인식

전라남도의 지역 이미지

-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한 청정지역(75.82점[2])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수산자원 특화지역(68.58점), 관광특화지역(67.61점), 재난안전지역(67.58점)에 대한 인식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청년, 고령자 등 누구나 일하기 좋은 지역(41.95점)이라는 인식은 매우 낮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생활기반우수지역(47.75점), 교통접근성지역(49.07점), 미래산업기반(50.13점) 등에 대한 인식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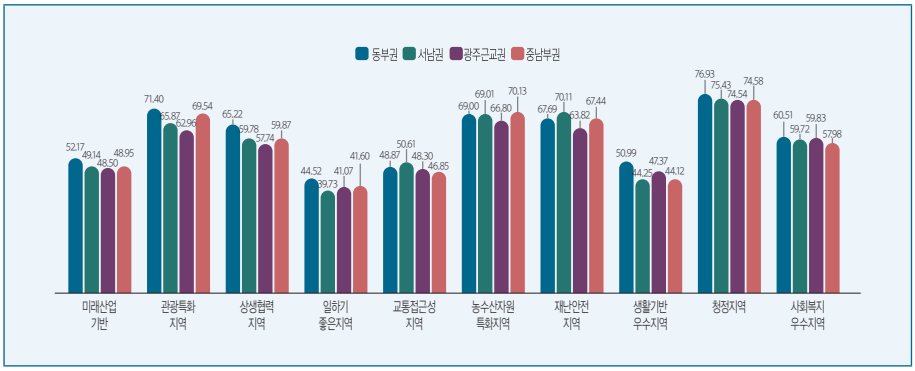
그림 Ⅰ-2-19
전라남도에 대한 인식



2) 설문측정은 5점 척도(Likert-type scale)로 이뤄졌으며, 응답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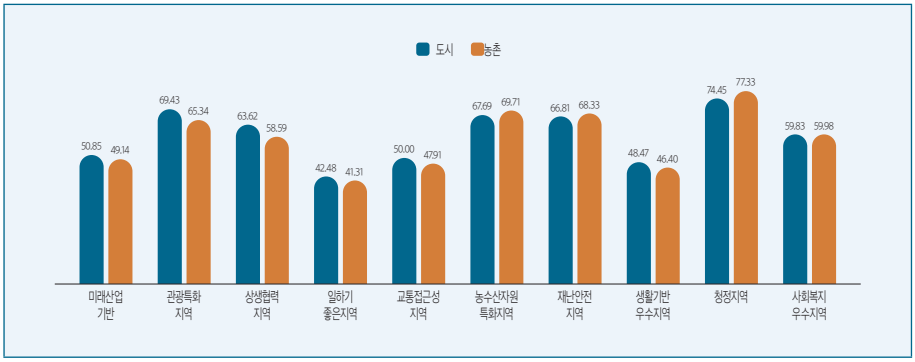
- 전라남도 4개 권역별(동부권, 서남권, 광주근교권, 중남부권) 지역민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동부권 및 중남부권은 관광특화지역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서남권 및 광주근교권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Ⅰ-2-20
권역별 전라남도 인식 차이



- 전라남도의 도시 및 농어촌 지역민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도농간 큰 차이는 없으나, 도시 거주민은 관광특화지역, 상생협력지역을, 농어촌 거주민은 청정지역에 대한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남

그림 Ⅰ-2-21
도농간 전라남도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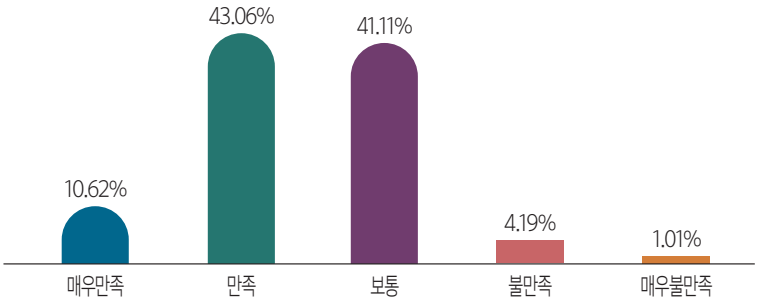


정주 만족도 및 향후 거주의향

- 전라남도 거주만족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매우 만족(10.62%), 만족(43.06%)로 긍정적인 응답이 53.68%로 나타났으며, 만족도지수는 63.88점으로 나타났음

표 Ⅰ-2-27
전라남도 거주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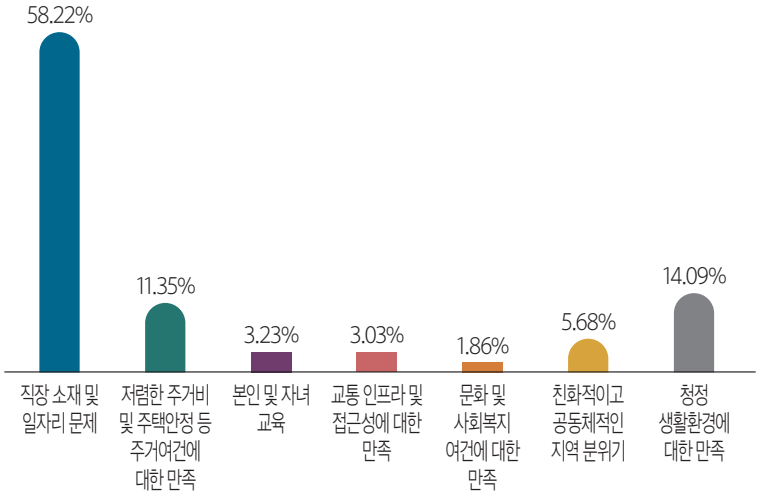
항 목	응답 수	비 중
매우 만족	147	10.62%
만족	596	43.06%
보통	569	41.11%
불만족	58	4.19%
매우 불만족	14	1.01%
Total	1,384	100%



- 전체 조사대상자에게 현재의 거주지역(시/군)에 계속 거주할 계획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23%가 향후에도 전라남도에 계속 거주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거주지역에 계속 거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 소재 및 일자리 문제(58.22%)가 가장 큰 이유이고, 청정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14.09%), 주거여건에 대한 만족(11.35%) 등이 그 뒤를 이음

표 Ⅰ-2-28
전라남도에 거주하려는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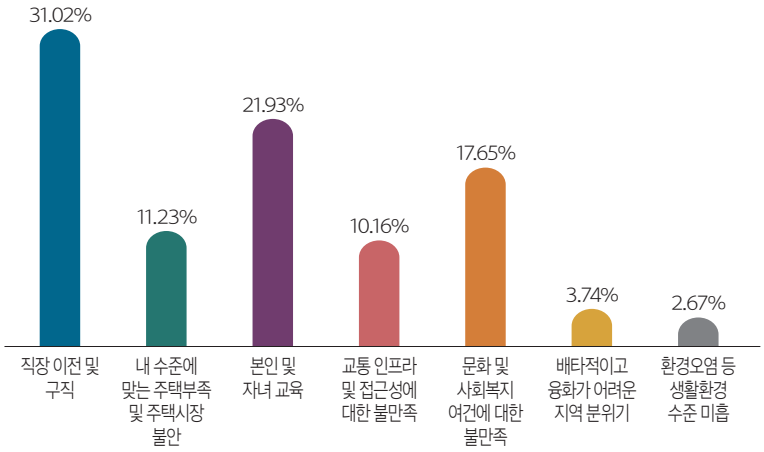
항 목	응답 수	비 중
직장 소재 및 일자리 문제	595	58.22%
저렴한 주거비 및 주택안정 등 주거 여건에 대한 만족	116	11.35%
본인 및 자녀 교육	33	3.23%
교통 인프라 및 접근성에 대한 만족	31	3.03%
문화 및 사회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	19	1.86%
친화적이고 공동체적인 지역 분위기	58	5.68%
청정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	144	14.09%
기타	26	2.54%
Total	1,022	100%



● 이주 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의 주된 이유는 직장 이전 및 구직(31.0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 및 자녀교육(21.93%), 문화 및 사회복지 여건에 대한 불만족(17.65%) 순으로 나타남

표 Ⅰ-2-29
전라남도에 거주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

항 목	응답 수	비 중
직장 이전 및 구직	58	31.02%
내 수준에 맞는 주택 부족 및 주택시장 불안	21	11.23%
본인 및 자녀 교육	41	21.93%
교통 인프라 및 접근성에 대한 불만족	19	10.16%
문화 및 사회복지 여건에 대한 불만족	33	17.65%
배타적이고 융화가 어려운 지역 분위기	7	3.74%
환경오염 등 생활환경 수준 미흡	5	2.67%
기타	3	1.60%
Total	18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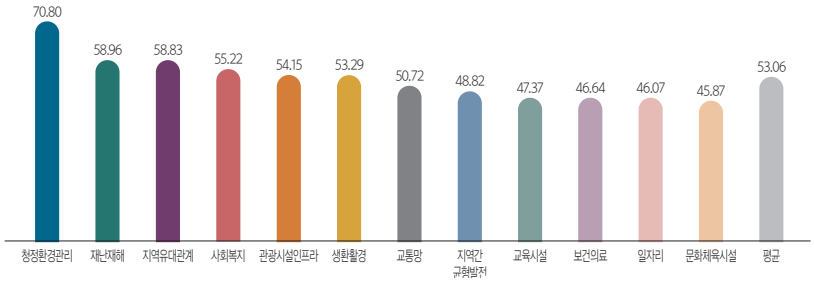
거주여건 만족도

● 현 거주지역의 여건에 대한 평균적인 만족도는 53.06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청정환경 및 경관(70.80점)을 제외하면 모두 60점 이하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문화/공연 및 체육시설(45.87점), 지역내 일자리(46.07점), 보건·의료시설 및 서비스(46.64점), 교육시설 및 교육지원 혜택(47.37점), 시·군 및 지역간 균형 발전(48.82점) 여건이 낮은 수준을 보임

표 Ⅰ-2-30
거주여건 만족도(100점 만점)

항목	지역간 균형발전	주거여건 및 생활활경	교통망 및 교통수단	지역내 일자리	관광시설 인프라	문화체육 시설
지수	48.82	53.29	50.72	46.07	54.15	45.87
항목	교육시설 및 지원 혜택	보건의료 시설 및 서비스	사회복지 시설 및 서비스	재난재해 대응관리	청정환경 및 경관	공동체 의식 및 유대관계
지수	47.37	46.64	55.22	58.96	70.80	58.83



- 권역별로는 중남부권의 거주여건 만족도가 타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남부권의 경우, 지역간 균형발전, 생활환경, 교통망, 교육시설, 보건의료 등의 항목에서 권역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전반적으로 동부권이 타 권역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가운데, 서남권은 일자리, 관광시설 인프라, 문화·체육시설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광주근교권은 청정환경·경관 및 지역 유대관계 등에서 낮게 나타남

표 Ⅰ-2-31
권역별 거주여건 만족도

구분	동부권	서남권	광주근교권	중남부권
시·군 및 지역간 균형발전	50.87	47.18	52.27	45.76
주거여건 및 생활환경(시설)	56.07	53.70	55.13	47.67
교통망 및 교통수단	52.70	51.01	54.34	44.92
지역내 일자리	48.89	43.95	48.82	44.92
지역내 관광시설 인프라	58.06	53.45	54.01	53.60
문화/공연 및 체육시설	47.35	45.61	47.71	46.40
교육시설 및 교육지원 혜택	49.71	46.18	50.24	43.43
보건·의료시설 및 서비스	47.30	45.18	52.13	44.28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57.05	55.76	56.78	54.03
재난·재해 대응관리	61.53	60.83	57.99	59.53
청정환경 및 경관	73.31	73.05	70.58	71.40
지역공동체 의식 및 유대관계	61.05	60.36	58.94	59.32
평균	55.32	53.02	54.91	51.27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청정환경·경관을 제외한 제반 여건에 있어 농어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표 Ⅰ-2-32
도·농간 거주여건 만족도

구분	지역간 균형 발전	주거여건 및 생활활경	교통망 및 교통수단	지역내 일자리	관광시설 인프라	문화체육 시설	평균
도시권	51.28	56.73	54.83	48.28	57.03	47.03	
농촌권	47.73	51.60	48.20	45.58	53.30	46.68	
구분	교육시설	보건의료시설 및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재난재해 대응관리	청정환경 및 경관	공동체 의식 및 유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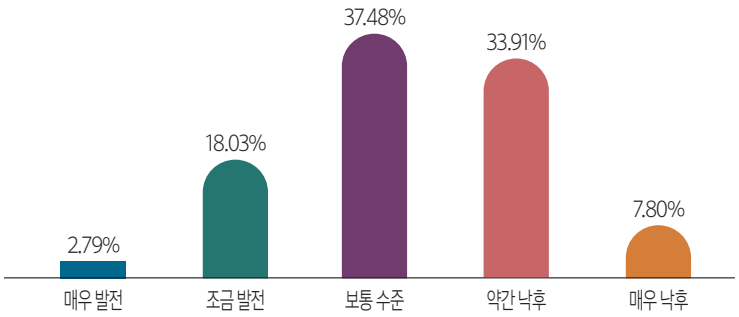
구분	교육시설	보건의료시설 및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재난재해 대응관리	청정환경 및 경관	공동체 의식 및 유대관계	평균
도시권	49.90	48.70	57.28	60.58	71.18	60.33	52.53
농촌권	46.23	46.10	55.18	60.03	73.95	60.03	48.85

지역발전 수준

- 전라남도의 전체적인 지역발전 수준(평균 43.53점)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매우 발전(2.79%), 조금 발전(18.03%) 등으로 20.82%, 약간 낙후(33.91%), 매우 낙후(7.80%) 등 부정적인 응답의 2배 가까운 41.71%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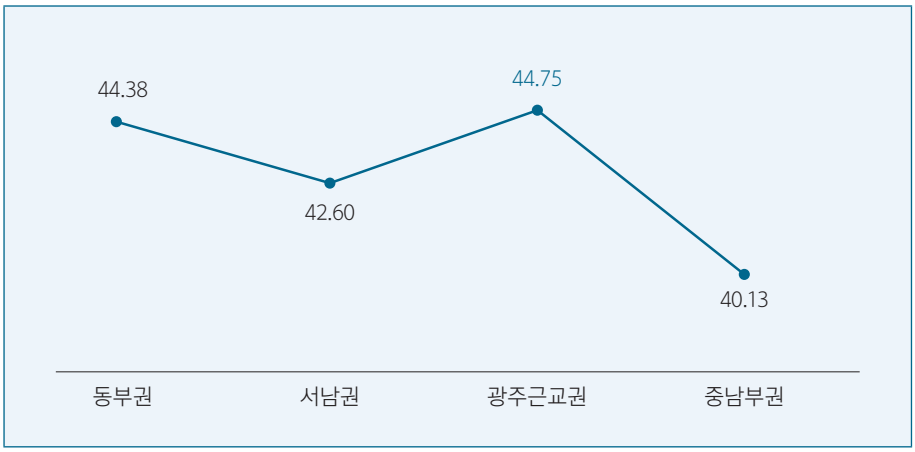
표 Ⅰ-2-33
전라남도 지역발전수준 평가

항 목	응답 수	비 중
매우 발전	39	2.79%
조금 발전	252	18.03%
보통 수준	524	37.48%
약간 낙후	474	33.91%
매우 낙후	109	7.80%
Total	1,398	100%



- 권역별로는 광주근교권 주민(44.75점)의 지역발전에 대한 수준이 가장 높게 평가된 반면, 중남부권(40.13점)은 지역발전 수준이 가장 낮게 평가됨

그림 Ⅰ-2-22
권역별 지역발전 인식도 (10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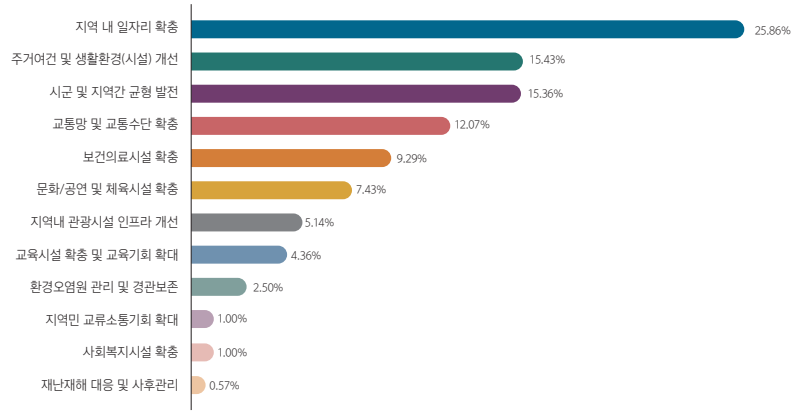


지역발전 개선과제

- 전라남도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지역 내 일자리 확충(25.86%)'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15.43%), 시·군 및 지역간 균형발전(15.36%), 교통망 및 교통수단 확충(12.07%) 순으로 나타남

표 Ⅰ-2-34
지역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항목	시군 및 지역간 균형 발전	주거여건 및생활환경 (시설) 개선	교통망 및 교통수단 확충	지역 내 일자리 확충	지역내 관광시설 인프라 개선	문화/공연 및 체육시설 확충	Total
응답수	215	216	169	362	72	104	
비중	15.36%	15.43%	12.07%	25.86%	5.14%	7.43%	
항목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기회 확대	보건의료 시설 확충	사회복지 시설 확충	재난재해 대응 및 사후관리	환경오염원 관리 및 경관보존	지역민교류 소통기회 확대	
응답수	61	130	14	8	35	14	1,400
비중	4.36%	9.29%	1.00%	0.57%	2.50%	1.00%	100.00%



- 권역별로 보면, 동부권은 주거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서남권은 지역내 일자리 확충을, 광주근교권은 시·군 및 지역간 균형발전, 중남부권은 교통망 및 교통수단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특히 동부권과 중남부권의 경우, 보건·의료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Ⅰ-2-35
권역별 개선과제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시·군 및 지역간 균형 발전	20.31%	12.08%	15.40%	15.97%
주거여건 및 생활환경(시설) 개선	14.77%	19.43%	12.22%	10.92%
교통망 및 교통수단 확충	11.08%	13.40%	9.05%	17.65%
지역 내 일자리 확충	24.92%	21.32%	32.52%	26.05%
지역내 관광시설 인프라 개선	5.85%	4.72%	5.38%	4.20%
문화/공연 및 체육시설 확충	6.46%	8.49%	8.31%	3.36%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기회 확대	5.23%	3.40%	5.87%	1.68%
보건·의료시설 확충	4.31%	12.64%	7.82%	12.61%
사회복지시설 확충	0.92%	1.13%	0.73%	1.68%
재난·재해 대응 및 사후관리	1.54%	0.57%	0.00%	0.00%
환경오염원 관리 및 경관보존	3.69%	1.89%	1.47%	5.04%
지역민 교류소통기회 확대	0.92%	0.94%	1.22%	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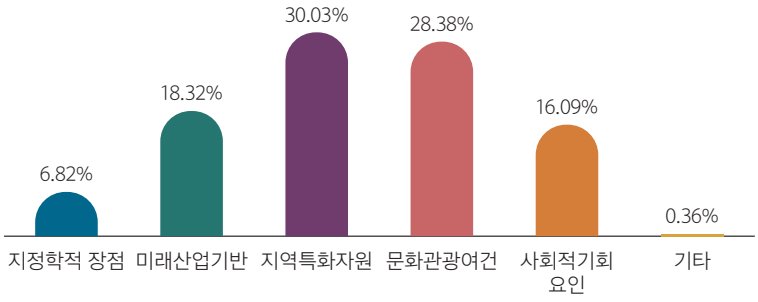
3. 전라남도 발전잠재력 및 미래 방향성

지역발전 잠재요인

-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요인으로는 지역 특화자원(농수축산물, 지역특산품 등), 문화관광여건(자연문화역사자원, 관광기반시설 등) 등을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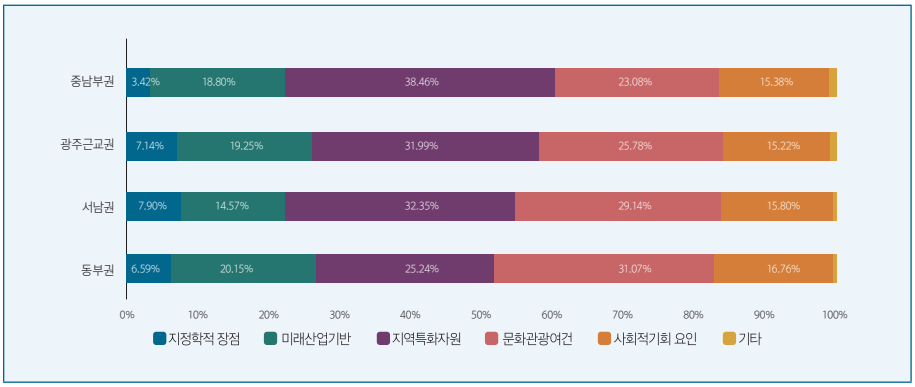
표 Ⅰ-2-36
지역발전 잠재요인

항 목	응답 수	비 중
지역특화자원	418	30.03%
문화·관광 여건	395	28.38%
미래산업 기반	255	18.32%
사회적 기회 요인	224	16.09%
지정학적 장점	95	6.82%
기타	5	0.36%
Total	1,392	100%



- 권역별로는 동부권의 경우 문화·관광여건 및 에너지·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산업 기반, 서남권, 광주근교권, 중남부권은 농수축산물 및 지역특산품 중심의 지역특화자원과 문화·관광여건을 지역발전의 잠재요인으로 제시함

그림 Ⅰ-2-23
권역별 발전요인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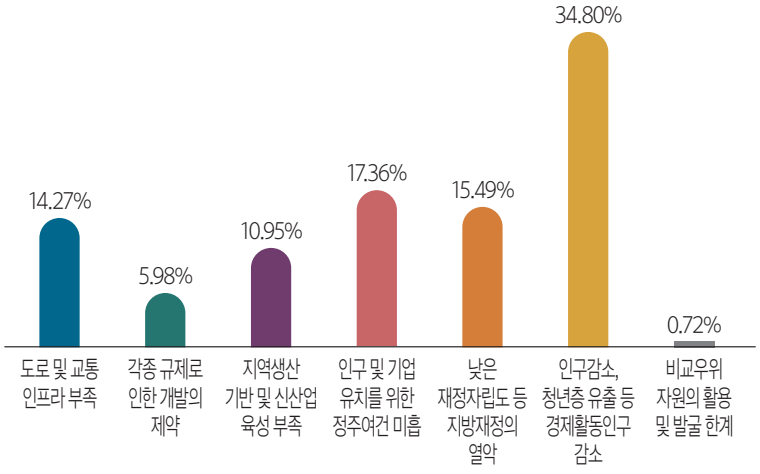


지역발전 장애요인

-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인구감소, 청년층 유출 등 경제활동인구 감소(34.8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구 및 기업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미흡(17.36%), 낮은 재정자립도 등 지방재정 열악(15.49%), 도로 및 교통인프라 부족(14.27%) 순으로 나타남

표 Ⅰ-2-37
지역발전 장애요인

항 목	응답 수	비 중
도로 및 교통인프라 부족	198	14.27%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의 제약	83	5.98%
지역생산기반 및 신산업 육성 부족	152	10.95%
인구 및 기업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미흡	241	17.36%
낮은 재정자립도 등 지방재정의 열악	215	15.49%
인구감소, 청년층 유출 등 경제활동인구 감소	483	34.80%
비교우위자원의 활용 및 발굴 한계	10	0.72%
기타	6	0.43%
Total	1,38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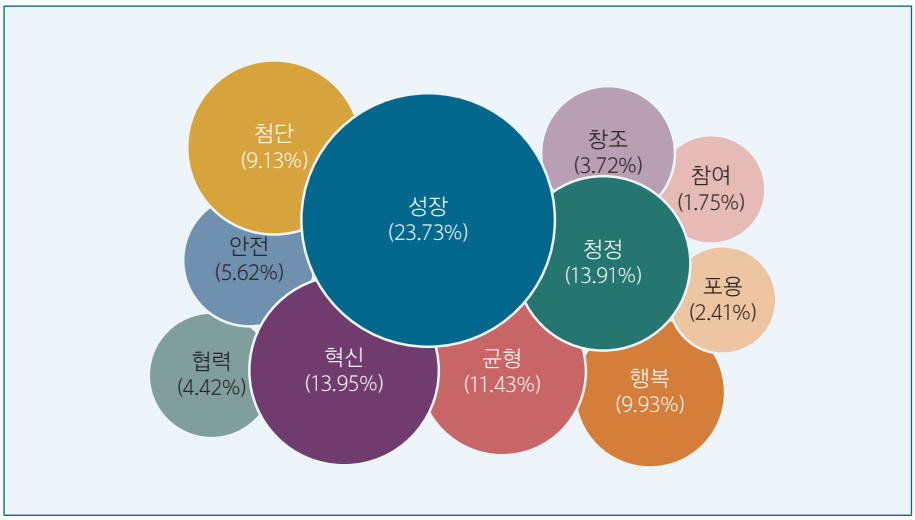


- 권역별로는 중남부권과 서남권에서 인구감소, 청년층 유출 등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주된 요인으로 지적하였으며, 광주근교권은 낮은 재정자립도 등 지방재정문제를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 지적함
- 특히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에서 인구감소, 청년층 유출 등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가장 주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함

전라남도가 추구해야 할 미래 가치

- 전라남도가 추구해야 할 미래 가치로는 성장(23.7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혁신(13.95%), 청정(13.91%), 균형(11.43%) 등이 그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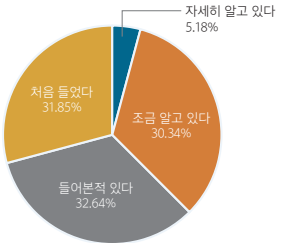
그림 Ⅰ-2-24
전라남도의 미래 가치



전라남도 새천년 비전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인지도

- 전라남도 미래발전을 위한 새천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지역민은 68.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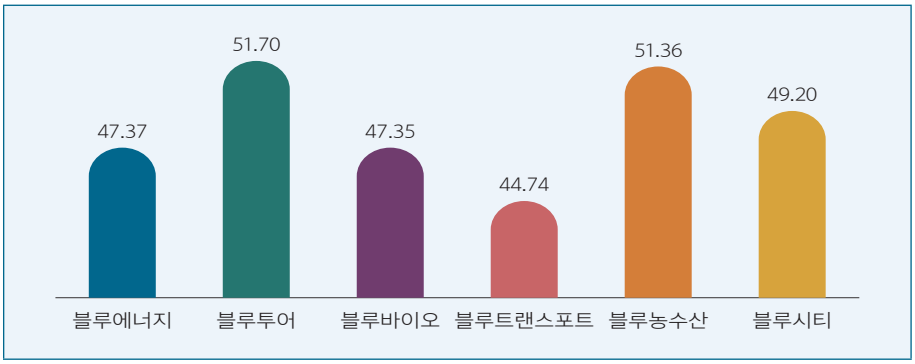
표 Ⅰ-2-38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인지도



항 목	응답 수	비 중
자세히 알고 있다	72	5.18%
조금 알고 있다	422	30.34%
들어본 적 있다	454	32.64%
처음 들었다	443	31.85%
Total	1,391	100%

- 전라남도의 미래 혁신전략으로 블루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평가한 결과, 섬·해안 등 관광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블루투어'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환경 농수산물 중심 미래 생명산업 메카 구축을 위한 '블루농수산', '블루시티', '블루에너지', '블루바이오', '블루트랜스포트'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Ⅰ-2-25
블루이코노미 분야별 중요도



- 블루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에 대한 권역별 중요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 동부권의 경우 블루시티, 서남권의 경우 블루투어 및 블루트랜스포트, 광주근교권의 경우 블루에너지 및 블루바이오, 중남부권의 경우 블루농수산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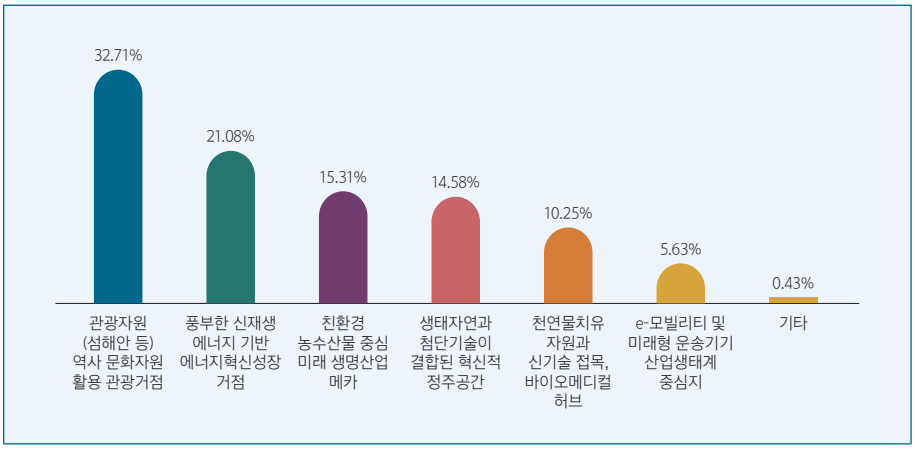
표 Ⅰ-2-39
권역별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 중요도

구분	블루에너지	블루투어	블루바이오	블루트랜스포트	블루농수산	블루시티
동부권	70.06	76.80	70.69	67.89	75.36	74.78
서남권	71.22	78.87	71.56	68.21	77.66	74.66
광주근교권	72.71	75.85	71.62	66.26	76.21	70.05
중남부권	65.67	77.30	64.47	56.91	82.57	72.37

전라남도의 미래발전 방향

- 전라남도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전체의 32.71%에 달하는 응답자가 '섬·해안 등 관광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거점(블루투어)'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냄
  - 다음으로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혁신성장 거점(블루에너지), 친환경 농수산물 중심 미래 생명산업 메카(블루농수산), 천연물·치유자원과 신기술 접목, 바이오메디컬 허브(블루바이오)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Ⅰ-2-26
전라남도 미래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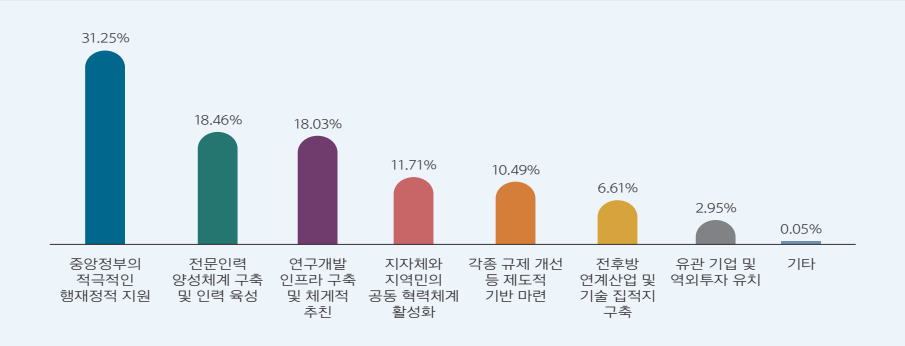
- 광주근교권의 경우, 지역의 중점 육성분야를 반영한 블루에너지, 블루바이오, 블루트랜스포트 분야에 있어 타 권역 대비 상대적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남
  - 동부권과 서남권의 경우 관광자원(섬·해안 등), 역사·문화자원 활용 관광거점 추진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남부권의 경우 친환경 농수산물 중심 미래 생명산업 메카 추진을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Ⅰ-2-40
권역별 미래발전 방향

구분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혁신 성장 거점	관광자원 (섬·해안 등), 역사·문화 자원 활용 관광거점	천연물치유 자원과 신기술 접목, 바이오메디컬 허브	e-모빌리티 및 미래형 운송기기산업 생태계중심지	친환경 농수산물중심 미래생명 산업 메카	생태자연과 첨단기술이 결합된혁신적 정주공간
동부권	19.85%	35.73%	9.64%	6.05%	9.45%	18.71%
서남권	21.64%	35.32%	9.70%	4.98%	17.41%	10.45%
광주근교권	25.78%	24.84%	10.87%	7.76%	18.01%	12.73%
중남부권	12.17%	33.91%	10.43%	0.87%	27.83%	13.91%

- 전라남도의 미래발전 방향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살펴본 결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31.25%)이 최우선적인 선결과제로 나타났으며,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및 인력 육성(18.46%),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 추진(18.03%)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뒤를 이름

그림 Ⅰ-2-27
전라남도 미래발전을 위한 선결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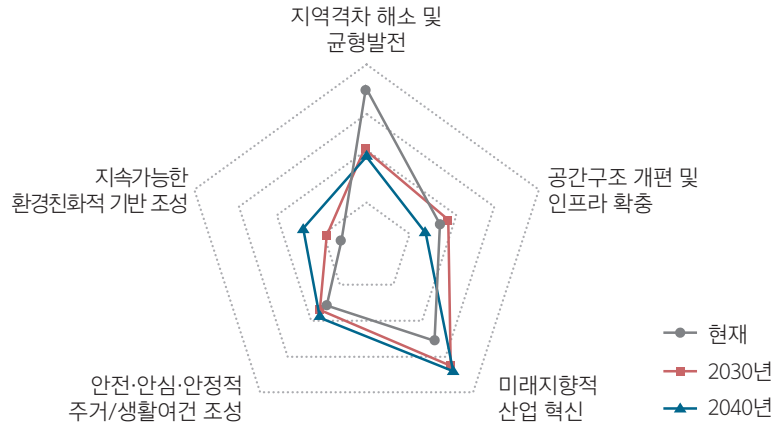


전라남도의 성장·발전을 위한 시기별 중점분야

- 현재 전라남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로, 지역 간 격차·양극화 해소 및 균형발전(35.26%)이 1순위로, 공간구조 개편 및 인프라 확충(교통·물류 포함)(26.29%)이 2순위로 응답함
  - 현 시점의 중점분야와는 달리, 10년 후인 2030년과 2040년의 성장 및 발전 방향으로는 농어업/기존산업·신산업/관광업 중심의 미래지향적 산업 혁신을 우선순위로 제시함
  - 2030년의 경우 공간구조 개편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040년에는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짐

표 Ⅰ-2-41
전라남도의 성장·발전을 위한 시기별 중점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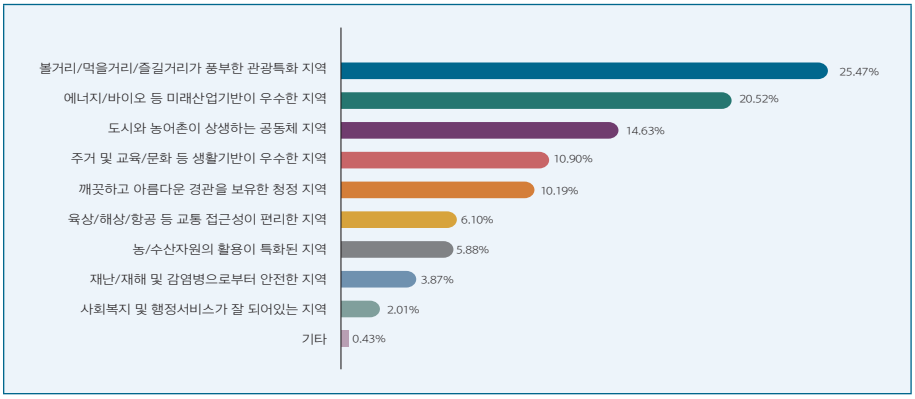
구분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공간구조 개편 및 인프라 확충	미래지향적 산업혁신	안전·안심·안정적주거·생활여건 조성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기반 조성
현 재	35.26%(1순위)	17.50%(3순위)	25.17%(2순위)	15.76%(4순위)	6.38%(5순위)
2030년	22.57%(2순위)	19.22%(3순위)	31.94%(1순위)	17.20%(4순위)	9.11%(5순위)
2040년	21.14%(2순위)	13.51%(5순위)	32.42%(1순위)	18.00%(3순위)	14.95%(4순위)



전라남도의 미래모습

- 전라남도의 미래모습에 대해 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가 풍부한 관광특화지역(25.47%)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에너지·바이오 등 미래산업기반이 우수한 지역(20.52%),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공동체 지역(14.63%)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Ⅰ-2-28
전라남도의 미래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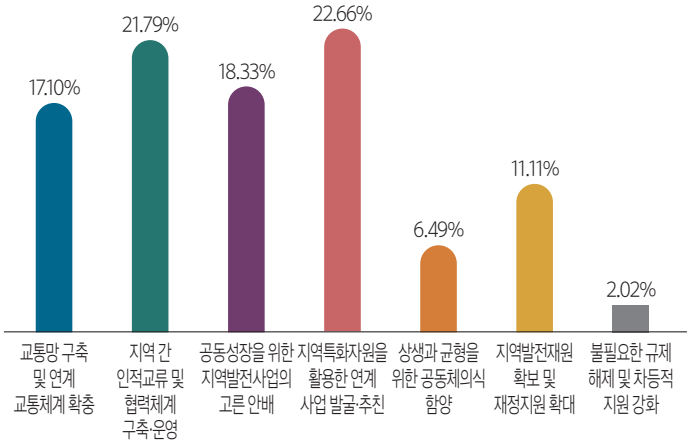
4. 부문별 정책추진 방향

지역간 상생 및 균형발전

- 시·군간 상생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22.66%)'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고, '지역간 인적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21.79%)'이 다음으로 이어 지역간 연계·협력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남
  - 이외에도 '공동성장을 위한 지역발전사업의 고른 안배(18.33%)', '교통망 구축 및 연계 교통체계 확충(17.10%)' 등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발전 재원 확보 및 재정지원 확대(11.11%) 등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주요한 것으로 제시

표 Ⅰ-2-42
지역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항 목	응답 수	비 중
교통망 구축 및 연계 교통체계 확충	237	17.10%
시/군, 지역 간 인적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302	21.79%
공동성장을 위한 지역발전사업의 고른 안배	254	18.33%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314	22.66%
상생과 균형을 위한 공동체 의식 함양	90	6.49%
지역발전 재원 확보 및 재정지원 확대	154	11.11%
불필요한 규제 해제 및 차등적 지원 강화	28	2.02%
기타	7	0.51%
Total	1,38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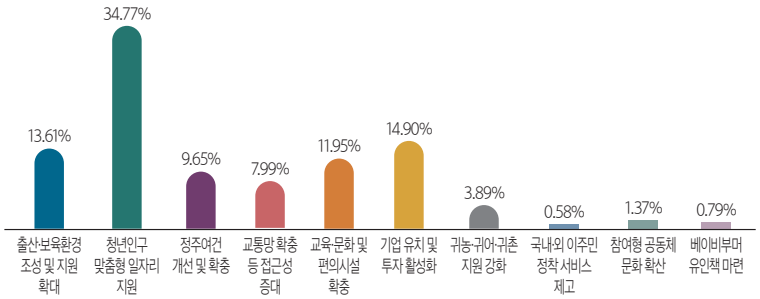


인구증대 및 유출방지

-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는 전라남도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인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34.77%)'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14.90%)', '출산·보육환경 조성 및 지원 확대(13.61%)', '교육·문화 및 편의시설 확충(11.95%)'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Ⅰ-2-43
인구증대 및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

항 목	응답 수	비 중
출산·보육환경 조성, 지원 확대	189	13.61%
청년인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483	34.77%
정주여건 개선 및 확충	134	9.65%
교통망 확충 등 접근성 증대	111	7.99%
교육/문화 및 편의시설 확충	166	11.95%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207	14.90%
귀농/귀어/귀촌 지원 강화	54	3.89%
국내·외 이주민 정착서비스 제고	8	0.58%
참여형 공동체 문화 확산	19	1.37%
베이비부머 유인책 마련	11	0.79%
기타	7	0.50%
Total	1,38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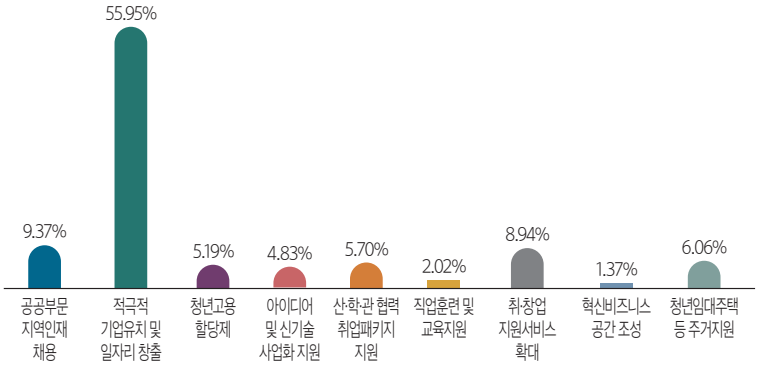
청년인구 감소 대응

- 지역 내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적극적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55.95%)'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공부문의 지역인재 채용(9.37%)'과 '취·창업 지원서비스 확대(8.94%)'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청년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정책과 함께 산학관이 협력한 취업패키지 지원 및 지역에 소재한 이전공공기관 중심의 청년고용 할당제 등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함

표 Ⅰ-2-44
청년인구 감소에 대응한 정책

항 목	응답 수	비 중
공공부문 지역인재 채용	130	9.37%
적극적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776	55.95%
청년고용 할당제	72	5.19%
아이디어 및 신기술 사업화 지원	67	4.83%
산·학·관 협력 취업패키지 지원	79	5.70%
직업훈련 및 교육지원	28	2.02%

항 목	응답 수	비 중
취·창업 지원서비스 확대	124	8.94%
혁신비즈니스 공간 조성	19	1.37%
청년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84	6.06%
기타	8	0.58%
Total	1,38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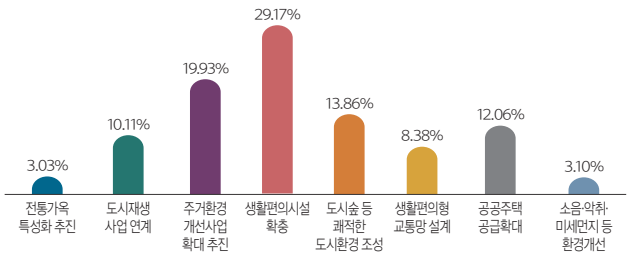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편의시설 확충(29.17%)'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19.93%)', '도시 숲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13.86%)', '공공주택 공급확대(12.06%)' 등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Ⅰ-2-45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항 목	응답 수	비 중
전통가옥 특성화 추진	42	3.03%
도시재생사업 연계	140	10.11%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	276	19.93%
생활편의시설 확충	404	29.17%
도시숲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92	13.86%
생활편의형 교통망 설계	116	8.38%
공공주택 공급확대	167	12.06%
소음·악취·미세먼지 등 환경개선	43	3.10%
기타	5	0.36%
Total	1,38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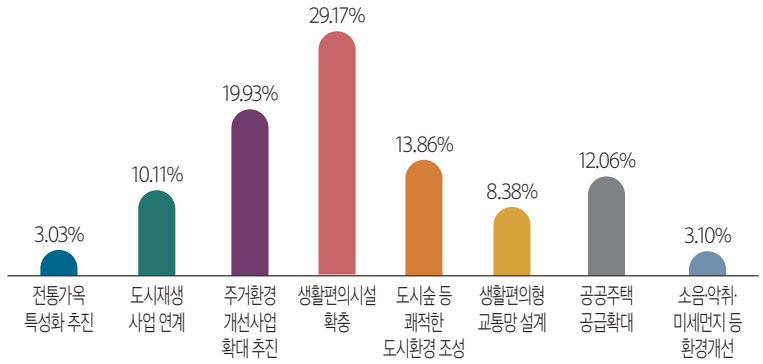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중교통 연계체계 구축(24.19%)'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육·해·공 교통인프라 정비 및 개선(19.78%)', '도로정비·확충사업의 조속 완료(17.04%)', '광역교통망 구축 및 확대(16.75%)'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Ⅰ-2-46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항 목	응답 수	비 중
육해공 교통인프라 정비 및 개선	274	19.78%
대중교통 연계체계 구축	335	24.19%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119	8.59%
첨단기술적용 교통관리체계 도입	106	7.65%
도로정비·확충사업 조속 완료	236	17.04%
연륙·연도교 지속 확충	64	4.62%
광역교통망 구축 및 확대	232	16.75%
승강장 등 시설 현대화	19	1.37%
Total	1,38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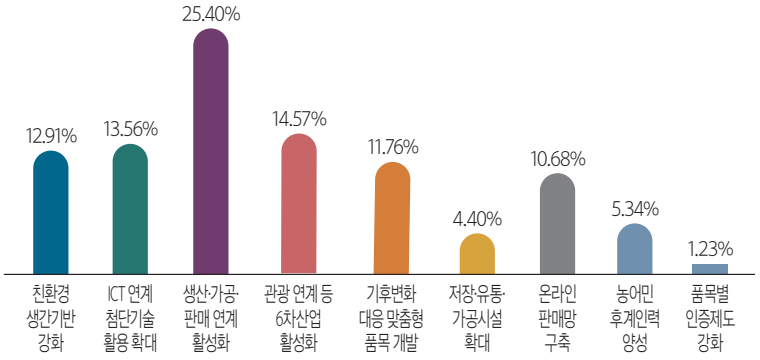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가공-판매 연계 활성화(25.40%)'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관광 연계 등 6차산업 활성화(14.57%)', 'ICT 연계 첨단기술 활용 확대(13.56%)'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나타남

표 Ⅰ-2-47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항 목	응답 수	비 중
친환경 생산기반 강화	179	12.91%
ICT 연계 첨단기술 활용 확대	188	13.56%
생산-가공-판매 연계 활성화	352	25.40%
관광 연계 등 6차산업 활성화	202	14.57%
기후변화 대응 맞춤형 품목 개발	163	11.76%
저장·유통·가공시설 확대	61	4.40%
온라인 판매망 구축	148	10.68%
농어민 후계인력 양성	74	5.34%
품목별 인증제도 강화	17	1.23%

항 목	응답 수	비 중
기타	2	0.14%
Total	1,38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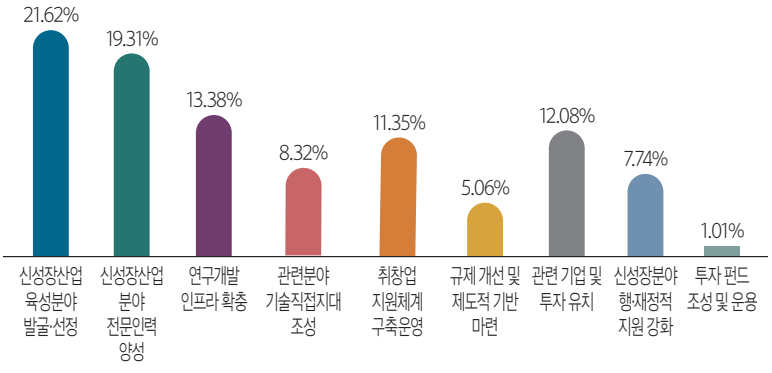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

-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신성장산업 육성분야 발굴 및 선정(21.62%)'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성장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19.31%)',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13.38%)', '신성장산업 관련기업 및 투자 유치(12.08%)'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Ⅰ-2-48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항 목	응답 수	비 중
신성장산업 육성분야 발굴·선정	299	21.62%
신성장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267	19.31%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185	13.38%
관련분야 기술집적지대 조성	115	8.32%
취·창업 지원체계 구축·운영	157	11.35%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	70	5.06%
관련 기업 및 투자 유치	167	12.08%
신성장분야 행·재정적 지원 강화	107	7.74%
투자 펀드 조성 및 운용	14	1.01%
기타	2	0.14%
Total	1,38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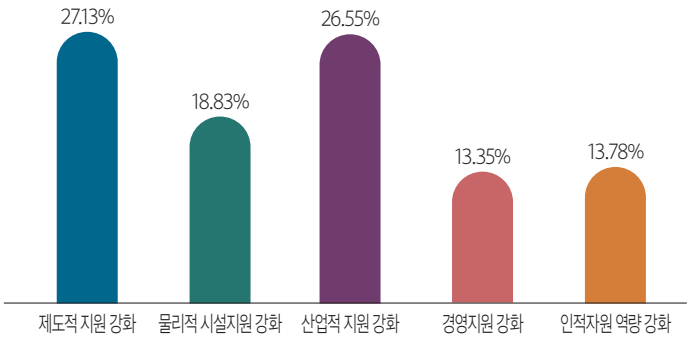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

- 전라남도에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세제 감면,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지원 강화(27.13%)'와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한 '산업적 지원 강화(26.55%)'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업입주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물리적 시설지원 강화(18.83%)'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Ⅰ-2-49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

항 목	응답 수	비 중
제도적 지원 강화 (세제 감면 및 인센티브 제공 등)	376	27.13%
물리적 시설지원 강화 (기업입주 기반 조성 등)	261	18.83%
산업적 지원 강화 (특화단지 조성 및 클러스터 육성 등)	368	26.55%
경영지원 강화 (기업상품 마케팅 및 수출 지원 등)	185	13.35%
인적자원 역량 강화 (산·학 연계 확대 및 교육지원 등)	191	13.78%
기타	5	0.36%
Total	1,38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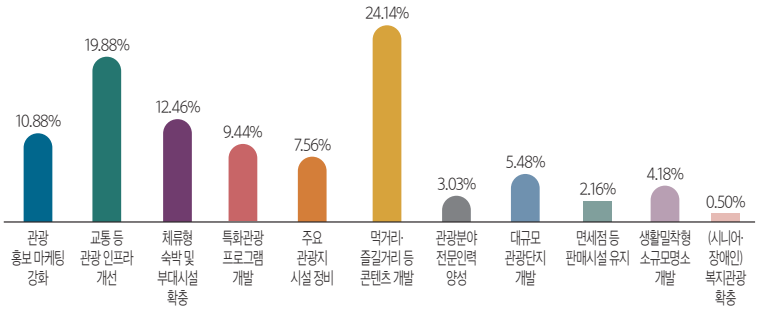
관광산업 활성화

- 전라남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등 콘텐츠 개발(24.14%)'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통 등 관광인프라 개선(19.88%)', '체류형 숙박 및 부대시설 확충(12.46%)', '관광 홍보 및 마케팅 강화(10.88%)' 등이 필요하다고 나타남

표 Ⅰ-2-50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항 목	응답 수	비 중
관광 홍보 및 마케팅 강화	151	10.88%
교통 등 관광인프라 개선	276	19.88%
체류형 숙박 및 부대시설 확충	173	12.46%
특화 관광프로그램(AR/VR) 개발	131	9.44%

항 목	응답 수	비 중
주요 관광지 시설 정비	105	7.56%
먹거리·즐길거리 등 콘텐츠 개발	335	24.14%
관광분야 전문인력 양성	42	3.03%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76	5.48%
면세점 등 판매시설 유치	30	2.16%
생활밀착형 소규모 명소 개발	58	4.18%
시니어/장애인 등 복지관광 확충	7	0.50%
기타	4	0.29%
Total	1,38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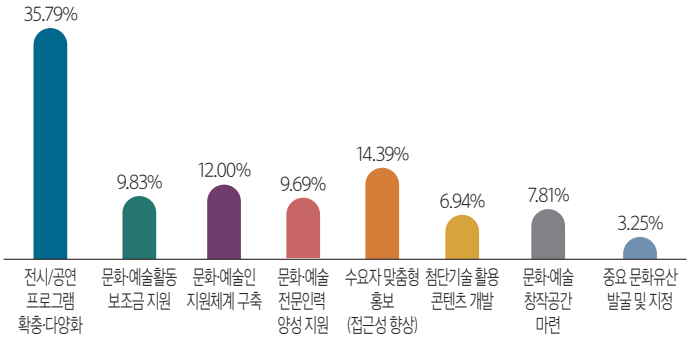


문화·예술 진흥

- 전라남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전시/공연 프로그램 확충 및 다양화(35.79%)'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통한 접근성 향상(14.39%)', '문화·예술인 지원체계 구축(12.00%)'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Ⅰ-2-5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항 목	응답 수	비 중
전시/공연 프로그램 확충·다양화	495	35.79%
문화·예술활동 보조금 지원	136	9.83%
문화·예술인 지원체계 구축	166	12.00%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지원	134	9.69%
수요자 맞춤형 홍보(접근성 향상)	199	14.39%
첨단기술 활용 콘텐츠 개발	96	6.94%
문화·예술 창작공간 마련	108	7.81%
중요 문화유산 발굴 및 지정	45	3.25%
기타	4	0.29%
Total	1,38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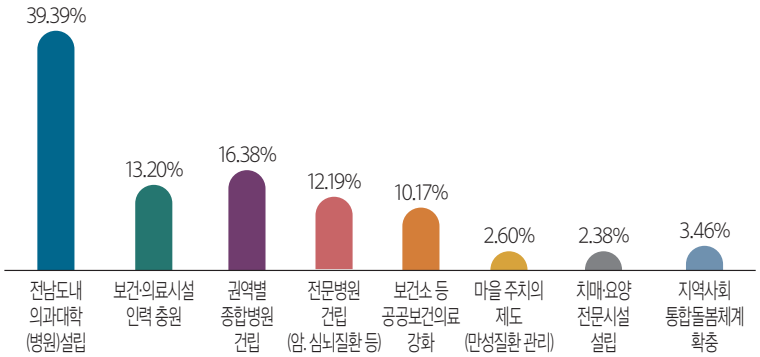


보건·의료체계 개선

- 전라남도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전라남도내 의과대학(병원) 설립(39.39%)'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권역별 종합병원 건립(16.38%)', '보건·의료시설 인력 충원(13.20%)', '암, 심뇌질환 등 전문병원 건립(12.19%)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Ⅰ-2-52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항 목	응답 수	비 중
전라남도내 의과대학(병원) 설립	546	39.39%
보건·의료시설 인력 충원	183	13.20%
권역별 종합병원 건립	227	16.38%
전문병원 건립 (암, 심뇌질환 등)	169	12.19%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 강화	141	10.17%
마을 주치의 제도 (만성질환 관리)	36	2.60%
치매·요양 전문시설 설립	33	2.38%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확충	48	3.46%
기타	3	0.22%
Total	1,38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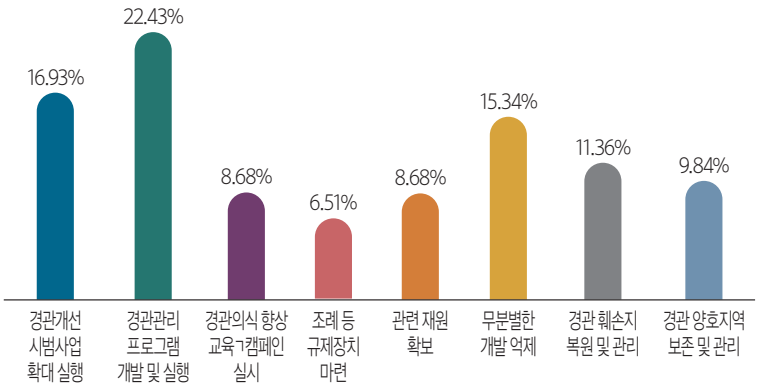


경관 보존 및 개선

- 전라남도만의 특화된 경관 보존 및 개선을 위해서는 '경관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22.43%)'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관개선 시범사업 확대 실행(16.93%)', '무분별한 개발 억제(15.34%)' 및 '경관 훼손지 복원 및 관리(11.36%)'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Ⅰ-2-53
경관 보존 및 개선을 위한 정책

항 목	응답 수	비 중
경관개선 시범사업 확대 실행	234	16.93%
경관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310	22.43%
경관의식 향상 교육·캠페인 실시	120	8.68%
조례 등 규제장치 마련	90	6.51%
관련 재원 확보	120	8.68%
무분별한 개발 억제	212	15.34%
경관 훼손지 복원 및 관리	157	11.36%
경관 양호지역 보존 및 관리	136	9.84%
기타	3	0.22%
Total	1,38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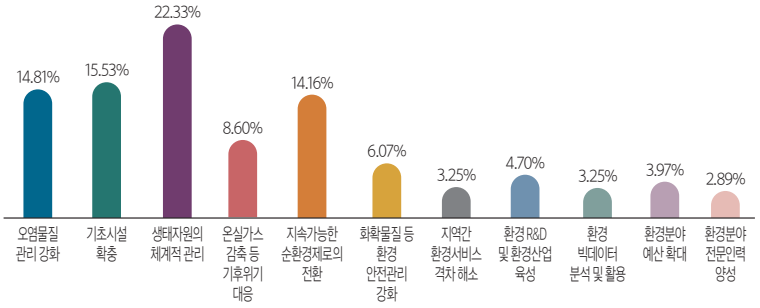
환경 보전 및 관리

- 전라남도의 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는 '생태자원의 체계적인 관리(22.33%)'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하수·쓰레기처리장 등 기초시설 확충(15.53%)',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관리 강화(14.81%)',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14.16%)'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Ⅰ-2-54
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책

항 목	응답 수	비 중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관리 강화	205	14.81%
기초시설(하수·쓰레기처리장) 확충	215	15.53%
생태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309	22.33%

항 목	응답 수	비 중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	119	8.60%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196	14.16%
화학물질 등 환경 안전관리 강화	84	6.07%
지역간 환경서비스 격차 해소	45	3.25%
환경 R&D 및 환경산업 육성	65	4.70%
환경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45	3.25%
환경분야 예산 확대	55	3.97%
환경분야 전문인력 양성	40	2.89%
기타	6	0.43%
Total	1,384	100%



2021~2040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제 2 편
계획의 기본방향

제1장 계획의 기본방향

제1장

계획의 기본방향

제1절 계획 비전과 목표

제2절 주요 계획지표

제3절 공간구상

제1절

계획 비전과 목표

1. 비전과 목표

2040 전남 비전은 "환태평양시대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

- 전라남도는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구현을 위한 고유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전략을 설정
-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2021~2040)」의 비전은 "환태평양시대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으로 설정
- 「신해양시대 한반도 중심축」, 「에너지 대전환의 글로벌 거점」, 「세계적인 관광문화 중심지」 등 3대 목표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을 선정



2.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전략 1) 누구나 살기좋은 활력있는 공간조성

- 지역특성별 맞춤형 공간기능 강화

- 유연한 성장관리를 통한 지역 활성화
- 광역·지역간 SOC 재편 및 확충

(전략 2) 환경과 공존하는 스마트 농수산 생태계 구축

- 저탄소기반 고부가가치 미래 농생명산업 육성
- 미래산업화를 통한 수산업 혁신동력 창출

(전략 3) 그린·디지털 중심 산업 대전환 선도 거점 육성

-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속성장 기반 구축
- 에너지, 뉴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조성
- 차세대 바이오 기술 기반 글로벌 허브 구축

(전략 4)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생활공간 조성

- 편안하고 안전한 삶터 조성을 위한 주거권 강화
- 신기술과 공공의료 강화로 도민 평생 건강 보장
- 도민의 존엄을 보장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스마트 재난대응체계 구축

(전략 5)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및 경관 조성

- 자연생태자원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 물순환 건전성 회복 및 유역기반통합 물관리
- 환경안전망 구축을 통한 도민 건강 보호
- 탄소중립 이행 및 순환경제 기반 조성
- 정감있고 문화가 깃든 남도경관 연출

(전략 6) 글로컬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 글로컬 섬·해양 관광거점 조성
- 융복합·연계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 고부가가치 관광신산업 육성
- 전남고유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그림 II-1-1
추진전략별 주요 키워드



3. 추진전략별 주요 프로젝트

그림 Ⅱ-1-2
추진전략별 주요 프로젝트

	새로운 접근	주요 키워드	주요 프로젝트
Ⅰ. 공간	▪ 포용적 지역관리 ▪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 ▪ SOC 재편	▪ 스마트시티 ▪ 교통기본권 ▪ 전남형 압축도시 모델	▪ 권역별 압축적 도시권 육성과 대도시 광역권 형성 ▪ 전남형 스마트시티 구축 ▪ 지역간 연계·협력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 교통망 구축
Ⅱ. 농수산	▪ 첨단·스마트농업 전환 ▪ 저탄소농업 전환 ▪ 해양생태계 기반 조성 ▪ 스마트-친환경 양식환경 조성	▪ 기후변화대응농업 ▪ 저탄소농업 ▪ 스마트농업 ▪ 갯벌습지 ▪ 해양바이오	▪ 가치사슬연계 환경순환형시스템 구축 ▪ 전남 특화산업 및 밀키트산업 육성 ▪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보편화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스마트어촌 조성 ▪ 수산물 안전성 강화 및 글로컬 수산식품 플랫폼 구축
Ⅲ. 주력-미래 산업	▪ 주력산업 고도화 인프라 확충 ▪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 산업 대전환 ▪ 선도자형(퍼스트무버형) 미래산업	▪ 미래형 소재산업 ▪ 친환경 선박 ▪ 스마트그린산단 ▪ 그린수소 ▪ 뉴모빌리티 ▪ 합성생물학	▪ 주력산업 연계 미래형 소재산업벨트 구축 ▪ 전남형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 그린뉴딜 기반 에너지 혁신 생태계 조성 ▪ 해양·우주 운송체 메가프로젝트 추진 ▪ 시스템·인공합성 바이오 융복합 허브 조성
Ⅳ. 생활공간	▪ 복지안전망 ▪ 보편적 의료서비스 ▪ 주거권 강화 ▪ 도민안전기본권 정립	▪ 커뮤니티케어 ▪ 공공의료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재난안전거버넌스	▪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과 전달체계 구축 ▪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인프라 구축 ▪ 생애주기 대응형 주거복지 주택 확대 ▪ 도민 체감형 포용적 안전서비스체계 구축
Ⅴ. 환경·경관	▪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 ▪ 경제·사회·환경 전반의 녹색전환 ▪ 환경안전망 구축 ▪ 시대의 공존	▪ 생물다양성 ▪ 통합물관리 ▪ 순환경제 ▪ 탄소중립 ▪ 스마트 경관 ▪ 자연과 기술의 상생	▪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전 및 지석가능한 이용 ▪ 수자원 공급·이용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물순환 기반 확산 ▪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망 구축 ▪ 전방위적 온실가스 감축 이행 및 폐기물 순환이용 촉진 ▪ 역사성을 지닌 오픈 스페이스 보전 ▪ 지역 정체성을 담은 랜드마크와 개성있는 특성화 도시 구축
Ⅵ. 문화·관광	▪ 신성장 관광거점과 초광역 연계벨트 조성 ▪ 관광신산업 생태계 구축 ▪ 지역특화 융복합 관광컨텐츠 개발	▪ 융복합 관광컨텐츠 ▪ 웰니스관광산업 ▪ 스마트관광플랫폼	▪ 글로컬 섬·해양 관광거점 조성 ▪ 지속가능한 융복합-연계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 고부가가치 관광 신산업육성 기반 조성 ▪ 지역특화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제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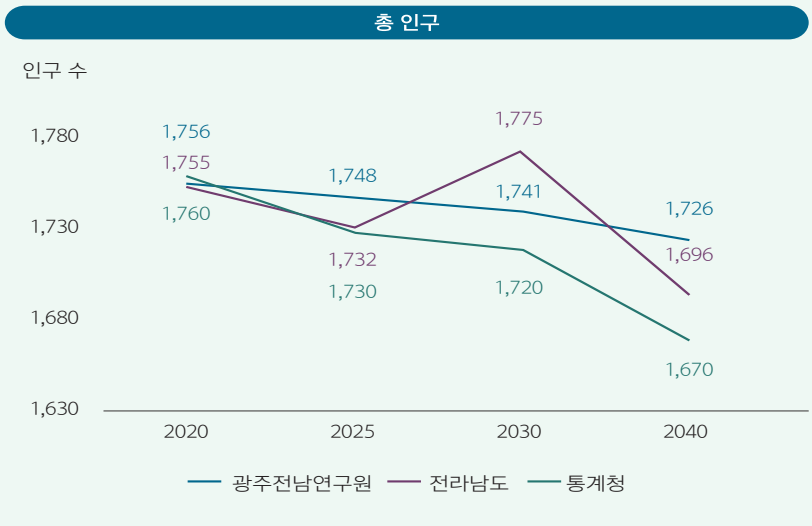
주요 계획지표

1. 인구지표

인구지표 설정

- 전라남도 인구지표는 통계청, 전라남도, 광주전남연구원 등의 인구추계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함
  - 2040년 전라남도 총인구는 167만명(통계청)~172만명(광주전남연구원)에 위치할 것으로 추계

그림 Ⅱ-1-3
전라남도 인구추계치



주1 : 단위 - 천명
주2 : 전라남도의 자료는 2021년~2035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 전라남도, 시군 장래인구추계
광주전남연구원, 인구감소에 따른 광주전남 대응 방향

인구추계 방법

- 인구추계 방법으로 주로 외삽법, 구조적 모델링 방법, 코호트 요인법 등을 사용함
  - 외삽법은 과거의 인구변동 경향을 바탕으로 미래 시점의 인구를 추계하는 방법이며, 적은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구 변동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 구조적 모델은 장래 인구 예측을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구조화한 식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성별, 연령별 구조에 따른 인구를 추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현재 일반적으로 성별, 연령별 구조를 추계하기 위해 코호트 요인법에 의한 인구추계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코호트 요인법에 의한 인구추계 방법은 인구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인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률을 각각의 연령별, 성별 그룹에 따라 분류, 적용해 인구를

추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국 및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주로 활용

- 코호트 요인법은 인구변동 요인의 특성을 잘 반영하므로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교적 정확한 장래인구 추계 가능
- 특히 이 방법은 전국 추계인구와 소지역 추계인구가 일치하도록 추계함으로써 다른 방법에 의한 인구추계보다 설명력이 높음

● 코호트 요인법은 인구의 자연 증감(출생-사망)과 인구의 사회적 증감(전입-전출)이 인구의 변동을 가져온다고 가정하고 장래인구를 추계

– 인구의 자연 증감을 가져오는 출생자 수는 출산율과 가임여성의 수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음(합계출산율을 사용해 당해연도 신생아수를 계산)

– 본 계획은 기준년도 인구의 경우, 통계청이 발표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2015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사용했으며, 가임 여성은 20~49세 여성으로 가정

– 사망자 수는 통계청의 시도별 5세 간격 간이생명표의 전라남도 자료를 사용하여 생존률을 계산한 뒤 산출

● 통계청은 현재 자연적 증감과 관련된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에 대한 자료를 구축한 후 사회적 증감에 따른 인구의 변동을 고려하기 위해 시·도 간, 시·도 내 이동자료, 국내외 이동자료를 통해 각 시도별 단위 순 이동량과 국가 단위 순 이동량을 발표하고 있음

– 통계청 방식은 시·군 단위와 읍면동 단위에서의 인구 유출입에 대한 자료를 얻기 어려운 실정

– 본 계획은 통계청이 발표한 2040년 전라남도 인구추계와 자연 증감만을 고려한 2040년 인구추계 결과와의 차이를 사회적 증감에 따른 인구 변동 요인으로 가정하고 이를 반영해 최종적인 전남지역의 읍면동 5세 간격별 2040년 인구를 추계

⬡ 전라남도 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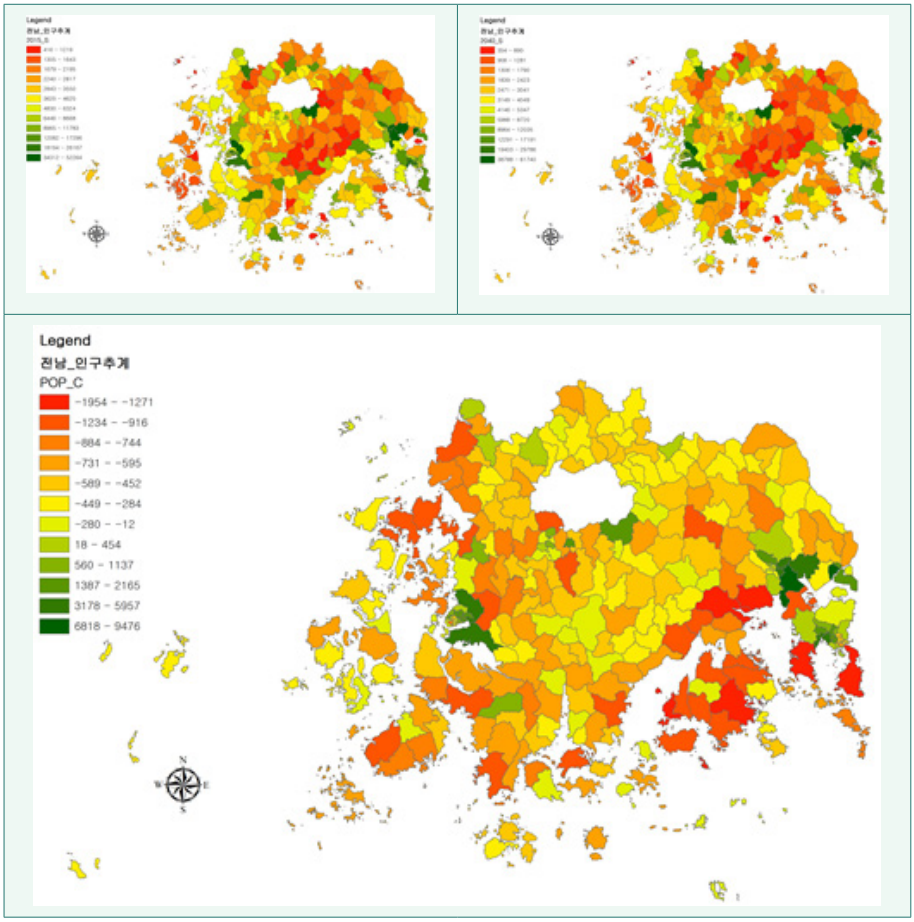
● 2040년 총인구는 1,726,363명으로 2015년 추계 대비 38,069명이 감소(연평균 0.09%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전체 297개 읍면동 지역 중 245개 읍면동은 인구 감소, 나머지 52개 읍면동 지역은 인구 증가

– 고흥군, 보성군,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진도군, 해남군, 구례군, 곡성군 등 군지역과 여수시와 순천시의 일부 면지역에서 인구감소 폭이 큼

–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일부 지역과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등 지방 중소도시와 주변지역의 무안군 무안읍, 무안군 삼향읍, 영암군 삼호읍 등에서는 인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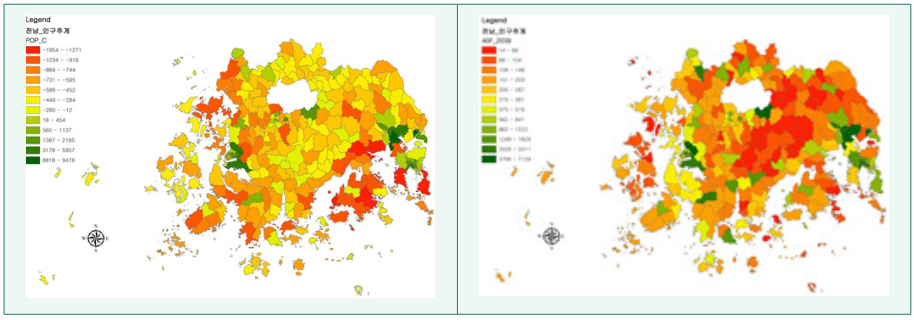
그림 Ⅱ-1-4
전라남도 총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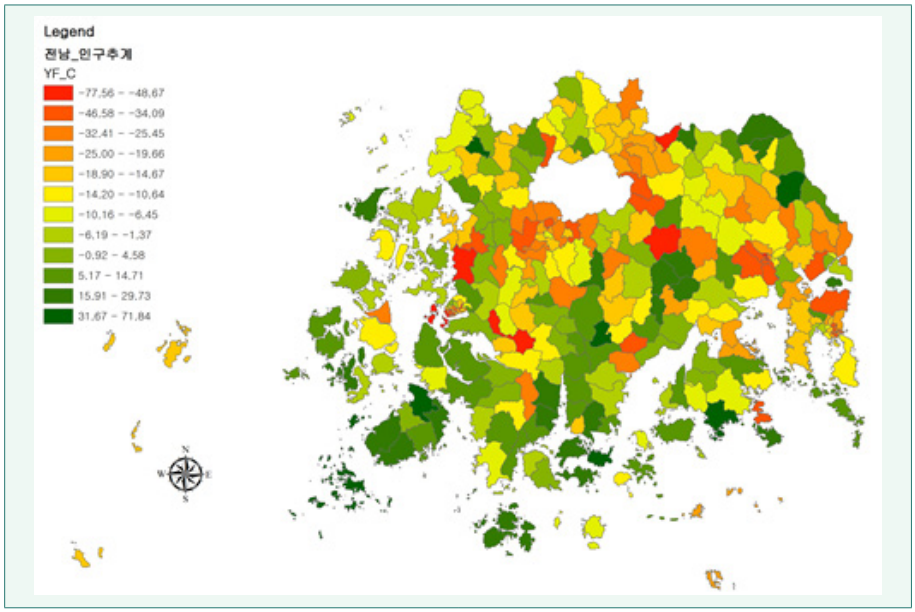


좌상 : 2015년 인구(명), 우상 : 2040년 인구(명), 하 : 인구 변화(명)

- 2040년 가임여성은 154,580명으로 전체 인구의 8.95%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상되나 2015년 가임여성 174,905명(9.91%) 대비 20,325명이 감소(평균 가임여성 변화율 -11.62%)된 수치임
  - 297개 읍면동 지역 중 구례군, 곡성군, 진도군, 신안군, 완도군, 강진군, 영암군, 무안군, 고흥군, 함평군 등의 87개 읍면동 지역에서 가임여성 비율이 증가한데 반해 나머지 210개 지역에서 가임여성의 비율 감소
  - 특히 광주근교권과 지방도시에서 가임여성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1-5
전라남도 가임여성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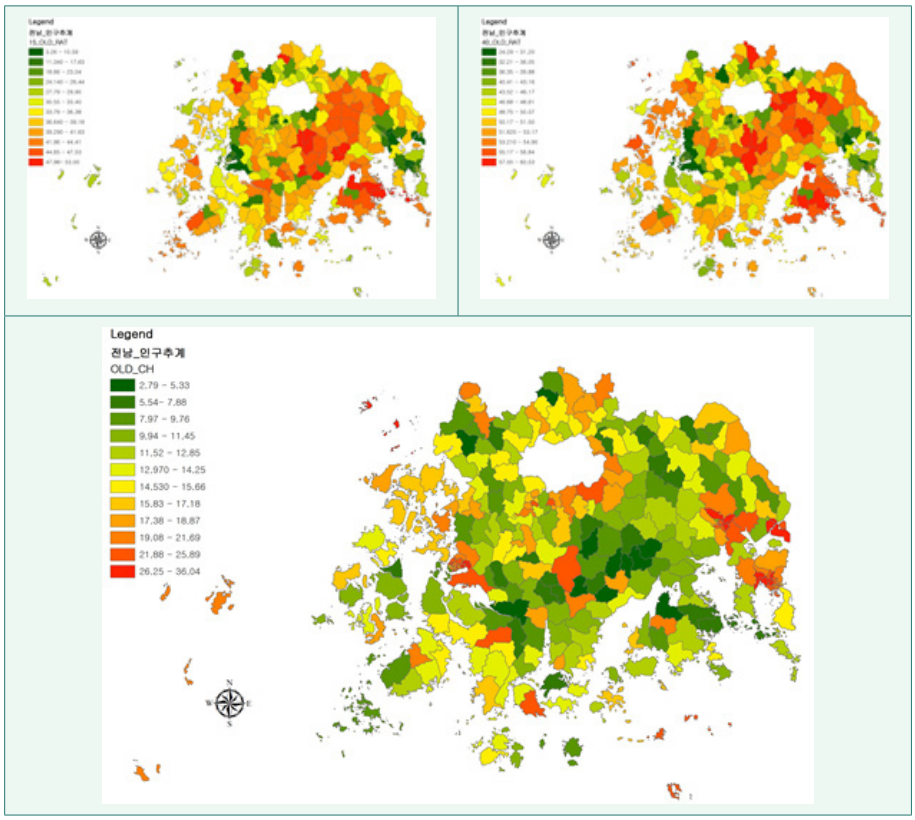




좌상 : 2015년 가임여성 수(명), 우상 : 2040년 가임여성 수(명), 하 : 가임여성 변화율(%)

- 2040년 65세이상 고령자는 689,203명으로 고령화율이 39.92%로 나타날 것으로 추계되는데, 이는 2015년 고령자 371,683명(21.07%) 대비 317,520명 증가(연평균 증가율 1.00%)한 것임
  - 2040년 순천시 매곡동(고령화율 24.29%)을 제외한 모든 읍면동 지역이 고령화율 25%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

그림 Ⅱ-1-6
전라남도 고령화율 변화



좌상 : 2015년 고령화율(%), 우상 : 2040년 고령화율(%), 하 : 고령화율 변화(%)

2. 주요 계획지표

분 야	지 표		단 위	계 획			
				현재 수준	2025	2030	2040
인 구	총인구		천명	1,869	1,787	1,787	1,726
	청년 잔류율(대졸자 직업이동경로)		%	39.4	43.0	45.0	50.0
경 제 산 업	지역총생산	명목 실질	십억원 십억원	76,948 74,618	87,836 78,686	97,932 83,114	121,740 92,722
	고용률(15세이상)		%	63.9	65.0	68.0	70.0
	청년 고용률		%	37.9	42.0	45.0	50.0
	경력단절여성 비율		%	16.7	13.0	11.0	10.0
	농가소득		천원	43,098	47,364	51,334	60,000
	취업구조 - 1차산업 - 2차산업 - 3차산업		 % % %	 19.6 10.7 69.6	 18.0 10.0 72.0	 15.0 10.0 75.0	 10.0 10.0 80.0
주 거 사 회 복 지 보 건 의 료 안 전	삶의 질 만족도		%	40.9	42.0	44.0	50.0
	빈집 비율		%	15.2	14.0	12.0	10.0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유아(0~4세) 천명당 보육시설수 노인(60세이상)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개소 개소 개소	23.8 23.5 21.8	22.0 23.0 22.0	23.0 23.0 23.0	25.0 23.0 25.0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개소 명	22.4 2.5	23.0 2.6	25.0 2.8	27.0 3.0
	지역안전지수		등급	(평균) 3.6	(평균) 3.0	(평균) 2.5	(평균) 1.5
문화 체육	인구 십만명당 도서관수 인구 십만명당 문화시설수 인구 십만명당 체육시설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횟수		개소 개소 개소 횟수	3.7 4.7 5.8 7.4	3.8 4.9 5.9 7.7	4.0 5.3 6.2 8.3	4.5 5.5 6.5 9.0
환 경 보 전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주암호 상수원 수질 영산강 수질(나주지점) 1인당 폐기물 발생량		% % 등급 등급 kg/일	90.7 82.1 Ⅰa Ⅳ 1.12	93.0 90.0 Ⅰa Ⅲ 0.85	95.0 93.0 Ⅰa Ⅱ 0.80	100 100 Ⅰa Ⅰ 0.50
행정	재정자립도		%	28.1	30.0	35.0	40.0

그림 Ⅱ-1-7

전라남도 SOC 구상도



제3절

공간구상

1. 공간구조 기본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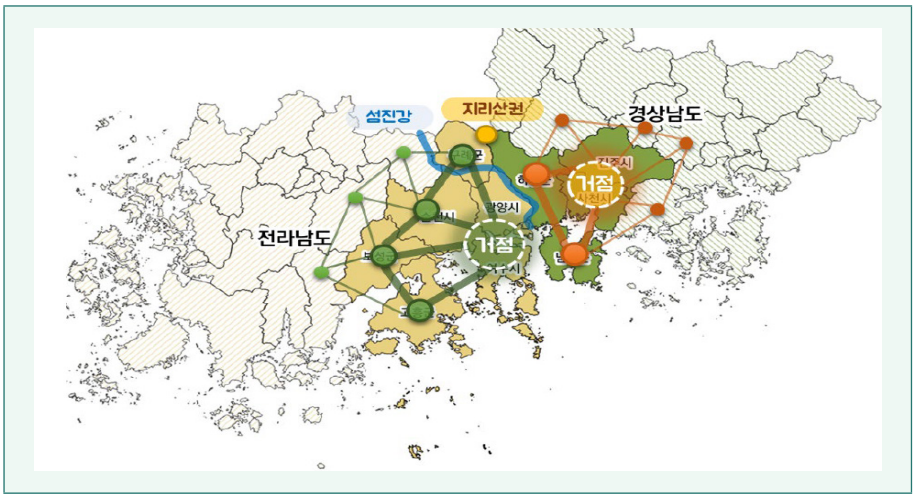
⬡ 대도시권, 중소거점도시,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각종 행정수요에 부합한 공간 구조 구상

- 대도시 광역권 형성과 권역별 압축적 도시권 육성,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업무·생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 관리체계 구축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남형 집약적 압축도시 구현, 중소 거점도시의 도시재생을 통한 혁신거점 조성,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 성장관리방안 모색, 지역·도시 관리를 위한 스마트 시티 구현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재편 및 확충,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교통서비스 구축·운영, 동북아 물류중심 첨단 특화 항만 개발, 국토 서남권 항공 여객·물류 기반 구축

⬡ 남해안 남중권 중심 국토 신성장거점지대 조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추진 및 환태평양시대 교두보 확보

- 지역발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라남도 중남부권, 경남 서북부권 및 전북 동남부권 등으로 파급효과를 확산시켜 국토균형발전의 기폭제로 작용
- 경쟁력 높은 남해안남중권 글로벌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 다양하고 특색있는 남해안남중권 문화·관광지대 조성, 다양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및 복합적 연계 활용, 소통·화합의 남중권 지자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
-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동서간 화합 및 번영의 상징으로서 남해안남중권에 탄소중립형 신해양·환경중심 통합도시 조성
  - 기후위기에 대응한 해양·환경분야 국제기구, 전문연구기관 유치 및 관련산업 특화클러스터 조성

그림 Ⅱ-1-8
남해안남중권 신성장 거점



⬡ 영·호남이 함께 동북아 해양시대 신(新)발전거점 조성으로 초광역협력 성공 모델 확산

- 남해안남부권(전남, 광주, 경남, 부산, 울산) 협력체계 구축으로 광역단체간 관광, 문화 및 산업을 연계하여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창출
- 조화로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충청권의 행복도시 조성에 대응, 남해안권에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 기능과 역할 부각
-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남해안권을 광역 연계·협력 신성장거점으로 육성

그림 Ⅱ-1-9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



⬡ 광주와 5개 인접 시군간 상생과 협력을 통해 교육, 일자리, 주거 중심 내생적 발전모델 추진

- 광주 인근도시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등 지역 협력형 미래 신산업 혁신거점 구축
- 상생과 협력기반이 구축된 광주와 인접 5개 시군에 교육, 일자리, 주거기반 구축
- 내생적 발전모델 개발로 전국 최초 광역+기초 상생·협력모델(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제시

  * AI(광주), Healthcare(화순), Nano(장성), Mobility(함평), Tour(담양), Smart-grid(나주)

그림 Ⅱ-1-10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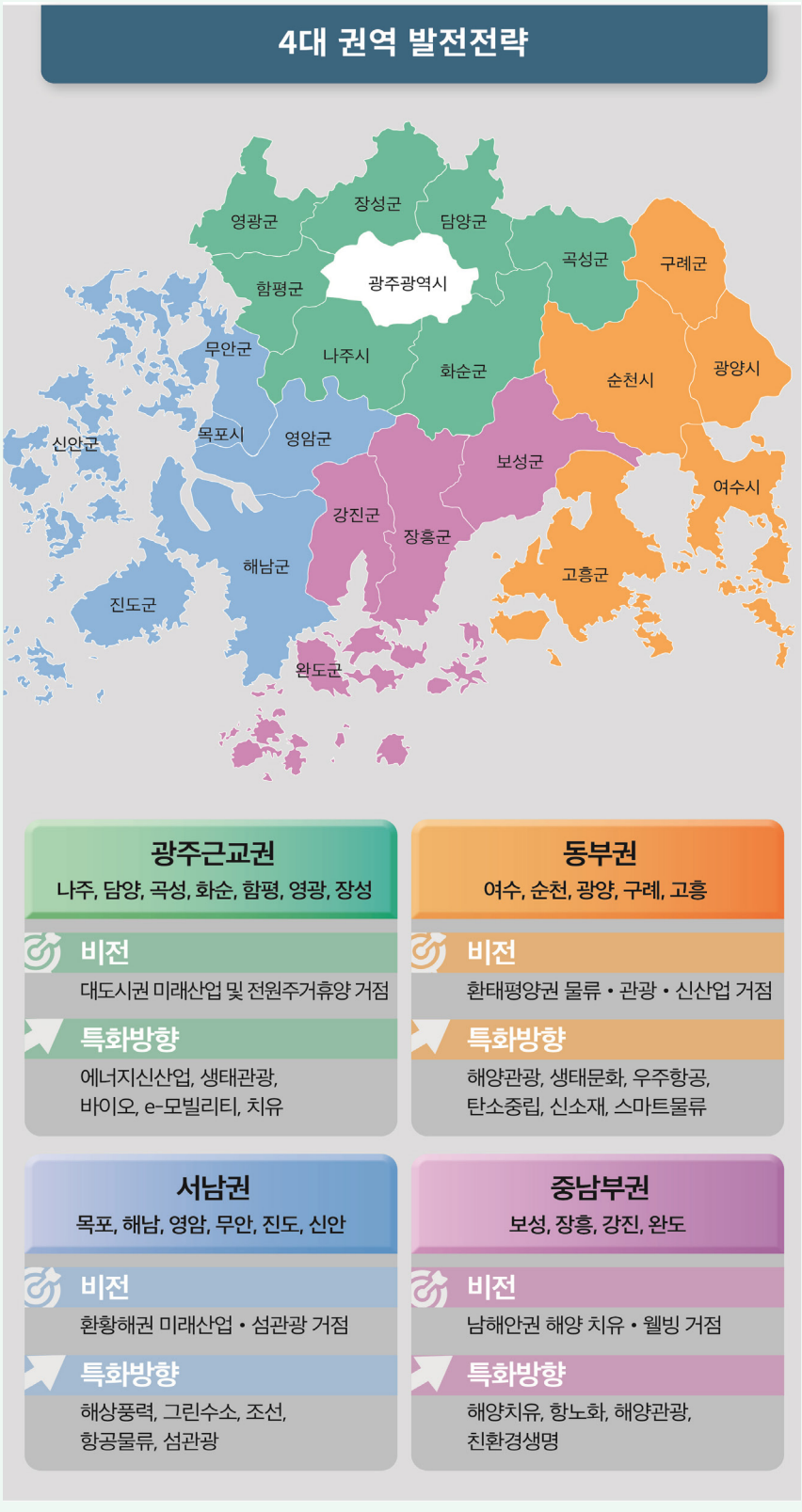


2. 권역설정

4대 권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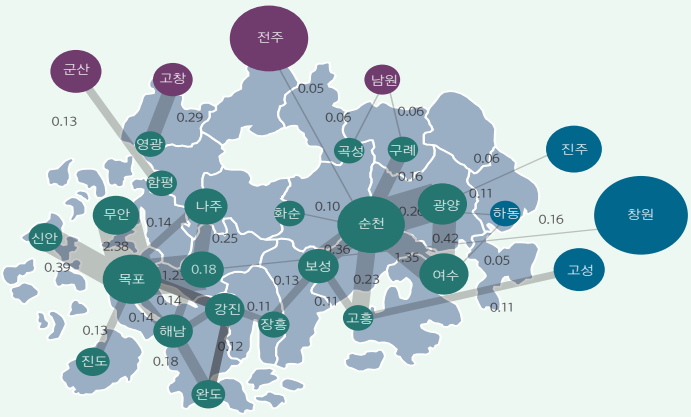
- 전남지역은 지역생활권 설정기준 및 경제·사회적 주요 공간기능에 따라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
  - 지역생활권은 접근성, 지리적 연계성, 지역적 동질성, 경제적 동질성, 기능적 연계성 등 다양한 분석결과와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등 지역 연계·협력 정책을 바탕으로 설정
  - 광주 대도시권과 연계한 광주 근교권이 메트로 지역(metro area)으로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남부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추가
- 각 권역별 특성에 따른 특화개발과 함께 4대 권역간 균형 발전에 주력
  - 전라남도 4대 권역을 각각 지역적 특성과 지역내 자원 활용에 따른 차별화된 특화 방향 추진

그림 II-1-11
전라남도 4대 권역 설정



- 전라남도내 시군간 공간 상호작용 지수(시군별 지배성과 통행연결강도)를 보면, 순천시와 목포시의 지배성 지수가 가장 높고, 목포-무안, 순천-광양의 통행강도가 높음
- 중심지 분석은 순천시를 중심으로 광양-여수-보성-구례-고흥-화순 연계, 목포시를 중심으로 무안-영암-나주-신안-해남-강진-진도-완도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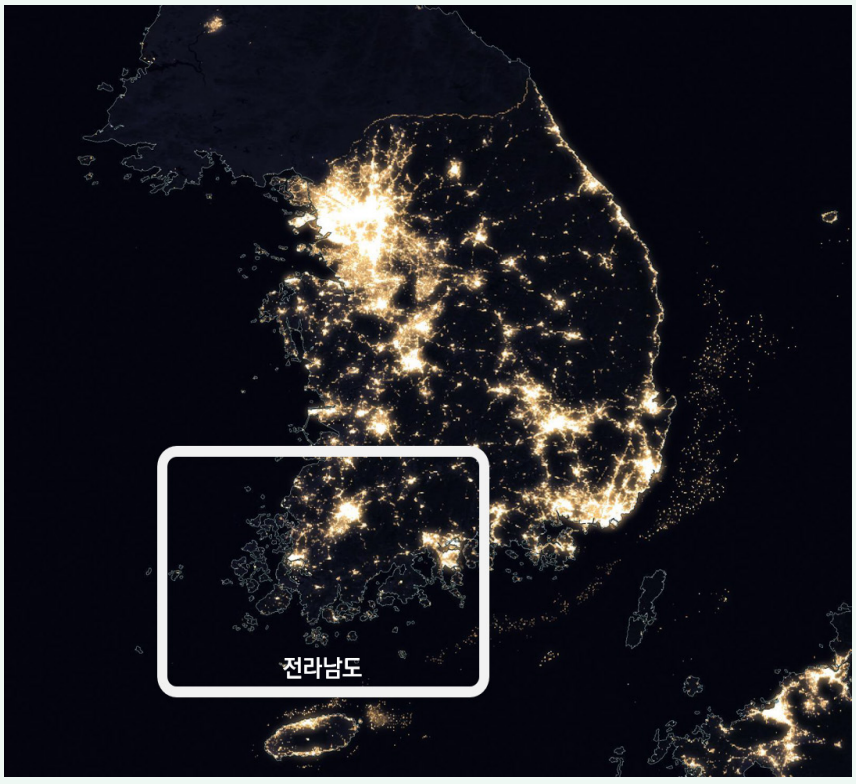
그림 Ⅱ-1-12
전라남도 시군간 공간 상호작용 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주 : 상대적 강도 지수는 도내 통행의 경우 0.1 이상, 도간 통행의 경우에는 0.05 이상을 제시함

- 인공위성에서 본 야간 전라남도의 모습은 순천시 중심의 동부권, 목포시 중심의 서부권, 그리고 나주시 중심의 대도시 근교권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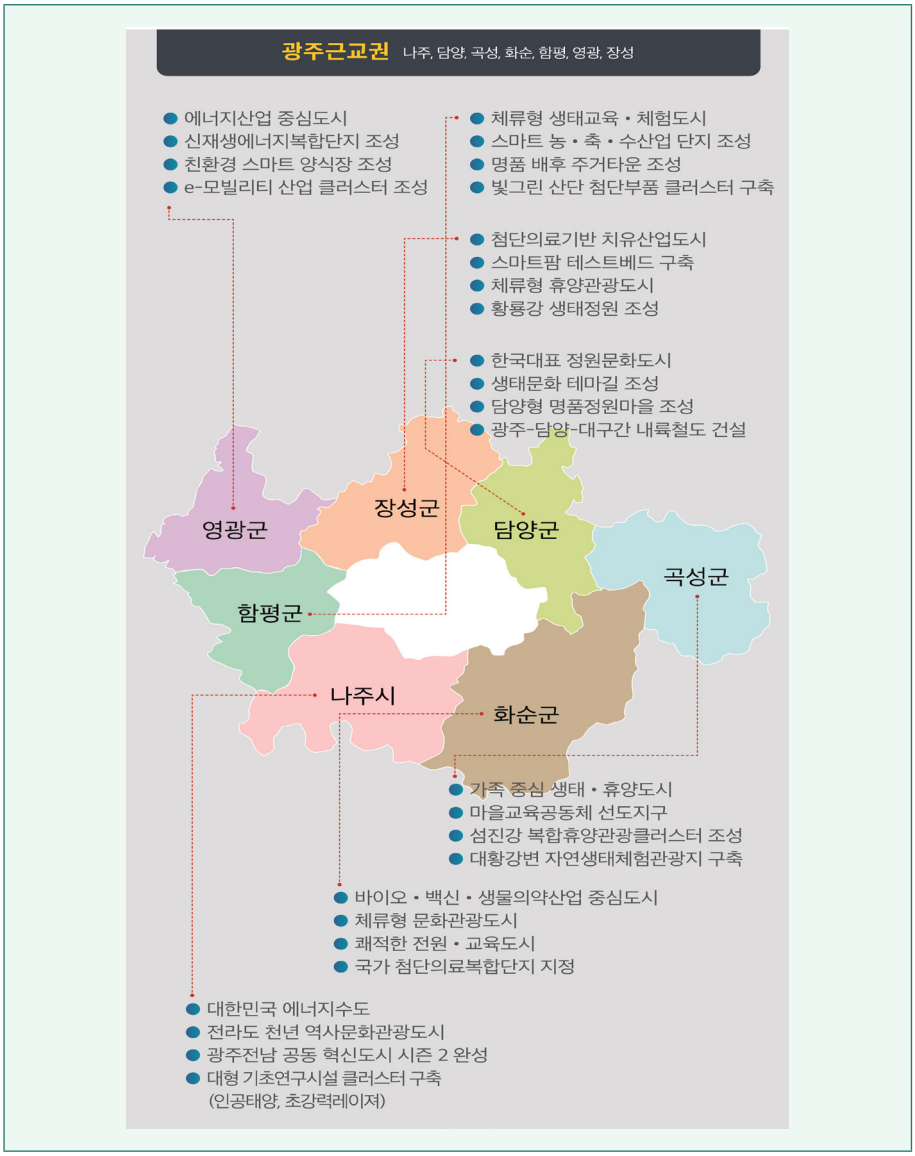
그림 Ⅱ-1-13
야간 인공위성에서 본 전라남도(EOSDIS Worldview, 2021)



권역별 특화방향

- 광주근교권
  - ‘대도시권 미래산업 및 전원주거휴양거점’을 비전으로 하여, 에너지신산업, 생태관광, 바이오, e-모빌리티, 치유 등 특화 추진
  - 나주의 에너지밸리와 초강력레이저센터, 인공태양연구소 등 대형기초연구시설과 영광의 한빛원전, e-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허브 구축
  - 장성의 심혈관질환센터, 나노센터와 화순의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를 연계해 첨단의료치유기반 및 바이오·백신·생물의약산업 중심지구 형성
  - 광주의 주요 배후도시인 함평, 담양, 곡성을 생태교육, 정원문화, 휴양도시 등 생태적 관점에서 특화발전 추진
  - 광주3순환도로, 광주-담양-대구간 달빛내륙철도, 광주-나주간 광역철도,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경전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를 활용한 접근성 확충

그림 Ⅱ-1-14
광주근교권 특화 방향



● 동부권

– ‘환태평양 물류·관광·신산업 거점’을 비전으로 하여, 해양관광, 생태문화, 우주항공, 탄소중립, 신소재, 스마트물류 등 특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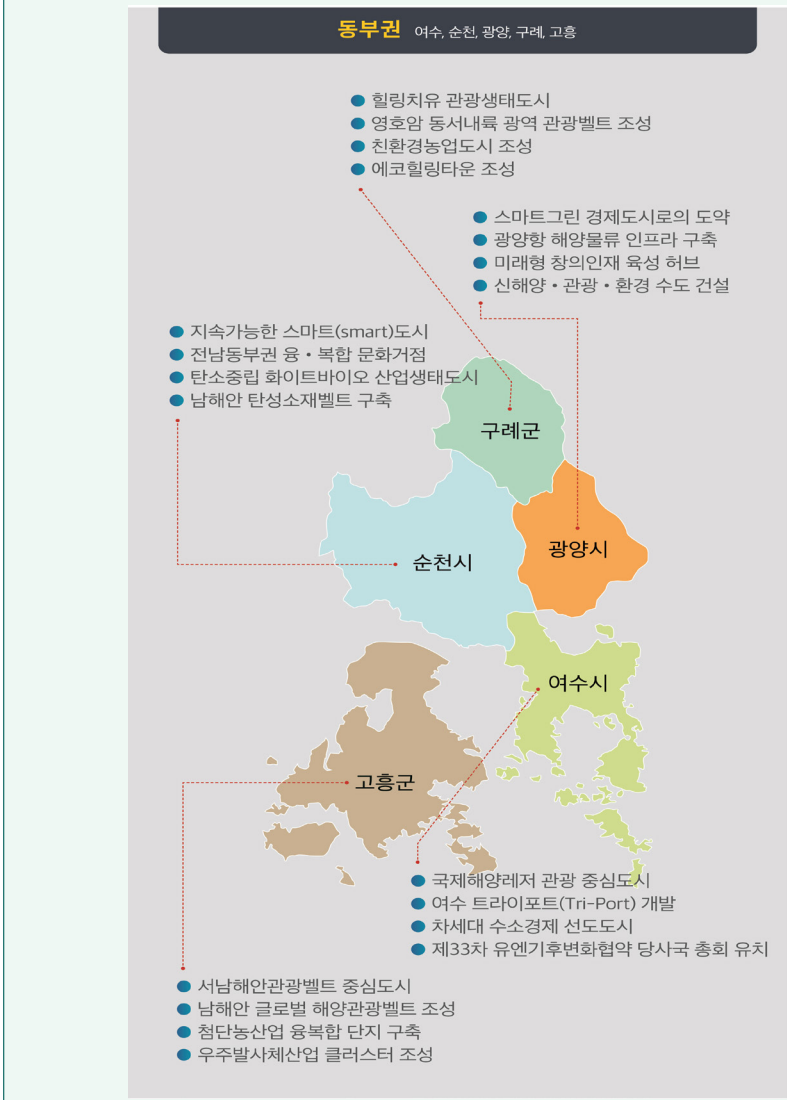
– 순천-여수-광양을 지속가능성, 국제해양레저, 스마트그린 등의 개념으로 연계하고 경남 서부와 함께 환태평양시대 신해양·관광·친환경수도로 육성

– 순천은 전남 동부권의 중심도시로서 융·복합 문화거점, 부산·경남과 연계한 남해안 소재벨트를 구축하고, 광양은 정부의 투포트(Two-Ports) 정책에 따라 해양물류의 거점, 여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와 함께 국제해양레저 및 차세대 수소경제 선도도시로서의 도시 정체성 구축

– 지리산권의 구례는 친환경농업과 에코힐링 등 관광생태도시, 남해안권의 고흥은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중심으로 우주발사체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산업대전환 추진

– 광주-고흥간 고속도로, 전라선, 경전선, 남해안고속철도, 여수공항, 여수항(크루즈), 광양항(해상물류) 등으로 육해공 트라이포트(Tri-Ports) 구축

그림 Ⅱ-1-15
동부권 특화 방향



● 서남권

– 환황해권 미래산업·섬관광 거점을 비전으로 하여, 해상풍력, 그린수소, 조선, 항공물류, 섬관광 등 특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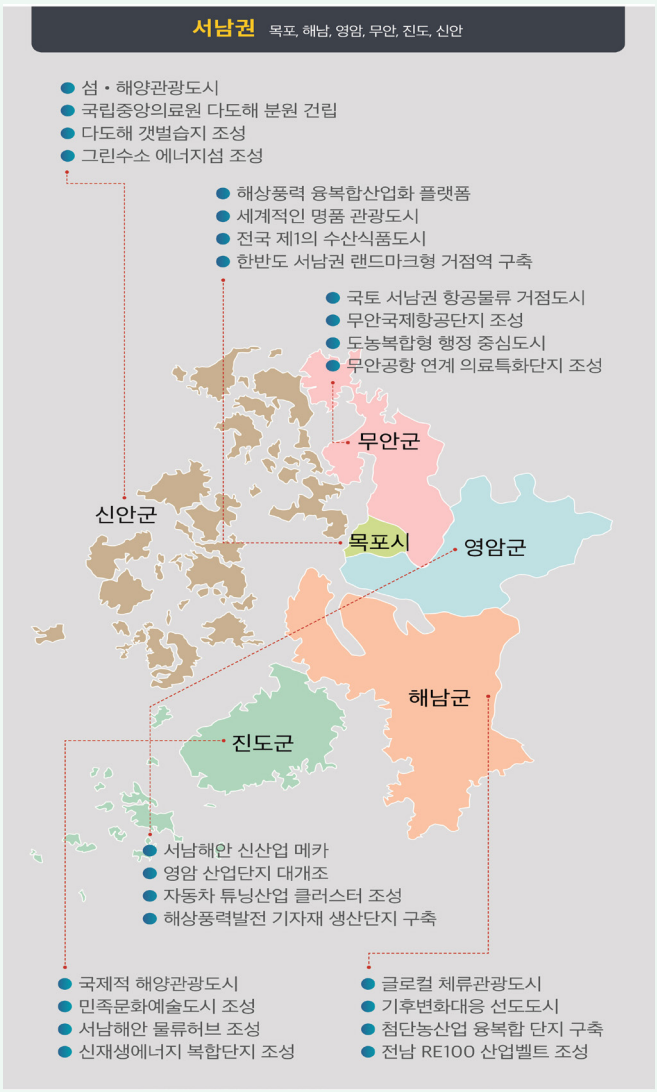
– 신안과 진도를 해상풍력과 그린수소 생산기지화, 목포, 영암, 해남을 해상풍력 융복합산업 플랫폼과 해상풍력발전 기자재 생산단지를 구축하고 RE100산업벨트 등 신재생에너지의 허브로 조성

– 목포와 무안은 한반도 서남권의 중심축으로서 랜드마크형 거점역, 항공물류 거점으로 철도와 항공을 이용한 환황해권 시대 서남부권의 도약 견인

– 전국 최다 섬과 갯벌습지를 보유한 신안과 무안, 진도의 섬·해양 자원을 최대 활용하고, 해남을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도도시로 육성

– 무안국제공항, 호남고속철도, 서해안철도(군산~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무안~목포를 잇는 141.4㎞ 철도), 남해안철도,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국도 1, 2호선, 목포신항, 진도항 등 공항, 철도, 항만을 연계해 미래산업과 관광의 잠재성을 극대화

그림 Ⅱ-1-16
서남권 특화 방향



● 중남부권

– 남해안권 해양 치유·웰빙거점을 비전으로 하여, 해양치유, 항노화, 해양관광, 친환경생명 등 특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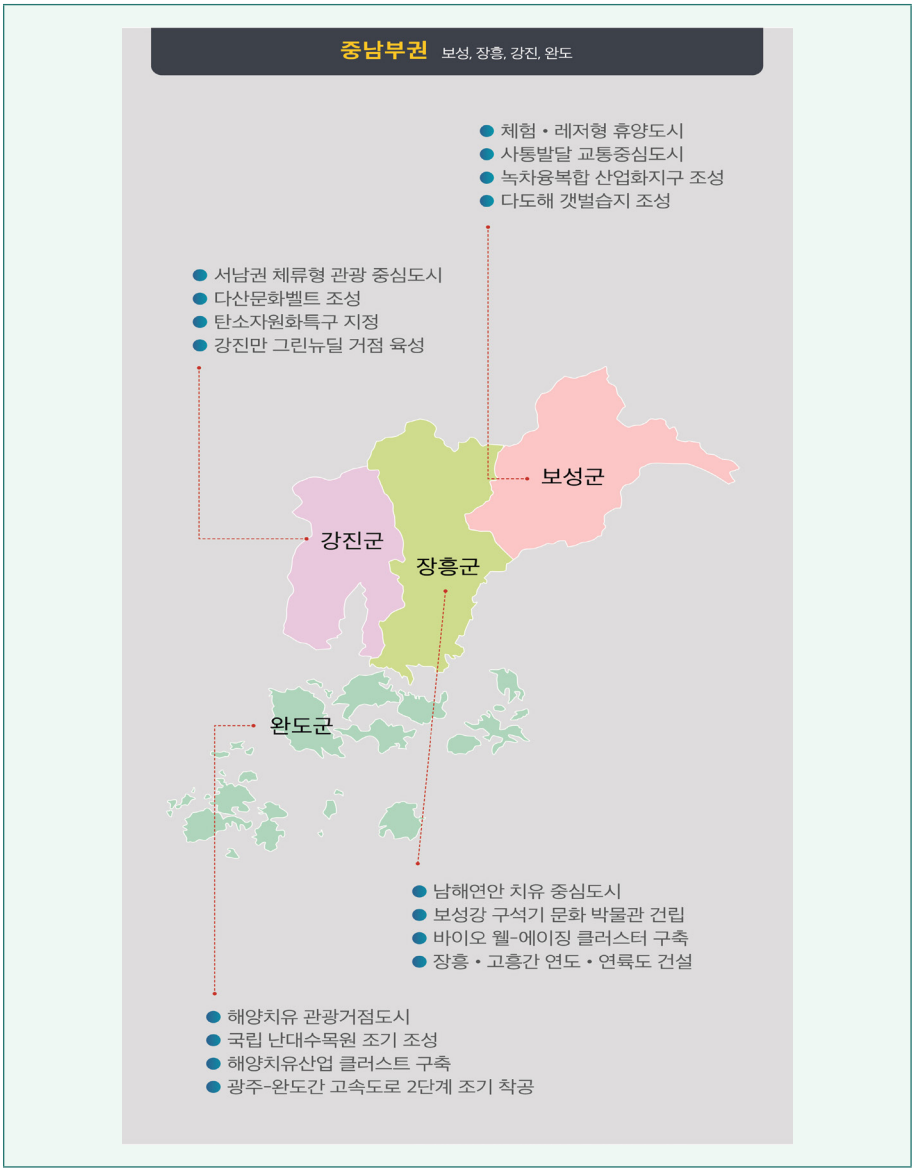
– 역사문화적 자산(다산문화벨트, 의병, 구석기 문화 등), 철도와 고속도로 확충에 따른 교통 요충지(강진, 보성), 생태적 자산(갯벌습지, 녹차, 난대수목 등)을 연계해 치유 중심의 중남부권 특화

– 강진만, 득량만권의 레저, 치유, 관광자원을 활용해 체험·레저와 해양 치유 중심의 권역으로 특화 발전

– 보성은 녹차융복합산업화지구, 장흥은 바이오 웰-에이징 클러스터, 강진은 탄소자원화특구, 완도는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 등 청정 기반의 산업 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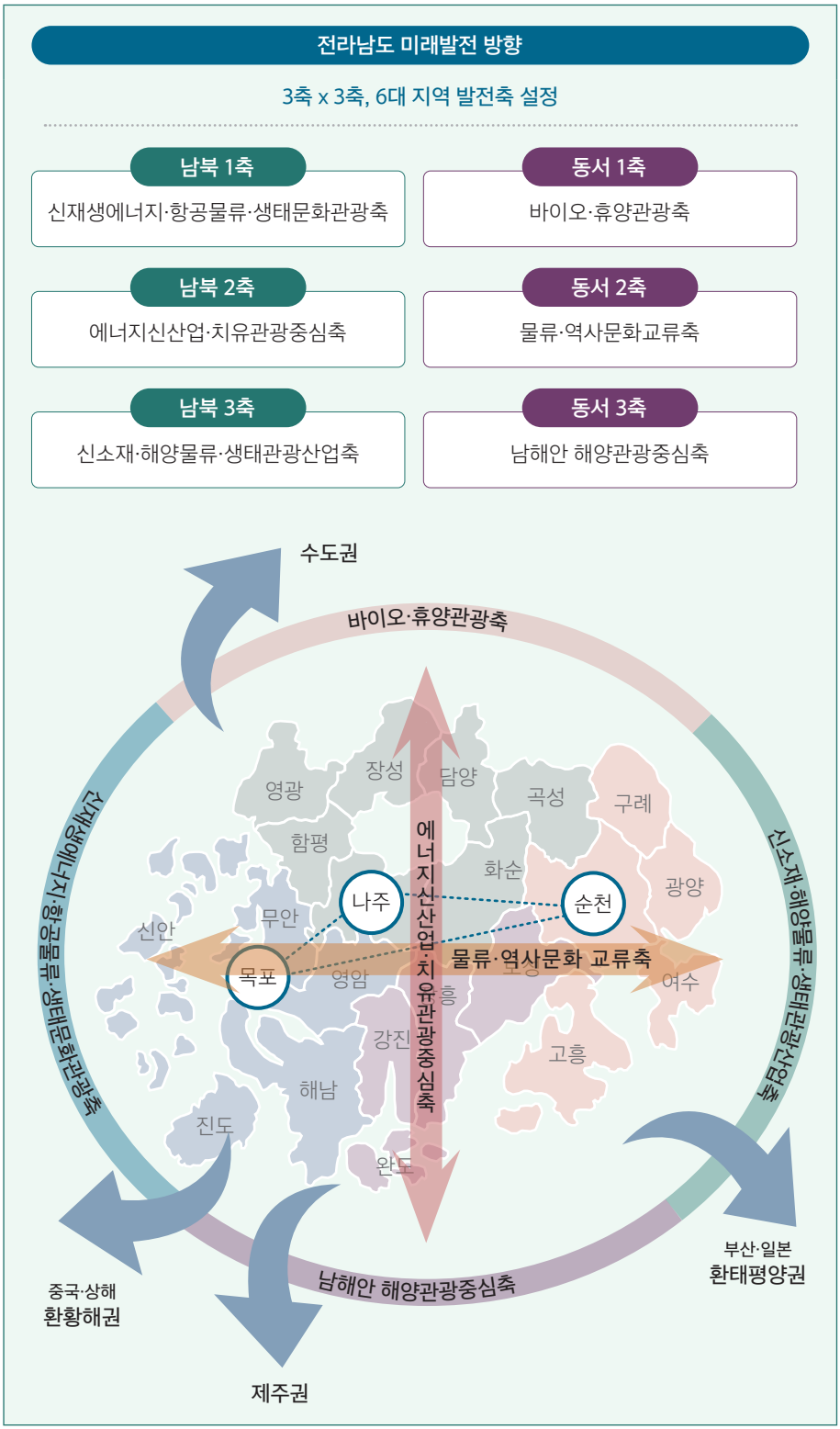
– 남해안철도, 경전선,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완도-고흥간 국도(27호선) 승격, 완도항, 마량항 등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에 필요한 SOC 구축

그림 Ⅱ-1-17
중남부권 특화 방향



3. 지역발전축

그림 Ⅱ-1-18
전라남도 지역발전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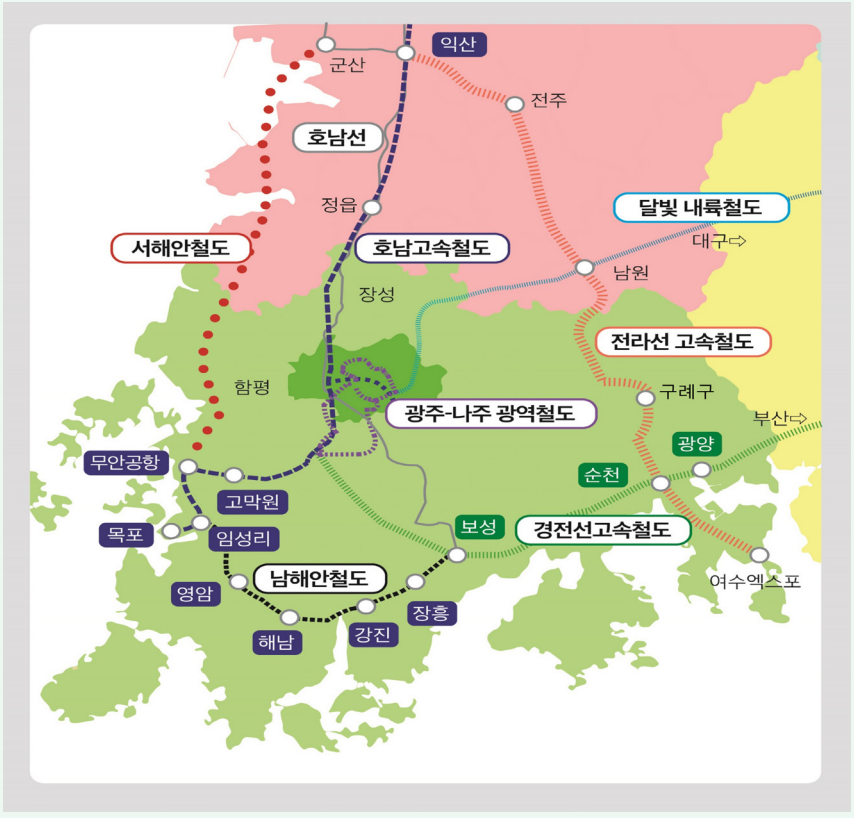
⬡ 목포~무안~영광축(남북 1축) : 「신재생에너지·항공물류·생태문화관광축」

- 서남해안 거점도시인 목포를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신안에 대형 해상풍력

단지, 에너지 아일랜드 등 신재생에너지 허브 조성, 영광에는 e-모빌리티 및 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 조성, 무안국제공항을 국토 서남권 항공물류 허브로 구축, 주도(seat)로서의 무안 남악의 위상 정립, 해남을 첨단농산업 융복합거점 및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진도를 서남해안 물류허브도시, 국제적 해양관광도시로 육성

- 특히, 신안의 섬들이 연도연륙교 건설로 기대했던 복합관광클러스터 구상이 가능해지면서 전라남도 서남해안 생태문화관광의 중심축으로 역할 수행
- 신안과 진도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수출기지화, 목포신항을 해상풍력의 배후지역 및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으로 활용, 영암 대불산단의 조선기자재산업을 신재생에너지 부품클러스터로 대전환
-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항공산업단지 조성, 공항연계 의료특화단지 조성, 목포역을 한반도 서남권 랜드마크형 거점역으로 조성, 제주도와의 해저터널, 남해안철도 등 항공과 철도를 연계한 물류거점화
- 목포의 근대문화 유산, 무안의 갯벌습지, 신안의 다이아몬드제도, 영광의 백수해안도로 등을 연계한 생태문화관광도시 네트워크 구축

그림 Ⅱ-1-19
고속철도 및 광역철도 추진 현황



장성·담양~나주~장흥~완도축(남북 2축) : 「에너지신산업·치유관광중심축」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이어 에너지밸리 조성,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개교, 초강력 레이저센터 등 대형 기초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에너지산업의 메카로서의 기반 구축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광주-나주간 광역철도, 남해안을 연계한 경전선(혁신도시·보성·벌교·순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등 전라남도 남북과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육성
- 장성과 담양 등 광주근교권을 체류형 휴양관광, 정원(생태정원, 정원문화, 명품정원마을),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고,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기점으로 전북, 경북, 경남, 전남 동부로의 공간의 확장성 추진
- 강진을 다산문화벨트로 조성, 강진만 생태공원, 탄소자원화특구 지정, 장흥을 바이오 웰-에이징 클러스터 구축으로 남해연안 치유 중심도시로 육성

구례~광양~순천~여수축(남북 3축) : 「신소재·해양물류·생태관광산업축」

- 순천을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이자 전남 동부권의 융복합 문화거점으로, 여수는 트라이포트(Tri-Port)를 활용한 차세대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육성, 광양은 광양항 해양물류 인프라 확충으로 스마트그린 경제도시로 도약, 구례 지리산권역은 힐링 치유 관광생태도시로 육성
- 특히 남해안남중권을 경제수도(서울), 행정수도(세종)에 이어 신해양·관광·환경수도로 육성하도록 공간, 산업, 교육 등 3대 영역의 특화방안 추진
- 광양컨테이너 부두를 중심으로 환태평양 전진기지를 육성,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여 수출입 화물처리, 부가가치 물류 등 국제물류기능 강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공간 및 배후도시 확충으로 교육·연구기능 클러스터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영광~장성·담양~곡성·구례축(동서 1축) : 「바이오·휴양관광축」

- 광주와 협력해 화순에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여 바이오·백신·생물의약 산업 중심도시로 육성, 곡성은 대황강변 자연생태체험관광지 구축 및 섬진강 복합휴양관광클러스터 조성, 구례는 에코힐링타운 등 친환경농업도시로 육성
- 광주 대도시권 주민을 위한 전원형 주거단지와 위락단지 등 쾌적한 정주·문화·휴양공간으로 특화 육성
- 한반도 서해안과 광주권 연계(고창~장성간 고속도로), 전북권의 내장산, 지리산, 덕유산 등과 연계하여 호남권의 산악·휴양거점으로 육성, 88고속도로와 광주-대구간 내륙철도를 이용한 동북부권과의 연계성 강화

무안~나주~순천·광양축(동서 2축) : 「물류·역사문화교류축」

-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남해안 철도, 경전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등으로 무안~나주~순천·광양축의 물류 등 동서간 연결성 제고
- 특히 무안국제공항과 광양컨테이너부두간 물류 연결성을 높여 전라남도 서부권과 동부권의 교류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

- 영산강을 중심으로 마한문화권과 섬진강·지리산을 중심으로 경남과 연계한 광양만권의 역사문화 교류의 장 형성

목포~완도~보성~여수축(동서 3축) : 「남해안 해양관광중심축」

- 무안국제공항, 여수공항,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목포~순천간 남해안철도,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여수미항 등 공항, 철도, 항만의 확충으로 남해안 해양관광시대 개막
- 특히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기점으로 여수가 남해안의 관광을 선도하는 핫플레이스로 도약한 경험을 바탕으로, 목포~진도~완도~강진~장흥~보성~고흥~여수간 서남해안 일주도로의 연안교통망과 함께 완도～고흥～여수～남해를 잇는 (해저)도로망 확충으로 남해안 전역을 동북아 해양관광의 메카로 육성
- 중남부권의 해양치유클러스터(완도), 바이오 웰 클러스터(장흥), 다도해 갯벌습지 등 체험·레저형 휴양도시(보성) 등 치유와 휴양의 중심으로 육성

그림 Ⅱ-1-20
전라남도 국도 승격 현황



2021~2040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제 3 편
전략별 추진계획

제1장 누구나 살기 좋은 활력있는 공간 조성

제2장 환경과 공존하는 스마트 농수산생태계 구축

제3장 그린·디지털 중심 산업 대전환 선도 거점 육성

제4장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제5장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및 경관 조성

제6장 글로컬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제1장

누구나 살기 좋은 활력있는 공간 조성

제1절 지역특성별 맞춤형 공간기능 강화
제2절 유연한 성장관리를통한 지역 활성화
제3절 광역·지역 간 SOC 재편 및 확충

제1절

지역특성별 맞춤형 공간 기능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저성장·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지역 쇠퇴 및 지역 간 격차 심화

- 인구감소, 고령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 격차 심화
  - 전라남도 인구는 2010년 191만에서 연평균 0.3%씩 감소, 2020년말 기준 185만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고령인구 비율은 2003년 14%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14년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 현재(2019년 말 기준) 22.6%로 매우 높은 수준
  - 시군별 고령비율은 목포시·여수시·순천시·광양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하였으며, 담양군, 해남군, 완도군, 구례군, 진도군, 장흥군, 강진군, 곡성군, 신안군, 함평군, 보성군, 고흥군의 경우 고령비율이 30% 이상임
  - 동부권은 여수시·순천시·광양시를 제외한 구례군과 고흥군의 고령비율이 높고, 서남권은 목포시를 제외한 모든 군의 고령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중남부권과 광주근교권은 나주시를 제외한 모든 군의 고령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지역·도시 쇠퇴가 지속되는 한편 권역별 격차 심화
  - 여수시·순천시·광양시를 중심으로 하는 동부권 인구는 전라남도 전체 인구의 약 43.4%를 차지,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권(27.2%)과 광주근교권(20.6%)과 격차가 크고, 중남부권(8.8%)은 동부권의 1/5 수준에 그침
  - 경제규모(GRDP)에서도 동부권이 전라남도의 약 60%를 점유하는 등 전라남도의 경제·인구 등이 집중
  - 지역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악신도시 중심의 자립적 생활권 형성 및 대불국가산단 등 서남권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균형 지속

혁신도시 시즌2의 진입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의 지역거점 역할 미비

-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수도권-지방 간 격차 완화 및 지방 혁신역량 강화, 자립적 발전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발전 효과가 일부 가시화 되었으나 실적적 성과는 미비
  - 혁신도시 건설 완료 및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이전 완료에 따라 혁신도시 1단계 정책이 완료되고, 혁신도시 시즌2에 진입함으로서 혁신도시의 성과를 주변 지역에 공유·확산 추진
  -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부진과 도시발전을 지원하는 양질의 정주환경 조성 미흡, 국가균형발전 핵심목표인 지역혁신역량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자립적 지역발전 거점 기능 미흡
- 혁신도시의 지역혁신창출과 일자리 육성·확대 등 지역의 역량강화 및 활력 증진 부족
  -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된 후 일정시간이 지나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초창기에는 어느정도 달성하였으나, 현재에는 고착화 상태이며,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혁신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도시·농산어촌 공간의 격차 심화

- 대도시권의 역할 강화와 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재편에 따라 도시와 비도시지역의 격차 심화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대도시와 인근 지역을 제외한 농업, 어업 등의 비중이 높은 농산어촌 지역은 저성장·인구감소에 따라 도시지역과의 격차가 심화
  - 동부권은 광업 및 제조업 비중이 49% 정도로 높고, 나머지 권역은 농림 및 어업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중남부권은 농림 및 어업의 총취업자 수가 절반에 육박
  -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내 폐교가 증가하고 의료인력 등에서도 시군별로 큰 편차가 나타남
    * 시·군별로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고흥(75개), 완도(74개), 신안(74개) 등에서 폐교 수가 많음
    * 전라남도내 총 병상수는 39,895개로 이 중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5개 시가 56.6%를 차지한 반면, 완도, 진도, 신안, 장흥, 강진, 곡성 등 6개 군은 병상수가 500개 미만
    * 의료인 수도 의사 55.4%, 치과의사 60.5%, 한의사 51.4%가 5개 시에 집중
    * 1시간 내 2차 의료서비스기관(병원급)에 접근이 불가능한 환자 비율을 보면 완도, 장흥, 진도, 고흥 등 군지역이 10%를 초과한 반면, 5개 시지역 및 시 인접지역은 1% 이하로 나타남
- 농산어촌의 경우 농수산물시장 개방 확대 및 농어촌공동화 심화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
  - WTO/DDA 출범과 다양한 FTA 체결로 농업도 치열한 경쟁체계에 놓이는 등 어려운 무한경쟁시대에 진입
  - 국내적으로는 농산물 수급의 불균형으로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주기적으로 반복, 시장개방에 따라 우수한 품질과 낮은 가격이 농산물 가격경쟁의 주요 요소로 작용
  - 농업인구 감소와 농촌인구의 고령화 심화, 농촌 공동화 심화 및 농업분야 성장 잠재력 약화, 청년층(18세~39세)의 농산업 취업 기피로 후계 농업인력 부족 심화
    * 65세 이상 농업인 비율 : '03) 32.5% → '10) 38.7% → '16) 46.8%
    * 청년 농업인구 : '12년) 30.8천명 → '13) 29.9천명 → '15) 24.4천명 → '16) 23.1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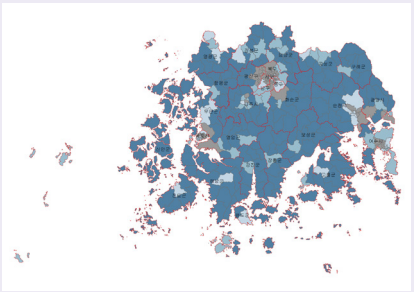
2. 여건 변화 및 전망

⬡ 대도시 광역화와 권역별 압축적 도시권 형성 등 새로운 지역 공간 전략 요구

- 고령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대도시권 및 권역별 인구 집중, 권역별 격차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별 성장관리 전략 필요

– 인구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동부권과 서남권의 지역 간 격차의 폭을 증대시키고, 중남부권 지자체의 지방소멸 위기의식 증대에 따라 인구·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극화 심화
– 2040년 전라남도 읍면동 전체 297개소 중 229개소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전라남도의 대다수의 지역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음

그림 III-1-1
전라남도 읍면동 별 소멸지수 분포(인구총조사 결과)



광주 범례(Total : 93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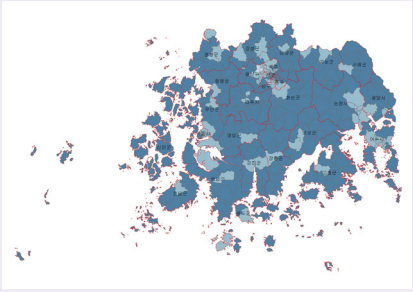
1.0이상 소멸 저위험지역(67개소)
1.0미만 소멸 주의지역(19개소)
0.5미만 소멸 위험 진입지역(3개소)
0.2미만 소멸 고위험지역(4개소)

전남 범례(Total : 295개소)

1.0이상 소멸 저위험지역(34개소)
1.0미만 소멸 주의지역(134개소)
0.5미만 소멸 위험 진입지역(37개소)
0.2미만 소멸 고위험지역(190개소)

2010년

[2010년 읍면동 별 소멸지수 분포]



광주 범례(Total : 95개소)

1.0이상 소멸 저위험지역(0개소)
1.0미만 소멸 주의지역(2개소)
0.5미만 소멸 위험 진입지역(43개소)
0.2미만 소멸 고위험지역(50개소)

전남 범례(Total : 297개소)

1.0이상 소멸 저위험지역(0개소)
1.0미만 소멸 주의지역(1개소)
0.5미만 소멸 위험 진입지역(67개소)
0.2미만 소멸 고위험지역(229개소)

2040년

[2040년 읍면동 별 소멸지수 분포]

- 대도시권 강화와 권역별 주변도시의 연계에 따른 소외지역 발생에 대비한 지역격차 해소 전략 필요
  – 광주를 중심으로 인접 시군이 연계·연담 되어 대도시권이 형성되고, 서남권의 목포시와 동부권의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를 중심으로 인접 시군 간 연계권이 형성되어 지역 공간 구조 변화를 초래
  – 중남부권은 인구감소 및 소멸지역의 가속화에 따라 공간적 양극화 발생되고, 공공서비스 취약지역이 확대되는 등 지역격차 심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 증대

-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내외 새로운 미래성장산업 창출
  – 에너지 관련 이전기관 및 관련 기업의 집적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주변의 인구 감소 및 저성장 고착화 등으로 침체된 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 제고

● 창업·기업성장 플랫폼 구축, 혁신·협업 허브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 거점 육성

– 창업-성장-성숙 등 기업생애 전주기적 지원을 위해 혁신·창업·교류 공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기업성장 및 창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산업혁신 및 창업 촉진

– 중앙행정·공공기관 및 대학,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지역인재 정착 및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 농산어촌의 활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기반시설 확충 요구 증대

● 귀농·귀촌 가속화에 따른 개방화 시대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귀농·귀촌인을 지역의 미래 주역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수립

– 귀농·귀촌 인구 급증에 따라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귀농·귀어·귀촌 활성화 지원 정책 추진

–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귀농·귀촌지원 종합계획('16년)”을 수립하고 귀농·귀촌인의 정착지원 대책 발표

* 청년층 중심의 귀농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2030 청년세대와 5060 중장년 세대를 구분, 세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체류형창업농장확대, 청년창농 교육농장운영, 6차산업 창업 연계 등 지원

– 정부는 청년농업인 양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청년창업농 중심의 농업혁신 성장 마련

* 청년창업농 중 1,200명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금 지원 등 청년창업농의 정착을 위한 종합지원 등 청년창업농을 농업혁신성장의 핵심인력으로 양성

● 관광, 낚시, 요트 등 어촌관광레저 수요 증가, 도서지역 접근성 증진, 소규모 항·포구 안전성 확보, 섬 주민 교통편의 증진, 어촌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어촌 뉴딜 300 추진

3. 주요 정책과제

1) 기본목표

⬡ 도시·지역관리체계 전환을 통한 균형 있는 지역 공간관리

● 지역구조 변화에 대응한 권역별 광역적 계획체계 구축

– 지역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생활권 재편 및 광역 공간구조 개편

– 광주 대도시권과 권역별 주요 도시 중심 공간구조 개편에 따라 지역 공간계획 체계의 실용성 제고

- 중남부권의 소멸위험지역에 대한 포용적·협력적 발전 강구
  – 소멸위험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기능 압축 및 권역별 연계·협력, 성장관리 체계 구축
  – 새로운 위기지역 대응 생활·정주환경 개선에 따른 지역격차 해소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육성

- 지역의 새로운 성장 혁신거점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기여 및 지역경쟁력 강화
  – 국가균형발전거점과 지역거점 연계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 육성 촉진
  – 국가균형발전거점을 중심으로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간 공동 R&D 및 실증 프로젝트, 기술·제품 상용화, 인력 양성 등 지원 확대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지역전략산업의 연계·협력을 통한 국내외 지역경쟁력 강화, 주변 지역의 성과 공유를 통해 지역 활성화 도모
  – 국가적 차원의 성장유망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등 전라남도의 해상풍력, 직류산업 등과 연계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협력하여 신성장동력 발굴 등 혁신도시와 상호연계 강화 추진

그림 III-1-2
빛가람 혁신도시



포용적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농산어촌 간 지역 격차 해소

- 주변의 성장지역과 연계, 생활공간 단위의 공공서비스 제공 등 유연하고 기능적인 공간 균형전략 추진
  – 농산어촌 지역의 개발행위를 기반시설의 공급, 농산어촌 지역의 경관관리,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인접한 공간으로 집약한 개발을 유도
  – 인접 시군과 연계·협력을 통한 의료·복지·교육 등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농산어촌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라 자립적 생활권 구축, 지역 내 중심지 및 기초

생활거점 형성을 통한 활력 있고 매력 있는 농산어촌 공간 조성

- 농산어촌의 경관 및 환경을 고려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여 환경오염 및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도·농 통합공간을 확대하고, 녹지·공공공간 확충 등 차별적인 정주여건 확보

그림 III-1-3
(사례)고금권역 어촌종합개발 사업 계획도



2) 추진전략

⬡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시·지역 공간의 연대·협력 체계 구축

- 대도시권의 역할 강화와 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재편,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체계의 유연적 개편
  - 광주를 중심으로 인접 시군의 광역권 공간구조 개편 및 중소도시를 연계 거점으로 형성되는 압축·다핵구조의 도시권으로 공간 구조 개편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
  - 생활권 중심의 포용적 공간 활용에 따른 성장거점 조성형 지역 발전 전략 수립
- 지역소멸 위기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균형 있는 생활공간 구축 및 인근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
  - 인구 변화에 따른 공간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수요자 특성에 기반하는 생활서비스를 집약하여 권역별·지역별 격차 해소
  - 성장지역 연계, 생활공간 단위 공공서비스 제공 등 유연하고 기능적인 공간 전략으로 전환

⬡ 균형발전 제고를 위한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 기반 강화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증대와 정주환경 개선
  - 국제교류거점 기능 지원을 위해 광역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지역 내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한 이전공공기관 업무효율성 증진
  -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혁신도시 경쟁력 강화

- 혁신도시와 연계한 국가균형발전 거점 중심의 강소도시권 육성을 통한 인근 중소도시의 재도약 기반 마련
  - 국가균형발전거점을 중심으로 고차 생활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 주변 중소도시와 생활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지방 중소도시 재도약을 촉진하는 강소도시권 육성
  - 국가균형발전거점-구도심-중소도시 간 생활인프라 공동이용 및 생활서비스 연계 강화, 산업 및 문화관광 분야 연계를 강화하여 지방의 강소도시권 육성 지원

⬡ 중심기능 강화를 통한 농산어촌 지역의 생활·정주 공간 개선

- 읍면소재지와 배후마을을 포함하는 농산어촌 중심지의 거점화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생활권 형성
  - 농산어촌 중심지-집단마을-한계마을 등의 계층구조 형성 및 이에 따른 관리 시스템 도입
  - 거점화 지역에 고차서비스 시설 및 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한 주변 지역과의 연계·협력 및 생활권 형성을 도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인프라를 공동생활영역에 포함하는 전략 추진
  - 지역 특산물, 생태·문화 등 농촌 특화자원 활용 등 거점화를 통한 지역 중심기능 강화
- 농산어촌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농산어촌 대상의 다양한 지원 정책 반영
  - 귀농어·귀촌인 유치 가속화와 귀농 정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귀농 후 안정적 정착 재원 확대 등 농산어촌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
  - 여객선 기항지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어촌마을 재생, 어촌관광수요 창출 등 어촌마을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 확대 추진

3) 핵심 프로젝트

⬡ 대도시 광역권 형성과 권역별 압축적 도시권 육성

- 대도시권 형성과 권역별 광역화 전략을 위한 지역-도시 간 중추 거점 및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1-1-가, 1-1-나)
  - 인구감소가 지역쇠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시기능의 압축과 연계를 통한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인접 시·군을 연계한 생활인프라 향유권 개념을 도입하여 위계별·기능별 생활서비스 거점 구축 추진
  -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균형발전 정책으로서 거점지역과 주변 중소도시 및 낙후지역 등을 연계한 컴팩트-네트워크 생활권 도입방안 마련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업무·생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 구축

- 공공기관 업무·생활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혁신도시 경쟁력 및 지역 활성화 강화(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1-2-다)

– 신도시는 수도권에서 이전한 가족들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수준 높은 정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는 여전히 큰 상황
– 혁신도시별로 문화·체육·보육 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고, 다양한 타부처 정주시설 건립도 추진되고 있으나, 혁신도시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시급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경우 '교통 환경'과 '의료서비스 환경'의 우선적 개선이 필요하고 '여가활동 환경'개선 및 '주거환경'의 점진 개선, '편의서비스 환경'의 유지·강화 필요
– 지역간·지역내 교통접근성에 대한 우선적인 '교통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인근 주변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등 '의료서비스 환경'에 대한 개선도 필요
  • (교통 환경 개선 방향) 지역간·지역내 교통접근성 향상 대책 방안 마련 필요
  •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 방향) 주변 지역을 포함한 혁신도시 중심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대책 방안 마련 필요
–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

⬡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리체계 구축

●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와 매력 있는 공간 육성(국토종합계획 계획지침 III-1-3,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1-3-가, 1-3-나)
– 도시집중 현상에서 벗어나 농촌 지역으로 분산 및 도농 동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도록 농촌을 모든 국민에게 매력 있고 가치 있는 공간으로 전환
  • OECD(2019)는 사람 중심의 저밀도 지역경제 전략을 새로운 농촌정책으로 채택하고,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농촌 주민의 웰빙 향상을 목표로 정책 원칙을 제시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지원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통합지원, 마을공동체 기반 지역 역량 강화 및 활력 촉진 등 중앙정부의 컨설팅 기능 강화
  • 인구감소지역의 유휴화 대응 및 집약적 정주체계 개편, 지역자산을 활용한 매력적인 공간 창출, 도시·생활서비스 강화로 교류·체류인구 유치 촉진
– 농촌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의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농촌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
  • 농촌의 정주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인프라를 집약하여 조성하고, 이를 배후지역과 연결하여 어디서나 일상생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환경 조성
  • 불편 없는 농촌 생활권 구축, 농산어촌 내 지역거점과 집단거주마을, 한계마을 등 정주계층별 관리 강화

-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을 확충·고도화하여 서비스 거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

– 인구감소지역은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 등을 추진하여 기존 기반시설과 유휴자원을 최대한 활용
- 공간의 유휴화에 대응하여 농산어촌의 환경을 기존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경관·생태 자원을 보존·증진하여 매력적인 공간을 창출
- 농촌 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장래인구 변화 추세에 따른 효과적인 토지이용 강구

– 귀농·귀촌 청년 및 도시 은퇴자 등 농촌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비롯해 농촌 주민들의 주거 수요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빈집, 유휴시설, 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농촌에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
- 귀농·귀촌 같은 고정된 인구의 개념을 넘어 여가·휴양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농촌에 체류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정주여건 조성

– IoT,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지역의 비즈니스 혁신과 기후변화 완화·적응 지원
- 원격의료·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 및 고도화, 스마트화 촉진 및 농촌융복합산업, 로컬푸드 확산으로 선순환 경제구조 마련
- 농촌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장려하고 순환경제로 전환 지원, 에너지 부문의 저탄소화 추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지원

● 새로운 낙후·위기지역의 포용적 맞춤형 지원 방안 형성(국토종합계획 계획지침 III-1-3)

– 중앙정부는 소득, 환경, 재해 등 다양한 차원의 낙후·위기지역을 국가적 관심 지역으로 지정하고 선제적 대응과 지원을 강화
- 성장촉진지역, 도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부처별로 다양한 선정 기준과 지원제도를 장소기반으로 통합 운영하여 지역발전효과 제고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위기지역의 선제적 발굴 및 예방 대책을 마련 중

– 낙후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개발계획의 역할 재정립
-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과 인근지역의 발전목표를 공동으로 설정하여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확대
- 국가가 추진하는 균형발전계획 중 낙후지역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사업으로 포함하여 지원 강화

– 도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필수 생활인프라 공급 추진
- 현재 공급된 생활SOC는 대도시·중심지역 위주로 지역 간·지역 내 격차가 있으나, 낙후지역·비도시지역에도 국가최소기준을 충족하는 생활SOC를 공급하여 형평성 실현 및 국민이 체감한 삶의 질 제고
-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체계적 공급을 추진하고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SOC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지역 관리 및 최적의 계획 수립을 지원

● 생활SOC 접근성 제고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3-2-다)

– 그동안 생활SOC는 부처별·시설별로 각각의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되어 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공급
  • 대도시·중심지역 위주로 공급되어 지역 간, 지역 내 격차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낙후지역·비도시지역 등 기준이 없는 사각지대도 존재
– 낙후지역, 비도시지역에도 최저기준 생활SOC를 공급하여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공간적 형평성 실현
  •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부처별·시설별 공급기준을 비교·검토하고, 도시·비도시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한 생활인프라 서비스 국가최소기준 마련
– 전라남도가 수립하는 각종 지역개발 계획·사업과 연계하여 생활SOC 국가 최소기준에 부합하는 생활SOC 시설 확충 계획 추진
  • 각각의 생활SOC 시설에 대한 접근성 지수 분석을 통해 국가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생활SOC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균특회계 우선 지원 등 지역투자 확대 추진

제2절

유연한 성장 관리를 통한 지역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 도시 내 저·미이용·유휴공간 확대에 따른 도시 공간 환경의 악화

- 도시외곽 과밀개발로 인한 도시 공간구조 왜곡 및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 공간의 저·미 이용 유휴공간 확대 등 도시 공간 환경의 악화 지속
  - 대부분 도시개발 수요가 도시외곽의 신규개발에 공급됨에 따라 도시내 유휴토지는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
  - 전라남도 시·군의 인구증감 유형화를 보면, 지속적 쇠퇴지역은 1995년~2005년, 2005년~2016년 감소한 지역으로 목포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4개 시·군
    * 잠재적 쇠퇴형은 전반기에는 인구가 성장하다가 후반기에는 절대 감소한 지역으로 여수시, 화순군, 영암군으로 나타남
    * 불안전 성장형은 후반기에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전국 인구 증가율보다 낮거나 전반기 인구가 절대 감소하였으나 후반기에는 성장한 지역으로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담양군으로 나타남
    * 안정적 성장형은 전·후반기 모두 전국 인구증가율보다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인 지역으로 전남지역에는 전무
-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생활권의 교외화·광역화에 따른 도심 쇠퇴 및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 지속 등 도시성장관리 미흡
  - 장시대의 도시계획 논리와 과잉 도시개발 지속에 따라 접근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한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이 지속
  - 도심 내 노후 인프라 증가와 유지·관리 미흡에 따른 도시 경쟁력 약화
    * 도심지역의 건축물 노후화는 평균 82% 이상으로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
    * 특히, 중소도시의 사회·경제적·물리적 쇠퇴가 매우 심각

⬡ 급격한 도시화와 신·구시가지간의 불균형 및 갈등

-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하는 한편 구시가지와 원도심은 도시 내에서 가장 접근성이 양호한 토지로서 효율적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인구와 자본유출에 따라 노령인구와 저소득계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쇠퇴지역으로 전환
  - 시가지 조성에 따른 인구와 자본유출에 따라 노령인구와 저소득계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쇠퇴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시가지와 원도심의 갈등 발생
  - 광역시로 갈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전라남도의 경우 광주광역시 인근 5개 시군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동부권과 서남권의 주요 도시에서도 같은 현상 발생
- 도시내부의 자생적 도시정비 기회 상실로 구시가지 환경의 열악과 기반시설 부족, 인근 도시와의 마찰 발생
  - 신시가지 및 신도시지역에 과도한 상업·업무 용지로 인한 부동산 시장 왜곡과 구도심 침체 및 재생수요 소진

– 도시 광역화의 급속한 진행과 교통 등 광역시설과 인구유출 등과 관련한 인접 시군간의 마찰이 발생

대도시화·광역화에 따른 다양한 도시 문제 발생

- 도시 열섬, 미세먼지·대기오염, 교통 혼잡, 도시슬럼화 등 다양한 도시 사회 문제 발생
  – 지구온난화로 인한 도시열섬 및 폭염 증가, 미세먼지는 새로운 도시문제로 부각
- 스마트도시, 스마트홈, 제로에너지주택 등 도시 분야의 미래 도전과제와 핵심가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중심의 정책과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보급형 방식, 공공 주도의 일방적 접근으로 시민 체감 부족
  – 신도시 및 혁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조성 중심의 스마트시티 사업 투자가 이루어져 신·구 시가지의 격차 증가
  – 나주시,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완도군, 해남군에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였으나 도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해 효과는 다소 미흡
- 전반적으로 기존 국내 스마트시티 모델은 첨단인프라 구축 중심
  –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은 지자체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신규 기술 또는 모델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고, 방범과 교통 서비스 중심의 제한된 스마트시티 추진
  – 스마트시티 사업은 택지개발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발판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노후 도심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스마트시티 사업 미추진

2. 여건 변화 및 전망

도시의 적정 개발·관리 강화와 통합적 도시성장관리모델 개발 요구

- 인구감소시대의 생활SOC 취약지역 증가에 따른 적정 개발과 계획적 관리 유도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집약적 도시공간구조 개편 필요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속한 인구감소가 전망되고, 일부 도시는 기능이 지속적으로 쇠퇴하면서 도시경쟁력 약화가 전망되는 한편 인구유출과 시가지 확산 등에 의한 도시 공동화 현상 심화, 인구 감소, 유휴·방치 부동산 증가 등 부정적 파급효과 유발
  – 저성장 시대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도시 내에서도 인구분포의 공간적 불평등 심화 우려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집약적 도시공간구조 개편 필요
  –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으로 생활SOC에 대한 최소한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장소 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도시·지역 공간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정책 요구

- 도시공간의 균형개발과 관리를 위한 생활권 재편 및 압축도시 구현
  - 신·구시가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시가지 정비 및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고, 밀도 관리를 통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수요의 배분 필요
  - 도시 외 지역 전역으로 성장관리를 확대하고, 공동체 활성화 필요
- 많은 지방도시가 인구증가와 함께 성장되어 왔으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구 집적이 필요한 대규모 생활서비스의 제공은 어려워질 전망
  - 흩어진 인구를 적정하게 집적시키고 노인이나 주민이 대중교통을 통해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콤팩트 시티의 도시공간구조 형성 필요
  - 특히 원도심의 미개발, 저밀·저개발 유휴지를 활용하여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외곽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위계별 과도한 개발 억제 요구

데이터 구축과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발전 전망

-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 경제 등 디지털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스마트시티 등 도시정책 변화에 따른 도시 사회 문제 해소 방식의 변화
  - 기존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외 스마트시티 모델 도입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이전과 다른 포괄적 스마트시티 정책을 논의
  - 도시재설계, 스마트시티 등 도시 정책 변화로 인한 새로운 도시정책 구현과 이에 따른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
  -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기반으로 사람·기기·공간·데이터가 도시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초연결될 것으로 전망
- 공공분야 중심의 초창기 공간정보 구축사업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내비게이션업체의 도로지도, 인터넷 포털업체의 영상지도, 위치기반업체의 실내지도 등 다양한 분야로 융복합 발전
  - 지자체 행정의 80% 이상이 위치와 관련된 업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빅데이터 활용, 개방형 융합 플랫폼을 통해 혁신 환경 조성
  - 공간정보에 기반 하는 정보화는 교통약자 경로 안내 서비스와 같은 복지 분야는 물론, 도시 공간 대기환경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예측경보 등과 같은 생활서비스 분야에 활용 가능
- 도시 내 새로운 공간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모델의 변화
  - 기상이변에 따른 복합 재난재해를 예측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간정보와 융복합하여 방재업무 지원 등 사회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등장
  - 도시 내 건설 중심의 도시문제 해결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방식의 도시문제 해결 및 도시운영 방안 도입

* 스마트시티의 경우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신규 SOC 구축 없이 도시 문제를 해결

* 교통혼잡의 경우 교통사고 정보 제공 및 최적 경로를 제공하여 대응

* 주차 문제의 경우 주변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 공간 탐색 시간 절약

* CCTV 구축으로 경찰 인력을 보완함으로써, 인력 추가 없이 범죄예방 효율화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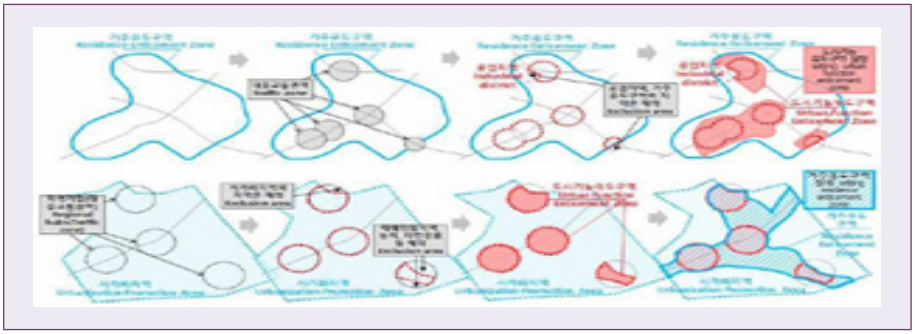
3. 주요 정책과제

1) 기본목표

⬡ 도시공간의 균형개발과 조화로운 관리 체계 구축

- 도시외곽 개발을 지양하고 자족성을 갖는 전남형 압축도시 모델의 개발 및 구현을 통한 시가지의 평면적 확산 방지
  - 지역 특화 및 장소 중심적 도시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 사업·예산 체계 확보
  - 주민 주도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산화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 선순환체계 마련
  -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제생태계 조성
  - 구도심 지역의 유휴 공간·부지의 집약·복합적 활용을 통해 신규 주택과 상업·업무·산업 공간을 공급하는 도시공간의 압축적 이용 유도
- 사회통합형 도시·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생활SOC 접근성 제고로 편안한 생활공간 조성
  -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고 구도심 지역의 기존 성장거점의 공간·기능을 재구조화하여 산업·문화·공간과 경제·사회생태계가 융복합 된 새로운 성장 혁신기반 조성
  - 축소도시 내 스폰지형으로 존재하는 유휴 공간·공지를 그린인프라 등 지역자산으로 전환하여 도시 내 도·농 통합 공간 확대와 녹지·공공 공간 확충 등 차별적 정주여건 확보
  - 중장기적 차원에서 인구감소에 따라 과잉 공급된 공공시설과 인프라, 용도지역과 건물들을 재구조화하여 도시의 적정규모화를 실현하는 성장관리형 도시재생 추진

그림 III-1-4
도시공간 관리체계 예시



⬡ 도시·지역 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포용-협력의 발전방안 구축

- 도시·지역 내 생활거점 구성을 통한 도시공간의 압축 및 거점 간 연계 방안 구축
  - 생활 인프라 최저기준을 활용하여 생활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생활거점 및 정주구역 설정
  - 행정구역과 별개로 거점을 중심으로 압축적인 생활권을 설정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신시가지와 원도심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시가지 정비와 공동체 및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 마련
  - 도심 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고령가구의 증가는 주거공간의 개선 외에 의료·복지 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의 연계 수요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전략 추진
  - 원도심과 신시가지의 포용-협력의 발전방안을 지향하고 새로운 공간균형 전략으로 전환

⬡ 공간정보기반 고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지역·도시 관리체계 구축

- 도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과 지능형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본 공간정보 고도화 및 관리체계 구축
  - 도시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하는 저비용 고효율적 스마트시티 솔루션들이 주목받고 있음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의 스마트시티 적용은 정확한 도시문제의 진단, 기술적 수준 향상보다 성과적 측면에서의 목표 달성, 리빙랩 적용을 통한 시민참여의 확대 등이 중요한 고려 사항
  -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이동체,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인공지능 로봇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 도입·적용 및 확산
  - 표준화된 기준데이터 생산 및 가공 체계를 공유하여 수요자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부가정보 융복합 등 정보 재생산은 민간 중심 산업으로 확대 및 지원
- 초연결 빅데이터 체계 운영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 클라우드 환경 조성 등을 통한 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서비스 체계의 정비, 공공 및 민간 서비스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인프라·데이터·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제공
  - 정보 융복합 산업의 촉진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구축과 지자체·민간 클라우드와의 호환 및 복합 분석·활용 환경 구축

2) 추진전략

⬡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한 도시재생체계 구축 및 활성화 전략 수립

- 도시 내외부, 신·구시가지 등 균형개발을 위한 도시 공간 재편 요구

– 광역화된 도시 외곽 지역 생활권 지양, 도시 내 미이용, 저이용 공간 개발 등 인구감소와 생활권 재편 등 도시 내·외 공간구조 재편과 신·구시가지 격차 해소를 위한 구시가지 정비 및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으로 지역균형개발 지향

-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과 지역 자율적인 도시재생 추진 체계 확보
  – 생활권 중심의 공간 활용을 위한 재생 활동 유도 및 전략 수립
  – 특정한 지역의 과도한 밀도개발을 지양하고 적정한 개발 수요를 배분하여 인구감소시대 밀도관리를 위한 공간계획 수립 및 유도
  – 도시 내 구도심 지역의 미이용·저이용 토지 및 유휴부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 수립

- 인구감소 및 도시축소화에 대응한 사회 재건형 도시재생 활성화
  – 쇠퇴되는 구도심의 노후한 물리적 자산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사회적 약자 및 지역민들의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로의 접근성 강화로 편안한 생활공간 조성
  – 시가지의 평면적 확산방지를 위한 도시외곽 개발을 지양하고 자족성을 갖는 전남형 압축도시 모델의 개발 및 구현

⬡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시·지역 내 거점 설정 및 연계권 형성

- 지역과 장소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기반 마련
  – 지역의 압축전략 추진을 통해 발생되는 유휴공간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필요
  – 노후산업단지 및 공공시설의 이전, 휴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도시 내 유휴공간에 신산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을 공급
  –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고 구도심 지역의 기존 성장거점의 공간·기능을 재구조화하여 산업·문화·공간과 경제·사회생태계가 융복합된 새로운 성장 혁신기반 조성

- 인구감소 및 도시 축소화에 대응한 사회 재건형 도시재생 활성화
  – 신규 주택과 상업·업무·산업공간은 구도심 지역의 유휴공간·부지의 집약·복합적 활용을 통해 공급하는 도시공간의 압축적 이용 유도
  – 도심부는 미이용·저이용 토지로 인하여 밀도가 낮은 반면, 도시외곽지역은 높은 밀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주택수요는 도시내부의 고밀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업무수요 역시 도시내 생활권상 활성화 거점지역에 집중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노후 건축물 및 빈집, 유휴공간의 계획적 관리와 활용
  – 지역 내 발생하는 신규수요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시가화 지역내 소규모 맞춤형의 개발을 지향하고, 도시·지역 내 미이용·저이용 토지를 활용

– 주택 노후화와 급속한 쇠퇴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된 지역을 긴급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도시재생 추진 본격화
– 빈집, 유휴·방치건축물 등이 집중된 구도심 및 저층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 및 우선 활용

⬡ 체계적인 지역·도시 관리를 위한 스마트서비스 개발 및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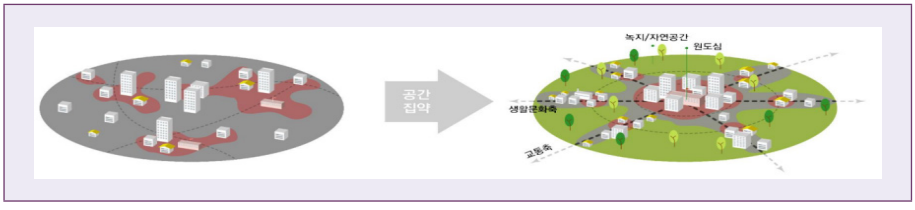
- 공간정보와 연계한 지능형 도시 관리 시스템 구축
  – 단순 도시개발이 아닌 지능형 생활공간 조성을 통한 도민 생활의 편의성 제고, 정보 기반 고도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
    • 시범도시에서 실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확산하여 전라남도 모든 지역의 스마트시티화 및 지능형 생활공간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인프라-플랫폼-혁신을 포괄하는 전남형 스마트시티 모델 구축 및 확산
  – 혁신 공간 창출을 포함한 기반 인프라 구축-플랫폼 연계-실증-도시 네트워크 등을 포괄하는 완성형 스마트시티 모델 구축·보급 및 확산
  – 현재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지역에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을 테스트하고, 성과들을 확산하기 위한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 스마트시티의 확산은 전지역의 스마트화로 이어지며, 스마트서비스 제공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 구현

3) 핵심 프로젝트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남형 집약적 압축도시 구현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집약적 도시공간구조 개편(국토종합계획 3-1,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3-1,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 1-2)
  – 인구감소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기반시설의 수요 감소를 반영하고, 친환경·스마트한 공간 구조 형성을 위한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의 확보 기준 개선
  – 과잉 기반시설 계획을 현실화하면서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공원, 휴식공간, 도·농 통합공간 등 공공서비스를 위한 시설로 계획하고, 지역별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공간 정비
  – 주요 교통축, 생활문화축 등 지역 주민의 생활 행태를 분석하여 도시공간의 스마트한 도시공간 관리 방안 마련에 활용
  –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등은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기초적 삶의 질 보장

그림 III-1-5
도시공간 재편과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자료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네트워크형 압축도시를 조성하여 집약적인 도시공간구조 구축(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1-2)
  - 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거주유도구역과 도시기능유도구역, 생활거점지구를 지정하여 압축적인 공간구조로 재편
    - 압축된 공간은 녹지나 공원 등으로 재활용
  -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 공간 전체의 관점에서 네트워크형 압축도시 조성
    - 매년 공간의 압축성과 토지이용 복합도 등을 조사하여 거주유도구역으로 인구를 유도하고 도시기능유도기능에 생활 필요시설 집약화
    - 시·군 관리계획을 수립 시 토지이용 압축성을 측정하여 발전계획 수립 시 공간의 집약을 위한 측정지표로 활용
  - 생활거점지구를 교통축, 상업시설, 시설의 집약도 등을 고려하여 반경 300m로 설정
    - 생활거점지구에는 도시 정주의 필수기능인 교육·의료·상업 기능과 문화·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업무시설 등의 고차 전문기능을 배치
  - 도시외곽의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외곽지역의 대규모 개발 시에는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최소밀도 규정과 규제수단의 도입
    - 새로운 주거지역이나 상업·업무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수요를 가능한 도심지역에 집약하고 외곽 개발은 지양
    - 생활거점지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서비스는 가능한 도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기능과 활용을 융·복합화
    - 문화·복지시설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용토록 정비

- 중소도시권의 공간구조 개편 전략 수립(2가지 형태)
  - 첫째, 미약하지만 허브역할을 하고 있는 중심도시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시·군이 존재하는 형태
    - 주변 시·군은 인구가 감소하지만 중심도시가 어느 정도의 인구규모와 개발수요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구축하고 이를 네트워크 하는 전략 수립
    - 주변 시·군은 중심도시와 각각 하나의 지역생활권으로 재편하고, 중심도시와의 연결부 혹은 그 외곽지역에 지역검정을 설정하여 기능을 강화
    - 중심도시와 지역생활권 사이에는 대중교통 연결망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고차의 도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계획
  - 둘째, 허브역할을 하는 중심도시가 없이 비슷한 규모와 성장력을 가지는 중소도시들이 이웃하고 있는 형태
    - 중심도시가 없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소도시들의 경우로 단기적으로는 도시계획만이라도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 장기적으로는 이웃한 지자체와 행정구역을 연합하여 하나의 규모 있는 자치협력체제를 독립적으로 구성
  - 전남지역의 도시권들은 광주대도시권 이외에는 강력한 단일 핵이 존재하기보다는 중소규모의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다수의 핵이 상호 네트워크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중소도시권임

- 인구감소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3~5개 도시를 연계하여 고차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30만명 내외의 배후 인구를 확보하는 강소도시권 육성 전략 수립

⬡ 중소 거점도시의 도시재생을 통한 혁신거점 조성

- 전남지역의 특성과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거버넌스 체계 구축(국토종합계획 3-1)
  - 지역의 특화자원과 장소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 사업 및 예산체계 확보와 주민들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성과 창출과 주민들의 도시재생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에서는 도시재생 거버넌스와 안정적 추진을 위한 행정·사업구조 마련에 노력
  -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자산화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 선순환체계를 마련하고 마을기업 육성 등으로 경제생태계 조성
  - 통합적 예산운용, 사업추진체계, 지역발전투자협약,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활용한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 중앙정부는 지역의 경제·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거점 마련과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도록 사업추진을 지원
  -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도시재생 추진기반 마련, 지역 자율적 도시재생 추진체계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등을 활용한 자체 예산확보와 단계적 추진 거버넌스 마련

-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사회 회복형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3-1-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1-3)
  - 대도시 및 지역 거점도시의 구도심 활력 제고와 성장거점 조성형 도시재생 추진
    - 구도심 지역의 유휴공간·부지의 집약·복합적 활용을 통해 도시공간의 압축적 이용을 유도
    - 빈집, 유휴·방치건축물 등이 집중된 구도심 및 저층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공유주택의 도심 내 공급을 확대
  -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 특화 도시재생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사업주체와 수요자로 직접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소셜비지니스 기반의 지역단위 구축 및 활용
    - 지역에 산재하는 역사·문화·공동체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도록 인적·경제적 자본 강화
    - 청년·여성·퇴직자들이 공유경제 창업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통해 빈집,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공유 플랫폼으로 조성·제공
  -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경제 규모 축소에 적응하는 도시재생 추진과 지역자산 활용
    -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유휴·방치된 물리적 시설·토지를 도시 내 거주민들의 일시적 필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임시 완화 계획 및 재생사업으로 추진

- 지역에 산재된 역사·문화·공동체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도록 인적·경제적 자본 강화 목적의 사회적 관계 육성

● 노후화된 건축물 및 빈집, 방치건축물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 및 활용(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3-1-나)

– 노후·저층 주거지의 물리적 개선과 취약계층 보호 및 노후·방치건축물의 소규모 정비 강화
  - 주거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도시재생 확대 및 취약계층의 주거 한정공간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 빈집, 유휴·방치부동산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우선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공유 주택 도심 내 공급을 확대
  - 노후방치건축물에 대한 재건축·리모델링 방식의 재정비를 확대·강화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과 소규모 정비기법 발굴 및 확산

–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빈집의 단계별 정비·예방 체계 마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은 빈집 재생, 관리와 활용 등에 관한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해 빈집을 지역자산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빈집에 대한 처방적 조치와 함께 앞으로 발생할 잠재적 빈집에 대한 선제적 조치 필요
  - 빈집 소유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빈집 활용과 인식 확산을 위한 공가율 등 관련 통계 기반을 마련하여 빈집 발생 요인 분석 및 예측이 가능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필요

⬡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 성장관리방안 모색

● 인구감소에 대비한 적정 개발과 계획적 관리 유도(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3-1)

– 시·군기본계획 수립시 계획인구 외에 지역의 특수한 기능 등을 고려하여 개발 가능한 용지를 산정하고,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용지별(주거, 상업 용지) 물량 산정기준 마련

– 저성장시대에 대응하여 도심의 무분별한 확장적 개발은 지양하되, 도시공간의 복합·입체 개발에 필요한 도시계획 지원

– 비시가화 지역 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관리 강화, 성장관리방안 내실화 추진

● 개발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녹지지역은 중점 관리

– 성장관리 대상지역의 개발수준, 정비방향을 고려해 중점·일반 관리로 세분화하는 등 차등적 관리 강화

– 개발압력 양상을 고려하여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되, 농촌생활권의 지구 중심이나 개발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집중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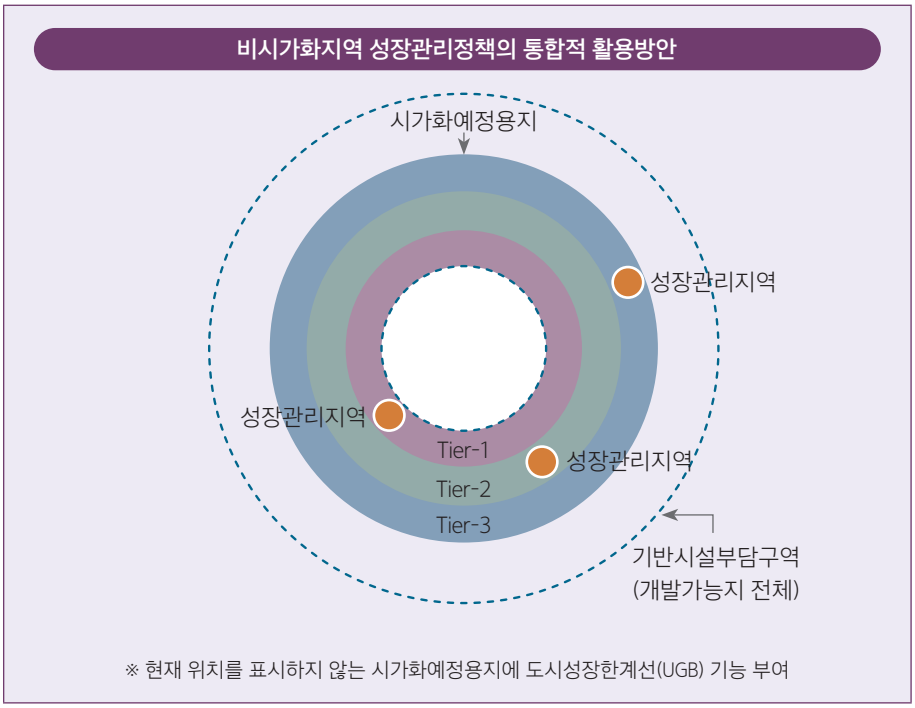
– 중점 관리가 필요한 곳은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일반 관리가 필요한 곳은 상업형, 여가휴양형 등 유형별 관리 추진

- 통합적 도시 성장관리모델 개발(국토종합계획 3-1)
  - 원도심과 신도시의 연계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커뮤니티 강화, 주거공간 조성, 첨단인프라 구축 등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
  - 지역 내 발생하는 신규 수요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시가화 지역 내 소규모 맞춤형의 개발·정비를 유도하고, 미·저이용 토지를 우선 활용
  - 미·저이용 토지와 유휴부지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모니터링하고, 미·저이용 토지 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 검토

- 특정지역의 과도한 밀도개발을 지양하고 적정한 개발 수요를 배분
  - 개발수요 및 밀도관리를 위한 공간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적정한 개발 수요 배분
    - 시군기본계획, 종합계획 등에서 용도별 개발수요를 고려한 밀도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유도
    - 밀도배분계획은 지역의 도시밀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 정도를 설정하여 수립
    - 주거밀도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도록 계획하되, 공간위계상 중심지 지역은 중고밀 허용
    - 상업·업무 밀도의 경우 도시 전체의 상업·업무 수요를 추정해 주요 거점 및 중심지에 차별적으로 배분

-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무화 및 공간적 범위 확대
  - 개발압력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는 계획관리지역 등을 중심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
    - 비시가화지역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들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지정목적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최소화
    -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생산관리지역의 허용용도 및 밀도와 유사하게 관리하여,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을 유도
  -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을 개발수준, 정비방향을 고려하여 구역을 세분하고 차등적으로 관리
    - 중점관리구역에 대해서는 도로계획선, 기반시설설치,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 경관관리 등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 일반관리구역에 대해서는 각 구역별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허용 용도 중심으로 관리
    - 일반관리구역은 주거형, 상업형, 복합형, 산업형, 여가휴양형 등으로 구분하고 허용용도를 차등적으로 허용하거나 허용용도에 따라 밀도를 차등적으로 운용

그림 III-1-6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정책의 통합적 활용방안



자료 :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책의 개선방향과 과제, 국토연구원, 구형수, 2018.

지역·도시 관리를 위한 스마트시티 구현

- 지역·도시 관리를 위한 전남형 스마트시티 모델 구축과 확산(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5-5-가)
  - 나주시,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완도군, 해남군 등은 공간·데이터 서비스에 기반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
    -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시범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전남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제시하고, 전라남도의 다른 시군으로 확산 추진
  - 중장기적으로 도농복합시, 농촌지역 등을 포함한 전국단위 확산 및 장애인 독거노인 어린이 등을 위한 솔루션 제공으로 포용성 확보
- 지역·도시 관리를 위한 전남형 스마트시티 개발과 확산 기반 조성(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5-5-나)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보급을 확대하고 재난 안전 분야 외에도 복지 환경 등 서비스 분야 확대 추진
  - 기초 지자체와 연계해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광역센터 구축 및 플랫폼 고도화도 병행
  - 데이터 허브 기술 실증 및 6대 스마트서비스(교통·안전·행정·에너지·환경·생활복지) 개발을 본격화하고 시범적으로 비즈니스 및 확산 추진
- 공간 빅데이터 관리체계 고도화(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5-5-마)
  - 사회현상을 정확히 진단·예측하여 지역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학적인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 지역개발, 교통수요 분석, 재난 방지 등의 합리적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빅데이터 활용 강화

제3절

광역·지역 간 SOC 재편 및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사회간접자본의 노후화, 부족에 따른 지역 경쟁력 저하

- 사회간접자본의 노후화 및 교통서비스 제공 부족
  - 지방도 포장도는 2차로이하 ~ 6차로로 구성되어 있으나 2차로 이하의 포장도가 전체 연장 중 50% 이상을 점유하여 도시·지역간 교통연계시설 부족
  - 고도성장시기에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일시에 집중되고 추진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회간접자본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의 부족
- 교통망·교통수단 부재에 따른 지역 경쟁력 저하 및 교통 사각지대 발생
  - 항만 물류량 증가와 지방공항 활성화·항공산업 연계 발전 방안 등이 요구되는 한편, 도로·철도 부족에 따른 접근성이 미흡
  - 일반국도의 대부분이 사용연한을 초과하고 고속철도와 기구축된 철도가 병존하여 시설 및 안전 수준의 차이 발생
  - 섬지역의 경우 해상교통으로 교통수단이 한정됨에 따라 접근성이 떨어지고, 농산어촌의 경우 도로 및 철도 접근성이 떨어져 교통서비스 체계 개선 필요

대도시권 교통 혼잡 심화 및 상시화 고착

- 광주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의 대도시권 형성에 따른 통행량 증가 지속 및 교통 집중화 발생
  - 대도시권의 지속적인 인구 집중, 주변지역 개발 등으로 인한 광역화 진행에 따라 광역교통축의 용량초과로 교통 혼잡 심화
  -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교통축 및 정체가 발생하는 단속류구간과 병목구간 등이 고착화
-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 부족에 따라 광역화에 어려움
  - 인근지역에서 대도시로 진입하기 위한 교통수단이 개인교통수단으로 집중되어 있어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 구축이 필요

항만 경쟁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및 부가가치 창출 기능 미흡

- 전라남도는 지정항만이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낮은 개발률로 어항·항포구는 열악한 실정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관리하는 국가어항 32개소, 도지사가 지정하고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방어항 90개소,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 94개소, 비법정 어항인 소규모 항·포구 883개소 등 1,099개의 항·포구 분포
  - 전라남도는 1994년부터 지방어항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어촌·도서 주민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인 어항·항포구는 상대적으로 열악
    * 소규모 항·포구(1,291개, 전남 883개, 전국 대비 68% 차지)의 개소당 연평균 투자액은 5천만원에 불과
  - 어업활동 및 수산물 유통기지이자 어촌 정주환경의 핵심 기반인 어항은 어촌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어선세력의 변화, 어선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개발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개발률이 62%로 저조한 실정

- 항만과 도시 간 부조화 지속 및 상생 여건 미흡
  - 구항만의 경우 시설 노후화, 유휴화, 미관저해, 공해발생 등의 이유로 인접한 도시의 기능 확장과 충돌이 가중
  - 항만 화물량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항만 배후단지 물동량 및 부가가치 창출 기능 미흡에 따른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

거점공항의 역할·기능 및 지역 공항 활성화 미흡

-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점공항 역할 및 기능 미흡
  - 서남권역의 중심 공항임에도 광주공항과의 통합·이전 시기가 불확실하여 거점공항으로서 국내선 및 국제선 처리에 어려움 가중
  - 현재 무안국제공항의 공항 통합을 전제로 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필요
- 계획수립 추진 중인 지역공항 착공 지연 및 지역 공항 기반시설별 노후도와 성능 개선 추진
  - 흑산공항의 경우 착공 지연, 여수공항의 경우 공항 노후에 따라 체계적인 유지관리·성능개선 요구

2. 여건 변화 및 전망

핵심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광역간 발전 기반을 위한 교통체계 재편 요구

- 철도·도로·항만 구축으로 서남권 물류 중심지 역할 강화 및 환서남해안 경제벨트 전초기지 역할 강조 전망
  -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노후화가 일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어 사회간접자본의 재정비 요구 증대
  - 모든 수송 수단의 물동량 증가추세에 따라 주요 항만과 무안국제공항 등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필요
  -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철도, 도로망 등의 연계 교통체계 구축 뿐만 아니라 광역 간 연계·협력 발전을 위한 기반 필요
  - 농산어촌과 섬지역 등 교통 사각지대의 생활·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 광역화·광역 간 연계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광역간 상생 성장체제 구축 요구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교통체계 효율화 및 체계 개선 요구

- 다핵적인 광역대도시 생활권의 계획적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망 재편과 지역 내부 균형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지속
  - 광역대도시 주변에 조성된 인근 지역의 신도시·신시가지에서 대도시로의 통근·통학을 위한 교통수요 증가에 따라 주요 교통축에 교통 혼잡의 집중이 예상되기 때문에 교통 네트워크의 효율적 구축이 필요
  -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이 심화·상시화 되고, 이에 대응한 효율적인 광역교통 시설 및 교통망 체계 구축 필요
- 교통 환경에 있어 단일 자치단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광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업 필요
  - 기존 대중교통 사업자 간의 갈등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서도 갈등 예상
  - 개인교통수단 수요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업이 필요하고, 광역교통 시설에 있어 중앙정부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대형 허브항을 중심으로 항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제적 허브 항만 역할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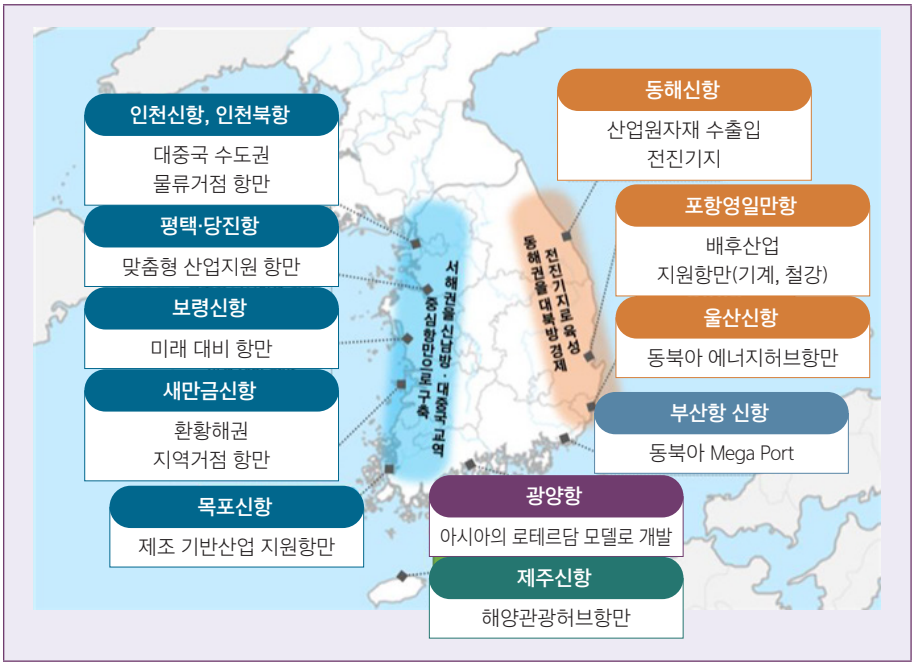
- 세계 항만환경의 변화는 전체 물류체계의 핵심기지로서의 항만의 역할과 국제 경쟁의 심화에 따른 첨단 항만관리운영 및 종합물류서비스가 가능한 영리한 항만(Brain Port)을 요구
  - 세계 경제 저성장 속에서도 전세계 수출액 및 물동량은 완만한 성장세 전망
- 항만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능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 인프라 증대 노력 가속화 요구
  - 항만 물동량 증가와 신항로 운영, 선박규모의 초대형화 추세에 따라 신규 투자 확대 및 컨테이너 기능 통합 추진 등 항만 효율성 증대 노력이 가속화되고 항만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광양항, 부산항, 인천항 3개 항만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등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 기능 확대 및 시설고도화가 필요
  - 중국(칭다오), 미국(LA), 싱가포르 등에 완전 무인자동화 항만 건설이 계획 중으로 이에 대응한 인프라 증대 노력 필요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 제고 및 경제활동 거점으로서의 공항의 역할·기능 강화

- 지역경제 성장 견인을 위해 공항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동력 확보 요구
  - 공항 인프라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에 초점을 두고, 국제 연결성 강화 및 사회·경제적 역할 강화 요구
  -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항관리 및 공항 이용, 공항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운영 환경 조성 요구

- 국내선 항공 산업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항공 관광 수요 창출 및 항공 산업 발전 기대
  - 공항-주변지역 간 유기적 연계 개발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공항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조성 필요
  - 공항을 활용한 항공 이용 증가 예상과 항공 관광 수요 증가 기대에 따라 지역 공항의 역할과 기능 증대 필요

그림 III-1-7
항만별 특화 전략



자료: 해양수산부, 2019,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 참고 작성
출처: 제5차 국토종합계획

3. 주요 정책과제

1) 기본목표

⬡ 사회간접자본 안전성 확보에 따른 지역 경쟁력과 광역간 발전 기반 강화

- 지속가능한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안전성 확보
  -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 개량으로 사회간접자본의 안정성 확보,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확충을 통한 지역간 접근성 확대와 이동 편의 증대 도모
  - 권역별,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자원을 연계·개발하기 위해 지역·광역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공항, 항만 등의 배후시설과 연계하는 광역교통계획 수립
-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및 교통기본권 확보
  - 사회간접자본 기반 확충을 통해 미발전 지역으로 남아있는 도서·내륙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도서지역 연륙·연도교 건설을 통한 교통기본권 확보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교통서비스 기반 확충

-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 등의 대중교통 및 광역급행버스 등을 고려하여 광역교통망 확충
  - 광주광역시 인근 시군의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등 개인 교통수단의 전환 최소화 및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 광주도시철도 서비스 외 지역에 있어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한 승용차 수송분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대중교통 체계 구축
- 대체 대중교통수단 제공이 어려운 지역의 승용차 수송분담률과 대도시 인근 시군에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로망 재편
  - 광주도시철도 서비스 외 지역에 있어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한 승용차 수송분담률 수용을 고려한 광역 도로망 재편

항만 재정비를 통한 물류 거점 첨단 항만 육성

- 항만 운영 시스템의 첨단화·고도화를 통한 항만 경쟁력 제고
  - 광양항, 목포신항 등의 물류기능의 지능화·자동화, 노후 항만 재개발 등 동아시아 물류 거점화로 항만의 경쟁력 제고 필요
-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 시스템 구축
  - 항만 내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설비 투자,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청정 항만 시스템 구축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 구축

그림 III-1-8
(예시) 첨단 항만 육성



경제활동 거점으로서의 공항 역할·기능 확대

-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여객·물류 중심의 공항 역할 및 기능 확대
  - 거점공항의 시설 확충, 교통 접근성 개선,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적정시설 확보
- 지역 공항 역할·기능 재편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항의 역할 및 기능 재편

그림 III-1-9
(예시) 거점 공항 발전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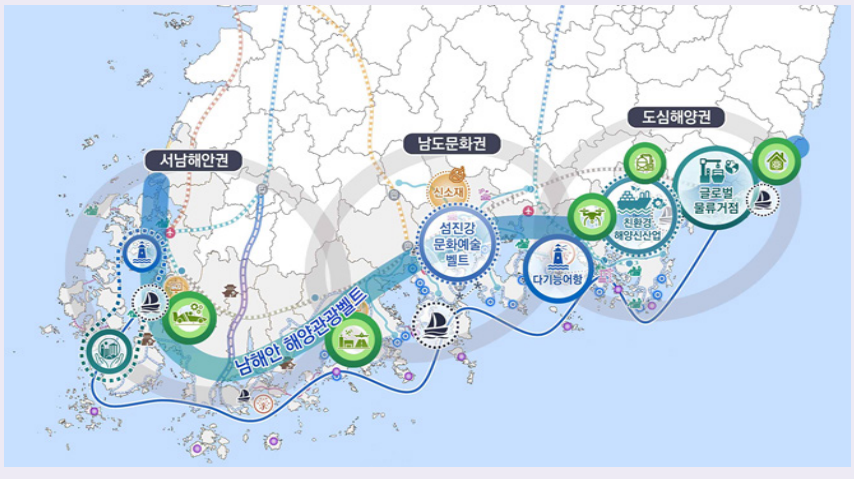


2) 추진전략

⬡ 사회간접자본의 적기 개량·확충을 통한 교통 네트워크 재편

-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물류 교통망과 광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 교통체계 구축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환서남해안 경제벨트 전초기지 역할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교통망 구축
  -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기반 확충 및 해안관광도로 건설
-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사회간접자본의 재편 및 확충을 통해 지역 내 및 섬 주민 교통편의성 증진

그림 III-1-10
(사례)남해안 해양관광벨트



⬡ 광역교통망 확충 및 교통서비스 재편을 통한 대도시권 교통서비스 확대

- 대도시권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대도시권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 기존 광주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연장을 통한 광역 도시철도망 구축, 도로 네트워크 강화, 도로의 간선 기능 회복을 통한 대도시권 교통 혼잡 해소

- 거점 및 전략도시의 연계교통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대
  - 광역버스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연계·환승 시스템 구축을 통한 광주 도시철도와 버스의 환승 편의 증진 및 공공성 강화
  - 광주 도시철도와 연계되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 광주 도시철도역 부근에 대규모 주차장 설치 등 개인 교통수단을 수용하여 광역교통망 재편에 따른 유연한 교통서비스 제공

해상물류 허브 기능 수행을 위한 물류 중심 첨단 항만 개발

- 광양항, 목포신항 등 동북아 해상물류 기반 조성을 통한 노후항만 시설 개선
  -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절감, 항만 이용자 편익 증진 등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지방관리 무역항, 연안항의 조기 준공을 위해 지속적인 재원 확보 및 투자 노력, 연안여객 수요변화에 따른 해상교통 중심기지, 어업근거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지원
  - 어촌어항의 필수기반시설 확충 및 차별화된 어촌 개발
  - 연안보전·친수연안사업, 연안관광자원 시설 조성,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양식장 정화사업 등 연안정비 사업 추진

서남권 거점 공항 육성 및 지역 공항 역할·기능 확대

-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 역할, 기능 수행을 위한 기반 구축
  -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서 무안국제공항의 통합 추진 및 이를 대비한 공항 기반 시설 구축
  - 국제선·국내선 출도착 등 권역 관문공항 기능 수행 및 물류 중심 공항으로 육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흑산공항 조기 착공과 여수공항의 시설 개선 및 기능 확대

3) 핵심 프로젝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재편 및 확충

-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광역교통망 확충(국토종합계획 III-5-1,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1-1-나, 5-1-나)
  - 상위계획(국토종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에 국가간선도로망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
  - 국가 건설계획 등에 반영된 신규 및 확장 노선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 관계기관(기재부, 도시공사 등)과 지속적인 협의
  -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의 사업추진 상황 모니터링, 일정 관리를 통해 고속교통 서비스지역 확대
  - 지역 내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섬·해양과 내륙을 잇는 교통망 확충

-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완도~고흥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도초~하의 간, 추포 ~비금 간, 하의~장산 간) 연도교 건설
- 완도 보길~노화~소안 간 연도교 건설
- 진도 진도항~하조도 간, 진도 지산 ~ 신안 하태 간 연륙교 건설
- 신안 압해~해남 화원간 연륙·연도교 건설, 신안 안좌~해남 화원 간 연륙교 건설
- 여수 화태~백야, 월호도~금오도, 안도~연도 간 연도교 건설
- 흑산공항 조기 착공

– 지역간 연계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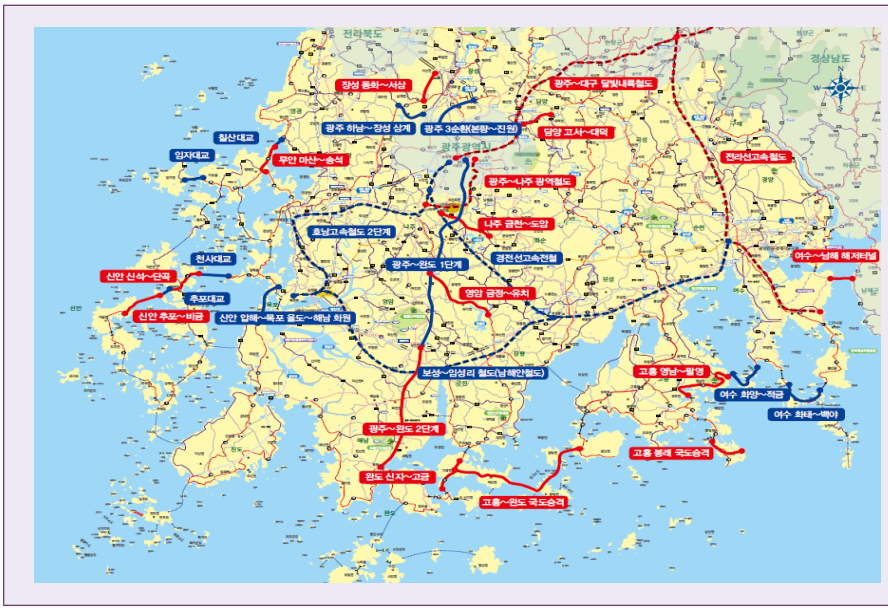
-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 여수 돌산 우두 ~ 화태 도로확장(국도 17호선)
-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 남해고속도로 (순천~사천, 고서~순천) 왕복 6차로 확장 및 광양구간 선형개량
- 영암~진도 고속도로 건설, 기업도시 진입도로 우수영 연장
- 국도 24호선(현경~해제) 4차로 확장
- 국지도49호선~담양·고창간 고속도로 연결

● 국가 철도망 구축 추진을 통한 이동성 강화(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5-1-마)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1~'30)의 검토를 통해 미반영된 주요 거점간 고속서비스 제공,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고속전철화,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조기 착공 및 광주~영광 연장
- 서해철도(새만금~무안국제공항) 건설 및 목포~진도 연장 국가계획 반영

그림 III-1-11
전라남도 SOC 현황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교통서비스 구축·운영

- 광역대중교통 구축을 통한 대도시권 혼잡 해소(국토종합계획 계획지침 III-5-1)
  - 광주 대도시권의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도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도로의 간선기능 회복
  - 광역적 이동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주 도시철도 연장을 확대하고, 고속화가 필요한 구간 등을 검토
  - 버스·도시철도 환승 편의 증진 및 공공성 강화
    - 광역버스를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를 향상, 수요자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연계·환승 시스템 구축, 교통비 부담 경감과 공공성 강화
  -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협력·조정형 광역교통 거버넌스 구축·운영
    -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광역교통 문제 해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조정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자체 협력·조정을 통해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와 대중교통요금체계를 혁신하여 수요에 부합하는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존 도시의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상생적 교통체계 마련
  - 광주·전남권 경제 및 생활공동체 실현을 위한 광역 교통연계망 구축
    - 광역철도(광주~나주) 조기 착공 및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 광주전남 광역고속도로(광주~장성~담양~화순~나주) 순환교통망 조기 구축
    - 광주~완도(2단계) 고속도로 조기 착공,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농어촌 교통복지 확대를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

- 주민 정주활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 노선버스의 역할 및 기능 제고를 위해 보통 수준보다 낮게 설정된 저렴한 1000원 버스 단일요금제, 소형승합차를 이용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 100원 택시 등 교통복지 정책 활성화
-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한 수요맞춤형-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버스형, 택시형) 활성화
  - 대중교통 미운행지역에 대한 100원 택시 활성화
  - 1일 노선버스 운행횟수 1~3회 미만 지역(마을)에 대해 지속적인 질적 양적 교통서비스 향상
- 주민선호형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시책으로 주민만족도 제고, 벽·오지의 체계적 운영관리
  - 시군의 행정·집행 및 운영·관리 역량의 전문성 제고, 수요맞춤형 승합자동차 및 환승시설 확충
  - 원활한 운송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 협의체 구성·운영(주민 및 운영위원회, 운송업체, 지자체 등 주민참여형 거버넌스체계 구축)

동북아 물류중심 첨단 특화 항만 개발

- 광양항 특화개발
  - 양항 스마트 항만 육성(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자동화 시험장 구축), 광양항 율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공사, 광양항 동서측배수로 정비사업, 광양항 성황고가교 건설공사, 광양항 특정해역 준설공사,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 광양(여천)항 개발
  - 광양(여천)항 낙포호안 보강공사, 광양(여천)항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Renewal
- 여수신항·신북항 개발
  - 여수신항~신북항 진입도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
  - 여수신항 크루즈부두 및 터미널 확장, 여수항 항만친수시설 조성
  - 국동항~여수구항 연결도로 개설
- 목포(신)항·북항 개발
  - 목포신항 제2자동차부두 건설,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 목포신항 예부선부두 건설, 목포신항 크루즈 전용부두 확충
  - 목포 국제 다목적 카페리 부두 건설
  - 목포 북항 어선물양장 확충공사
- 국가 어항 개발
  - 삽진항 국가어항 개발
    * 어항이용의 지속적 수요 증가로 현재 삽진항은 물론 인근 북항 물양장과 소형어선 물양장이 포화상태로 대체항 개발 필요
    * 대중국 등 수산물 수출과 유통 전진기지 어항으로 개발
    * 세라믹 산단과 대양산단 활성화 및 수산식품수출단지 지원 배후항만으로 활용
    * 어업, 낚시, 레저 등을 위한 대체어항으로서 현재 북항의 혼잡한 어선 수용능력 지원
  - 서망항 다기능 어항조성
    * 해양수산부의 다기능 어항 확대개발 대상항으로 선정되어 레포츠타운 조성 등 다기능 어항으로 확대 개발(국비 400억원 투입)
    * '02년부터 진도군 수협 서망 위판장 개장 이후 꽃게, 오징어, 조기 등 연근해 조업 어선의 이용 급증하고 있으나 항 규모가 작고 접안시설 등 부족(제적어선 420척, 어선수용능력은 293척)
    * 연안지역 경제중심지로 재창조, 관광·레저·친수시설 배후지역과의 연계 개발 등 수익기반 다변화, 어항 고유기능 강화를 위한 어항기능 재배치 및 노후시설 현대화, 관광·레저를 통한 연안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중심지 조성

국토 서남권 항공 여객·물류 기반 구축

-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중심 공항 활성화

– 광주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이전 시기 선정

* 통합대비 무안공항 시설확충,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한 적정시설 확보 추진

- 흑산공항 조기 착공 및 활성화 지원
  - 관계부처 협의 부진 등 착공 지연요소의 조기 해소
  - 장래 항공수요 추이, 주변 지역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시설 확충, 항공노선 다각화 방안 강구를 통한 흑산공항 활성화
- 여수공항 시설 확충 및 국제노선 개설
  - COP33 유치를 위한 여수공항 국제노선 개설 등 공항시설 확충

제2장

환경과 공존하는 스마트 농수산생태계 구축

제1절 저탄소기반 고부가가치 미래 농생명산업육성

제2절 미래산업화를 통한 수산업 혁신동력 창출

제1절

저탄소기반 고부가가치 미래 농생명 산업 육성

1. 현황과 문제점

⬡ 전남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에 따른 지속가능성 문제

- 전라남도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대책 필요
  - 전라남도 인구는 2015년 180만명, 2025년 179만명으로 예측되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전남지역의 고령화는 빠르게 증가하여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2015년 20.6%에서 2025년 27.4%, 2045년에는 45.4%에 달할 것으로 추정

표 III-2-1
장래인구 및 노령화 전망

구 분		2015	2025	2035	2045	'15년 대비 '45년	
						증감	증감률(%)
전국	전체 인구	5,101	5,261	5,283	5,105	4	0
	15~64세	3,744 (73.4)	3,576 (68.0)	3,168 (60.0)	2,772 (54.3)	-973	-26.0
	65세 이상	654 (12.8)	1,051 (20.0)	1,518 (28.7)	1,818 (35.6)	1,164	177.9
전라남도	전체 인구	180	179	178	174	-6	-3.0
	15~64세	119 (66.1)	110 (61.5)	95 (53.4)	80 (46.0)	-38.0	-32.4
	65세 이상	37 (20.6)	49 (27.4)	66 (37.1)	79 (45.4)	42.0	112.4

자료: 통계청, 2017, 2015~2045 장래인구추계

- 전국과 비교해도 전라남도의 농가 수, 농가인구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농가인구는 2000년 60.6만명에서 2019년 29.8만명으로 최근 20년간 절반 이하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 전라남도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2000년 24.5%에서 2019년 50.7%로 최근 20년간 두배 이상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음

표 III-2-2
농가 인구 전망

구 분		2000	2019	2020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5	2030	19/00	30/20
전국	농가호수	138.4	100.7	99.5	93.5	90.2	-1.7	-1.0
	농가인구	403.1	224.5	220.0	200.6	187.4	-3.0	-1.6
	65세 이상 비율 (%)	21.7	46.6	48.1	54.4	59.7	1.3%P	1.2%P
전라남도	농가호수	23.2	14.4	14.2	13.5	12.8	-2.5	-1.0
	농가인구	60.6	29.8	29.2	26.9	24.5	-3.6	-1.6
	65세 이상 비율 (%)	24.5	50.7	52.2	58.2	64.2	1.4%P	1.2%P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
주1 : 농가호수는 2020년은 연평균 1.2%감소,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평균 1.0%감소
주2 : 농가인구는 2020년은 연평균 3.0%감소,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평균 1.6%감소
주3 : 65세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2020년은 연평균 1.5%P,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평균 1.2%P 증가

전라남도의 농업 여건은 비교적 우수

- 전라남도의 농축산물 생산량 및 면적 등 농업생산 환경은 우수
  - 전국 농산물 생산량 중 13개 품목(쌀, 밀, 고구마, 양파, 겨울대파, 배추, 가을무, 매실, 보리, 멜론, 참다래, 유자, 무화과 등)이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생산면적 및 생산량은 전국 최고 수준
  - 전국 가축 사육 현황도 전국 대비 상당수를 차지(한육우 전국 2위, 젖소 전국 5위, 돼지 전국 6위, 닭 전국 5위, 오리 전국 1위)하는 등 양호한 수준
  - 작물별 노지 재배면적이 높은(식량작물 전국 1위, 과수 전국 2위, 채소·특작 전국 1위) 수준을 보임
- 친환경농업의 메카
  - 생명식품산업 육성계획,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등의 지속적 노력으로 전라남도의 친환경농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함
  - 전국 친환경인증면적(81,827ha) 중 전라남도의 친환경인증면적은 45,928ha로 전국 대비 56.1%를 점유하는 등 전국 1위의 친환경지역임(2020년 기준)
  - 전라남도의 유기농면적(23,770ha)은 전국 대비 61.7%, 무농약면적(30,738ha)은 전국 대비 51.2%를 점유(2020년 기준)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지속적 증가
  - 전라남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는 2021년 현재 357개 경영체, 전국 대비 17.9%로 전국 1위를 점유하고 있음
  - 전라남도의 농촌융복합산업(1차산업(생산)-2차산업(제조·가공)-3차산업(체험·직거래)) 인증경영체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전라남도의 낮은 농가소득 문제

- 전라남도의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농업, 농외, 이전 등 소득창출 수단의 확대 필요
  - 2019년 전국 평균에 비해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등 모든 부분에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최근 경향을 보면, 농외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소득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III-2-3
농가소득 전망

구 분		2003	2019	2020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5	2030	19/00	30/20
전국	농가소득	26,878	41,182	43,098	47,364	51,334	2.7	1.8
	농업소득	10,572	10,261	11,752	12,497	14,058	-0.2	1.8
	농외소득	9,397	17,327	15,963	18,785	20,007	3.9	2.3
	이전소득	2,031	11,230	13,194	13,614	14,715	11.2	1.1
	비경상소득	4,878	2,364	2,189	2,468	2,555	-4.4	1.6

구 분		2003	2019	2020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5	2030	19/00	30/20
전라남도	농가소득	24,845	39,320	40,539	45,298	50,494	2.9	1.8
	농업소득	10,598	8,837	8,722	9,536	10,425	-1.1	1.8
	농외소득	7,260	15,832	16,560	18,554	20,788	5.0	2.3
	이전소득	2,069	12,276	12,840	14,386	16,118	11.8	1.1
	비경상소득	4,919	2,375	2,519	2,822	3,162	-4.5	1.6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농가경제조사)

농식품산업 성장 전략 필요

- 전라남도의 식품 관련산업 매출액은 9개도 중 8위
  - 전라남도의 식품 관련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전국 9개도 중 8위(제주도 9위)를 기록하며 매출액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 전라남도의 식품 관련산업은 전국대비 3.9% 수준에 불과한 수준임
- 전라남도의 식품 관련산업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성장
  - 전라남도의 식품 관련산업 매출액은 2014년 대비 2019년 55.1% 성장함
  - 전국 대비 식품 매출액 비중이 낮은 편으로 식품산업 성장 방안 필요

표 III-2-4
식품산업 품목별 매출액 추이

구 분		2014	2016	2019	'14 대비 '19 증감율
전국	계	54,028	59,001	65,408 (100)	21.1%
	식 품	46,084	50,462	56,404 (86.2)	22.4%
	식품첨가물	1,683	1,599	2,299 (3.5)	36.6%
	기구, 용지, 포장지	6,261	6,940	6,705 (10)	7.1%
전남	계	1,678	1,878	2,602	55.1%
		(3.1)	(3.2)	(3.9)	
	식 품	1,025	1,413	1,738	69.6%
		(61.1)	(75.3)	(66.8)	
	식품첨가물	605	432	827	36.7%
		(36.0)	(23.0)	(31.8)	
	기구, 용지, 포장지	48	33	37	-22.9%
		(2.9)	(1.7)	(1.4)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역별 식품산업 매출액 현황, 2020

2. 여건 변화 및 전망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식량 자급률 하락 전망

-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9년 기준 45.4%이며, 대외적 시장개방 확대와 대내적 경지면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식량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임
  - 경지면적 : 전국 172만ha('10) → 155만ha('20)
    전남 31만ha('10) → 28만ha('20)
-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농식품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2030년에는 90.4억달러 수출액 전망
  - 2018년 기준 FTA 체결국과의 농축산물 교역액은 86.6%를 차지하고 있음
  - 수출 : '10 : 40.8억 달러 → '15 : 61.0 → '19 : 70.3 → '30 : 90.4
  - 수입 : '10 : 223.3억 달러 → '15 : 302.2 → '19 : 343.0 → '30 : 427.6
- 양자간 FTA 및 메가FTA 체결 지속적 확대 전망

인구절벽과 고령화 전망

-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 감소 전망
  - 전체 인구에 비해 농가인구는 빠르게 감소 전망
  - 전국 대비 전라남도의 농가인구는 보다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빠른 고령화사회 진입 전망
  - 전체 인구에 비해 농가인구는 보다 빠르게 고령화사회화 전망
  - 전국과 비교해도 전라남도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됨
-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확대 전망
  - 전라남도 농가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방안 도입 절실
  - 스마트팜 시설 및 장비 도입 등을 통한 자본집약적 농업으로의 변화 전망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가속화 전망

- 전라남도는 아열대기후 최전선으로 빠른 변화 전망
  - 전라남도의 현재 평균기온은 13.2℃로 전국 평균기온 12.5℃ 보다 높은 수준이고, RCP8.5 기준으로 향후 기온이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최근 10년을 분석할 때 평균기온, 최고기온은 높아지고, 최저기온은 감소하여 연평균기온 상승, 연평균 온도차는 높아지고 있어 아열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III-2-5
RCP8.5 기준 평균기온 전망

구 분	2001~2010	2011~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2051~2060	2061~2070	2071~2080	2080~2090	2091~2100
전라남도	13.2	+0.1	+1.1	+1.4	+2.1	+2.5	+3.3	+4.2	+4.7	+5.3
		+0.9			+2.6			+4.7		

자료 : 기상청 기후정보포털(http://www.climate.go.kr)

– 전라남도의 연평균 강수량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년후 현재 강수량의 36.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III-2-6
RCP8.5 기준 연강수량 (mm) 전망과 증가율(%)

구 분	2001~2010	2011~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2051~2060	2061~2070	2071~2080	2080~2090	2091~2100
전라남도	1476.0	1747.5	1819.8	1709.7	1914.5	2033.1	2020.5	2048.4	2006.9	2112.3
		+18.4%	+23.3%	+15.8%	+29.7%	+37.7%	+36.9%	+38.8%	+36.0%	+43.1%
		+19.2%			+34.8%			+39.3%		

자료 : 기상청 기후정보포털(http://www.climate.go.kr)

– RCP8.5 기준 전라남도의 폭염일수 및 열대야 일수 급증 등 아열대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을 전망됨

표 III-2-7
RCP8.5 기준 폭염일수 및 열대야일수 전망

구 분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2001~2010	2011~2040	2041~2070	2071~2100	2001~2010	2011~2040	2041~2070	2071~2100
전라남도	8.5	13.9	30.4	60.9	4.9	14.3	35.6	62.6

자료 : 기상청 기후정보포털(http://www.climate.go.kr)

-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기후화, 평균기온 상승, 강수량 증가 등으로 농산물 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농산물 적지변경, 농작물 피해확대 및 곡물수급 불균형 심화 등 부정적 영향 발생 가능성 증대
  – 기후변동성 증가, 고온다습 기후화로 인해 재해 위험성 증가, 기존 작물 성장 저해 등 부정적 위기 발생 가능성 증대
  – 온도 상승에 따른 아열대화로 작목 적지, 지역별 재배작목 변화 전망
-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산물 정책 필요
  –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필요
  – 기존농산물과 신규작목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농가피해 최소화 노력 필요
-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탄소중립 추진대책 필요
  –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전라남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9년 69.6백만톤에서 2019년 91.0백만톤으로 증가하여 전국의 13.0%를

차지하고 있음. 그중 농축산분야는 3.4백만톤으로 전라남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3.7% 수준임

- 저탄소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방안 및 가축분뇨 정화처리 확대, 악취저감 미생물 공급, 퇴비 부숙도 검사, 저메탄사료 개발 보급 등의 대책 필요

4차산업 혁명에 따라 노동집약적산업에서 자본집약적산업화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농업·농촌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확대 전망
  - 스마트팜, 스마트 농촌에 필요한 생산-유통-판매 빅데이터 등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전망
  - 빅테이터·인공지능·로봇 등 기술 접목에 따른 분야 간 유기적 연결 및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농업으로 시스템 변화
  - 스마트 농기계 활용 농산물 생산, 온디멘드(On-Demand) 유통·소비, 생산-유통-소비의 유기적 연계와 소비자 중심시장으로 재편

농식품 소비트렌드 변화 전망

- 간편성, 편리성 트렌드 증가
  - 1~2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HMR 소비 증가, 외식 증가 등 농식품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소포장, 밀키트, 즉석식품 등에 대한 농식품경영체의 생산, 가공, 상품화 방향으로 변화 전망
- 건강성, 기능성 트렌드 증가
  - 3저(당, 염, 지방)식품, 친환경농산물, HACCP 등 믿을 수 있는 상품 선호 등의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COVID-19,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성 제품과 면역력에 좋은 농산물, 기관지에 좋은 농산물 등 기능성에 중점을 둔 농식품에 대한 선호 경향 증가

3. 주요 정책과제

1) 기본목표

환경변화를 선도하는 농생명 미래농업 전남

- 미래농업을 주도하는 디지털 전남

– 4차산업 혁명 가속화에 따른 스마트농업·농촌 등 첨단농업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소득 증대,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 해결
– 전라남도의 농업구조를 노동집약적에서 자본집약적으로 전환하여 미래형 농업생산-유통-판매 환경을 조성

● 기후변화 대응 선도전남
– 기후변화(아열대) 가속화에 따른 농산물 적지변경, 농산물 피해확대, 기존 작물 성장저해, 재배적지 변화에 대응한 종합적 대응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 및 고소득 농업 육성
– 기존 농산물의 적지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규 고소득 작목 재배선정 및 육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농업으로 전환

● 환경농업 청정수도 전남
– 환경 및 생태계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저탄소농업, 환경친화농업 육성
–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유기농업, 저탄소인증농업, 부류별 탄소배출 목표 설정 및 방향 수립, 저탄소기술보급을 통해 환경농업으로 전환체계 구축

● 글로벌 농식품도시 전남
– 글로벌 시장경제 가속화에 따른 수출 여건(전문수출단지 육성, 마케팅보드 육성 등) 조성으로 수출농업화
– 세계적으로 K문화 확산과 연계하여 농산물, 농식품 등의 수출확대 체계 확립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출전남으로 전환하여 농가소득 증대 기여

2) 추진전략

⬡ 미래농업·농촌을 선도하는 스마트 전남

● 필요성
– 4차산업 혁명 가속화에 따라 노동집약적농업에서 자본집약적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그에 따른 전남농업정책 전환
– 스마트팜, 드론 등의 보급으로 농산물의 품질향상,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등을 통한 소득향상과 더불어 미래형농업으로 전환
– 기존 농업환경을 미래농업으로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시스템 정비 및 체계적 농정계획 수립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더불어 체계적인 교육,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첨단농업 생산 여건 조성

● 첨단농업기술 보급 및 활용을 통한 스마트농업의 보편화
– 시설기반 원예, 과수, 축산분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노동력절감을 위한 스마트팜 보급 활성화로 첨단농업환경 조성
– 노지재배 농가를 위한 노지스마트팜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안정적인 노지 생산 여건 조성

– 첨단 ICT를 활용한 기술 보급과 더불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농가컨설팅 지원단 구축으로 활용성 제고

-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농가컨설팅 지원
  – 단순 제어기능만을 활용하는 스마트 팜 농가가 많아, 데이터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경영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교육, 컨설팅시스템 구축

- IOT, AI 활용 자연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 이상기후 증가 상황에 대비한 첨단 ICT 재해예방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생산 안정성 지원
  – 농촌진흥청 등과 연계하여 자연재해 예방기술 시범사업 등을 보급 확산

- 스마트 가치사슬 시스템 구축
  – 생산의 스마트팜을 넘어 생산-유통-재고관리-판매-관광 등을 연계한 스마트 가치사슬시스템 구축으로 농촌 전반의 체계적 시스템 구축

세계적인 농식품기업도시 글로벌 전남

- 필요성
  – 글로벌시장경제 가속화에 따른 농특산물, 가공식품 등의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수출정책 필요
  – 수출전문단지 육성, 수출판매플랫폼 구축, 수출유통-판매시스템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글로벌 수출공급기지 구축 필요
  – 경쟁력있는 농식품 수출농가,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체질 개선 전략 필요

- 특화작목 프리미엄 수출전문단지 조성
  – 전남특화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프리미엄 상품화를 위한 맞춤형 H/W 시설 지원
  – 연차별 프리미엄 수출전문단지를 선정하여 수출 경쟁력을 갖춘 전략작목, 주력작목에 필요한 교육 및 기술지원 등 S/W 지원

- 농식품 수출 농산업 육성 지원
  – 농식품 수출농가 지원, 수출확대를 위한 농가단위 전문교육(생산, 저장, 선별, 수확후관리 등) 및 수출컨설팅(생산, 유통, 판매, 시장분석 등), 홍보마케팅(브랜드화, 포장 등) 등 S/W 지원
  – 농식품 수출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수출에 대한 인식개선 및 생산, 유통, 판매 등에 관한 전문적 역량강화

- 농식품 마케팅보드 육성
  – 수출농가가 유통·판매에 관한 분야까지 전문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뉴질랜드 제스프리와 같은 수출 유통·판매 전문조직 육성 지원을 통해 체계적 수출판매망 구축

- 글로벌 온라인몰 시스템 구축
  –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수출시장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농식품 수출플랫폼을 구축하여 세계적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

- 전남 농축산물 수도권 공급전진기지 구축
  - 유기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전남농산물의 유통망 구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물류기지 구축 및 판매장 구축 지원

기후변화 대응 체질강화 선도 전남

- 필요성
  - 한반도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전라남도는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대응방안 필요
  - 기후변화에 따라 기존 재배 적지변화, 기존 작물 성장저해, 자연재해 피해확대 등에 대응한 종합적 계획 수립 필요
  - 기존 농업의 대응방안 수립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규 고소득 전략작목 선정 및 육성을 통해 고소득화를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필요
  - 이와 같이 기존 농산물의 적지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기후변화에 따른 신규작목 육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농업으로 전환
-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단지 조성
  - 이미 전라남도 일부 지역이 아열대 기후화가 되었고, 지속적으로 아열대 기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업화를 위한 지역별 특화 아열대 작목을 선정하고 아열대 단지 조성, 산지별 체계적 아열대작목 육성을 통한 시장경쟁력 향상 도모
  - 농촌진흥청, 전남농업기술원과 연계하여 권역별, 시/군별 아열대전략작목 선정 및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방안 수립
- 아열대과일·채소 체험관광단지 조성
  - 디저트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아열대과일에 대한 수요 및 관심도 증가되는 상황에서 아열대과일 체험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화 추진
  - 아열대작목의 묘목생산 및 판매, 체험관광프로그램 육성, 아열대작목 가공소재화 등을 통해 아열대농산물의 융복합산업화 추진
  - 아열대채소의 수요증가와 연계하여 아열대채소 체험관광단지 조성으로 아열대 채소 교육, 기술지도, 체험, 판매활성화를 위한 산업화 추진
- 기후변화 대응 신규작목 육성
  - 기후변화 대응 신규작목의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아열대작목 생산확대 기반 구축사업 추진
  - 기후변화 대응 신규작목 재배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역량 강화 추진
- 아열대작물 가공산업화 지원
  - 아열대작목 생산량 증가에 따른 산업화 필요. 아열대작목을 소재로 한 농식품 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창출

경쟁력있는 생태계 구축을 통한 부자 전남

- 필요성

-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유통환경변화 등의 농업 및 농식품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식품 생태계 구축전략 마련
- 최근 1~2인 가구 증가, COVID-19팬더믹의 영향 등으로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유통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온라인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 마련
- 간편성, 기능성, 건강성, 천연성, 감성 등을 중심으로 소비트렌드 확대에 대응한 테마형 융복합산업화 대응전략 수립
- 전라남도의 열악한 농식품경영체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지역특화 농식품 및 기업 육성, 농식품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대응전략 수립

● 온라인 직거래 기반 구축
- 소셜커머스,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남도장터를 비롯한 전라남도의 온라인 쇼핑몰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전남특화 테마형 융복합산업화
- 단일작목을 활용한 융복합산업화의 한계(낮은 공장가동률, 한시적 체험, 가공식품 다양성의 한계, 과다경쟁 등)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특화 기능테마형 융복합산업화를 추진하여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고, 연중 생산-유통-체험이 가능한 산업화를 추진하여 경쟁력 향상과 매출향상 도모
- 기능테마형 융복합산업화를 위한 시설 지원(H/W) 및 S/W 지원사업 실시

● 못난이농산물 온·오프라인 유통체계 구축
- 농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규격외 제품 생산의 유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규격외 제품의 유통판매망을 구축함으로써 농업소득 향상
- 세계적으로 못난이농산물 판매망 구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못난이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못난이농산물 유통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 못난이농산물 유통판매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전남 지역특화산업 육성
- 전라남도에 특화된 농산물을 활용한 차별적 산업화기반 구축 및 기업 육성을 통해 전남농산물 및 식품의 부가가치 창출
- 기존의 배추, 오리, 천일염을 포함해 전라남도의 특화된 품목을 활용하여 산업화를 추진함으로 경쟁력을 갖춘 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 농식품 창업기반 조성
- 청년 및 농식품 창업희망자에 대한 시설, 경영자금지원 및 교육을 통해 농식품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 확대

⬡ 환경을 생각하고 공존하는 청정 전남

● 필요성
-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환경이 악화되어 저탄소농업, 순환형농업 등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농업분야의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정책, 유기농업 확대, 가치사슬 연계형 순환형농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탄소 저감 필요

- 저탄소농업기술의 정착
  – 전남 친환경인증 농가를 중심으로 저탄소농업기술 보급 확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지원
  – 저탄소농업 육성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처리 확대, 퇴비 부숙도 검사, 저메탄사료 개발 및 보급, 시범사업 추진으로 저탄소농업 확대
- 친환경·유기농업의 보편화
  – 환경농업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유기농산물 생산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10년 내 20%대의 유기농업 최대 생산지역으로 자리 매김
-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구축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판매망 확대를 위한 수도권의 물류센터 전진기지를 구축함으로써 전남 친환경농산물 유통-판로 확보
- 순환형시스템 구축
  – 기존 경축순환농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확대된 순환형시스템 필요
  – 농업-임업-수산-가정을 연계한 에너지순환형시스템 구축을 통해 탄소 및 배출 제로화 추진
  – 이를 위해 재활용 저장·물류센터 조성, 에너지순환형 기업 육성 및 지원 마련

3) 핵심 프로젝트

⬡ 첨단기술 기반 미래형 농업생산 인프라 구축

- 전남형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 모델 구축 및 보급
  – 2021년 기준 전라남도의 65세 이상 농촌인구는 53.1%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2.4%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전라남도는 전국 최대의 경지면적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을 보유, 맥류, 서류, 미곡 등 식량작물과 조미채소, 근채류, 엽채류 등 채소류 생산량이 전국 1위를 차지
  –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의 부족과 인건비의 상승은 향후 전라남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
  – 4차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첨단 농기계 및 데이터·스마트 농업 구현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촌 인력난 해소
- 노지 스마트팜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
  – 새정부의 농업분야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는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 디지털 혁신', '식품산업 육성', '농산업 혁신생태계', '환경친화적 농업', '방역체계 고도화' 등 6대 핵심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농업 디지털 혁신'은 2027년까지 '임대형 스마트팜' 15개소를 조성,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장려를 골자로 함

– 정부가 제시한 임대형 스마트팜의 확대 조성도 공모사업을 통해 거점 형태로 선정하기 때문에, 전라남도 농업의 스마트 혁신은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시설 스마트팜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부담이 적은 노지 스마트팜을 전라남도 스마트팜 지원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도내 주력 밭작물을 대상으로 보급·확산하여 미래 혁신기술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관행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미래 혁신기술의 R&D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전라남도 농업의 균형발전 도모

첨단기술 기반 미래형 농업생산 인프라 확충

- 전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 모델 구축 및 보급
- 주요 농작업에 대한 지능형 농기계·장비 시스템 구축 실증단지 조성
- AI, IoT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농식품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
- 지역특화 밭작물 대상 노지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 및 확산

전남특화 기능중심 융복합산업화

- 차별성 없는 양적 팽창의 한계 해결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융복합산업화는 단일품목을 중심으로 한 특화산업화로 확장성, 차별성의 한계 존재
  – 단일품목·단순가공 융복합산업화는 수확시기에 집중된 매출구조로 낮은 공장 가동률, 체험관광 기간의 한정성 등으로 인해 영세적 매출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는 한계 존재. 실질적으로 융복합산업경영체의 55% 이상이 연간 매출 1억원 미만을 기록할 정도로 영세한 구조로 가지고 있음
  – 지역단위 융복합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 영세한 경영체 중심의 산업구조 지속화를 해결하기 위한 차별적 융복합산업화 추진 필요
- 환경변화에 따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기능성 농특산물 재배 및 가공산업화 추진
  – 환경변화(미세먼지, 황사, 바이러스 질병 등)에 따라 기관지, 면역력, 당뇨, 아토피 등의 질병이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형 농특산물의 육성 필요
  – 기존 농특산물과 아열대작목 중 기능성이 높은 작목을 집중 육성 및 산업화 추진
  – 체험 및 관광의 계절적 유입의 한계
-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지 않는 사업화의 한계 해결
  – 최근 소비트렌드인 핵심인 기능성, 건강성, 천연성, 편리성(간편성)을 반영한 농촌 융복합산업화 추진

전남특화 융복합산업화

- 소비트렌드 반영을 위한 기능·테마형 융복합산업화
- 지역 특화 품목의 성공산업화를 위한 특화자원 이종결합형 융복합산업화
- 차별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창조형 융복합산업화
- 지역단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형 산업화

- 전라남도 및 시·군의 특화자원과 소비 트렌드를 결합한 테마형 융복합산업화 추진
  - 지역별 특산물(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을 연계한 테마형 산업화
  - 지역 특산자원 연계를 통한 1차(2품목 이상), 2차(가공·유통), 3차(체험관광·직거래) 경영체들의 공동법인 설립 등 집합적·통합적 활동을 통한 융복합산업화 추진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컨설팅 및 멘토링시스템 구축
  - 민관합동 컨설팅 추진단 구성(생산 및 가공 기술전문가, 민간 마케팅 및 경영 전문가)을 통해 사업추진 전후 성공적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

■ 유형 1 : 안티에이징 융복합산업화

- 소비자의 기능성 중심 소비경향을 반영한 지역품목들을 새로운 R&D 기술 투입·융복합화, 지역 대표 브랜드 개발 및 명품화로 융복합산업화 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소비자의 기능성식품 선호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안티에이징(항노화) 시장성 및 기능성에 주목. 기능중심 결합과 새로운 R&D 기술 투입을 통해 융복합 특산물을 생산하여 지역 대표 브랜드 개발 및 명품화로 융복합산업화 체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품목간 결합+가공기술 지원 = 지역 대표 특산품화(안티에이징)
  - (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 크랜베리, 라즈베리 활용 안티에이징 가공 상품화
  - (채소)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토마토 등 색이 있는 채소를 활용한 안티에이징 가공 상품화
  - (기타) 녹차, 계피, 고수, 생강, 감초가루 등을 활용한 안티에이징 가공 상품화
  - (가공지원)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을 통한 신제품 상품화 지원
  - (체험 등) 테마형 팜핑, 팜파티, 농가맛집 등 기술 및 경영, 마케팅지원으로 관광 산업화
- 안티에이징을 테마로 한 융복합산업화
  - 1차 : 안티에이징(노화방지)에 좋은 다양한 지역내 농특산물(베리류, 채소류 등) 생산농가를 연계한 생산자조직 구축
  - 2차 : 안티에이징을 상품화할 수 있는 가공법인 설립 또는 기존 시설법인화. 안티에이징에 좋은 안티에이징 가공식품, 안티에이징 독소음료, 안티에이징 의약품, 안티에이징 화장품, 안티에이징 음식 등 개발 및 유통 추진
  - 3차 : 연중 체험과 직거래가 가능한 3차산업화. 안티에이징 체험장·족욕장,

안티에이징 판매장, 안티에이징 치유축제, 안티에이징 쇼핑몰구축, 안티에이징 체험 등 추진

– 테마를 중심으로 한 연중 생산 및 판매, 체험이 가능한 융복합산업화로 지속가능한 경영체 육성

■ 유형 2 : 아토피-프리 융복합산업화

- 최근 환경악화로 인한 아토피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에 따른 시장성 및 기능성에 주목
  – 기능중심 결합과 새로운 R&D 기술 투입, 융복합 특산물 생산, 지역 대표 브랜드 개발 및 명품화로 융복합산업화 체계 구축
- 지역품목간 결합+가공기술 지원 = 지역 대표 특산품화(아토피-프리)
  – (곡물) 검은콩, 감자, 고구마, 쌀, 현미 등을 활용한 아토피-프리 가공 상품화
  – (채소) 흰색채소(양파, 마늘, 무, 생강) 및 오이, 파 등을 활용한 아토피-프리 가공 상품화
  – (기타) 알로에 등을 활용한 아토피-프리 가공 상품화
  – (가공지원)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을 통한 신제품 상품화 지원
  – (체험 등) 테마형 팜핑, 팜파티, 농가맛집 등 기술 및 경영, 마케팅지원으로 관광 산업화
- 아토피를 테마로 한 융복합산업화
  – 1차 : 아토피에 좋은 다양한 지역내 농특산물(곡물류, 채소류, 친환경농산물 등) 생산농가를 연계한 생산자조직 구축
  – 2차 : 아토피 치유를 상품화할 수 있는 가공법인 설립 또는 기존 시설법인화. 아토피에 좋은 아토피 가공식품, 아토피 독소음료, 아토피 의약품, 아토피 화장품, 아토피 생활용품 등 개발 및 유통 추진
  – 3차 : 연중 체험과 직거래가 가능한 3차산업화. 아토피 체험장, 아토피 판매장, 아토피 치유축제,아토피 쇼핑몰구축, 아토피 체험학교 등 추진
  – 테마를 중심으로 한 연중 생산 및 판매, 체험이 가능한 융복합산업화로 지속가능한 경영체 육성

⬡ 전남 특화산업(김치) 및 밀키트산업 육성

- 전라남도의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산업화
  – 전라남도 농식품 관련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전국 대비 식품산업 매출액이 낮은 편으로 식품산업 성장을 위한 방안 추진
  –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화로 신성장동력 구축
- 한국 농식품의 세계화에 맞춰 김치산업화 추진
- 전라남도의 다양한 블루자원을 활용한 전라남도의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 갓, 배추, 천일염, 양념류 등 다양한 블루자원을 활용하여 김치 세계화 및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으로 활성화
– 김치산업의 다양화를 통해 지역별 특화김치산업을 육성

●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사업화
– 최근 1~2인 가구증가, HMR시장 확대에 따른 밀키트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영세한 경영형태를 취하고 있는 전남지역 농가단위에서의 대응은 한계
– 친환경 밀키트 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 기여

전남 특화 및 밀키트산업 육성
- 전라남도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전남특화(김치) 농식품산업화
- 지역 특화 품목의 성공산업화를 위한 특화자원 산업화
- 간편성, 편리성 소비트렌드에 대응한 밀키트 산업화
-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경쟁력있는 글로벌 농식품 산업화

● 전라남도의 친환경농산물, 천일염 등을 활용한 전남김치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김치 세계화 및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활성화
– 남도김치 지역특화단지 조성 : 갓·고들빼기김치(동부권), 양파·대파김치(서부권), 배추·열무김치(남부권) 등 지역별로 특화된 김치산업 육성
– K-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 가공공장, 저장·물류센터, 창업·수출 인프라 구축 등
– (가칭)김치산업진흥원 유치 : 국립 진흥원 설립으로 김치제조 표준화, 생산비 절감방안, 판매·홍보 등

● COVID-19 팬데믹 영향과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밀키트 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화여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활성화
– 친환경 밀키트 산업단지 조성 : 연구개발센터, R&D, 제품개발, 기업 육성 등
– 친환경 밀키트 수출지원 시스템 구축 : 밀키트 브랜드화, 원스탑서비스, 바이어 매칭 등 수출지원

⬡ 가치사슬연계 환경순환형시스템 구축

● 환경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
– 전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이슈로 대두된 상황에서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환경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 기존 경축순환농업에서 농업-임업-수산-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범용적 에너지순환형시스템을 구축 필요
– 에너지순환형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산물 생산비용절감 및 탄소 배출량 최소화

● 에너지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 농업부산물, 축산부산물, 수산폐기물, 간벌, 가정내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재활용을 위한 시설 및 기업 육성 필요
– 재활용에너지를 저장·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 필요
– 재활용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순환형 기업 육성 필요

가치사슬연계 환경순환형시스템

- 환경 및 생태계보존을 위한 저탄소농업화
- 배출 에너지 재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환경순환형 시스템
-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순환형 기업 육성

● 환경 및 생태계 보존, 에너지 재활용을 위한 에너지 순환형시스템 구축
– 가정내 음식물쓰레기, 간벌, 사료 등을 포괄한 순환형시스템 구축으로 환경개선 및 탄소배출량 감소
– 광역형 재활용 저장·물류센터 조성 : 저장, 시설 등
– 에너지순환형 기업 육성 : 시설, R&D, 자금, 판매 지원 등

● 저탄소농업화 기반 조성
–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대, 악취저감 미생물 공급, 저메탄사료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 저탄소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신기술 지도 등 교육 강화

⬡ 아열대 채소·과일 산업화 구축

● 아열대화 최전선 전라남도의 체계적 대응전략 수립
– 한반도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전라남도는 아열대 과일, 채소 등의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체계적인 육성방안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아열대작목 전략적 생산, 산업화 방안 마련
–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규 고소득 전략작목 선정 및 육성을 통해 고소득화를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필요
– 지속적으로 생산이 증가하는 아열대작물의 지역특화 및 단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아열대 채소·과일 산업화

-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화 대응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신소득작물 육성
- 체계적 산업화로 아열대작목 대표 이미지 구축 및 신규 농업인 교육 기회 제공
-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으로 대한민국 대표 롤모델화

●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규 전략 고소득작목 육성 필요

- 시·군별 특성에 맞는 아열대특화작목 육성
- 아열대작목 전문생산단지 조성 : 지역여건에 맞는 아열대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아열대작목 전문생산단지를 지정하고 인프라 구축 지원. 시설, 농기계, 교육, 브랜드개발 등 지원
- 아열대작목 산업단지 조성 : 연구개발센터, R&D, 제품개발, 기업 육성 등
- 아열대작목 소재산업 육성사업 : 가공시설, 장비 브랜드, R&D 등 지원

● 아열대작물 융복합산업화를 통한 소득 창출

- 1차 : 아열대 채소·과일 종자, 묘목 판매를 통한 소득 창출
- 2차 : 생과, 주스, 빙수, 음료 등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프랜차이즈 연계 판매망 구축
- 3차 : 체험관광객, 연수객 증가로 체험소득 창출. 신규 귀농인에게 교육 기회 제공. 체험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로 체험소득 창출

제2절

미래산업화를 통한 수산업 혁신동력 창출

1. 현황과 문제점

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촌의 지속가능성 취약

- 어촌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수산인력의 한계
  - 어촌지역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36.2%로 2015년 대비 5.7%로 증가, 전국 고령인구 비중 15.7%에 비해 어가인구 중 고령화율은 2.3배에 달함

표 III-2-8
연령계층별 어가 인구와 전체인구 비교
(단위 : 천명, 세, %, %p)

	2015		2020		증 감		전체인구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구성비
합계	129	100.0	98	100.0	△30	△23.4	51,781	100.0
0~14세	9	6.7	6	5.7	△3	△33.3	6,297	12.2
15~64세	81	62.8	57	58.1	△24	△29.6	37,358	72.1
65세이상	39	30.5	35	36.2	△4	△10.3	8,125	15.7
중위 연령	58.0		55.7		△2.3		43.7	
고령인구 비중	30.5		36.2		5.7		15.7	

자료: 「농림어업조사」, 「고령인구비율」 통계청, 2021

  - 최근 10년 동안 전라남도의 어가 수는 14.3%, 어가인구는 23.5% 감소하여 수산업 발전과 어촌공동체 활성화의 한계성으로 대두

표 III-2-9
어가 수 및 어가 인구
(단위 : 가구, 명, %)

구 분		2010(A)	2015	2019(B)	2010년 대비	
					증감(C) (B-A)	증감률 (C/A)
어가 수	전국	65,775	57,905	50,909	▽14,886	▽22.6
	전라남도	21,809	19,331	18,680	▽3,129	▽14.3
	구성비	33.2	33.4	36.7	3.5	
어가 인구	전국	171,191	136,755	113,898	▽57,293	▽33.5
	전라남도	54,981	45,239	42,060	▽12,921	▽23.5
	구성비	32.1	33.1	36.9	4.8	

자료: 「농림어업조사」 통계청, 2021

- 도시와 어촌 간 소득격차 증가 및 어촌지역 어업인의 일자리 감소
  - 어가세대는 2010년 약 6.5만 가구(어가인구 17.1만 명)에서 2019년 5만 가구(어가인구 11.3만 명)로 지속적 감소
  - 특히, 어촌지역 인구보다는 어업인의 탈 어업 현상이 더 심각(어촌지역 인구 연평균 0.06% 감소, 반면 어업인은 4.6% 감소)
- 최근 어촌에 대한 관심 제고로 귀어·귀촌 등에 따른 어촌인구가 부분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어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해결은 미흡한 수준

– 전라남도 귀어가구원 수는 2013년 252명에서 2019년 904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

– 2019년 전남으로 귀어한 가구는 358가구(전국 귀어가구의 39.6%)로 전국 1위 차지

• 2019년 기준, 50대가 121명(32.5%)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84명(22.6%), 30대 이하 69명(18.5%) 등의 순으로 젊은 층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음

표 III-2-10
연령별 귀어인 및 가구원
(단위 : 가구, 명, %)

구 분 (2019년 기준)		합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국	귀어 가구원	1,234	352	217	384	248	33
	구성비	100.0	28.5	17.6	31.1	20.1	2.7
	귀어인	956	182	194	334	223	26
	구성비	100.0	19.0	20.2	34.8	23.3	2.7
	동반가구원	275	170	23	50	25	7
	구성비	100.0	61.8	8.4	18.2	9.1	2.5
전라남도	귀어 가구원	487	136	94	142	95	20
	구성비	100.0	27.9	29.2	29.2	19.5	4.1
	귀어인	372	69	81	121	84	17
	구성비	100.0	18.5	21.8	32.5	22.6	4.6
	동반가구원	115	67	13	21	11	0
	구성비	100.0	58.3	11.3	18.3	9.6	0

자료: 「귀농어·귀촌인통계」 통계청(2021)

기후 및 어장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업 생산기반의 취약성 증가

●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태풍, 고수온, 저수온, 적조 등 재해피해 발생률 증가

– 기후변화, 수온 변화에 따른 적합한 양식방법 개선 및 신품종 개발, 어장 및 양식환경 관리강화 대책 필요

연근해 수산 자원량 지속적 감소로 어업 경쟁력 약화

● 전라남도 수산물 전체 생산량과 생산금액은 각각 1,877천톤과 2조 8,968억 원으로 전국대비 57.3%와 3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년 기준 전라남도 어업생산량과 어업생산금액은 2010년 대비 각각 90.0%, 63.4% 증가

•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은 2010년 대비 13,119톤(-7.7%) 감소한 반면, 천해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각각 921,876톤(110.4%)과 1,592톤(22.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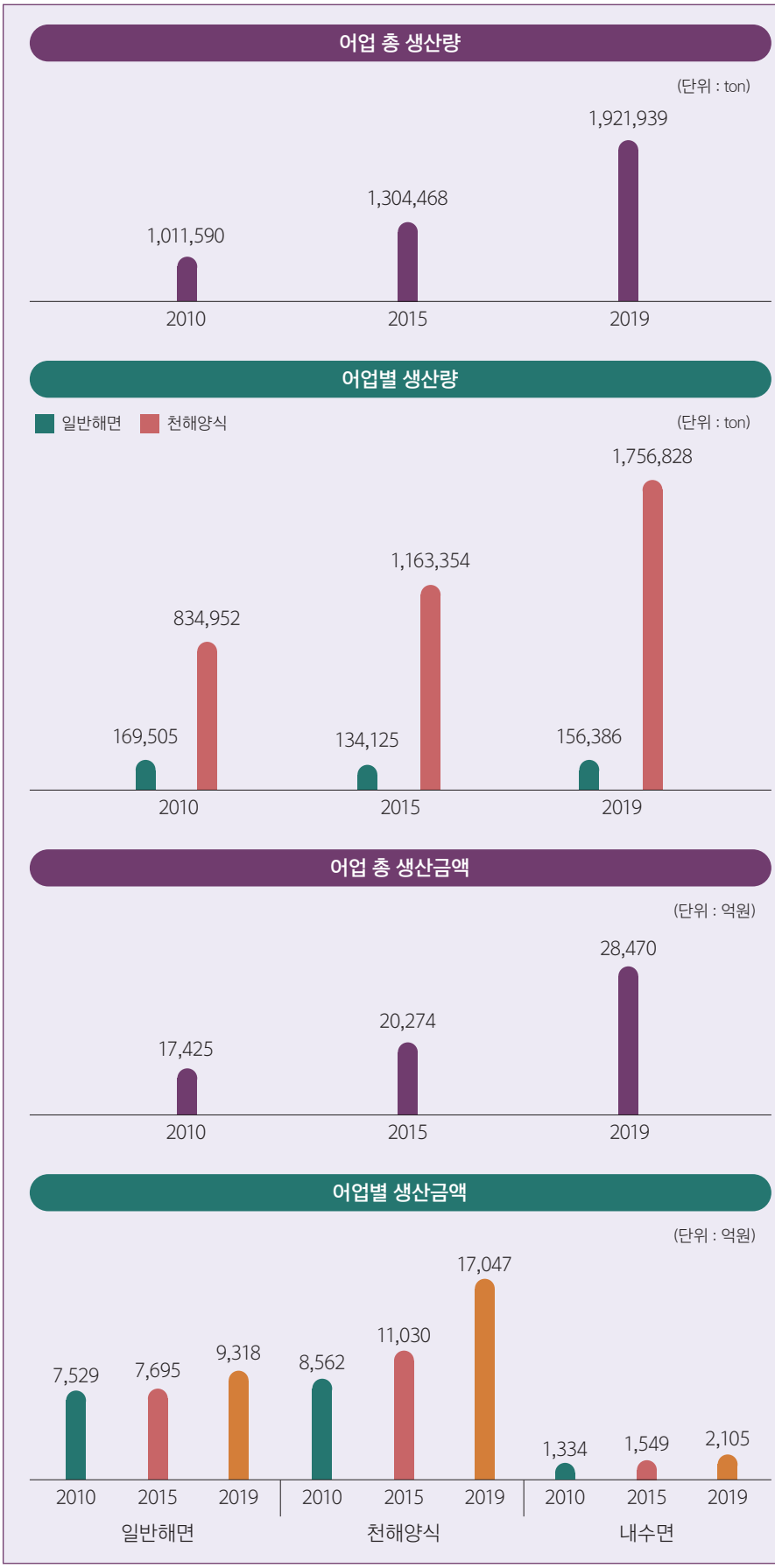
• 일반해면어업과 천해양식어업의 생산금액은 2010년 대비 각각 1,789억원(23.8%), 8,485억원(99.1%) 증가

– '20년 기준 양식 생산량은 전라남도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91% 수준인 1,747천톤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7% 성장

• 양식생산량(천톤) : '10) 851, '15)1,153, '20) 1,701

• 생산비중(천톤) : 양식 1,701(90.6%), 연근해 168(9%), 내수면 8.1(0.4%)

그림 III-2-1
전라남도 어업생산량 및 어업생산금액



자료 : 호남지방통계청 보도자료 참조, 2020

⬡ 원물 생산량은 전국 최대이나 상대적으로 가공·유통 등 고부가가치 산업 취약

- 전라남도는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매생이 등)와 패류(전복, 굴, 꼬막 등) 등의 주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가공·유통과 연계가 미흡하여 부가가치 제고에 취약
  - 018년 기준, 전라남도 수산가공품 생산량 비중은 27.3%로 부산광역시(27.9%)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단순가공품에 치중되어있어 한계성 보유
    - 수산가공품 중 단순가공품 생산량은 35.9%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고차가공품 생산량은 9.8%로 부산(28.7%), 경남(19.5%), 경기(13.4%), 강원(11.4%)보다도 낮은 수준임
    - 단순가공품의 생산금액 비중은 전국 평균(55.7%)보다 높은 73.2%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차가공품 생산금액 비중은 전국 평균(44.3%)의 1/2 수준인 26.8%로 수산가공품 생산에 있어 부가가치 제고 필요

2. 여건 변화 및 전망

⬡ 기후변화와 해양폐기물 등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따른 저탄소·친환경적 해양 이용 요구 증대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산성화, 해수면 및 해수온 상승 등의 이상현상은 연근해 어장환경 변화 및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 발생
  - 수온 상승에 따른 해파리 출현과 갯녹음 발생, 고수온 피해 등은 수산업에 위협
  - 주요 어종들의 생리, 생태 및 산란시기와 산란장의 변화 등 해양생태계 변화에 따른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친환경 어구·어법 개발 등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어업행위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어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
  - '2050 전남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으로 탄소중립 정책 및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탈탄소 요구 증가
- 해양오염과 선박사고의 주요 원인인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저감을 위한 국내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 추진[3)]
  -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저감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양폐기물의 본질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체계 구축

⬡ 기존 어획량 중심의 관리 정책에서 자원량 중심으로 수산자원 정책의 방향성 전환

3)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1~'30) 수립

- 수산자원 조성, 자원 회복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 단계별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체계 기반 확립
  - TAC[4] 참여 업종 및 어종의 단계적 확대 등 어업구조 개편을 통한 수산자원 관리 정책 확대
  - 연근해 주요어장의 폐어구 및 침적폐기물 수거를 통한 수산자원 서식지 및 어장관리 추진
    - 효율적인 폐어구 수거·처리를 위하여 어구일제회수[5] 및 폐어구 집하장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수산업 생존과 발전을 위한 1차산업 기반의 수산업 구조를 2차, 3차 산업과 융·복합화하여 6차산업으로 전환하는 수산자원관리체계 구축
  - 어촌지역의 6차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여건 조성을 위한 스마트·친환경 양식 시설 확대

-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양식업 육성으로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 만성적인 양식산업 경쟁력 저하 요인인 어장 노후화 및 폐쇄형 연안에서 밀집·밀식의 해상양식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 수산업의 지속성 문제 대두
    - '18년 사료계수 7.5, 평균 폐사율 20%, 질병 확산 시 폐사율 30~50% 수준까지 상승
  - 순환여과양식시스템과 바이오플락 기술 등 첨단양식기술을 활용한 융·복합한 스마트양식 플랫폼 개발 및 확산
- 지역특성에 기반한 양식수산물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방안 모색
  - 수산자원량 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은 수산업 성장에 구조적 한계로 작용
  - 전라남도의 경우, 양식수산물 생산량은 전국 최대이나 부가가치가 낮은 해조류 중심의 양식업, 외국산 선어와의 경쟁, 인건비, 사료비 등 양식경영비 상승으로 어가 경영 압박
  -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의 생산량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양식어업 확대 및 어선 어업의 체질개선 필요
  - 기존 양식산업은 양식 생물의 생장관리 측면으로 육성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양식생산과정을 우량종자의 개발, 종자 보급, 생장 관리, 유통 및 판매까지 고려하는 생산시스템으로 구축 필요

4) 총허용어획량제(Total Allowable Catch)
5) 일정기간 특정 구역의 어업 제한, 어구 수거 명령 발령 후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방식

수산물·식품의 소비증가 등 식량 안보산업으로서 수산업 중요성 증대

- ICT,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의 확산으로 친환경적이며 고효율의 지능형 생산체계 도입 등 수산업 전반의 변화 예상
  - 개인 맞춤형 수산식품 소비가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관리, 이력 추적기술 등을 통해 유통·거래 디지털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 증대
- 소비자 중심의 수산물·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 제고로 신뢰도 높은 상품 생산, 플랫폼 개발, 서비스 공유를 통한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확대
  - 2019년 기준,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는 16조 8천억 원으로 연평균 27%의 성장률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수산물의 경우, 냉동·가공품으로, 신선 회, 선어 등의 품목은 유통이 제한적 임.
  - 고령화·1인 가구 증가로 수산식품 소비의 고급화·다양화·간편화된 인터넷을 통한 언택트(untact)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수산물 온라인 구매 확대 전망
- 수산물·수산식품의 클러스터화 조성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 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도약을 위한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 가공·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전라남도는 전국 수산물의 47%를 생산하나 가공율은 18%, 수출은 7.5%에 불과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를 연계·접목한 차별화되는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특화산업화

해양생물자원 기반의 해양신산업 육성·지원

- 어촌 고유 자원의 보전·발굴과 지속가능한 활용 등에 대한 수요 증대 및 지원 확대
  - 어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산물 생산 중심의 정책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전통적 해양산업을 신해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해양·수산자원 활용 측면으로 산업 구분

표 III-2-11
해양산업 구분(OECD)

전통적 해양산업	신해양산업
어업, 수산가공, 해운·항만, 조선, 해저·광물·원유(연근해) 해양기반 제조 및 건설, 해양관광·레저, 해양 R&D 및 교육, 준설 등	양식, 해저광물·원유(심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해저채광, 해양바이오, 첨단해양제품 및 서비스, 기타

자료: OECD, The Ocean Economy in 2030, 2016

  - 해양산업은 2020년에 산업부분별 해양관광(26%), 해상풍력(24.5%), 수산가공(6.26%), 양식(5.69%) 등의 순으로 높게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해양수산기기·장비제조업의 전망도 긍정적임

표 III-2-12
세계 해양산업 부문별 전망

구분	부가가치 증가(10~30)	부가가치변화(10~30)	고용변화(10~30)
양식	5.69%	303%	152%
어업	4.10%	223%	94%
수산가공	6.26%	337%	206%
해양관광	3.51%	199%	122%
해양원유 및 가스	1.17%	126%	126%
해상풍력	24.52%	8,037%	1,257%
항만	4.58%	245%	245%
신조 및 수리조선	2.93%	178%	124%
해양장비	2.93%	178%	124%
해운	1.80%	143%	130%
해양산업평균	3.45%	197%	130%

자료 : OECD, The Ocean Economy in 2030, 2016.

- 해양생명자원 확보·관리체계 구축 및 소재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바이오산업 활성화
  - 해양바이오산업은 기술과 인력이 부족하고, 산업생태계 및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므로 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 필요
  - 전라남도는 해조류·어패류 등 해양수산자원의 원료 및 유용신물질 확보 기술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연계한 수산업 중심의 연구소재 기반이 견고하여 해양바이오산업 선점의 절대적 우의 차지

    ※ 전라남도는 '19년 기준, 수산물 생산량은 1,922천 톤(국내 57.9%)으로 전국 1위, 그 중 해조류는 약 164톤으로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14%를 차지, 전국의 약 90.5%를 생산하고 있음

어촌뉴딜과 연육·연도교 확충을 통한 어촌공동체 활성화 기여

- 어촌관광 활성화 등으로 어가소득원 다양화 확대 전망
  - 수산업 중심의 어촌계를 중심으로 육지부분의 유통·가공, 어촌관광,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소득 다변화 추구

    ※ 어가소득(천원) : ('14)41,015→('18)51,836 /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어가소득 비율('18) : 80.0%
- 섬·어촌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어촌 필수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한 어촌뉴딜사업 추진
  - 폐교·빈집 등 도서 내 유휴자원 적극 활용하고 지역 맞춤형 특화개발을 위한 어촌뉴딜 300 추진
- 귀어·귀촌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정책지원 강화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증대
  - 2018년부터 청년 귀어인 영어정착자금, 창업자금 지원 등 안정적인 정책지원 및 정착지원 강화
- 어촌특화지원센터, 귀어귀촌지원센터, 수산산업 창업투자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및 역할 강화
  - 전통적인 수산업에서 탈피한 혁신적인 지원 강화

3. 주요 정책과제

1) 기본목표

⬡ 어촌공동체의 활력증진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혁신성장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연안어업을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
  - 연안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생태자원 복원 및 과학적인 자원 관리체계 구축
- 자원 특성에 기반한 양식어업 육성
  - ICT 첨단 양식어업 규모화 및 친환경·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
- 고부가가치 소득품종 개발·보급 확대
  - 기후변화 등 생태계 변동에 적응 가능한 고부가 신품종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 친환경 수산물 물류 표준화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 유통가공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수산업 육성
  - 수산물 생산단계별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 추구

2) 추진전략

⬡ 기후변화 적응형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 기후 및 어장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수산자원관리
  - 도내 주요 수산자원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
  - 해양생태계의 기능 및 건강성 회복과 해양자원의 효율적 관리·분석을 통한 활용기반 조성
- 연안어장 환경 개선 및 신품종 개발을 통한 양식산업 적응력 강화
  - 연안 양식어장 개선사업 활성화를 통한 양식생산성 향상
  - 수산물 자급률 제고를 통한 수급관리의 안정성 확보
  - 우량 수산 종자 개발을 위한 육종 관리와 형질 관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어촌뉴딜사업 추진으로 어촌·어항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기반 선진화 제고
  -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존 어항시설 보강 및 어업인 재해 안전 보장 강화
  - 해양이용개발 이행 모니터링 및 해양공간계획 관리 필요
  - 연안 생태환경 복원으로 친수연안공간 활용도 제고
  - 기후변화, 어촌·어항 여건 변화,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수요 확대에 따른 상생적 해양공간 조성

⬡ 수산업의 미래지향적 혁신 인프라 구축

- 지속가능한 수산생산여건 조성을 위한 스마트·친환경 양식 시설 확대

- 스마트 양식, 친환경 양식시설 확대
- 도서지역을 활용한 외해양식기지 개발
- 수산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R&D 투자지원
- 수산기자재 산업 고도화 추진

● 지역주민 참여형 양식산업 플랫폼 구축
- 「양식산업발전법」제정에 따른 대기업 양식산업 진출 활성화 대책 및 지역 어민 참여 보장방안 마련
- 정부-지자체-기업간 협력을 통한 소규모 양식어가, 양식기업의 안전적 판로 확보 적극 지원

● 지역 특화 품목 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 개발과 공동 브랜드화 추진
- 전라남도의 수산자원을 활용한 생산·가공에서 유통까지 확산 브랜드화 전략 수립
- 거점 수산물 유통단지 신설과 기존 유통시설 개선을 통한 신유통체계 구축 및 대량산업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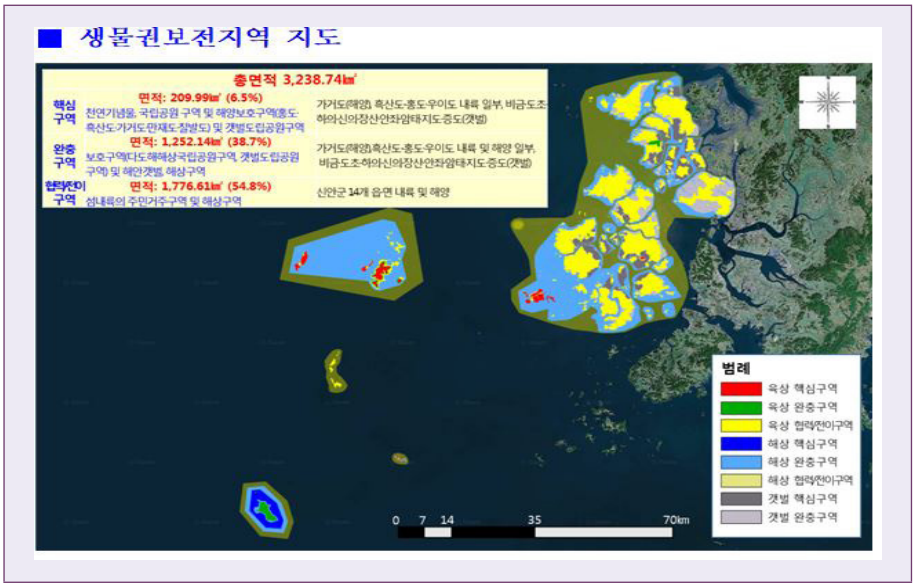
3) 핵심 프로젝트

⬡ 어촌·어항의 지속가능한 발전인프라 구축

● 해양생태계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대중 접근 지원 및 인식제고를 통한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국토종합계획 계획지침 III-4-1,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4-3-아,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4-3-카)
- (해양생태계 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대응과 향후 COVID-19와 같은 대유행(팬데믹) 위험 저감을 위해 전라남도의 갯벌 등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해양환경 복원) 해양보호구역 확대, 폐염전·폐양식장 등 갯벌생태계 위협요인 제거를 통한 갯벌 복원 등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사업 추진 동력 마련
- (갯벌공원 및 갯벌정원 조성) 「한국의 갯벌」세계자연유산 등재(신안, 보성·순천 갯벌 등)에 따른 갯벌의 유형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성방안 마련

● 개발과 시설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생태적·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아우르는 통합 정책 추진(국토종합계획 계획지침 III-1-3,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4-3-자)
- (해양공간별 특성에 맞는 이용·개발·보전) 해양치유, 해양레저 등 어촌 핵심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기반 조성
- (가고 싶은 섬 사업 추진) 생물다양성 보호, 해양공간 및 전통문화자원의 통합적 활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마련
- (갯벌의 브랜드화) 신안갯벌, 보성·순천만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지속 가능한 이용·보전·관리 및 복원을 위한 갯벌관리방안 마련

그림 III-2-2
전라남도 신안갯벌 생물권보전지역



- 어장환경 실태 정밀조사를 통한 과학적인 어장재생계획 수립(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4-3-사,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4-4-바)
  - 태풍·고수온 등 자연재해 우범지역의 양식장 이설·재배치 및 오염어장 정화·재순환 체계 구축
  - (수산물 생산 해역관리) 바다숲 및 바다목장을 조성하여 수산자원 증대 및 자연산란·서식환경 조성으로 연안생태계 회복
  -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에 관한 주요 국제기구 등과 국제협력을 통한 영향 평가 및 예측기술 개발
  - (환경 모니터링) 수산부분 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기후변화 영향평가, 예측 기술 개발
  - (해양쓰레기) 해양 미세 플라스틱, 폐어구, 부표 등 해양쓰레기의 연안 분포 현황 조사 및 관측소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 특색있는 자연, 역사 등 어촌의 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 기반 조성(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1-3-라,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2-3-나)
  - (해양관광산업 확대)해양생태특성과 주요어법, 지역 수산 특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어촌 관리·보전 등을 통한 해양관광자원 이용 촉진
  -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타지역과 경쟁에서 우위를 갖기 위한 스토리가 있는 어촌체험·휴양·치유마을, 마리나 및 크루즈 관광 등 상생 모델 구축
  - (어촌특화지원)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 1차 산업과 2차, 3차 산업을 융·복합하여 어업 외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6차산업화 사업 발굴

스마트 융·복합 아쿠아팜 클러스터 조성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스마트어촌 조성(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2-1-가)
  - ICT,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라남도 수산물의 신성장산업 육성

– (고소득 품종 육성) 인공지능-IoT 활용, 스마트양식 기술을 결합하여 고부가 가치어종(연어, 다랑어 등)의 양식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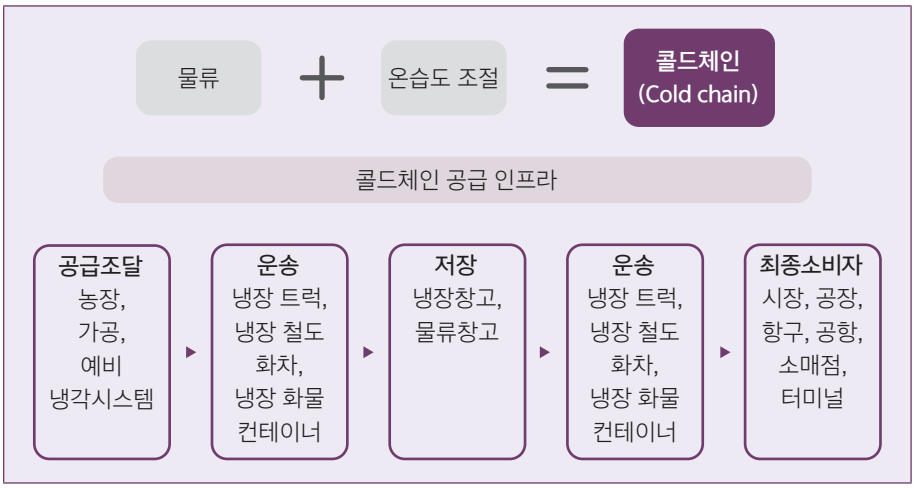
– (대량생산 기반 조성) 디지털화·표준화한 스마트양식 통합관리 개발 및 자동화·지능화된 시범양식장 구축, 지자체 주관으로 특화어종 모델 기획·추진

-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영위 및 양식생산성 제고를 위한 우량인공종자(넙치, 돌돔, 조피볼락, 전복 등) 생산기반 마련
  – (안정적 수급체계 마련) 환경 친화적인 양식시설 보급 확대로 수산식품 안전성 보장을 위한 사육관리
- 외해양식 활성화 추진을 위한 기자재 및 플랜트 등 생산관리 기반구축
  – 참다랑어, 연어 등 외해양식이 가능한 수중 가두리 시설 개발 및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투자유치 방안 마련
- 내수면 양식시설의 첨단화·규모화로 내수면 지역 재생 및 친환경양식 생산을 위한 기반마련
  – (생태친화형 양식시스템 개발) 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식 및 용수정화(오존, 정기분해, 자외선) 등 수처리시설 확대

⬡ 글로컬 수산식품 플랫폼 구축

- 지역특산 수산물·식품개발을 위한 통합 R&D 클러스터 기반 구축(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2-1-가)
  – 글로벌 식품화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 및 지역 특화 맞춤형 R&D 발굴·추진
  –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해조류 등 지역 특화 품종의 생산·가공·유통·판매 통합 R&D 추진
  – 고부가가치 천일염의 효율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R&D 지속 투자
- 수산 신선식품의 유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콜드체인 시스템 기반 조성
  – 체계적인 수산식품 육성 추진을 위한 냉동냉장시설, 신선식품의 가공·포장·보관이 모두 가능한 표준화공장, 식품기업연구지원센터 등 식품가공 특화 기반구축

그림 III-2-3
콜드체인 및 공급 인프라 개념도



- 전남특화 스타기업 육성 및 스마트 수산식품 가공단지 구축을 통한 수산물 수출 활성화(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2-1-다)
  - 산지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을 통한 강소경영체 육성 및 공유 가공단지 조성
  - (수산물가공 거점단지 육성)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과 품질·위생 관리로 수출 시장 경쟁력 강화
    - 국내 김 제품의 수출액과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김 품질 기준이 없어 해외시장에서 평가절하
  - (수산물 브랜드화) 친환경 양식수산물의 대외 경쟁력 확보 및 수출판로 확대를 위한 국제인증(ASC) 지원
- 전라남도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 (소비촉진 마케팅 강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건강, 미용 등 소비자 맞춤형 수산물과 융복합을 통한 웰니스 상품 및 서비스 제공으로 온·오프라인 소비패턴 변화 대응

수산물의 안전한 공급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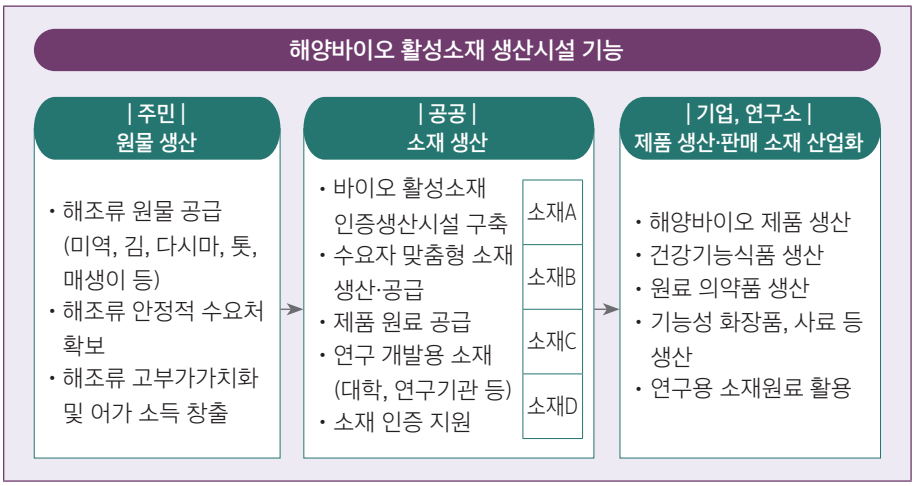
- 전라남도 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청정갯벌' 인증 등 수산물의 안정성 강화
  - (수산물 경쟁력 강화) 수산물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위생관리를 위한 이력제 컨설팅 지원, 참여업체 등록 지원, 이력제 적용 상품 마케팅 지원 등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 품질위생 관리형 위판장 개발
  - (수산물 유통환경 개선) 수산물 생산 이력 관리시스템 표준화를 위한 도매시장 별도 경매 및 저온유통 라벨 부착 등 차별화 추진
-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양식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제적 요구기준에 부합하는 품질인증 및 수산생물전염병 감시체계 강화
  - (수산물 이력제 강화를 통한 품질인증)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과정을 이력제를 통한 품질관리와 시설 및 운영 방안 마련
  - (수산생물질병관리 강화) 바이러스성, 기생충성, 세균성 질병 등 수산동물 질병 예방 추진을 위한 백신공급, 항생제 잔류검사 등 약품사용에 대한 어류안전성 구축사업 추진
  - 방류 수산생물전염병 검사 확대 및 강화
  - 감염병 등 병성감정 정밀진단 강화
    - WTO·FTA 대비 강화된 CPTPP SPS협정에 대비한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 설치 등 검역지원 및 국내 수출양식장 방역관리가 요구됨

수산물 생산 인프라 고도화

- 해조류의 바이오산업 소재 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촉진기반 마련(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1-3-바)

– (인프라) 해조류의 전처리부터 산업계에서 제품 생산 및 연구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해조류 활성소재 생산시설 구축 및 기업 유치

그림 III-2-4
해조류 활성소재 생산시설 기능



- 지역특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생명소재 플랫폼 구축(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1-3-바)
  – (해양수산 신산업 산업기반 조성)해양생물자원의 소재공급 및 원천기술 개발, 해양바이오산업의 기술격차 및 인력부족 해결을 위한 사업화 전주기 지원 검토
  – 원물과 추출혼합물 등 해양생명소재 대량생산을 위한 scale-up 연구, 산업화를 위한 유용자원 선정, 확보, 관리를 통한 해양바이오 지역거점사업 추진
-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공급 지원 및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 어장환경 오염 및 수산자원 남획 방지,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대비 사료표준화, 사료원료개발, 저어분사료개발 등 배합사료 보급의 문제점 개선
  – (배합사료) 2025년부터 국내 양식장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에 따른 고품질·고효율 사료 개발·보급
  – (자원화시설) 패류 알맹이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패각을 친환경 비료로 자원화 처리하고 굴 껍데기를 발전소 탈황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원화 생산시설 기반 구축

제3장

그린·디지털 중심 산업 대전환 선도 거점 육성

제1절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속성장 기반 구축

제2절 에너지, 뉴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조성

제3절 차세대 바이오 기술 기반 글로벌 허브 구축

제1절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속성장 기반 구축

1. 현황과 문제점

전라남도의 주력산업 환경

- 전라남도의 제조업은 부가가치 기준 화학, 금속 소재·부품 업종의 비중이 가장 큰 구조
  - 화학, 금속 소재·부품 업종의 '19년 생산액은 66.8조원, 제조업 내 비중은 63.4% 내외로 유지

표 III-3-1
전라남도 제조업 및 주력업종 생산 현황
(단위 : 억 원, %)

산업구분	2010년		2014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10~'19)
	생산액	비중	생산액	비중	생산액	비중	생산액	비중	
전라남도 제조업	1,024,927	100	1,167,642	100	1,126,649	100	1,086,351	100	0.6
화학소재·부품	361,069	35.2	430,762	36.9	421,202	37.4	388,695	35.8	0.8
금속소재·부품	213,514	20.8	223,431	19.1	220,067	19.5	299,987	27.6	3.8
조선(선박·요트)	73,048	7.1	63,032	5.4	44,138	3.9	53.573	0.0	-80.2
세라믹소재·부품	14,723	1.4	19,844	1.7	21,617	1.9	18,099	1.7	2.3
2차 가공식품	5,428	0.5	9,200	0.8	10,794	1.0	10.326	0.0	-69.6
산업기계	6,172	0.6	10,571	0.9	8,278	0.7	5.940	0.0	-77.2
에너지소재·부품	1,098	0.1	2,486	0.2	3,390	0.3	3,776	0.3	13.7
자동차부품	942	0.1	2,471	0.2	1,691	0.2	1,057	0.1	1.3
정밀기기 (측정·시험·항해·제어)	301	0.03	155	0.01	1,620	0.1	1,164	0.1	15.0
가정용 기기 (전기·비전기식)	2,058	0.2	1,238	0.1	1,585	0.1	284	0.0	-22.0
섬유제품	1,321	0.1	1,004	0.1	1,182	0.1	581	0.1	-9.1
바이오헬스케어	1,622	0.2	541	0.05	726	0.1	168	0.0	-25.2
전국 대비(1)	13,348,333	7.7	14,892,127	7.8	15,759,990	7.1	15,527,064	7.0	1.7

주 : (1) 전국 제조업 총생산액 및 전남 제조업의 비중 기재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종사자 10인 이상), 10차 개정 산업분류 3레벨 기준(석유정제업(35.2조원), 1차 가공식품(2.7조원) 등 1차 가공 분야는 주력업종 분석대상에서 제외)

전라남도의 산업단지 현황

- 전국 산업단지는 제조업 최대 집적지로 '21년 1분기 기준 1,241개 지정
  -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의 63.9%, 수출 65.7%, 고용 49.2% 차지('19년 말 기준)
- 전라남도의 산업단지는 총 105개(국가단지 5, 일반단지 31, 도시첨단단지 1, 농공단지 68개)가 조성되었으며, 주요 국가산단은 해안에 위치
  - 전라남도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21년 1분기 기준 226㎢(전국의 15.8%)로, 전국에서 경기도(249㎢)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이며, '12년 이후 감소 추세
  - 전라남도의 국가산업단지(여수·광양·대불) 지정면적은 175㎢(22.2%)로 전국 최대 규모

표 III-3-2
전라남도 산업단지 현황 ('21년 1분기)

구분	합계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개 수(개)	105	5	30	1	69
면 적(천㎡)	226,383	174,890	39,601	190	11,702
고 용(명)	82,125	45,748	20,023	-	16,354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21), 2021년 1분기 전국 산업단지 현황 통계

*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조성 중

  - 산업단지의 고용은 82,125명(전국의 3.63%, 전국 11위)으로 '01년 대비 27천명 증가(연평균 2.8%)했고, 전국평균(4.8%) 하회

- 산업단지 생산액은 23조 6,181억원(전국의 9.48%)으로 전국에서 4번째(2021년 1분기 기준)
  -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3,383개사로 전국(108,540개) 대비 3.11% 차지(전국 9위, 전국 평균 8.0%)
- 대규모 장치산업 위주의 노후 산단으로 근로·정주환경이 열악하고 공공인프라 및 우수 산업인력 부족
- 대기업의 생산거점 역할로 생산액은 높지만, 대·중소기업 간 기술수준 양극화가 심화되어, 공급망 가치사슬 형성 부진
- 산업구조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의 핵심거점으로서 지속적 역할 수행 및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필요

⬡ 산업구조 편중에 따른 주력산업의 시장대응력 약화

- 4차 산업혁명, 환경규제 강화, 무역질서 재편 등 대내외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활력 저하 및 신산업 창출 지연
- 지역 제조업의 철강·화학 소재 업종 편중
  - 지역 내 철강·화학소재의 수요기업(중견·대기업) 부족과 조선업 침체, 타시도 고성장 산업과의 연계 부족으로, 제조업 성장 한계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융합을 통한 제조혁신, 고부가가치 사업재편에 대한 노력 부족으로 국내외 환경변화에 취약
  - 라남도 주력산업의 저성장, 스마트공장 확산·고도화 지연, 서비스업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고용률 36% 내외

⬡ 경쟁국 부상, 주력업종 생산성·수요 둔화로 주력산업 침체

- 무역 분쟁, 경쟁국 부상, 주력업종 생산성·수요 둔화로 최근 5년간 제조업 생산액은 감소 추세, 철강·조선 산업의 수출경쟁력 하락
- (화학) 세계 석유화학은 미국, 중국 등의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과잉공급으로 생산이익 감소

– 국내 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화학소재·부품 생산보다는 일반범용 제품 생산에만 주력

- (철강) 건설업과 제조업의 동반 부진이 지속되면서 철강 수요가 회복세로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
  – 대부분 중소기업이 대기업 하청에 의존하여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
- (조선) 미중무역 분쟁으로 해운업과 해양 자원개발 산업의 침체로 전 세계 선박 발주량 감소
  – 대부분 중소형 기자재기업이 현대 삼호 등 대기업에 종속되어 부가가치가 낮은 선박블록 제조

2. 여건 변화 및 전망

⬡ 보호무역, 산업개편 및 신산업 출현 등 주력산업 관련 전반적 위기감 고조

- (보호무역) G2, 한·일 무역마찰에 따른 '글로벌 교역 및 경기위축'으로 세계 경제성장 둔화, 수출 부진, 내수 침체 지속
  –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 한계 봉착, 글로벌 금융 위기 후 만성적인 재정 불균형,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경제적 리스크 지속 노출
- (사업개편 및 신산업 출현)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술혁신과 신기술 창출로 미래성장 기반 확보에 주력
  –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에너지 이슈, 글로벌화 등의 지속적 이슈로 관련 유망 기술 및 신산업 출현
- (기업지원 정책 전환) 산업·기술과 연계한 기업의 R&D 및 체질개선을 위한 新비지니스모델 창출
  – 기술·산업 혁신정책 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 성장 로드맵 수립·반영 등 기술·산업·기업 간 상호 작용에 주력

⬡ COVID-19 확산에 따라 전라남도 주력산업 시장 수요 변동

- 기존의 수출 위주 영업구조를 내수와 병행하는 영업구조로 전환을 고려할 시점
  – COVID-19 확산에 따른 세계적 물류 애로, 국경 봉쇄 등을 겪은 각국에서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
  – 언택트(비대면) 소비 등 COVID-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방식의 소비 행태가 대중화됨에 따른 전략 마련 필요
- AI 접목 4차산업 혁명 기술 융합으로 생산방식 대전환 전망

– 인공지능, 에너지, 소재산업을 연계한 생산방식 대전환을 통해 언택트 경제 선도
– 주력산업의 저탄소·지능화, 자원·에너지·물류 효율화 등과 금속가공·조립 업체의 뿌리기술 스마트·고도화 필요성 증대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2019.6)

- (비전 및 목표) "세계 4대 제조 강국(수출규모기준)"으로 도약
  –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려 산업구조 혁신
  –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이고, 세계 일류 기업을 2배 이상으로 확대
- (추진전략1)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 (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 추진, AI 기반 산업지능화 본격 추진
  – (친환경화)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통해 친환경시장 선두국가로 도약
  – (융복합화)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업종간 융합으로 부가가치 제고
- (추진전략2)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
  – (신산업)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에 국가적 역량과 자원 결집
  – (주력산업) 고부가 유망 품목 중심으로 전환 가속화
  –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산업 집중 육성
  – (사업재편) 상시적 사업재편과 기업 구조 혁신 촉진
  – (산업단지) 산업단지를 대개조하여, 신산업 창출과 제조업 혁신의 전진기지로 대전환
  – (수출) 지속적으로 세계 일류기업을 확대하며, 수출지원 강화
- (추진전략3)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사람)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
  – (기술) 도전, 속도, 축적에 기반하여 R&D 체계 전면 개편
  – (금융) 혁신 제조기업의 도전·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체계 구축
- (추진전략4)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 (투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과감하게 지원 확대
  – (공공조달) 정부가 First Buyer로서 선도적 수요 창출, 대규모 실증 확대
  – (추진체계) 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민관협력 체계 구축

주력산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한 산업 구조고도화 추진

- (석유화학) 고부가 정밀화학 분야의 첨단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연구 인프라 확충
  – 기존 석유화학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화학소재산업 육성
  – 고기능성 고무소재·부품 정밀화학 등 첨단 화학산업 인프라 확충
  – 자연 생분해 가능 비닐·플라스틱 소재 및 초경량 고강성 플라스틱 제조기술 개발

- (철강·금속) 정밀기계 가공부품 국산화 및 고부가·경량소재산업 육성
  -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 육성 및 고기능성 금속소재 제조·가공 기술 등 연구개발 강화
- (조선·기자재) 친환경·스마트 중소형 조선, 해양레저장비, 수리조선 분야 특화 육성
  - IMO 규제 강제화 및 선박과 ICT 기술 결합으로 스마트·친환경 기술 수요 급증
  - IMO 규제확대, 소득증가에 따른 여가활동 수요 증가 등으로 친환경·스마트선박 및 해양레저선박 시장 지속적 성장 예측
- 2021년 상반기, 글로벌 조선해양 산업은 최근 몇 년 중 가장 큰 회복세를 보이며 급성장
  -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선주들이 발주량을 늘리면서 조선업계에서는 슈퍼 사이클(장기 호황) 전망

⬡ 스마트화를 통한 소재·부품 사업재편 가속화

-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 조치법」 시행(2020. 4.)
  - 정책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고,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
- 「소재·부품·장비 2.0 전략」발표(2020.7.)
  - (전략)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글로벌 생산거점화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
  - (대상) 차세대 기술을 포함하여 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對日 100개 품목 → 글로벌 338+α개 품목으로 확대
  - (방식) 글로벌 수요기업의 구매력과 대표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민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명확한 유치전략과 맞춤형 인센티브 강화
  - (내용) 정부-기업간 컨센서스를 토대로 첨단산업 유치, 자체기술 개발 강화
- 중기부는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추진(2021.1)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4,002억원), 로봇활용 제조혁신(181억원), 스마트 마이스터(70억원), 스마트공장 사후관리(44억원), 스마트화 역량강화(33억원),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32억원), 스마트공장 수준확인(14억원) 등 총 7개 사업지원 추진

3. 주요 정책과제

1) 기본목표

⬡ 전라남도 주력산업 지속성장 기반 마련

-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기 구축된 클러스터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 미래 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건강한 제조업 생태계 구축

전라남도 주력산업 신시장 진출을 위한 토대 마련

- 산업단지 개발 등과 연계한 전라남도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전략산업 연계 융·복합 및 고기능성 소재·부품 시장 우위 선점
- 노후 산단 연계 첨단기술 적용 및 구조고도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 지역 산업단지 기반 제조 혁신, 산단 고도화로 스마트 선순환체계 구축

2) 추진전략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생산·수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화학·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투자촉진을 위한 가치사슬 기반 강화
- 친환경 중소형 조선산업 특화 육성 및 선박 기술 고도화

전통소재 기반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 고부가 금속·화학 소재·부품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 첨단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생태계 전반의 부가가치 제고

클러스터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

- 신금속 부품소재 가공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석유화학기반 융·복합소재 중심 고부가가치 고분자소재 산업화

첨단기술 접목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

- 노후 산단 첨단기술 적용 및 구조고도화를 통한 산단 혁신역량 강화
- 주력산업 중심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첨단기술 융합 촉진
- 노후산단 대개조를 통한 디지털 혁신 산단 조성

3) 핵심 프로젝트

(철강·화학) 고부가·고기능성 산업 메카 구축

-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으로의 전환 필요

- 금속가공산업 생태계 기반구축
  - 고부가 열처리 공정 도입을 통한 전라남도 금속 소재·부품기업의 제품 성능 향상 및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 광양 금속가공 열처리 지원센터와 연계한 금속소재, 가공산업 집적화 및 구조 구도화
  - 신소재산업과 금형·주조·열처리 등 뿌리산업 육성
- 마그네슘 소재 부품 상용화 기술 개발
  - 마그네슘 소재 상용화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마그네슘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 정밀기계 가공부품 국산화 및 고부가·경량소재산업 육성
- 고망간강 상용화 실증기반 구축
  - 고망간강 활용 LNG저장탱크, 내마모성 배관 등을 제품화하는 실증장비 구축
  - 가공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
-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분야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 연구 인프라 확충 및 신기술 개발 추진
- CO_2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
  - 산업부산물인 CO_2, 슬래그 등의 상용화 핵심기술을 개발
  -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지원 및 기존 산업의 업종 전환 지원
- 폐플라스틱 자원화 소재개발 실증기반 조성
  - 폐플라스틱 재활용 및 고부가가치 기술 실증 지원
    - 제품 개발 및 성능개선을 위한 재료 구매, 공정개선 등
    - 금형 제작 및 금형 테스트를 위한 재료 구매
    -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로드맵 수립
    - 기술 관련 전문가 자문

(조선) 친환경 중소형·해양레저장비 특화 육성

- 해상운송산업을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 Eco-Smart Ship 개발을 위한 다양한 각도의 R&D 전략 추진
    - 친환경 분야는 해양환경 및 생물보호 규제에 대응한 친환경 기자재, LNG 연료 추진 선박 등 대체 에너지 적용 기술, 연료의 고효율화 기술 등 추진
    - 스마트분야는 원격운항·유지보수, 자율운항 등과 관련한 시스템 개발 등 추진
  - 친환경·스마트화, 중소형 해양레저선박 등을 통해 해양레저산업 시장 규모 확대
    - (국내시장) 조선 산업은 최근 회복세이나, 중형 조선사 수주 회복은 더딘 상황 ('18년 수주량 1,308만 CGT(71.9%↑), 1위 탈환)
    - 중소형선박 중 가장 큰 비중의 해양레저산업 분야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1% 미만으로 시장 개척 단계
  - ICT기반 차세대 스마트·자동화 어선 기술개발

- 친환경 연안 선박 클러스터 조성
  -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과 시험 및 인증,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
  -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선박 대기오염 관련 배출 규제 강화에 대응
    * 2050년까지 '08년 대비 탄소배출량 50% 감축 목표 발표('18. 4.)
  - 전 세계 30조원 규모 레저선박의 친환경화 및 기술개발 경쟁 가속
  - 연안 선박 집중분포, 친환경 선박 신기술 실증단지 구축에 최적
    - 국내 연안여객선 55%, 어선 41% 집중분포(전국 1위), 선박 1,193척(전국 2위)
  - (R&D)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 (기반구축)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 친환경 선박의 혼합연료 신기술 실증지원 및 육·해상 테스트베드 구축
  - (거점조성) 연구거점 유치 및 친환경선박 연구개발·산업 집적화
    - 선박해양분야 유일 정부출연연구소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친환경연구센터 유치
  - (인력양성)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서남권 캠퍼스 유치
  - (고도화)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그린쉽 3170) 유치

그림 III-3-1
목포 남항 항만재개발사업 부지 (용해동 1059 / 65,000m²)



그림 III-3-2
친환경 선박기술 실증 인프라 구축 조감도



● 중소형 조선 및 수리조선 특화 육성 경쟁력 강화

– 친환경 소형조선·수리·기자재산업 기술고도화와 사업다각화 추진을 위한 특화산단 조성으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선박평형수(BWM) 관리협약」발효('17. 9. 8.)로 평형수 정화를 위한 처리시스템 수리·개조 분야 수요에 선제적 대응

– 중소형 선박수리 및 소형선박 건조 특화산단 조성

• (소형선박 건조단지) 단지 조성, 기술 및 행정지원 시설 건축 등

• (중소형선박 수리단지) 선박 평형수 수리·개조 기반구축

– (대상지) 영암군 삼호읍 용당 일반산단(산업 281천㎡, 공공 38천㎡, 녹지 33천㎡)

• 대불국가산업단지 및 해상풍력 지원(예정)부두와 인접, 연계산업·기업 유치 가능

• 중소형선박 수리·개조, 해상풍력 부품·기자재 등 맞춤형 용지공급 단지구획 가능

그림 III-3-3
중소형 선박수리 및 소형선박 건조 대상지



● 환경/스마트 중소형조선산업 인력양성 및 기술고도화

– 친환경·스마트 중소형조선, 해양레저장비, 수리조선 분야 특화산업 육성

– 소형 레저선박, 전기추진 기자재, 중소형 특수선박 등 기술 고도화

– 조선산업 생산기술 고도화 및 생산공정 기술 분야 혁신을 위한 체계적 인력 양성

⬡ 주력산업 연계 미래형 부품소재 산업벨트 구축

●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위한 기술집약적 첨단소재 산업 집적화

– 광양 제철~여수 국가산단으로 연결되는 기초소재 산업벨트 활용 미래형 소재산업 집약지 육성

● 소재·부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시장 개척 등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 (제품고부가가치화) 소재 간 연계, 융합기술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기업성장 견인

– (산업생태계 개선) 지역적 강점 극대화 및 소재-최종수요까지 가치사슬형성 강화

– (기술경쟁력 강화) 지역혁신자원 기술 역량 강화로 미래 산업 대응 기반 확보

- 화학소재와 해양자원을 연계한 해양바이오 화학신소재산업 및 고부가가치 바이오 패키징 산업 육성

  *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계 해양바이오시장 선점 전략 추진

  – 환경 오염원인 폐플라스틱의 고부가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화 사업을 통해 화학 신산업 창출

  – 수출입 식료·산업포장재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패키징 산업 육성

    • 교토의정서에 따른 탄소세 도입으로 기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석유기반 고분자는 경쟁력이 약화된 반면, 바이오 플라스틱은 시장경쟁력 증가추세

- 소재·부품 신제품 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위한 R&D 확보 및 기반 구축

  – 정부인증「소재·부품전문기업」육성을 위한 인력·금융·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소재기업 및 뿌리기업을 기반으로 정밀부품가공산업 구조 고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선도기업 지정 추진

  – 특화선도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술혁신, 사업화, 글로벌화, 규제특례, 홍보 등 전용 지원

산단 대개조를 통한 전남형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 정부는 COVID-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한국판 뉴딜10대 중점과제로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추진

  – 제조업 르네상스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산단 전략을 한국형 디지털-그린 뉴딜이 융합된 전략으로 확장 필요

그림 III-3-4
스마트그린산단 구축 추진전략



- 청년친화형 산단은 산업단지를 젊은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활력 있는 공간으로 재편

  – 정부 부처 협업을 통해 청년 창업과 취업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센터, 메이커스페이스, 기숙사·통근버스, 지식산업센터, 스마트공장 등 패키지 지원

* 조선산업이 집적된 대불국가산단은 청년친화형 산단 선정(2018.12) 및 9개 사업 추진(619억 원)
  - 2024년까지 청년 고용환경 개선 및 산단 인프라 구축(사업비 3,113억 원)
  - (추진 사업) 복합문화센터, 기숙사 임차료, 메이커스페이스, 에너지 테마파크 등

– 광양만권 노후 산단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근로·정주환경 개선, 기업혁신 인프라 확충,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 청년친화형 산단 전환 정책 필요

● 노후 산단 연계 ICT융합 제조업 혁신 기반 조성

– 2030년까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서 스마트산단 20개 조성 계획 발표(2019.6.19.)

– 노후화 산단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기반 산업단지 조성 필요
  -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는 개별기업의 스마트화와 발전단계인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넘어 심화단계인 디지털·그린이 융합된 혁신 산업단지

– 전라남도는 노후산업단지를 혁신산업단지로 바꾸는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 (대상) 영암 대불·삼호, 여수 국가산단·삼일자원 비축기지·오천, 광양, 순천 율촌산단 등

● 빅데이터, AI 연계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대

– ICT 융합 스마트 제조업 육성을 위한 공장 스마트화와 행·재정적 지원 및 R&D 공급체계 구축

– 스마트공장, 제조혁신센터, 디지털화 등 제조공정 혁신으로 AI기반 산업지능화 추진
  - 스마트공장에 사용되는 핵심 S/W, 로봇, 센서, 장비 등 스마트제조혁신 산업 육성

● 맞춤형 제품·서비스 설계 및 생산을 위한 수요예측 분석 기술 개발

– 빅데이터, IoT, 3D프린팅, 첨단로봇, AI 등 IT기술의 제조업 적용 기술
  - (홀로그램, CPS, 에너지절감, 3D 프린팅 등) 제조공정 가상화, 제조설비와 시스템 연동을 통환 생산공정 제어 및 에너지 절감기술
  - (스마트센터, IoT, 3D 프린팅 등) 제조공정 간 협업, 제조공장에서 소비자까지의 네트워크 연결 및 통합관리 기술 개발

● 3D 산단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산단으로 전환

– 창업·신산업 지원 및 미래형 신기술 시험을 위한 창업 공간과 오픈랩 조성

  * 여수 국가산업단지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사업 선정
  - 디지털 기반의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고효율·저오염 등 첨단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하는 국가 프로젝트

– 철강, 뿌리산업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주요 산단 사업장 대상 클린 팩토리 도입

●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 융합 및 고도화

* 디지털 트윈: 복잡한 장비, 생산 라인 같은 대규모 설비와 완전히 동일한 환경을 소프트웨어로 복제한 시뮬레이션 모델

– 가상 제조 환경과 실제 환경을 연결하는 스마트공장 운용 환경 구축
  - 모니터링과 센서 구축으로 불량률 감소 및 원가경쟁력 확보 가능

- 3D프린터 시제품 제작 지원, 협동 로봇으로 생산공정 체질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추진을 통한 서비스화
  – 중소 제조업체들은 물류관리 등 자동화 SW도입의 기초단계에 편중되어 있어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위한 제조과정 디지털화, 스마트팩토리 구축 필요
  – 스마트공장 생산이력 추적·관리 등 기초 단계의 스마트공장 수준을 고도화하여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그림 III-3-5
스마트공장 선도모델


지멘스 Amberg 공장


테슬라 Fremont 공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8.3), 스마트공장 정책 추진 현황

● 지역 산업단지 연계 제조 혁신 및 산단 고도화로 스마트 선순환체계 구축
  – 지역 주력산업 기반 스마트팩토리 테스트베드 구축 및 선도모델 필요

●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 SW 기반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교육 프로그램 도입
    - IT지식과 역량,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 공정 구조 이해, 설비 및 로봇 조작,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기술 등 교육
  – 특성화고, 대학 재학생 대상 스마트팩토리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스마트제조 분야 대학·대학원 과정 교육환경 조성, 현장 중심 커리큘럼 개발 운영, 산학 공동 인력양성 및 기업 애로기술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2021.6.23.), 제조 산업현장의 AI 기술 융합을 위해 추진하는 'AI 융합형 산업현장 기술인력 혁신역량 강화' 사업으로 미래차, 반도체, 조선 등 제조 산업 현장에서 2025년까지 인공지능 기술인력 1만2,750명 배출

    - 신산업 분야 시장 선점 경쟁 심화 및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현장인력에 대한 AI 융합 교육으로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
    - 산학융합지구(대불·여수·나주에너지밸리) 안정적 운영, 산학협력 선도대학(목포대 등 4개 대학), 기술사관 육성 지원(순천제일대-광양하이텍고) 등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으로 현장과 교육 간의 미스매치 해소

● 산단 내 기업 투자유치 여건 및 혁신환경 조성
  – 투자유치 활성화 여건 조성
    - 이전보조금, 세제감면 등 투자유치 인센티브 차등 지원, 보조금 우대지역 지정으로 첨단기술, 신산업 관련 업종 유치

- 신산업 R&D 및 설비투자, 주력산업 구조개편, 인적자원개발 세제 지원 강화
-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대상 산단 내 장기임대용지를 낮은 임대료로 제공
- 기업투자유치 및 신산업 입주 관련 제도 개선사항 지속적 발굴

– 지역맞춤형 정주 및 편의·복지시설 지원

- 근로자 기숙사·오피스텔, 행복주택,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등 정주시설 확대
- 문화센터, 공동어린이집, 체육관, 도시 숲 등 문화·복지·체육시설 확충

그림 III-3-6
창원 스마트업 파크 조성



그림 III-3-7
스마트산단 구성안



● 해상풍력 연계 상생일자리 RE100 전용 산단 조성

–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RE100 캠페인 등 탄소중립 선언

* RE100(Renewable Energy 100%):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원 전력으로 사용

– 2030년까지 신안군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전력수급 효율화 방안 마련

- 이를 위해 발전단지 인근 산업단지 조성으로 송전선로 비용절감 등 효과 극대화

– (추진계획) 전남형 상생일자리 연계 RE100 전용 국가산업단지 조성

- 해상풍력단지 생산전력(잉여전력 포함)을 100% 활용 특화산단 조성
- 주요 업종 : 풍력, 친환경 조선산업 등 제조업,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

  * 당진(~'23년, 46만㎡), 해남 솔라시도(~'25년, 165만㎡) 군산 새만금 등 RE100 전용 산단 조성 추진

그림 III-3-8
RE100 전용 산단 조성 계획도(안)



- 미래 신성장 특화산업단지 조성
  -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저감 등 대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환경·기후기술 산업 등 환경·해양 분야 미래신산업 생태계를 조성으로 지속가능 성장기반 확충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해 여수국가산단과 율촌산단을 동북아 물류·금융 및 미래산업 선도지역으로 조성
  - 율촌 제2, 3산단 조기 준공
    - 율촌 2산단(379만㎡): 수소산업 전용 산단 조성 및 집적화 등
    - 율촌 3산단(9.76㎢) : 해양신산업, 석유화합물 등 복합 산업물류 공간
  - 석유화학 R&D 신소재 후방산업 육성
    - 석유화학 후방산업(미래 첨단·스마트 소재 등) 및 첨단부품·소재 특화산업단지 조성
  - 수리조선 및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 조성
    - 태평양 지역 해운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각종 선박, LNG 운반선의 수리 역량 확보
    - 해양레저에 따른 해양레저장비 관련 제품 생산거점 조성
  - 수소산업 육성 및 공급망 구축

- 수소에너지 부품소재 특화단지, Zero 에너지 수소타운 조성, 수소공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 묘도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 구축 및 국제금융거래 기반 조성

- 동북아(한·중·일 등) LNG 거래소 설립, LNG 벙커링, 데이터센터, 금융·물류산업 구축

그림 III-3-9
율촌 제2·3 산단 조성 계획(안)



그림 III-3-10
묘도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 구축(안)



● 해상풍력발전 기자재 생산단지 집중 육성

–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를 해상풍력발전 기자재 생산단지로 집중 육성해 한국형뉴딜(그린뉴딜)의 선도지역으로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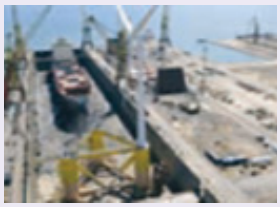
– 해상풍력 발전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요소 간 연계성이 높은 영암군 주력산업인 조선업 위축에 따른 돌파구 마련

- 해상풍력 소재(강판), 부품(하부기초, 타워), 서비스(운송설치, 유지보수) 등

– 기 구축된 산업인프라 활용으로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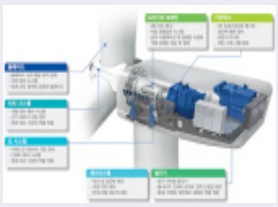
그림 III-3-11
해상풍력과 조선 산업 구성 요소 간 연계성

조선해양 관련 중공업



풍력발전기 상·하부 구조물 제작

기자재기업



터빈 발전기 부품조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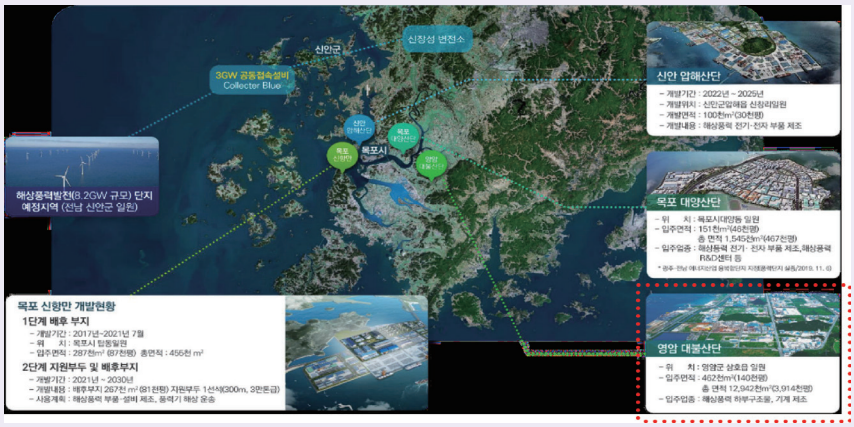
선박 건조·수리기업



(예인선, 관리선 등) 특수목적선 건조, O&M

– (협의체) '해상풍력발전 기자재 생산단지 추진협의체'구성
– (기업) 해상풍력기자재 생산 가능 시스템 구축
– (행정) 해상풍력발전단지 기자재 생산단지 지원체계 구축

그림 III-3-12
전라남도 해상풍력 산업육성 기업집적화 예정단지



제2절

에너지, 뉴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조성

1. 현황과 문제점

- 전 세계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 및 국가별 정책 지원에 따라 에너지신산업 시장 규모는 급증
  -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확대,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가속화 등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新패러다임으로 대두
  -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를 이끌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내 인프라 부족과 신재생에너지원 주민 수용성 문제 대두
  -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발전-누적)은 2019년 전국의 18.2%를 차지하며, 풍력은 22.1%로 2015년 16.0%에서 증가

표 III-3-3
세계 해양산업 부문별 전망
(단위 : kW, %)

구분		2015			2017			2019		
		전국	전라남도	비중	전국	전라남도	비중	전국	전라남도	비중
신재생에너지 총보급용량		13,729,225	3,069,987	22.4	15,702,861	3,028,523	19.3	23,171,433	4,206,049	18.2
재생에너지	풍력	852,584	136,819	16.0	1,143,359	207,719	18.2	1,493,819	329,644	22.1
신에너지	연료전지	171,309	15,461	9.0	250,511	15,485	6.2	469,148	25,503	5.4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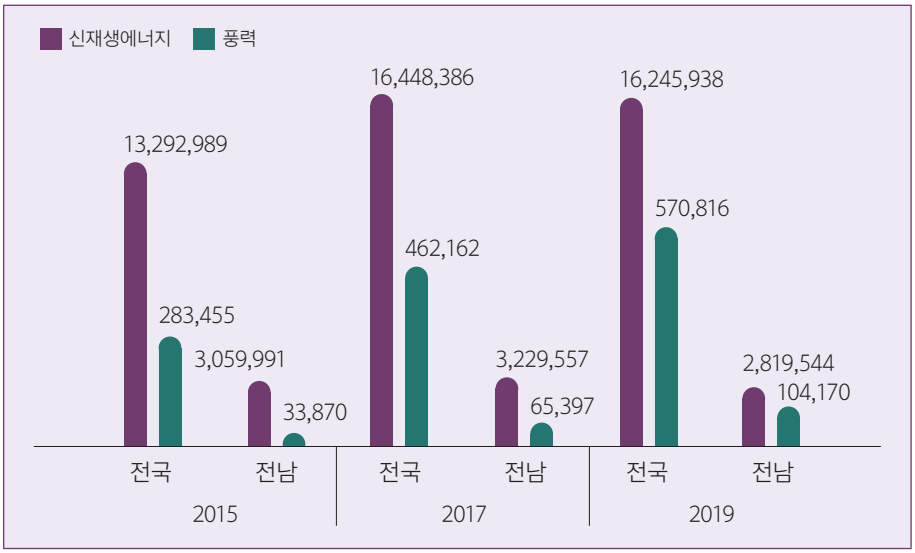
  - 전라남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은 전국에서 2015년 23.02%, 2017년 19.63%, 2019년 17.36%로 감소한 반면, 풍력 생산량 비중은 2015년 11.95%에서 2019년 18.25%로 증가 추세

표 III-3-4
세계 해양산업 부문별 전망
(단위 : toe, %)

구분		2015			2017			2019		
		전국	전라남도	비중	전국	전라남도	비중	전국	전라남도	비중
신재생에너지	합계	13,292,989	3,059,991	23.02	16,448,386	3,229,557	19.63	16,245,938	2,819,544	17.36
	재생에너지	13,061,531	3,044,508	23.31	15,861,222	3,206,710	20.22	15,539,093	2,781,118	17.90
	신에너지	231,458	15,483	6.69	587,164	22,847	3.89	706,845	38,426	5.44
재생에너지	풍력	283,455	33,870	11.95	462,162	65,397	14.15	570,816	104,170	18.25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그림 III-3-13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2019년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전국의 17.36%이며, 풍력 공급비중은 전국의 18.25%로 전남, 강원, 경북, 제주의 풍력 공급비중은 전국의 93.24%를 차지

표 III-3-5
2019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단위 : toe)

구분	에너지원별	전국	전남	강원	경북	제주
신재생에너지	합계	16,245,938	2,819,544	1,287,702	2,248,198	659,220
	재생에너지 합	15,539,093	2,781,118	1,287,500	2,245,387	659,220
	신에너지 합	706,845	38,426	202	2,811	-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100.00	17.36	7.93	13.84	4.06
재생에너지	풍력	570,816	104,170	146,027	164,884	117,163
풍력 공급비중(%)		100.00	18.25	25.58	28.89	20.53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전라남도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뒷받침할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의 최적지

–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해상풍력 잠재량 1위(12.4GW), 수소생산량(부생수소 생산 2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주에는 한전, 한전KDN, 전력거래소 및 에너지 관련 기업 집적화

– 탄소 다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등)이 지역 제조업 생산액의 90%를 차지하고, 국내 최대 석유화학 국가산단을 보유한 고탄소 위주 산업 구조의 제약요인도 상존

– 전라남도 풍력 에너지생산량은 2016년 49,980toe에서 2019년 104,170toe로 증가, 발전량은 2016년 236,615MWh에서 2019년 488,837MWh로 증가, 누적 보급용량은 2016년 186,719kW에서 2019년 329,644kW로 76.5% 증가

표 III-3-6
풍력 보급실적

구분	2016		2017		2018		2019	
	전국	전라남도	전국	전라남도	전국	전라남도	전국	전라남도
에너지생산량(toe)	355,340	49,980	462,162	65,397	525,188	75,172	570,816	104,170
발전량(MWh)	1,683,142	236,615	2,169,014	306,792	2,464,879	352,678	2,679,158	488,837
누적 보급용량(kW)	1,034,638	186,719	1,143,359	207,719	1,302,598	312,219	1,493,819	329,644
신규 보급용량(kW)	186,810	49,900	113,562	21,000	161,309	104,500	191,221	17,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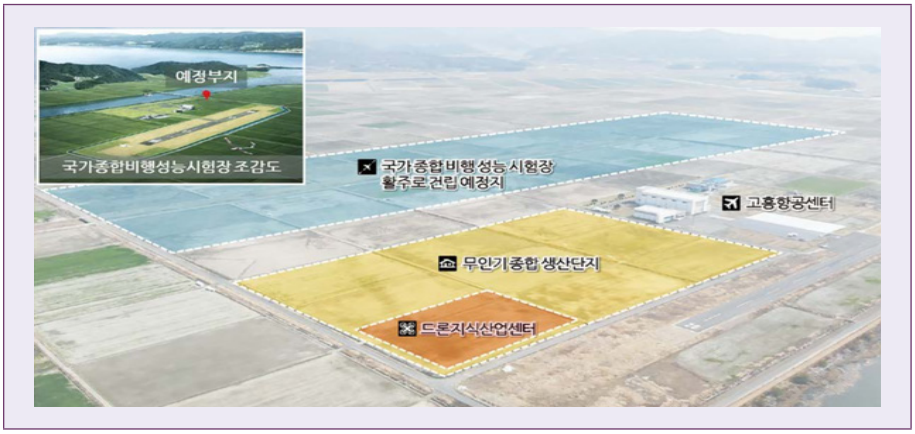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면서 군수용, 레저·산업용 중심에서 최근에는 드론택시·택배 등 미래 교통분야로 시장이 확대
  - 미래 교통수단의 상용화를 대비하여 자율비행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으로 미래 비행체 산업 선도
  - 국내 드론산업 시장은 현재 태동기로 군수용 중심에서 촬영·농업용 등 활용 분야 확대 중이며, 2019년 2.85천억원에서 2023년 5.63천억원으로 성장 전망
- 전라남도 드론(무인이동체) 산업 일반 현황과 발전 과정
  - (국내) 국내 무인기 생산액은 2,324억('18년), 수입액은 187억이며, 드론 생산업체는 185개사('18년)로 80% 이상이 종업원 10명 이하의 소규모·영세 업체
    - 회전익 드론 제조업체가 54.6%를 차지하고 있고, 기능별로는 부품업체가 39.2%, 소프트웨어(S/W) 개발 업체가 32.4%, 체계 분야가 28.4%로 조사됨
    - 대기업은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G CNS 등이 진입

    ※ 회전익 외 고정익(28%), 복합익(17%) 개발 업체가 있음
  - (전라남도) 전라남도의 드론산업은 고흥 나로우주센터 등 우주항공산업을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접근
  - 2015년 전라남도 지역전략산업 선정, 전남 무인기(드론) 발전전략('16년), 국가드론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전남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19) 수립
  - 2019년 블루이코노미의 6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미래형 운송기기를 선정하고 육성 추진
    - 고흥군에 국내 최대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15개 사업, 8,077억원 투자 계획
  - 고흥군을 드론산업의 하드웨어 개발 및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고, 나주시는 드론 개발과 관련한 디지털 및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을 위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드론산업지원센터를 운영
  - (고흥) 전국 최대 비행시험 공역과 국내 유일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창업 및 실증 거점인 드론특화 지식센터를 구축하고, 13만 5,000여㎡ 규모의 무인기 특화단지 조성 추진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은 유·무인기 항공기급 개발과 인증 시험을 위한 시설
- 무인기 특화단지는 무인항공기 R&D, 제조, 테스트, S/W, 항공정비(MRO) 등 무인기 특화업종 육성
- 드론 실증 관련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환경 개선 필요

그림 III-3-14
국가종합비행성능 시험장 조감도



출처: 고흥군 제공 AI타임스 기사 재인용('20.6.14)

– (나주)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용 드론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실증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산업용 드론 기체, 부품, 장비 등 시험과 검증 및 성능 개선을 위한 기업지원 기반 구축 추진

표 III-3-7
무인이동체의 종류

구분	항목	주요내용
육상	자율주행자동차	• 인위적 조작 없이 목표지점까지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무인 농기계	• 무인트랙터, 무인 제초·수확기 등 농업에 활용되는 무인이동체
	개인형 이동체 (PM, Personal Mobility Vehicle)	• 미래 개인맞춤형 이동수단 • 교통약자, 단거리 이동
	무인운반차 (AGV, Automated Guided Vehicle)	• 실내에서 물류, 공장 자동화 등에 활용
	기타	• 건설·임업·경비·군용 자율·작업차량 등
항공	군용 무인기(드론)	• 군사 정찰, 공격, 수송 등에 사용하는 무인항공기
	민수용 무인기(드론)	• 공중촬영, 농업용, 물품수송 등에 활용되는 무인항공기
	취미용 무인기(드론)	• 개인오락용, 인물촬영용 등에 활용되는 소형 무인항공기
해양	무인선박 (USV, Unmanned Surface Vehicle)	• 해양 감시정찰, 조사, 구난방제 및 군사용에 사용되는 무인선박
	수중 무인체(UUV*) * Unmanned Underwater Vehicle	• 견인줄로 위치조절, 전력공급, 통신 등 원격조정하는 잠수정(ROV*) * Remote Operated Vehicles
		• 무인자율잠수정(AUV*) *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s

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020),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계획

- 배출가스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강화, 소형차를 선호하는 도로·교통 인프라, 미래 교통·이동수단 분야로의 활용도 증가 등으로 e-모빌리티산업 성장
  - 한국자동차연구원 e-모빌리티연구센터,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 기업지원을 위한 기관들이 입지

- 자동차 중심 튜닝산업은 지역의 전후방 연관산업과 연계하여 튜닝산업과 기술적 기반을 공유하는 분야로의 다각화 고려 필요
  - 영암은 국제카트경기장, 자동차연구원(전남본부), 대불산학융합원 등 개인용 이동체 개발 기반 시설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성장가능성 내재
    - (국제카트경기장)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의 카트경기장을 활용해 신규 개발된 전동카트의 시험 운용 가능
    - (자동차연구원) e-모빌리티연구센터, 플라잉카연구센터 등 전동 기반의 개인용 운송체 연구개발 기반 보유

2. 여건 변화 및 전망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세계적인 에너지 전문 공과대학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
  -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 기업 및 연구소를 집적하여 에너지 분야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에너지밸리' 조성('15.1.~)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중점분야 : 에너지신소재, 에너지AI, 차세대 전력그리드, 수소, 기후환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현황

- (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
- (면적) 120만㎡(대학부지 40만㎡, 연구소·클러스터 부지 80만㎡)
- (사업기간/사업비) '19~'25, 8,289억 원(민자 100%)
- (정원/개교) : 1,000명(대학원 600, 학부 400) / '22년 3월

그림 III-3-15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및 조감도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조감도(안)

- 한전에너지공과대학과 함께 전라남도 미래 신산업을 이끌 랜드마크인 초강력 레이저센터 구축 추진

– 대형연구시설로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9천억원을 투입해 빛가람 혁신도시 인근에 50만㎡규모로 200페타와트(PW)초고출력·40킬로줄(kj)고에너지 기반 레이저시설을 결합한 다목적 복합연구시설을 갖출 예정

– 극한과학 연구와 입자가속 기능 활용으로 국가첨단기술 역량 향상을 통해 물리·화학·바이오 등 기초과학 연구, 실생활과 밀접한 응용분야 연구, 국가안보기술 개발 가능

– 국가기반산업인 반도체 기술 국산화, 우주물체 추적과 우주광통신(FSO) 등 기술개발, 광학결정 소재와 나노소재 등 첨단신소재 개발, 레이저센서를 적용한 사물인터넷(IoT)기술 발전, 3D바이오 프린팅 등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육성 등 활용 가능

● 전라남도는 블루에너지 분야 정책을 통해 정부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 실현 프로젝트를 추진

–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전략과 전남형 그린 뉴딜 정책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에너지 융복합 비즈니스 창출 및 미래 선도사업 발굴

–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그린수소, 이차전지, 초강력레이저 분야 등 육성

8.2GW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 (위치) 신안군 해상 일대
- (규모) 투자 48.5조원, 기업유치·육성 450개, 일자리 창출 117,506개
- (내용)
  ①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해상풍력기 1,025개/45.4조원/116,206개 일자리)
  ② 공동접속설비 구축(2.3조원/민간)
  ③ 풍력발전기 생산·조립단지 구축(100만㎡/6,000억원/1,300개 일자리)
  ④ 목포신항만 해상풍력 지원부두·배후단지 개발(2,180억원/해수부)

●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화원조선산업단지 등에 관련 산업 유치 및 배후단지 활용성 제고

– 해상풍력 구조물 건조 기능 강화 및 기자재 생산 여건 개선을 위한 물류 기지 확보와 생산 기반 구축으로 조선산업 분야 재도약 연계

● 2030년 에너지신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23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정부는 '30년까지 해상풍력 12GW 보급(3020 이행계획, '17.12, 해상풍력발전방안, '20.7)과 그린수소 확대 및 에너지시장 통합(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12) 발표

– 정부 혁신성장 전략투자 수소경제 선정('18.8.),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19.1.)

- '20. 9. 2. 산업통상자원부, 「RE100 이행 지원방안」 발표
- '20. 12. 15. 국무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확정
- '21. 4. 22. VIP,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추가 상향 선언

- 전국 최대 규모의 시범공역, R&D-시험평가-실증·인증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 등 최상의 드론산업 육성 인프라 보유
  - 시제품 개발, 시험평가 등 드론기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허브 구축(기술개발(기업), 시험평가(항공우주연구원), 통합인증(항공안전기술원), 기업지원(전남TP))
  - eVTOL 자율비행 핵심기술 및 비행안전성, 운용성 시험·평가 기술개발, 433MHz 기반 드론 운용 통신기술 개발 및 실증, 5G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확산, 미래비행체 고안전 핵심부품 상용화 기반 구축, 미래비행체 특화 생산단지 조성 및 앵커기업 유치
- e-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최상의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기업 지원 및 융합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보유
  - 모빌리티 연계 서비스, 물류·배달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초소형 전기차 실증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중 ⇒ 국내 신산업 확산 및 해외 수출 유도
  -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e-모빌리티 공정 고도화 기반 구축, 초소형 EV용 경량소재 바디 개발 및 실증, 스마트 미니셔틀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 '15.12. 전남 드론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
- '17.12. 정부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발표 및 국정과제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선정
- '19. 7.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에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 육성 포함

- 다양한 형태의 튜닝자동차, 농산어촌에서의 근거리 이동지원 카트 등 특수목적용과 소형이동수단의 개발 추진
  - (공공분야 맞춤형 이동수단화) 감염차단, 음압시설을 갖춘 앰뷸런스, 이동형 검사시설 및 입원 차량 등 공공분야 수요에 대응한 튜닝산업 활성화
  - (지능형 이동카트) 전라남도는 초고령화 지역이자 이동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으로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카트 개발 및 초기 상용화의 최적 수요지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 (위치) 영암군 삼호읍 일원(국제자동차경주장 인근)
- (사업비) 2,605억원(국비 1,324, 지방 814, 민자 467)
- (사업내용) 자동차 부품산업 및 튜닝인프라 구축, 연관기업 유치 등
- (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한국자동차연구원

3. 주요 정책과제

1) 기본목표

⬡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전남형 뉴딜 가속화

- 에너지, 바이오, 뉴모빌리티 인프라 기반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사회 대응
  - 전남지역이 지닌 잠재력과 청정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블루오션 기술을 찾아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창출
    - 최고 재생에너지 발전량(1,991GWh, 전국1위), 해상풍력 잠재량(12.4GW, 전국1위), 수소생산량(연간 554천톤, 전국2위) 보유

⬡ 산업과 기술의 융복합화, 고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글로벌산업 선도 지역으로 도약

- 2040년까지 전남형 뉴딜의 가속화 및 산업과 기술의 융복합, 고도화를 통해 편안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국제적인 산업 선도 지역으로 도약

2) 추진전략

- 2045년 미래예측 시나리오와 지역여건과의 부합성 강화

2045년 미래예측 시나리오

(1) 인간의 능동적인 삶을 지원하는 과학기술
- 암·치매 등 난치병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여 건강수명이 크게 증가
- 인공장기나 조직을 통해 노화된 신체를 회복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
- 가상현실로 오프라인만큼이나 현실감 있는 소통, 기계·동물과의 소통까지도 가능
- 기계와의 협업으로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며 여가, 소비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

(2)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학기술
-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고 전용도로가 도시 곳곳에 깔리며 교통사고나 체증이 급감
- 초고속 항공, 도시 간 하이퍼루프가 연결된 해저터널 개발로 전 세계 1일 생활권 실현
- 자체 우주발사체 엔진 개발을 통해 화성탐사에 성공하고, 자체 우주정거장도 완성

(3) 자연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과학기술
- 면적을 덜 차지하는 도심형 수직농장, 축산 없이 고기를 얻는 배양육 기술 등 상용화
- 탄소포집·활용,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국제협력을 통해 공유
-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며 기상기후를 조절하고 자연재해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전에 대비
- 신·변종 감염병의 등장에도 정확한 예측시스템과 신속한 백신개발로 관련피해 감소
- 플라스틱을 대체할 신물질 개발 및 폐플라스틱 에너지화 기술로 환경오염 완화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안)'

⬡ 도출방향

- 전라남도의 기존 산업육성 정책 반영
- 국토종합계획 등 정부 계획 및 국내·외의 신산업 관련 미래예측 참고
- 전라남도의 산업정책 및 당면과제와 정부 미래예측을 종합하여 추진전략 도출

(1) 추진전략 : 에너지

추진방향

- 미래상
  - 탄소배출 제로(Net zero)와 완전순환형 에너지가 구현되고 청정에너지의 동북아 공급 거점으로서의 전남 실현
- 추진전략
  - (글로벌 에너지) 세계 유일무이 에너지신산업 허브 조성
  - (스마트 에너지) 미래를 이끌 에너지 융복합산업 생태계 구축
  - (전남형 에너지) 해상풍력 등 바다와 함께 전남형 그린뉴딜 기반 확충
  - (깨끗한 에너지) 도민과 함께 전국 제일 에너지 자립 실현

주요내용

- 정부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
  - 분산전원 수급, 수소경제 실현, 이차전지 선도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차세대 미래 먹거리 창출
    - 전라남도는 전기적 에너지를 화학적으로 변환시켜 저장하는 이차전지 분야 산업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국비 194억원을 확보하여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핵심 기반산업지로 도약
    -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센터(나주시),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광양시) 구축
  - 에너지원과 4차 산업혁명 기술융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확산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 실현

표 III-3-8
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 기술융합 사례

<구글>		<제네럴 일렉트릭>		<제네럴 일렉트릭>	
온라인 맞춤형 태양광 서비스 : 프로젝트 선루프	주택 태양광 설비/가격/구매 정보 등 제공	IoT 소프트웨어 플랫폼 : 프레딕스	디지털트윈활용 발전소 운영 최적화 서비스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 : 파워월	태양광 연계, 전기차 충전, 모바일 앱 에너지관리

- (글로벌 에너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신산업 허브 조성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연계해 에너지 신소재, 신약 개발 등 모든 과학 분야 연구에 활용 가능한 대형연구시설 구축
    -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시장 선점과 국가 미래 전략산업 선도
  - 에너지·나노소재, 차세대 ESS소재 개발로 에너지기업의 新수출시장 개척
- (스마트 에너지) 미래를 이끌 에너지 융복합산업 생태계 구축
  - 에너지밸리가 차세대 에너지신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부족한 전력·에너지 분야 선제적 인력 양성체계 구축

-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개교('22.3.)됨에 따라 차세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글로벌 인재양성 기틀 마련
- 에너지 기업의 한전 의존적 전력시장 체제 탈피를 위한 전력기자재 업사이클링 R&D 및 산업화 지원
- 지역혁신성장 거점 구축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 등 지원 확대

● (전남형 에너지) 해상풍력 등 전남형 그린뉴딜 기반 확충
- 해양관련 에너지(해상풍력, 조류, 조력) 잠재량의 약 40%를 보유한 전라남도는 해양에너지 발전 및 관련 기술 실증의 적지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뒷받침할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신안군 일원) 개발로 '전남형 상생일자리' 기반 마련
- 해상풍력 조성·운영 全 주기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해상풍력 생태계 Supply Chain 구축(풍력발전기 생산·조립단지, 지원부두·배후부지), 송전선로 구축

● (깨끗한 에너지) 도민과 함께 전국 제일 청정에너지 기반 자립 실현
- 국민주주 해상풍력 GIGA 클러스터 구축
- 농가보급형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개발 및 주민참여 계획입지형 사업모델 연계
- 주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협동조합 및 SPC 추진(지자체+주민협동조합+지역민+금융사)으로 이익공유 성공모델 확보

⬡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 기반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허브로 도약
-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은 '에너지사이언스밸리'를 나주에 만들어, 에너지신산업 첨단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성공신화 창출

●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로 풍력산업 시장창출 및 「전남형 일자리」 기반 마련
- 민간투자 45.4조 원, 상시 일자리 4,000명 등 117,500명 일자리 창출

●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및 연구단지 유치를 통해 차세대 에너지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인적·물적 인프라 확보

● 한·중·일 전력 교차점으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의 시작점 역할 강화

● (2030년 목표) 에너지기업 660개 유치, 전남형 상생일자리 12만개 창출

(2) 추진전략 : 뉴모빌리티

⬡ 추진방향

● 미래상

– 지능화·그린 운송기기 개발 거점으로서 이동제한 없는 안전하고 맞춤화된 육해공 모빌리티 시스템이 구현되는 전남
  - (드론) 전라남도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활용한 특수용 지능화 드론 산업의 창출
  - (뉴모빌리티) 개인별 목적에 맞게 지능화 운용이 가능한 육해공 다목적 플라잉카 실증의 거점
  - (특수운반체) '인류 거주와 자원획득 공간의 확대'(테라포밍)를 위한 우주·저궤도 운송체 및 탐사체, 극지수송 및 해양거주 복합플랜트 개발의 거점
  - (튜닝산업) 산업활동 지원 자동차 튜닝·전동카트 미니클러스터 조성 및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주요내용

- 지역 주력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산업 분야별 특수드론 및 지능형 운송체 개발로 뉴모빌리티산업 거점 구축
- 우주 및 심해저 운송체의 개발 인프라 구축
- 미래형 운송체의 안전성과 안전사고로부터의 방어가 우선시되는 개발 추진
- 산업 목적별 맞춤형 튜닝과 카트 개발 거점 구축, 규제자유특구 지정
- 핵심 프로젝트
  – 전라남도의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산업의 특성에 기반한 육해공 다목적 드론 및 개인운송체 개발 생태계의 조성
  – 해양 진출 및 우주 산업의 최적지로서 해양·우주 운송체 개발 메가프로젝트 (J-워터월드 이니셔티브·J-스페이스 이니셔티브) 추진

구분	중단기(2020~2030년)	중장기(2030~2040년)
주요계획	• 블루이코노미(미래 운송기기 분야)	• 전남 뉴모빌리티 2040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추진전략	• 지역 모빌리티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 실증, 인력) •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 기반 및 산업 연관·비연관 융복합 가속화 • 전라남도의 사회·산업·자연적 특성을 반영한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화 • 초광역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자원, 시장, 제도)	
핵심 프로젝트	• 육해공 다목적 드론 및 개인운송체 개발 생태계의 조성 • 해양·우주 운송체 개발 메가프로젝트 (J-워터월드 이니셔티브·J-스페이스 이니셔티브) 추진	

기대효과

- 안전한 미래운송체 산업의 허브로서 주민의 이동제약·불평등이 없는 전남 구현
  – 안전을 최우선한 다목적 지능화 운송체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지역의 신산업 창출 및 주민의 이동 제약·불평등 제로 전남의 실현
- 미래 개척을 위한 첨단운송기기(뉴모빌리티) 개발 거점으로 도약

– 해양, 우주 등 미래 개척을 위한 운송체 개발의 거점지
–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융복합 신산업화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3) 핵심 프로젝트

(1) (에너지)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허브 조성

필요성

- 한국판 뉴딜(그린 뉴딜)의 지역주도사업 활성화
  – 신재생에너지 기술융합을 통한 전남형 그린 뉴딜 기반 확충
  – 차세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기틀 마련
- 에너지밸리 조성을 통한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 창출
  – 태양광,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원 다각화
  – 연관기업 집적,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개교 등 혁신생태계 구축 가시화
- 전라남도 권역별 에너지 특화발전 거점화
  – (중부권) 혁신도시 중심 랜드마크 시설 유치 및 에너지 기업 1천개 육성
  – (동부권) 광양만권 중심 수소 특화산단 조성 및 에너지 소재산업 육성
  – (서부권) 서남해안 중심 청정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자립섬 및 도민 발전소 확대

그림 III-3-16
허브 구상도



주요 사업내용

- 서남권 신재생에너지 거점 구축
  – 4차산업혁명 핵심분야인 에너지신산업 기반 혁신성장 가속화로 차세대 전력산업 메카 조성
  –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으로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체계 구축
  – 기술혁신형 기업 유치 및 단지 조성으로 에너지밸리의 차세대 에너지신산업 거점 도약을 지원

– 혁신도시 및 대양산단 등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기 활성화

-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중심 산학연 융복합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 연구단지 유치를 통해 차세대 에너지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인적·물적 인프라 확보(국가차원 랜드마크화)
  –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세계적인 에너지 전문 공과대학으로 육성,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선도
  – 전력·에너지 분야 선택과 집중으로 다양한 혁신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연계·집적하여 혁신적 가치창출 기반 마련

- 부생수소 생산량(전국 2위) 기반 친환경 수소경제 활성화
  – 그린 수소 생산 공급 개발 및 실증
  – 전라남도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의 삼각축 연계로 수소산업 인프라를 공유하고 생태계 조성을 통한 수소경제 선도
  – P2G 인프라 구축(1MW 태양광 연계 수소생산 인프라 구축,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실차테스트, 버스노선 등에 투입하여 차량 운영 실증)

- 도민 체감형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 5GW 태양광·풍력 도민발전소 건립
  –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로 그린 경제 전환 촉진(그린 경제 전환에 뒤쳐질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경쟁우위 상실 우려)

세부 추진과제

추진과제	주요 사업내용	예상 사업비 (사업기간)
해상풍력발전	• 글로벌 해상풍력발전 메카 조성	485,000억원('20-'30)
에너지연구소 설립	• 국립 해상풍력 에너지연구소 설립	660억원('22-'26)
클러스터 구축	• 그린수소 전주기 클러스터 구축	8,210억원('22-'31)
그린-허브스테이션 구축	•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연계 그린-허브스테이션 구축	8,120억원('22-'26)

- 글로벌 해상풍력발전 메카 조성
  –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전라남도 신안군 해상 일원에 단일 단지 세계 최대규모로 해상풍력 생태계 구축
    •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단계별 사업 추진

기반시설 구축 ('20~'30)	+	1단계 4.1GW ('20~'25)	→	2단계 2.1GW ('22~'27)	→	3단계 2GW ('24~'30)
• 송전선로 2.3조원 • 지원부두·배후단지 2,180억원 (해수부)		• 투자 21조원 • 일자리 창출 58,755개 • 기업 유치·육성 150개		• 투자12.7조원 • 일자리 창출 30,091개 • 기업 유치·육성 150개		• 투자12.3조원 • 일자리 창출 28,660개 • 기업 유치·육성 150개

- 부품·기자재 국산화 및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으로 국내 해상풍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조성

그림 III-3-17
해상풍력 발전단지



- 국립 해상풍력 에너지연구소 설립
  - (기간/위치) 2022 ~ 2026(5년) / 전라남도 도내 일원
  - (사업비/규모) 1,510억 원(국비) / 부지 15,000㎡, 건축 12,000㎡
  - (필 요 성) 대규모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등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소 설립 필요
  - (주요기능)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 해상풍력발전단지의 풍황 자원 측정, 그리드 연결 및 시스템 통합 연구, 해상풍력 주요 부품(터빈, 블레이드 등) 설계 및 연구 개발, 풍력시스템 테스트 베드를 활용한 해상풍력 기술개발 실증
- 그린수소 전주기 클러스터 구축
  - (기간/위치) 2023 ~ 2032(10년) / 전라남도 신안, 목포, 영암, 영광 일원
  - (필 요 성) 8.2GW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연계, 안정적 그린수소 생산·저장·유통 시스템 구축 최적지
  - (사업내용)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전주기 실증 클러스터 구축 및 전·후방 연관기업 육성 등
    - 그린수소 실증 인프라 구축(5,630억 원 / 국비 3,300)
    - 그린수소 실증 R&D 추진(1,880억 원 / 국비 1,290)
    - 그린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양성(700억 원 / 국비)
-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연계 그린-허브스테이션 구축
  - (기간/위치) 2022 ~ 2026(5년) / 전라남도 일원(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접속 예정지 5개소)
  - (필 요 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활용을 위해 필수 시설인 재생에너지 수용 기술적·물리적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그린 허브 스테이션 구축 및 운영
  • 그린-허브스테이션 입지 선정 및 상세 설계(120억 원/국비 60)
  • 그린-허브스테이션 구축(7,500억 원/국비 3,750)
  • 그린-허브스테이션 운영 및 평가(500억 원/국비 250)

(2) (에너지) 그린뉴딜 기반 에너지 혁신생태계 조성

필요성

– 전 세계적 탈탄소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가 대안으로 부각, 우리 정부도 글로벌 그린에너지 시대 선도 비전 제시 및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전라남도는 해상풍력 등 국내 최고 수준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보유, 그린수소 생산의 최적지로 여수국가산단의 탈탄소화 전환에도 기여
–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 비교우위 도서(섬) → 그린수소 생산기지화 및 수소 경제 선도

●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초광역(전남+광주)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 그린수소(재생에너지 기반), 블루수소(부생수소 기반) 시장 형성으로 체계적 대응
– 폐자원 활용 수소 제조기술 고도화 및 실증설비 구축(매립 및 소각되는 폐비닐 활용 전국 최초의 재생 수소생산 기술개발)

●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한국판 뉴딜 핵심과제 이행 선도
– 국책사업인 영암·해남 기업도시가 관광레저형의 한계로 추진 미약 → RE100, 에너지자립 등을 통해 활성화 기반 마련
–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시티 구현

주요 사업내용

● 지능형 에너지 전력망 구축
–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절감 등 에너지관리 효율화를 위한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산업 육성
– 저압직류(LVDC) 핵심기기 인증지원센터 구축, 지능형 저압직류 기술 개발,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 개발

● 그린수소 전주기형 R&D·실증 및 인프라 구축(블루 → 그린)
– 블루수소 생산 거점 기반조성, 그린수소 R&D 및 실증
– 그린수소 생산단지 구축, 수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수소 소비 전략 강화
  • 수소 제조 방식으로서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하는 수전해 수소(그린수소) 중심 수소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고성능 수전해 설비 필요
  • 수전해 : 전기화학반응을 이용해 수소와 산소를 생산하는 기술

- 공공ESS 생태계 구축
  -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대규모태양광, 풍력 등)가 집중된 전라남도의 기존 전력망 인프라 수용능력 부족으로 심각한 접속 지연(최소 6년 소요) 해소 및 계통 안정성 확보
  - 변전소 인근에 대규모 공공ESS 시범구축(500MWh 예상)
- 디지털 그리드 연구 및 실증 사업 추진
  - DigitalGrid 핵심제품·기술개발(라우터, 컨트롤러, 컨버터·인버터, 블록체인 등) 및 DigitalGrid 실증단지구축·실증(Cell, ESS, N/W망 등)
  - 신재생에너지 접속용량 문제 해소 및 향후 P2P 전력거래 시장 대비 안정적·효율적인 그리드간 연계기술(Digital Grid) 개발
-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 빅데이터 기반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발굴, 에너지분야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축적·분석·공유체계 확립
  - 데이터 축적을 통한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데이터 경제 활성화
  - 차세대 전력망의 핵심 분야인 에너지저장장치, 직류 송·배전, 디지털 전력기기, 에너지ICT융복합 산업과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신서비스 등 중점 육성

세부 추진과제

추진과제	주요 사업내용	예상 사업비(사업기간)
그린수소 에너지 섬	그린수소 에너지 섬(Energy Island) 조성	80,000억원('23-'32)
RE100 산업벨트	전남 RE100 산업벨트 조성	48,700억원('21-'30)

- 그린수소 에너지 섬(Energy Island) 조성
  - (서부권) 에너지 섬 개발
    - (기간/사업비) 2023 ~ 2032(10년)/ 3.5조원
    - (사업내용) 8.2GW 대규모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에너지 섬 구축
    - (주요시설) 수전해시설 2GW(100천㎡), 액화플랜트(150천㎡), 수소선박, 접안시설 등
    - 그린수소 9.1만톤/년 생산 후 수소 선박 및 배관을 통한 산단(RE100) 등 공급
  - (동부권) 에너지 섬 개발
    - (기간/사업비) 2023 ~ 2032(10년)/ 3.5조원
    - (사업내용) 2GW 대규모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에너지 섬 구축
    - (주요시설) 수전해시설 2GW(100천㎡), 액화플랜트(150천㎡), 수소선박, 접안시설 등
    - 그린수소 9만톤/년 생산 후 수소 배관을 통한 여수산단 공급
  - 여수산단 대규모 에너지 변환 시설(Power to X) 실증단지 구축
    - (기간/사업비) 2023 ~ 2032(10년) / 1조원
    - (사업내용) 그린수소를 이용하여 석유화학산업 대체

- 그린수소(18만톤/년) 이용 세계 최대 올레핀 합성 플랜트 구축(42만톤/년)
- 그린수소 이용 올레핀 1ton 생산 시, CO_2 1.89톤 감축 효과 가능

그림 III-3-18
에너지 섬 구상도



● 전남 RE100 산업벨트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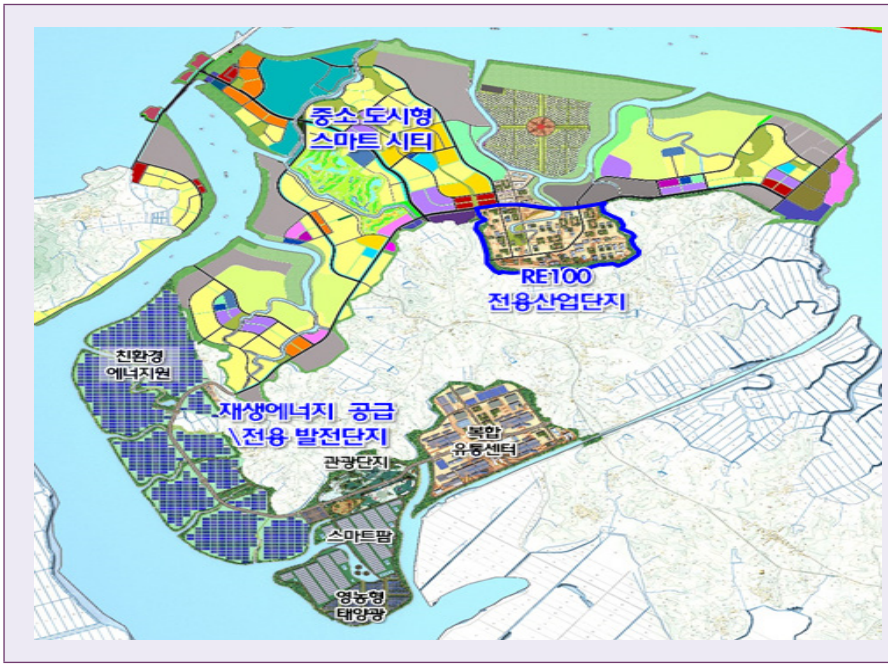
– 위　치 : 해남군 산이면(영암·해남 기업도시 구성지구 일원)

– 사업내용 : RE100 전용 국가시범 산업단지 + 재생에너지 공급 전용발전단지 구축 + 에너지·환경 중심 중소도시형 스마트시티

-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이익공유, 주민지원체계를 갖춘 스마트시티(RE100 도시)와 도시 형성의 기반이 되는 RE100 전용산단 및 발전단지 조성

– 사업주체 : 산업단지(LH 등), 발전단지(민간투자), 스마트시티(민관 합동 SPC)

그림 III-3-19
전남 RE100 산업벨트 위치도



– (RE100 전용 국가시범단지 조성) 기업도시 산업용지(50만평) 활용한 중앙정부 주도 국가산업단지(임대산단 포함) 개발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개발 및 실시계획 완료, 즉시 개발 가능
– (재생에너지 공급 전용 발전단지 조성) 인근 염해농지(430만평)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 주민소득 보장 '주민참여 발전소' 운영(주민참여 SPC 설립·운영)
– (RE100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에너지와 교통, 환경 중심의 관광·레저형 스마트시티 조성
  • 관광레저, 생태정원, 에너지자립 등을 추구하는 영암·해남 기업도시에 스마트 도시기반시설을 결합한 글로벌 관광레저 스마트시티 구축

(3) (뉴모빌리티) 육해공 다목적 드론 및 차세대운송체 개발 생태계 조성

필요성

- 지역적 특성에 따른 문제 해결에 이동체 활용 요구 증가
  – 농어업인구 감소, 해상사고, 중화학 산업재해, 도서 교통 미비, 응급의료 사각지대 등 전남 지역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드론 등 차세대 운송체 개발 시급
- 드론 및 개인용 지능형 운송체 시험 운용의 최적지
  – 전라남도는 육·해상의 복합적 지리 여건과 도서산간 및 광활한 농어업 지대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재해·자연재해를 자주 접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목적의 드론 시험 운용의 최적지

주요 사업내용

- 신산업인 드론 및 플라잉카 등 지능형 운송체 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
  – 다양한 종류의 산업용 드론 개발을 위한 소재, 부품, 장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클러스터의 구축으로 대규모 시험 운용 공간 마련
- 신규 모빌리티 개발에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 개발 및 차세대 통신시스템 개발
  – 전파·에너지 관련 지역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의 조선업체, 자동차업체의 네트워크와 기술을 활용하여 유·무인 운반체용 시스템 반도체 개발과 6G 시스템 선제 개발
- 시장 맞춤형 고성능 튜닝·전기차 부품개발 지원
  – 전기차 튜닝센터 조성, 친환경 차량 제작 및 실증, 기업지원, 개조전기차 주행 실증, 구조변경 차량 주행 실증

세부 추진과제

추진과제	주요 사업내용	예상 사업비(사업기간)
중대형 산업 드론 클러스터	• 무인항공기특화단지 고도화 • 무인항공기·개인용 지능형 운송체 교통 테스트베드 및 규제특구 구축 • 재난대응 및 구조용 공공서비스 드론 시스템 개발 및 재난대응 실증인프라 구축	7,000 억원('22-'35)
뉴모빌리티·에너지 반도체 클러스터	• 드론 등 차세대 육해공 모빌리티용 시스템 반도체 개발 미니클러스터 구축	2,000 억원('23-'30)
6G 통신시스템 개발	• 뉴모빌리티용 초정밀·초저지연 6G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10,000 억원('22-'35)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 자동차 부품산업 및 튜닝인프라 구축, 연관기업 유치	1,249 억원('20-'25)

● 중대형 산업 드론 클러스터

– 산업용 중대형 드론 중심의 무인항공기 특화단지 구축

– 육해공 다목적 운송체 개발을 위한 산악, 도서, 해상, 산업단지, 도시 등 다양한 환경의 실증 테스트베드의 구축

– 광주 AI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지능형 운송체 운용을 위한 클라우딩 인프라 및 관제 시스템 구축

– 새로운 형태의 운송체 시험과 운용을 위한 관련 법규제 마련

– 드론 및 개인용 운송체 설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요소기술군의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기반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확충

– 지역 주력산업 연계와 지역문제 해결형 특화 드론의 개발

• 조선산업과 연계한 해상 드론, 해양 관광용 운송체, 해저 탐사 및 구조용 로봇형 운송체의 개발

•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협력 농어업용 지능형 드론의 개발

• 전남북의 소재산업(마그네슘, 탄소)을 활용한 미래 운송체용 신소재 개발

– 미래형 운송체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로부터의 방어가 중심이 된 개발 추진

• 미래 운송체 개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첨단기술 개발을 우선하기 보다는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람과 도시에 타격을 주는 사고의 방지, 드론을 통한 전쟁·테러의 방어, 해상재난, 원전·장치산업 재해 관리 등 안전·방어·관제에 집중한 기술개발을 통해 전세계적인 미래 운송체 개발 경쟁에서 차별화된 발전 경로 모색

– 드론 기반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 개발, 지역기반 실증을 통한 안전신산업 창출

– 예상 사업비 : 7,000 억원, 예상 사업기간: 2022~2035년

● 모빌리티·에너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 차세대 드론, 지능형 개인운송체, 플라잉카에 적용되는 모빌리티 및 전력 시스템 반도체의 개발을 위한 산학연 미니클러스터 구축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나주), 한국전력 등 이전 공공기관,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관련 대기업 및 중소 설계업체 유치
– 중소설계업체 유치, 기술사업화를 위한 펀드 조성, 소규모 생산시설 구축
– 예상 사업비 : 2,000억원, 예상 사업기간: 2022~2030년

- 6G 통신시스템 개발
  – 드론 및 지능형 운송체 개발에 필수적인 초정밀 위치 탐색, 초저지연, 초저전력 6G 통신시스템과 관련된 요소기술 개발
  – 전파진흥원, 한국전력 등 지역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협력을 통한 6G 모빌리티 연구개발 센터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 무인항공기 특화단지, 산업단지 및 전남지역 주요 도시에 6G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 예상 사업비 : 10,000 억원, 예상 사업기간: 2022~2035년

-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 영암군 삼호읍 일원(국제자동차경주장 인근)에 자동차 부품산업 및 튜닝인프라 구축 및 연관기업 유치 추진
  –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미래형 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및 신규사업 발굴, 미래형 자동차 튜닝 규제자유특구 추진
  – 전기차 튜닝부품 고성능화와 지능형 튜닝부품 개발로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선도
  – 예상 사업비 : 1,249억원, 예상 사업기간 : 2020~2025년

(4) (뉴모빌리티) 해양·우주 운송체·거주시스템 개발 메가프로젝트 (J-워터월드/J-스페이스 이니셔티브)

필요성

- 지역 산업 기반과의 연계 활용을 통한 신산업화 가능성 대두
  – 국내 유일의 로켓발사 우주센터, 서남권 조선산업 및 철강, 화학, 에너지 산업과 연계하고,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을 융합하여 신성장 산업화가 가능한 영역
  – 전라남도 제조산업의 미래지향적 재생과 과학기술의 도약을 위한 대규모 산업기술 프로젝트 필요

- 현재 태동기에 있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의 국내 최적 입지
  – 해저, 우주 등 지금까지 미개척지였던 공간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원고갈 극복을 위한 대안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 스페이스X 등 민간기업도 진입 시작
  – 기존 제조산업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주요 입지에서 제외되어 왔던 전라남도는 그간 미개발되어온 광활한 육해상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 우주·해양 신산업 육성의 최적 입지로 부상

주요 사업내용

- 공항 인프라를 활용한 항공정비 산업화 및 고도화
  - 무안공항 국제화와 연계한 항공 유지·보수·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산업 기반의 구축과 고도화
- 우주·해양 운송체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민관협력 사업화
  - 운송체 첨단소재 생산과 해저도시 건설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세부 추진과제

추진과제	주요 사업내용	예상 사업비(사업기간)
MRO 및 소형위성체 중심 항공단지	• 무안 MRO단지 고도화 및 해외업체 유치 • 소형위성체 개발 산학연 미니클러스터 구축	5,000 억원('22-'30)
우주운송체 개발 인프라 구축	• 한국형 행성탐사·우주정거장 개발 시설 구축	20,000 억원('23-'40)
해상·해저 운송체 및 해저도시 연구인프라	• 심해저 운송체 및 해중/해저 터널 시스템 개발 • 심해저 도시 건설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 UN 등과 공동개발 국제컨소시엄 구성	15,000 억원('23-'40)
첨단소재 개발·생산 클러스터 조성	• 드론, 우주, 해양 뉴모빌리티용 첨단소재 개발 및 생산기반의 구축	10,000 억원('23-'40)

- MRO 및 소형위성체 중심 항공단지 조성
  -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의 가교적 위치를 활용한 항공기 MRO 단지의 고도화
  - 해외 MRO업체 및 국내외 항공정비 및 서비스 관련 대학의 유치
  - 차세대 통신망 구축 및 산업별 특화 (초)소형 위성 개발 산업화를 위한 미니 클러스터의 병행 구축
    - 위성 요소기술 및 부품, 시스템 개발 업체의 집적 단지
    - 국내외 관련 업체의 유치 및 기술창업을 위한 J-스페이스 펀드 구축
    - 요소기술, 시스템 실증 및 국제 인증 지원 센터 구축
  - 예상 사업비 : 5,000 억원, 예상 사업기간: 2022~2030년
- 우주운송체 개발 인프라 구축
  - 정부의 달탐사 계획 등 우주개발 계획의 구현을 위한 인프라를 나로우주센터 중심으로 확대
  - 달·화성탐사선, 우주정거장 개발, 무중력 과학기술 실험, 발사체 및 에너지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항공우주 센터의 구축
  - 우주운송체 관련 연구개발 중심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센터 유치
  - 대전(항공우주연구원, 위성개발업체), 경남(한국우주항공)과 초광역협력을 도모하고, 민관 및 중앙-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우주개발 협력체를 구축하여 메가프로젝트화

– 순천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과 연계한 특수복합소재 개발 산학협력 센터 구축
– 예상 사업비 : 20,000억원, 예상 사업기간: 2022~2040년

● 해상·해저 운송체 및 해저도시 연구센터(J-워터월드 이니셔티브)
– 해저 광물자원 발굴 및 식량자원 개발, 해저·해상 에너지 생산과 포집, 해중/해저 교통에 대한 잠재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해저 운송체의 개발
– 심해저 탐사, 운송, 작업이 가능한 운송체·로봇 및 요소기술 개발, 해양관광 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목포 해양미니클러스터의 구축
– 기차 및 자동차용 장거리 해중·해저 터널 기술의 개발
– 전남지역 조선산업, 목포해양대학교 등 산학 기반을 중심으로 해저 플랜트의 개발 및 지역 주력산업인 에너지, 수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비즈니스의 창출
– 기후변화와 해수면상승에 대비하고 장기 체류가 가능한 해상·해중·해저도시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 실험 인프라 및 연구센터의 구축
– UN 등 해양·기후·식량 연구 및 거주와 관련된 국제 기구들과 공동 개발컨소시엄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
※ 부산광역시 사례: UN해비타트의 해상도시(Floating city) 건설 계획과 협력 추진('21.8)
– 예상 사업비 : 15,000억원, 예상 사업기간: 2023~2040년

● 첨단소재 개발·생산 클러스터 조성
– 마그네슘, 탄성소재 등 향후 뉴모빌리티 및 우주·해양 복합거대 플랜트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량·복합·신소재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첨단소재 클러스터의 조성
– 마그네슘 소재 산업화 등 기존 사업의 대상을 첨단소재로 확대하여 추진
– 예상 사업비 : 10,000억원, 예상 사업기간: 2023~2040년

제3절

차세대 바이오 기술 기반 글로벌 허브 구축

1. 현황과 문제점

-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10.11.지정)를 중심으로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등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해 바이오의약·메디컬 산업의 집적화와 산업 전주기적 지원 인프라 구축
  -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사업」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선정되어 정책적 추진 기반 확보
  - 이의 실현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국립심뇌혈관센터 유치, 전라남도 내 의대 신설 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 필요

- 바이오산업 일반 현황
  - (전국) 국내 바이오 중소·벤처 기업은 휴업기업을 포함하여 2,496개
    - 1992년 이후 총 3,116개가 창업하여 2,496개가 생존(620개 폐업)
    - (레드바이오) 의약품과 진단의료기기 분야에 770개 분포(전체 대비 31%)
    - (그린바이오) 농업과 식품 분야에 734개 업체 활동(31%)
    - (화이트바이오) 화학·환경·에너지 분야에는 499개 분포(20%)
    - (플랫폼바이오) 기타 연구개발 지원 서비스 등에 493개의 업체 분포(20%)
  - (전남) 전라남도는 그린바이오 분야의 업체를 중심으로 86개 업체가 활동(전체 대비 3.5%)하고 있으며, 생산 중심의 제약사나 벤처기업의 활동은 미비한 상황

표 III-3-9
전라남도 바이오 중소·벤처 기업 현황 (2019)

구분		의약품 (레드)	진단·기기 (레드)	농업 (그린)	식품 (그린)	화학 (화이트)	에너지·환경 (화이트)	지원서비스 (플랫폼)	기타 (플랫폼)	합계
전남	수	11	1	22	31	11	3	4	3	86
	비율	2.1%	0.4%	10.0%	6.0%	2.8%	2.7%	1.35	1.75	3.5%
전국		521	249	221	513	386	113	314	179	2,496

출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외 2인(2021), 2019년 국내 바이오 중소·벤처기업 현황통계 활용 정리

  - 산업분류상 보다 광의의 의미에서 바이오기술을 적용하여, 의약품 제조와 기능성 식품 외 일반 식품 및 화장품 제조업 등을 포함할 경우 전라남도의 바이오산업 사업체 수는 약 8천개로 추정

표 III-3-10
전라남도 바이오 중소·벤처 기업 현황 (2019)

중분류업종	집적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국대비 비중	
			사업체 기준	종사자 기준
바이오의약품	76	939	2.1%	0.9%
바이오식품	1,620	6,201	7.3%	5.5%
화장품	75	445	2.0%	1.1%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2019년 기준) 활용 정리

-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특화자원 기반은 풍부하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기반 취약
  - 전국 기준, 해조류 생산량의 80% 이상, 농작물 생산량 19.4%, 약용식물 생산량 20.5%를 점유하고 있으며, 122개의 비교우위 특산생물자원 등 특화·대표 작물 다수 보유
  - 그러나, 산업체의 영세성(전남 바이오분야 10인 미만 기업 87%) 등으로 인해 고부가·고수익 제품 생산이 미흡하고 대부분 원물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부가가치 창출력이 취약
  -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의약·소재산업의 연구개발, 상업화 실증, 첨단제조 기반은 매우 취약
  - 전라남도 내 연구중심 병원이 부재해 연구 성과와 임상을 연결하는 사업화 기반 취약

- 전라남도 바이오산업은 지역별 소규모 거점(클러스터) 구축 형태로 발전
  -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은 2001년 전라남도 바이오기술 육성 정책 수립, 이에 따른 2002년 전라남도 생물산업육성조례 제정과 전남생물산업진흥원(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의 설립으로 시작
  - 이후 전라남도 각 시군별 특화 바이오자원과 산업 기반을 근거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산하 8개 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클러스터로 발전 중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에 더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미생물실증지원센터(화순군), 면역치료혁신플랫폼(화순군), 국립심혈관센터(장성군) 등 정부 연구개발과 의료기관의 유치를 통해 바이오 메디컬 분야 중심으로 혁신기반 강화 중

그림 III-3-20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현황



출처: 전남생물산업진흥원(2019), 「전남 생물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 현재 블루바이오 비전, 육해상 천연물 자원의 산업화 기반 구축,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 의대 신설,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추진 등을 통해 전라남도 바이오산업의 혁신생태계 확장 추진

– (블루바이오) 2019년 블루이코노미의 6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바이오메디컬을 선정하고 바이오 의약·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 선언

– (화순백신특구) 국내 유일의 백신특구를 중심으로 국가 면역치료 허브로 도약을 위해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유치하고 면역치료혁신플랫폼 등 바이오의약 분야 인프라를 확대하여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로 육성 추진 중

– (천연물자원) 장흥의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한국한의약진흥원 비임상시험센터, 원광대 통합의료병원 등의 인프라와 전국 최대의 천연물자원 보유 지역으로서의 자원 기반을 활용하여 천연물산업 글로벌 거점 구축 추진

※ 전라남도, 천연물산업 발전 비전 선포, '21.7.26

– (해양치유) 갯벌, 해양생물, 염지하수 등 전라남도 해안의 풍부한 바이오자원을 활용하여 국내 유일의 해양치유센터(완도군) 건립 중

– (국가심뇌혈관센터) 장성군에 심뇌혈관 임상치료와 연구의 국가적 거점 기능을 담당할 국가심뇌혈관센터의 건립 추진

※ '21년 국가심뇌혈관센터 실시설계비 43억7천만원 반영

표 III-3-11
전라남도 백신산업특구 내 인프라 현황

기관명	기능·역할	비고
생물의약연구센터	임상시험 시료 생산(CMO)[6], 창업보육	CMO
국가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국제규격(cGMP)[7] 백신 위탁생산(CMO)	CMO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구축 중)	백신 임상분석 및 품질관리 등 제품화 지원 (식약처)	인허가
면역세포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 중)	세포치료제 생산 필수설비, 기술지원 (전라남도)	생산 설비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중)	암, 치매 등 희귀난치병 면역치료제 개발 국가 컨트롤타워 (과기부)	전주기
한국화합융합시험연구원(KTR)	의약·의료기기 전임상, 국제인증 지원	전임상
질환동물 기반 세포치료제 효능평가시스템 (구축 중)	첨단의약(면역세포, 줄기세포) 개발 및 상용화, 효능평가 및 독성평가 지원	전임상
전남대 의생명과학융합센터, 의과대학교	의료·의약 기초연구(R&D) 및 교육	R&D

자료: 전남도청 제공 자료 기반 수정

- 공공기관 중심 소규모 클러스터로 분산된 바이오산업 혁신 자원의 전략적 연결과 고도화, 민간의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거버넌스(innovation system) 취약

  – (공공 의존성) 도내 바이오기술 기반 클러스터는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의 소규모 특화 센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주변에 기술과 규모를 갖춘 민간기업은 부족해 산학연 협력 기반의 혁신클러스터로서 자생 발전 가능한 임계치(critical mass)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

6) CMO :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s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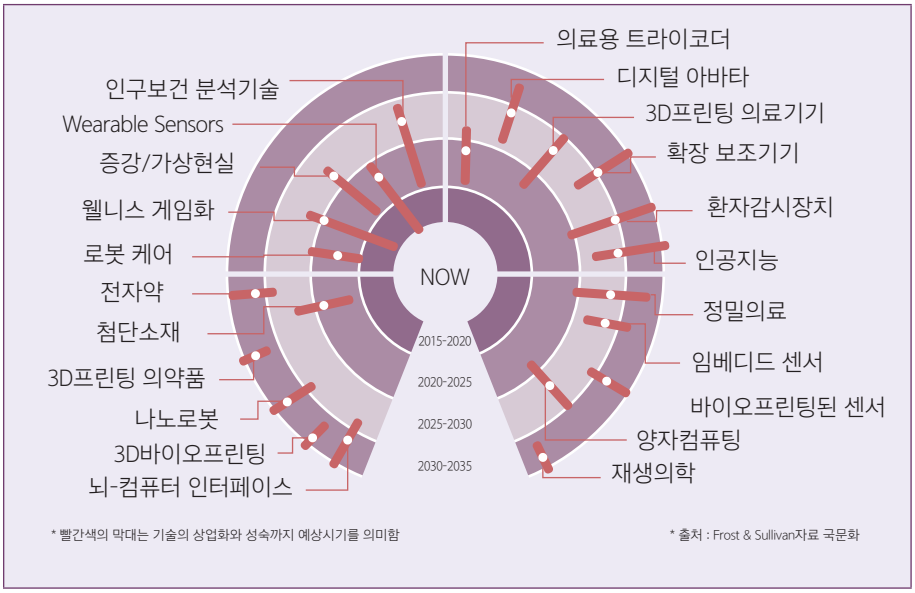
7) cGMP :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지역 분산) 전라남도의 지리적 특성상 화순, 장흥, 나주, 순천, 목포 등으로 기관, 대학 등 바이오 혁신기반이 분산되어 있어 이들의 차별적 역량 고도화와 전략적 연결을 위한 거버넌스 취약

2. 여건 변화 및 전망

- 인구 고령화 시대 '건강한 노령(웰에이징, well aging)'에 대한 열망과 '치료에서 예방(Cure to prevention)'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은 바이오·헬스분야 시장의 급성장 견인
  – 치료에서 예방으로, 예방에서 예보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산업 경계가 확장되고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신산업 창출 가속화
  – COVID-19로 AI·IoT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산업 및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의 성장 본격화
  – 특히 건강한 노령과 치료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은 산업기술 측면에서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디지털기술)과 전통적인 바이오의료 물질·기술·서비스의 융복합을 통한 혁신제품과 신산업의 창출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그림 III-3-21
2035년까지의 바이오헬스 미래기술 실현 전망



출처: 한국과학기술원(2020), 「오송바이오밸리 글로벌 혁신허브 육성전략 연구」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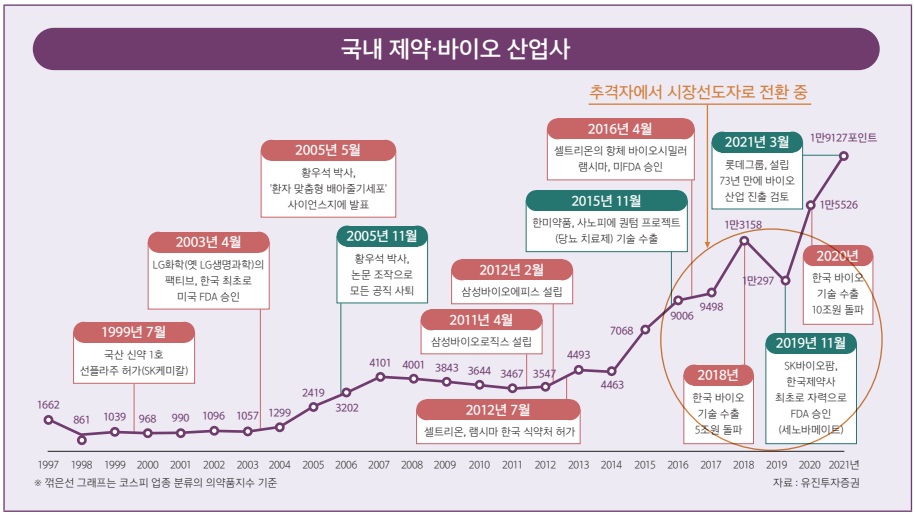
- 국내 바이오산업은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시장 선도자(First mover)'로 전환을 위한 정책적·산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선도자형 바이오기업의 지역 유치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혁신활동 지원 기반 강화 필요
  – 국내 바이오기업의 2세대 바이오시밀러 세계시장 창출 주도, 국산신약 개발의

지속, 글로벌신약 후보물질의 수출 증가로 내수시장 중심형 추격자에서 글로벌 시장 지향형 선도자로 전환 중

– 분자진단키트와 백신의 생산역량은 COVID-19의 장기화 속 국내 바이오기업의 전환 가속화를 견인함

– (혁신활동 필요성 증가) 대부분 내수용 복제의약품과 천연물 기능성식품 중심으로 성장해온 전라남도 바이오산업은 생산과 연구개발 기반의 고도화와 글로벌 수준의 혁신활동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

그림 III-3-22
국내 바이오산업의 퍼스트무버로 전환



출처: 이코노미조선('21.4.6)기사로부터 유진투자증권 자료의 재인용 및 수정

- 정부는 최근 바이오헬스 미래 신산업 육성전략, 바이오헬스 7대 강국 진입 보건산업종합발전전략, 글로벌 백신허브 육성 등 다양한 산업육성 전략과 계획을 발표하여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 추진

  – 최근 바이오산업 혁신전략('19.5.)과 바이오산업 혁신정책방향·핵심과제('20.1.)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역량집중

  – 특히, 전라남도 바이오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백신 분야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5년까지 백신 생산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발표

- '17.9.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3차 생명공학기본계획('17~'26)」발표
- '19.5.22. 범부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발표
- '20.1.15. 범부처, 바이오산업 5대 전략 및 10대 정책방향 발표
- '21.8.5. 보건복지부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발표

- 전라남도는 청정 자연환경과 국내 최고의 생물다양성을 기반으로 'COVID-19 시대(감염병 일상화 및 바이오안보 시대)'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회 포착

  – COVID-19로 인해 디지털 비대면 활동의 일상화와 더불어, 저밀도 대면 힐링이 가능한 국내 체류형 여행과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정 자연환경과 먹거리,

저밀도 인구 구조를 가진 전라남도는 지역 자원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COVID-19 이후에도 기후변화 지속으로 인한 신종 감염병 발생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크며, 천연두 등 생화학테러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청정자연환경을 활용한 면역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성장 잠재력 보유

● 바이오헬스 기술플랫폼의 다원화와 혁신지역의 다극화는 전라남도에 새로운 기술적 도전이자 산업 선도지역으로 추월의 기회

- 미국·유럽에서 바이오 혁신제품 개발의 생산성 저하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의 기술수준 향상은 보다 저비용으로 혁신제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는 지역으로 글로벌 투자를 다원화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
- 동시에, 바이오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기술의 결합은 기존 합성의약품 중심의 기반기술(기술플랫폼)과 제품개발 방식을 다원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대기업 외에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에도 새로운 기회로 작용(신규 모달리티의 증가)
- (지역의 기회) 지금까지 대기업 유치가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의 주요 경로였던 반면, 기술플랫폼이 다원화되는 앞으로의 20년은 기술 기반의 바이오벤처와 소량맞춤 생산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내생적 육성을 통한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시대가 될 수 있음

그림 III-3-23
신약개발의 기술플랫폼 다양화



출처: 한국과학기술원(2020), 「오송바이오밸리 글로벌 혁신허브 육성전략 연구」에서 재인용

● 발견·추출 중심의 전통적 바이오기술에서 목적하는 생체물질을 맞춤으로 '인공제조'하는 '합성·시스템 바이오' 시대로 기술패러다임의 전환은 전라남도의 의료, 농어업, 화학 산업에 거대한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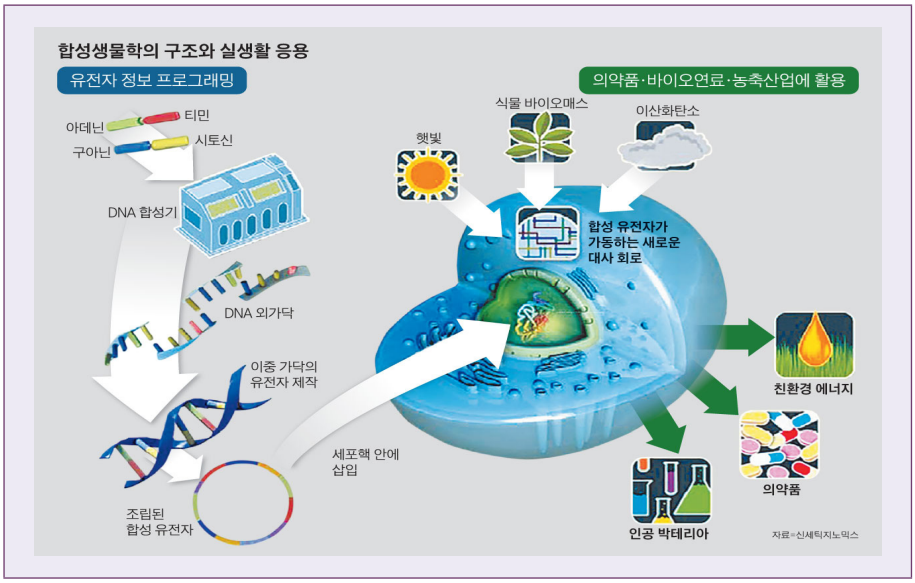
- 합성·시스템 바이오 시대, 즉 바이오기술이 '과학'에서 '공학'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국면에 진입 중
- 현재는 COVID-19 백신 원료 생산과 같은 의약품 생산,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개발,

환경오염 정화, 대체육 같은 특정 분야로 영향력이 한정될 수 있음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전라남도의 주력·육성 산업인 바이오메디컬(레드바이오), 천연물·농수축산 기반 그린바이오,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고도화와 관련된 화이트 바이오 등에 전면적이며 구조전환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따라서 전라남도의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술 변화에 따른 지역 주력 산업들의 구조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적·산업적·사회적 측면의 중장기적 전략 마련과 실행계획 필요

그림 III-3-24
합성 생물학 응용 사례



출처: 조선 위클리비즈('19.10.11), 「극한에도 견디는 미생물 접착제 개발」

3. 주요 정책과제

1) 기본목표

⬡ 도민과 국민, 지구사회를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바이오·헬스 융복합 신경제 구축

● 2040년까지 전라남도의 특화자원과 자연환경, D,N.A 기반 첨단 보건의료 서비스와 기술을 융복합, 초고령화시대 지속가능한 생태친화적 보건의료 신경제 모델의 구축

– 전라남도만의 고유한 특화자원과 청정 자연환경을 첨단 바이오기술 및 보건의료 이용체계와 연계·융복합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혁신적인 바이오헬스 신경제 모델 구현

– 초고령화시대 지식·기술기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웰에이징 서비스 유토피아 지역의 구현

• D.N.A: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차세대 바이오기술의 선도를 통한 K-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신거점 조성

- 국가적 육성 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균형발전 축으로서 합성·시스템 바이오 등 차세대 바이오기술과 디지털(D.N.A) 기술의 융복합 신산업화를 위한 글로벌 혁신거점 구축
  - 수도권·중부권에 편중된 바이오헬스 혁신거점의 권역별 분산적 다원화를 통해 칸막이화된 기존 거점의 조직적 진부화를 극복하고 신기술과 융복합 산업화 활동이 자유로운 개방형 혁신거점의 조성
  - 차세대 바이오기술과 이의 산업적 시험을 촉진하기 위한 네거티브형 자율규제 혁신거점으로 조성

2) 추진전략

2045년 미래예측과 지역여건 부합성

2045년 미래예측 시나리오

(1) 인간의 능동적인 삶을 지원하는 과학기술
- 암·치매 등 난치병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여 건강수명이 크게 증가
- 인공장기나 조직을 통해 노화된 신체를 회복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
- 가상현실로 오프라인만큼이나 현실감 있는 소통, 기계·동물과의 소통까지도 가능
- 기계와의 협업으로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며 여가, 소비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

(2)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학기술
-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고 전용도로가 도시 곳곳에 깔리며 교통사고나 체증이 급감
- 초고속 항공, 도시 간 하이퍼루프가 연결된 해저터널 개발로 전 세계 1일 생활권 실현
- 자체 우주발사체 엔진 개발을 통해 화성탐사에 성공하고, 자체 우주정거장도 완성

(3) 자연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과학기술
- 면적을 덜 차지하는 도심형 수직농장, 축산 없이 고기를 얻는 배양육 기술 등 상용화
- 탄소포집·활용,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국제협력을 통해 공유
-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며 기상기후를 조절하고 자연재해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전에 대비
- 신·변종 감염병의 등장에도 정확한 예측시스템과 신속한 백신개발로 관련피해 감소
- 플라스틱을 대체할 신물질 개발 및 폐플라스틱 에너지화 기술로 환경오염 완화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안)', * 바이오헬스 관련 기술에 밑줄

도출방향

- 전라남도의 기존 산업육성 정책 반영
- 국토종합계획 등 정부 계획 및 국내·외의 신산업 관련 미래예측 참고
- 전라남도의 산업정책 및 당면과제와 정부 미래예측 종합하여 추진전략 도출

추진방향

- 미래상 (2040년 목표)

– (첨단 맞춤치유 동아시아 허브) 초고령화 시대 첨단의료 기반 무병장수 전라남도의 실현과 체류형 저밀도 대면 치유 서비스의 동아시아 거점 도약
  • 풍부한 육·해상 천연물 의료·식품 자원, 백신특구를 중심으로 한 의약연구 인프라, 디지털기술을 연계한 예방·맞춤·재생 중심 의료 융합산업의 국제 허브
– (자연모사 기반 융복합 신경제) 제로플라스틱 등 산업·생활용품의 청정소재화와 자연모사 기술의 혁신 주도를 통한 전라남도 바이오 융복합 신경제 구현
  • 합성·시스템 바이오와 자연모사형 기술의 동북아시아 개방형 혁신거점으로 '바이오 융복합 신경제'를 선도적으로 창출하는 '퍼스트무버'로 퀀텀점프 (전환적 도약)

● 추진전략
– (글로벌 바이오) 국제적 표준·윤리에 부합하고 연구개발과 산업화 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혁신지역 조성
– (선도적 바이오) 기존 방식을 벗어난 차세대, 와해적 바이오기술에 대한 개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 (전남형 바이오) 전라남도의 자연지리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세계 공통의 문제에 적극 호응
– (공정한 바이오) 사회경제적·의료적 취약계층에 차별없는 공정한 혁신활동

⬡ 주요내용

● 뛰어난 육·해상의 생태 자원, 연계되지 못한 화순·광주의 의료인프라,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중심지 등 미활용 자원의 재발굴과 연결의 극대화를 통한 거주형 국제적 치유 벨트
– 지역소멸 위험을 극복하고 인구증가를 견인할 수 있는 서비스 주도형 의료복지산업 육성

● 자연모사 및 합성·시스템 바이오 연구개발의 인프라를 확보하고, 바이오기술과 지역 주력산업의 융복합 협력을 통한 산업고도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의 창출
– 풍부한 육·해상 천연 자원과 바이오공학 기술을 활용한 화학·소재·폐기물 산업의 순환경제 기반 산업으로의 전환

● 핵심 프로젝트
– 지역에 산재한 인프라·인력·기술·자연 자원을 연계·융복합한 국제적 수준의 네트워크형 첨단치유 수퍼클러스터 조성 (J-라이프케어벨트)
– 의료바이오와 산업바이오의 차세대 원천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시스템·인공합성 바이오와 디지털융합 분야의 국제적 연구·개발사업화 거점 조성 (J-바이오 컨버전스 허브)

구분	중단기(2020~2030년)	중장기(2030~2040년)
주요계획	• 블루이코노미(바이오분야)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한국판뉴딜(중앙, 지역)	• 전남 바이오경제 2040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추진전략	• 지역 자력 연구개발 기반 확충 (인프라, 데이터, 인력) • 지역 산업 연관·비연관 융복합 가속화 • 지역기업·출향 국내외 기업인 참여, 민관협력 및 기업간 협력 강화 • 전라남도의 바이오기술·의료·복지·자연 특성을 복합한 소프트파워 구축 • 초광역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자원, 시장, 제도)	
핵심 프로젝트	• 첨단치유 수퍼클러스터 조성: J-라이프케어벨트 • 시스템·인공합성 바이오 융복합 허브 조성: J-바이오컨버전스 허브	

기대효과

- 수요자 및 서비스혁신 중심 첨단의료 신산업 육성
  - 충북오송,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판교 등 개발자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 등과 차별화된 전라남도의 자원 활용을 극대화한 의료서비스 혁신 중심 신산업 육성
  - 청정자연, 첨단기술, 최고의 의료기술, 천연물식품 등을 서비스 측면에서 융복합화한 최종 수요자 관점의 예방·맞춤·재생·재활 중심 동아시아 치료·치유의 허브로 도약
-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의 대규모 창출
  - 기술과 노동, 양면 집약적인 첨단의료·복지 서비스에 기반한 신산업 창출로 청년층의 지속가능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 지역 주력산업 및 지역자원과 바이오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틈새 신산업의 발굴과 일자리 창출
- 인구가 늘어나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청정 전남으로 재생
  - 안전하고 생활하기 편한 의료복지 스마트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은퇴자가 정착하고 맞벌이 부부가 육아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3) 핵심 프로젝트

(1) (바이오) 첨단치유 수퍼클러스터 조성 (J-라이프케어벨트)

필요성

- (메디컬) 초고령사회 무병장수 실현과 저밀도 대면 치유의 국제적 거점
  - 풍부한 육상·해양 천연물, 백신을 중심으로 한 의약연구 인프라, 광주의 디지털기술(AI)
- 제로플라스틱 등 산업·생활용품의 청정소재화와 전라남도 바이오 융복합 신경제 구현
  - 풍부한 육·해상 자원과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화학·소재·폐기물 산업의 순환경제 기반

주요 사업내용

- 의료서비스 주도 혁신생태계 조성
  - 수요자에 대한 의료·휴양 서비스 혁신과 이의 지원을 위한 바이오·헬스케어 요소기술, 제품 및 시스템 개발 생태계의 조성
    - (연관융복합) 1, 2, 3차 의료기관 협력, 양·한방 협진 및 요양원 연계, 유전체 기반 첨단의료 융복합을 통한 질병 전주기 통합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
    - (비연관융복합) 관광, 농수산식품, 무안공항, 뉴모빌리티, 빈집 활용 등 지역의 강점과 지역 문제를 조합적으로 연계하여 전라남도만의 차별적인 치료·요양 서비스의 개발
- 국제 수준 임상·연구 기반 확보
  - 도내 종합병원과 임상개발 인프라의 확충과 의료·안전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 연구의사(MD-PhD), 임상개발 전문가, 의료빅데이터 분석가 등 분야별 인력양성 체계의 구축
  - 지역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주력산업 관련 의료서비스·기술의 공동개발
- 전라남도 헬스케어 브랜드화
  - 첨단의료·커뮤니티·청정자연 기반 거주형 통합의료서비스 신산업의 국제적 브랜드화

세부 추진과제

추진과제	주요 사업내용	예상 사업비(사업기간)
병원 신설	• 동서부 종합병원 및 질환특화병원 설립	6,000억원('23-'32)
의대 신설	• 국제보건 의대 및 국제보건인력교육센터 설립	3,000억원('23-'30)
입자치료 인프라 구축	• 서남권 입자치료(양성자,중이온, 중입자) 인프라 구축	10,000억원('23-'30)
디지털트윈·메타버스 활용 통합의료시스템	• 온·오프 의료데이터 통합 24시간 건강관리 아바타 구축	2,000억원('23-'30)
헬스케어 문샷프로젝트	• 전남형 중장기 헬스케어 연구개발 프로그램 : 뇌-기계 연결/치료백신/해양·극지의학 • 초광역 임상개발 병원연합 체계 구축	3,000억원('23-'35)
국제규제기구 유치 및 규제자유 전략지역 조성	• 미국 FDA, EU EMA 등 규제기관 사무소 유치 • 신속임상개발 및 국내외 의사 협진 가능 규제전략지역 조성	100억원('22-'27)
백신특구 고도화 및 첨단의료복합벨트 조성	• 의료서비스 혁신 및 융복합 의료서비스 기반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고도화 및 초광역화 • 면역치료 및 예방관리 중심 차세대백신 및 소프트메디슨(천연물의약품) 혁신 클러스터 조성	20,000억원('22-'30)

- 종합병원 및 웰에이징 특화병원 설립
  - 전라남도 동부와 서부에 종합병원과 유전난치병·재활·심뇌혈관 특화 병원 신설

- 초고령화, 산업환경 재해, 해양도서 재난에 대한 통합적이고 신속한 의료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종합병원 신설 (생활권별 특성을 고려한 600병상 수준의 병원)

– 암수술로 전국적 명성을 축적한 화순 전남대병원과 항노화, 웰에이징(well-aging) 의료 체계의 완결을 위해 상호보완이 가능한 유전난치병 및 재활 전문병원과 심뇌혈관 특화 병원의 유치·설립과 네트워크화

– 전라남도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다른 수요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초기 단계 운영 적자 감당이 가능한 공공형 병원의 신설, 기존 공공의료원의 확대 또는 민간병원 유치 후 운영 지원 고려

– 예상 사업비 : 6,000억원 (동부권·서부권 각 종합병원 1곳, 광주 근교권 전문병원 1곳)

– 예상 사업기간 : 2023~2030년

● 공공형 국제 의대 설립

– 초고령화 지역의 의료문제에 대한 자치적 관리와 관련 연구개발이 가능한 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의대 신설

- 현재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상황

– 정원 100인 이상의 지속운영 가능한 규모의 공공형 의대의 신설

– 공공형 의대를 확장하여 전라남도와 유사한 의료문제에 직면한 개도국의 의료문제 해결과 항노화, 웰에이징 관련 기초의학 연구가 가능한 국제적 보건의료 대학으로 육성

–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 해외 유학생 유치와 국제보건에 종사하는 의사·간호사 양성 체계 구축 (국제보건인력 교육센터 신설)

- 전라남도의 공공의료 수요와 더불어 앞으로 일상화될 전세계적인 기후재난과 복합의료재난, 빈곤과 전쟁 등에 따른 국제적 공공의료 수요에 대한 동시 충족을 목표
- 전라남도의 해외 이주민 증가 등으로 지역 의료 인력의 국제화 필요
- 질병 데이터의 초국경적 공유와 활용을 위한 국제적 역량을 갖춘 병원 필요
- UN대학 체계를 활용한 국제적 의대로 육성 고려

– 예상 사업비 : 3,000억원 (신설 종합병원을 임상교육 기반으로 활용), 예상 사업기간 : 2022~2030년

● 서남권 입자치료 인프라 구축

– 중증 암치료를 위한 서남권 입자치료 인프라 구축

- 현재 입자치료 인프라는 수도권과 동남권에 집중
- 환자 수에 중심을 둔 경제적 타당성 이외 사회적·이동적·균형발전적 측면의 효과 고려 필요
- 양성자, 중이온, 중입자 등 차세대 암치료 기반기술을 활요한 첨단 치료와 연구의 서남권 거점 구축

– 예상 사업비 : 10,000억원, 예상 사업기간 : 2023~2030년

- 디지털트윈·가상융합(메타버스)기술 활용 통합의료시스템 구축
  - 유전체, 건강, 질병, 의약 자원 및 1·2·3차 병원 데이터의 집적·활용 체계 확립
  - 광주 인공지능도시 사업과 연계, 전남-광주의 단일 헬스케어 데이터댐의 구축과 인공지능 및 수퍼·양자컴퓨팅 기반 분석 인프라 구축
  - 도민의 개인 건강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헬스빅데이터 플랫폼과 개인별 헬스케어 아바타 구축
  - 임상개발 가속화 초광역 병원연합 구축: 광주전남북 4개 대학병원,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과 1, 2차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임상개발 지원 체계의 구축
  - 진료-치료 통합 신의료기술의 개발
  -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의 변화 추적을 위한 모니터링 센터 설립
  - 예상 사업비 : 2,000억원, 예상 사업기간 : 2022~2030년 (1단계 시범사업, 2단계 본격 확대)

- 메디컬 문샷 프로젝트
  - 치매와 같이 지역과 국가,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어려운 의료문제의 해결을 위한 초광역적·초국경적 협력 기반의 혁신적 의학연구 프로젝트의 기획과 주도
  - (프로젝트 예시1) 신경-기계 연결 의료로봇 개발 : 치매 등 노화질환 극복과 거동 보조를 위한 뇌신경-기계 연결 모빌리티 의료로봇 개발을 위한 산학연병 참여 프로젝트의 신설
  - (프로젝트 예시2) 감염병 대응 백신 개발 : 전남지역 아열대화, 세계적 감염병 확산, 인수공통 전염병 증가 대응을 위한 국제적 치료백신 개발 프로젝트의 확립과 주도
  - (프로젝트 예시3) 기후·해양 의학 : 아열대화, 초대형 태풍 증가 등 기후변화의 최전선 지역이자 우리나라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기후와 해양 관련 의료연구 프로젝트 추진
  - (프로젝트 예시4)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기반으로 극한 환경(우주·해저)에 대한 바이오의료 연구 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
  - 예상 사업비 : 3,000억원
  - 예상 사업기간 : 2022~2035년

- 국제 규제기구 유치 및 규제자유 전략지역 조성
  - 유럽 EMA, 미국 FDA의 동아시아 사무소 유치
  - EU, 미국, 중국 등 해외 보건의료 인증·규제기관의 동아시아 사무소 유치를 통해 보건의료기술 사업화의 이해당사자간 소통의 거점 조성과 인허가 기간 단축 지원
  - 미국 FDA 대행 검사기관의 유치
  - 의료 서비스 중심 첨단치유의 동아시아 거점으로 도약을 위해 국내외 의사의 협진이 가능하고,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와 신개념 의약품의 신속 임상개발이 가능한 규제자유 전략지역의 조성
  - 예상 사업비 : 100억원, 예상 사업기간 : 2022~2026년

- 백신특구 고도화 및 첨단의료복합벨트 조성
  - 면역치료 연구개발 및 차세대 백신 생산을 위한 인프라 강화
    - 첨단 면역치료 개발과 임상 기반 구축을 위해 차세대 예방·치료 백신과 소프트메디슨(천연물의약품) 중심으로 백신특구의 확대 추진
    - 천연물 자원의 의료적 활용과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전라남도 동부(지리산권)·중부(장흥/보성)·서남부(완도/무안/신안)의 권역별 혁신클러스터(미니클러스터) 구축과 천연물자원 디지털뱅크 구축
    -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의약품의 생산 위탁이 가능한 cGMP 수준 다품종 적시생산을 위한 민관 합작 CMO 구축
    - 수도권 제약사와 해외제약사의 유치를 위해 전라남도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치단의 상시 운영
  - 화순백신특구, 전남대화순병원, 전라남도 전역의 치유자원 거점들을 포괄하는 네트워크형 국가 첨단의료복합 클러스터 조성
    - 전라남도 전역의 1, 2, 3차 병원과 요양원 서비스의 통합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천연물 자원과 양·한방치료를 융복합한 서비스 개발을 통한 첨단의료·요양의 거점지대 조성
    - 의료기기, 의료로봇, 융복합 의료기기 실증을 위한 병원·요양원 협력 테스트베드와 규제특구 조성
    - 전라남도 및 광역지역간 협력(광주/전라북도)을 통해, 신속 (비)임상개발을 위한 서남권 종합병원 임상지원 및 기술사업화 통합거버넌스 구축
    - 광주의 생체의료소재·의료기기, 종합병원 인프라, 인공지능 인프라, 전북 정읍의 바이오 연구개발 인프라를 포함하는 초광역 국가 첨단의료복합 벨트로 확장
    -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차별화된 혁신적 의료·요양 서비스 중심의 첨단의료단지(벨트) 육성
  - 예상 사업비 : 2조원, 예상 사업기간 : 2022~2030년

(2) (바이오) 시스템·인공합성 바이오 융복합 허브 조성(J-바이오컨버전스 허브)

필요성

- 급변하는 기술패러다임과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도 차원의 연구개발 역량 고도화 필요
  - 기존 발견 중심의 바이오기술에서 인공적 설계와 합성 기반 바이오엔지니어링 시대로 패러다임 전환
  - 특허 등 기술보호 경향 강화, 지역 간 혁신경쟁의 격화 속에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의 산업적 적용을 선도할 수 있는 자생적 연구개발 역량 필요
  - 세계적 인구폭발에 따른 산업·식량 자원 부족과 기후변화 위기, 신규 병원균 확산의 일상화 등 자원 고갈, 의료 재난, 환경 파괴를 극복하기 위한 바이오기술 개발 시급
- 세포합성 기술의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대응
  - 자연모사를 위한 기술개발 가속화와 합성바이오 기술의 확산으로 향후 20년은

전라남도의 주력 산업인 농수축산업, 식품산업, 화학산업, 에너지산업 등에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이끌 수 있음

주요 사업내용

- 차세대 바이오 융복합 원천기술 개발 및 산업화 연구 인프라 구축
  - 시스템·합성 바이오 융복합 연구원의 신설
- 민관협력 및 초광역협력 기반 산업기술 고도화 프로젝트 운영과 규제특구 설정
  - 전라남도 주력산업의 바이오경제화와 융복합 신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프로젝트 구축과 네거티브형 규제특구 설계

세부 추진과제

추진과제	주요 사업내용	예상 사업비(사업기간)
시스템바이오 융합기술원 및 생산기반 구축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부설 시스템바이오 융합기술원 설립 및 파운드리 생산기반 조성	5,000억원('22-'26)
바이오 문샷프로젝트	• 전남형 중장기 바이오 연구개발 프로그램 : 오가노이드/동식물세포합성/분자의료로봇/DNA저장장치/유해성폐기물분해/산업신소재	3,000억원('22-'40)
인공세포 규제특구	• 인공합성 세포 안전·산업 실증 및 규제 설계 지역공간 구축	200억원('23-'40)

- 시스템바이오 융합기술원 구축
  - 바이오 기술혁명의 원천인 합성·시스템·디지털 바이오의 핵심기술과 산업화를 주도할 수 있는 바이오 융복합 연구원의 설립
    - 자연모사 메커니즘의 규명, 바이오 신소재 개발, 이의 산업적 응용을 위해 세포 설계, 실증, 생산 등 합성·시스템 생물학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 세포배양 기반 농수축산 식품 연구개발과 검증을 위한 파운드리 시설 구축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의 부설 융합기술원 등 형태로 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에 착근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의 연구 역량 세계화
  - 예상 사업비 : 5,000억원, 예상 사업기간: 2022~2026년
- 바이오 문샷 프로젝트
  - 전라남도 주력산업 분야에서 초광역, 초국경 협력을 통한 중장기 바이오 융복합 기술프로젝트 추진
    - 전라남도 및 광주·전라북도의 주요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하는 전(前)경쟁 영역에서의 장기 연구개발 프로젝트 공동 진행
    - 오가노이드와 분자의료로봇, 동식물 세포합성, 중화학공업 분야 유해성 폐기물 분해와 산업신소재 관련 혁신기술의 개발
  - 예상 사업비 : 3,000억원, 예상 사업기간: 2022~2040년

- 인공세포 규제특구 조성
  - 유전자, 세포 조작 분야 연구개발과 생산 과정 관련 포괄적 규제특구지역 또는 기관 지정을 병행하여 관련 국내와 관련 기업과 기업연구소의 유치 활성화
  - 인공세포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생명윤리 및 규제설계 관련 국가 연구센터의 신설·유치 추진

제4장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제1절 편안하고 안전한 삶터 조성을 위한 주거권 강화
제2절 신기술과 공공의료 강화로 도민 평생 건강보장
제3절 도민의 존엄을 보장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제4절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스마트 재난대응체계 구축

제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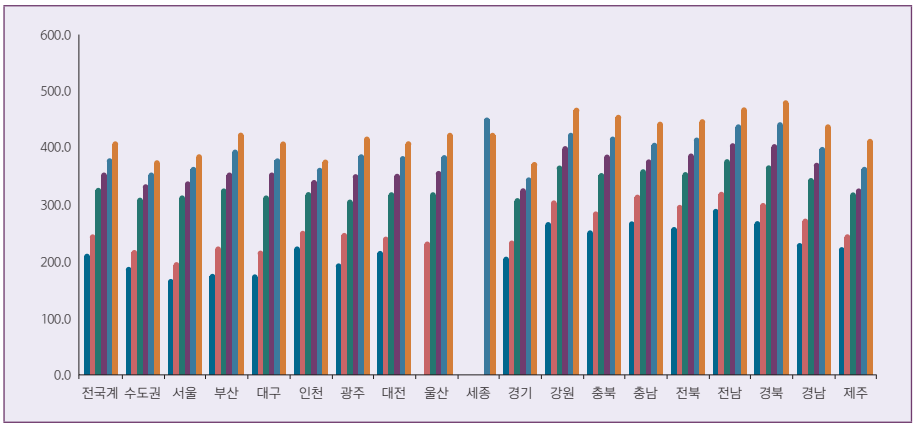
편안하고 안전한 삶터 조성을 위한 주거권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안정적인 주택공급 대비 주택노후화 지속

- 전라남도의 천명당 주택수(통계청자료)는 471.1(호)로 전국 평균 411.6(호)보다 높고, 경북 484.7(호)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으로 전체적인 주택부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전라남도 천명당 주택수 연평균 증가율은 2.0%로 전국 평균 2.8%를 하회

그림 III-4-1
광역시도별 천명당 주택수 현황



자료 : 통계표 인구천인당 주택수

- 2020년 기준, 도내 주택 중 30년을 경과한 노후주택이 약 28.5(만호)로 확인되고 읍부 5.8(만호), 면부 15.1(만호), 동부 7.5(만호)에 입지하는 등 비도시지역 주택의 노후화가 높은 수준으로 주거문제의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노후주택비율이 높은 지역은 신안(69.6%), 진도(61.0%), 완도(57.2%), 함평(55.6%), 강진(53.8%) 순으로 집계됨

표 III-4-1
전라남도 지역별 주택유형별 30년이상 경과 노후주택수
(단위 : 호)

구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전라남도	285,171	243,138	30,683	6,031	1,374	3,945
읍부	58,414	50,277	4,301	1,941	695	1,200
면부	151,642	150,018	291	245	108	980
동부	75,115	42,843	26,091	3,845	571	1,765
목포시	21,057	15,277	4,374	699	144	563
여수시	37,105	23,177	12,720	271	205	732
순천시	25,315	18,867	5,101	493	350	504
나주시	16,505	15,240	880	234	X	151
광양시	16,096	7,234	6,195	2,400	63	204
담양군	7,535	7,363	51	24	8	89
곡성군	6,333	6,154	40	77	X	62

구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구례군	5,161	4,857	64	170	21	49
고흥군	17,863	17,199	86	129	270	179
보성군	9,963	9,615	56	173	44	75
화순군	8,156	7,987	X	96	14	59
장흥군	8,855	8,547	X	197	X	107
강진군	9,275	8,893	85	119	60	118
해남군	15,763	15,269	150	168	5	171
영암군	9,127	8,869	48	94	33	83
무안군	11,520	11,104	98	84	67	167
함평군	8,212	8,070	X	60	9	73
영광군	10,780	9,771	554	339	9	107
장성군	7,554	7,341	24	110	X	79
완도군	12,639	12,257	137	58	6	181
진도군	8,735	8,536	20	36	62	81
신안군	11,622	11,511	X	X	X	111

자료 : 통계표 주택종류 및 노후기간별 주택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1521&conn_path=I3)

–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 단독주택의 노후화비율은 60.5%이고, 연립주택 36.6%, 비거주용 주택 30.6%, 다세대주택 12.5%, 아파트 8.5%로 확인됨

- 단독주택 노후화비율은 목포(71.8%), 신안(70.7%), 진도(69.7%), 완도(67.4%), 강진(64.2%)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아파트 노후화비율은 여수(18.2%), 광양(14.8%), 영광(9.2%)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연립주택 노후화비율은 광양(80.5%), 구례(67.5%), 나주(48.9%), 목포(43.8%)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I-4-2
전라남도 지역별 주택유형별 30년이상 경과 노후주택수 비율

구분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소계	35.6%	60.5%	8.5%	36.6%	12.5%	30.6%
읍부	31.4%	59.5%	5.0%	29.0%	16.0%	31.9%
면부	52.3%	59.5%	0.9%	11.8%	8.8%	31.6%
동부	23.0%	65.5%	10.8%	50.0%	10.6%	29.3%
목포시	22.3%	71.8%	6.4%	43.8%	7.9%	34.4%
여수시	32.6%	60.7%	18.2%	16.2%	12.1%	28.2%
순천시	22.2%	58.5%	6.6%	29.5%	22.7%	27.8%
나주시	30.3%	62.4%	3.1%	48.9%	-	32.5%
광양시	26.6%	52.4%	14.8%	80.5%	7.6%	21.2%

구분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담양군	40.8%	46.7%	2.8%	9.0%	2.9%	26.6%
곡성군	47.0%	53.5%	3.2%	21.8%	-	31.3%
구례군	44.2%	48.4%	5.9%	67.5%	16.0%	24.7%
고흥군	52.3%	61.4%	2.4%	15.5%	21.8%	38.4%
보성군	51.2%	59.3%	2.3%	34.8%	38.3%	39.5%
화순군	28.5%	51.9%	-	33.0%	17.7%	20.1%
장흥군	50.1%	61.2%	-	27.1%	-	35.8%
강진군	53.8%	64.2%	3.9%	21.6%	17.0%	38.3%
해남군	50.3%	62.8%	2.6%	35.5%	2.4%	31.3%
영암군	33.3%	57.8%	0.4%	15.1%	8.4%	28.2%
무안군	32.5%	59.9%	0.6%	17.6%	21.7%	38.3%
함평군	55.6%	61.0%	-	25.0%	8.0%	33.3%
영광군	46.7%	63.2%	9.2%	36.8%	2.9%	28.6%
장성군	40.3%	53.2%	0.6%	22.0%	-	29.0%
완도군	57.2%	67.4%	5.6%	9.4%	1.7%	34.7%
진도군	61.0%	69.7%	1.5%	10.7%	30.8%	38.6%
신안군	69.6%	70.7%	-	-	-	44.8%

자료 : 통계표 주택종류 및 노후기간별 주택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1521&conn_path=I3)

자가중심의 주거점유형태 및 현재 다양한 주택유형 분포

- 2019년 기준, 전라남도의 자가보유율은 74.5%로 전국 평균 자가보유율 58.0%보다 상대적으로 주택 보유현상이 높고, 타 지역에 비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소유하는데 부담이 없음
  - 2010년 대비 주택의 자가보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4-3
전국과 전라남도 주택점유형태 비율

구분	전국						전라남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2010	54.3	21.7	18.2	2.0	1.3	2.7	70.7	11.7	9.7	1.5	2.0	4.3
2012	53.8	21.8	18.6	2.7	0.3	2.8	69.4	12.3	10.6	1.2	2.3	4.2
2014	53.6	19.6	21.8	1.4	0.7	2.8	69.5	6.3	17.6	1.0	1.3	4.4
2016	56.8	15.5	20.3	2.7	0.7	4.0	73.4	7.8	10.7	2.6	0.5	5.1
2017	57.7	15.2	19.9	2.6	0.8	3.9	74.8	7.3	10.1	2.5	0.7	4.7
2018	57.7	15.2	19.8	3.3	0.0	4.0	74.2	7.5	10.3	3.1	0.0	4.9
2019	58.0	15.1	19.7	3.3	0.0	3.9	74.5	7.4	10.2	3.1	0.0	4.8

-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주택유형은 아파트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반면에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으로 나타남
  -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단독주택은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라남도에서는 증가하고 있음
  - 2015년이후, 주택유형은 아파트의 증가세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표 III-4-4
전국과 전라남도 주택유형별 주택수 변화
(단위 : 천호)

구분	전국					전라남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2000	4,069	5,231	813	453	393	400.6	162.5	12.2	1.7	30.0
2005	3,985	6,627	520	1,164	198	391.0	198.0	12.1	5.0	11.7
2010	3,797	8,185	504	1,246	151	368.6	240.6	11.5	5.0	8.4
2015	3,974	9,806	485	1,898	204	404.9	306.7	14.2	10.0	11.9
2020	3,898	11,662	522	2,231	214	402.0	359.7	16.5	10.9	12.9

자료 : 통계표 총조사 주택총괄 재작성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0001&conn_path=I3)

- 전라남도 읍면동별로 주택유형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단독주택은 군지역 읍부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군지역 면부와 시지역의 동부에서는 감소
  - 아파트는 모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래 주택의 유형이 아파트로 획일화될 개연성이 있음

표 III-4-5
전라남도 읍면동별 주택유형별 주택수 변화
(단위 : 호)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전남읍부	총계	120,273	131,678	130,999	167,957	186,168
	단독주택	78,457	80,540	75,400	85,175	84,524
	아파트	27,312	40,395	46,056	69,735	86,833
	연립주택	4,585	5,152	5,737	5,795	6,699
	다세대주택	541	1,647	1,650	3,907	4,340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9,378	3,944	2,156	3,345	3,765
전남면부	총계	275,170	256,464	249,566	283,343	289,791
	단독주택	254,356	243,065	228,891	253,121	252,134
	아파트	9,957	9,559	16,672	24,571	31,254
	연립주택	1,104	1,047	1,449	1,739	2,071
	다세대주택	224	473	601	1,166	1,226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9,529	2,320	1,953	2,746	3,105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전남동부	총계	211,575	229,544	253,369	296,321	326,084
	단독주택	67,779	67,366	64,276	66,608	65,368
	아파트	125,210	148,042	177,885	212,355	241,597
	연립주택	6,531	5,869	4,311	6,653	7,693
	다세대주택	917	2,825	2,603	4,842	5,389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11,138	5,442	4,294	5,863	6,017

자료 : 통계표 총조사 주택총괄 재작성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0001&conn_path=I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독립가구 증가로 개별 주거수요 증대

-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총 인구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증가로 인해 주택수는 인구감소에 비례하여 감소할 가능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1인가구에 대응하는 주거면적, 주택유형, 연령층별 주거수요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20년 기준으로 전라남도의 1인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총주택수는 239.7(천호)이고,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 156.4(천호), 아파트 72.5(천호), 연립주택 3.9(천호) 등으로 집계됨
  - 2015년과 비교결과, 1인가구 거주 주택수는 32.8(천호)가 증가하였고, 이중에서 아파트수가 21.0(천호)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III-4-6
전라남도 1인가구 거주 주택 유형
(단위 : 천호)

구분	2015						2020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전남	206.9	146.5	51.5	2.8	2.3	27.6	239.7	156.4	72.5	3.9	2.8	21.0
읍부	45.9	31.0	12.0	1.1	0.8	7.5	54.4	33.6	17.2	1.5	1.0	6.5
면부	85.9	81.1	3.6	0.4	0.2	8.2	92.5	85.0	5.9	0.5	0.3	6.0
동부	75.1	34.4	35.9	1.3	1.3	11.9	92.8	37.9	49.4	1.9	1.6	8.5

자료 : 통계표 거처의 종류 및 가구원수별 일반가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05&conn_path=I3)

- 연령별로 1인 가구 거주 주택수를 살펴본 결과, 2020년 기준 25세 미만 1인가구 거주 주택수는 13,953(호), 25~64세 1인가구 거주 주택수는 122,877(호), 65~84세 1인가구 거주 주택수는 86,674(호), 85세 이상 1인가구 거주 주택수는 16,192(호)로 집계됨
  - 연령대별로 1인가구 거주 주택유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아파트 거주비율이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고령대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5세 미만 1인가구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비율 74.2%, 아파트 거주비율 19.3%로 나타남
    - 85세 이상 1인가구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87.5%, 아파트 거주비율이 11.1%로 나타남

표 III-4-7
전라남도 연령별 1인가구 거주 주택유형
(단위 : 호)

구분	2015				2020			
	25세미만	25~64세	65~84세	85세이상	25세미만	25~ 64세	65~84세	85세이상
가구수	9,967	115,700	81,756	11,441	14,981	136,538	88,715	16,399
주택수	9,215	106,212	80,317	11,203	13,953	122,877	86,674	16,192
단독주택	6,731	61,417	68,254	10,145	10,359	64,679	67,228	14,168
아파트	1,825	38,481	10,330	893	2,699	51,035	16,946	1,792
연립주택	163	1,902	652	78	224	2,500	1,015	127
다세대 주택	231	1,580	446	27	300	1,880	605	49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265	2,832	635	60	371	2,783	880	56

자료 : 통계표 연령 및 거처의 종류별 1인가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L1509&conn_path=I3)

단독주택 중심으로 빈집의 비중이 확산되는 추세

- 2020년 기준으로 도내 빈집은 약 122천호로 전체 주택수 대비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빈집비율이 높은 편에 속함
  - 총 주택수 대비 빈집비율은 전남(15.2%), 제주(14.2%), 강원(13.1%) 순으로 확인되고, 전국 빈집비율인 8.2%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전국기준으로 아파트 주택유형에서 빈집비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전라남도의 경우, 단독주택에서의 빈집비중이 아파트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I-4-8
2020년 기준 광역 시도 주택유형별 빈집현황
(단위 : 호)

구분	총주택수	빈집계	빈집비율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전국	18,525,844	1,511,306	8.2%	339,406	829,784	74,371	242,870	24,875
서울	3,015,371	96,629	3.2%	3,508	50,900	5,338	35,485	1,398
부산	1,275,859	113,410	8.9%	15,450	60,018	3,832	32,306	1,804
대구	809,802	39,069	4.8%	5,938	28,355	823	3,057	896
인천	1,032,774	65,861	6.4%	6,997	27,997	2,820	27,049	998
광주	538,275	41,585	7.7%	6,444	30,848	1,368	2,196	729
대전	496,875	26,983	5.4%	3,805	17,901	1,120	3,652	505
울산	394,634	30,241	7.7%	3,457	19,573	1,798	4,692	721
세종	136,887	14,385	10.5%	987	12,487	264	552	95
경기	4,495,115	272,358	6.1%	16,354	153,675	15,512	83,235	3,582
강원	644,023	84,106	13.1%	21,808	51,643	5,680	3,314	1,661
충북	640,256	76,877	12.0%	19,597	47,655	3,341	4,902	1,382
충남	865,008	106,430	12.3%	25,013	62,711	6,393	10,742	1,571
전북	741,221	95,412	12.9%	34,769	50,059	4,030	4,672	1,882
전남	802,043	122,103	15.2%	58,821	55,293	3,266	2,848	1,875
경북	1,094,306	139,770	12.8%	54,463	66,656	6,410	9,526	2,715
경남	1,296,944	150,982	11.6%	53,028	83,747	4,979	6,889	2,339
제주	246,451	35,105	14.2%	8,967	10,266	7,397	7,753	722

자료 : 통계표 빈집의 종류 및 건축연도별 주택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1512&conn_path=I3)

- 2020년 기준으로 도내에서 빈집비율이 가장 높은 시 단위은 나주시로 21.2%, 군 단위은 영암군으로 21.8%로 나타나고 있음
  - 총 주택수 대비 빈집비율이 전라남도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나주, 곡성, 구례, 고흥, 화순, 영암, 무안, 영광, 장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 빈집비율이 높은 지역은 강진과 함평으로 각각 14.2%이고, 목포와 광양이 각각 2.5%와 3.1%로 빈집비율이 낮은 편으로 확인됨
  - 아파트의 경우, 빈집비율이 높은 지역은 영암군과 나주시, 목포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아파트 주택량이 빈집에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 III-4-9
2020년 기준 전라남도 시군 주택유형별 빈집현황
(단위 : 호)

구분	총주택수	빈집계	빈집비율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전라남도	802,043	122,103	15.2%	58,821	55,293	3,266	2,848	1,875
목포	94,332	13,345	14.1%	2,381	10,001	348	361	254
여수	113,941	14,464	12.7%	5,038	8,500	164	446	316
순천	113,964	14,663	12.9%	4,835	8,751	282	536	259
나주	54,524	11,549	21.2%	4,199	6,871	188	196	95
광양	60,548	8,274	13.7%	1,887	5,517	591	154	125
담양	18,485	2,585	14.0%	2,197	245	18	73	52
곡성	13,488	2,135	15.8%	1,723	266	30	86	30
구례	11,687	1,811	15.5%	1,546	167	51	19	28
고흥	34,150	6,370	18.7%	4,983	893	163	241	90
보성	19,464	2,808	14.4%	2,159	481	114	25	29
화순	28,628	5,257	18.4%	2,886	2,267	41	24	39
장흥	17,679	2,465	13.9%	1,754	381	241	45	44
강진	17,241	3,238	18.8%	2,487	506	135	74	36
해남	31,350	4,492	14.3%	3,169	1,038	119	85	81
영암	27,410	5,981	21.8%	2,286	3,360	159	132	44
무안	35,403	6,856	19.4%	3,699	2,893	76	102	86
함평	14,777	2,366	16.0%	2,096	191	40	11	28
영광	23,083	3,534	15.3%	1,858	1,373	179	66	58
장성	18,761	3,138	16.7%	2,030	958	94	9	47
완도	22,096	3,193	14.5%	2,442	475	127	83	66
진도	14,327	1,904	13.3%	1,619	152	46	55	32
신안	16,705	1,675	10.0%	1,547	7	60	25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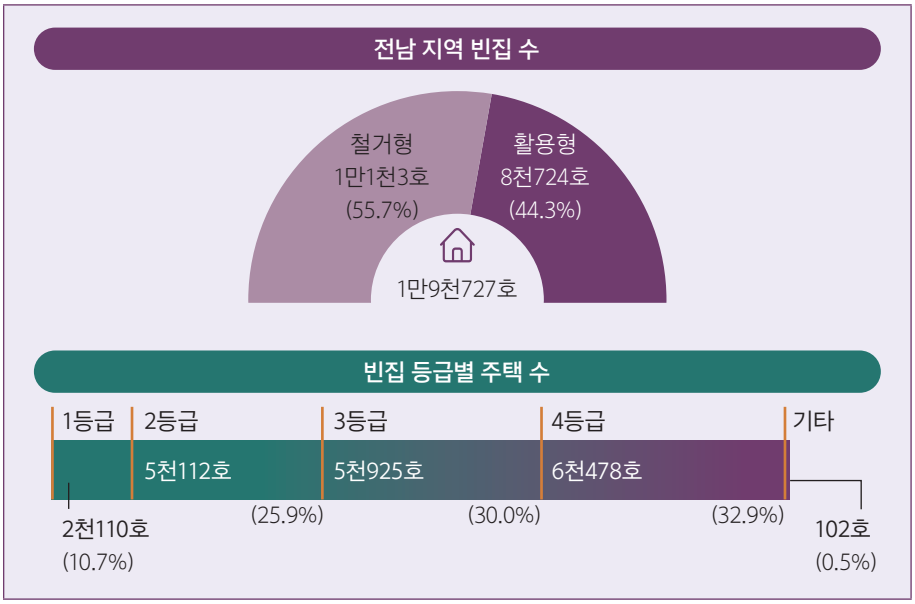
자료 : 통계표 빈집의 종류 및 건축연도별 주택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1512&conn_path=I3)

- 도내 빈집정비 및 활용실태 성과감사 결과, 2021년 12월말 기준 전남지역 빈집은

총 1만9천727호로, 이중 철거형은 1만 1천3호(55.8%), 활용형은 8천724호(44.2%)로 나타남

- 빈집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등급을 분류한 결과, 즉시 거주가 가능한 1등급은 2천110호(10.7%), 주택 상태가 양호한 2등급은 5천112호(25.9%), 상태가 불량한 3등급은 5천925호(30%), 매우 불량한 4등급은 6천478호(32.9%), 기타 102호(0.5%) 등 3~4등급이 전체의 63%를 차지해 도내 빈집의 불량도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빈집 소유자가 철거와 활용에 동의한 경우는 2천835호로 전체의 14.4%에 불과해 소유자의 철거·활용 부동의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 석면 재질의 슬레이트 구조 빈집이 9천32호나 방치돼 있어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

그림 III-4-2
전라남도 빈집 등급별 유형조사 결과



-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빈집정비계획 미수립 및 빈집조례 정비 노력 부족, 형식적인 빈집실태조사 실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노력 미흡, 빈집 활용방안 모색 소홀, 슬레이트 구조 빈집 정비에 소극적 대처, 빈집정비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노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 조직, 예산, 인력 등 다양한 정비 인프라 확충,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중·장기적 빈집플랫폼(빈집은행) 구축, 빈집 소유자와 활용자의 이익공유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 활용 유도, 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 필요

2. 여건 변화 및 전망

양적성장에서 주거복지 제고중심의 정책 기조 전환

- 전라남도의 주택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수도권과 대도시권과는 다르게 주택 공급 부족문제가 주거정책의 주요 이슈에 해당되지 않음
- 주택보급률과 천인당주택수 등의 주택 양적지표에서 전남지역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주택공급 부문보다는 주택수요를 관리하고 주거복지 수준을 보편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20년 상반기에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 2.0은 주거복지 수혜계층 확대 및 주거복지 수준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거정책의 주요 지향점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복지 서비스를 수혜받는 계층을 보편화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

위드 코로나 시대, 다기능적 주거시설 출현 예상

- covid-19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주택의 기능은 단순하게 거주하면서 휴식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방역의 기초단위로 역할을 수행
  -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가격리를 위해 최소한의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기능을 강조
- 인간의 교류활동이 점점 감소하면서 그동안 기능별로 재편되어 왔던 시설들이 주택내에서 이루어지고, 기능과 시설이 복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기존의 휴식·식사·수면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근무, 교육, 보육, 여가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서 주택의 위상 변화

기후위기 및 기상이변에 따른 안전한 정주생활 위협 요소 증가

- 지구온난화, 빈번한 태풍발생, 폭염, 미세먼지로 인해 지역민의 생활에 대한 불편 현상 증가 및 안전한 정주생활에 어려움
  - 이상기후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의한 노후주거 인프라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기후위기와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안전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주택 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주택 신기술의 보급으로 에너지, 환경, 생태 등의 기능이 주택내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실외환경 수준 저하 및 외부 안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생태환경요소를 실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주택기술 보급 예상
  - 외부 기후환경에서 파생되어 정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관리하기 위한 주택 기술 발전과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안전한 정주생활에 대한 수요 증대 예상

기후와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에너지효율화 주택 지원 강화 예상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온실가스 저감 및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사업이 진행중
-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사업을 진행중에 있음. 코로나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비중 있게 추진 중
  - 주요 뉴딜사업중 하나인 그린뉴딜사업은 에너지와 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화석연료를 통해 주택난방, 보일러 가동, 냉온수를 공급하는 사업들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및 전환 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전라남도 지역내 주택문제 양극화 문제 심화 가능성

- 도시와 비도시지역간, 원도심과 신규 외곽지역간 주거 양극화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노후주택의 경우 면부에서의 노후화율이 동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비도시지역의 노후주택수 증가 및 관련 주택수준의 저하 등이 주거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도시지역내 원도심지역의 공동화 현상으로 주택 노후화와 멸실주택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외곽지역에서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이 밀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1인가구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청년계층의 공동주택형 주거형태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비도시지역에서는 고령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에서 홀몸어르신의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주거취약계층의 주택유형별 분포현상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되는 과정에 있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거서비스 전달은 도시지역에서 효율성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에서 홀몸어르신을 위한 주거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안 검토 필요

인구 유출에 따른 주거시설의 관리 저하 및 빈집 출현

- 전라남도의 경우, 자연적인구 감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구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바 빈집증가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인구유입 대비 전출인구수가 2011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비도시지역 고령인구 사망으로 거주주택의 이용률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빈집으로 방치되는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빈집의 증가는 마을 커뮤니티 활력성을 저해하고, 마을의 이미지를 감소시키는 사회적 부의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
- 빈집에 대한 관리와 운영방안을 지자체와 마을중심으로 공동체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향 검토 필요

● 청년계층의 전출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주거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중장년층의 경우에도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거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 발생
- 기존 거주 주택을 관리하거나 노후화를 예방하고 개량하기 보다는 신규주택에 대한 주거비 지불부담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기존 주택에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도민의 주거생활을 진단하는 조사체계 선제적 대응 미흡

● 지역민의 주거생활 만족도 제고 및 주거서비스 분야 관련 정책에 대한 도차원의 실태조사 필요
- 현재 10년단위 주거관련 종합계획 수립시 주거실태조사를 반영하여 주거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매년 국토교통부가 광역자자체별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범위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작은 수준임

● 전라남도의 경우, 고령자 및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타 지역에 비해 높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자체조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실태조사 및 지자체 사회조사로는 도민의 주거수준, 주거서비스 수요를 도출하는데 한계 발생
- 주거권이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되는 여건에서 도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민의 주거수요 및 다양한 주거관련 지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

3. 주요 정책과제

1) 기본 목표

● 편안하고 안전한 삶터 조성을 위한 주거권 강화
- 도민의 정주환경을 제고하고,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주거권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 서비스를 높이고, 지역민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삶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2) 추진전략

- 주택의 수준을 높이는 개량·정비 지원체계 강화
  - 현 거주지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비교적 적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주택의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하는 지원방안 마련
  - 비도시지역과 원도심의 주택개량사업과 주민들의 개별 주택개량 등을 연계하여 주택 정비효과를 제고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형 주거복지정책 모색
  - 중앙정부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주거관련 정책으로 인한 미스매칭을 감소시키는 지역형 주택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정책을 발굴하고 구현
  - 중앙정부의 주거관련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자체 주거관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생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형 주거정책 수립
- 노후주택과 빈집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 노후주택과 빈집의 방치를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관리방안 검토
  - 장기 유휴 주거시설에 대한 관리를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대내외 홍보 강화를 통해 부작용 해소
- 기후와 환경, 정주트렌드를 고려한 미래주택 모델 개발
  - 실내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주택의 다기능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미래주택 테스트베드 구축

3) 핵심 프로젝트

⬡ 주택의 수준을 높이는 개량 및 정비 지원체계 강화

- 전라남도의 주거현황은 도시와 비도시지역간 주거수준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인구구조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의 소멸로 이어지는 현상 발생
  - 22개 시군에서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 비율이 전체 34%를 상회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읍부와 동부는 각각 31.2%, 19.7%인 반면에 비도지시역인 면부는 51.9%를 차지
- 노후화된 주택을 대상으로 정주민의 주거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원함으로써 마을단위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주거정책 추진
  - 전라남도의 비도시지역의 경우, 도시지역과는 다르게 신규 주택수요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민간개발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주거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그러므로 전라남도의 주거정책은 지역 여건에 따라 민간개발 투자를 통해 신규주택을 조성하는 방안과 주민 스스로 집수리 등 주택 개량·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제도 마련

- 농어촌 지역의 주택개량을 담당하는 공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거권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
  - 지역의 개발사업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주거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주거의 개량과 정비를 추진하는 공기업의 경영성과 항목에 사회적 공헌활동에 대한 지표와 배점 기준을 높이고, 지역민의 주거수준을 높이는 중앙정부 정책을 위수탁하여 농어촌지역의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제도 도입

- 농어촌 지역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건축연령 및 입식부엌, 재래식 화장실 등을 개량하는 주거정비사업 추진
  -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노후주택과 정주민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정비우선구역을 설정하고, 단계적인 주거정비사업 시행
  - 시군의 읍·면 소재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우선구역을 설정하고, 중심지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주거개량사업을 추진

- 농촌주택개량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의 자발적 철거자를 비롯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도 농촌 정주기간에 따라 차별화하는 등 세부적인 지원정책 마련
  - 신축·개축과 대수선의 경우 각각 2억원과 1억원으로 대출금을 설정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토지매입비용과 건축 원자재비용 상승에 따라 대출원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대출상환기간도 현재 20년 상환에서 거주가능 기간을 고려하여 25년~3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지역에 부합하는 주거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남형 주거조사실태를 정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지역민이 선호하는 주거유형과 개량방식을 반영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추진 전략 마련
  - 국토교통부는 매년 전국단위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주거정책을 위한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전국단위 주거자료 구축으로 인해 전라남도의 표본수 한계 발생
  - 고령계층을 위한 주거정책, 인구감소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지역,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진단하는 조사자료를 정례적으로 구축하여 다양한 주거정책을 마련하는 근거로 활용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한 지역형 주거복지정책 모색

- 주거복지 정책은 주거환경개선과 더불어 정주권 강화를 위한 주거분야의 중요한 정책임.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역차원의 주거복지 분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주거복지 정책은 주거취약계층을 선별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전라남도의 경우, 고령자 1인가구 및 도시지역 주택임차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마련 정책과 주거바우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남형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방향은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효율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수요계층의 효용성 제고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
  -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주거급여를 통한 주거바우처 공급사업을 확대 추진
  - 효율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주거복지센터 구축을 통해 주거복지사업 홍보 및 주거취약계층 선별, 주거복지수혜대상 가구 관리 사업을 추진
  - 전라남도의 가구수요별 주거복지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르신 등을 위한 공공주택과 귀농·귀촌 가구를 위한 사회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서비스에 대응하는 전남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 주거복지 수혜계층을 넓히기 위해서는 현재 주거급여 대상자 범위를 기존 중위소득 45% 수준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중요
  - 특히, 전라남도 비도시지역의 주거의 경우 자산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주택자를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지자체 차원에서 검토
  - 보편적 주거복지를 통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증가시키고, 지역민의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계층을 위해서는 보편적 디자인을 적용한 공공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읍면 중심지 권역에 해당 공공주택을 입주시켜 생활권 반경에 편의시설과 연계하는 공공주택 운영 프로그램 도입
  - 고령자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생활편의시설과 복지센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설의 재배치 사업을 추진하고, 주택 평면 설계에서도 낙상방지, 안전펜스시설 및 문턱제거 등의 설계요소 적용
  - 공공주택 단지내 다양한 시설을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비용을 분담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설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청년 인구의 지역거주성을 강화하고, 타 지역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정책 측면에서 주거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광양, 여수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연계된 지역의 경우, 안정적 일자리를 찾아 유입되는 젊은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자녀 출생 및 교육에 대한 기회 때문에 인근 대도시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중앙정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주거면적이 비교적 협소한 주택 공급을 통해 물량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바, 지역민 주거선호도에 부합하는 면적이 넓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도내 청년계층의 타지역 유출이 심화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거주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생애주기형 공공주택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
  - 단독가구를 구성할 수 있는 연령대인 20대 가구, 가정을 이루고 자녀 출산을 준비하는 30대 가구, 자녀 연령대가 중·고등교육 수혜자인 40~50대 가구, 자녀가 출가하여 부부가 세대를 구성하는 60~70대 가구, 노령계층인 70대 이상 가구별로 구분하여 생애주기형 공공주택 공급 추진
  - 20대 가구에 대응하는 주택의 경우, 도시 중심지에 입지하면서 세분화된 주거면적 유형을 공급하고, 세탁실, 회의실, 공동주방 등 커뮤니티 시설이 도입되는 청년주택 공급
  - 30대 가구에 대응하는 주택은 자녀 출산과 양육시설을 지원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자녀출산 시 일부 임대료의 감면혜택을 주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
  - 40~50대 가구를 위한 주택은 자녀의 성장을 감안하여 국민규모주택 이상의 중형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 추진
  - 60대 이상의 가구에서는 상호 도우면서 생활할 수 있는 개념을 적용하고, 주택 평면 설계 방향은 보편적 디자인 등을 도입하는 주택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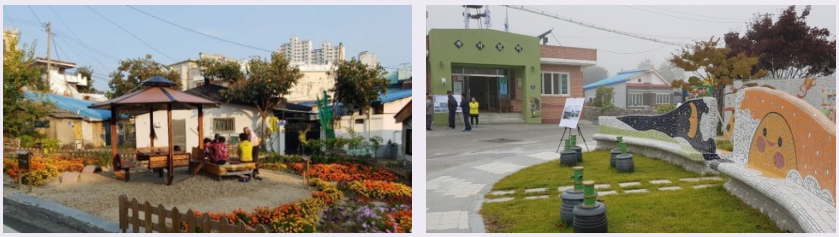
노후주택과 빈집정비를 제고하는 정책 추진

- 전라남도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이 평균 34.1%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군지역에서 이를 상회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음. 전제 주택의 60%이상이 30년이상 노후된 주택으로 구성된 지역은 신안군(69.6%)과 진도군(62.0%)으로 조사됨
  - 노후주택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의 국고지원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후주택 개량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노후주택 설계도서 지원 및 감리작업 지원 추진
- 주택의 경우, 전체 철거를 통한 정비방식과 일부 리모델링을 통해 개량하는 방식 등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마을건축사 제도 지정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를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전체 철거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시 거처를 지원하여 공사기간 동안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을 건축사제도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방식으로 주택을 철거하고 정비
  - 주택 리모델링 방식은 단열과 부엌, 내부 인테리어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식과 주택의 안전을 위해 주택설비를 개량하는 방식으로 세분할 수 있고, 관련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3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철거방식과 리모델링 방식에 대해서 지역주거실태 조사 등을 연계하여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상속주택과 빈집주택 세제 제도 도입 검토를 통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 관리방식 효율성 제고
  -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속 이후, 상속자가 주택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해당 주택에서 생활하지 않아 빈집으로 방치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임

– 빈집의 경우, 언젠가는 돌아가서 정주가 가능한 주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높으나 시간의 경과속에서 관리 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 귀향하여 생활하는 거처로 생각하기 보다는 무관심속에서 주택이 방치되어 상속받은 사람이 정주하기 어려운 주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일본, 캐나다, 영국의 일부지역에서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유자에 대한 관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빈집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방안을 독려하기 위해 세제상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도 검토
– 빈집에 대한 관리와 시장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상속자)가 스스로 빈집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빈집을 정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제도 추진

- 빈집과 노후주택 철거를 통해 마을내 다기능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지역내 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 추진
  – 빈집의 경우,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을내 주차공간, 공동 농기계 보관시설, 포켓화단, 포켓쉼터 등을 조성하여 마을 지역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도입 사업 추진
  – 공공 주도의 빈집재생정책을 위해 읍면 중심지활성화 사업에 해당 지역의 빈집을 지자체가 매입하여 귀농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반값주택으로 제공하고, 철거이후 일반 나대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주민운동시설 설치공간을 조성

그림 III-4-3
빈집철거 이후 마을쉼터 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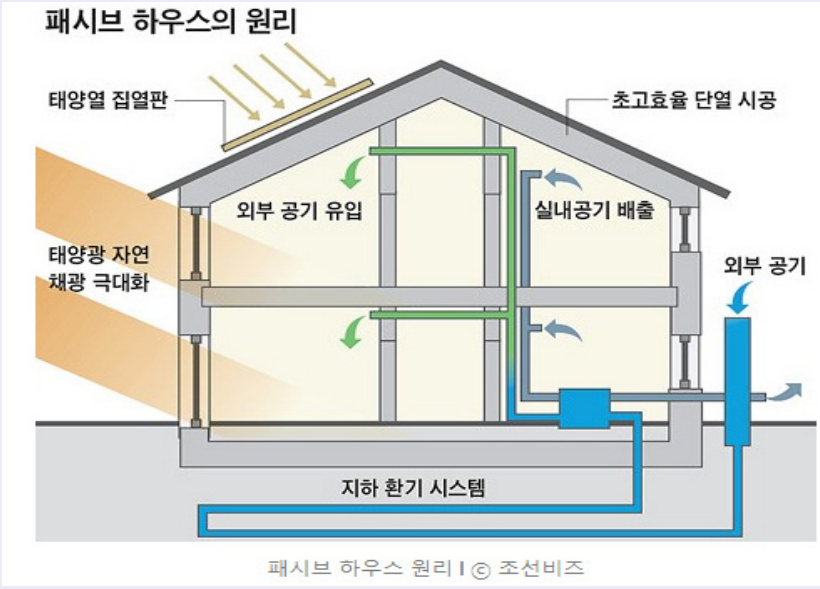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노후주택과 빈집현황 자료를 축적하고, 빈집진행 가능성과 빈집의 공간적 위치, 빈집에 대한 주택특성 및 활용여부 등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
  –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지자체별 빈집관리 현황 및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여 과학기반 증거중심의 빈집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노후주택과 빈집에 대한 다양한 속성정보(위치, 면적, 활용가능성, 철거가능성, 마을중심지간 이격거리) 등을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 빈집과 노후주택의 문제를 해당 주택의 소유자문제로 국한하기 보다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 구축
  – 마을공동체 사업과의 협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빈집 관리·활용사업을 제안하고, 빈집관련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사업 추진체계 마련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용하여, 농어촌지역의 노후주택과 빈집을 개보수·정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 이를 위해서는 노후주택 및 빈집 개보수사업과 관련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독려

미래 트렌드에 대응하는 미래주택 모델 개발

-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미래 트렌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예측이 가능함. 우선 기후위기 트렌드를 반영하여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절감형 주택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고령가구에 대응하는 스마트홈 기술이 접목되는 첨단기술 응집형 주택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전라남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이를 위해 건물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를 저감하는 정책들을 추진중에 있음. 건물분야에서는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 에너지절감형 주택을 보급하는 정책을 추진
  – 에너지 패시브 주택 건축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의 에너지기금 적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 시·군별로 신규 에너지 전환 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

그림 III-4-4
에너지 패시브 주택 개념



패시브 하우스 원리 | © 조선비즈

그림 III-4-5
에너지 주거단지 사례
(독일 비스마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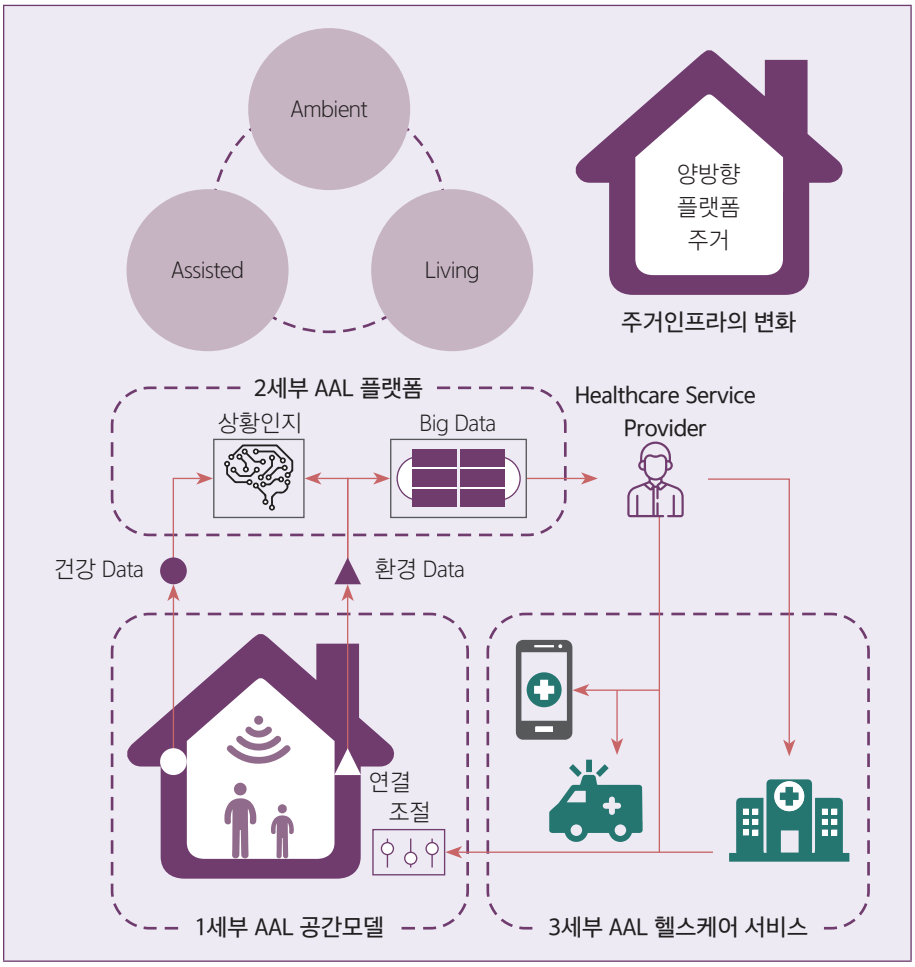


– 고령가구의 경우, 혼자서 생활하는 고령층의 건강패턴을 인식하여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완비된 미래 헬스케어 주택 등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본격적인 헬스케어 주택이 도입되기 전 단계에서 노령자의 데이터를 구득하고 이를 반영하는 건축기술 주택 시범 조성

– 농어촌지역 의료기관과 생활편의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기술이 접목된 첨단기술주택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주택에서 수집되는 노령가구의 다양한 데이터를 접목하여 안전하게 생활하고 거주하는 고령자 평면주택을 설계하는데 활용

● 포스트 코로나 이후, 녹색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부상하는 가운데 주택내부와 외부에 녹색자원을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그림 III-4-6
헬스케어 주택단지 개념도



– 코로나 이후, 친환경자원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근린생활권 내에서 녹색자원의 접근성이 주거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주거만족도 결정요인으로 필(必)환경자원인 녹색자원 체험 빈도가 많을수록 주택에서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싱가포르 사례와 같이 건축물의 입면녹화, 녹색자원을 건물내 주요 건축요소로 적용할 경우 용적률을 높이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시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

그림 III-4-7
그린빌딩 사례(싱가포르 사례)



제2절

신기술과 공공의료 강화로 도민 평생 건강보장

1. 현황과 문제점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 가중 심화

- 전라남도의 2019년 전체 진료비는 4조 5,046억 원으로 2006년(1조 1,840억원) 대비 무려 280% 증가
  - 이중 60세 이상 연령의 진료비는 2006년 5,500억 원에서 2019년 2조 8,485억 원으로 약 5.1배 증가
    - 전체 진료비 중 60세 이상 연령대의 진료비 비중은 2006년 46.9%에서 2019년 63.2%로 2006년 대비 약 34.8% 증가
  - 아울러 만성질환에 따른 진료비는 2006년 2,827억 원에서 2019년 1조 2,561억 원으로 약 4.5배 증가
    - 전체 진료비 중 만성질환에 따른 진료비는 2006년 23.9%였으나, 2019년 27.9%로 4.0%p 증가

표 III-4-10
전라남도 진료비 증가 추이
(단위 : 천원, %)

구분	진료비	60세 이상 진료비 (전체 진료비 중 비율)	만성질환 진료비 (전체 진료비 중 비율)
2006	1,184,011,735 (100.0%)	554,964,751 (46.9%)	282,664,345 (23.9%)
2018	4,145,923,154 (100.0%)	2,591,614,316 (62.5%)	1,163,040,496 (28.1%)
2019	4,504,670,854 (100.0%)	2,848,550,091 (63.2%)	1,256,080,585 (27.9%)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연도별, 재구성.
주1 :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치주질환, 관절염, 정신질환, 전염병, 간질환을 포함
주2 : 진료비는 약국을 포함한 금액임

의료자원의 접근성, 의료인력 등의 격차 심화

- 도내 의료기관은 2019년 기준[8] 2,030개소로, 2009년 1,677개소보다 353개소 증가했으나, 이중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등 5개 지자체에서만 228개소(전체 증가 353개소의 64.6%)가 증가함
  - 무안군은 같은 기간 중 57개소에서 88개소로 31개소 증가하여 군 지역 중 유일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남악신도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보여짐
  - 고흥군, 보성군, 장성군 등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30%가 넘어 심각한 고령화 지역은 의료기관 수가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나, 요양병원과 한의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의료기관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 및 응급상황에의 대처할 수 있는 의료자원에 대한 불균형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음
-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은 2009년 16,588명에서 2019년 28,415명으로 11,827명(2009년 대비 71.3%) 증가함

8) 2020년 전라남도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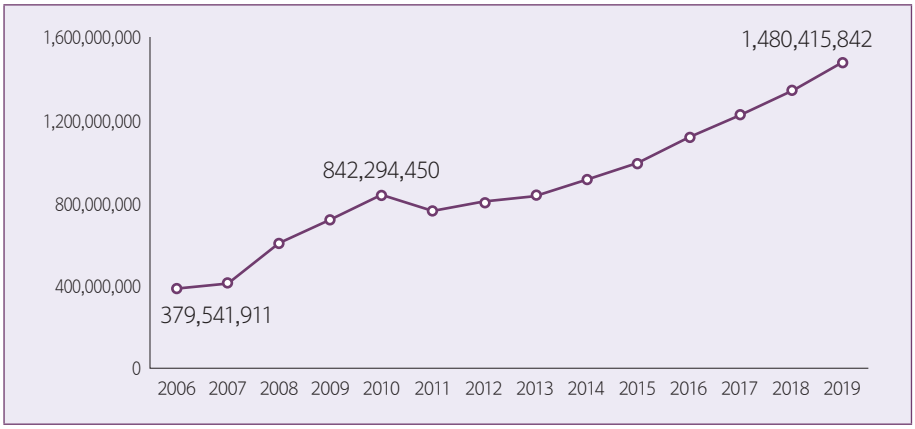
– 이중 의사인력은 2009년 2,377명에서 2019년 3,131명으로 754명이 증가했으나, 전체 의료기관 종사 인력 중 의사의 비율은 2009년 14.3%에서 2019년 11.0%로 오히려 감소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등 5개 지역에서만 의사인력 384명 증가(전체 의사 증가의 51% 차지)함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은 2009년 9,905명에서 2018년 16,960명(간호사 8,541명, 간호조무사 8,419명)으로 2009년 대비 71.2%(7,055명) 증가함

● 이처럼 지역내 의료자원의 불균형, 접근성, 의료인력 등의 격차로 인해 전남도민의 관외 진료비는 2006년 3,795억 원에서 2019년 1조 4,8041억 원으로 약 3.9배 증가함

그림 III-4-8
전라남도 관외 진료비 증가 추이
(단위 : 명, 천원)



주1 : 진료비는 약국을 포함한 금액으로 의료급여도 포함됨
주2 : 지역 이동에 의한 지역별 중복값이 있을 수 있어 시군구 하위 합계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연도별, 재구성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에 따른 응급상황 대처의 한계

● 2019년 12월 기준 전라남도의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3개소, 응급의료기관외의 응급실 운영기관 12개소 등 총 50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이 운영중에 있음

● 한편, 2019년 기준 발병후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이 30분 미만인 환자는 전체의 10% 내외[9]에 불과해 여전히 응급상황발생에의 대응 상황은 미흡함

–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은 도내 응급의료기관의 충분성과 무관하지 않음

표 III-4-11
전라남도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실 운영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외의 응급실 운영기관
전국	521	38	124	240	119
전라남도	50	2	3	33	12

자료 : 보건복지부, 「2019년도 응급의료 통계연보」, p.33.
주1 :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의해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의미함
주2 :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실 운영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응급실 운영기관 또는 야간응급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의미함

● 한편, 권역외상센터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전국 20개소 중 전라남도에는 권역외상센터 1개소만이 운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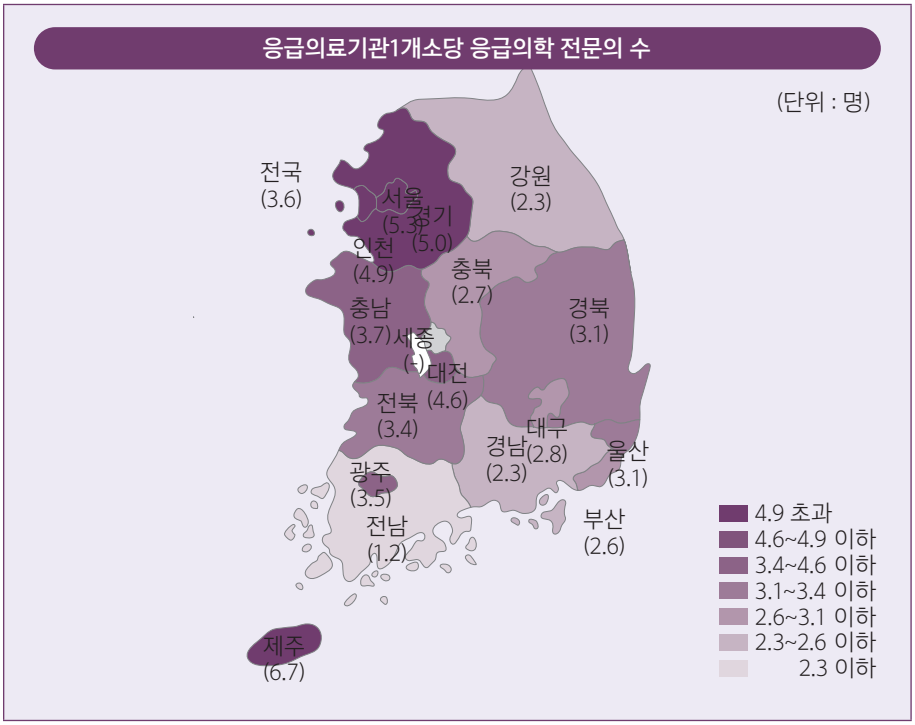
표 III-4-12
전라남도 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선정	지정	선정	지정
전국	20	3	14	-	3
전라남도	1	-	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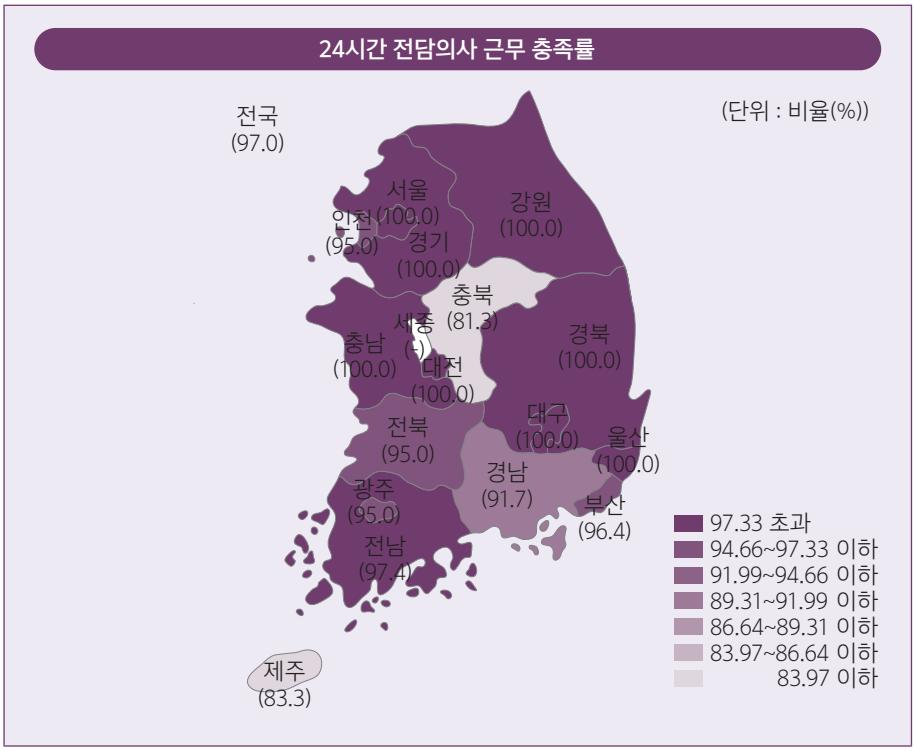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2019년도 응급의료 통계연보」, p.34.
주1 : 권역외상센터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외상환자의 응급의료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에서 지정한 기관
주2 : 전문응급의료센터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 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의 응급의료 기관에서 분야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
주3 : 선정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전문센터 설치지원 사업의 지정조건에 충족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심사를 거쳐 해당 전문센터 지정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해진 기관
주4 : 지정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조건에 충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운영을 허가하는 지정서를 받은 기관

● 지역내 응급의학전문의 수는 2019년 12월 말 기준 30명으로, 인구십만명당 응급의학 전문의수는 1.6명에 불과함[10)]
  – 전국 평균 인구십만명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는 3.9명인데 반해 전라남도는 1.6명으로 큰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2014년과 비교할 때 0.1명 증가에 그쳐 전국 16개 시·도 중 전라남도의 증가폭이 가장 낮음
  –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1개소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 역시 전국 평균 3.6개명인데 반해, 전라남도는 1.2명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저를 기록

그림 III-4-9
전국 시도별 응급의학 전문의 및 전담의사 근무 충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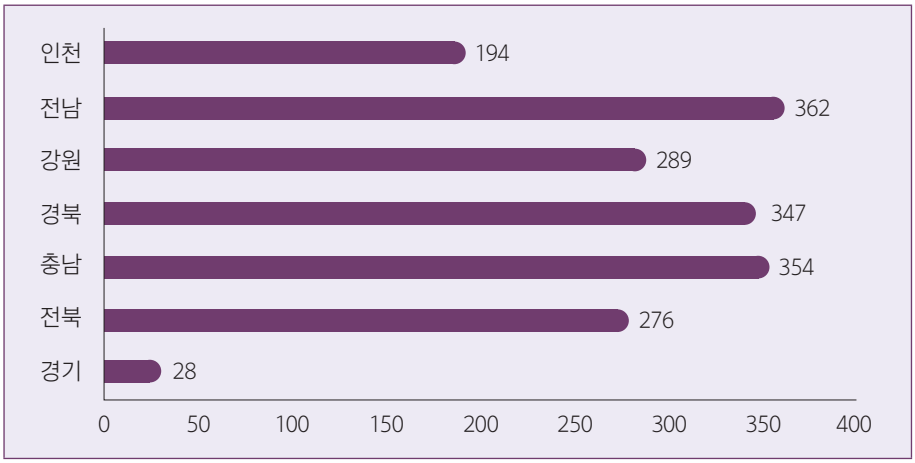
10) 보건복지부, 「2019년도 응급의료 통계연보」, p.26.



자료 : 보건복지부, 「2019년도 응급의료 통계연보」, p.6.

- 2019년 기준 도내 응급실 이용자수는 528,945명 중 60세 이상인 도민은 174,718명으로, 전체 응급실 이용자의 33.0%에 달함
- 전국적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11]의 출동건수는 총 1,850건이며, 이중 전라남도는 362건으로 전체 출동건수의 약 20%를 차지함

그림 III-4-10
전국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동 현황(2019년)



자료 : 보건복지부, 「2019년도 응급의료 통계연보」, p.8.

11)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전북, 경기 등 7개 시도에서 운영 중

감염병 등 위기상황 대응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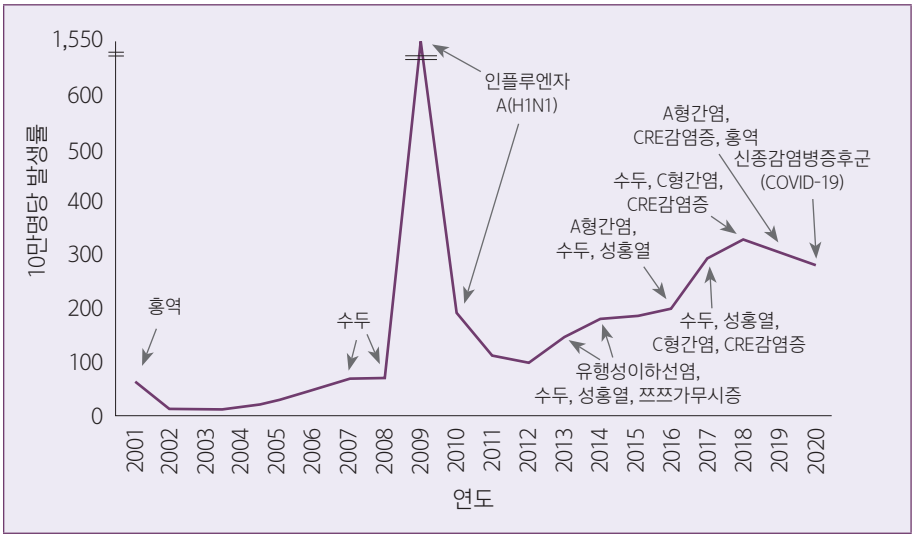
- 감염병 감시연보[12]에 따르면 2020년 범정감염병 신고 환자수는 145,966명으로 인구십만명당 281.6명에 해당함
  - 지난 1960년 인구십만명당 143.4명에서 2020년 281.6명으로 크게 증가함

표 III-4-13
인구십만명당 법정감염병 발생률 추이(1960~2020)

연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10만명당 발생률	143.4	94.9	21.5	14.6	93.9	192.4	114.6	101.3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0만명당 발생률	148.4	181.0	185.7	201.5	295.5	329.1	307.7	281.6

자료 :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2021.8.13.)

그림 III-4-11
인구십만명당 감염병 발생 추이 및 주요원인('01~'19)



자료 :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2021.8.13.)

- 국외유입 감염병은 2010년 이후 매년 400~700명 내외로 신고 되고 있었으나, 2020년에는 5,495명이 신고 되어 2019년(755명) 대비 627.8% 증가함
  - 2020년에 신고된 주요 국외유입 감염병은 신종감염병증후군(97.9%)이고, 일부 뎅기열(0.8%), 말라리아(0.5%), 세균성이질(0.2%) 등의 순임
  - 주요 유입 지역은 아시아 지역(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이 전체의 약 33.2%를 차지하고, 그 외 아메리카, 유럽 지역이 각각 30.0%, 26.1%로 나타남
- 전라남도의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은 2003년 1773명이었으나, 2009년 신종감염병 증후군(신종플루)의 영향으로 24,509명까지 증가했고, 이후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9년과 2020년 COVID-19의 대유행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함
  - 2014년부터는 2종 전염병으로 분류된 유행성이하선염과 수두의 급증으로 법정감염병 발생이 크게 한번 증가했고, 이후 2020년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다시 한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4-14
전라남도 법정감염병 발생 추이('03~'20)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감염병 발생	1,773	1,951	2,359	2,557	2,589	2,178	24,509	3,387	3,104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감염병 발생	3,754	2,268	3,770	4,027	3,507	4,320	4,849	4,036	5,674

자료 : 국가통계포털, 감염병 발생현황, 질병관리청, 2020 감염병 감시연보. 재구성

- 그러나 2020년 6월 기준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13]은 전국적으로 39개 병원 244개 병상이며, 특히 전라남도는 국립목포병원 10개 병상에 불과함

표 III-4-15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현황(2020.6월 기준)

연번	시·도	병원명	음압		일반격리		비고
			1인실	다인실 (인실*개수)	1인실	다인실 (인실*개수)	
1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4	5*3	1	2*4 3*1 6*5	
2		서울대병원	7	-	-	5*2	
3		서울의료원	10	-	-		
4		중앙대병원	4	-	-		
5		한일병원	3	-	-		
		서울아산병원	9				
		고대구로병원	5				
		삼육서울병원	5				
6	경기	국군수도병원	8	-	-		
7		명지병원	11	2*2	1	5*3 4*1	
8		분당서울대병원	14	-	-		
		고려대안산병원	5				
9	인천	인천시의료원	7	-	-		
10		인하대병원	7	-	-		
11		가천대길병원	5	-	-		
12	강원	강릉의료원	1	2*2	-	5*4	
13		강원대병원	6	-	-		
14	대전	충남대병원	8	-	-		
		건양대병원	5				
15	충북	충북대병원	6	3*2	-	5*5	
16	충남	단국대천안병원	7	-	3	3*5	
		아산충무병원	5				

13) 음압격리병상이란 음압격리구역 내 감염병 환자가 입원하는 전실과 화장실을 포함한 병실을 의미함. 병실내부는 지속적인 음압이 유지되며, 화장실은 병실에서 직접진입이 가능하고, 샤워실이 설치되어야 함, 이때 병실의 기압을 복도보다 낮게 설정하여 공기의 흐름이 복도에서 병실로 흐르도록 해야 함

연번	시·도	병원명	음압		일반격리		비고
			1인실	다인실 (인실*개수)	1인실	다인실 (인실*개수)	
17	전북	전북대병원	9	4*1	6	5*1	
18		원광대병원	3	-	-		
19	광주	전남대병원	7	-	-	2*2 4*4	
20		조선대병원	5	-	-		
21	전남	국립목포병원	2	4*2	-	4*10	
22	경북	동국대경주병원	1	2*2	-	7*4 5*1	
23	대구	대구의료원	1	2*2	-	2*2 3*6	
24		경북대병원	5	-	-		
		칠곡경북대병원	5				
25	울산	울산대병원	9	-	2	2*3 6*2	
26	경남	경상대병원	1	2*3	-	4*3 5*3	
		마산의료원	7				
		창원경상대병원	5				
27	부산	부산대병원	5	-	-	4*4 5*1	
28		부산시의료원	5	-	-		
		삼육부산병원	5				
29	제주	제주대병원	7	2*1	-	2*4	
실 총계			224	20(57)	13		
			244(281)		93(337)		

자료 : 질병관리본부(2019),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사업 대상 의료기관(2020.5)

도서지역 주민 대상 의료서비스의 한계

- 전라남도의 11개 시군 166개 도서 중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은 31개 도서이고, 나머지 135개는 무의도서임
- 무의도서 거주 주민의 의료 진료를 위해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으나, 병원선의 노후화로 인해 병원선 내에서의 진료과목과 서비스 수준 등은 한계가 있음
  - 2척의 병원선(동부원 전남 511호, 서부권 512호)에 의사 6명, 간호사 6명, 의료기사 4명, 선박직 11명, 기타 2명이 승선함
  - 진료과목은 의과, 한방과, 치과 등 3개 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단순 진료 이상의 방문진료, 원격의료 등을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의 병원선 현대화 필요

보건소, 보건지소 시설 노후화

- 농어촌, 도서 지역의 주된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주민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한계로 작용
  - 검사장비 노후화 이외에도 누수 등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민의 보건소(보건지소) 이용 만족도 저하
  - 특히, COVID-19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에서의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인력부족,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서비스 품질 개선에 어려움 발생

2. 여건 변화 및 전망

4차 산업혁명과 감염병 위험 증대에 따른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 전망

- 정부는 COVID-19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원격의료[14]를 정규 의료서비스로 편제하기 위한 방안 모색 중
  -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원격진료의 법적·구조적 문제, 환자 안전성, 적정 진료 여부 등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음
  - 그러나 정부는 원격의료 테스트 사업 수행을 위해 강원도를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등 원격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또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도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 구축,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돌봄,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등에 대해 발표함
  -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은 5G·IoT 등 디지털기술을 도입해 입원환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간 협진 등을 가능하게 함
  - 디지털 돌봄은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에 IoT 센서, AI 스피커 등을 보급해 맥박, 혈당, 활동 등을 감지하게 하는 서비스 체계임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공공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및 의과전문대학원 학생을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지만, 미달되는 상황
    - 공중보건장학생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당 등록금 1200만원,

14) 의료법 제34조에서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

생활비 840만원 등 연간 2,040만원씩의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해당 기간만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제도로 2019년 재도입됨
  - 연간 20명 선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년 연속 미달인 상황
- 한편, 최근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보건의료대학의 설치, 의대정원 확대 등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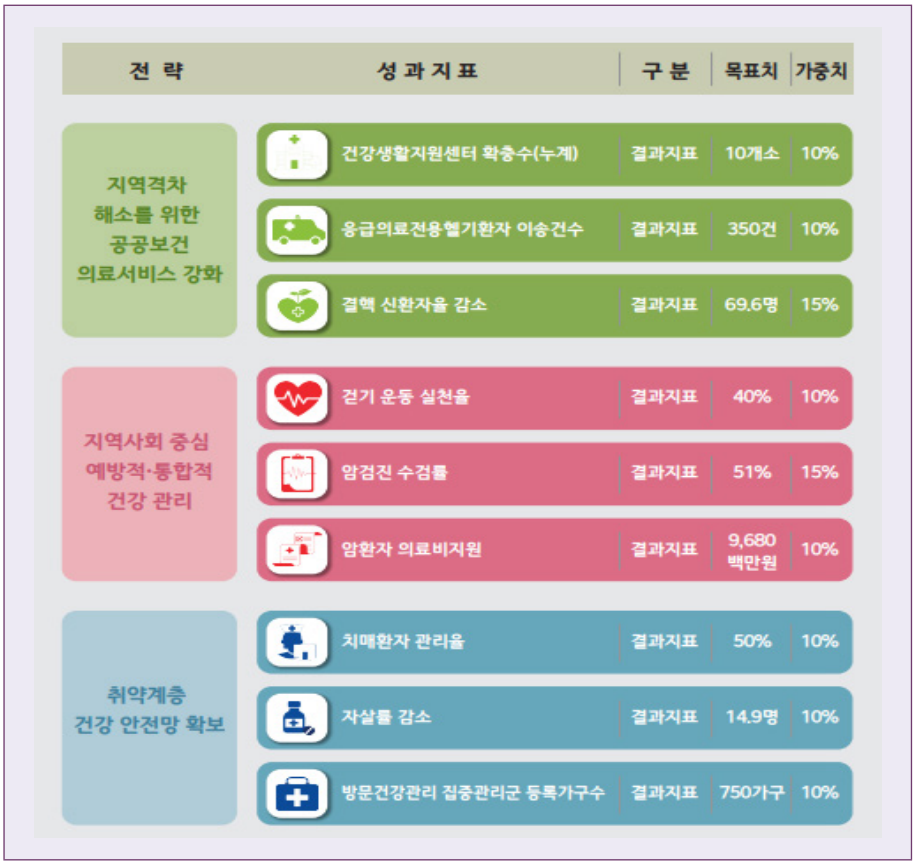
전라남도 블루바이오 전략으로 바이오 메디컬 허브 강력 추진

- 전라남도는 블루 바이오 프로젝트 성공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바이오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2030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함
  - '2030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은 메디컬 자원과 융합해 지속가능한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로, 의약·농생명·해양 바이오를 포괄한 7개 전략사업, 54개 핵심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7개 전략산업 중 백신·헬스케어 비즈니스 거점 구축, 면역세포치료 첨단 생태계 구축,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조성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보건·의료 기술 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을 수립함
    - 백신·헬스케어 비즈니스 거점 구축 : 최근 초고령화와 'COVID-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글로벌 백신시장 확대에 따라,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백신R&D부터 임상, 제품화, 인허가로 이어진 전주기 백신·헬스케어 국가 거점 완성
    - 전면역세포치료 첨단 생태계 구축 : 화순백신산업특구에 유치 추진 중인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과기부, 460억원)'을 중심으로 난치성 특이질환(암, 치매 등) 면역치료 원천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R&D와 인프라를 확충하여 연간 165조원의 세계 시장 선점
    -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조성 : 전라남도의 풍부한 바이오, 메디컬 자원을 융합한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오는 2022년까지 유치. 특히 의료의약·치유를 연계한 의료휴양 복합서비스 플랫폼과 AI, 방사광기속기 등을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원천기술 등에 역량 집중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실천의지

- 전라남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장기 추진과제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확보 등을 선정함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 필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및 건강 위해 환경 개선으로 도민이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 등 체계 구축
  -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 기존의 치료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전환, 지역사회 중심 예방 및 건강관리 내실화로 건강수준 향상
  -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확보 : 건강 취약계층에게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효율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준 향상

그림 III-4-12
전라남도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전략별 중장기 성과지표



전 략	성 과 지 표	구 분	목표치	가중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수(누계)	결과지표	10개소	10%
	응급의료전용헬기환자 이송건수	결과지표	350건	10%
	결핵 신환자율 감소	결과지표	69.6명	15%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 관리	걷기 운동 실천율	결과지표	40%	10%
	암검진 수검률	결과지표	51%	15%
	암환자 의료비지원	결과지표	9,680 백만원	10%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확보	치매환자 관리율	결과지표	50%	10%
	자살률 감소	결과지표	14.9명	10%
	방문건강관리 집중관리군 등록가구수	결과지표	750가구	10%

자료 : 전라남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p.87.

3. 주요 정책과제

1) 기본목표

⬡ 공공의료 강화로 도민 평생 건강보장 실현

- 고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의료욕구의 증대, 만성질환의 고착화, 고급의료에 대한 선호, 보장성 확대 등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
- 아울러 COVID-19 등의 위기 상황과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따라서 단일 건강보험체계에 따른 데이터 집적, ICT 선도적 위치 등의 국가적 강점을 활용해 전라남도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질적 제고와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임

2) 추진전략

⬡ ICT 기술기반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접근성의 한계 극복

- 보건의료 분야는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시스템을 병합하므로 4차 산업혁명에서 큰 잠재력이 있는 분야로 꼽힘

– 과거 정보기술(IT) 등 여러 산업 영역에서 개발된 보건분야의 신기술이 COVID-19로 인해 원격 및 비대면 서비스 산업 개발로 이뤄지면서 디지털헬스케어의 급격한 확대 예상

– 인공지능(AI), 빅데이터분석,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가상·증강현실, 웨어러블 기기, 로봇, 블록체인 등 다양한 첨단 융복합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진단, 예방, 예측, 환자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 급변

● 이미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피트니스 기기와 같은 소비자 기술이 확대됨에 따라 건강 및 피트니스에 대한 세부적 데이터 수집 기술이 상용화되어 개인의 의료뿐 아니라 의학 연구분야에서의 변형 가능성도 확대될 전망

– 헬스케어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표 키워드는 모바일 헬스케어 등 디지털 헬스케어로, 과거에는 헬스케어 서비스 대상자가 환자나 고령인구 위주였으나, 향후 전 국민으로 확대될 전망

– 고령화의 가속화와 만성질환자 수 증가에 따른 공공 및 개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효율성과 효과성 개선을 위한 임상 적용 확대 필요

– 특히, COVID-19 상황의 장기화, 세계적 팬데믹 상황 등으로 인해 그동안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원격진료 서비스(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될 전망

– 이에 도서, 농산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의료서비스 이용 편리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의료격차 완화

● 도내 농어촌 지역 등은 수익성이 낮아 수도권과 대도시로 의료자원이 집중화되고 필수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사망률 등 건강 수준의 격차도 커지고 있는 상황

– 특히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응 등에 대한 지자체 역할은 커지고 있으나, 전라남도의 공중보건의 부족,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등 필수의료 인력 등 공공의료 인프라는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

– 따라서 2019년 12월 출범한 전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활용하여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필수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기능 강화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전 생애에 걸친 예방적 건강투자체계 강화

● 우리나라 사망, 질병, 장애의 주요 원인이 비감염성 질환, 즉 만성질환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갈수록 커지고, 개인의 삶의 질에도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과거의 건강증진 전략 패러다임은 진단과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서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로 전환되고 있음

- 전라남도는 노인인구 비율이 월등히 높고, 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예방이나 선제적 대응보다는 여전히 진단과 치료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음
- 향후 의료, 임신 및 출산, 아동의 발달 단계별 환경, 개인의 생활습관 등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배우고 일하고 즐기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건강관리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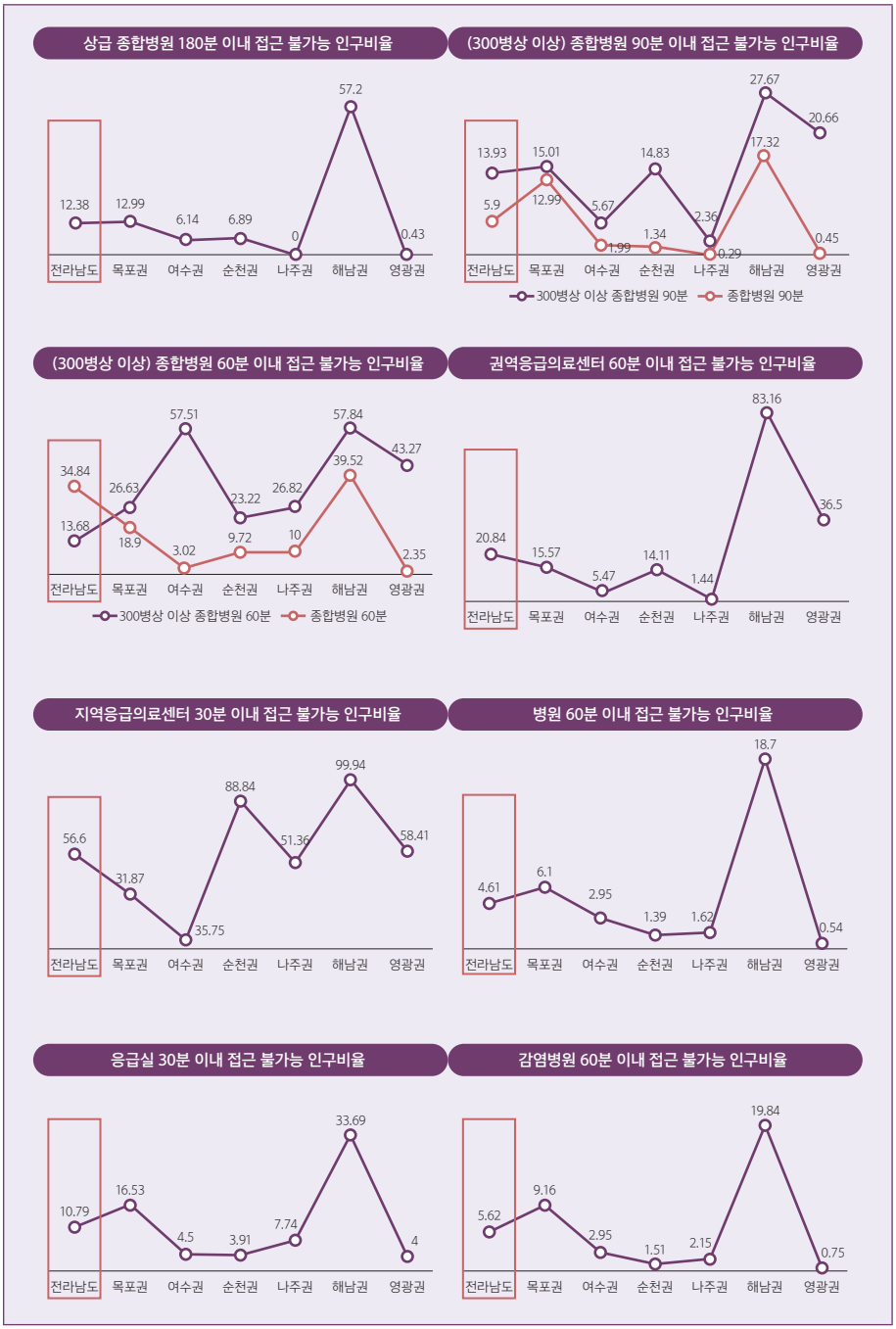
3) 핵심 프로젝트

⬡ 전남형 공공의료 플랫폼 구축

-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보 및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 선제적 대응 강화
  - 넓은 면적과 산림지역, 도서지역 등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물리적 접근성이 낮고, 의료서비스 공급 자원의 시군간 격차 증가로 인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의료 취약지역의 건강 불평등 최소화
  - 공공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포괄케어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의 노후시설 개선 및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해 노령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과의 연계를 통해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전용 헬기(닥터헬기), 지역암센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등의 확대 전략 수립
  - 지역간호사제 도입, 지역 대학 간호학과 등과 연계를 통해 공공병원 간호사 인력 충원을 강화하고, 근무 여건 등을 개선
-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한 공공보건의료계획 지원 및 연계 강화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 공공보건의료 근무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체계 개선 강화
- 지역진료권 간 의료자원 및 의료 질 차이 개선
  - 도서, 농어촌 등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 극복을 위해 구급차, 병원선, 헬기 등 연계망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 수요 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 마련
  - 위급 상황시 적시에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민간 의료기관간 통합·연계할 수 있는 조직 구성
  - 시군 1차의료기관 활용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의료자원 재배치 방안 마련

– 지역진료권 및 시군별 특성에 맞는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한 지자체별 (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중증환자(심뇌질환, 응급외상) 사망률 분석과 진료권 및 시군별 의료자원에 기반한 지역민 건강증진 정책 마련

그림 III-4-13
전라남도 진료권별 의료현황



자료 :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전라남도 진료권 분석(2020년)」

●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 지역사회 내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은 3차 의료기관까지의 연계·협조를 통해 공공의료 중심 의료전달체계 거점 기관의 역할 수행

– 지역사회 통합돌봄-보건소-지방의료원-대학병원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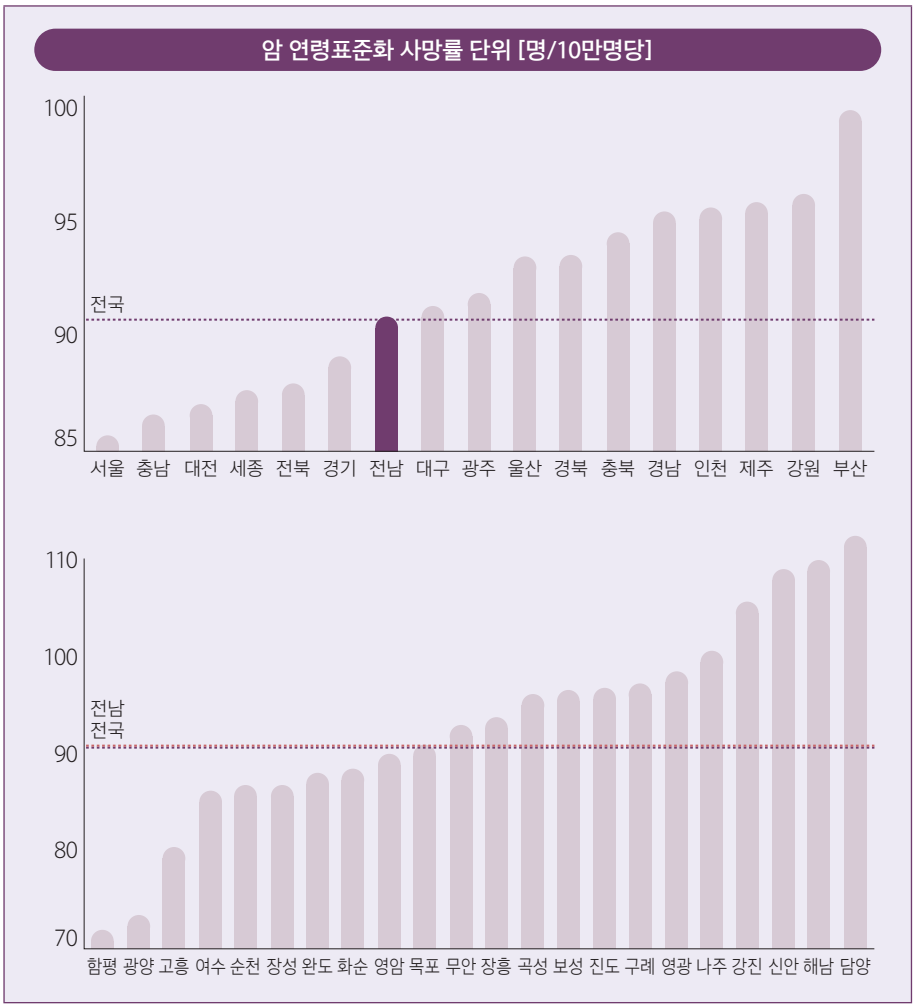
체계 구축으로 보건소를 기점으로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양방향으로 원활한 기능 수행 촉진

–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 등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3차 병원 연계, 1차 의료와의 분담 등을 담은 전달체계 마련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강화

- 암검진 활성화 및 사후관리 강화 전략 마련
  – 전라남도 사망원인 1위인 암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발생의 예방(1차 예방)과 함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2차 예방) 강화를 위해 국가 암검진사업 및 지역암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암 예방 및 검진 홍보, 농어촌·도서지역 이동검진 확대를 통한 암검진 접근성 제고 강화

그림 III-4-14
암연령표준화 사망률



자료 :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암 연령표준화 사망률

–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통해 암 검진 유소견자의 적극적 발굴, 조기 치료 독려 및 의료기관 연계 강화, 보건소 등록을 통한 암 진료비 지원으로 완치율 향상

–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사업 강화를 통한 정기적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자조모임 운영, 호스피스 연계, 소모품 지원 등 서비스 제공 확대
– 전남대학병원, 광주전남지역암센터 등의 연계·협력을 통해 암생존자 통합지지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만성질환관리, 생활습관, 2차암 검진교육 등), 운동, 직업 및 사회복귀 상담 등 통합서비스 제공, 암생존자 관리 전문인력 교육 등 실시로 사후관리 강화

표 III-4-16
전라남도 시군별 암검진 수검율

구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전국	50.1	43.5	48.3	50.4	55.8
전라남도	55.3	48.8	53.5	55.0	57.7
목포시	54.2	51.6	55.8	55.9	60.6
여수시	53.5	49.1	55.2	56.8	59.8
순천시	57.2	52.1	56.4	58.0	61.6
나주시	58.1	49.7	52.9	56.3	57.9
광양시	52.3	47.2	51.5	52.5	56.3
담양군	56.5	48.9	52.0	57.9	56.2
곡성군	53.2	45.1	51.8	56.8	59.5
구례군	58.3	49.4	54.4	54.1	56.5
고흥군	54.8	45.0	52.5	54.0	52.9
보성군	54.2	49.5	50.7	53.4	51.9
화순군	54.9	48.6	58.7	59.0	60.6
장흥군	53.3	47.1	51.6	52.4	55.7
강진군	55.4	50.1	50.3	53.9	51.7
해남군	56.5	48.2	52.8	52.8	55.9
영암군	52.0	47.1	55.5	54.4	58.7
무안군	58.5	48.5	52.4	53.1	55.5
함평군	57.9	44.8	48.5	51.7	55.0
영광군	50.7	47.0	47.1	52.1	56.0
장성군	59.6	50.7	54.6	53.4	56.6
완도군	57.0	44.8	47.8	50.4	52.0
진도군	57.1	42.7	50.7	51.5	54.3
신안군	58.0	47.5	50.8	49.9	53.6

자료 : 국가통계포털, 시군구별 연령표준화 암발생률

● 도민의 만성질환 사전 예방 강화와 건강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체계 구축
– 전라남도 단일질환 주요사망원인 1, 2위인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의 조기 발견 및 관리 강화
– 보건소 기반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 관리사업 추진 및 교육 강화, 혈압·당뇨병 자가관리 프로그램 확대 운영, 일반인 건강지도자 양성·활용 사업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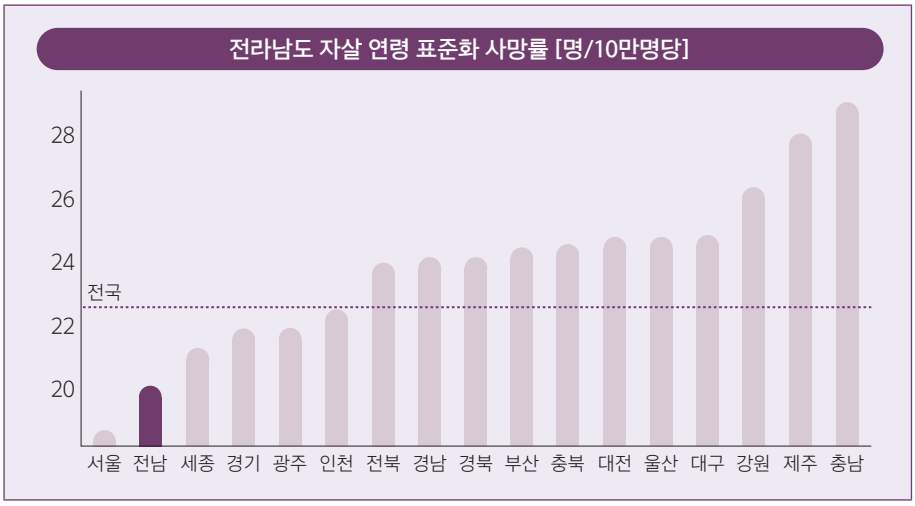
– 당뇨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검사, 신기능 검사 지원, 심뇌혈관질환 및 뇌졸중 조기 증상 홍보 강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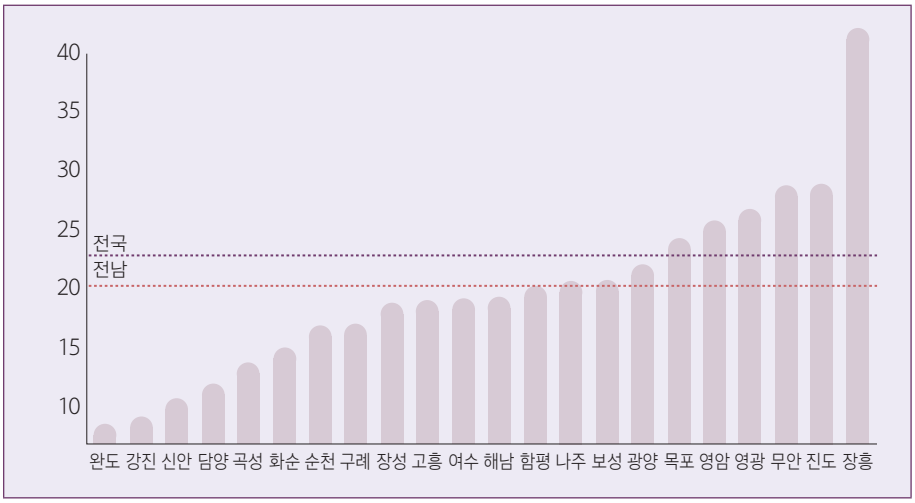
-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 강화
  – 노인, 장애인, 고령장애인 증가로 장기요양 및 재가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로 도민 전체의 건강위협 위해요인으로 작용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지원 실시,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검진 인력 지원 강화, 호남권역재활병원 및 전남권역재활병원간 연계 협력 체계 구축으로 장애인에 대한 공공의료 전달체계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하절기 및 동절기 응급실 감시체계 강화, 생활관리사, 방문간호사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1:1 모니터링 및 수요 맞춤형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 방문건강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맞춤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 지역 영양관리 시스템 강화
  – 1인 가구, 노인가구 등 영양관리 취약계층의 증가로 인해 과체중, 만성질환 등 개인의 삶의 질 역시 저하되는 상황
  – 생애주기별(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영양교육, 건강식생활 환경 조성, ICT 기반 모바일 영양 상담 등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 유도

- 지역사회 정신건강 돌봄 체계 강화
  – 도내 자살에 의한 사망은 1996년 인구십만명당 13.3명에서 2019년 20.1명으로 증가함
  – 자살 예방을 위한 광역 및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역량강화, 정신재활시설 운영 내실화,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등 통합적·체계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강화 필요성 증대
  –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으로 지속적·체계적 지원 및 관리 실시, 중증정신질환자의 체계적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복귀 지원
  – 청소년, 대학생, 지역주민,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등 자살예방 환경 조성

그림 III-4-15
자살 연령표준화 사망률





자료 :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자살 연령표준화 사망률(인구10만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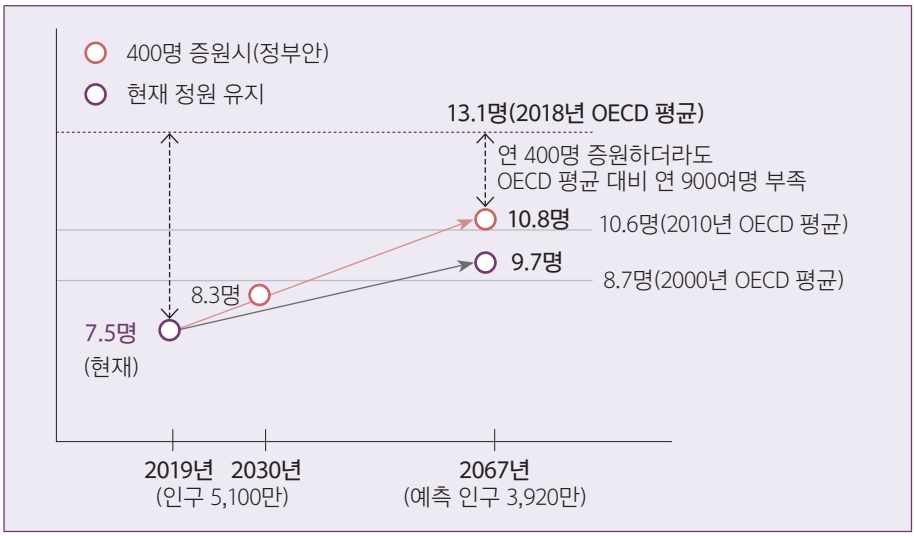
전남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 전남권 의대 신설로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 인력 확보
  -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의사 증원[15]을 계획하고 있으나, 정부안대로 연 400명 증원하더라도 2067년 우리나라 의대 졸업자 수는 2018년 기준의 OECD 평균(13.1명)에 미치지 못하고, 현재도 부족한 의사 수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의사 부족 국가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
    - 통계청의 2067년 인구 중위 추계인 3,920만을 상정하고, 현재 OECD 평균 수준의 의대 졸업생 배출을 목표로 할 경우, 지금보다 1,300명 이상 늘어난 연 5,100명 필요
  -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천명 당 2명 이하의 의사가 분포된 지역은 11곳으로, 의사의 수도권 쏠림 심화로 지역 의사 부족 현상 심각
    - 2018년 기준 전체 의사의 54%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도내 의사 수는 인구 천명 당 1.7명으로, OECD 평균 대비 약 3,200명 부족한 상황
  - 지역의 경제적, 인구구조적, 지리적 특성 등이 의료접근의 용이성과 무관하지 않은 도민의 건강 지표 개선을 위해 부족한 의료 인프라와 의사 인력 확충이 시급
- 양질의 의학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규모의 정원 확보
  - 기초의학, 25개 전문과목, 세부분야 교육 등을 위해 우수한 교수진 확보 및 적정 규모의 의대 정원 확보
- 전라남도의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도하는 의사과학자 육성

15) 2006년 이후 동결된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 3,058명을 3,458명으로 확대. 증원 목적은 의료 취약지역과 특수전문 분야에서 종사할 의사 및 의과학자 양성심뇌 질환, 응급 등 지역의 취약한 중증·필수 의료 담당할 지역의사제를 통해 선발된 의대생은 전공 분야를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하고, 면허 취득후 인턴, 레지던츠 수련기간 4~5년을 포함 10년 동안 지역 내 복무 의무화, 중증외상, 소아외과, 감염 및 역학조사 등 비인기 전문과목 의사 500명, 의과학자 500명 등)(2020.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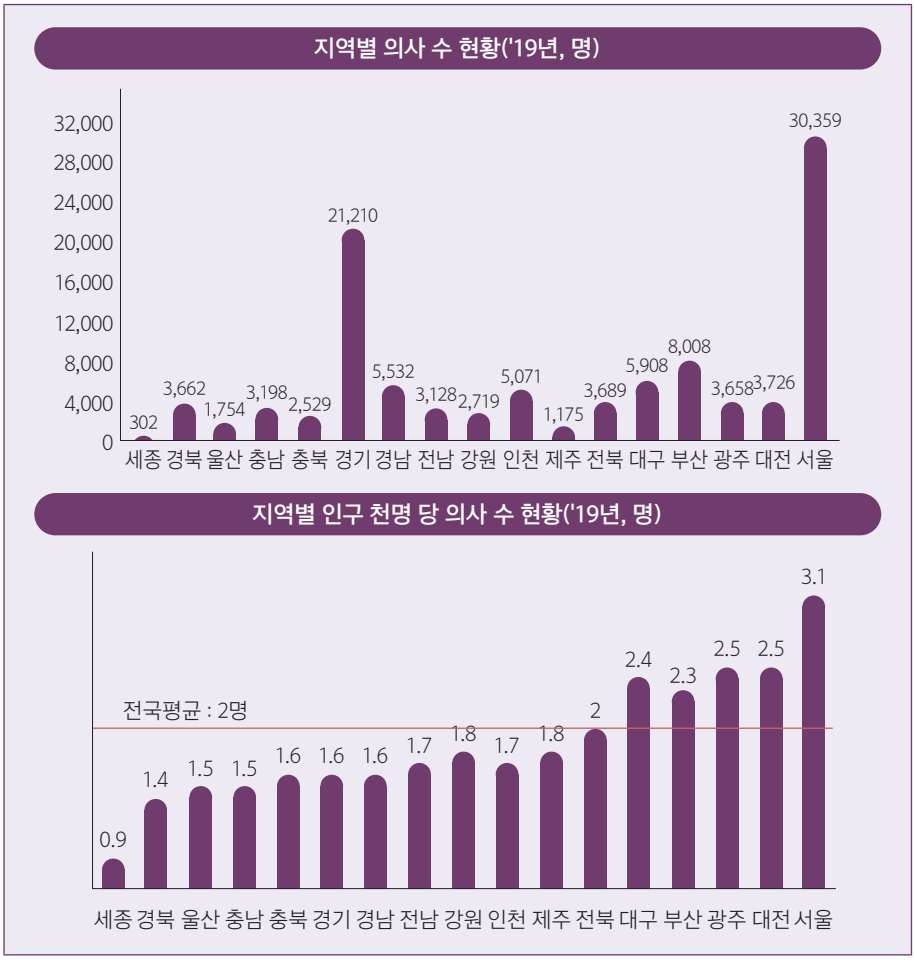
– 전라남도 경제의 발전 동력으로서 첨단의료에 대한 과학기술적 역량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육성
– 광주과기원, 목포해양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지역 특화 대학들과 연계, 융복합 의료기술 개발과 사업화의 임상적 근거지로 육성

그림 III-4-16
2067년 인구 10만명 당 의대졸업생 수 추정



자료 : 황성웅(2020), '공공의료자원 확충과 전남의 의대 육성 방향', 「광주전남 정책 Brief」, p.4.

그림 III-4-17
지역별 의사 수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배포자료(2020.7.23.),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디지털헬스케어 실현

- ICT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인프라 구축 및 선제적 주민건강관리 모델 수립
  - 지역사회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민·관 협력 모델의 개발·적용으로 근거 중심의 건강증진 정책, 사업 추진으로 도민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
    - 서비스 모델 적용을 위한 보건소, 1,2차 민간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 시군 보건의료기관 간 산학연병 협의체 구축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적용 및 지역 내 인프라 연계·활용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기반 조성
  - 개인 맞춤형 건강데이터 정보의 연계와 데이터 기반의 개인건강관리시스템 구축
    - 기 개발된 스마트 기술 활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건강정보 수집 및 저장, 전달 시스템 구축
- 전남형 디지털 보건소 운영 및 인력양성
  -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디지털 헬스 건강관리 요구도 기반의 소생활권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모델 개발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의료취약지 시범사업 등의 적극 추진을 위한 인력 양성
    -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내 디지털 헬스 건강관리 전문 인력 배치
  -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 제공자가 건강상태, 개인특성(행동패턴, 요구도 등)에 따라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및 관리 메시지 전달 등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모델 구축

제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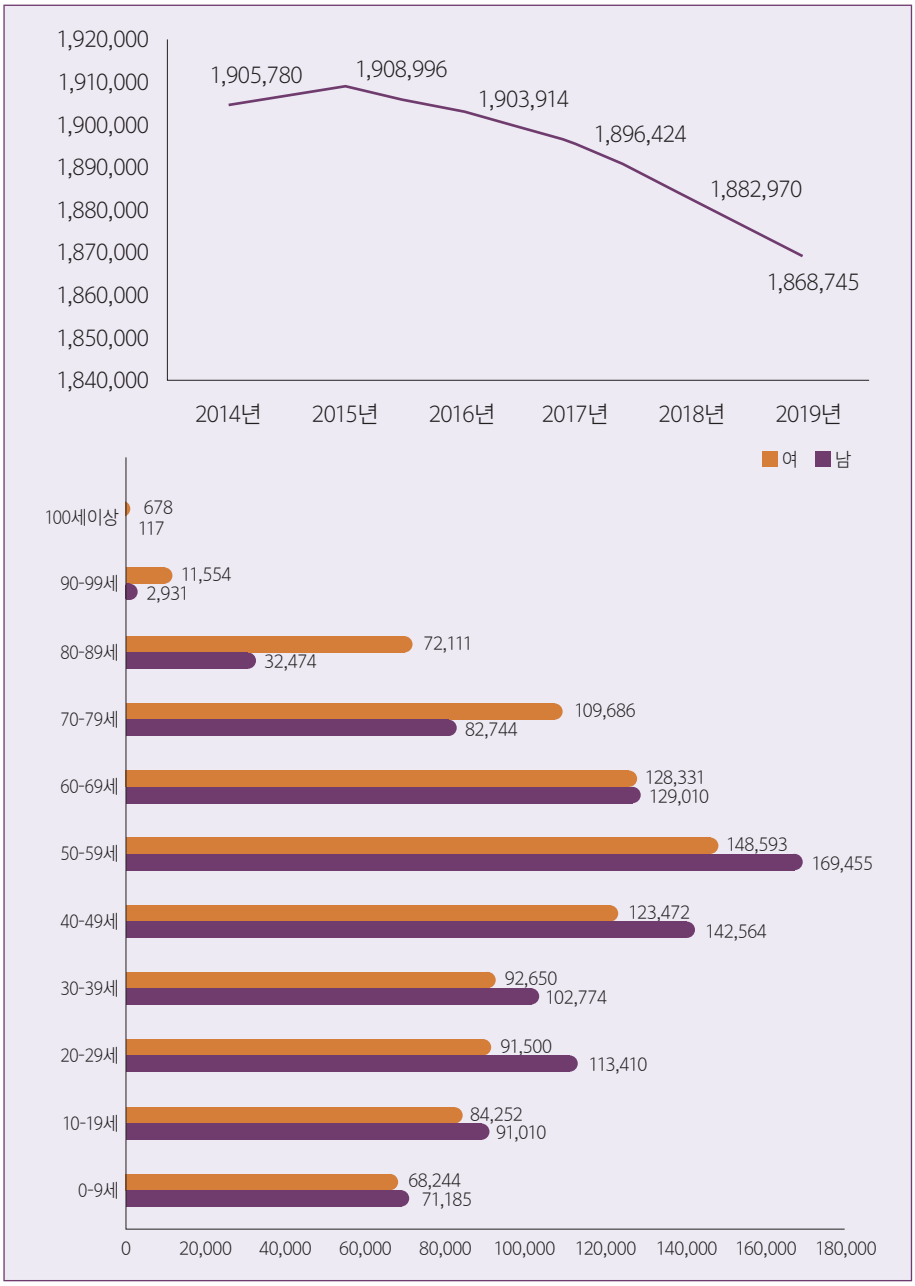
도민의 존엄을 보장하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1. 현황과 문제점

인구감소와 구조변화에 따른 초고령화와 복지대상 증가

- 전라남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전라남도 전체 인구의 23.7%(2020년 기준)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독거노인 가구 비율도 점차 증가해 2021년 기준 25.6%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 지역사회 내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

그림 III-4-18
전라남도 인구추이 및 연령별 인구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2021년 5월 기준, 전라남도의 연령별 인구는 50세-59세가 1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0세-49세 13.9%, 60세-69세 15.1%로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령인구 비율은 시군별로는 고흥군이 41.7%로 가장 높고, 광양시가 13.6%로 가장 낮음
- 순천시·광양시를 제외한 전 시군이 전국 평균 16.7%를 상회하며, 목포시·여수시·순천시·광양시를 제외한 18개 시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

계층별 복지시설 부족과 시설 비중 및 지역 간 공급 격차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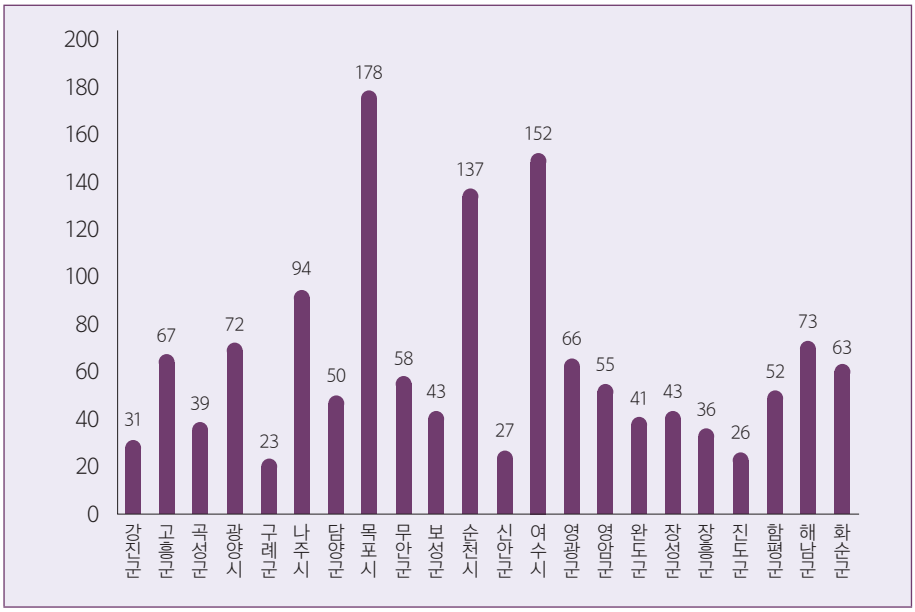
- 전라남도 복지시설은 총 11,705개로, 노인과 아동 관련 복지시설의 비중이 전체의 96.7%를 차지하고 있음
  -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82.3%)과 아동(14.4%), 장애인(1.6%)으로 경상남도, 전라북도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노인, 아동 시설기관이 많고, 장애인 시설 비중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 시설 비율은 42.6%, 아동은 31.3%, 장애인은 13.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는 목포시가 178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수시(152개), 순천시(137개), 나주시(94개) 순으로 나타나, 주요 도시지역과 다른 시군 지역의 공급 격차가 크게 나타남

표 III-4-17
전라남도 사회복지 시설 현황
(단위 : 개, %)

시설유형별 기관수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시설유형별 기관수	합계	11,705	100.0	11,757	100.0	9,345	100.0
	노인(경로당 포함)	9,630	82.3	7,865	66.9	7,182	76.9
	장애인	192	1.6	286	2.4	186	2.0
	아동(어린이집 포함)	1,691	14.4	3,313	28.2	1,762	18.9
	청소년	61	0.5	86	0.7	58	0.6
	저소득	24	0.2	23	0.2	23	0.2
	가족(다문화·한부모)	30	0.3	27	0.2	24	0.3
	기타	61	0.5	125	1.1	93	1.0
	일반	16	0.1	32	0.3	17	0.2

자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2020. 2. 18. 검색.
자료: 어린이집-e나라지표 보육통계, 청소년 수련시설-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현황, 경로당-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참고.

그림 III-4-19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주: 어린이집 및 경로당 제외.
자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2020. 2. 18. 검색.
자료: 청소년 수련시설-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현황(2018년도 기준) 참고.

-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생활시설(주거복지시설+의료복지시설)이 340개,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이 844개로 파악됨
  - 노인생활시설에는 현재 총 8,647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음. 생활시설 형태는 주거복지시설보다는 의료복지시설 형태가 대다수임(91.7%)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노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844개로 이용자 수는 26,318명으로 파악됨. 또한, 여수시(108개), 목포시(101개), 순천시(99개)가 다른 시군에 비해 비교적 많은 시설이 분포하고 있음
- 노인복지관은 총 30개, 경로당은 총 9,047개로 파악됨(전라남도 내부자료, 2019)
  - 노인 천명당 여가복지시설 수는 '16년 17.26개→'17년 16.83개→'18년 16.50개로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18년 기준 전국 평균은 6.08개로,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상황임
-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어린이집 제외), 공동생활 그룹 홈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32개로 가장 많고, 이어 아동 양육시설이 21개,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8개 등 총 63개소가 운영 중임. 시설 정원은 1,906명이며, 현원 1,205명임(2019 기준)
  -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는 '16년 13.6개→'18년 15.0개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전라남도는 '16년~'18년 기간 동안 유아 보육시설 수가 전국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나,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는 여전히 전국 평균 16.2개에는 미치지 못함

표 III-4-18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시설명	개소	시설 거주자		종사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계	63	1,906	1,205	714	630

시설명	개소	시설 거주자		종사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아동 양육시설	21	1,560	979	561	489
아동 보호치료시설	1	40	16	14	11
자립지원시설	1	30	11	3	2
공동생활 그룹홈	32	224	173	96	92
학대 피해아동 쉼터	8	52	26	40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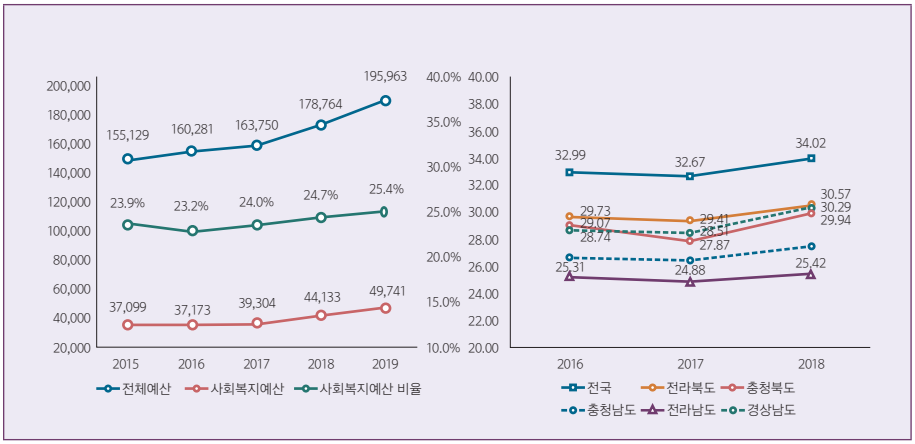
자료: 전라남도 내부자료(2019)

- 장애인복지시설은 2018년 총 58개로, '17년과 비교해 증가하지 않았음. 등록장애인수는 전국에서 6번째로 많지만, 시설 수는 광역지자체 중 18번째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낮은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 전라남도 전체 예산은 '19년 19조 5,963억 원임(일반 17조 4,257억 원, 특별 2조 1,706억 원). 이 중 도 예산은 7조 3,691억 원(37.6%)이며, 시군 예산은 12조 2,271억 원(62.4%)이고, 이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19.1%임. 재정자립도는 '18년 19.8%에서 0.7%하락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낮음(통계청, 2019)
  -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15년 23.9%(37,099백만 원)에서 꾸준히 증가해,'19년에는 25.4%(49,741백만 원) 수준으로 증가함. 기초생활보장, 노인, 보육 등 복지 분야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지난 3년간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 수준은 높지 않음

그림 III-4-20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 / 복지예산 증가수준 타 지역과 비교 그래프



자료: 전라남도 홈페이지(2019), 통계청(2019)

- 지원 대상자별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노인·청소년 분야 예산 수준이 40.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28.1%), 보육·가족 및 여성(20.8%) 순으로 나타남

늘어나는 사회복지수요에 대응한 사회복지 인력 충원

- 사회복지직공무원은 현재 총 1,659명이 배치되어 있음('19년 6월 말 기준). '17년 93명→'18년 184명→'19년 173명으로 인력을 증원해 왔음
  - 전라남도는 서울, 경기도, 경북, 부산에 이어 다섯 번째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2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6년 1,423.0명→'18년 1,161.6명으로 낮아졌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는 '18년 기준 총 24,463명으로 파악됨. 인구 1명당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는 0.0130명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인구 대비 많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를 나타내고 있음
  - 대상자별로는, 어린이집 종사자 수가 11,447명(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노인 관련 시설(경로당 제외) 종사자 수가 9,466명(38.7%)로 나타나, 전라남도 사회복지시설 인력은 85.5%가 노인·아동 관련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전국 타 지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임

2. 여건 변화 및 전망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과소지역 증가

- 전라남도 인구는 2020년 12월 기준 총 1,851,549명으로 전년 대비 17,196명 감소하였으며, 2010년 대비 연 평균 0.03% 감소율을 나타냄.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1.15명으로 전국 평균 0.84보다 높고, 타 시도에 비해 상위를 차지하나 인구대체수준인 2.1명과 OECD 평균인 1.68명 보다는 낮음
  - 출산율 저하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향후 10년 이내 총인구 및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임

초고령화, 1인 가구,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복지대상 지속적 증가

- 전라남도 2019년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는 64,855가구, 87,003명으로 전라남도 인구 대비 4.7%로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임. 반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타 광역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이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 부족이 우려됨
- 저출산 및 고령화의 영향으로 아동 인구 비율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줄고 있음. 넓은 면적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밀도를 보이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아동이 있는 가구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특히, 아동복지관이 설치된 시군이 전무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여가·문화시설 확충이 요구됨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인프라와 인력 확충 필요

- 전라남도의 등록장애인 비율은 전국 최고(7.6%, 2018년 기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백 명당 장애인복지시설 수는 0.10개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 특히, 자원 편중현상으로 일부 시 지역에서만 밀집도가 높고 대부분 군지역은 접근성이 매우 낮아 해소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정신장애인 비율도 2018년 기준 0.3%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지만, 1~2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건강증진기관이 전무한 지역이 대다수로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할 통합 돌봄 체계 구축 필요
- 노인 천 명당 여가복지시설 수는 2018년 기준 16.5개소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지만 돌봄, 의료, 소득 등 다방면의 사회보장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다양성, 충분성, 접근성 측면에서 부족한 상황
  -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 인구 비율 상위권인 고흥군, 보성군, 함평군, 신안군, 곡성군에는 방문간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 재가복지시설이 전무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시니어클럽 운영도 이뤄지지 않는 곳이 대부분임.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생활 시설 확충 필요

지역간 복지격차 확대 및 사각지대 발생

- 전라남도는 전국 486개 유인도서 중 277개(약 57%)가 밀집한 대표적 도서지역으로 전라남도 인구 대비 약 9.6%가 섬에 거주하나 육지 및 도시 중심으로 설계된 복지 전달체계로 인해 각종 복지시설 및 서비스 부재 등 복지 기본권에서 소외되고 있음
  - 섬 주민 대상 복지욕구 조사 결과에서도 보건의료, 교육,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 섬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절실

3. 주요 정책과제

1) 기본목표

도민의 존엄을 보장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삶이 가능하도록 촘촘하고 안정적인 건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2) 추진전략

미래사회 대응 지역복지정책 전환체계 구축과 운용

- 초고령사회 진입, 저출산 등으로 향후 10년 이내 총인구 및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지방소멸 위험 가시화

- 미래 성장동력 위협요소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필요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조성으로 미래세대가 자라나는 지역사회 환경 구축

계층과 지역에 따른 복지격차 해소와 보편적 복지 강화

- 노인과 아동 중심의 복지시설과 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프라 및 인력, 서비스 제공
- 전국 유인도서 중 60% 가량이 전라남도에 밀집해 도서 및 산간 등 지리적 복지 사각지대 비중이 높은 편으로 병원선 운영, 섬주민 생활불편 해소 사업 등 도서 및 산간지역 복지 서비스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모색 필요
- 섬주민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문화 및 교육여건 불만족이 높고, 문화·체육 관련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등을 통해 문화·여가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도서 및 산간 지역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생활안전망과 공동체 기반의 계속 거주 지원

- 전라남도의 노인인구, 등록장애인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노인·장애인의 돌봄 수요가 높음
-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등에게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 지역내 돌봄 수요자들이 자립 혹은 돌봄 생활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연속적 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필요
- 돌봄의 생활안전망 구축으로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가 가능한 환경 조성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복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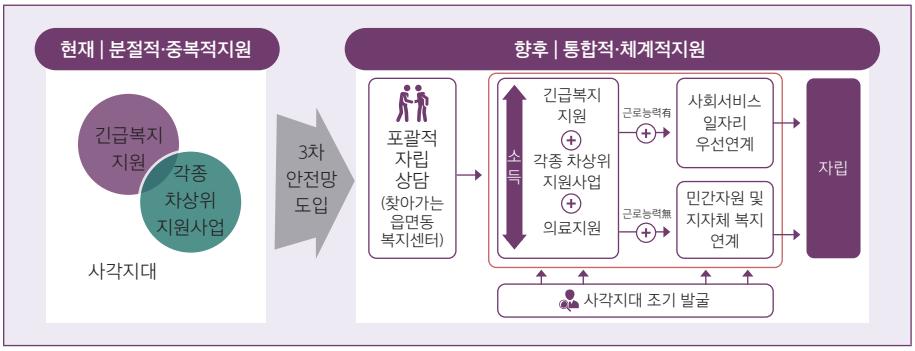
- 고령화, 장애, 빈곤 등 취약한 지역사회 경제 여건으로 인해 공공부조만으로 기초생활 보장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가 높음
- 도내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작지만 강한 복지 지원 시책 확대 필요
- 지역 내 노인 및 장애인 고용 확대, 취약계층 주거 지원, 전라남도 농어촌 특화형 자활사업 등 자립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 강화
- 중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노인학대 전수조사 등 장애인, 빈곤층 지원 등 촘촘하고 체감적 지원 확대

3) 핵심 프로젝트

전라남도 농산어촌의 격차 없는 복지기반 구축 및 운영

- 도서 및 산간지역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복지인프라와 복지서비스에 결핍이 없도록 전라남도 어디서든 일정 수준의 복지를 향유하는 기반과 체계 마련
- 전라남도는 도서 및 산간지역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균형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국 3,000여개 섬 중 2,165개가 전라남도에 위치하며, 전국 486개 유인도서 중 277개(약 57%)가 밀집
  - 도서지역 특성상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산어촌, 과소화마을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정적 복지인프라 구축과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함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나 경로당 위주로 시설 구성이 다양하지 않으며, 노인일자리 기관의 경우 미설치 지역도 있어 지속적인 공급 필요
  - 부모들은 국·공립시설을 선호하나 어린이집의 14%(이용률 17%)에 불과하여 수요에 부합하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부족
  - 장애인복지시설 중 보호작업장이 발달하였으나 도내 미설치된 지역이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센터 등이 설치되었으나 평생교육시설은 매우 부족함
- 지역 복지수요계층의 욕구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행정지원 체계를 인구구조변화에 맞춰 설계하고 운영
  - 도민의 복지 필요와 욕구에 따라 지원사업을 체계화하고, 통합지원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가야 함

그림 III-4-21
지역복지 지원체계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고도화

- 도민이면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서 돌봄과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생활단위 재가복지와 돌봄 시스템을 정착
  - 정부는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를 4대 핵심중점과제로 제시
  -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보편적 돌봄이 가능하도록 전남형 커뮤니티 케어 환경과 정책을 고도화

- 돌봄과 일자리, 지역자원이 선순환하는 구조의 지속적인 모델발굴을 통해 다양한 지역환경에서도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하도록 복지서비스 고도화를 지향
  - 케어안심주택을 포함한 주거, 방문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등 보건의료, 재가장기요양과 돌봄서비스, 스마트 홈 등 복지·돌봄 등 주요 서비스 고도화
- 고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등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들을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자립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포괄적, 연속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시책 마련이 중·장기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함
- 전라남도의 노인 인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가장 빨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장래 고령인구 추계를 살펴보면 2020년 22.9%, 2025년 27.2%, 2030년 32%로 점차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2045년에는 45.1% 이상이 될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지역 소멸 위기감 마저 고조됨
  -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돌봄 수요가 매우 높아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등에게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 지역사회에 거주 가능한 돌봄 수요자들이 자립 혹은 돌봄 생활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연속적 서비스 제공 가능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필요
  -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 치매노인 재가방문돌봄 제공, 치매 안심마을 추진과 함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을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

⬡ 지속가능한 복지와 다양성에 기반한 사회보장 기반 마련

- 인구과소지역과 초고령사회에 어울리는 사회복지 전환 사업
  - 향후 10년 이내 총인구 및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지방소멸이라는 지속가능성 위기 가시화
  - 미래 성장동력 위협요소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조성으로 미래세대가 자라나는 지역사회 환경 구축
  - 분만취약지 도서 및 산간지역 대상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및 운영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
- 다양한 가정 지원 및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복지 정책 실현
  - 한부모·미혼부모·조손·입양·다자녀·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정 형태가 증가 추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차별 없이 건강한 가족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가족 안정성 강화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채용 지원,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모자가족 복지시설퇴소자 자립정착지원금 지원 등 취약·위기가정 경제적·정서적 자립역량 강화를 시작으로 수요와 필요에 따른 지원 확대

선순환형 전라남도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 도시·도농복합·농산어촌 공존형 전라남도 복지전달체계 구상
  – 도시·도농복합·농산어촌이 공존하는 전라남도의 사회보장체계 확립을 위해 다양한 주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남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속 확충으로 주민 개인별 욕구에 맞춘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강화를 지향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
  – 지역사회 민·관협력 복지 거버넌스 구축,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등 전남형 복지 브랜드 개발 및 전달체계 구축 중점 추진으로 지역의 복지 능력 강화
- 민관협력 복지거버넌스를 통한 복지전달체계 항상성 확보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 필요.
  – 사회서비스기반, 노인 일자리 등의 적극적인 발굴과 자원 매칭을 통해 안정적인 협력형 복지전달체계 기반 마련
  – 지역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복지거버넌스 주체를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복지거버넌스 아젠다 등이 발굴, 실천되도록 구상

제4절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스마트 재난대응체계 구축

1. 현황과 문제점

자연재난피해 현황

- 최근 5년간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액은 총 2,691억여원으로 호우피해가 2,163억여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80.4%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태풍피해가 435억여원으로 16.2%를 차지
  -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고, 호우피해는 2020년 여름철 집중 호우 등으로 구례 등 동부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
  - 대설, 지진, 풍랑 등으로 인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향후 대형 재난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 대비책이 필요

표 III-4-19
전라남도 자연재난발생 원인별 피해 현황 (2016~2020)
(단위 :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합 계	11,958,267	148,416	20,205,812	19,519,371	217,253,511	269,085,377
태 풍	6,747,595	-	15,027,708	19,497,171	2,241,376	43,513,850
호 우	-	148,416	1,222,560	21,300	214,867,226	216,259,502
대 설	4,991,426	-	-	-	144,909	5,136,335
강 풍	-	-	-	-	-	0
지 진	1,200				-	1,200
풍 랑	218,049			900	-	218,949

자료 :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사회재난피해 현황

- 최근 5년간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 피해 건수를 보면, 교통사고가 49,997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68.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화재건수가 13,169건으로 18.0%를 차지
  - 해양사고는 전체 사고 건수의 4.0%에 불과하지만 바다가 넓고 섬이 많은 지역 특성상 타지역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전라남도 해양사고 건수는 5년간 총 3,446건으로 전국 17,001건의 20.3%를 차지. 이는 그다음인 경남의 2,335건보다 1,111건이 많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6%p 높음

표 III-4-20
전라남도 사회재난발생 원인별 발생 현황 (2016~2020)
(단위 : 건)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합 계	13,744	14,694	14,471	15,602	14,737	73,248
화 재	2,454	2,963	2,635	2,645	2,472	13,169
산 불	23	33	39	37	36	168
붕 괴	3	1	19	19	154	196
도로교통사고	9,558	9,833	9,840	10,950	9,816	49,997
환경오염	5	10	10	6	18	49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유·도선	5	3	4	1	2	15
수 난	57	140	203	200	676	1,276
해 양	507	635	698	920	686	3,446
기타사고	1,132	1,076	1,023	824	877	4,932

자료 :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전국 도 단위 지역안전지수 현황 비교

- 전라남도의 지역안전지수 등급은 타 도단위 지역과 비교하여 대체로 취약한 수준임
  - 교통 분야는 3년 연속 5등급, 화재와 감염병은 5등급, 생활안전 3등급으로 취약
  - 범죄, 자살 분야는 2020년 2등급으로 양호한 편임

표 III-4-21
전국 도 단위 지역안전지수 현황

구 분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경기	1	1	1	1	1	1	4	4	3	1	1	1	1	1	1	1	1	1
강원	3	3	3	4	3	4	4	3	4	3	4	4	4	4	5	4	5	4
충북	2	2	3	5	3	3	3	4	4	3	3	3	3	3	3	3	3	2
충남	3	4	4	3	3	4	3	3	3	4	4	4	5	5	4	3	3	3
전북	4	3	3	3	4	3	2	2	1	2	2	2	4	3	4	3	3	3
전남	5	5	5	4	4	5	1	2	2	4	3	3	3	2	2	4	4	5
경북	4	4	4	3	2	2	2	1	2	3	3	3	3	3	3	5	4	4
경남	2	2	2	2	5	3	3	3	3	2	2	2	2	2	2	2	2	3
제주	3	3	2	2	2	2	5	5	5	5	5	5	2	4	3	2	2	2

자료 :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전라남도 시군 지역안전지수 현황

- 교통사고 : (1등급, 우수) 완도, (2등급, 양호) 신안
- 화재 : (2등급, 양호) 구례, 영광
- 범죄 : (1등급, 우수) 신안, (2등급, 양호) 나주, 곡성, 함평, 영광, 장성
- 생활안전 : (1등급, 우수) 무안, (2등급, 양호) 광양, 구례, 화순, 해남, 영암, 영광, 장성, 완도, 신안
- 자살 : (1등급, 우수) 담양, 완도, 신안, (2등급, 양호)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고흥, 화순, 강진, 함평, 장성
- 감염병 : (1등급, 우수) 영암, (2등급, 양호) 광양, 구례, 화순

표 III-4-12
전라남도 시군별 지역안전 지수 현황(2020)
(단위 : 등급)

구 분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목포시	3	3	5	3	3	4
여수시	4	4	4	3	2	3
순천시	4	4	4	3	2	3
나주시	5	4	2	4	3	5
광양시	4	4	3	2	2	2
담양군	3	3	3	3	1	4
곡성군	4	3	2	4	2	5
구례군	4	2	4	2	4	2
고흥군	4	4	3	3	2	5
보성군	5	5	3	3	3	4
화순군	3	3	3	2	2	2
장흥군	4	4	5	3	5	4
강진군	3	4	4	3	2	5
해남군	4	3	4	2	3	5
영암군	3	3	4	2	3	1
무안군	3	4	3	1	3	3
함평군	4	3	2	3	2	4
영광군	3	2	2	2	3	4
장성군	3	3	2	2	2	4
완도군	1	5	4	2	1	3
진도군	5	4	4	3	5	5
신안군	2	4	1	2	1	4

자료 :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주요 재난 발생 현황

-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20년 기준 인구 만명 당 53.02건으로 2019년 58.20건보다 감소하였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
- 화재 발생건수는 2020년 기준 인구 만명당 13.35건으로 2016년 12.89건보다 증가하였지만 다소 감소하는 추세
- 5대 범죄 발생건수는 2020년 기준 인구 만명당 84.87건으로 2016년 92.82건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
- 구급 발생건수는 2020년 기준 인구 만명당 73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감염병 발생 건수는 25.01건으로 감소 추세
  – COVID-19로 인해 2020년 이후 감염병 발생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자연재해 피해액은 2020년 호우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

표 III-4-23
전라남도 주요 재난 발생 변화(2016~2020)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교통사고 발생건수(건/만명)	49.92	51.52	51.98	58.20	53.02
화재 발생건수(건/만 명)	12.89	15.62	13.99	14.15	13.35
산불발생건수(건/10,000㎢)	18.67	26.75	31.60	29.97	29.15
5대 범죄 발생건수(건/만 명)	92.82	83.67	84.13	89.07	84.87
구급 발생건수(건/만 명)	582.40	632.41	697.22	739.80	731.60
자살 사망자수(명/만 명)	2.95	2.50	2.79	2.53	2.84
감염병 발생건수(건/만 명)	39.77	48.34	48.64	39.95	25.01
자연재해 피해액(천 원/1㎢)	970.73	12.03	1636.95	1581.13	17594.08
화학사고(건)	5.00	10.00	6.00	2.00	6.00
질병 및 사망외인 사망자수(명/만 명)	8.55	8.01	7.88	7.27	8.10

자료 : 통계청, 경찰범죄통계, 소방통계연보 재구성

⬡ 재난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확대

- 기후변화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과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생활안전 등 사회재난위험에 지속 노출
  - 전라남도는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안전 취약지역(지역안전지수),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노출 지역
  - 지역 특성상 재난 약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많은 재난안전 취약계층 분포
- 재난환경의 불확실성, 대형·복합·신종재난 대응, 안전문화·교육·홍보, 일상적 안전위험요인에 대비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요구 확대
  - 특히 전라남도의 지형, 기후, 대응역량을 고려한 재난이슈 대응 체계 구축 필요
  - 지역사회 스스로가 지역의 재난안전 문제 및 이슈 분석과 스마트 기술 활용을 통한 신속한 광역방재시스템 구축으로 문제 해결 능력 확대

2. 여건 변화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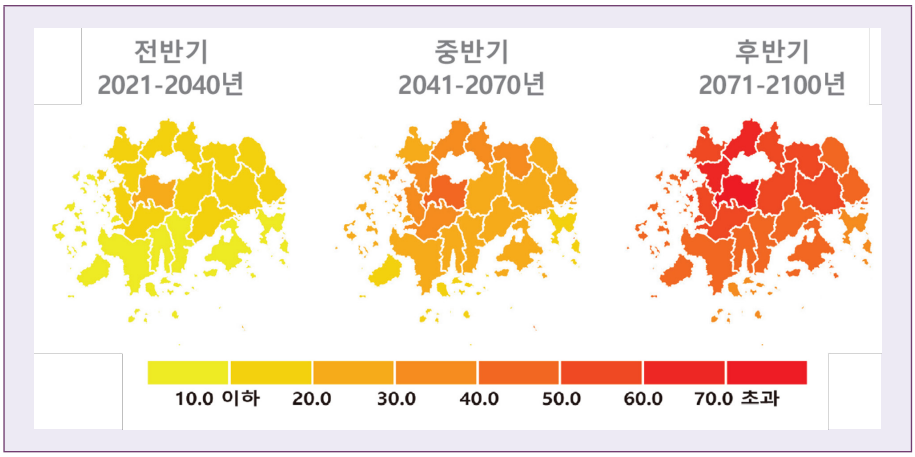
⬡ 자연 및 사회재난, 안전관리와 관련한 주요 여건변화 및 전망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의 대형화,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발생 가능성 증가
- 방사능, 미세먼지, 홍수, 지진, 화산 등 복합재해발생 및 월경성 물질 확대 우려
- 노인,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 등 다양한 안전취약계층 증가
- 안전, 행복 등 도민의 질 높은 환경과 안전권리 요구 확대
-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재난안전기술 발달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일수 변화

-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인 RCP8.5 시나리오에서 전라남도의 폭염일수는 2001~2010년 기준 8.5일 대비 21세기 중반기(2041~2070년) 19.1일 증가한 27.6일, 후반기(2071~2100년)는 42.9일 증가한 51.4일이 될 것으로 전망
  - 전라남도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폭염일수가 1.7일 더 적은 상황이지만 RCP8.5의 경우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는 전국 평균 대비 폭염일수가 15.9일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
    * 전국 평균 폭염일수 변화 : (2001-2010년) 10.2일 → (2071-2100년) 35.5일(25.3일) 증가
- RCP 8.5시나리오상 21세기 후반기 전라남도 내 폭염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나주시(70.1일)로 나타남. 전라남도 내 각 시군의 기온 상승폭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 발생일수가 많은 지역에서 21세기 후반기에도 많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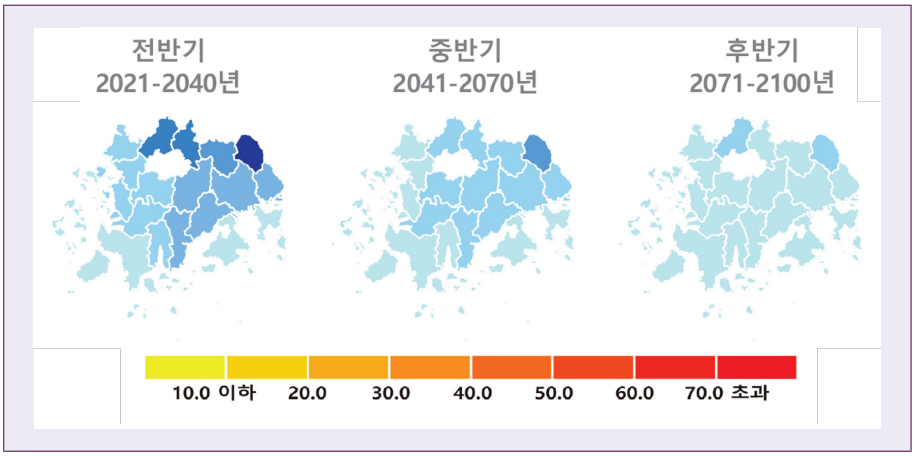
그림 III-4-22
전라남도의 폭염일수 전망 (RCP 8.5 시나리오)



자료 : 2018 전라남도 기후변화 전망분석서

-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인 RCP8.5 시나리오에서 전라남도의 한파일수는 2001~2010년 기준 0.8일 대비 21세기 중반기에 0.6일 감소하여 0.2일, 21세기 후반기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전라남도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한파일수는 4.2일 더 적음. RCP8.5의 경우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는 한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평균 한파일수 변화 : (2001-2010년) 5.0일 → (2071-2100년) 0.0일(5.0일 감소)
- RCP8.5시나리오상 21세기 후반기 전라남도 내 한파일수가 많은 지역은 구례군(0.2일)으로 나타남. 구례군과 장성군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한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전라남도 내 각 시군의 기온 상승폭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 지수가 높은 지역에서 21세기 후반기에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그림 III-4-23
전라남도의 한파일수 전망 (RCP 8.5 시나리오)



자료 : 2018 전라남도 기후변화 전망분석서

방사능, 미세먼지, 홍수, 지진, 화산 등 복합재해발생 및 월경성 물질 확대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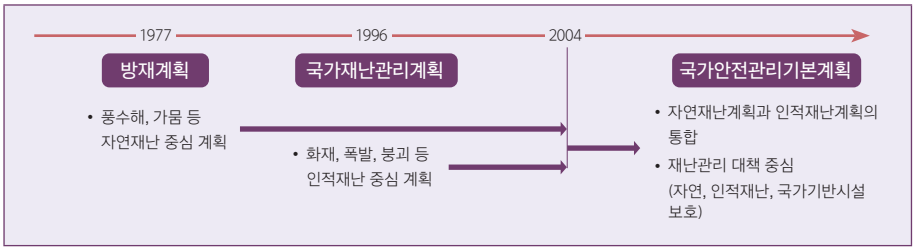
- 기후변화로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와 기술의 고도화, 도시환경의 복잡화로 자연재해의 영향이 사회적 재난을 유발하는 대형복합재난의 문제 발생
  - 자연-인간, 사회-인간 등 재난발생 구조에서 재난이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재난유형간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 2차원적인 복합재난 형태로 변화
  - 대형복합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측 가능한 범위 밖의 거대한 규모로 전개되는 재난
  - 대형복합재난은 위험의 내외부적 경계를 초월하고 경험하지 못한 재난으로 기존의 재난관리방식과 다른 새로운 재난관리방식 필요
  - 지진, 해일, 태풍 등의 자연재난, 교통사고, 화재 등의 사회재난과 달리 대형복합재난은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 복구 및 갈등관리과정 요구
- 한 국가의 환경오염이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월경성 환경오염 사례는 점점 증가
  -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비롯해 기후변화 문제 등이 월경성 환경 문제이자 그 피해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보다는 기후변화 대응이 취약한 저개발 국가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사례
  -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온실가스에 대한 마땅한 국제적 대책 전략을 세우지 못한 채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인 문제가 결부되면서 더욱 복잡한 관계 형성

노인,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 등 다양한 안전취약계층 증가

- 안전취약계층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위험인자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입기 쉽거나 받은 피해로부터 복구행위가 어려운 사람 또는 계층을 말함
  - 재난약자들은 신체적·정신적·물질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어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그 타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다른 일반인에 비해 더 클 수밖에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저감 노력 경주
  -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1995년까지 주로 풍수해, 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방재계획을 수립·시행했으나 1990년대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 인적재난이 빈번해짐에 따라 1996년부터 2004년 재난관리법에 따라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대구지하철 사고 등 초대형 재난이 발생하자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재난관리전담 중앙행정기관인 소방방재청 신설
  -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포괄하는 통합적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그림 III-4-24
2004년 전후 재난관리계획체계



자료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안전, 행복, 삶 등 도민의 질 높은 환경과 안전권리 요구 확대

- 안전권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영위할 중요한 기본권
  - 안전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제적 기본권이며,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함
  - 우리나라 헌법에는 안전권이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안전권은 우리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
-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갖춘 환경을 가질 권리(환경권) 실현에 대한 요구 증가
  - 환경권은 지난 1980년 제8차 개헌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환경법은 1963년 공해방지법 제정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발전에 따라 발생한 각종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양적·질적으로 확대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재난안전기술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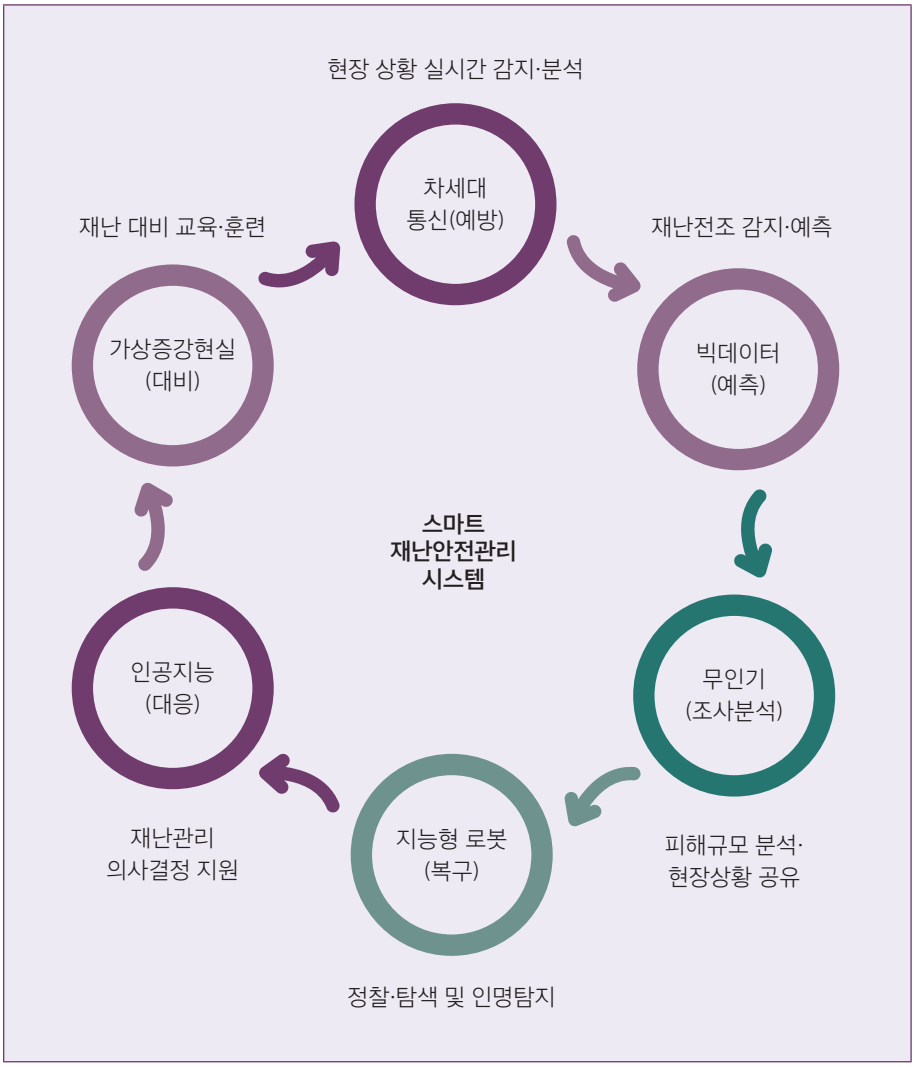
- 정부는 혁신성장동력 기술들을 활용해 재난관리 단계별로 스마트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과제를 추진
  - 빅데이터 기반 재난전조 감지 및 예측, 사물인터넷(IoT) 등 차세대 통신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실시간 감시, 가상·증강현실 기반의 재난대비 실증형 교육·훈련, 인공지능 기반의 실질적인 재난현장 의사결정 지원, 지능형 로봇 등을 활용한

인명 탐지, 정보 탐색 등 복구지원, 무인기·위성을 활용한 현장대응 지원 및 사고조사 등 상황공유 분석 등

- 앞으로 혁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전주기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 가속화
  - 4차산업혁명기술 기반 재난안전의 획기적 도약 전망

    *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 로봇,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등

그림 III-4-25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행정안전부)



3. 주요 정책과제

1) 기본목표

탄력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지대 구현

- 재난에 대응한 선제적 예방기반 구축

-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
-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난유형별 맞춤형 대응시스템 구축

2) 추진전략

⬡ 단계별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핵심역량 강화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 예방(홍보, 재난/안전관리 교육, 재난유형별 저감 활동, 시설물 안전성 확보), 대비(재난대비 협력체계 구축·운영, 재난대응 활동 문서관리, 재난대비 훈련, 재난자원관리, 위기관리), 대응(재난정보관리, 재난상황관리, 비상대응기구 구축·운영, 주민보호, 위기관리 소통, 재난현장 대응관리, 재난현장 수습), 복구(재난복구관리, 지역사회 복원) 등
- 단계별 재난관리시스템 구동을 위한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
  - 재난관리 기획, 재난관리 행·재정관리, 법·제도 기반체계 구축, 재난·안전관리 연구 및 산업 육성, 리더십 등 재난 관련 핵심역량 강화

⬡ 재난에 대응한 선제적 예방기반 구축

- 재난 관련 빅데이터(B-data) 활용을 위한 재난징후 정보센터 운영·관리
  -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재난징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기반정보를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
  - 재해에 대한 취약(위험)시설, 지역, 계층 등에 대한 D/구축 및 재해위험지역정비,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재난 취약지역·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경보체계의 도입
  - 재난 취약지역·시설물 등에 모니터링·경보(CCTV)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전라남도는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넓은 산림면적을 보유, 산불로 인한 피해가 전국대비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초기에 인지 및 대응, 그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경보체계 도입

⬡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

- 재난·안전에 대한 긴밀한 협조시스템의 강화
  -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해 재난상황관리에 대한 일원화
  - 모든 재난 발생에 대한 대응을 시스템적으로 총괄, 시군과 안전의식, 안전점검, 재난현장 지위 관련하여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전문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현장전문 대응능력 향상

– 재난현장의 접근성 향상과 함께 재난현장에 대처할 전문 대응인력 확보
– 전남지역은 상대적으로 해상사고가 빈번하고, 향후에도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며, 또한 원자력발전소와 석유·화학 등의 위험물 사고가 상존
– 위험물질 생산공장과 위험물 처리 및 운송차량 관리 강화 등 위험물 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노후 장비 교체·보강 등 특수 장비 확충 강화

⬡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난유형별 맞춤형 대응시스템 구축

● 위험물질에 대한 산업특화형 통합방재시스템 구축
– 전남지역은 원자력발전소와 석유·화학산업단지 등의 각종 사고에 따른 위험물질에 대한 노출을 우려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불안감이 확대
– 산업특화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 긴급 구난·구조체계 구축, 특히 기업들의 생산규모 및 설비특성을 감안한 특화된 상시 재난대응조직 운영 의무화 추진하고,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주기적 정보제공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과의 상시적 소통체계 구축

● 원전·석유화학단지 등 위험물질에 대한 도민 대응능력 강화
– 재난대응 기초역량 강화 및 상시훈련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유형별·시기별 맞춤형 상시 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유지·강화하고, 실전체험형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 여수 석유화학산단 및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과 대피요령, 노령화와 함께 농기계사고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농기계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교육 강화

● 농어업에 대한 재해보험 확대
– 태풍 등 풍수해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농작물과 수산물에 대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피해가 심화·확대될 것으로 전망
– 농어업재해보험 피해보상 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전 농어가의 보험가입 의무화를 위한 지원 필요

● 해난구조 등 재난유형별 맞춤형 특화교육기관의 설립·운영
– 해상사고는 세월호 참사에서 보았듯이 종종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제2와 제3의 부가적 영향으로 사회경제적 피해 초래
– 전남지역은 해상물동량과 교통량 증가 및 수산활동 및 해양레저 및 섬관광 수요 증가와 함께 각종 사고의 위험가능성이 상존
– 재난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및 위기발생시 대처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난구조관련 특화기관을 설립

● 지역특화형 맞춤체험·교육시설의 설립
– 도민들이 각종 재난을 직접 체험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형 안전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현장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해상안전체험센터 설립 및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통해 각종 재난에 대응한 역량 강화

3) 핵심 프로젝트

⬡ 위험요소에 대응한 친환경적, 안전한 공간관리 강화

- 공간적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에 대응한 도시공간 안전관리체계 강화
  - 주요 도시공간환경 정책수요로는 탄소배출, 기후위험, 기후적응이 있으며, 이에 대응해 기후안전 기반시설, 안전구역제 등 도시공간 안전관리체계 강화
  - 특히, 농어촌 풍수해 사전 피해 경감을 위한 예방 투자, 이상기후 대비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 각종 발전소의 대기영향 및 상생전략 마련
- 방재 국토도시 및 환경계획 수립 시행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재해 등에 사전 대응
  - 재해위험지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조적, 비구조적 예방사업 추진
  - 기후재난 및 위험관리에 필요한 공간환경 관리 강화
  - 기후 안전 및 방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 수립
- 노후 사회기반시설 기후 리스크 및 국토 회복탄력성 관리 강화
  -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기후위험 평가 및 성능 검토, 보수·보강 방안 마련
  - 지하시설물 통합안전 관리체계 구축
- 도민의 생존과 산업에 영향을 저감·관리할 수 있는 산업 및 기구 도입
  - 재난리스크와 피해를 저감·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산업 경쟁력 강화
  - 특히 기후변화 리스크 혹은 이상기상에 대응한 새로운 재난안전사업 기반 마련
  - 타 지역과 함께 권역별(호남권) 및 남해안남부권 대기환경연구소 구축 및 운영
-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정책 정착으로 재난 악순환 차단 및 신속한 대응력 확보
  - 재난관리를 비롯한 생물자원, 감염병, 식량 확보 등을 위한 과학기술수요 급증 예상
  - 폭염,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돌발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특히 극한 강우에 따른 침수대응력 강화, 내진 설계를 통한 안전성 확보

⬡ 도민체감형 포용적 안전서비스체계 구축

- '안전(기본)권' 확보로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 보장
  -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안전대책 수립, 민·관의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 재난·안전사고 대응역량 강화, 재난안전체험교육 시설 확충 및 활성화, 신속한 재난대응 및 피해복구 추진 등 5대 역점과제 추진
  - 가정, 공장, 도로, 야외 등 일상생활 속 안전 위협요인 저감을 통한 생활밀착형 도민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 위해요인의 획기적 저감과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건강 보호
- 호남권 및 남해안남중권 초미세먼지 발생과 흐름에 관련된 공동연구 수행
- 재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정의 구현

● 재난안전 정책, 관리적 측면에서 다각적 협력네트워크 강화
-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도민이 공감하는 재난안전 서비스 확대
- 재난 관련 공동 연구개발 추진, 재난 관련 현안의 효과적 대응력 강화 방안 마련

● 도민 스스로 재난 위험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참여 확대
- 재난안전 교육 세분화 및 재난안전 관련 리빙랩 등 주민참여 방식 확대
- 공공데이터, 유관 기관 가공데이터, 도민참여 데이터 기반 빅데이터 재난정보 양방향 플랫폼 개발

● 재난 후 물리적 복구 이외에 도민 심리안정 지원 서비스 확대
- 재난 유형별 피해 규모별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 일상 복귀를 위한 재정 및 심리지원 서비스 강화

⬡ 스마트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개발·확대

● 재난안전관리 기술 기반의 재난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 지속가능도시(Smart Sustainable City)와 연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 도시 안전 신진대사(Urban Safety Metabolism) 계획·관리기법 적용
- 도시안전 측정·모니터링 기술로 대기, 폭염, 집중호우 등의 실시간 변화탐지 및 대응체계 구축

● 치수, 이수, 환경을 고려한 스마트 하천관리 체계 구축
- 수문자동화, 자동수위계, 드론 활용 하천측량, 피해확인 등 스마트 기반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 고층 아파트 산업단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대책 강화
- 도내 50층 고층 건물이나 이동인구가 많은 복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대책 강화
- 산업단지, 유통물류센터 등 대규모 구조물에 대한 폭발, 화재에 대한 소방대응력 강화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 기반의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구축
- 지역특화 산업과 첨단기술 융합 및 R&D, 실증테스트베드, 창업 지원 등을 위한 국가재난안전산업육성 거점 조성

● 기후환경 위험 주요 발생원과 피해 예상지역 모니터링 지속
-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폭염, 한파 등 도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환경 위험 요인 모니터링 강화
- 스마트 도시와의 연계를 위해 기후환경, 재난 분야 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IOT 기반 환경안전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제5장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및 경관 조성

제1절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제2절 정감있고 문화가 깃든 남도경관 연출

제1절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1. 현황과 문제점

⬡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시화 및 산업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생태자원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음

- 전라남도는 산지, 하천, 연안 및 도서 등이 조화를 이루어 다양한 생태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전라남도에 서식 중인 멸종위기종 수는 97종으로 강원도(99종) 다음으로 많음
- 전라남도는 국립공원 6개소, 생태경관보전지역 5개소, 습지보호지역 10개소, 특정도서 104개소, 수산자원보호구역 5개소 등의 보호지역 보유
  - 전국 보호지역 면적 비율 : 국립공원 37.8%, 생태경관보전지역 17.4%, 습지보호지역 36.6%, 특정도서 41.4%, 수산자원보호구역 53.2%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한국의 갯벌' 중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생물권보전지역(신안다도해, 순천) 등 국제적 수준의 생태자원 보유
-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백두대간과 호남정맥, 영산강·섬진강 주요 하천의 하구, 연안 및 도서 지역 등지의 생태계 단절, 자연경관 훼손 등이 지속되고 있음

⬡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통합 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수생태계 보전 및 복원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음

- 섬진강 유역은 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 등의 수자원이 타 유역으로 유출(연간 809.2백만㎥ 수준)됨에 따라 섬진강하류, 보성강, 동복천 등 댐 하류의 수생태계 변화 발생
  - 2020년 8월 섬진강 중·하류에서 대규모 홍수해가 발생해 항구적인 홍수 방지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한 과제임

표 III-5-1
섬진강유역 수자원의 이동 및 활용 경로

댐 명(하천명)	수자원 이동 및 활용 경로	유출량 (백만㎥/연)	최종 유출수계
섬진강댐 (섬진강)	• 칠보발전소/운암수갱 → 동진강/만경강	362.8	서해연안
여수광양 공업용수도 (섬진강)	• 다압취수장 → 수어댐 → 여수산업단지, 광양제철소	84.9	남해(광양만)
보성강댐 (보성강)	• 보성강발전소 → 득량만간척지	10.5	남해(득량만)
주암댐 (보성강)	• 영산강유역 광역상수도(광주, 나주, 화순) → 영산강 • 도수터널 → 주암조절지댐(수력발전) → 광양만권 광역상수도(순천, 광양, 여수, 고흥, 보성) → 이사천	112.6 136	서해(목포연안) 남해(여자만, 광양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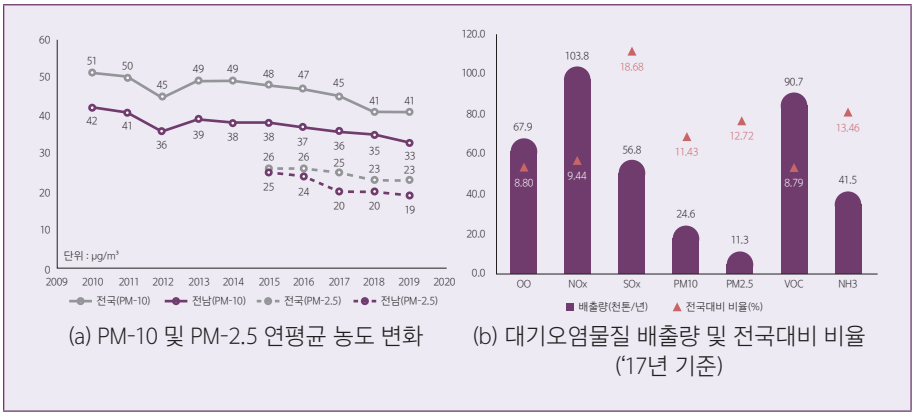
자료 : 국가수자원종합정보시스템(http://www.wamis.go.kr)한국수자원공사(https://www.water.or.kr)
2017 광주상수도 현황(광주광역시, 2017)

- 영산강 유역은 수질오염, 생태환경 훼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농·축산 비점오염원 및 불명오염원 관리, 수처리시설 개선, 영산강 재자연화 및 하구의 자연성 회복 등이 시급한 과제임
  -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영산강 재자연화 결정 내용
    -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갈수기에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개방 시기 조정, 용수공급 대책 추진, 수질 및 지하수위 변화 관측
    - 죽산보는 해체하되 자연성 회복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기 결정, 개방·관측을 통해 수질·생태계 개선 효과 검토
- 수자원 개발·이용에 따른 유역체계와 행정구역간의 차이, 여러 이해관계 등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유역간·지역간 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이 요구됨

⬡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청정지역이지만, 최근 들어 개선 추세는 정체되어 있고, 대기오염물질 및 화학물질 배출량이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

- 2019년 기준 전라남도의 미세먼지(PM-10) 농도(33㎍/㎥)는 전국에서 가장 낮고, 초미세먼지(PM-2.5) 농도(19㎍/㎥)는 제주, 경남과 함께 가장 낮음
- 황산화물(SOx) 배출량(56.8천톤/년) 전국 2위, PM-2.5 배출량(11.3천톤/년) 전국 3위 등 충남, 경기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다배출 지역에 속함

그림 III-5-1
미세먼지 평균 농도 변화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



(a) PM-10 및 PM-2.5 연평균 농도 변화

(b)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전국대비 비율 ('17년 기준)

자료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2020), 2019 대기환경연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http://airemiss.nier.go.kr/)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검색일 : 202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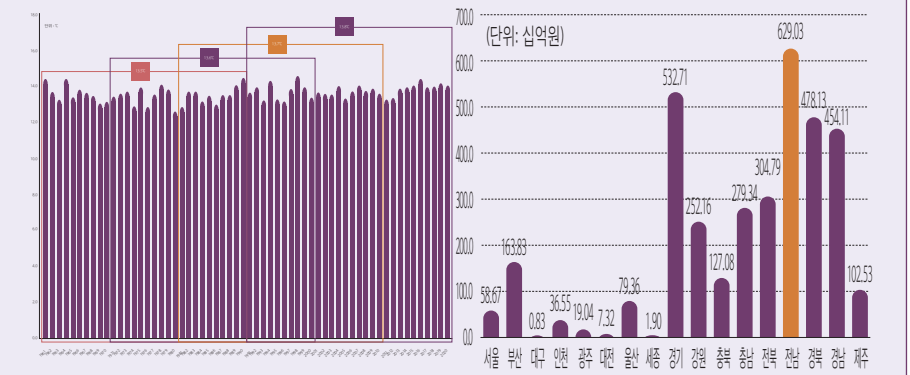
- 전라남도의 화학물질 배출량은 3.34천톤으로 경기, 울산, 경남, 충남, 충북 다음으로 많지만, 1군 발암물질 배출량은 240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음(2018년 기준)

⬡ 전지구적인 CO_2 농도 증가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의 영향이 심화되고 있음

- 전라남도의 최근 30년(1991~2020년) 연평균 기온은 13.8℃로 전국 평균(12.8℃) 대비 1.0℃ 높았고, 연평균 강수량은 1,353.4㎜로 전국 평균(1,306.3㎜) 대비 47.1㎜ 많았음

- 2018년 기준 전라남도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은 90.3백만톤으로 전국에서 충남(161.3백만톤) 다음으로 많았고, 10년 동안(2009~2018년) 26.1% 증가하는 등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
- 최근 10년간(2011~2020년)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자 수는 1,595명(전국대비 10.4%)이었고, 2010~2019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290.3억원으로 조사됨

그림 III-5-2
연평균기온 변화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a) 전남의 연평균 기온 및 30년 단위 평균기온

(b) 자연재해로 인한 시·도별 피해액 (2010~2019년)

자료 :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검색일 : 2021.9.6.), 행정안전부(2020), 2019 재해연보

표 III-5-2
전라남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추이
(단위 : 백만톤CO_2eq./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배출량	71.6	83.7	84.6	86.1	84.7	87.5	88.3	87.9	92.4	90.3
순배출량	63.8	82.6	83.6	86.4	80.4	83.6	84.5	83.6	89.0	87.0
에너지	63.5	75.3	76.1	77.3	76.2	78.9	79.9	79.1	83.3	81.2
산업공정	3.1	3.4	3.6	4.0	3.9	4.0	3.9	4.2	4.6	4.5
농업	3.5	3.5	3.5	3.5	3.4	3.4	3.3	3.3	3.3	3.4
LULUCF	-7.8	-1.1	-1.0	0.3	-4.3	-3.8	-3.8	-4.3	-3.4	-3.3
폐기물	1.5	1.4	1.3	1.4	1.3	1.3	1.2	1.3	1.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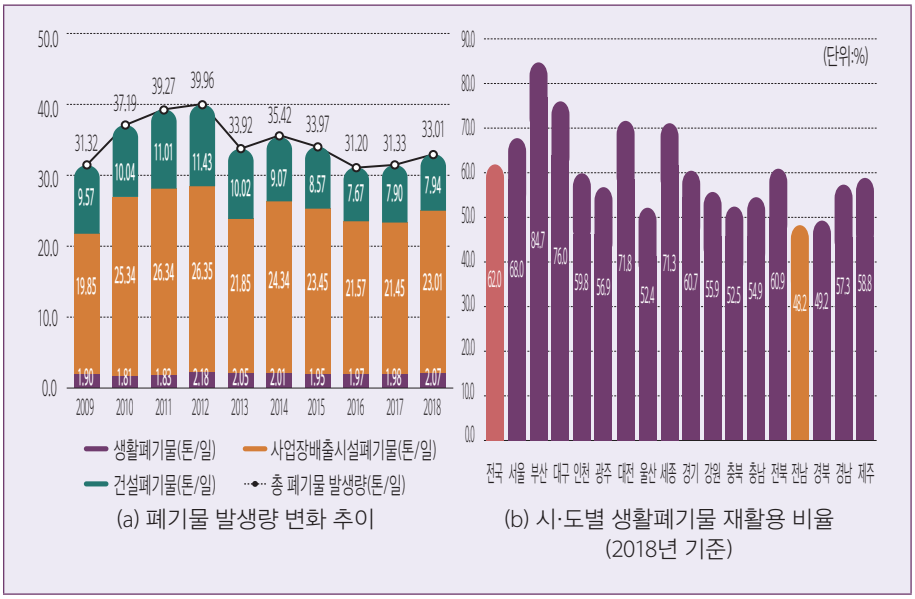
자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0), 광역지자체 기준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8)를 토대로 재구성

⬡ 자원순환 사회 정착을 위해 폐기물 감량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감량 속도가 더딘 편이며, 녹색소비·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 최근 10년간(2009~2018년)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각각 8.8%, 15.9% 증가했고, 건설폐기물은 17.1% 감소
- 2018년 기준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48.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음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해 법률[16] 에 근거해 지정된 녹색매장 수가 10개소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 8개소가 지정·운영 중인 녹색구매지원센터도 도내에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

– 시·도별 녹색매장 수는 경기가 122개소로 가장 많았고, 전남은 울산(3개소), 강원(7개소) 다음으로 적었음

그림 III-5-3
폐기물 발생량 현황 및 2018년 기준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자료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각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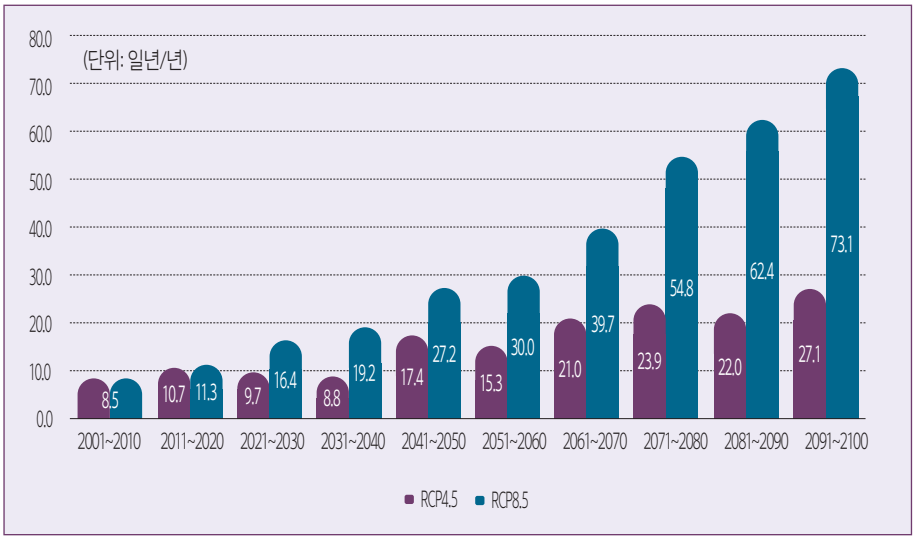
2. 여건 변화 및 전망

⬡ 기후변화 가속화로 생물다양성 감소, 폭염·홍수 등 이상기후 발생, 물순환 왜곡 등이 심화되어 사회·경제적인 피해 가중 전망

- 전라남도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빠르면 2040년대에 아열대 기후대[17]에 진입할 전망이며, 금세기 말 연평균 폭염일수(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날 수)는 최대 61.7일에 이를 것임[18]
- 지구온난화 심화로 집중호우, 태풍 등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 및 강도는 증가하고, 생물종 다양성은 빠르게 감소할 전망
  -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1.5~4.0℃)에 따라 50년에 한번 발생하던 극한고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8.6~39.2배 발생[19]
  - 지구 평균기온이 1~2℃ 상승할 경우 토종 생물종은 평균 14% 감소하고, 4℃ 이상 상승할 경우 생물종의 33%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됨[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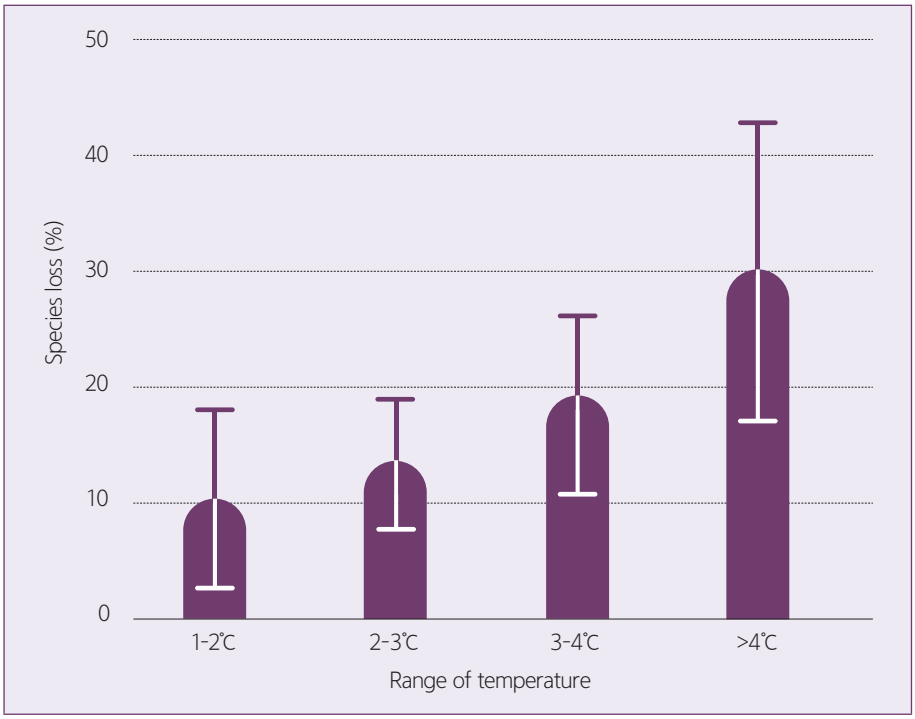
1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17) 최한월 평균기온이 18℃ 이하이면서, 월평균 10℃ 이상인 달이 8개월 넘게 이어지는 기후 조건
18) 조승희(2018), 광주전남의 미래 기후 전망 및 기후변화 영향
19) IPCC(2021), Climate Change 2021 : The Physical Science Basis-Summary for Policymakers
20) Future Earth(2019), 10 New Insights in Climate Science 2019

그림 III-5-4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전남의 폭염일수 전망



자료 :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재구성

그림 III-5-5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 손실 예측



자료 : Future Earth(2019), 10 New Insights in Climate Science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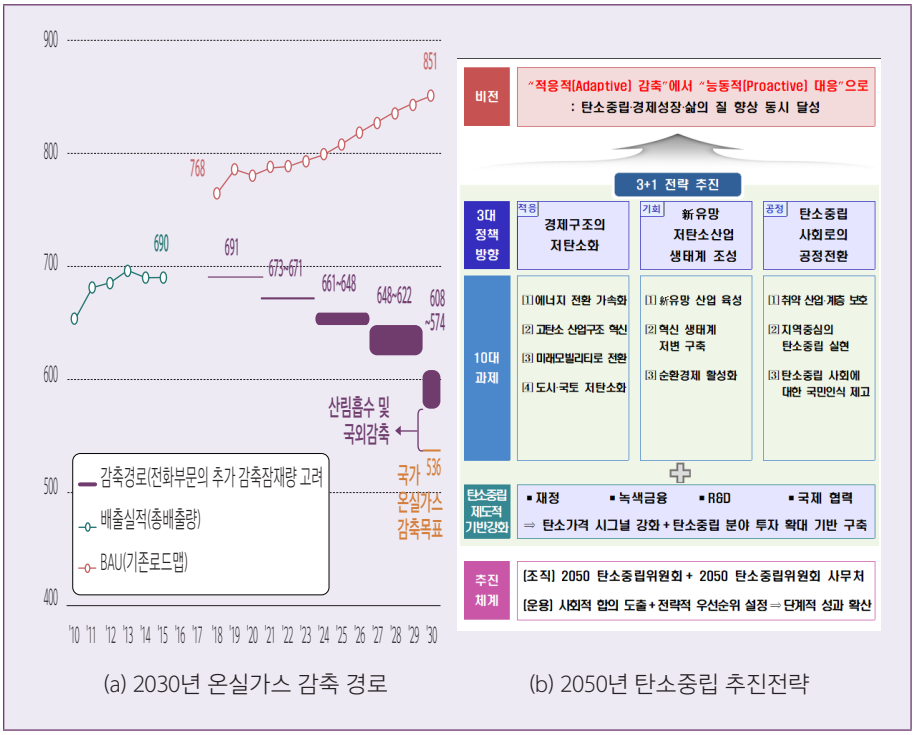
- 영산강과 섬진강의 2050년경 홍수량은 각각 50.4%, 29.6% 증가할 것으로 전망[21]됨에 따라 댐, 하천, 하수도 등의 수리시설물, 도시 인프라 등의 방재체계 재편 불가피

21) 환경부(2020), 2050년 일부 유역의 홍수규모 최대 50% 증가 예상(환경부 보도자료, 2020. 9. 21.)

국내·외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로 친환경 기술·제품 및 저탄소 경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국민건강 보호,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해 기후변화(온실가스), 대기 및 수질환경, 폐기물(자원순환), 화학물질 등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파리협정[22]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UN에 제출한 상태이며, 2020년 12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함

그림 III-5-6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경로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a)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경로 (b)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

자료 : 환경부(2018),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및 2018~2020년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보도자료, 2018. 7. 24.); 관계부처 합동(202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국제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제네바 협약[23], IMO2020[24] 등의 대기오염물질 규제가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등 추진 중
- 이 외에도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통제·처리에 관한 바젤협약, 국가별 플라스틱 사용규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등이 있음
- 환경질 개선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관련 기준들은 지속적으로 강화 전망

22)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기후규범으로 모든 회원국들은 금세기말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더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23)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에 관한 협약. 1979년 채택, 1983년 발효

24)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선박 기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 모든 선박의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상한선을 3.5%에서 0.5%로 하향 조정

-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그린뉴딜 정책이 추진 중이며, 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도 친환경·저탄소 기술 및 제품 등을 개발·적용이 확대되고 있음
  - 환경부는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해 그린 모빌리티, 스마트 그린도시, ICT·AI기반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 구축, 훼손지 등 녹색생태계 복원, 녹색산업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
  -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ESG[25]가 기업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

통합 물관리 강화

- 통합 물관리의 필요성 및 성공요인
  - GWP(Global Water Partnership)은 통합물관리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함
  - 미국 환경청(EPA)은 유역관리를 위한 10가지 교훈(Top 10 Watershed Lessons Learned)으로 분명한 비전·목표·계획, 훌륭한 리더, 이해관계자의 조정, 환경·경제·사회적 가치의 조화, 계획의 이행, 동등한 파트너십, 훌륭한 도구(기술, DB, 모델링 등), 이행과정의 공유·소통, 교육과 참여 활동, 시범사업의 성공 등을 제시
-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중이며, 「하천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하천관리권이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임
- 유역별 수자원, 수질, 수생태계, 방재 등의 통합 물관리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차원의 물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됨
- 권역별·소유역별로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는 물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권역 또는 소유역 단위의 촘촘한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됨

기후변화, 인간 활동 등의 영향으로 육상·해양생물 감소

- 생물종 및 유전자 다양성 감소에 따라 생태계 변화 가속화
  - 1970년 이후 지구상의 척추동물은 약 60%가 감소하였으며 향후 인간 활동과 기후변화에 의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GBO5, 2020)
  - 2050년까지 기후변화, 토지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구의 평균 종풍부도(MSA)는 9% 감소할 것으로 전망(GloBio, 2017)
- 생물다양성 감소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질적 수준 저하
  - 공급(음식·연료), 조절(기후·재해), 문화(심미·여가), 지원(영양순환·토양형성) 서비스

25) 환경(Environmental,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환경오염 및 환경규제, 생물다양성 등), 사회(Social,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평등 및 다양성, 지역사회 관계 등), 지배구조(Governance, 뇌물 및 반부패, 기업 윤리 등)의 영문 첫글자를 조합한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 인류에 의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로 6대 멸종(6th mass extinction, 홀로세 멸종) 단계 돌입
  - 2200년까지 양서류의 41%, 조류의 13%, 포유류의 25% 멸종(Nature, 2014)
  - 해양생태계 6대멸종 진입(국제해양연구계획, IPSO, 2011)
- 네덜란드 과학자 크뤼천은 인류의 활동이 지구환경에 극단적인 영향을 초래해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지질시대를 별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우리는 이제 홀로세가 아니라 인류세에 살고 있다"
  - 신생대 제4기 : 플라이스토세(홍적세), 홀로세(현세, 충적세)

국토의 자연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시행에 대응한 자연자원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필요성 증대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제 본격 시행,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 검토, 자연환경 복원 법률안 제정 추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이 요구됨
- 여가 및 휴양, 체험학습, 생태관광 등 자연자원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보전과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필요

미세먼지, 수자원, 폐기물 등 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 및 기대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추진 필요성 증대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조기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신규화학물질의 시장 진입으로 건강장해 등 화학물질 노출 위험도 가중 전망
  - 도시화, 인구증가 및 고령화 등으로 미세먼지, 오존에 노출되는 인구 및 민감·취약계층이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2060년 기준 인구 백만명당 조기 사망자 수는 2010년 대비 2.97배 증가한 1,069명(최대)에 이를 전망[26]
  - 전 세계적으로 매년 3천여종의 화학물질이 신규 개발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매년 1천여종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음[27]
- 1인 가구 증가, 온라인 쇼핑·택배 이용 증가, 제품수명 단축 등으로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대로 국내·외적으로 녹색순환경제가 확산되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패러다임이 정착될 것임
- 고농도 미세먼지, 침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영산강 재자연화,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환경현안 지속 발생
- 도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선제적 환경정책 추진 필요

---

26) OECD(2016), The Economics Consequences of Outdoor Air Pollution.
27) 관계부처합동(2020), 제5차 국가환경 종합계획.

– 환경정책 추진에 있어서 주민주도형 지역 환경문제 해결(리빙랩), 빅데이터·AI 기반의 정보 생산 및 제공, 갈등관리 프로세스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3. 주요 정책과제

1) 기본목표

⬡ 생태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반 조성

-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관리체계 등 조성

⬡ 치수·이수·환경기능이 조화된 하천 조성

- 통합 물관리 체계의 정착을 통해 방재, 수자원 개발 및 이용, 수생태계 등이 최적화된 하천환경 조성

⬡ 도민이 만족하는 대기환경 및 화학물질 관리정책 추진

- 도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화학물질(화학사고) 등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 구축을 통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체감 만족도 향상

⬡ 2050 탄소중립 이행 및 기후위기 안전망 확충

-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지역 특성을 고려해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환경보전, 경제성장, 사회 안정 및 통합이 균형을 이루는 전라남도 조성

⬡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과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녹색 순환경제 실현

-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자원 전과정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환경기술 혁신 및 환경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 향상

2) 추진전략

(1) 추진전략 : 자연생태자원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 생태자원의 보전·복원을 통한 지역 생태계 가치 향상

-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보호지역 확대 지정

- 산지, 하구, 습지, 연안 및 도서 등지의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사업 추진
- 멸종위기종 복원·관리 강화 및 지역 생태계서비스 증진

생태적 연결성 회복 및 생물다양성 증진

- 산, 하천, 연안을 연결하는 생태 네트워크 구축
- 습지, 하구, 연안 및 도서 등지의 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확대
- 생물자원 보전·이용 인프라 확충 및 연계 이용 활성화
-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2) 추진전략 : 물순환 건전성 회복 및 유역기반 통합 물관리

수자원 부족 지역의 항구적 대책 마련으로 물 복지 실현

- 서남해 연안, 도서지역의 물 부족 조기 해결
- 수자원 공급과 이용 수요 전망을 통한 장기 수자원 대책 마련

홍수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추진

- 기후변화에 대응한 댐, 저수지, 제방, 배수시설 등의 설치 기준 강화
- 댐, 저수지, 보 등 물관리 시설의 연계 운영 강화
-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의 사전예방적 토지이용

유역기반 통합 물관리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 주요 수계의 수질과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학적인 조사·연구자료 제공
-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 물 갈등 해소를 위한 과학적이고 지속적인 조사·연구 수행

(3) 추진전략 : 환경 안전망 구축을 통한 도민 건강 보호

미세먼지 관리체계 고도화 및 도민 건강영향 최소화

- 미세먼지 관리기반 구축 및 도민 소통 강화
- 전방위적인 미세먼지 감축 추진
- 미세먼지 취약·민감계층 건강 보호

⬡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강화

- 화학물질 취급 전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망 구축
- 체계적인 화학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시스템 마련

(4) 추진전략 : 탄소중립 이행 및 순환경제 기반 조성

⬡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기반 조성 및 국제사회 기여

-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촉진 및 지속가능한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
- 푸른 숲·푸른 바다·푸른 마을, 청정 전라남도 조성
- 탄소중립 문화 정착 및 도민 삶의 질 향상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등 기후·환경 선도도시 조성

⬡ 기후변화 적응 및 기후탄력성 제고

- 생물종 보존·관리 등 지역의 생태가치 유지 및 증진
- 수자원 시설의 안전성 강화, 대체수자원 확보 및 물순환 건전성 회복
- 기후변화 적응품종 및 재배·양식기술 개발

⬡ 자원의 효율적 투입·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자원생산성 효율화 및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 감량
- 폐기물 감량화 및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
-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 관리기반 구축
-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

⬡ 환경기술 혁신 및 환경산업 육성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트렌드에 대응한 환경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핵심 프로젝트

(1) 자연생태자원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 자연생태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 배경 및 필요성
  -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보호지역 지정 확대
  - 자연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 도모

● 주요 사업

– 백운산, 무안·신안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국가 보호지역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국제적 생태관광 명소로 육성

- 백운산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서울대연습림 문제에 관한 교육부, 환경부, 기획재정부간의 이견을 조정해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추진
- 무안·신안 갯벌은 생물종이 풍부하고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국내 최초의 갯벌 국립공원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와 공동 지정, 공원구역에서의 전통적 어로행위 규제 완화 등 추진

– 전라남도 서남해안 지질공원 인증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기반 조성

- 환경부는 2022년까지 국가지질공원 17개소, 세계지질공원 8개소의 인증목표를 설정·추진하고 있음(2020년 현재 국가지질공원 13개소, 세계지질공원 4개소)
- 전라남도는 공룡화석지, 갯벌, 다도해 등 우수한 지형·지질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독자적으로 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전라남도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및 종합학술조사('12)에서 제안된 "전남 서남부 공룡 지질공원"을 국가지질공원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 여수, 해남, 보성, 순천, 신안, 목포, 진도 등 대상 지역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탐방객센터, 안내표지판, 해설사 양성 등 지질공원 인증 기반 조성
- 지질명소를 활용한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을 통해 지역 활성화 도모

–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담양군, 화순군)에 걸쳐 있어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임
-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의 컨트롤 타워, 유관기관 및 단체의 참여·협력 증진, 교육·홍보·해설·모니터링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 강화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갯벌'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은 지형·지질 및 경관이 뛰어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여 보존해야 할 가치가 매우 높은 인류 보편적인 자연유산임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핵심지역 및 완충지역 확대, 신안갯벌과 지리적·지형적으로 연계된 무안갯벌 및 영광갯벌의 포함 등 추진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통합관리체계 구축

⬡ 자연생태자원 관리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개발 과정에서 훼손된 산지, 하천, 연안 등의 복원을 통한 핵심 생태축 조성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제 시행,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자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 등과 같은 공간생태정보지도를 마련해 과학적인 관리체계 구축

● 주요사업

– 전라남도 산줄기 보전 및 관리 실태조사

• 산줄기는 산지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뻗어있는 것으로 생물의 이동통로, 하천유역의 분수령, 산악 경관 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나 무분별한 개발에 따라 산줄기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음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백두대간과 백두대간에서 분기한 호남정맥에 대해서는 보전 및 관리체계가 마련되었으나, 호남정맥에서 분기한 기맥, 지맥, 세맥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진한 상황임

• 전라남도의 산줄기 현황, 보전 및 이용, 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산줄기 Web-GIS 구축

• 향후 전라남도 보전축 설정, 환경성 검토, 생태계 복원, 자연자원 총량제 시행 대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폐쇄된 하구의 생태계 복원

• 하구는 담수와 해수가 교차되는 기수역으로 동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하천, 호수, 갯벌 등의 공간 존재

• 영산강, 와탄천, 진도천 등 전라남도의 주요 하구는 하구둑 또는 방조제에 막혀 하천과 연안의 연결성이 단절된 상태임

• 최근 확정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에서는 하천·하구·연안의 통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수역 형성과 하구생태계 보전·복원을 위해 지방하천의 해수유통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주요 하천의 하구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됨

• 전라남도의 주요 지방하천 중에서 물 이용, 생태계, 재해방지, 수변공간 활용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구생태계 복원 시범사업 대상지구 선정

• 시범사업 대상지구의 농민, 어민, 민간단체, 유관기관, 자치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및 활용

•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지역의 자연 및 환경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 공간생태정보지도(1/5,000 이상의 대축척지도)를 말함

•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 생태적 네트워크의 형성, 생태적인 토지이용 및 환경관리 등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됨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1년까지 시 단위 이상 자치단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이 의무화됨

• 5대 도시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Web-GIS 구축, 운용인력 확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군 단위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 권고

– 전라남도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및 이행체계 구축

•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정책수단이며,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이행의 필수요소임

- 서울, 부산, 울산, 경기, 강원, 충북, 경남, 제주 등 주요 광역 자치단체들은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전라남도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실천과제를 발굴해 도민의 인식 증진, 교육과 홍보, 생물다양성 주류화, 참여와 협력체계 구축, 이행실태의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내용이 담긴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 생물다양성 전략의 수립, 이행, 모니터링, 평가 등의 전과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 생물다양성위원회 및 생물다양성센터 설치, 생물다양성 거점시설 지정·운영 등이 필요함

(2) 물순환 건전성 회복 및 유역기반 통합 물관리

수자원 공급·이용 다변화

● 배경 및 필요성

– 전라남도는 수자원 분포지역과 이용지역이 일치하지 않아 수자원 광역 이수에 따른 물 부족, 갈등 등이 발생하고 있음

–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댐, 저수지, 하천수에 의존하고 있는 수자원 공급체계에서 해수담수화, 하수처리수, 빗물 등의 대체수자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

● 주요 사업

– 광역상수원과 농업용댐 연계 관로 확충

- 물관리 일원화 이후 다목적댐, 상수원 전용댐, 농업용 댐 및 저수지 등의 연계를 통한 수자원 확보의 필요성 대두
- 영산강·섬진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환경부, 2021)에서 담양댐-동복댐-주암댐 연계, 장흥댐-보성강댐 연계 등의 안이 제시됨
- 다목적댐, 상수원 전용댐, 농업용 댐 및 저수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심층적인 타당성조사 연구 필요

– 하수처리수, 빗물 등 대체수자원 확보

- 하수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 조경용수, 살수용수 등의 부문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처리수의 수질 향상
- 자치단체의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목표 설정
- 빗물저류시설, 침투시설 등 빗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반 조성
- 빗물저류시설을 활용한 빗물정원, 빗물생태습지 등 조성
- 민간의 빗물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 실시

– 홍수조절지 및 강변저류지의 효율적 이용

- 영산강유역에는 4대강사업으로 홍수조절지 2개소(담양, 화순), 강변저류지 1개소(나주)가 조성됨
- 홍수조절지와 강변저류지는 그 면적이 넓고 계획빈도를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할 때 일시적으로 홍수를 조절 또는 저류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평상시 적극적인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영산강·섬진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환경부, 2021)에서 홍수조절지에 대해서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하천수를 저류하여 하천유지용수로 방류하는 수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방안이 연구됨
- 상기 연구에서 담양과 화순 홍수조절지에 297만㎥, 521만㎥의 저류용량을 채운 후 갈수기 3개월(3~5월)에 방류할 경우 각각 0.38㎥/s, 0.66㎥/s을 방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홍수조절지의 다기능화 방안을 통해 연중 9개월의 유휴기간 동안 하천수를 저류하고 하천유지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으로 넓은 면적의 수자원시설을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시설 가치를 높일 수 있음
- 홍수조절지와 강변저류지에 운동시설, 생태학습시설 등이 조성되어 이들 시설의 활용에 따른 영향 검토 필요

과학적 치수 및 이수 대응능력 제고

- 장기 수자원 공급·이용계획 수립
  - 기후변화,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수 공급 및 이용 계획을 평가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용수의 재배분 기준 마련
  - 장래 유역간 물 갈등 심화에 대비해 수자원 시설간 연계 이용 확대, 중·소규모 수자원 확보, 미이용 용수시설의 활용 등을 통해 유역별 물 자급률 제고
- 수자원 공급·이용시설 통합 관리기반 구축
  - 다목적댐, 발전용댐, 농업용 댐 및 저수지의 연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각 용수원의 여유용량 용도 전환
  - 농업용수로의 관수로화를 통한 수자원 손실량 저감
- 홍수위험지도, 산사태 위험지도 등 공간정보지도 제작 및 이용 확대
  - 홍수해, 산사태 등의 사전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간정보지도 조기 구축
  - 공간정보지도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web-GIS 구축
- 섬진강홍수통제소 신설
  - 섬진강유역 홍수의 과학적인 관리, 농업용수·생활용수·공업용수 등의 효율적인 배분 등을 위해 홍수통제소 신설
  - 강수량, 수위, 유량 등 실시간 정보 제공, 댐 조작 및 관리, 수리·수문 조사시설 설치 및 관리, 홍수 및 갈수의 예보 등의 기능 수행

중소도시의 물순환도시 선정 및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물순환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LID) 도입, 빗물 침투 및 저류시설 조성 등을 통해 물순환 모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

– 환경부는 2016년 광주, 대전, 울산, 안동, 김해 등 5개 도시를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중소도시에도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사업

– 물순환 모델도시 선정

• 전라남도 시·군을 대상으로 물순환 도시 공모 추진

• 물순환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지원

– 물순환사업 확산

• 환경부 선도사업 이후 물순환사업의 확대에 선제 대응

⬡ 주요 하천의 수생태계 복원

● 배경 및 필요성

– 영산강은 유역종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된 4개의 농업전용 댐(장성댐, 나주댐, 담양댐, 광주댐)과 하구둑의 영향으로 수질오염, 생태계 변화 등이 심각해 수생태계 복원이 시급함

– 섬진강은 유역내 수자원의 과다 개발과 하구역의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하천유지수량 부족, 하구의 염해 발생 등의 수생태계 변화가 발생함

– 2018년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에서 영산강하구 수생태 복원, 섬진강하구 염해 방지가 영산강·섬진강유역의 3대 현안과제에 포함됨

● 주요 사업

– 영산강하구 수생태 복원

• 2004년 영산강하구의 생태계 복원 논의가 촉발된 이후 2012년 하구둑으로 막힌 영산강, 낙동강, 금강유역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3대강 해수유통추진협의회 구성

• 낙동강에서는 2015년 낙동강하구둑 개방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후 하구둑 개방 실험을 진행하고 있음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에서는 낙동강하구의 개방 효과를 평가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물 이용을 고려한 개방 방안 검토 및 시행

• 영산강하구 수생태계 복원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농민, 어민, 민간단체, 유관기관, 자치단체, 전문가 등)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물 이용, 재해방지, 토지이용, 수변공간 활용 등을 위한 최선의 방안 도출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영산강하구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유역 플랫폼(가칭 영산강하구센터) 설립·운영

• 영산강하구센터는 영산강하구역의 물관리 거버넌스의 거점이며, 유역물관리위원회와 주민의 중간연계 및 지원 조직, 주민의견 수렴, 교육·홍보·정보교류의 창구, 유역자치 활동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섬진강 염해 방지
  • 섬진강하구역에서 해수 유입구간 확대, 지하수 염분농도 증가 등 생태환경 변화와 각종 피해 발생
  • 섬진강하구의 어민을 중심으로 섬진강하구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민원 제기
  •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2018년 섬진강하구 환경영향조사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현재 「섬진강하류 염해 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상기 연구결과에 따라 염해 방지를 위한 대응사업 추진
  • 섬진강하구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섬진강하구의 특성에 부합한 비전 및 전략, 실천과제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 개발·추진
– 탐진강하구 어업피해 갈등 해소
  • 장흥댐 건설, 바다 준설 및 매립 등의 영향으로 강진만 패류 생산량 감소, 양식어장 피해 발생
  •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정 합의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목포해양항만청, 강진군이 공동으로 어업 피해 조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각 기관별 공익사업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 요인과 피해 규모를 확정해 어민에게 보상토록 하고, 현재 '강진만해역 환경보전관리계획 조사용역' 추진중
  • 탐진강하구 어업 피해 갈등 해소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탐진강하구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추진

⬡ 친수기능 확대 및 댐 주변 지역 활성화

● 물 문화 발굴 및 계승
– 물 문화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계승·발전시켜온 물의 보전·개발·이용과 관련한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함
  • 전통 어법(섬진강 어살), 음식문화(어란, 강굴), 포구, 등대, 다리(고막원석교, 섭다리), 기타(우물, 수로, 보, 빨래터, 하천숲) 등
–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 생활문화와 의식의 변화 등에 따라 물 문화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보전 및 계승이 시급한 과제임

● 주요 하천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친수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
– 수자원개발, 4대강사업, 하천환경 정비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의 과정에서 하천 및 댐 주변지역에 많은 친수시설이 설치되었으나, 이용률이 저조해 방치되거나 훼손된 것이 적지 않음
– 각종 친수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인 조사·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친수시설물 설치의 기초자료로 활용

●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 및 추진
– 댐 주변지역은 우수한 자연경관과 수변자원,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주 및 수몰, 산업기반 상실, 지역문화의 해체, 기상변화, 토지이용 규제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 타 농산어촌에 비해 낙후되고 있음

– 댐 및 댐 주변지역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댐 및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 등을 추진하도록 함

– 댐의 기능 및 역할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 오염방지기술의 선진화, 피해지역과 수혜지역의 상생 도모, 지역 및 자원 재생에 대한 요구 증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 주암댐, 상사댐, 장흥댐, 수어댐 등 주요 댐 주변지역 명품마을 조성,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 댐 이용 거점시설 조성 및 정비, 댐 탐방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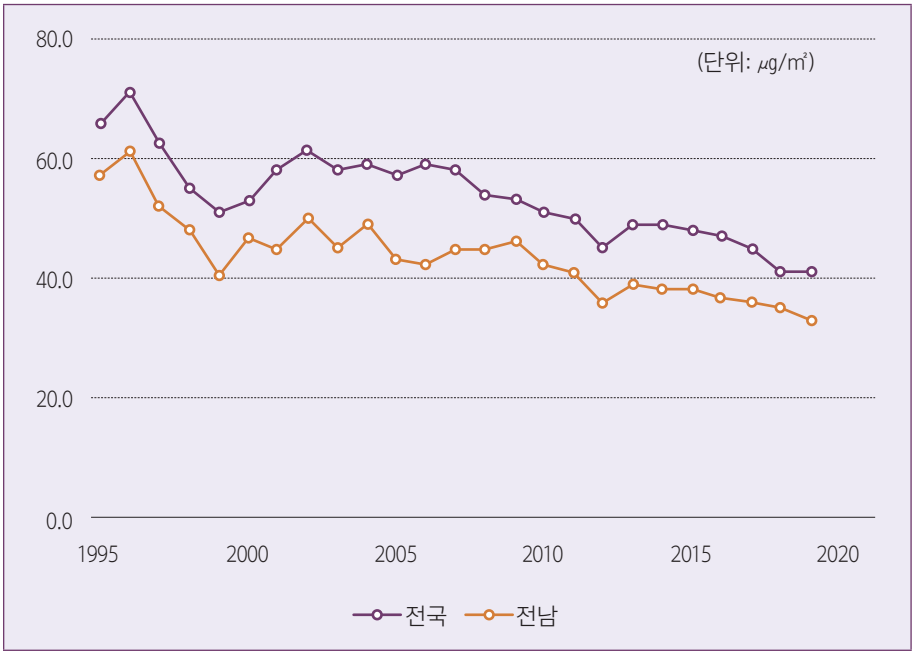
(3) 환경 안전망 구축을 통한 도민 건강 보호

⬡ 미세먼지 관리기반 구축 및 도민 소통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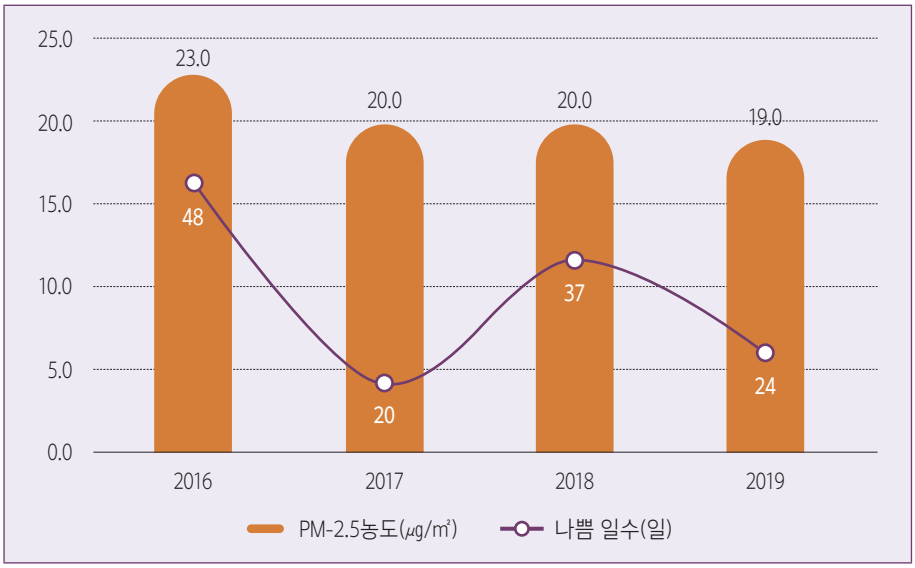
– 1995년 이후 전라남도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개선 추세에 있지만, 겨울·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는 낮은 편임

그림 III-5-7
전남의 PM-10 농도 추이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2020), 대기환경연보 2019

그림 III-5-8
전남의 PM-2.5 농도 및 미세먼지 나쁨 일수



자료 : 환경부 미세먼지 종합계획(https://www.me.go.kr/cleanair/)

– 도민이 만족하는 미세먼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체계적·과학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및 주민과의 소통 필요

● 주요 사업

– 촘촘한 미세먼지 측정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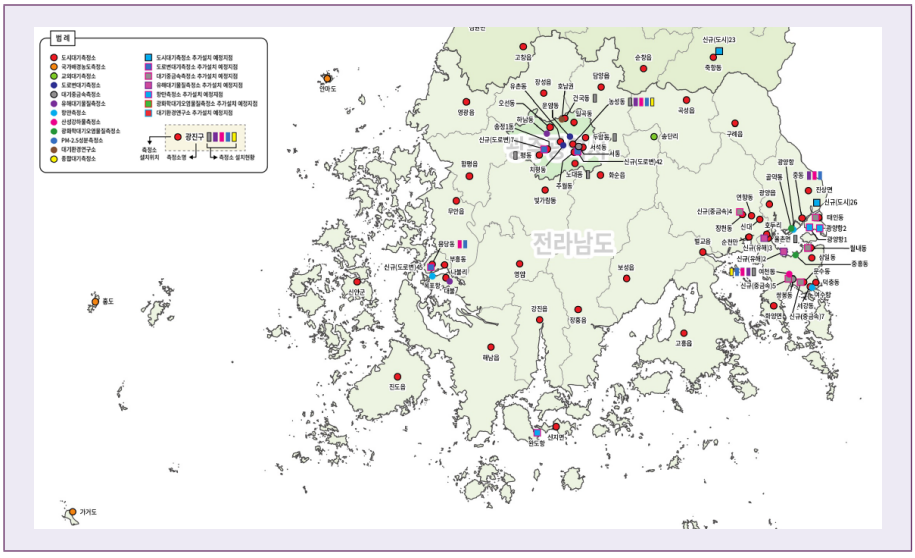
• 대기환경 측정자료의 공간적 연속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 차량 통행량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변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 인체 위해도가 높은 PM-2.5 측정을 위해 전라남도 동부권에 PM-2.5 성분측정망 설치

* 항만, 선박 등 대기환경 측정 사각지대에 측정망 설치·운영

그림 III-5-9
전남의 대기오염측정망 분포 현황(2020년 기준)



자료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2021),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2021~2025)

● 드론·차량을 이용한 입체적 대기환경 감시망 구축

* (드론) 대기질 실시간 분석, 취약지점 배출원 모니터링, 불법 배출 의심사업장 추적 등
* (이동측정 차량) 대기질 정밀 분석, 고농도 배출사업장 추적 등

그림 III-5-10
대기오염 이동측정 시스템



자료 : 전남동부지역본부(https://dongbu.jeonnam.go.kr/)

그림 III-5-11
드론 이용 대기오염 실시간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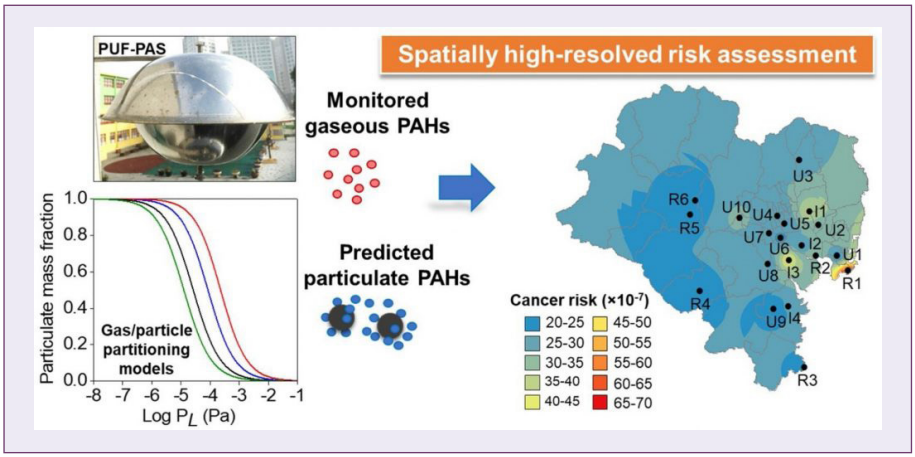
자료 : 환경부(2018),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하여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한다(2018. 4. 12. 보도자료)

- 초·중·고교, 미세먼지 우심지역 등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운영

– 배출량과 연계한 농도 및 건강 위해성 기여도 평가

- 발생지점(해외, 도내, 타 지역 등), 부문(산업, 발전, 수송, 생활 등), 발생기작(직접발생, 간접발생 등) 등에 따른 농도 기여도 평가
- 미세먼지 발생특성 및 인체 노출에 따른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인체에 미치는 건강 영향 평가

그림 III-5-12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위해성 평가 사례(울산)



자료 : UNIST(2020), Spatially high-resolved monitoring and risk assessment of PAHs level in Ul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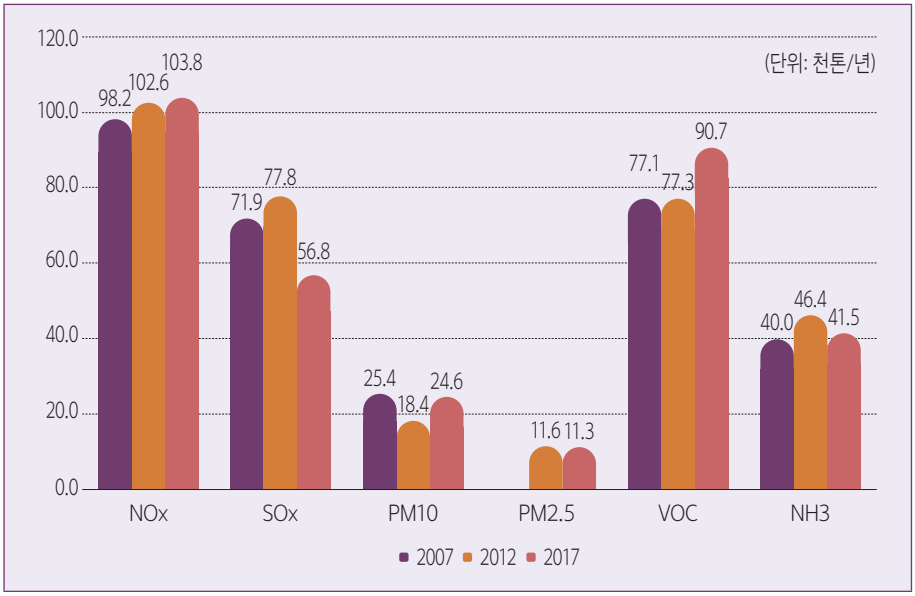
– 미세먼지 교육·홍보 강화 및 도민과의 양방향 소통
  • 어린이집·학교·일반주민 대상 미세먼지 교육자료 개발
  • 미세먼지 정책 광고·홍보(TV, 라디오, 신문, 공공장소 홍보물 게시 등), 미세먼지 대응 영상공모전 개최, 미세먼지 대응 게임 개발 등 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전방위적인 미세먼지 감축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철강, 석유화학 등이 주력산업인 전라남도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 다배출 지역으로 최근 10년간(2007~2017년) 황산화물(SOx),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감소했지만,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암모니아(NH3) 배출량은 증가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

그림 III-5-13
최근 10년간 전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자료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http://airemiss.nier.go.kr/mbshome/mbs/airemiss/index.do)

–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주민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군별 배출 특성에 따라 발전·산업, 수송, 생활(농업) 등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추진 필요

표 III-5-3
전남 시·군별 대기오염물질 주요 배출원(2017년 기준)

시·군	NOx	SOx	PM10	PM2.5	VOC	NH_3
목포	비도로이동 오염원	비도로이동 오염원	비산먼지	비도로이동 오염원	비도로이동 오염원	농업
여수	비도로이동 오염원	생산공정	비산먼지	비도로이동 오염원	생산공정	생산공정
순천	도로이동 오염원	비산업 연소	비산먼지	비산먼지	유기용제 사용	농업
나주	도로이동 오염원	비산업 연소	비산먼지	비산먼지	유기용제 사용	농업
광양	생산공정	생산공정	제조업 연소	제조업 연소	생산공정	생산공정
담양	도로이동 오염원	비산업 연소	비산먼지	비산먼지	유기용제 사용	농업
곡성	도로이동 오염원	제조업 연소	비산먼지	비산먼지	생물성 연소	농업
구례	도로이동 오염원	비산업 연소	비산먼지	비산먼지	유기용제 사용	농업
고흥	도로이동 오염원	비산업 연소	비산먼지	비산먼지	유기용제 사용	농업
보성	도로이동 오염원	비산업 연소	비산먼지	비산먼지	유기용제 사용	농업
화순	도로이동 오염원	비산업 연소	비산먼지	생물성 연소	유기용제 사용	농업
장흥	도로이동 오염원	비산업 연소	비산먼지	비산먼지	유기용제 사용	농업
강진	도로이동 오염원	비산업 연소	비산먼지	비산먼지	유기용제 사용	농업
해남	도로이동 오염원	비산업 연소	비산먼지	비산먼지	유기용제 사용	농업
영암	비도로이동 오염원	비도로이동 오염원	비산먼지	비산먼지	유기용제 사용	농업
무안	비도로이동 오염원	비산업 연소	비산먼지	비산먼지	유기용제 사용	농업
함평	도로이동 오염원	비산업 연소	비산먼지	비도로이동 오염원	비도로이동 오염원	농업
영광	도로이동 오염원	비산업 연소	비산먼지	비산먼지	유기용제 사용	농업
장성	도로이동 오염원	제조업 연소	비산먼지	비산먼지	유기용제 사용	농업
완도	비도로이동 오염원	비도로이동 오염원	비산먼지	비도로이동 오염원	유기용제 사용	농업
진도	도로이동 오염원	비산업 연소	비산먼지	비산먼지	유기용제 사용	농업
신안	비도로이동 오염원	비산업 연소	비산먼지	생물성 연소	생물성 연소	농업

● 주요 사업

– 발전·산업부문 미세먼지 감축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견실한 이행, 사업장 통합허가제 시행,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 석탄화력발전시설 친환경연료 전환 및 방지시설 개선, 도서지역 내연발전기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산업단지 주변지역 완충녹지 조성 등

–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

• (도로)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확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확대, 천연가스 및 전기·수소버스 보급 등

• (비도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노후 선박 폐선 지원 및 친환경선박 보급, 육상전력 공급설비(AMP) 확충, 야드트랙터, 트랜스퍼크레인 등 항만 하역장비 배출저감 장치 부착 등

– 농업·생활부문 미세먼지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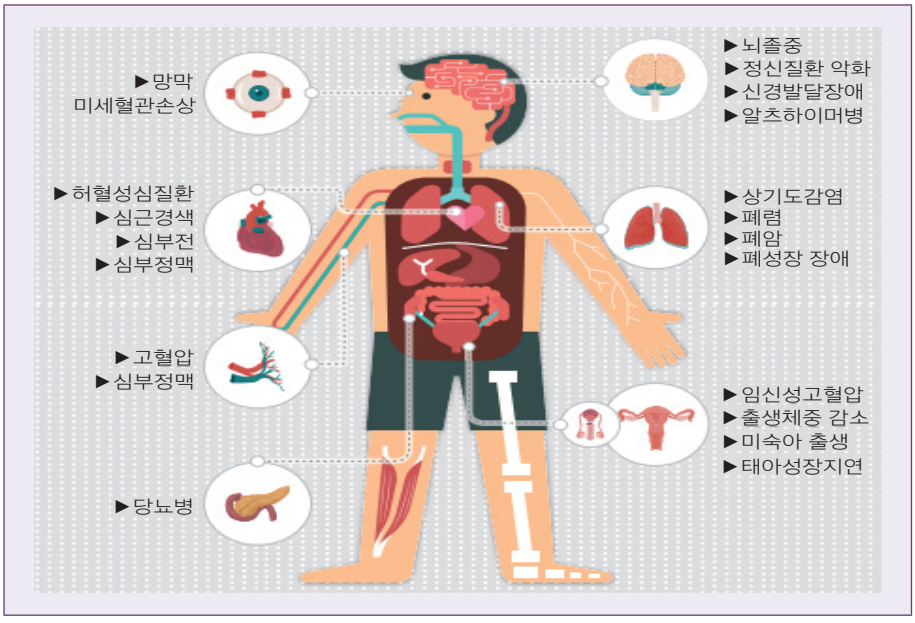
•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관리 강화 및 연료화, 축산기인 암모니아 관리 강화,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친환경 청소차량 보급,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건물 옥상·벽면녹화 지원 확대, 학교운동장 등 나대지 잔디 조성 등

⬡ 미세먼지 취약·민감계층 건강 보호

● 배경 및 필요성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정한 1군(Group 1)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같은 농도에 노출되더라도 일반 성인보다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크며, 건설노동자, 환경미화원 등 옥외노동자들은 작업 특성상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그림 III-5-14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자료 : 대한의학회, 질병관리청(2021), 미세먼지 건강수칙 가이드

– 미세먼지 취약·민감계층에 대한 건강보호 기반 강화 및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전남 조성에 기여

● 주요 사업

–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실내공기질 준수여부 점검, 공기정화설비 설치, IoT 기반 실내공기 측정망 확충,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취약계층 행동매뉴얼 개발 등

–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 대상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정·운영

• 대상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노인, 아동), 병원 등

• 미세먼지 안심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세먼지 안심 관리구역(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등

• 에어커튼 설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고농도 기간 살수차 운영, 주변 지역 차량 통행 제한,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미세먼지 쉼터 조성 등

–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및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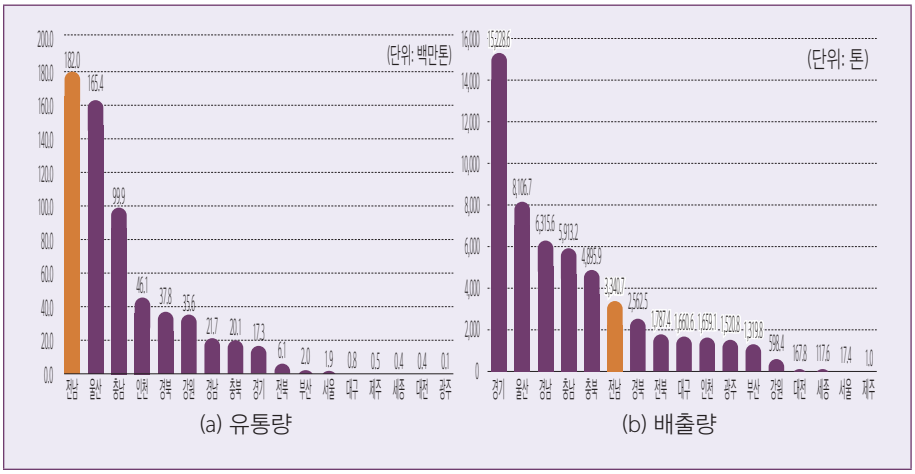
•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에 특화된 미세먼지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등

화학물질 취급 전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망 구축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및 필요성

– 전라남도의 화학물질 유통량은 전국대비 28.5%인 182.0백만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화학물질 배출량은 3.3천톤(전국대비 6.1%)으로 경기, 울산 등에 이어 6위임(2018년 기준).

그림 III-5-15
시·도별 화학물질 유통량 및 배출량(2018년 기준)



자료 : 화학물질안전원(2021), '18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https://icis.me.go.kr/prtr/)

• 화학물질 배출량은 6위이지만, Ⅰ그룹(연간 제조·사용·취급량 1톤 이상인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 벤젠 등 20종) 화학물질 배출량(241.9톤, 전국대비

25.0%) 및 1군 발암물질(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배출량(240.2톤, 전국대비 26.5%)은 전국에서 가장 많았음(2018년 기준)

※ Ⅰ그룹 화학물질 배출량(상위 3개 지역, 2018년 기준) : 전남 241.9톤, 대구 142.5톤, 경기 123.5톤

※ Ⅰ군 발암물질 배출량(상위 3개 지역, 2018년 기준) : 전남 240.2톤, 대구 141.6톤, 경기 117.3톤

– 화학물질 유통량 및 유독성 화학물질 취급량이 많은 전라남도는 화학물질 취급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도민 대상 투명한 정보 공개 등 필요

● 주요 사업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체계 구축

- 1·2군 유해화학물질[28] 취급사업장 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제도 이행(교육·컨설팅, 작성 매뉴얼 제작 등)
- 사업장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운영 및 안전관리 정보 제공
- 중소·영세기업 화학안전 시설 개선 지원
- 운반계획서 활용 내실화, 불법개조 금지, 보호장구 차량 내 비치 의무화 등 화학물질 운반 차량 안전관리 강화

–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SMART[29]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유해성, 배출량, 저감 가능량 등을 고려해 저감 대상물질 및 사업장 확대

– 선진 화학 안전문화 정착

- 대·중소·영세기업 안전관리 상생협력
- 사업장, 안전관리자, 화학물질취급자 교육 및 홍보
- 민·관·학·연 '(가칭)전남화학안전네트워크 포럼' 구성·운영
- '우리 지역 화학물질 APP' 등 취급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지역사회 공유

⬡ 체계적인 화학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시스템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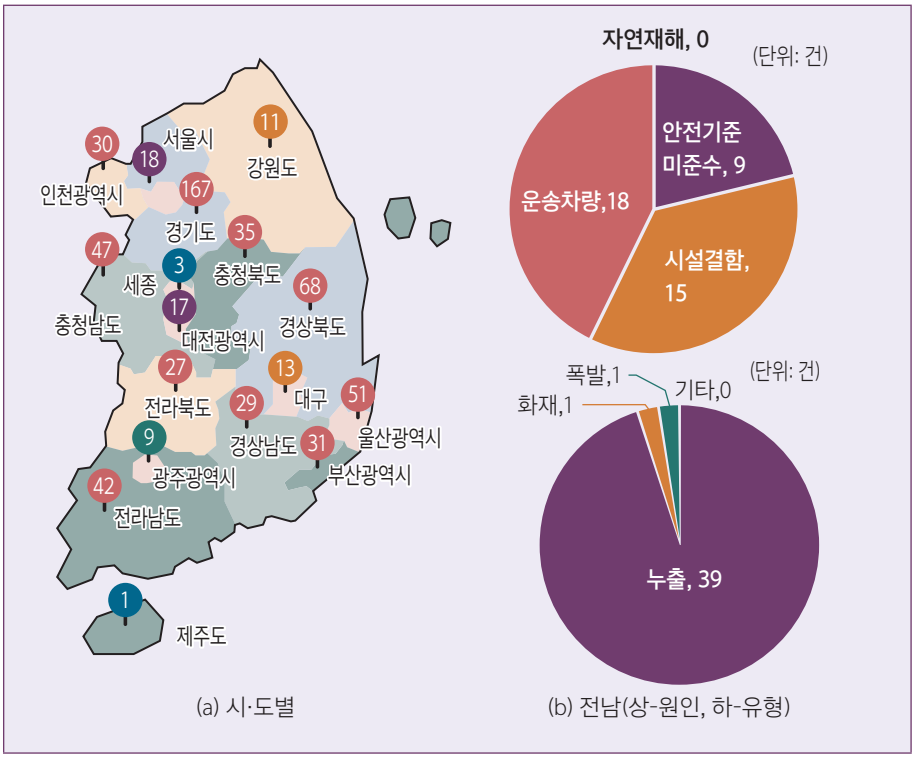
● 배경 및 필요성

– 2014년 이후 도내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42건이었고, 원인별로는 운송차량(18건), 시설 결함(15건), 사고형태별로는 누출(39건)이 가장 많았음

2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은 1군, 하위~상위 규정수량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2군으로 분류

29) Stewardship-based Management for Area-specific Risk reduction Target

그림 III-5-16
화학사고 발생 현황 (2014년 이후)



자료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main.do)

–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화학사고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정확한 조치 및 비상 대응을 위한 시스템 마련 시급

● 주요 사업

–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연계 산단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 열화상적외선 카메라, 원거리 영상탐지차량, 화학사고측정·분석차량 등 화학시설 안전장비 확충

그림 III-5-17
화학시설 안전장비(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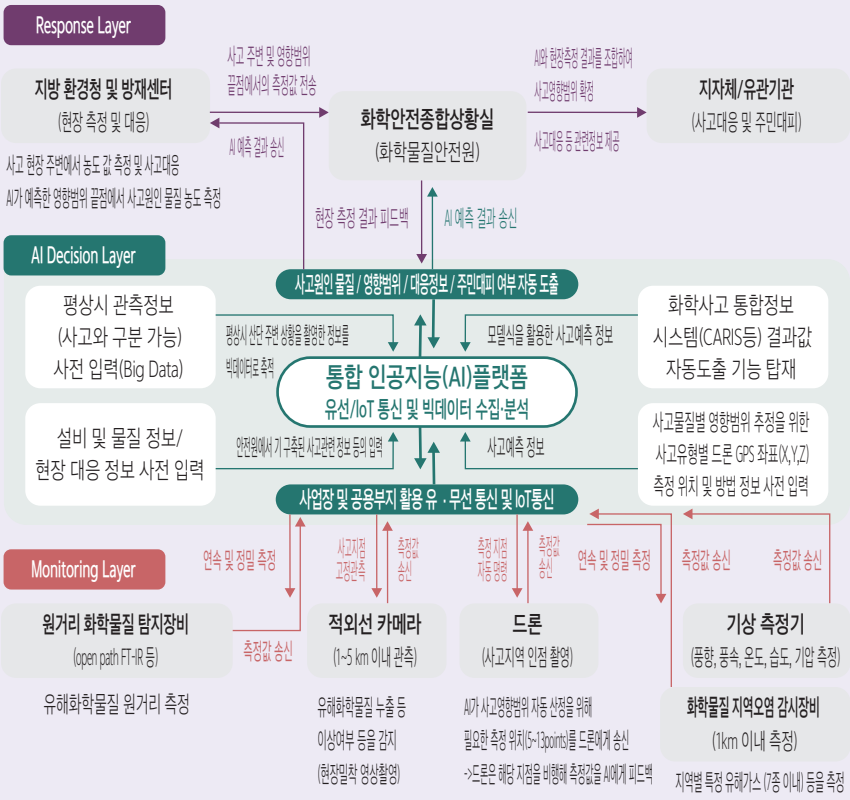


(a) 원거리(0.5~1㎞) 영상탐지차량 (b) 화학사고 측정·분석차량

자료 : 환경부(2020), 첨단장비 활용 비대면 점검으로 화학시설 안전 지킨다(2020. 4. 20. 보도자료), 환경보건뉴스(2017),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사고 예방 전문인력 대폭 보강.

• AI·빅데이터 기반 산단 화학사고 조기 감지 및 대응시스템 구축

그림 III-5-18
AI 기반 화학사고 대응 플랫폼(안)



자료 : 환경부(2020), 제2차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2021~2025)

–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
  - 현장에서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진, 그림 등을 이용한 화학사고 비상대응 실무매뉴얼 작성·활용
  - 유관기관 합동 화학사고 비상대응훈련 확대
  - 보호장구, 탐지장비, 누출방지배수백 등 화학사고 방재장비 확충
  - 화학사고 대응 전문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2차 피해 저감 완충시설 설치·운영

그림 III-5-19
화학물질 누출 피해저감을 위한 완충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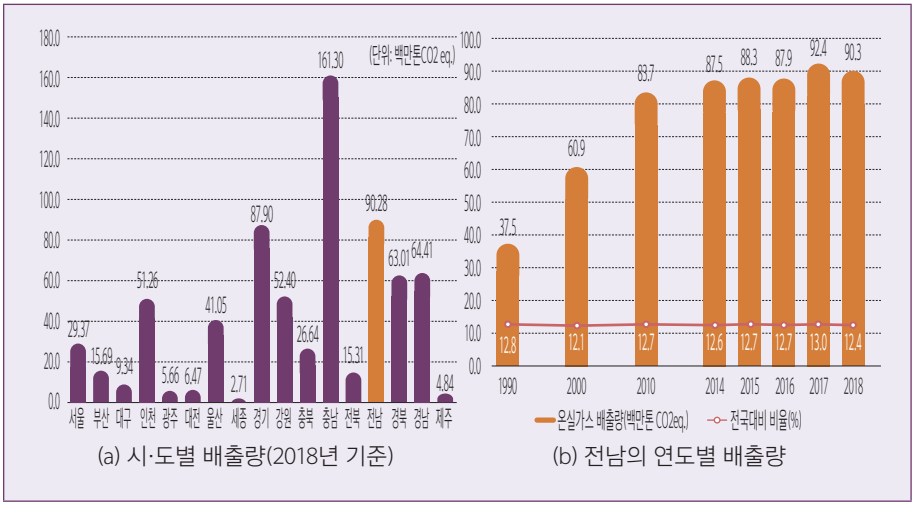
(a) 완충녹지　　(b) 완충저류시설 개념도

(4) 탄소중립 이행 및 순환경제 기반 조성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사회 기여

- 배경 및 필요성
  - 2018년 기준 전라남도의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90.3백만톤CO_2eq.로 충남(161.3백만톤)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음
    - 1990년 이후 전국대비 점유율은 12.1~13.0% 수준

그림 III-5-20
시·도별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및 전남의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a) 시·도별 배출량(2018년 기준) (b) 전남의 연도별 배출량

자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0), 광역지자체 기준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8)

-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발전·산업, 건물, 수송 등 사회·경제 전반의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필요
  - 전라남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017년 직접배출량 기준) : 2030년 30.5%(28.2백만톤), 2050년 100%(92.4백만톤)
  - 수단별 온실가스 감축·흡수량 : 재생에너지 확충 26백만톤, 산업의 탈탄소화 36백만톤,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4백만톤, 농·수·축산업 스마트화 2백만톤, 탄소흡수 및 도민실천 24백만톤
- 또한,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 12개 시·군으로 구성된 남해안 남중권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유력 후보지로 COP33 유치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그림 III-5-21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비전 체계



자료 : 전라남도(2021), 2050 탄소중립 전남

● 주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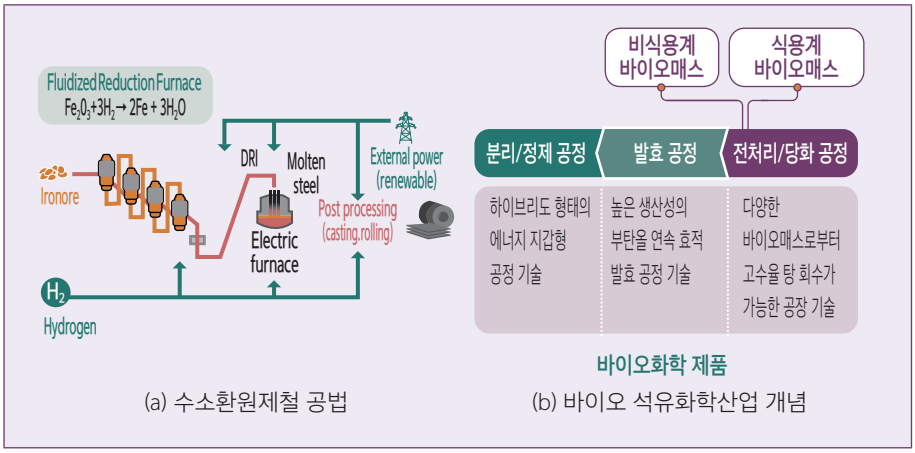
– 발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 태양광, (해상)풍력,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확충을 통한 전력자립률 개선
- 노후 석탄화력발전시설 단계적 폐쇄, 신규 석탄화력발전시설 건설 금지 등 석탄발전 제로화
- 블루수소 산업 육성 및 그린수소 R&D·실증 추진
-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촉진

※ (철강) 수소환원제철 공법 도입, 탄소저감형 하이퍼 고로, 스크랩 재활용 등

※ (석유화학) 나프타 대체연료(수소, 바이오매스, 폐플라스틱 등), 바이오소재 개발, 전기열 분해 공정 개발 등

그림 III-5-22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의 저탄소 공정



(a) 수소환원제철 공법 (b) 바이오 석유화학산업 개념

자료 : POSCO Products(2021), The Future of Steel-Hydrogen-based Steelmaking, EBN(2017), GS칼텍스, 부탄올부터 나일론까지 바이오화학 속도낸다.

- 최적가용기법(BAT) 설정, 할당 인센티브 등 배출권거래제 정착
- 에너지 수요자원거래(DR) 시장 활성화
- 도내 기업 대상 RE100 캠페인 확산

※ RE100 이행 수단 : 녹색 프리미엄, 인증서(REC) 구매, 제3차 PPA, 지분 투자, 자가발전

–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 신규 건물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및 기존 건물 그린리모델링(고성능 단열, 창호, 옥상·벽면녹화 등)
  - 에너지 고효율 가전·사무기기 보급 확대
  -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등 스마트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 친환경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제한
  - 철도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교통 수요관리
  - 친환경 그린항만 조성 및 친환경 선박 개발
– 농·수·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 축산 클러스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등 농·수·축산 스마트화
  - 영농형 태양광, 수상태양광, 양식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 경종(친환경비료 사용 확대, 농가시설 난방 및 단열, 논물관리 등) 및 축산부문(가축분뇨 에너지화, 저메탄 사료 개발·보급 등) 온실가스 감축 추진
– 탄소흡수 기능 강화
  - '숲속의 으뜸 전남' 지속 추진 및 테마숲 조성
  - 국산 목재제품 이용 확대 및 전남 목재산업 활성화
  - 임령을 고려한 재조림 사업 및 유휴토지 산림 전환
  - 해안생태계 복원 및 바다숲 조성
–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등 기후·환경 선도도시 조성
  - COP33 남해안 남중권 공동 유치

※ 여수선언(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의 가치를 보유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이 글로벌 기후규범을 논의하는 COP33을 공동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동서화합 모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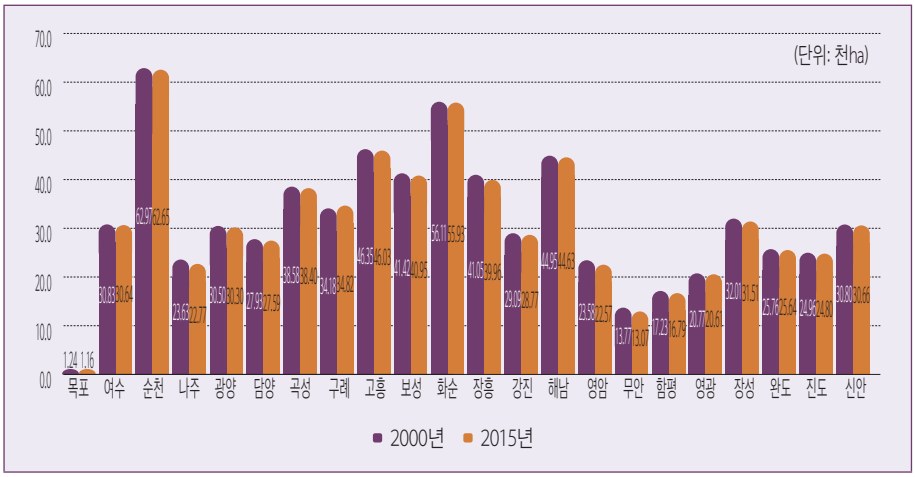
  - COP 개최도시 네트워크 구축 등 COP33 유산 계승
  - 세계도시포럼(World Urban Forum), 푸른 하늘의 날, 도시환경협약, 유엔산림포럼 등 기후·환경 국제회의 지속 개최

⬡ 생물종 보존·관리 등 지역의 생태가치 유지 및 증진

●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 가속화,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서식지 파괴, 외래종 침입, 환경오염 심화 등 생태계 위협요인 증가
  - 최근 15년간(2000~2015년) 도내 산림면적은 7.47천ha 감소

그림 III-5-23
도내 산림면적 변화 (2000년 vs. 2015년)



자료 : 산림청(각년도), 산림기본통계

- 도내에서도 미국가재(2018년 지석천, 대초천 등), 큰입배스(2006년 담양호), 황소개구리(2006년 신안), 붉은귀거북이(2005년 순천 동천) 등 생태계 교란 생물종 다수 발견

– 생물종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복원 등을 통해 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주요 사업

– 자생 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 강화

- 도내 자생 생물자원 DB 및 지도 구축

※ 국가 생물자원(54.4천종, 2020년 기준) 인벤토리를 토대로 전라남도에 서식 중인 생물자원 DB·지도 구축 및 업데이트

- 생태관측소 설치 및 AI 기반 기후변화 취약종 모니터링

– 생물서식지 보전 및 복원

- 국립·도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확대
- 도서·연안, 하천, 산림 등 생태축 훼손·단절구간 조사 및 복원

※ 습지복원, 수림대·생태숲 조성, 생태통로 설치, 폐도복원 등

– 유해·교란생물종, 외래종 등 생태계 위협요인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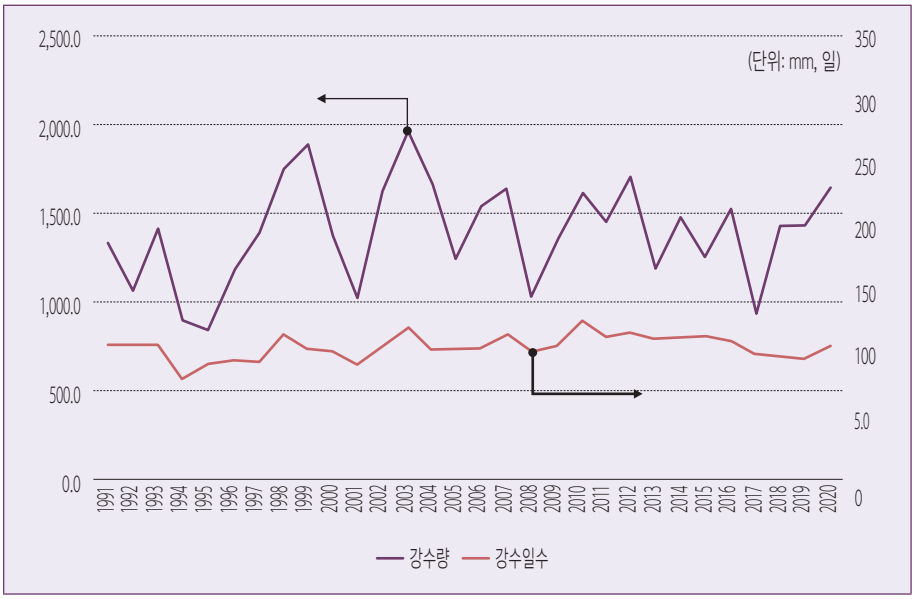
- 생태계 교란종 유입경로 및 서식 환경 조사
- 피해 사례, 주변 생태계 영향 등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
- 주민참여형 퇴치사업, 주요 생물종별 위해관리 매뉴얼 제작 등 관리 강화

⬡ 수자원 시설의 안전성 강화, 대체수자원 확보 및 물순환 건전성 회복

●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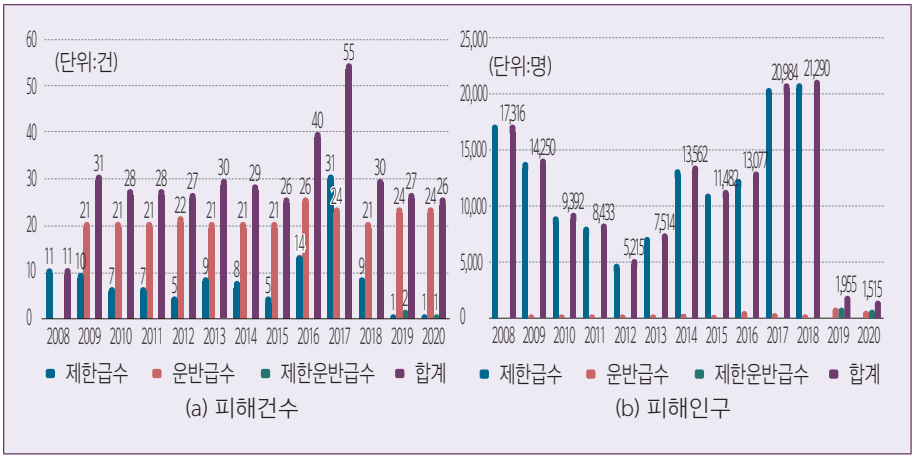
– 전라남도의 최근 30년간(1991~2020년) 연간 강수량은 843.1~1,956.3㎜, 강수일수는 79.2~126.2일로 변동성이 큰 편이며, 2008년 이후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 운반급수 등 피해 건수는 연평균 29.8건, 피해 인구는 연평균 11.2천명임

그림 III-5-24
전남의 최근 30년간 (1991~2020년) 강수량 및 강수일수 변화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climate/)을 토대로 재구성

그림 III-5-25
전남의 가뭄피해 현황



자료 : 가뭄정보포털(https://www.drought.go.kr/)

– 이상기후로 인해 홍수, 가뭄,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등 물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응형 물관리 대책 추진 필요

● 주요 사업

– 집중호우에 효율적 대응

• 빅데이터 기반의 기후변화 분석 및 기상예측 시스템 구축

※ 수위관측소 설치, 전파강수계, 강우레이더, 홍수 분석·예보시스템 등

• 댐, 보, 저수지 등 하천시설 정보 고도화 및 유관기관 공유·협업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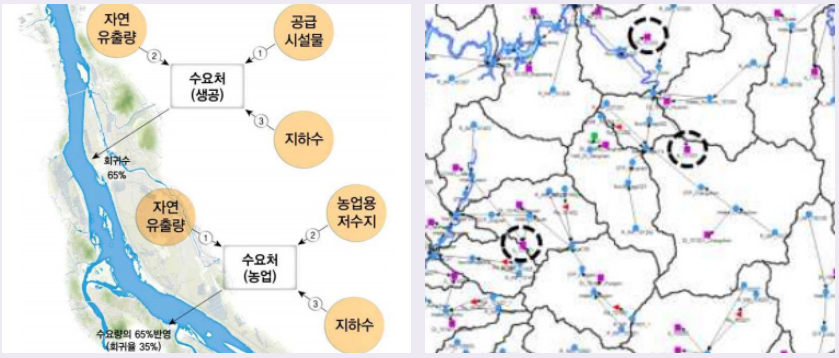
• 통합 재난관리체계 구축

※ 홍수 설계빈도 상향(댐·하천시설 100~200년 → 500년, 하수관로 10~30년 → 30~50년), 저류시설 및 펌프장 확충, 스마트 하수관로 시스템 구축 등

– 물 수요관리 강화 및 대체 수자원 확보

• 유역단위 물수급 네트워크 구축

그림 III-5-26
물수급 네트워크 개념



(a) 분석 개요 (b) 네트워크 구축 예

자료 : K-Water(2019), 지역수자원관리체계 실현을 위한 표준유역단위 물수급 체계 구축(2)

- 해수담수화, 지하댐 등 도서지역 수자원 공급시설 확충
- 하수처리수 활용도 제고

※ 기존 공업용수시설과 하수처리 재이용수 연계, 하천유지용수 공급, 가뭄 취약지역 비상 농업용수 등

– 건전한 물순환 체계 조성

- 신규 택지개발 및 도시재생 시 LID 등 친환경 배수 체계를 도입한 물순환 도시 조성

그림 III-5-27
LID 기법이 적용된 도시설계 모식도



자료 : 김경민, 김진수(2015), 물순환 시스템의 저영향개발(LID) 도입 동향과 시사점

- 투수성 포장 및 침투시설(침투통, 침투트렌치 등) 확충
- 인공습지, 빗물정원, 식생체류지, 여과시설 등 우심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그림 III-5-28
비점오염원 관리시설



(a) 인공습지 (b) 빗물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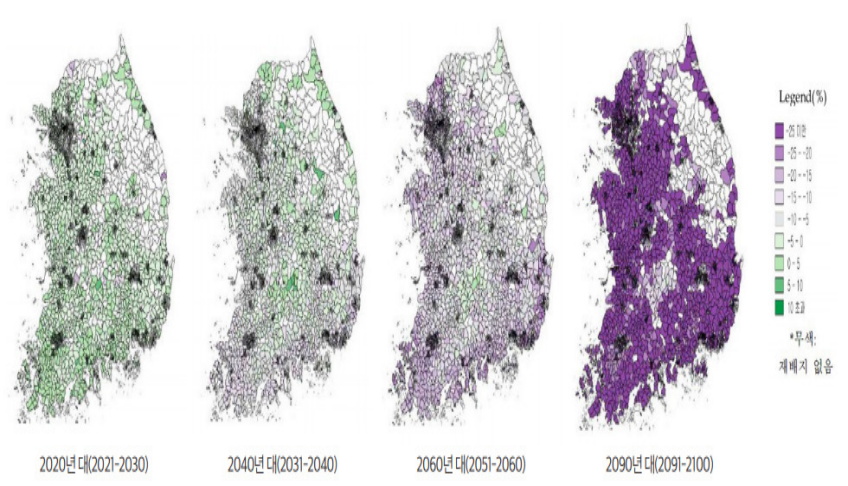
(c) 식생체류지 (d) 모래여과시설

자료 : 비점오염저감시설 정보관리시스템(http://npslid.hecsystem.com/user/intro.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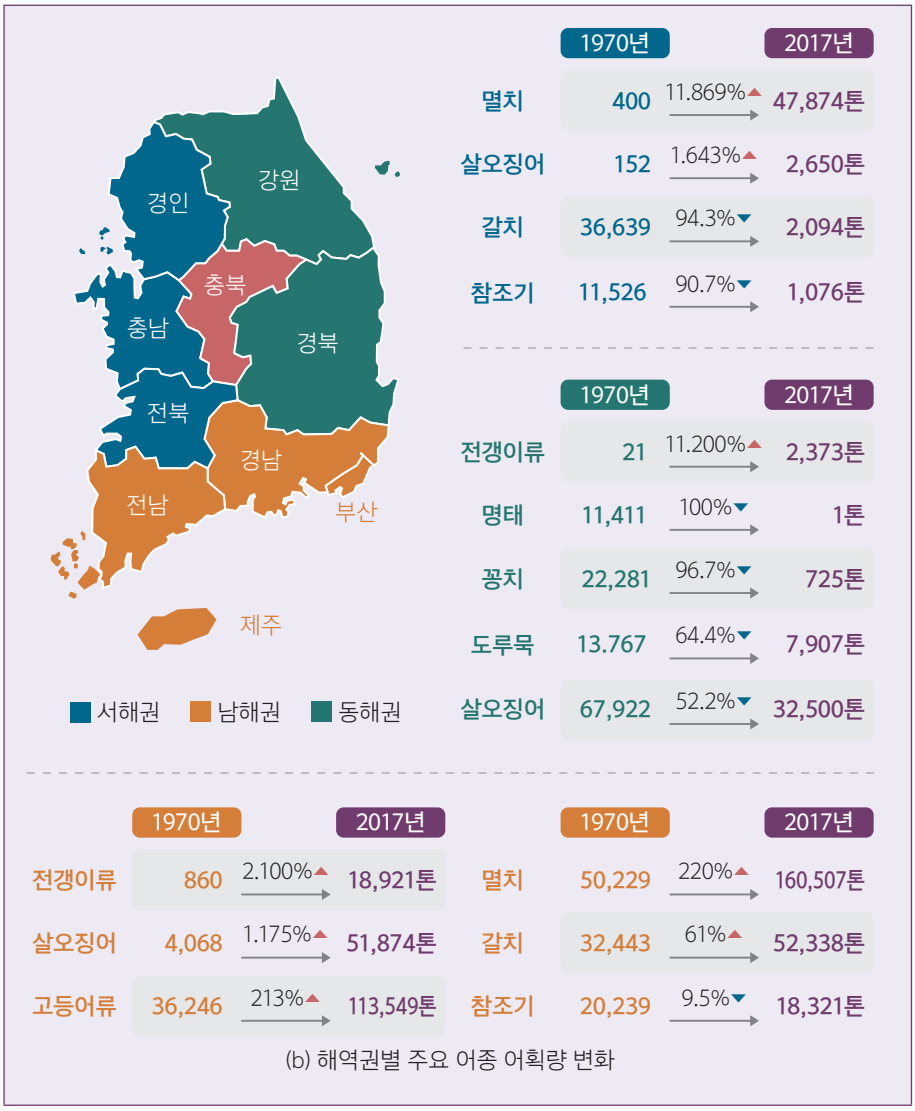
기후변화 적응품종 및 재배·양식기술 개발

-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및 강수 변동성 심화는 작물, 수산생물 등의 생육환경을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병해충, 병원체 등 주변 생물의 변화를 유발하여 농업 및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향후 심화될 전망
    - 작물생육모형 모의 결과, RCP8.5 적용 시 금세기말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벼(중만생종)의 생산량은 25% 이상 감소 전망
    - 수온 상승으로 1990년 이후 연근해 해역의 어획량은 고등어류, 멸치 등 난류성 어종이 증가하고, 명태, 꽁치 등 한류성 어종 감소

그림 III-5-29
전남의 가뭄피해 현황



(a) 중만생종 벼의 단위 수량 변화 전망(RCP8.5)



(b) 해역권별 주요 어종 어획량 변화

자료 : 환경부(2020),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통계청(2018), 기온(수온)변화에 따른 주요 어종 어획량 변화

– 기후변화 적응 품종 및 종묘 개발·보급, 지역 기후 및 토양·해양 특성에 맞는 최적 재배·양식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 조성 필요

● 주요 사업

– 열대·아열대 작물, 내재해성 신품종 등의 개발 및 보급

-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와 연계한 아열대 작물 재배 연구 및 농가 실증
- 아열대 작물 병해 모니터링 및 적정 관리요령 농가 보급
- 배추, 무, 양파, 고추, 마늘 등 주요 채소 내재해성 평가 기준 마련 및 신품종 개발·보급

– 지역 기후 특성에 맞는 최적 재배기술 개발·보급 및 농업기반시설 재해 대응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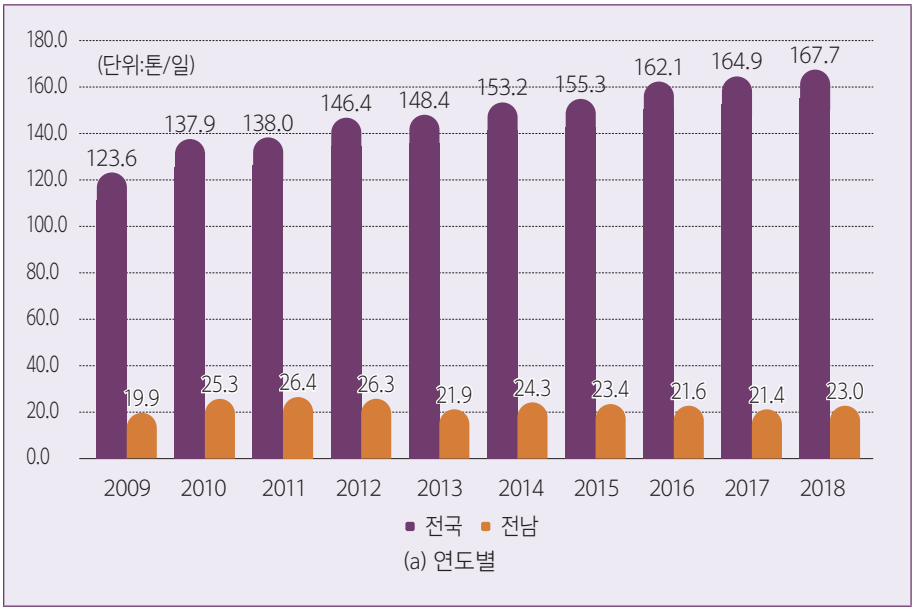
- 재배적지, 기상환경, 토양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작목별 재배기술 개발 및 농가 보급
- 폭염, 폭우 등에 대응 가능한 내재해형 농업시설 개발·보급
-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기반시설 안전 정밀진단 확대 및 노후시설 성능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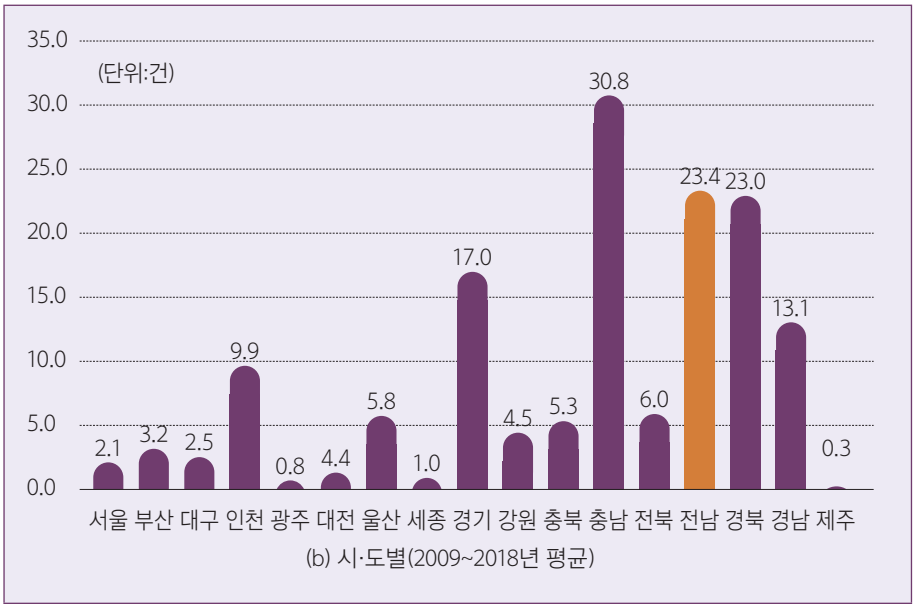
– 아열대 어종 모니터링 및 내병성을 갖춘 우량종묘 양식기술 개발
  • 어종, 분포지역, 자원량, 서식환경 등 아열대 어종의 서남해안 분포특성 조사
  • 도내 주요 양식생물(김, 전복, 새우, 넙치, 해삼 등)의 고수온 환경에서의 내성 평가 및 내병성 우량종묘 생산기술 개발
  • 성장률, 내병성, 생존율 등을 고려한 신규 양식품종 선정 및 양식기술 개발·보급
– 어장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확충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어장 정비
  • 수온, 염분, 수질오염물질 등 ICT 기반 실시간 관측 시스템 확충
  • 해역등급제, 가두리·갯벌 양식장 구조 고도화 등 추진

⬡ 자원생산성 효율화 및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 감량

● 배경 및 필요성
– 폐기물 관리 패러다임이 과거 청소, 처리에서 자원순환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녹색순환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순환이용성을 고려한 제품 생산 필요
– 전라남도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전국 2위 지역으로 생산단계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생산성 향상 등의 노력을 통해 자원효율적인 생산구조를 확립해야 함

그림 III-5-30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 현황(2009~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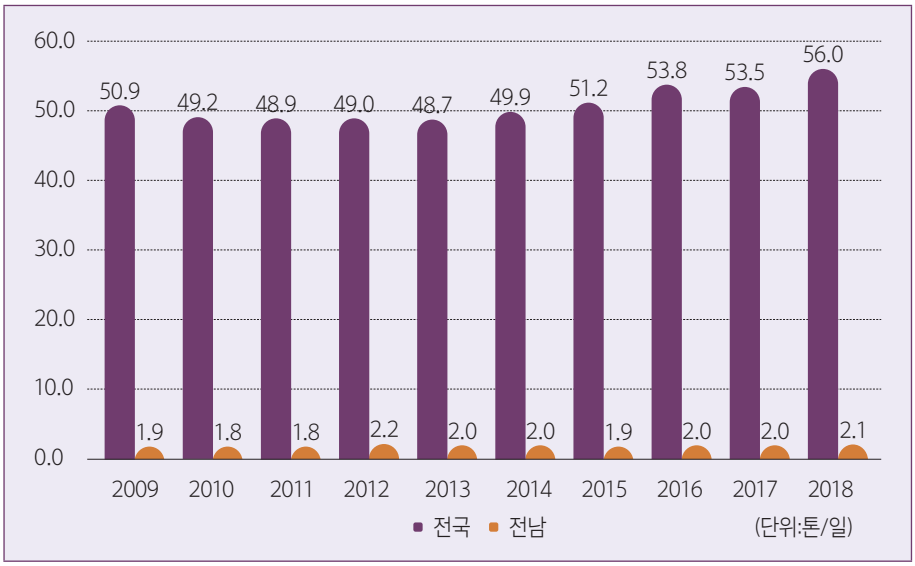


자료 : 환경부(각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주요 사업
  - 도내 주요 제품에 대한 자원흐름도 작성 및 활용
    - 금속자원, 목재 등에 대한 흐름 전과정 정보체계 구축
  - 산업단지 청정생산공정 도입 지원
    - zero-emission 생산공정 기술, 자원절약형 생산공정 기술,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등
  -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 감량 및 순환이용을 고려한 제품 생산
    - 사업장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정착
    - 순환 용이성을 고려한 포장재, 전자제품 등 재질 및 구조 개선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

그림 III-5-31
최근 10년간 생활계폐기물 발생현황



자료 : 환경부(각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배경 및 필요성

– 생활수준 향상,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지속 증가 추세

– 1회용품 사용 억제, 음식물폐기물 감량 등 도민의 참여를 통한 생활 속 폐기물 감량 및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구축 필요

● 주요 사업

– 쓰레기 줄이기 도민 실천운동 전개

• 쓰레기 배출 줄이기, 물품 기증,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 등 생활 속 실천 캠페인 강화

• 찾아가는 교육(학교 등), 동영상 등 자원순환 관련 도민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참여, 푸드뱅크 등을 통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 대체가능 1회용품 사용 제로화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금지 의무화, 커피숍 등 1회용품 폐기물 과다배출 사업장과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재사용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등

– 로컬푸드 활성화, 포장재 다이어트 등을 통한 포장폐기물 감량화

– 공공부문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및 녹색매장·나눔장터 확대

• 공공기관·관급공사 재활용제품 사용 비율 의무화

• 우수재활용제품 조달 시 인센티브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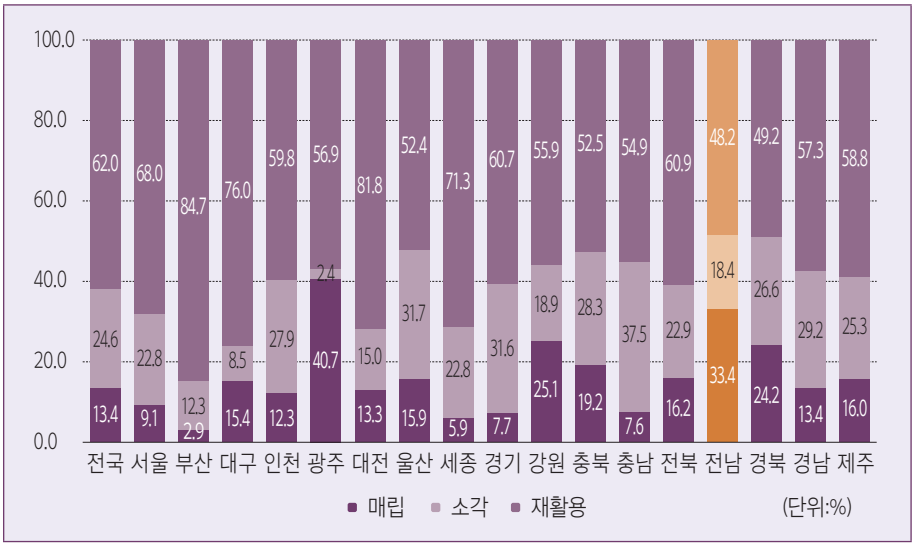
• 시·군별 재활용 나눔장터 개최

⬡ 폐기물 관리기반 구축 및 순환이용 촉진

● 배경 및 필요성

– 2018년 기준 전라남도의 생활계폐기물 재활용 수거 비율은 48.2%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매립 비율은 33.4%로 광주 다음으로 높음

그림 III-5-32
2018년 기준 생활계폐기물 처리현황



자료 : 환경부(각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생활계폐기물 직매립 최소화, 재사용·재활용 촉진 등을 통해 매립 중심의 폐기물 처리 정책을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 필요

● 주요 사업

– 배출·수거·선별체계 개선
  •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 동네마당 등 재활용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
  • 영농폐기물 체계적 수거를 위한 공동집하장 설치

–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 폐기물 처분부담금 부과, 폐기물 전처리시설 확충, 순환형 매립지 조성 등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 센터 구축 및 업사이클링 센터 확충
  •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드론, 풍력발전 블레이드, LED 등의 수거를 위한 거점센터 구축
  • 미래폐자원 재활용 기술 개발 및 관련 기업 육성
  • 업사이클링 센터 확충, 에코 디자이너 양성, 업사이클 브랜드 개발 등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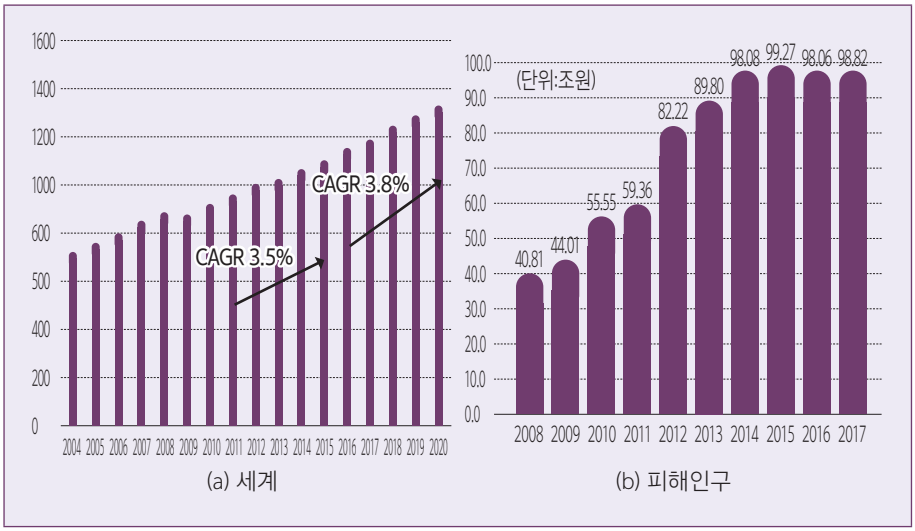
–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
  • 매립·소각시설 개보수 및 신규 설치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대 설치
  • 소각여열 회수시설 보수 및 확충

지역 기후·환경문제 해결,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환경기술 개발 및 사업화

● 배경 및 필요성

– 환경산업은 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해 환경시설,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중심형 융·복합산업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임
  • 지난 7년간(2011~2017년) 세계 환경시장은 3.6%의 안정적 성장세로 2020년 1.3조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향후 10년간 연간 7% 이상 급성장 전망
  • 2017년 기준 국내 환경시장 규모는 2008년 대비 2.4배 성장한 98.8조원 규모

그림 III-5-33
환경시장 규모



자료 : 환경부(2020), 2020 환경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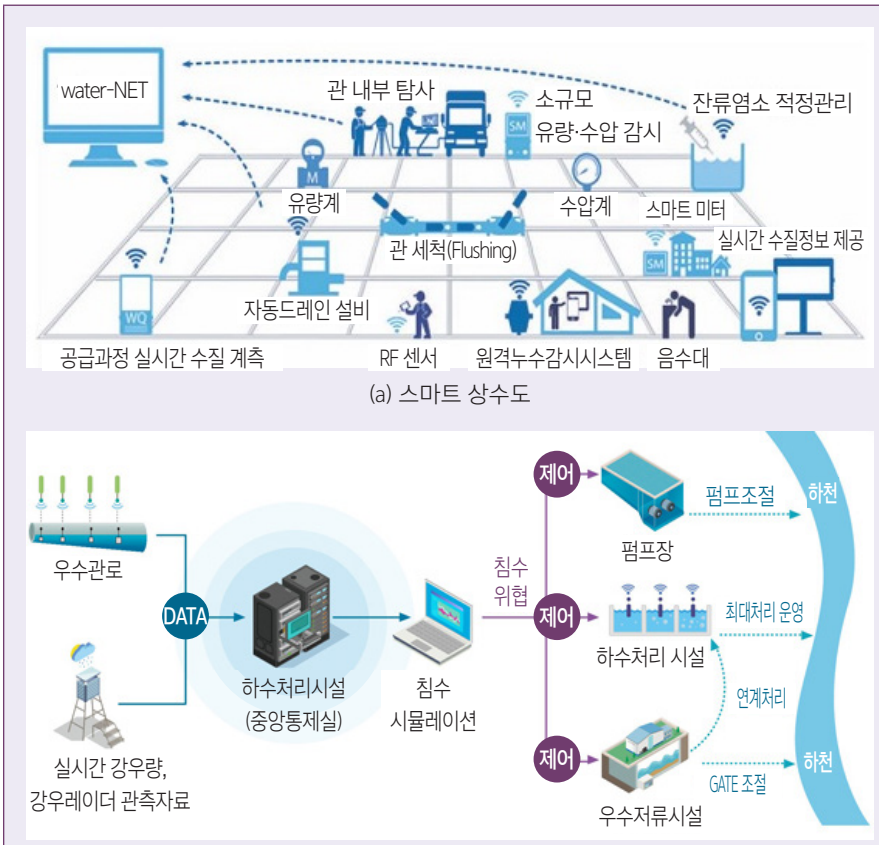
– 기후변화 등 환경위협 가중,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 증대, 4차산업혁명 대두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경기술 개발 및 관련산업 육성 필요

● 주요 사업

– 4차산업혁명 연계 환경기술 개발 및 사업화

- 빅데이터 기반 에너지·온실가스 통합관리, IoT 대기·수질 모니터링, 스마트 폐기물 관리 등
- 랩온어칩[30], MEMS[30] 기반 유해가스 센서 등 고성능 스마트 환경센서 개발 및 환경모니터링 고도화
- 기상·기후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 IoT 기반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 구축

그림 III-5-34
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 개념도



자료 : 워터저널(2020), 환경부,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본격 추진, 환경부(2020), ICT 기반의 똑똑한 하수관리로 안전한 물환경 만든다

30) 랩온어칩(Lab-on-a-chip) : 초미세회로의 반도체 기술과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등을 집적·소형화하여 미량으로 채취한 시료의 전처리부터 혼합, 반응, 분리, 분석의 전단계를 하나의 칩 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한 장치

31)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 입체적인 미세구조와 회로, 센서와 액츄에이터를 실리콘 기판 위에 집적화 시킨 마이크로시스템 또는 마이크로머신

– 기후변화 대응 환경기술 개발 및 실증

• 발전·산업시설 배출 CO_2 저감을 위한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사업화 플랫폼 구축

그림 III-5-35
CCUS 개념도



자료 : 에너지데일리(2020), 탄소중립 핵심, CCUS 기술 개발 적극 지원하겠다

• 갯벌 재생(폐염전, 폐양식장 등), 옛물길 회복 등 갯벌 생태계 복원

• 바이오가스, 하수열,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활용한 공공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 도민 체감형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서비스 제공

• 미세먼지 위해도 진단 기술 개발, 미세먼지 지도 작성·제공 등 미세먼지 오염·위해도 진단 및 저감기술 개발

• 도서지역 물공급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해상이동형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 개발

• 해양폐기물 분포 정밀 조사, 해양폐기물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 친환경 양식 기자재 개발 등 해양폐기물 관리 고도화

제2절

정감있고 문화가 깃든 남도경관 연출

1. 현황 및 문제점

1) 경관자원 현황 및 문제점

산림경관

- 난개발로 인한 산림경관 훼손에 대한 문제 해결미흡과 더불어 산림경관에 대한 자원으로의 인식 결여, 관리·활용 정책 부족함
- 임도, 산간도로 건설로 절개지가 발생하고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경관자원으로 활용이 미흡함
- 완도 상황봉 일대, 보길도, 진도 등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전체 난대림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원화가 미흡함
- 태양광, 풍력발전시설, 철탑, 묘지 등의 조성이 경관의 주요 훼손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주요산지 진입부의 난삽한 건물이나 간이시설 등이 경관을 훼손하고 있음

그림 III-5-36
법성포 숲쟁이 공원입구의 부조화한 페인팅벽화(영광)



그림 III-5-37
축령산 진입부 상업시설 및 간이시설의 부조화 (장성)



해안경관

- 해안가 모텔 등 상업시설의 난립과 가로시설물, 간이상업시설물 등으로 경관이 훼손됨
- 자연성, 경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로 콘크리트 구조물(물양장, 방파제 등)이 과다 노출됨
- 서남부지역(리아스식 해안, 갯벌, 만, 연안습지, 염전 등)의 해양경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경관 디자인 필요
- 해안에서 조망되는 갯벌, 해안선, 다도해 등의 경관자원이 존재함에도 워터프론트/해안관광도로/조망점 개발이 미흡여 개선이 요구됨
- 해수욕장 배후의 대부분의 방풍림 훼손이 심각함
- 서남해안 항포구가 경관자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경관자원화 필요
- 해안주변의 산책로나 조망지점에 과도한 데크시설이 경관을 훼손함

그림 III-5-38
법성포 매립지역의 해안선 처리와 갯벌훼손(영광)



그림 III-5-39
율포해수욕장 배후 송림 사이로 도로가 통과함(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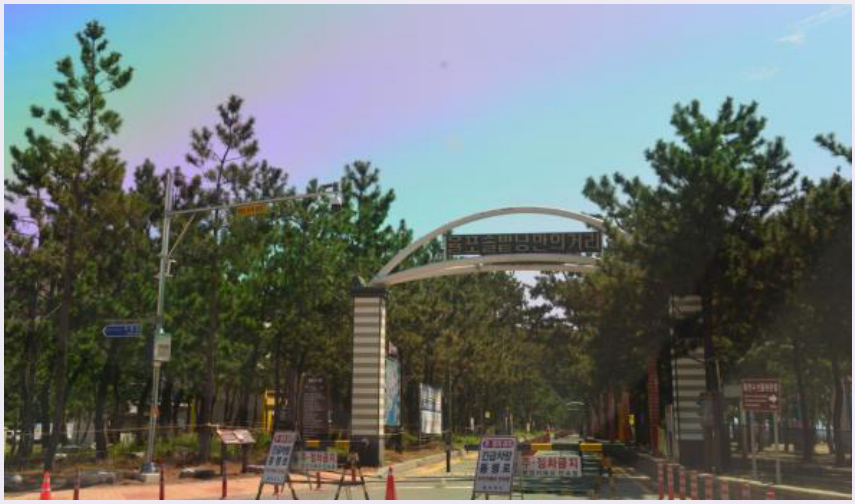


그림 III-5-40
과도한 보라색 사용으로 자연경관과 부조화한 퍼플섬 색채사용(신안)



하천호소경관

- 하천, 호소변 음식점과 모텔 난립 등 난개발이 되고 있어 「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같은 개선책이 요구됨
- 하천정비 등 과정에서 과도한 인공요소가 도입되어 있어 친자연형 정비대책 필요
- 하천이나 호소의 경우 조류, 어패류 등이 서식하므로 생태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경관적으로 자연경관이 압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함

그림 III-5-41
섬진강 변의 과도한 보도교 (곡성)



그림 III-5-42
주암호 주변의 과도하게 데크시설이 되어 있는 습지 (보성)



전원경관

- 경작지, 마을 등이 주를 이루는 자연경관에 무분별한 생산시설(축사, 시설하우스, 태양광 등), 아파트 건설에 대한 입지규제 방지 대책 마련 등 경관정책 수립이 필요함
- 고층아파트의 지속적인 증가(총 주택수의 약 3.0~9.0%)와 모텔, 창고, 식당 등이 난립하여 정원경관의 정체성을 읽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 전통적인 한옥이 줄어들고, 슬라브 지붕 건물 증가로 전통적인 마을 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빈집 증가(총 주택수의 2.0~4.0%)로 경관이 악화되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됨
- 미곡위주의 경작이 4계절의 경관형성에 한계점으로 작용하는데다(최근 관상작물 재배가 다소 늘어남) 농업 시설물 증가로 경관이 저해됨
- 최근에 컬러마케팅이나 도시재생 사업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원색지붕이나 가로시설 담장의 페인팅 벽화 등이 향통경관관 부조화를 이루고 있어 농촌경관과 어울리는 식재 디자인 등의 도입방안 검토 필요

그림 III-5-43
과도한 시설하우스가 전원경관 훼손(담양)



그림 III-5-44
컬러마케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도한 원색 지붕(장성)



역사문화경관

- 사찰, 누정, 향교, 관아, 전통마을 등 역사경관 주변이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경관이 형성되어 있음
- 자연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방안과 전반적인 관리 및 공공디자인적 접근이 필요함
- 전라남도의 자연 역사자원인 영산강 상류와 무등산 자락에 찬란한 가사문화와 누정문화 등을 활용한 경관자원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관계획 및 디자인 도입방안 검토 필요
- 일부 공간에 전통경관과 어울리지 않은 외래수종 식재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역사문화 경관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정돈되지 않는 화장실 등 부실한 관리가 경관자원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전통경관의 경우 매력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 마련이나 적재적소의 녹화 등 대응방안이 미흡함

그림 III-5-45
향교 옆 원색의 간이시설 (강진)



그림 III-5-46
향교 주변의 산만한 경관 (영암)



도시기반시설경관

-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비와 디자인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과의 협력 필요함
- 시설 디자인의 과정에서 주변의 경관요소와 조화되도록 검토되는 과정이 필요함

그림 III-5-47
과도하게 인공적으로 디자인 된 상징보형물(강진 마량항)



그림 III-5-48
도로의 공공디자인의 단순미와는 맞지 않는 상징조형물(보성)



- 가로경관
  -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지 않거나 과도한 원색·다색 사용 등 가로변 건축물의 부적절한 디자인, 가로수 과다전지 등으로 어지러운 경관형성에 대한 정책 대응이 요구됨
  - 가로변의 상업시설의 간판·가판시설이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됨
  - 주유소, 타이어회사 등 일부 상업시설의 과다한 색채나 원색사용이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함
  - 승강장, 가로등, 안내판, 광고물 게시대 등이 부적절한 위치와 디자인으로 인해 경관부조화 초래하므로 개선이 요구됨

그림 III-5-49
가로변 특정 상업건물이 과도한 원색사용으로 경관훼손(무안)



그림 III-5-50
가로변의 어지러운 안내판 (보성)



- 건축물경관
  - 시가지 경관의 골격을 형성하며 도시이미지를 결정짓는 건축물 경관은 어느 경관보다 중요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권역별·유형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초고층아파트를 비롯하여 상업건축물, 원룸공동주택 등이 난립하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훼손은 물론 어지러운 색채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 건축물의 경우 개별적으로 심의되거나 심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제각각의 디자인과 색채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음

그림 III-5-51
스카이라인과 색채가 부조화한 나홀로 아파트(보성)



그림 III-5-52
과도한 옥외광고물, 벽화 등 시각적 혼란 초래 상업건물 (좌 보성, 우 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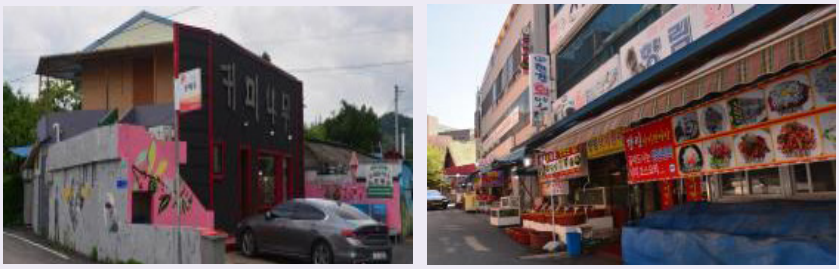


표 III-5-4
경관자원 현황

구분			단위	비고
자연 경관 자원	지형	국립공원	7개	구례 지리산, 장성 내장산, 영암 월출산, 광주 무등산, 고흥 팔영산,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도립공원	4개	순천 조계산, 해남 두륜산, 장흥 천관산, 영광 불갑산
	하천 및 호소	법정하천	561개	
		유로총연장	3,256km	
	해안 및 도서	해안선	6,743km	
		유인도	272개	
		무인도	1,893개	
		해수욕장	60개	
산림 경관자원		산림면적	690,237m²	
		난대림면적	9,850ha	
농산어촌 경관자원	갯벌	갯벌면적	1,054km²	
	연안습지	연안습지	62개	
	염전	염전면적	3,523m²	
시가지 경관 자원	관문거점		-	무안국제공항, 여수공항, 목포항 여객터미널, 여수신항, 목포역, 여수엑스포역, 순천역 등
	주요건물		-	전남도청, 여수엑스포 등
	상징가로		-	국도 77호선, 목포대교, 진도대교, 거금대교, 이순신대교, 천사대교 등
	신시가지		-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남악신도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등
	국제관광		-	여수 엑스포, 순천만정원박람회장, F1경기장, 나로우주센터우주과학관 등
	산단		-	대불 국가산업단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등
도시 기반 시설 경관 자원	도로	도로총연장	10,630km	
		고속도로	417km	
		일반국도	2,027km	
	도로 시설물	보도육교	130개	
		지하보도	2개	
		지하차도	21개	
		고가도로	43개	
		지하상가	1개	

구분			단위	비고
		터널	130개	
		입체시설	5개	
		가로등	149,272개	
	교량	교량	3,205개	
	철도	KTX역	7개	
역사 문화 경관 자원	역사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394개	
		지방지정 문화재	519개	

자료 : 2035 전라남도 경관계획

2) 경관자원의 잠재력 및 관리 방향

지형적 특성

- 전라남도는 한반도 서남부에 위치하며, 동쪽은 소백산맥의 높은 봉우리로 경남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서쪽은 노령산맥의 구릉성 저산지로 전북과 경계를 이룸
- 전라남도는 다도해가 형성되어 있으며 서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이 형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규모가 작은 해수욕장, 넓은 갯벌과 간척지, 수많은 섬이 있음
- 자연경관자원을 미래의 녹색자원(Green infra)으로 인식전환하여 지역경관 전체 네트워크화를 통해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함

그림 III-5-53
취가정에서 조망되는 평촌 들녘과 무등산 경관



그림 III-5-54
월출산과 유채꽃 축제(영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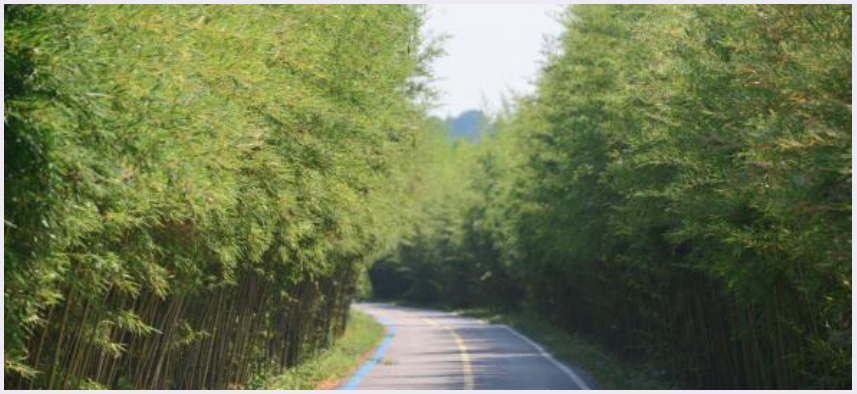
하천 및 호소

- 법정 하천은 모두 561개소이며, 유로의 총 연장은 3,225.8km에 달하고 있음
- 전라남도 전체 하천의 유역면적 중 3대강(영산강, 섬진강, 탐진강)의 유역면적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3대강의 주변 둔치나 주변토지 식재공간을 확보하여 평지림을 조성하여 이를 다양한 용도의 경관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하천 정비 시에 하안을 과도하게 직강화하고 인공화하거나 복원이 미흡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생태가치가 감소될 수 있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으므로 체계적 대응이 요구됨
- 호소의 경우 데크와 연꽃, 편의시설 등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 경관을 조성하고 있으나 경관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관연출이 요구됨

그림 III-5-55
대동저수지(영암)



그림 III-5-56
영산강 하천죽림 녹화(담양)



도서해안

- 전라남도 해안선의 총 연장은 6,743.4km이며, 총 2,165개(유인도 272개, 무인도 1,893개)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음
- 해수욕장은 총 60개소로서 해수욕장의 전체 면적은 4,291m²이고, 전체 길이는 44,960m임

- 해안의 경우 지자체를 초월하여 연결성을 강화하고 자연성을 복원하여 생태의 보고로서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도서의 경우는 오지성, 생태성, 자연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관을 가꾸고 활용하여 지역발전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도서의 경우 목포에 소재한 '한국섬진흥원'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섬 경관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림 III-5-57
득량만 일원의 해안풍경(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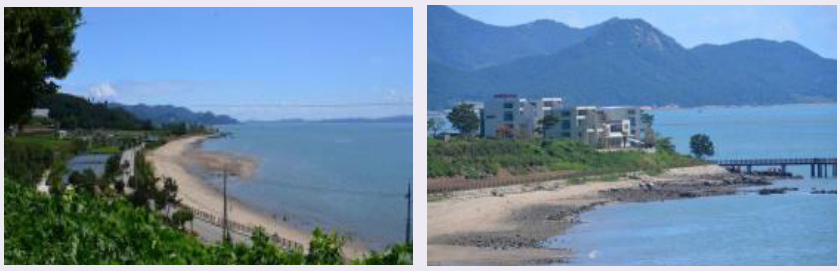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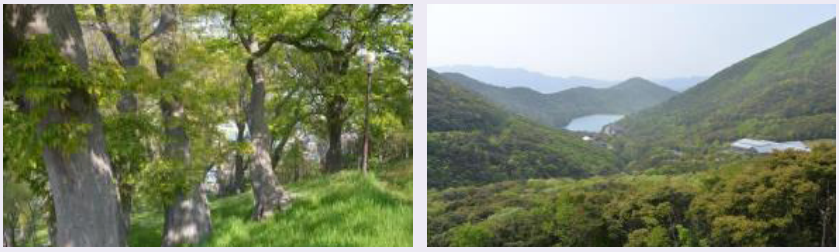
그림 III-5-58
돌산도 주변 다도해와 연안풍경과 여수 선소(여수)



산림경관자원

- 전라남도 산림면적은 약 690,237m²이며 침엽수가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혼효림, 활엽수, 초지, 죽림 등으로 분포함
- 주요 산림 경관자원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난대림 약 9,850ha 중 92%가 분포하고 있는 완도 상황봉 일대, 보길도, 진도 등 특색있는 산림경관을 활용한 경관자원화가 요구됨
- 주요산림자원으로는 지리산, 월출산, 무등산 등 국립공원이 있고 영취산, 일림산, 천관산, 장성 편백림, 장흥 우드랜드 등이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경관자원화하고 있고 그밖에도 담양 병풍산, 장성 방장산, 강진 초당림 등이 우수한 경관자원으로서 활용되고 있음
- 전체적으로 난대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화목 등의 적절한 식재를 통한 관광자원화가 필요하고 기존의 임도를 가꾸어 사계절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림 III-5-59
법성포 숲쟁이 공원(영광) 및 완도수목원 일원 난대림의 잠재력(완도)



농산어촌경관자원

- 갯벌
  - 전라남도의 갯벌 총 면적은 1,053.km²로 전라남도 육지면적의 약 9%를 차지함
  - 비교적 큰 규모의 전남갯벌은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일대와 신안군 일대의 도서주변에 형성되어 있으며 개발로 소실된 전남갯벌의 면적은 370㎢임
  - 신안, 보성, 순천 등이 충남 서천, 전북 고창 등과 더불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음 (2021.8.26.) 이중 신안갯벌이 1,100㎢로 가장 넓고 나머지 갯벌은 60㎢ 안팎인데 모두 습지보호구역이고 일부 람사르 습지가 포함되어 있음
  -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갯벌의 경우 과도한 양식이나 인공화를 규제하고 생태적 안식년제를 도입하는 등의 지속가능한 자원으로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음
  - 도시나 마을에서 가까운 갯벌의 경우 오염원을 차단하여 양질의 갯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그림 III-5-60
서해안의 갯벌(보성)



그림 III-5-61
신안군 병풍리 일원의 갯벌 (신안)



- 연안습지
  - 람사르 협약 기준에 따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 습지는 62개소이며 이중 46개 지역이 연안습지임
  - 순천의 습지의 경우 세계 3대 연안습지로서 위상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연안습지이고 자연경관자원으로서도 그 위상이 높으므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담양 습지의 경우 우리나라 최초 하천습지보호지구로 지정(2014.7)되었는데 철새들의 낙원이 되고 있고 곡성 침실습지의 경우 각종 어패류의 생태서식지로서 생태경관자원 잠재력이 뛰어난 곳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전라남도의 중소하천의 경우도 같은 동일한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할 것임
- 염전
  - 2018년도 전남지역 염전은 1,012개소 3,523.4m^2이며, 이중 운영중인 염전은 969개소 3,400m^2로 염전가동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
  - 사용 중인 염전이나 폐 염전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로 토지이용이 바뀌는 경향이 있어 급작스런 경관변화에 대한 경관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시가지경관자원

- 시가지경관자원으로는 주요 도시를 진입하는 관문의 주요 거점이 되는 장소, 사회·역사·문화 등으로 주요한 건물들, 지역의 상징이 되는 가로, 신시가지, 대표적 관광명소, 산업단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대도시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의 건설로 한층 어지러운 경관을 형성하게 되었고 군단위의 경우 나홀로 아파트가 난립하고 있어 시가지경관의 스카이라인 훼손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주거용건축물의 경우 고층 아파트는 스카이라인이 중요하므로 자연스런 지붕선을 유도하고 단독주택건물의 경우도 박공지붕과 색채의 조화를 권장함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컬러마케팅 차원에서 건물이나 담장, 가로시설물 등을 원색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자연경관이나 전통경관과 부조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페인팅벽화도 주변과 부조화를 형성하고 있음
- 상업지구의 경우 과도한 옥외광고물이 건물의 전면부(facade)의 조형성을 무색하게 할 만큼 난립하고 있어 정비가 요구됨
- 시가지의 경우 가로수 , 가로화단, 공원, 완충녹지 등과 더불어 주변산의 조망 등이 경관자원으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그림 III-5-62
메타프로방스(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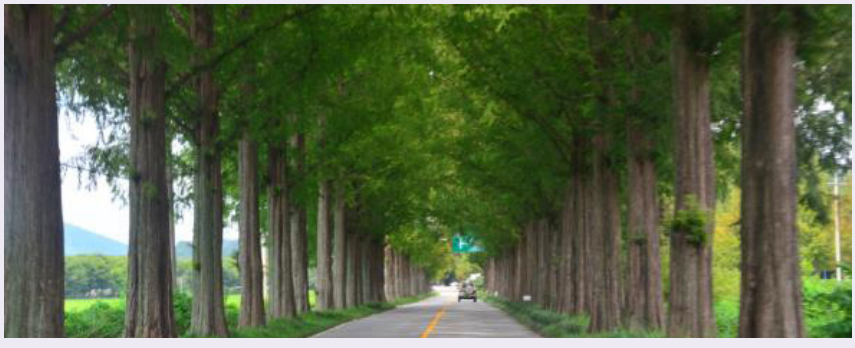
그림 III-5-63
메타프로방스(담양)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 도로
  - 전라남도에는 2018년 기준 약 417km의 고속도로, 2,027km의 일반국도, 2,298km의 지방도, 5,888km의 시·군도 등 총연장 10,630km가 개설되어 있음
  - 국도나 지방도의 경우 노선변경이나 신설도로로 인해 이용률이 낮은 편인데 이들 도로는 가로수가 베어지거나 관리가 소홀하여 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

그림 III-5-64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담양)



- 가로시설물
  - 가로에는 보도육교, 지하차도, 고가도로, 지하상가, 터널, 입체시설, 가로등 등의 도로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드레일(중앙분리대 포함), 승강장, 표지판, 신호등, 전신주, 볼라드, 분전반, 우체통, 화분 등 도로장치물과 도로변의 시설 등이 보도 위 또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음
  - 도로변의 주유소, 타이어회사건물, 상업시설 등에 과도한 다색이나 원색이 사용되고 있어 주변과 부조화한 경관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공공디자인계획 수립을 통해 정연하고 일체감으로 주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반면 난삽하게 디자인 되어 정연함이 떨어지는 지자체도 있는데 가로시설물의 경우 시각적으로 많이 노출되는 경관이므로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그림 III-5-65
주요 상업시설 종합안내판 디자인(담양)



그림 III-5-66
승강장과 그늘 쉼터 디자인 (담양)



- 교량경관
  - 교량은 고속도로에 865개소, 일반국도 1,113개소, 지방도 764개소, 시·군도 96개소, 국가지방도 68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최근 천사대교(압해-암태간)를 비롯하여 화양조발대교-둔병대교-낭도대교-적금대교-팔영대교 등이 연결되어 여수와 고흥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해안경관이 주목을 받고 있음
  - 여수의 제1,2돌산대교와 목포의 새천년대교는 야간경관이 설치되어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변경관과 더불어 조망경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대적인 교량 뿐 아니라 전라남도지역에 분포하는 옛 다리를 찾아 경관자원화 할 필요가 있음

그림 III-5-67
병영성 홍교(강진)



그림 III-5-68
선암사 홍교(순천)



그림 III-5-69
유마사 보안교(화순)



그림 III-5-70
고흥읍성홍교(고흥)



● 철도경관

– 전라남도에는 2개의 호남선 KTX역과 5개의 전라선 KTX역이 있으며 호남선은 광주송정역을 지나 나주를 경유, 목포역에 정착하고, 전라선은 곡성역, 구례구역, 순천역, 여천역을 경유하여 여수엑스포역에 종착함

– 경전선은 남해안을 동서방향으로 횡단하는 밀양시 삼랑진역과 광주 송정역 사이를 오가는 총300.6㎞의 철도로서 경상도와 전라도의 첫 글자를 따서 경전선이라 하였음

– 경전선역 가운데 전라남도지역에 위치한 역은 총25개소이며 이중 관리역이 1개소 보통역 10개소, 무배치간이역 6개소, 신호장 1개소, 폐역된 곳이 7개소로 나타났는데 이들 철로변과 역사주변의 경관관리를 통해 지역의 관광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KTX역의 경우 주요 교통 수단으로 역세권을 형성하므로 주변경관이 쾌적성·지역정체성을 담을수 있도록 경관관리가 필요함

– 경전선 역사(驛舍)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역사와 주변경관을 정비하여 경관자원으로 활용이 필요함

그림 III-5-71
경전선 옥곡역(광양)




그림 III-5-58
경전선 예당역(보성)


진입로


역사 정면

역사문화경관자원

● 전라남도 전체 지정 문화재 중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는 1개가 있으며, 국가지정 문화재 394개, 도지정 문화재는 519개가 지정되어 있음

● 문화재의 구분은 전라남도의 경우 명승(9), 중요민속문화재(2), 전라남도유형문화재(6), 전라남도기념물(12) 전라남도 문화재자료(17) 등으로 총 44개소가 지정됨

- 특히 누정(별서정원)의 경우 담양 소쇄원, 완도 보길도정원, 강진 백운동정원 등 조선시대 3대별서정원을 비롯하여 무등산과 영산강 주변 및 수려한 경관과 조망이 좋은 곳에 위치하여 경관자원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 그 밖에도 전통마을, 사찰(선암사, 대흥사 세계유산 등재), 서원(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향교, 관아 등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질적향상을 위한 정원디자인 개념을 도입, 경관연출을 지역자원화

그림 III-5-73
초연정과 수석(순천)



그림 III-5-74
열화정(보성)



그림 III-5-75
함허정(곡성)



그림 III-5-76
남희정(담양)



표 III-5-5
전남 누정 및 별서정원 문화재 지정현황

구분			명칭	지역
계	44			
명승	9	제25호	순천 초연정 원림 (順天 超然亭 園林)	순천시
		제34호	보길도 윤선도 원림(甫吉島 尹善道 園林)	완도군
		제40호	소쇄원(瀟灑園)	담양군
		제57호	식영정 일원(息影停 一圓)	
		제58호	명옥헌 원림(鳴玉軒 園林)	
		제80호	운림산방(雲林山房)	진도군
		제89호	임대정 원림(臨對亭 園林)	화순군
		제112호	화순 적벽(和順 赤壁)	
		제115호	백운동 별서정원(白雲洞 別墅庭園)	강진군
중요민속 문화재	2	제8호	운조루(雲鳥樓)	구례군
		제162호	열화정(悅話亭)	보성군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	6	제34호	쌍계정(雙溪亭)	나주시
		제184호	벽류정(碧流亭)	
		제55호	사인정(舍人亭)	장흥군
		제160호	함허정(涵虛亭)	곡성군
		제270호	척서정(滌署亭)	담양군
		제284호	부춘정(富春亭)	영암군
전라남도 기념물	12	제1호	송강정(宋江亭)	담양군
		제6호	면앙정(俛仰亭)	
		제61호	독수정원림(獨守亭園林)	
		제67호	부춘정원림(富春亭園林)	장흥군
		제68호	용호정원림(龍湖亭園林)	
		제70호	요월정원림(邀月亭園林)	장성군
		제103호	장암정(場岩亭)	영암군
		제104호	영보정(永保亭)	
		제105호	영팔정(詠八亭)	
		제112호	영모정(永慕亭)	나주시
		제145호	만호정(挽湖亭)	
		제201호	장춘정(藏春亭)	

구분			명칭	지역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17	제17호	상월정(上月亭)	담양군
		제18호	남희정(南喜亭)	
		제31호	운흥정(雲興亭)	구례군
		제32호	방호정(方壺亭)	
		제49호	상호정(相呼亭)	순천시
		제67호	영벽정(映碧亭)	화순군
		제97호	청계정(淸溪亭)	장성군
		제99호	기영정(耆英亭)	
		제100호	관수정(觀水亭)	
		제136호	취송정(翠松亭)	보성군
		제168호	영파정(潁波亭)	함평군
		제169호	동백정(冬栢亭)	장흥군
		제209호	방춘정(芳春碇)	해남군
		제237호	식영정(息營亭)	무안군
		제266호	기오정(寄傲亭)	나주시
		제269호	여택정(麗澤亭)	강진군
		제278호	침류정(枕流亭)	영광군

자료 : 문화재청 지정·등록문화재중 樓·亭 문화재 현황(2020. 12. 기준)

2. 여건변화 및 전망

쾌적한 정주 환경에 대한 기대감 고조

- 기후변화 및 재해 증가로 인한 안전한 거주환경에 대한 요구 증가
-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발생과 귀농 귀촌의 증가, 가족 단위 여가활동의 증가
- 메가시티 등 도시권·광역권 중심의 지역공간 구조의 변화

중앙정부의 지역 가꾸기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정책수립

-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의 종합 재생 추진
-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저발전 지역 육성을 통한 공간적 포용성장 요구
- 영호남의 연결과 광역경제권 육성 등 다핵적 국토균형발전 추진하여 전라남도 고유의 문화와 경관, 특화산업 등의 지역형 발전 진행

관광자원으로서 경관자원의 부가가치 증대

- 전국 최고의 해양 섬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보다 건강한 섬 생태계 보존과 지속 가능한 섬 문화 회복 등을 위해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섬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 소득증가에 따른 관광산업의 성장과 함께 육해공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 갯벌, 습지 등 생태·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해안권과 내륙권이 조화되는 관광을 실현하여 남도의 경관자원 가치를 극대화

지역간 국가간 무한 경쟁시대에 지역 자원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 대두

- 전라남도의 비교우위 자원인 다도해, 갯벌 등 해안경관,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 등이 수변경관, 재고 자원경관, 문화역사경관 등에 대한 경쟁역을 강화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경관자원이 될 수 있도록 대응
- 경관의 공익적 가치 상승과 함께 교육, 치유, 휴양공간으로서 복지서비스 증가와 지속 가능한 경관 활용과 미래 가치가 큰 경관자원을 선별한 이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태숲, 산림, 하천 등의 복원 및 조성
- 해양자원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안·해양공간계획을 마련하여 남해안 주요 섬과 해양 관광자원의 연결을 통한 다양성 강화와 연안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 경관의 질적향상을 위해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유지·관리 등 체계적 발전방안 마련 필요

여가시간 증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쾌적한 여가공간 수요 확대 전망

-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여가시간 확대 등으로 인한 쾌적한 외부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원, 정원, 테마 숲 등의 경관자원 확충 필요
-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노약자들의 여가 공간과 경관시설 확충이 요구됨

3. 주요 정책과제

1) 기본목표

정감있고 문화가 깃든 정원도시 남도경관 연출

- 우수한 경관자원을 대상을 한 정원개념의 보전 관리

- 경관 훼손 방지와 이미 훼손된 경관의 정비 및 복원
- 남도의 역사문화를 존중한 정체성 있는 경관형성
-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경관관리체계 구축

2) 추진전략

시간이 느껴지는 풍경(과거와 미래의 공존)

- 전라남도의 유서 깊은 역사문화자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래 경관과 공존하는 경관 형성
  - 해양·섬·숲의 다양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형성된 고유의 역사와 문화 등 풍부한 해양경관의 잠재력을 강화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달라질 주위 환경의 모습을 고려하여 시공간 단위의 경관계획 진행
  - 근대 산업화의 유산을 활용하여 역사성이 있는 공간을 문화공간, 예술 공간, 역사 공간 등의 정원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상징성 유도
  - 개발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역사문화자원의 기록 및 보존과 함께 경관자원의 위치와 크기 등 물리적 환경을 고려한 경관적 차원의 관리와 유지
  - 주변의 전통마을, 서원, 향교, 사찰, 누정 등의 유서깊은 전통자원의 정원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경관자원 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함
- 전통문화와 역사를 가진 전라남도의 다양한 섬 경관자원 특화
  - 섬별 특성을 감안하여 역사문화자원을 소재 및 주제별로 특화한 경관적 테마화 정비
  - 정원마다 숲, 마을, 해안경관, 해안도로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하고 주제를 부여하여 개발

지역 향토성을 살리는 풍경(풍경과 장소의 어우러짐)

- 남도특유의 지역적 특색과 어우러진 마을단위의 지역경관 형성
  - 남도의 지역정체성이 담겨있는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남도만의 매력을 가진 지역경관을 형성하고, 경관자원의 난개발 방지를 통해 아름답고 개성 있는 경관의 지속적 관리 방안 마련
  - 생활환경(골목길, 마을, 도시, 지역 등) 단위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적 특색과 어우러진 마을단위의 지역경관 형성
- 남도특유의 바다, 산지, 농촌 경관 등을 그린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 향상
  - 바다, 산지, 농촌 경관이 고루 분포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체계적인 관리 필요
  - 다양한 경관자원을 그린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해 접근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 연출을 통해 바다 경관을 활용한 권역별 성장 거점으로 육성

- 비도시지역 지역경관을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 인구 10만 이하 도시의 경우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고 경관 위원회의 기능이 약하여 계획적 경관관리 미흡
  - 따라서 모든 시군의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전라남도 차원에서 비도시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기구 필요

사람이 즐거워하고 문화가 깃든 풍경(풍경과 사람의 교감)

- 지속가능한 해양문화 활동을 위한 바다와 사람이 교감하는 수변경관 형성
  - 항·포구, 해수욕장, 갯벌 등의 보전과 더불어 자연친화적 이용을 배려한 경관 정비
  - 주민참여형을 바탕으로 문화경관 조성을 통해 단순한 경관관리 차원을 넘어, 해안경관 자원의 발굴,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비
  - 해변을 연결하는 산책로, 해양조망경관 시설 등의 설치, 친수 보행공간 정비 등을 통한 경관자원 활용
- 전통생활 공간 등이 경관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향교, 서언, 전통마을, 사찰 등의경관정비를 통한 경관자원화
- 농경지, 정원, 산림 자원 등의 테마 경관 자원화
  - 하천, 계곡, 숲 길(임도), 농로, 수변길 등을 정비하여 경관자원으로 활용

지구온난화 및 재해 등을 고려한 경관관리(환경과 풍경의 상생)

- 지구온난화 및 정책 등을 고려하여 그린 인프라와 상호 연계된 지속가능한 경관 시스템 구축 필요
  - 해안선, 하안선 등의 인공성 완화, 도로로 인한 단절현상의 최소화(생태통로 개설 등), 녹지와 녹지, 계곡-하천-바다의 연결성 강화(수중보, 하구언 등의 개선)
  - 입면 녹화, 나지 혹은 사면 등의 녹화, 가로수 확충, 완충녹지대, 평지림 확대 등 다양한 녹화전략 도입

3) 핵심 프로젝트

회복 탄력적 산지 경관활용

- 추진배경
  - 전라남도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 개발, 산업 개발, 도로 개발 등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산지들이 늘어 이를 포괄하는 경관적 측면의 보전, 관리, 형성 필요
- 산지 경관보전 방안
  - 주위 환경, 지역성을 배제한 대규모 개발행위를 지양하여 산악경관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며,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절·성토를 최대한 억제해 자연 친화형 개발을 유도하는 토지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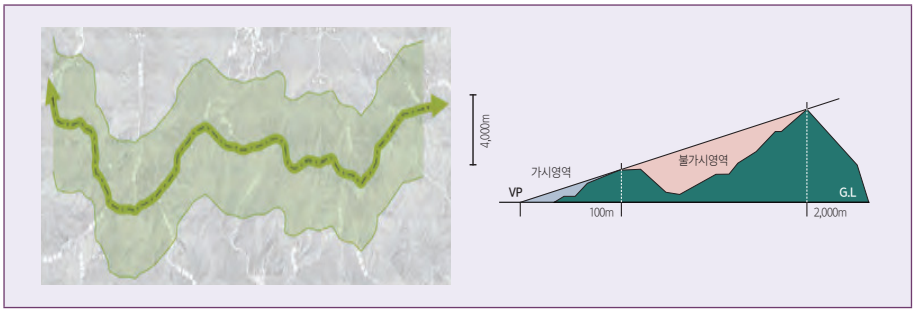
- 동식물, 지형, 산림, 계곡, 하천, 농지, 도로, 취락, 산지 내 사찰, 문화재 등 역사문화자원과 주변 경관자원의 일체적 보전을 위해 무분별한 산지개발 억제
- 지역의 주요 조망점을 개설하여 산지 조망을 확보하고, 경관자원화 하여 연산을 이루고 있는 스카이라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표 III-5-6
산악 경관축 설정

구분		지역	경관특성
산악 경관축	지리산-월출산 지리산-영취산	화순-보성-순천-고흥	전형적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 계절에 따라 다양한 경관을 감상 계곡과 호수를 따라가는 도로 산촌형 취락과 경작지경관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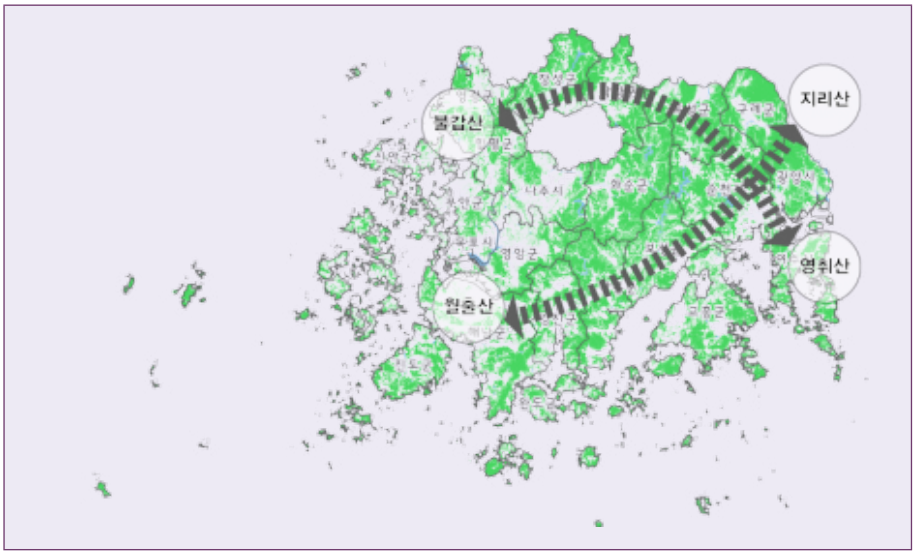
자료 : 2035 전라남도 경관계획

그림 III-5-77
산악경관회랑축



자료 : 2035 전라남도 경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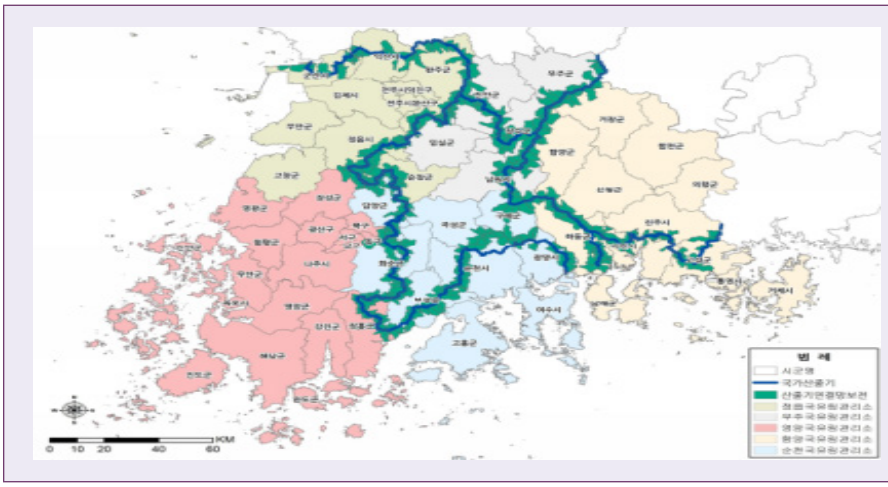
그림 III-5-78
산악경관축



자료 :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국토교통부

- 산지 경관관리 방안
  -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한 주요 산(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22개 시·군의 주요 명산)과 산줄기 주변의 경관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경관 보존과 형성을 위한 토대로 활용

그림 III-5-79
산줄기연결망 보전



자료 :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산림청

–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수종갱신 시 산림 경관 및 생태환경을 고려한 향토수종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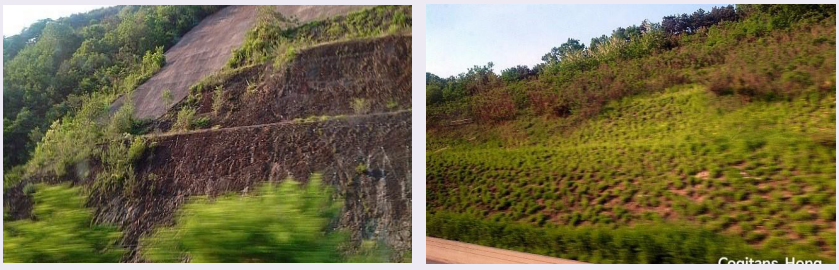
표 III-5-7
조림 권장 수종

구 분	수 종
용재수종	강송, 잣나무, 낙엽송, 가문비나무, 구상나무, 편백, 분비나무, 삼나무, 자작나무, 음나무 버지니아소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스트로브잣나무, 피나무, 노각나무, 서어나무, 가시나무, 박 달나무, 거제수나무, 이태리포플러, 물푸레나무, 오동나무, 리기테다소나무, 황철나무, 백합나무, 들메나무 등
유실수종	밤나무, 호도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등
조경수종	은행나무, 느티나무, 복자기나무, 마가목, 벚나무, 층층나무, 매자나무, 화살나무, 산딸기나무, 쪽동백, 이팝나무, 채진목, 때죽나무, 가중나무, 당단풍나무, 낙우송, 회화나무, 칠엽수, 향나무, 꽝꽝나무, (백합나무) 등
특용수종	옻나무, 다릅나무, 쉬나무, 두충나무, 두릅나무 , 단풍나무, (음나무), 느릅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황칠나무, 산수유 , 고로쇠나무 등
내공해 수종	산벚나무, (때죽나무), 사스레피나무, 오리나무, 참중나무, 벽오동, 해송, (은행나무), (상수리나무), (가중나무), 까마귀쪽나무, 버즘나무 등
내음수종	(서어나무), (음나무), 주목, 녹나무, 전나무, 비자나무 등
내화수종	황벽나무, 굴참나무, 아왜나무, (동백나무) 등

자료 : 산림청

– 훼손된 사면과 구릉지의 녹화 및 복원, 노후된 산촌 정주 환경 정비, 대형 인공구조물 관리와 불량 공간 노출을 차폐하는 녹화 추진

그림 III-5-80
훼손 경관 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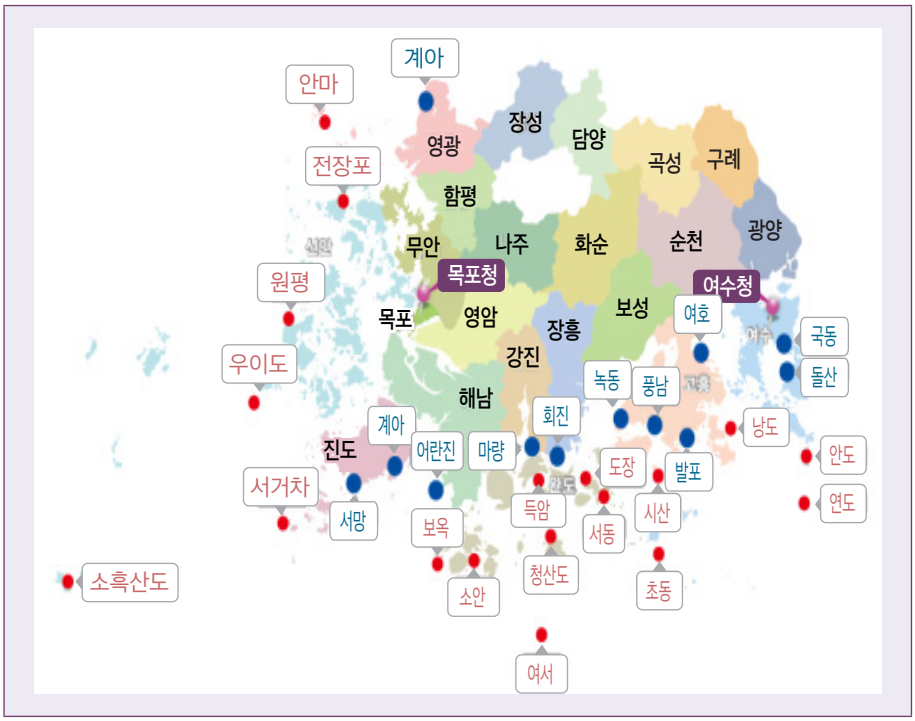


자료 : 구글 이미지 검색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개발

- 추진배경
  -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자연생태계의 순환시스템을 따르는 블루 이코노미를 실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블루자원(바다, 섬, 갯벌, 숲, 기능성 천연자원, 신재생에너지 자원 등)이 풍부한 전남을 바탕으로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선포
  - 또한, 남해안 지역의 동반성장, 상생 발전과 번영을 위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추진
  - 이에 앞으로 진행될 정책 및 과제에 맞춰 전라남도 특유의 중요 경관자원인 섬과 하천, 해안 경관 등의 보전, 관리, 형성 필요
- 전라남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경관 보전
  - 전라남도만의 경관 특징요소인 리아스식 해안선, 다도해 경관, 해수욕장, 갯벌, 기암괴석 등의 주요 경관자원 보존
  - 아름답고 풍부한 해안숲 (특히 방풍림) 보전과 어촌, 어항 등 주민들의 기본 생활 경관 보전 및 도서의 자연경관과 상징적인 지형물 보존
  -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 등 주요 하천과 두암호, 장성호, 나주호, 광주호 등 친수공간과 주변 산림경관의 체계적 관리
  -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태양광 시설, 풍력에너지 시설 등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경관훼손 최소화

그림 III-5-81
전라남도 주요 어항 위치도



자료 : 2035 전라남도 경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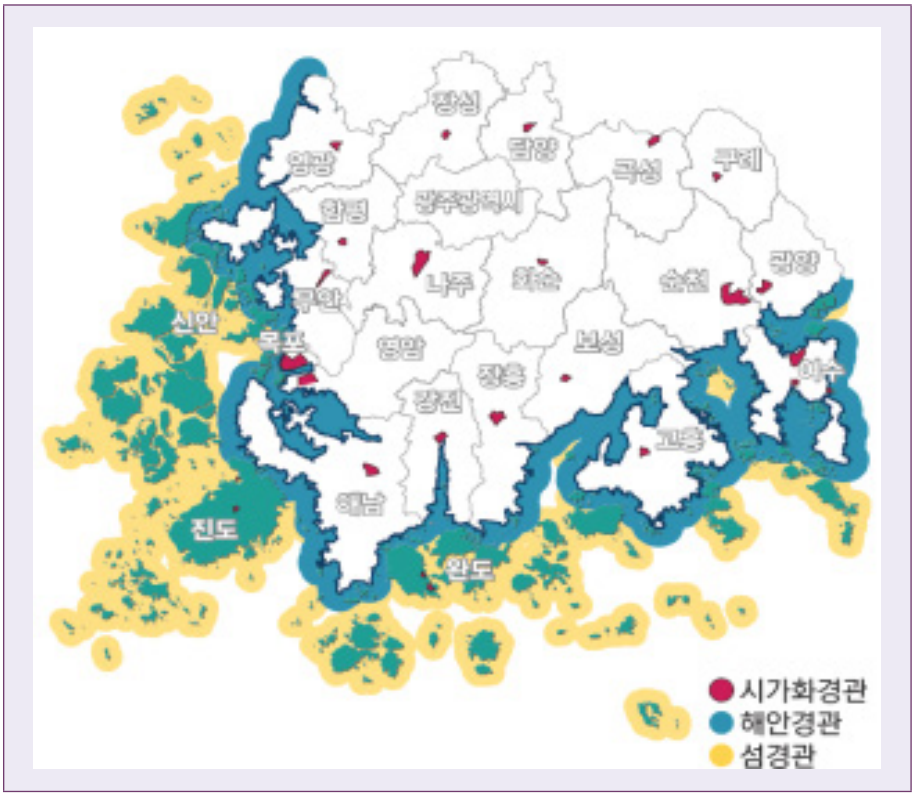
표 III-5-8
전라남도 경관자원 (해안과 섬 및 하천 위주)

구 분		경 관 자 원
자연경관	하천 / 호수	국가하천 : 영산강, 지석천, 고막원천, 함평천, 섬진강, 보성강, 탐진강 등 호수 : 두암호, 담양호, 장성호, 광주호, 나주호, 영산호, 영양호, 금호호, 대동호, 주암호, 보성강호, 동복호, 옥정호, 상사호, 수어호 등
	해안	어촌, 어항, 갯벌, 연안습지, 염전 등
섬 경 관	전남 섬 관광자원 개발 사업 제3차 도서종합 개발 가고 싶은 섬	홍도, 청산도, 죽도, 서도 등 총 39개소

자료 : 2035 전라남도 경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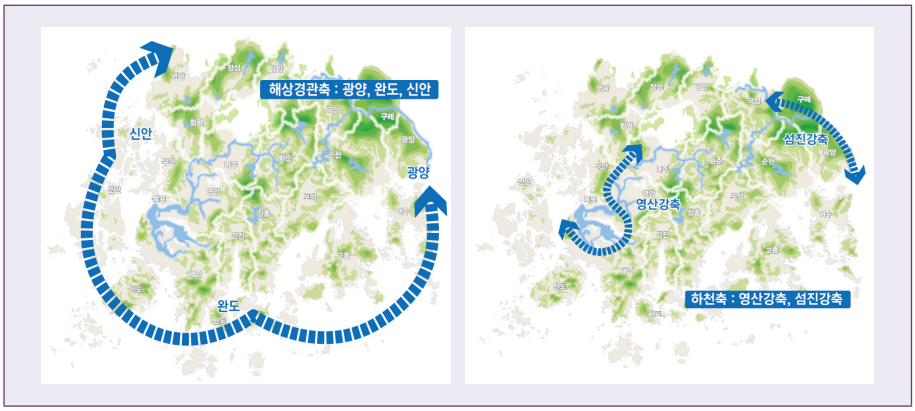
- 지속적인 경관자원 유지
  - 자연경관, 도서경관, 친수경관 등 경관요소들의 현황·특성·과제 등의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여 체계적 관리
  - 도내 섬의 입지와 접근성 경관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역화를 추진하고, 각 권역별 특색있는 경관자원을 발굴·육성함과 동시에 경관체험 코스를 개발
  - 해상관광 루트에 있는 섬들의 취락경관과 선착장, 포구 경관정비 등이 필요
  - 도내 하천 및 해안 연접지역의 경관축을 중심으로 경관관리지역 지정
  - 향토성이나 정체성이 부족한 즉흥적인 건조물이나 페인팅벽화, 지붕채색 등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녹색경관연출 필요

그림 III-5-82
전라남도 섬 경관 및 해안경관



자료 : 2035 전라남도 경관계획

그림 III-5-83
전라남도 해안 및 하천 경관축



자료 : 2035 전라남도 경관계획

- 블루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경관 관리
  - 유·무인도를 대상으로 자연경관 관람형, 섬문화 경관 체험형 등 경관을 주제로 하는 투어리즘 활성화를 도모
  - 생태성을 적극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 및 해안경관 조성·활용
  -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갯벌 등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해양갯벌 생태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 다도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선형 관광루트 및 우수경관 조망점 구축을 위한 해안도로변에 조망 공간 형성

표 III-5-9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발췌 내역

구 분		세부사업
3개 전략, 11개 프로젝트, 34개 세부사업		
전략 I . 남해안 관광거점 육성(16개)		
	권역별관광거점 조성	①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② 해양웰니스 치유거점 조성
		③ 마이스산업 거점 조성
	해양 관광단지 조성	① 함평 사포 관광지
		② 신안 자은도 해양관광단지
		③ 진도 해양관광단지
		④ 해남 오시아노 융복합관광단지
		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남해안 난대림 명품화	①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② 서남해안 명품 '섬 숲' 조성
	이순신·의병 호국관광벨트 조성	①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② 남도 의병 역사공원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조성	① 시민이 꿈꾸는 예향의 고장
		② 예술인들이 꿈꾸는 창작의 성지
		③ 여행자들이 꿈꾸는 예술 놀이터
		④ 섬진강 물길투어 활성화

구 분		세부사업
전략 Ⅱ. 남해안 접근성 개선(11개)		
	해양관광도로 조성	① 국도 77호선 연결(압해~화원, 화태~백야)
		②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
		③ 여수~남해 동서해저터널 건설
		④ 섬지역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도·연륙교 단계적 확충
		⑤ 지역간 연계관광 강화를 통한 남해안 관광도로 명소화
	광역교통망 구축	① 남해안 철도 전철화(목포~보성, 광주송정~순천)
		②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전철화
		③ 서해철도(군산~무안국제공항) 건설
		④ 광주~완도 고속도로(2단계) 조기 선설
	스카이투어밸트 조성	① 흑산공항 조기 건설
		② 스카이투어 항로 개설
전략 Ⅲ. 섬·크루즈 관광기반 조성(7개)		
	크루즈 관광인프라 조성	① 남해안 크루즈 관광 활성화
	요트 마린 실크로드 조성	① 남해안 요트관광 산업 활성화
		② 마리나 항만 조성(신안~목포~완도~여수~섬진강)
		③ 2020 남해안컵 국제 요트대회 개최
	테마가 있는 섬 특성화	① 가고 싶은 섬, 다도해 아름다운 꽃섬 조성
		② 국립 섬 연구기관 설립
		③ 2028년 섬문화 엑스포 개최

자료 :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보고서

도농통합 문화경관 조성

- 추진배경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통합적 관리, 도시공간의 품격 제고를 위한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매력국토 창출을 목적으로 도농통합 문화경관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쾌적하고 개성 있는 생활경관 조성의 필요성도 증대
  - 도시지역 권역에서는 도시의 인문적, 역사적 맥락을 보전하는 도시계획 수립과 도시 원경의 경관자원을 조망할 수 있는 통경축 및 도시의 배경이 되는 스카이라인 보전이 요구됨
  - 비도시지역 권역에서는 넓은 농경지의 배경이 되는 산악이 형성한 부드러운 스카이라인을 보전하고 전라남도지역이 가진 특유의 아름답고 풍부한 전원숲 보전이 요구됨
  - 도시와 비도시지역의 경계부에는 경계의 연계성이 전라남도 경관의 경관축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경관 보전 도시와 비도시지역간의 통합적인 경관 권역 관리 방안이 결여되어 있음
  - 도시지역 권역에서는 무질서하고 부조화로운 난개발 관리를 위해 건축물 고도,

디자인, 색채 등을 정비할 수 있는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 및 도심구조와 노후화된 건축물, 도시기반 시설물 정비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비도시지역 권역에서는 노후 가옥, 지붕 색채 등 취락경관 관리, 비닐하우스, 축사 등 경관저해 건축물 관리, 전신주, 가로등, 도로 등 기반 시설물 관리가 경관적 차원에서 필요함

- 도시와 비도시지역간의 통합적인 경관 권역 형성 방안
  – 도시지역 권역에서는 시가지 및 도시외곽을 연결하는 도로경관의 경관자원화 (가로수 확충 등)
  – 비도시지역 권역에서는 주변 농·산촌 경관의 원동력이 보존 될 수 있도록 강구
  – 도시와 비도시지역의 경계부에는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 있는 경관 구축, 지역의 우수 경관자원을 원거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조망점 구축 (휴게공간화 추친)

표 III-5-10
경관권역별 경관보전·관리 및 형성방향

구분	보전	관리	형성
도시지역	• 스카이라인, 보전 양호한 원거리 조망경관, 도심 내 역사성을 지닌 오픈 스페이스 보전	• 주요 중심가로 정비, 도시기반시설물 및 도심 구조물 정비, 인공화된 도시하천 주변 정비, 일체적 정비를 유도하여 매력적인 생활 경관 조성	• 중심축의 특색 있는 가로경관 형성, •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별 생활 경관 형성 유도, 짜투리공간 (고가도로 하부, 모퉁이 등)의 적극적 활용
비도시 지역	• 우세 경관 조망 지역 보존, 주변 경관 자원의 보전	• 무질서하고 부조화한 난개발 관리	• 특색있는 경관 향상으로 관광 자원화, •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 있는 테마경관 형성
경계부 지역 (전이지역)	• 경계의 연계성을 전남 경관의 골격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경관 보존	• 도로, 다리 등 인공 시설물의 난개발로 인한 경관자원 훼손 관리	• 우수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선형 관광 루트 형성, 도내 불량경관의 원인을 제거하는 경관 사업의 민·관협력 추진

자료 : 2035 전라남도 경관계획,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산림청)참고

비도시지역의 친환경·친인간적 경관 조성

- 추진배경
  –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응한 다핵적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자체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도시의 종합재생 추진
  – 용도지역 개편, 개발제한구역 및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 대두
  – 이를 바탕으로 지역쇠퇴에 처한 비도시지역 친환경·친인간적 경관의 보전·관리·형성 필요

- 비도시지역의 친환경·친인간적 경관 권역 보전 방안
  – 전라남도 지역 내 비도시지역은 평야 지대 및 구릉지 지형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우수 경관자원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적극 관리 및 활용 방안 모색(경관작물 및 목가적 풍경 형성 등)

– 지역 고유의 향토 특산물을 보전하고, 농어업 유산 지정 및 관리활용 지원을 통해 농산어촌자원의 가치화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 농산어촌 내 역사성 있는 건물의 경관보전과 고유 경관자원이 양호한 경작지와 주요기반시설의 다기능화로 경관의 품격과 국토의 매력도 제고

- 비도시지역의 친환경적 경관 관리 방안
  – 경관관리 소외지역이 많은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무질서한 난개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만의 독특한 경관자원을 발굴하고 관리하여 특색있는 경관 관리
  – 경관을 훼손하는 요소인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가로시설 정비를 위해 비도시지역의 가로 정비 사업, 공·폐가, 노후화된 전신주, 송전탑, 시설하우스, 그리고 폐기물 방치 등 관리
  – 신규 조성된 마을 관리 방안 마련과 이질 용도(팬션, 모텔, 음식점, 아파트 등)의 급증에 대한 건축물 입지규제를 통한 경관적인 관리 방안 필요

- 비도시지역의 경관친화적 경관 권역 형성 방안
  – 우세한 경관의 조망과 휴식을 위한 조망지점 형성과 지역 간 조망지점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통해 비도시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해 강화해 자원화
  – 도시적 경관보다는 산, 들, 바다가 펼쳐진 농어촌경관의 특성이 강한 전라남도 내 비도시지역의 특징을 활용하여 지역 내 특화 경작물과 식생 등을 통해 지역 경관 이미지 형성 및 자원화
  – 신규 마을 조성 시 전라남도의 비도시지역의 이미지인 전통적인 농산어촌 정주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공간 연출이 필요. 이를 위해 관련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전라남도의 자연 및 생태자원을 활용한 그린 인프라 구축

- 추진배경
  – 전라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산림경관, 전원경관, 해안도서경관, 역사문화경관을 각각 단위별로 관리함과 동시에 전 지역이 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녹색경관을 도입하고 이를 네트워크화 할 필요가 있음
  – 호소, 하천, 둠벙 등 수변자원은 비오톱 기능을 하므로 최대한 수질,수량과 더불어 생태적 연결성을 강화하도록 함
  – 산림경관의 경우 녹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식물원, 수목원, 숲정원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해안과 도서 등은 전라남도의 경쟁력있는 자원이므로 갯벌 및 연안습지 보호와 더불어 해안경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그림 III-5-84
베란다나 가로기둥 등에 화분 장식을 통해 경관향상(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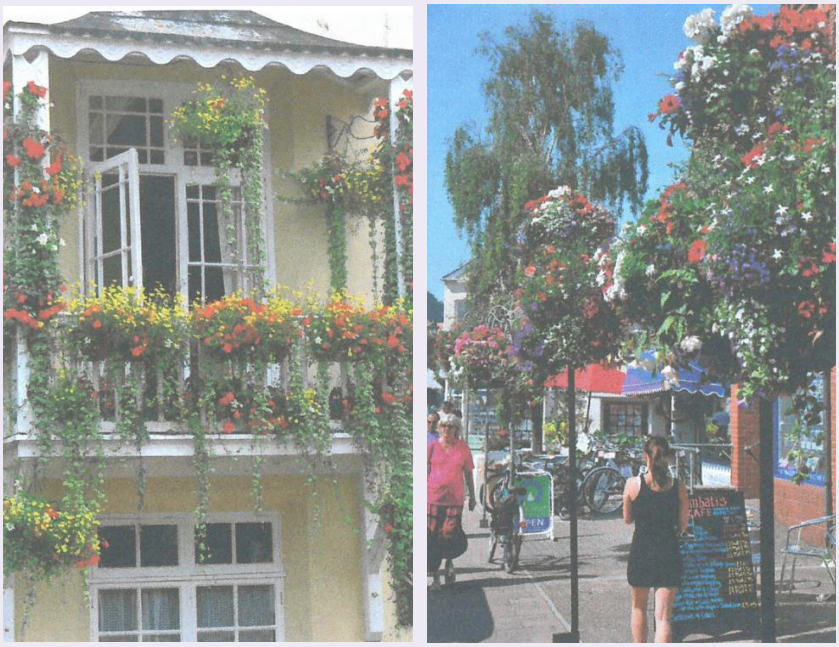


그림 III-5-85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 활용으로 지역활성화 기여 (싱가포르 Gardens by the bay)



그림 III-5-86
양질의 정원을 공급함으로써 휴식과 힐링 공간제공 (싱가포르 Botanical Garden)



그림 III-5-87
업무빌딩이나 주차빌딩 등의 입면녹화사례(싱가포르)



숲속의 전남, 생명의 전남을 담은 '정원도시 전남'으로

- 추진배경
  - 그동안 전라남도는 농업의 터전이자 녹색자원의 보고로서, 이를 계승하여 숲속의 전남, 생명존중의 전남이라는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음
  - 그러나 산림, 해안 및 도서, 하천 및 호소, 도시와 마을 등의 연결과 조화가 다소 충분치 않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라남도 전지역의 정원화 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원도시의 추진방안
  - 순천시, 담양군 등 일부지자체들이 정원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이를 자원화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전라남도 전 지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전라남도의 경우 국가정원제1호인 순천만정원을 비롯하여 담양 죽녹원, 곡성 장미원, 그리고 각종 꽃축제들이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하므로 정원자원의 잠재력이 크고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음
  - 전라남도와 22개시군이 각각 정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구온난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관광자원으로서도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을 비롯한 전남경관자원을 활용해 해양정원, 역사정원, 인물정원 등 각종 테마별로 정원을 추진하여 정원도시 전라남도를 완성할 필요가 있음

그림 III-5-88
순천만국가정원(순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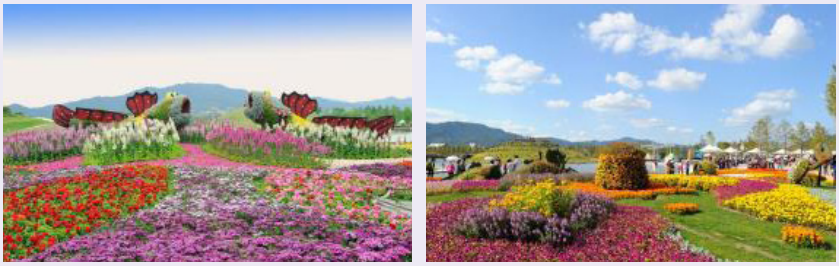


그림 III-5-89
기차마을 장미정원(곡성)



그림 III-5-90
쌍산재 정원풍경(구례)



제6장

글로컬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제1절 가장 한국다운 매력관광 중심지 구축

제2절 전남 고유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제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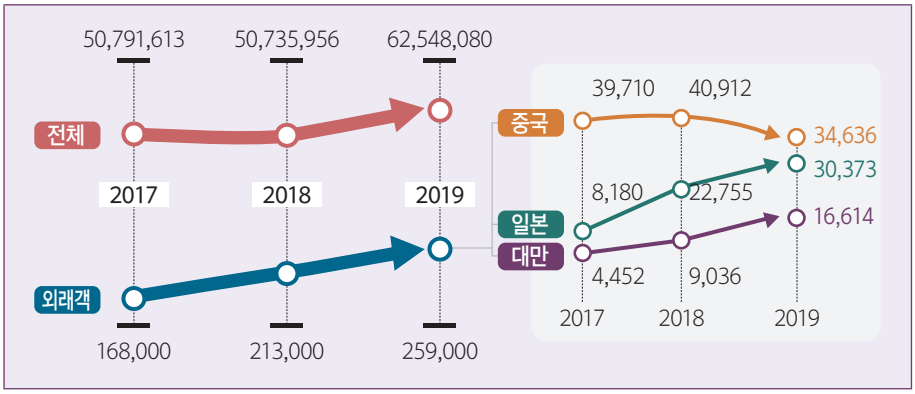
가장 한국다운 매력관광 중심지 구축

1. 현황과 문제점

관광객 및 관광자원 현황

- 전라남도의 주요관광지점 방문객은 2019년 62,548천명으로 2015년 대비 22,860천명(36.5%) 증가함
  - 2019년 말 기준 전라남도 내 가장 많은 방문객이 다녀간 지역은 여수시(13,543천명), 순천시(10,168천명), 목포시(5,903천명), 광양시(4,435천명), 담양군(3,980천명) 순임
- 라남도방문 외래객수: '17년(168천명)→'18년(213천명)→'19년(259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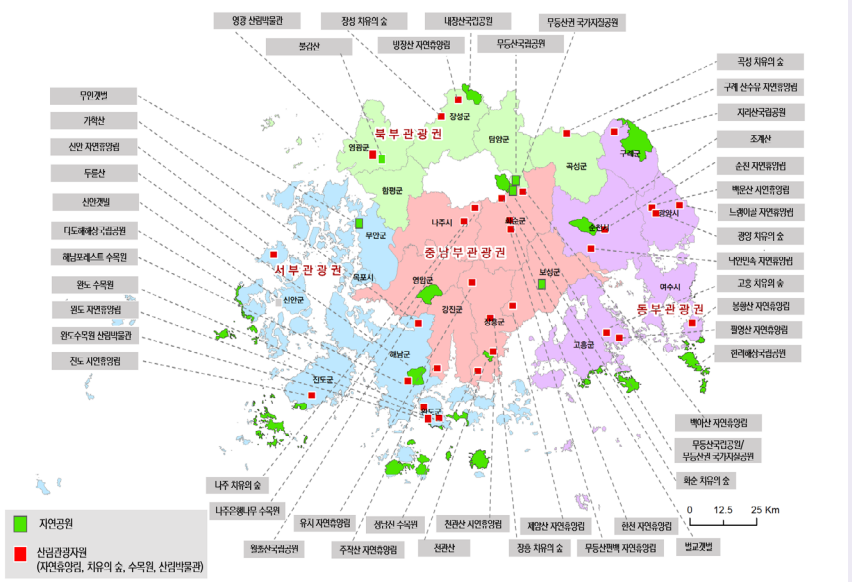
그림 III-6-1
전라남도 방문 내외국인 관광객 추이



자료: 한국관광정보시스템

- 2019년 말 기준 전라남도 내 가장 많은 방문객이 다녀간 관광지는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618만명)이며, 그 다음으로 여수 엑스포해양공원(362만명), 여수 오동도(290만명), 광양 청매실농원(249만명), 여수 돌산공원(166만명), 담양 메타프로방스(116)만명) 순
  - 2019/2020 한국 관광 100선 중 전라남도 관광지는 순천만습지,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 담양 죽녹원,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강진 가우도, 보성 녹차밭, 해남 미황사 총 7곳 선정
- 전라남도는 해양·생태 자원 등이 타지역에 보다 비교우위에 있음. 서남해안의 수려한 풍광과 갯벌자원, 영산강과 섬진강 굽이굽이 따라 형성된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함. 특히, 다양한 역사·문화·예술 자원 등 풍부한 해양관광 잠재력을 보유한 남해안권은 한반도 H축을 떠받치는 국가의 신성장축으로서 광역관광벨트 연계를 통한 발전잠재력 또한 우수

그림 III-6-2
전라남도 권역별 해양·생태관광자원 현황



– 전라남도는 2,165개의 섬(전국의 65%),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 등 섬·해양 관광자원이 집중되어 연간 1천만 명이 섬을 방문
  • 섬방문객(천명) : '15)8,896 → '16)10,585 → '17)11,183 → '18)9,841
–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안선은 6,743㎞으로 전국 14,963㎞의 45% 비율
– 전남권 갯벌 면적은 1,053.7㎢으로 전국(2,482㎢)의 42.5%이며, 지역별로는 신안 339㎢, 무안 151.6㎢, 영광 147.9㎢ 등으로 나타남

그림 III-6-3
전라남도 해양 생태관광 추진 방향

전남지역 핵심 자원

청정 자연	힐링 명소	신선한 해산물
깨끗한 남해 바다와 살아 숨쉬는 생태계	탁 트인 풍경과 한적함	산지에서 즐기는 남도 별미

액션플랜

우선 개선
'힐링 여행자'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숙소 인프라 개선** 및 **섬**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이 필수적

매력 강화
- 단순 '휴식'을 넘어 다양한 힐링 활동/콘텐츠 제공
  - 섬에서 살아보기
  - 해양 크루즈 여행
  -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벤치마킹 : 완도)
- 섬마다 특색있는 컨셉/테마를 바탕으로 한 개발
  → 20-30대에게 어필 가능한 포토존 조성 등
- 남해안 특화 해양 스포츠 개발/홍보 (예 : 동해-서핑)

기대 효과

기존 핵심 타겟인 중장년층 외 **20-30대 여행객 유입**	식도락 여행지에서 탈피해 **'힐링 하기 좋은' 이미지 강화**	동해, 서해와 차별화 되는 **남해안만의 콘텐츠/활동 개발**

● 관광지 지정 현황 및 노후관광지 증가

– 전라남도의 관광지·단지·특구는 총 3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이중 36%인 13개소가 2000년대 이전 지정되어 조성된 노후관광지로서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등 관리수단 부재로 재방문율 저조

• 나주호, 담양호, 장성호, 지석강, 화순온천, 해남 땅끝, 영암 성기동 관광지, 곡성 도림사, 신안 대광해수욕장, 고흥 성두도, 강진 대구도요지, 영광 불갑사, 해남오시아노관광단지(총 13개소)

• 시설 노후화 및 관광콘텐츠 부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존 관광지의 리모델링(시설) 및 업그레이드(콘텐츠·프로그램) 필요

● 자연자원의 가치증대와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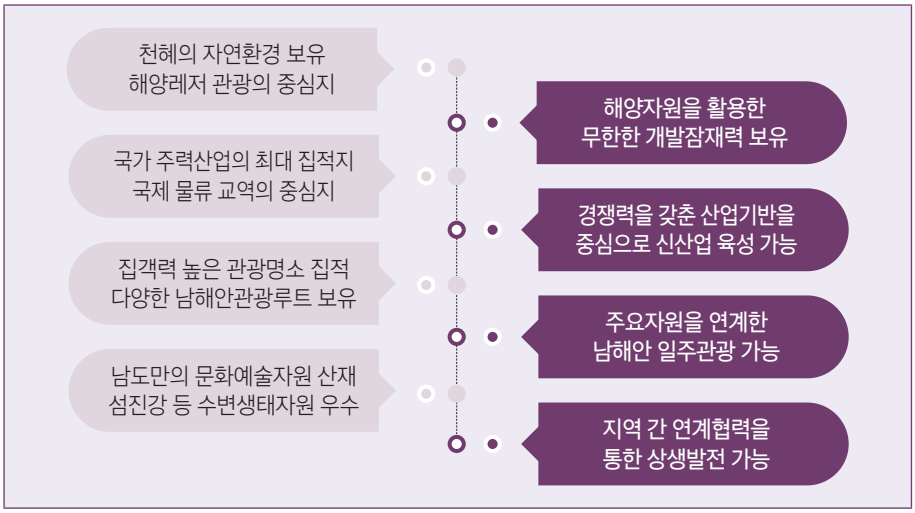
– 갯벌, 습지 등 생태·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활용 및 체계적인 보전·관리 방안은 미흡한 상황

– 자연자원의 생태성은 우수하나 관광 편의성 측면에서 핵심매력 콘텐츠 제공 등으로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고부가가치 활용 증대 필요

– 연륙연도교로 접근성은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섬·해양지역의 관광 기본인프라(숙박, 음식, 콘텐츠 상품 등) 부족

– 각 시·군마다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자원간 연계체계 및 핵심 기반시설 등이 부족한 상황

그림 III-6-4
전라남도 관광자원의 잠재력



관광사업체 및 지역관광 현황

● 지역의 관광산업 성장기반 취약

– 지역의 관광개발사업 대부분이 하드웨어 확충에 치중해 있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관련기업의 성장기반이 미흡한데다 사업체도 대부분 영세하며,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도 부족

• 2019년 기준 전남지역 관광숙박업은 전국(2,227개소)의 12.8%(285개소)를 차지하며, 관광호텔업 40개소, 한국전통호텔업 2개소, 가족호텔업 12개소,

호스텔업 218개소, 소형호텔업 2개소, 휴양콘도미니엄업 11개소의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음

- 2019년 기준 전남지역 여행업은 총 820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일반여행업 87개소, 국외여행업 335개소, 국내여행업 398개소임
- 전남지역 관광이용시설업은 총 193개소가 등록되어, 전국(4,580개소)의 4.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전문 휴양업 4개소, 종합휴양업 1개소, 일반야영장업 106개소, 자동차야영장업 31개소, 관광 유람선업 3개소, 외국인 도시 민박업 48개소임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과 활용, COVID-19 등으로 생태 및 친환경 인식 증가에 따른 관광 환경의 산업적, 시장적 변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광자원 개발 수단의 제도적 기반 미흡

● 지역관광 현황은 관광 인프라·콘텐츠·서비스 측면에서 외래객 유인 역량·여건 미흡

– (콘텐츠 부족) 방한관광객 대부분이 쇼핑·음식 및 유명관광지 위주 관광 → 지역관광 유도를 위한 색다른 체험거리 부족

- 한국방문 선택시 고려요인 : 쇼핑(63.8%), 음식·미식(57.9%), 자연풍경 감상(36.%), 친구방문(20.4%) ('18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편의서비스 부족) 지역에는 쇼핑·숙박시설, 언어소통·길찾기·안내 등 각종 관광 편의서비스 미흡

- 외래객의 지역관광 장애요인('17) : 관광지 정보탐색 어려움(37.0%), 지역간 연결교통편(36.5%), 언어소통(36.5%), 대중교통 이용편의(25.0%)

2. 여건변화 및 전망

⬡ 사회적 변화

● 삶의 질을 중시하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관광활동 확대

– 일이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삶의 질'이 중요해지고, '일과 여가 균형'을 이룬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핵심가치로 인식되면서 관광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

– 관광객들이 인파와 교통체증을 감수하는 대신 집과 가까운 시설, 좋은 숙박업소에서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는 호캉스(호텔+바캉스의 합성어),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현상 확대

● 고령화 및 출산율 감소로 지역의 성장동력과 관광역량 감소 예상

– 세계적으로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8년에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20%에 이르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시작된 인구 감소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20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으며, 전국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46%(2021년, 관계부처 합동)에 이르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요구

기술적 변화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로 관광서비스의 디지털화 가속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라 인공지능의 발달,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쌓인 데이터,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 등이 결합하며 산업현장이 급변하고 있음.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은 물론 혼합현실(MR), 확장현실(XR)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고, 나를 대신하는 존재(아바타)와 연결된 메타버스형 관광에 대한 관심 고조
  - 관광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융합되면서 그동안 집계가 어려웠던 관광객 이동과 소비패턴을 신용카드와 네비게이션 등의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관광지조성 및 코스 개발 사업 등이 진행
- 맞춤형 이동수단 및 항공도심교통 등 교통 체계 개선으로 접근성 강화
  - 대중교통과 자가 차량에 한정되었던 이동수단들이 다양화되면서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은 물론 드론과 관광용 무인항공기가 상용화를 준비하는 등 교통체계의 혁신적 변화 예상
  - 정기 노선 및 시간에 따라 운행되던 대중교통이 수요응답형 버스 등의 교통체계로 변화되면서 이용객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이 가능해져 관광객들에게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편의성 제공
  -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관광산업의 탈 경계화가 가속화되고,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새로운 관광분야를 창출하는 융합관광의 확대 예상

경제적 변화

- COVID-19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수요 변화
  - 포스트 코로나이후 체험형 관광과 생태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섬, 해양이 지닌 고유한 자연·생태자원 및 사회·문화자원에 대한 관심 확대 전망
  - 기술발전과 COVID-19 팬데믹은 디지털화와 비대면 서비스를 확산시켰고, 이로 인한 관광산업 생태계 변화 및 고용시장의 혁신적 변화 요구 증가
- 관광사업체의 서비스 기반이 대규모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
  -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즉시 구매가 가능한 관광서비스 플랫폼들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통적 관광사업체의 사업 다각화, 온라인 여행업체 인수합병 등 다각적 투자 확산
  - 온라인 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가 급성장하며 기존 대리점 중심 여행사의 역할이 축소되었으며 공유형 서비스인 우버, 그랩 등 차량 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 등 공유형 숙박 서비스 활성화

환경적 변화

- COVID-19 계기로 안전·위생 강조 및 비대면 사회의 부상
  - COVID-19 팬데믹 이후 안전의 가치와 중요성이 증가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술이 발달하여 대면 서비스 비중이 높은 관광분야에서도 예약, 안내, 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전망
  - 캠핑, 차박, 골프 등 실외관광지 선호도가 증가하여 건강을 추구하는 여행수요나 아웃도어형 또는 자연친화적 여행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보호와 공정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 증가
  -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기존 관광지 등은 시설 및 구조를 저탄소로 전환해야 하며, 관광교통분야 등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직접적 영향
  - 기업의 재무적 지표보다는 ESG 등 사회적 역할이 중시되면서 MZ세대들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환경을 고려한 관광기업들이 증가

정책적 변화

- 지방분권 가속화 및 균형발전 정책의 지속 추진
  - 중앙정부 지방 분권 추진으로 주요 관광개발사업의 지방 이양이 완료되었고, 국가관광전략회의 등을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 방안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역주도형' 관광정책을 추진
  - 지자체간 관광역량의 격차를 완화하고 관광개발의 기획-개발-운영-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관광 균형발전을 위한 범부처 정책 추진 확대
-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지원 및 공정관광 가치 강조
  - 미래 관광산업계의 트렌드는 윤리적인 관광, 지속 가능한 관광, 자연환경 중심의 관광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관광목적지로서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생태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편익을 개발하고, 도덕적 차원에서 관광을 소비하는 관광객과의 관광사업체의 책임과 윤리를 강조하는 공정관광의 가치 강조

표 III-6-1
미래트렌드에 대응한 관광 정책

관광 전략		내용
트렌드 대응	기후변화 및 사회환경적 리스크 관리	각종 사회환경적 리스크를 저감하고 적응할 수 있는 관광정책분야의 대안 검토 필요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사회 대응	지역 방문과 만남을 필연으로 하는 관광의 영역에서 비대면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수용 또는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노력 필요
	빅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관광 개발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관광 개발에 대한 검토 필요

관광 전략		내용
트렌드 대응	산업 융합, 혁신, 일자리	다양한 산업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고, 혁신과 일자 리 창출을 도모 필요
개발 방식 변화	지속가능성 및 관리 운영에 초점	관광개발의 초점을 물적 개발이 아닌, 개발된 관광자원 및 시설에 대한 보호, 이용 및 관리에 둘 필요/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필수적인 관광개발의 방향성임
	지방분권 및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강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늘어가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과 역량 강화 필요/ 전남 관광개발의 방향성 제시, 구체적인 관광자원 개발, 보호, 이용 및 관리에 대해 책임을 갖고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주민참여 및 민간 참여	성장 중심에서 가치와 행복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해 가고 있는 만큼, 관광개발이 궁극적으로는 주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 관광개발에 있어 주민과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확대 필요

다양한 가치를 반영한 관광개발 추진

- 향후 관광개발과 관련한 주요 가치로 연계·협력, 참여, 공모, 지속가능, 재생, 삶의 질, 포용, 일자리, 미래, 스마트, 치유 등이 핵신가치로 부각
- 따라서 관광 종합계획의 수립에 이 같은 가치들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 필요
- 지역 중심 관광개발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역관광 매력성을 높혀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관광산업으로 육성, 관 주도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직접 참여로 관광객 소비가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
- 탄소중립이 글로벌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되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글로벌 규제 강화 및 경영 활동이 변화하는 등 환경이 빠르게 달라져 관광부문에서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관광개발 실현
- 노후된 관광지와 유휴자원들은 리모델링이나 관광기능을 부여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적극 전환하고, 유휴공간의 효과적 관리·활용을 위해 노후 관광지 및 유휴자원 회복력 제고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21)의 정책 기조는 “양적 수요 확대에서 벗어나 관광객 중심의 질적 성장 추구”이며, 국내관광의 정책방향은 “국내관광 질적 고도화를 토대로한 지역균형발전과 균형적 성장”임. 이러한 국내관광의 균형적 성장은 관광의 질적 수준이 전제될때 양적 성장도 수반되는 구조로,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정책수단 다양화를 통한 대안 필요
- 미래 전라남도 관광의 새로운 시장성과 지역성을 극대화하기위해 연계·협력, 지속가능, 재생, 스마트, 치유 등 지향 가치를 고려한 ‘글로컬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설정
  - 글로컬(glocal)은 세계화(global)와 현지화(local)를 합성해 지역 특성을 살린 글로벌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의 특화된 주요 관광지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개념 관광거점 및 연계벨트를 구축하는 관광정책 추진

표 III-6-2
다양한 가치를 반영한 관광 개발 추진체계

구분	2010년대 현재 상위 비중	과거 대비 2010년대 비중 증가	과거 대비 2010년대 비중 감소
개발 유형	시설 조성	프로그램 개발	시설 조성
시설조성	시설물, 관광단지	파크/랜드, 명소	관광(단)지, 리조트
정책대안마련	방안, 정책	방안, 법제도	정책, 시스템
프로그램개발	콘텐츠, 이벤트	콘텐츠, 마케팅	상품, 축제
개발 주체	지자체,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국회, 외자
개발 대상	도시 및 지역	문화 및 생활 지원	도시 및 지역
도시 및 지역	지역, 도시, 마을	도시, 마을	지역
문화 및 생활	역사문화, 레포츠	레포츠, 음식, 한류	역사문화
자연환경	해양해안, 산숲	섬	국립공원
산업 및 기반시설	산업, 교통	교통, 의료, 컨벤션, 쇼핑	폐광
고려 가치	연계협력참여, 환경	연계협력참여, 정의표옹	환경, 남북
연계협력참여	연계협력, 소통토론	공동상생, 참여공모	소통토론, 협약조직
환경	자연생태, 지속가능	지속가능, 재생	환경, 보전, 훼손
국제	세계, 중국, 일본	중국	세계, 일본
복지정의포용	삶의 질, 공정	삶의 질, 포용	공정, 복지
경제	경제, 일자리	일자리	부가가치
미래변화기술	미래, 기술, 정보	미래, 융합, 스마트	기술, 정보
여가휴양서비스	여가휴양, 치유	치유, 서비스	여가휴양, 편의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3. 주요 정책과제

1) 기본목표

⬡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중심지 도약

- 남해안 관광도로, 남해안철도, 남해안 크루즈기반 등 남해안관광 접근성 획기적 확충, 남해안 신성장 관광거점 육성 등으로 글로컬 관광벨트 기반 조성
- 목포와 여수에 크루즈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연안크루즈상품을 개발해 관광산업의 혁신성장 모멘텀 확보
- 구석구석 보석 같은 자원들을 하나로 묶어, 권역별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남해안을 세계 최고의 랜드마크 관광지로 조성

⬡ 공생과 혁신을 통한 고품격 관광환경 조성

- 섬·바다·갯벌 등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을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 통합브랜드 구축 및 청정 전남 관광상품 개발

- 숲, 정원 등 지역특화 융합콘텐츠 개발로 전남관광 매력도 향상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등 초광역 연계관광 활성화

관광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관광 활력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관광신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기존 관광산업 혁신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산업생태계 조성
- 스마트관광역량 확충 및 디지털콘텐츠 강화
- 여가수요, 트렌드변화 대응 노후관광지 재생, 노후시설활용 관광콘텐츠 발굴
- 내생적 지역관광발전을 위한 주민주도 네트워크형 사업 확대(전남형 관광두레사업 확대, 전남살아보기, 전남형 주민주도 관광사업 추진 등)

2) 추진전략

(1) 추진전략 : 글로컬 섬·해양 관광거점 조성

남해안관광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연계망 확충

- 교통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으로 남해안권 해양관광 매력도 증진
- 철도, 항공 광역교통망 확충
- 연안 크루즈 관광기반시설 확충

남해안관광 신성장 관광거점과 초광역 연계벨트 조성

- 남해안 관광거점 도시간 연계 관광벨트를 조성해 내륙관광 거점(영산강권역, 섬진강권역, 지리산권역 등)과 연계해 격자형 관광네트워크 구축
- 남해안 크루즈 기반시설 및 마리나, 해양 레포츠 등 레저·여가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복합휴양·관광단지와 연계해 고부가 해양관광 실현
- 전남형 KTTP 모델 구축(Flight to K-Original) : 로맨틱 목포~어뮤즈먼트 여수~남해안 해양치유거점(Triple-Hub)

(2) 추진전략 : 융복합·연계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전남형 융복합 관광산업대안 확대

- 기후변화 및 사회환경, 기술발전, 온디맨드 경제활성화 등에 따라 관광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확대
- 미래 관광산업계의 트렌드인 윤리적인 관광, 지속 가능한 관광, 자연환경 중심의 관광 전환
- 다양한 산업과 융합을 통해 섬·해양, 역사·문화 등 전남형 융복합 관광산업대안 확대

⬡ 지속가능한 자원 연계활성화 관광기반 구축

-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대표 자원인 생태문화, 2,000여개의 섬, 해양을 활용하여 생태·체류형 관광네트워크 구축
- 각 지역에 담긴 공통적이면서도 차별성 높은 자원들, 즉 자연자원과 인문자원들을 활용하여 지역특화 융복합 관광콘텐츠의 확충
- 전라남도 지역간 연계 및 주요 권역의 통합적인 관광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초광역 연계관광 활성화

(3) 추진전략 : 고부가가치 관광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

⬡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관광신산업 활성화

- 생태·경관적 관광가치 증대와 체계적인 관리·활용, 광역관광 연계체계 및 관광신산업 육성, 지역관광 역량 강화,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의 활용 등 관광현안 대응 필요
- 플랫폼 비즈니스, AI관광, 관광공유경제 등 관광산업의 디지털전환, 수요자 욕구와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관광개발, 융복합형 관광환경 대응 필요

⬡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구조 재편

-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관광산업 등 융복합 산업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 경제구조 재편
- 급변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빅데이터, IoT 등 첨단기술의 혁신 등 관광산업과 IT산업 융합을 통한 혁명적 변화로 관광 경쟁력 확보 필요

3) 핵심 프로젝트

(1) 글로컬 섬·해양 관광거점 조성

⬡ 남해안관광 광역교통체계 개선

- 배경 및 필요성
  - 도로, 철도, 항공, 남해안 관광교통 인프라 등의 획기적 확충으로 환황해 및 환태평양 경제권의 중심지로서의 위상 제고
  - 수도권 및 지역 간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다양한 교통네트워크 체계를 형성하고, 단절된 해안도로 구간의 연결성을 확보해 지역관광 접근성 제고
- 주요 사업
  - 수도권과 남해안권을 직접 연결하는 광주~완도 고속국도(2단계), 기존 경전선 확충 등 남해안철도 고속화

– 완도 고금~고흥 거금, 신안 압해~해남 화원 등 연륙·연도교의 점진적 확충, 흑산공항 건설을 통해 도서지역의 이동성 제고

– 해안경관이 우수한 도로를 대상으로 국립관광도로 정비,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 제공하는 체류형 관광 확대 유도

- 남해안 해안도로 조성 : 국도77호선 등 해안도로 미연결 구간 조기 완공
-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 페리 운항(여수-남해, 남해-통영), 전망대, 편의시설, 조경시설, 주차공간 및 관리시설, 관광안내판 등
-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조성 : L=234.2㎞, 경관형성 개선, 시설물 정비, 문화예술공간조성 등
- 대중교통 연계체계 개선 : 광역시티투어버스 운영,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 조성 등
- 서남해안 명품 경관 육성 : 서남해안 경관샛길 지정 및 도로 표지만 설치, 우수경관포인트 전망대 및 조망공원 설치, 서남해안 경관가도 단절구간 연결
- 호남선 남행열차 운행 : 테마 관광열차 도입 사업계획 수립 및 투어상품 개발, 기차역 로컬 푸드 팩토리 조성, 역전마을 재생 등

남해안 신성장 관광거점 육성

● 배경 및 필요성

– 남해안 신성장 관광거점을 권역별로 육성해 섬·바다·갯벌 등 우수한 자연생태 자원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육성

– ‘로맨틱(Romantic) 목포, 어뮤즈먼트(Amusement) 여수’ 허브 중심의 관광벨트 조성으로 주변 도시와 연계성을 강화해 시너지 창출

● 주요 사업

– 남해안 신성장 복합관광거점 구축

• 남해안 신성장 관광거점도시는 복합관광거점을 조성하고 있는 목포시 1개, 광양시 1개, 장흥군 1개, 해남군 1개, 완도군 2개, 진도군 1개, 신안군 1개로 계획함(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표 III-6-3
시군별 남해안 복합관광 거점 조성사업계획

연번	시군	사업명	위치
1	목포시	고하도 해상데크 수상관광 기반시설	목포시 달동 산 192-4번지 인근 해상
2	광양시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광양시 마동 1301번지 삼화섬 해안가 일원
3	장흥군	정남진 해안도로 관광자원화	장흥군 용산면 소등섬, 관산읍 삼산리 등
4	해남군	화원 목포구 등대 관광자원화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696-1 일원
5	완도군	덕동 힐링관광자원화	완도군 덕동리 270-2일원
6	완도군	요트크루즈 명품 해양레저 거점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704일원
7	진도군	진도 109(백구) 오션뷰 로드	진도군 관내 해안도로 일원
8	신안군	암태 암석공원	신안군 암태면 도창리 889일원

– 체험형 해양·생태 관광명소화 사업

• 체험형 해양·생태 관광명소화 사업은 목포시 2개, 여수시 1개, 나주시 1개, 담양군 1개, 구례군 1개, 강진군 3개, 장성군 2개로 계획함(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표 III-6-4
체험형 해양·생태 관광명소화 사업

연번	시군	사업명	위치
1	목포시	유달산 연계 관광지 활성화 사업	목포시 죽교동 271-2 일원
2	목포시	옥암수변공원 생태관광 메카조성사업	목포시 옥암동 1396번지 일원
3	여수시	웅천 장도 예술의 숲	여수시 웅천동 1902번지
4	나주시	마한 별자리 공원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산 5-3번지 일원
5	담양군	한재골 숲속 놀이공원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 490-2번지 일원
6	구례군	호수공원 주변 체험시설 조성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호수공원 일원
7	강진군	강진만 생태체험관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584 일원
8	강진군	자연 친화적 해양 치유로드	강진군 강진읍 강진만 (칠량면 송로리 1166 외) 일원
9	강진군	보은산 테마공원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342번지 외 56필지
10	장성군	제암저수지 관광기반시설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527-1 일원
11	장성군	수양호 수변 생태 탐방로 활성화 사업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652 ~ 삼서면 수양리 308-5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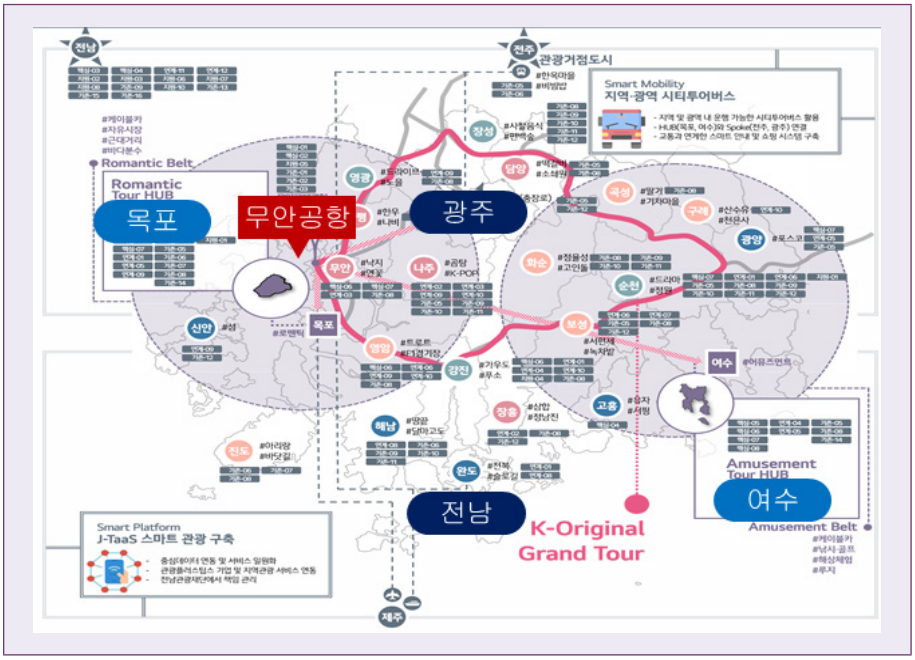
– 남해안 관광거점도시 네트워크 구축

- 목포와 여수 중심의 해양, 생태, 역사문화 등의 자원을 특화하여 남해안권의 신성장허브벨트로 작동되도록 각 도시간 연계성 강화
- 목포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역사문화와 여수의 전남 대표관광 도시의 인프라를 활용한 마이스 산업 활성화로 목포와 여수의 거점인프라를 부각하여 국토균형 발전의 핵심축으로 관광시너지 효과 창출

※ 목포: 근대문화유산과 결합된 문화관광 거점도시/ 여수: 컨벤션 등의 마이스 산업을 기반으로 한 해양관광 거점도시

※ Flight to K-Original! 전남 KTTP 사업(음식·해양·생태·문화 등 4개 비교우위 자원벨트화, 체험관광상품 제공) 고도화 추진

그림 III-6-5
관광거점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 남해안 국제회의(MICE) 산업거점 조성
  •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 크루즈연계 해양MICE 관광벨트 구축
    * 휴양형·목적형 웰니스관광 MICARE산업(MICE+Healthcare) 육성
    * MICE기반 해양스포츠 및 관광프로그램 발굴
  •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컨벤션관광 수용태세 개선 : 숙박, 교통연계, 쇼핑, 위락, 식음, 홍보, 전문인력양성 등
  • 연안크루즈 등과 연계한 해상형 MICE프로그램(상품) 개발

섬·크루즈 관광기반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남해안은 지정학적으로 한중일 국제크루즈라인과 연계지역이며, 국내 연안크루즈 관광의 주요 거점이므로 광역크루즈 인프라를 기반으로한 연안크루즈 운영
– 크루즈 공동관광 프로그램 발굴, 지역관광산업발전 및 일자리창출 도모

● 주요 사업
– 남해안 크루즈 인프라 조성
  • 목포크루즈 전용부두 건설(10~15만톤급1선석460m)
  • 여수크루즈부두 터미널 건설
– 서남해안 광역연안크루즈 운항
  • 운항노선 : 제주 ↔ 신안 ↔ 목포 ↔ 완도 ↔ 여수 ↔ 남해 ↔ 통영 ↔ 부산
  • 연안크루즈 및 남해안벨트의 다양한 행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 중국·일본 연계 동북아 크루즈 기항지 및 수용태세
  • 중국~남해안(목포, 여수)~일본으로 연결되는 국제크루즈 선사 유치
  • 외국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시내면세점 설치
– 크루즈·섬특화 관광상품 개발
  • 무안공항-여수항 연계'플라이&크루즈'상품 운영
  • 전남 크루즈 기항지 중심 맞춤형 해외 홍보마케팅(크루즈선사 등)
  • 크루즈항 입국시스템 간소화 및 편의시설 확충
– 가고 싶은 테마섬 특성화
– 섬고유 생태자원 보존·회복, 매력적인 섬문화·관광자원화,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섬가꾸기(`24년까지 24개섬 선정 개발중)
– 가고 싶은 섬을 중심으로 거점별 3박4일 크루즈여행(섬나들이 바다천리길 크루즈관광)
  * (코스) 여수~고흥~완도~신안~진도
  * 가고싶은 섬 테마화 : 치유의섬(소록도), 꽃섬(신안군일대, 여수상·하화도), 슬로우(청산도) 등

(2) 융복합·연계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생태·체류형 관광네트워크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생태경관, 해안경관의 매력을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육성
  - 생태·해안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심미적 감수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미술적 장치의 도입, 문화예술 체험시설과 휴양시설의 도입 등
- 주요 사업
  - 생태관광 통합브랜드 구축 및 '청정 전남' 상품 개발
    - 전라남도 전역 그린인프라 확충, 지역전체를 정원생태관광테마화
    - 바이러스 프리(Virus-free) 관광지 조성, 1시군 대표관광지 육성, 산림해양 휴양·치유벨트 조성
    - 습지, 갯벌, 숲 등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테마와 기능을 갖춘 해양생태 체험·학습공간 조성(생태학습로조성, 생태체험물설치, 숲생태 학습장, 갯벌생태 교육장, 해양생태교육장, 생태어드벤처, 별자리 천문대, 명상체험 돔, 다목적 체험관, 생태숙박시설 조성 등)
  - 서남해안 명품경관 프로젝트 추진
    - 생태·해안 경관, 섬, 해양을 활용한 오션뷰 명품 경관 조성을 위해 주요 조망 대상 해안가와 조망점, 해안도로 등을 중심으로 경관정비 프로젝트 추진
    - 해안루트를 따라 우수 경관 포인트를 선정하고, 경관을 돋보이게 할 예술적 장치를 결합한 조망시설 설치
    - 우수 조망점의 경관과 예술 체험성을 높여주기 위한 거점시설로서 국공유지를 활용한 전시관, 미술관, 조망카페, 테마 숙박시설 등 유치 추진
  -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
    -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 섬별 향토·문화·역사성을 부각한 섬숲 복원으로 신해양시대 선도
  - 동북아 정원산업 중심지 조성
    - 전라남도 정원 문화·산업의 세계화와 동북아 정원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정원박람회, 국립한국정원문화원 등 조성
    - 뷰티, 의료(바이오산업), 한방, 아토피 치유, 음식(슬로푸드), PRT 경관 화훼 농업(라벤다정원), 헬스팜 등 연계하여 정원관광 연관산업 육성

지역특화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 배경 및 필요성
  - 지역관광자원의 발굴과 활용, 비즈니스 유형선택,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직화,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필요
  - 전라남도의 경우 농어촌지역의 다양한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부존자원과

식품가공, 유통·관광·서비스업 등 1·2·3차 산업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활성화 도모

– 지역이 지닌 천혜의 인문·자연적 여건을 관광요소와 융·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상품의 활성화 필요

● 주요 사업

– 지역특화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 전라남도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남도만의 전통예술, 역사문화, 산업자원, 해양자원 등을 연결하는 지역특화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전남특화형 생태해양문화공간 조성

• 우주과학, 섬박람회 등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복합테마공간 조성으로 국제적인 해양관광 허브 구축

• 사라져 가는 전통음식의 조리법 발굴, 보존(기록·영상), DB구축, 우수한 남도음식의 전통을 계승하고, 교육·연구·개발·치유·산업을 통해 음식문화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립남도음식문화진흥원 유치 및 남도음식관광 활성화

• 남해안권 연안 및 내륙지역 간 연계강화와 교류 촉진을 위한 해안권과 내륙권 연계 명품 콘텐츠 개발 하고 3~4개 지역연계형 테마여행 10선 사업 추진

⬡ 전남형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

● 배경 및 필요성

– 힐링과 건강을 추구하는 관광수요 증가에 따라 한국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 산림·해양·갯벌·공기질 등 비교우위 자원이 전라남도의 웰니스 관광에 활용되고 해양치유센터, 뷰티(미용)산업 등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웰니스관광사업 육성

● 주요 사업

– 해양치유웰니스단지 조성

• 해수·해양생물자원 등을 활용한 웰니스센터, 해양치유전문병원, 리조트, 천일염 힐링테마공원 등 해양치유웰니스단지 조성

• 뷰티·스파, 한방, 힐링·명상, 자연·숲치유 4가지 테마별로 우수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하고 콘텐츠 독창성, 친밀성, 상품화 발전가능성, 개별관광객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 남해안 해양치유휴양지(해양치유마을) 및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해양치유 클러스터 조성

• 여수돌산도(스트레스,혈압), 고흥우도(우울증,두통), 완도보길도(산후조리, 허약체질), 진도관매도(관절염,신경통), 신안임자도(관절염,신경통)

– 농산어촌 치유휴양체험마을·치유농장 지정·운영

• 농산어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체험·숙박시설 등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치유체험, 휴양프로그램 제공,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가소득 제고

- 치유농업사 양성(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1)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운영

– 전남형 웰니스관광 활성화 사업
  - 전남형 웰니스관광 활성화 세부 사업은 구례군 1개, 고흥군 1개, 보성군 1개, 영암군 1개, 신안군 1개로 계획함(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표 III-6-5
시군별 전남형 웰니스관광 활성화 세부 사업계획

연번	시군	사업명	위치
1	구례군	지리산 3色테마 관광 활성화	구례군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일원
2	고흥군	득량도 생태·역사 테마 빌리지	고흥군 도양읍 득량리 185-3번지 일원 (관청마을, 선창마을 등 2개마을)
3	보성군	전라천년 구들장 스마트 휴양 치유마을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해평리 일원
4	영암군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113번지 일원
5	신안군	웰니스 센터 건립	신안군 임자면 진리 일원

초광역 연계관광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주요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광역적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의 극대화

– 초광역 연계관광을 원하는 지자체가 관련 타지자체와 대화·협력하는 지역주도형의 관광개발 방식 필요

● 주요 사업

– 남부권 관광개발계획 및 광역연계사업 기반 구축
  - 남해안권의 계획거점 단위를 중심으로 시·군간 계획공모형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전라남도 4개 권역의 거점관광권 설정
  - 전라남도 시·군의 단독사업은 테마형 관광콘텐츠 중심 발굴 및 연계협력사업은 계획거점 단위 관광권역 중심 발굴
  - 관광권역 내 시·군의 공동 번영 및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권역 특화의 다차원적 연계협력사업 발굴

– 영·호남 동서내륙 광역관광벨트 개발 사업 : 전남~광주~경남~대구 연결하는 한반도 동서횡단축의 내륙권 초광역관광벨트 개발

– 무안공항과 대구·김해공항 연계,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 영호남 관광산업 동반성장

– 백두대간 지리산권 치유·휴양형 산악관광벨트개발 사업

– 영·호남 동서교류문화권관광벨트 개발 사업

– 섬진강 관광르네상스거점기반 구축 사업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통한 해양·내륙·연안 광역관광벨트 구축

– 메가이벤트 개최 및 관광상품 운영

공생과 혁신을 통한 고품격 관광환경 조성

-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한 테마 관광지 확대 조성과 청정 안심관광지, 관광편의시설 확충
    - 관광기반시설 확충은 나주시 3개, 곡성군 1개, 구례군 1개, 강진군 1개, 무안군 1개, 영광군 1개, 장성군 2개로 계획함(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표 III-6-6
시군별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세부 사업

연번	시군	사업명	위치
1	나주시	동강 느러지 전망대 관광활성화사업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산 1번지 일원
2	나주시	노봉산 관광자원 사업	나주시 용산동 327-1번지 일원
3	나주시	영산강 강변도로 관광기반 구축사업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1121번지 일원
4	곡성군	보성강변 선형관광 거점화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산 102 일원
5	구례군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구례군 섬진강 자전거길, 화엄사,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 섬진강 어류 생태관, 지리산 역사 문화관 일원
6	강진군	대구 저두지구 관광편의시설 조성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307 일원
7	무안군	영산강 관광경관 개선	무안군 몽탄면 몽강리 628번지 등 12필지
8	영광군	불갑테마공원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영광군 불갑면 금계리, 방마리 일원
9	장성군	장성호 레포츠 하류부지 복합관광화	장성군 장성읍 용강리 87-8번지 일원
10	장성군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장성군 장성읍 장안리 610-1번지 일원

- 청정 전남 안심관광지 구축사업은 여수시,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무안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각 1개로 계획함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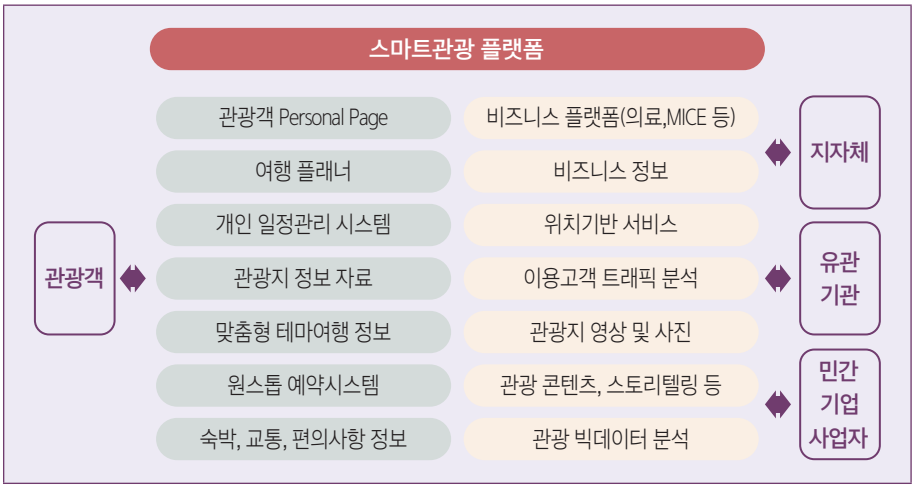
표 III-6-7
시군별 청정 전남 안심관광지 구축 세부 사업계획

연번	시군	사업명	위치
1	여수시	개도 복합관광자원화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820번지 일원
2	순천시	순천만 일원 차박 및 캠핑장 조성	순천시 순천만 해룡면 상내리 813번지 일원, 별량면 마산리 718-6번지 일원, 별량면 학산리 산 113-2번지 일원
3	담양군	무정 복합레저타운	담양군 무정면 정석리 산 23번지 일원
4	곡성군	곡성 섬진강 동화정원	곡성군 곡성읍 묘천리 14-1 일원
5	무안군	노을길 해안관광 명소화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 해제면 유월리, 송석리 일원
6	함평군	용천사권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350번지 일원
7	완도군	고금 골프 테마파크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일원
8	진도군	향토 민속문화 거점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211-1번지, 군내면 둔전리 98번지 일원

(3) 고부가 관광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

스마트형 관광플랫폼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4차산업 혁명, 공유경제 플랫폼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관광신산업 육성 필요
  -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관광환경 구축과 통합지원, 관광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
- 주요 사업
  - 기존 관광산업과 SW·ICT 기술 융합을 통한 지능형 관광생태계 조성
    - Big Data, IoT, AR, VR, AI 등을 바탕으로 하여 관광기업 및 사업체와 IT기반 관광테크 기업간 혁신적 협력관계를 지원함으로써 플랫폼 기반에 적합한 스마트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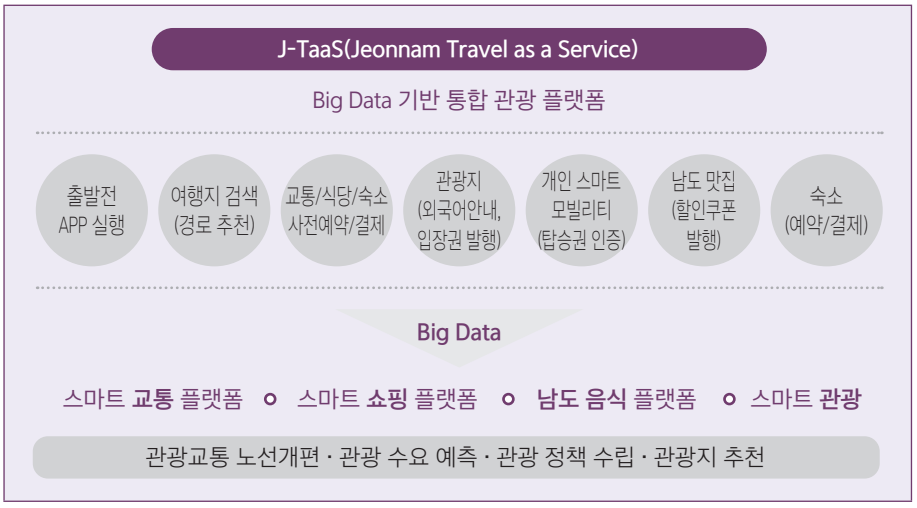


  - 관광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데이터기반 스마트 관광환경 구축
    - 관광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5G 인프라 연계 관광환경 혁신 등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관광콘텐츠 와 새로운 비대면 관광인프라를 개발하고 기존 관광기업과 인공지능(AI)·ICT를 활용한 관광벤처기업 간 연계·협력으로 관광산업 디지털 기반 구축
    - 빅데이터 분석(SNA, 신용카드 매출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UX)기반 경로정보 제공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광트렌드와 관광객의 수요(NEED)도출, 그룹에 적합한 컨텐츠,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맞춤형 관광코스 추천

전남 관광 빅데이터조사 및 모니터링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 활용 방안				
	설문 모니터링 ▶	정책과제 ▶	정책방향 ▶	목표 및 전략 ▶	전략사업 추진
	조사 결과 분석 및 의견수렴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과제 도출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방향 설정	목표 설정 및 추진전략 도출	정책방향 및 목표달성 위한 전략사업 추진

– 전남관광플랫폼(J-TaaS·모바일 앱) 고도화 사업

- 교통·숙박·쇼핑 인프라 기반을 보완해 관광콘텐츠를 개발·제공하는 전남관광 플랫폼(J-TaaS·모바일 앱) 고도화 사업 추진
- 고도화사업은 플랫폼 구축 후 외래관광객의 수요와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해양·생태 체험 및 실감콘텐츠 개발

- 바다로 둘러싸인 전라남도의 위치·지리적 강점을 활용한 해양·생태 체험 프로그램 개발
-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강진군 등 체험형 해양·생태 발굴 전략에 부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자원의 활용 및 유인효과 극대화

해양·생태 체험 개발 방안	'체험형 해양·생태 관광 발굴'에 부합한 지역별 자원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 해양·생태 환경보존을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 대상 체험학습 코스 개발로 교육적 가치 제고 전라남도 내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운영 중인 지역 특화 체험 프로그램 보완 및 활성화 유도
실감콘텐츠 개발 방안	전라남도 내 분포된 관광자원과 ICT 기술 접목을 통한 실감콘텐츠 개발로 자원 재활성화 및 콘텐츠 현대화 자원을 역동적이고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스토리텔링화 AR·VR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로 상호작용 극대화 몰입감, 현장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 콘텐츠 구축

관광신산업 생태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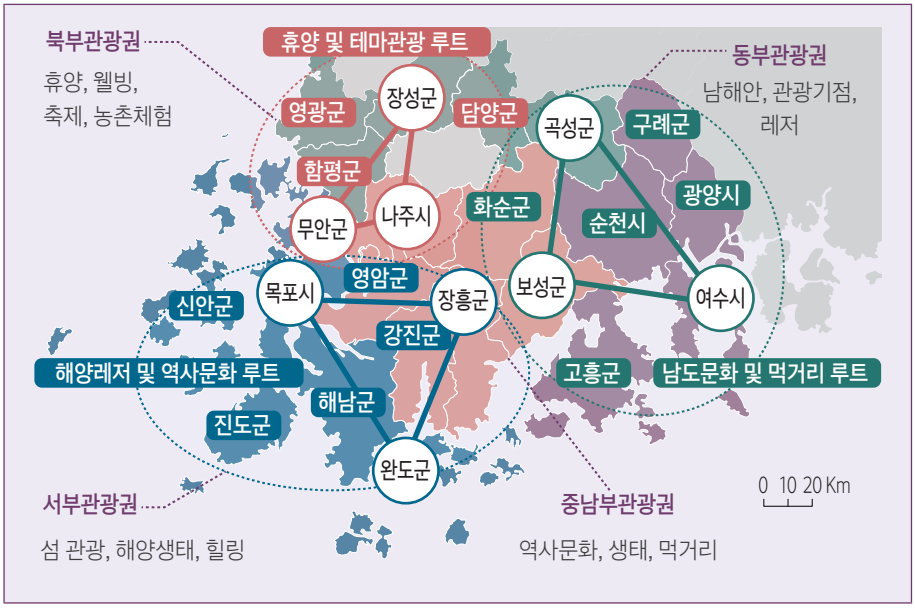
- 배경 및 필요성
  - 4차산업 혁명, 공유경제 플랫폼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관광 신산업 육성 4차산업 혁명, 공유경제 플랫폼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관광신산업 육성 필요
  - 신유형 관광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19.7)에 따라 관광산업의 범위가 커져 더 많은 사업체들이 정책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산업 플레이어(piayer) 육성
- 주요 사업
  - 관광벤처기업 등 신관광기업 육성, 디지털 관광환경 제도 정비, 공정관광 생태계 조성, 디지털 관광자원 아카이브 등
  - 신 유형 관광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 등 다양한 관광산업 플레이어(player) 육성
    - 관광객 대상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렌터카업체, 관광지에 위치한 기념품 숍, 관광객 대상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광벤처기업, 관광객을 수송하는 운수업체, 식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체 등
  - 관광분야 산관학 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강화(디지털 전환가치에 대응한 관광 수용태세 정책전환 추진)
  - 권역별 관광혁신거점센터 운영(지역단위 특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창업 지원)

지역 간 연계관광 활성화 방안

- 배경 및 필요성
  - 바다와 연접한 지리·위치적 강점을 부각하며, 전라남도 내 점(点) 형태의 개발에서 상호 연계한 선(線) 형태 개발 필요
  - 해안·내륙의 수려한 경관과 남도 역사·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관광자원 간 융복합화로 전남관광 경쟁력 제고 필요
  - 북부·중남부·서부·동부 관광권을 기준으로 주요 관광자원인 휴양, 해양생태, 역사·문화, 레저 등의 상호 연계를 위한 전략 수립
- 주요 사업
  - 해안·내륙 연계 관광루트 구축
    - 해양레저 및 역사문화루트, 남도문화 및 미식관광루트, 휴양 및 테마관광루트

해양레저 및 역사문화 루트	• 대상 지자체 : 목포시, 장흥군, 완도군, 신안군,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영암군 • 주요 키워드 : 해양레저, 힐링, 웰니스, 역사·문화	
	주요 전략사업	요트크루즈 명품 해양레저 거점, 화원 목포구 등대 관광자원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정남진 위인공원, 덕풍 힐링관광 자원화, 우수영 역사 관광촌 등
남도문화 및 미식관광 루트	• 대상 지자체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화순군, 보성군, 고흥군 • 주요 키워드 : 문화, 전라천년, 먹거리	
	주요 전략사업	여가와 문화를 즐기는 미식 도보관광, 추억의 능주 문화공간, 전라천년 구들장 스마트 휴양 치유마을, 옛 장터 주민참여 문화공간 등
휴양 및 테마관광 루트	• 대상 지자체 : 나주시, 장성군, 담양군,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 주요 키워드 : 휴양, 테마관광, 경관, 생태체험	
	주요 전략사업	노을길 해양관광 명소화, 정원 속 예술이 있는 테마 숲, 백수 해안노을 관광자원화, 자급자족형 생태예술마을,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관광자원화 등

그림 III-6-6
해안·내륙 연계 관광루트 구축



주민·지역주도 관광생태계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관광두레, 관광형 마을기업, 농촌·생태관광 주민협의체 등 지역 주민사업체의 창업 활성화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여행', 지역기반의 소비를 장려하는 '로컬 커뮤니티여행' 등 ESG 선도형 관광 유도
- 주요 사업
  - 지역공동체 주도 관광사업 활성화 지원
    - 주민주도형 지역관광생태계 조성 지원,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지역주민 관광창업 활성화 지원(주민주도형 관광창업사업 발굴 및 지원)

–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관광산업의 각 사업 분야별 협회 및 협력체와 유사하게 전라남도의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협업사업 추진
- 소규모 주민주도형 관광사업 공동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두레사업 또는 전라남도의 (가칭) 공정관광두레사업의 잠재력 지역공동체 발굴 및 육성의 도구로 네트워크 활용

표 III-6-8
주요 부처별 주민주도형 공동체 지원사업

사업명	부처명	주요 지원사항
관광두레만들기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자원조사 • 단계별 지역역량강화 교육 • 특화 관광사업 창출 멘토링 • 공공시설 활용 지원 • 지역대학생 인턴 지원 • 홍보, 마케팅 지원
마을기업육성	행정안전부	• 사업비 지원: 8천만 원 -1차년도 5천만 원, 2차년도 3천만 원 * 지원액의 20%한도 내에서 인건비 사용가능 • 교육 및 컨설팅
사회적기업육성	고용노동부	• 일자리 창출 사업: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인건비의 9%) 지원 -1년차 100%, 2년차 90% • 경영컨설팅
농어촌공동체회사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 제품개발·홍보·마케팅 비용 등: 최대 5천만 원 지원 • 교육 및 경영 컨설팅

– 지속가능경영의 척도인 ESG경영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가 확대되고 있어 친환경 관광사업 지원

- 웨이스트(zero waste) 숍 투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형 친환경 숙소 등

제2절

전남 고유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1. 현황과 문제점

역사문화자원의 현황과 문제점

- **[마한역사문화권]** 전라남도는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마한(馬韓)과 관련된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음. 마한 유적은 751개소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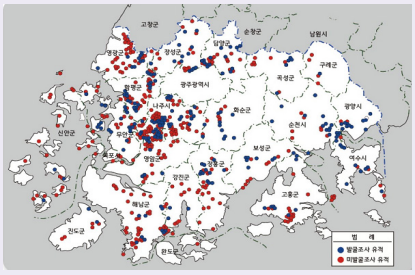
표 III-6-9
마한 유적 현황

구 분		계	유적 분류				
			생활유적	분묘유적	생산유적	관방유적	복합유적
마한 유적		751	138	529	1	51	32
지정 현황	국가지정	4(0.5%)	1	2	1	0	0
	도지정	33(4.5%)	1	23	0	9	0
	비지정	714(95%)	136	504	0	42	32

그림 III-6-7
전라남도지역 마한 유적 분포



전남지역 마한소국 권역별 위치(임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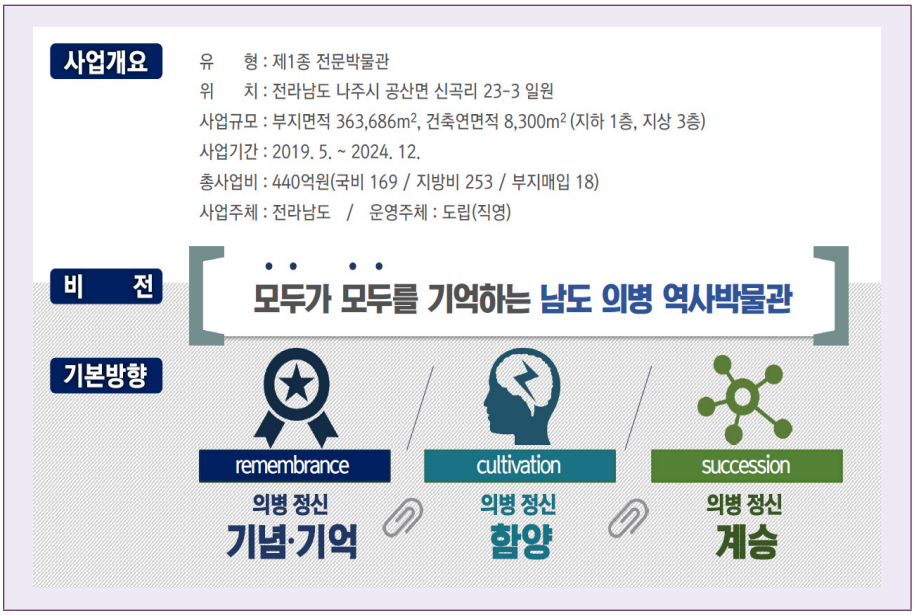

전남지역 마한관련 주요유적 분포도

– 마한문화권의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마한 문화권 발굴·조사 등 연구개발을 위한 국립기관 및 도 출연기관 운영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05년 설립), 국립나주박물관(13년 개관)
  - 전남문화재연구소(14년 개소)

– 하지만,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개발사업 추진의 경우 가야사에 비하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도민들의 상대적인 소외 및 박탈감 증대되고 있음. 또한 마한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 4세기 중반에 백제에 통합되었다는 인식이 강함. 교과서에 마한사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담는 등 마한사에 대한 홍보 방안 모색 필요

- **[의향(義鄕)]** 전라남도 지역은 전국을 대표하는 의향으로, 임진왜란시기 뿐만 아니라 한말에도 일제에 맞서 호남지역에서는 의병활동이 활발했으며, 이런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현재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III-6-8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계획



– 호남의병 문화자원의 경우, 문중 차원에서 건립한 사우(祠宇)가 대부분이어서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전라남도의 긍정적인 정체성인 '의향'의 가치를 전국화 할 수 있는 전라남도의 랜드마크적인 공간이 부재한 현실

- **[전통문화 - 종가]** 종가는 전라남도 지역 가문의 역사와 전통을 잇고 있는 '한국문화의 요체'로서 중요한 문화자원임
  – 전라남도에서는 2017년~2020년에 걸쳐 전라남도 종가 자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총 3차에 걸쳐 104개의 종가를 4개 분야(역사, 민속, 건축, 활용)로 나누어 발굴
    • 1차(16.8~17.2) : 30종가, 2차(17.12~18.8) : 38종가, 3차(20.4~20.12) : 36종가, 4차(진행중)
  – 전라남도 종가 기초 조사 현황(104개 종가)

표 III-6-10
전라남도 종가 기초 조사 현황

구분	역사분야		민속분야				건축분야		
항목	고문헌	소장품	불천위 제례	기제사	차례	시제	고택	집안 사당	문화재
종가수	75	71	21	103	103	104	45	36	28

– 전라남도 종가문화의 기초조사를 완료 했으나, 향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종손의 고령화로 종가의 명맥 유지가 어려운 현실이며, 세대 변화에 따른 혈연의식의 약화로 종가 및 문중의 유대감도 부족함. 종가 문화에 대한 조사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세계유산등재 추진 필요

- **[전통문화 - 수묵]** 전라남도는 수묵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음

-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남종화의 화맥(畵脈)이 시작된 곳으로 공재 윤두서, 소치 허련, 의재 허백련, 남농 허건 등 수묵화 거장들의 발자취가 곳곳에 있으며, 현재까지도 수묵화의 전통을 잘 지켜오고 있음
- 전라남도국제수묵비엔날레는 전통회화를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국제미술 행사지만, 노후화된 지역문화시설을 활용하여 목포시(목포문화예술회관), 진도군(운림산방) 일원에서 분산 개최하고 있어 전문적·효율적인 행사 운영에는 한계

- **[전통문화 - 판소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판소리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충청도와 경기도에 전승되어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소리제를 형성하고 있음. 전라도 동북 지역의 소리를 동편제(東便制), 전라도 서남지역의 소리제를 서편제(西便制)로 구분
  - 판소리, 1964년 12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 2003년 11월 유네스코 제2차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 200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 이 외에도 전라남도 지역은 강강술래, 가곡, 아리랑, 농악의 중심이라 할 수 있음
  - 전라남도에서는 남도도립국악단을 운영하며 매달 다양한 창극과 판소리, 국악을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음. 다만, 남도소리를 전승하고 대중화하는 데에 집중하다보니 남도의 소리를 문화산업적 관점에서 주목하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음

2. 여건변화 및 전망

⬡ 역사문화자원의 새로운 재발견의 계기 마련

- **[마한역사문화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17412호, 20.6.9.제정·공포, 21.6.10.시행, 21.12.31 개정). 이를 통해 마한역사문화권의 가치를 조명하여 지역의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마한역사문화권의 자산과 연계한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8대 역사문화권 : ① 고구려역사문화권, ② 백제역사문화권, ③ 신라역사문화권, ④ 가야역사문화권, **⑤ 마한역사문화권**, ⑥ 탐라역사문화권, ⑦ 중원역사문화권, ⑧ 예맥역사문화권

- **[의향(義鄕)]** 전라남도에서는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하여 의향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전시, 체험, 연구 공간을 담은 역사테마정원을 통해 전라남도의 랜드마크로 조성중

- **[전통문화 - 종가]** 최근 전통문화 자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전라남도 지역의 종가에 대한 조사·연구 뿐만 아니라, 종가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 확산

- **[전통문화 - 수묵]** 2018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의 개최(2018년 9월 1일~10월 31일)를 통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작품을 통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새로운 전시를 개최한 바 있음

- **[전통문화 - 판소리]** K-POP의 지속성장과 新한류 확산, 퓨전국악 밴드인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 사례를 통해 전통소리의 한류화 가능성 확인. 향후 음원·음향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리융합산업 밸류체인을 극대화한 산업육성 필요

3. 주요 정책과제

1) 기본목표

지역 특화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 **[마한역사문화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한역사문화권 내의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역사적 가치를 조명.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의향(義鄕)]**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도의병박물관 건립을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화
- **[전통문화 - 종가]** 전라남도 종가의 독특한 문화(음식, 제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
- **[전통문화 - 수묵]**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상설전시관을 건립하여 예향 남도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한국 수묵화의 세계화에 기여
- **[전통문화 - 판소리]** 국악, 판소리, 창 등 남도의 전통소리를 활용하여 소리융합산업으로 육성하고, 향후 국제사운드 엑스포 개최 추진

2) 추진전략

- **[마한역사문화권]** 영산강유역의 마한역사문화권의 조사·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문화복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마한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에 광주광역시-전라북도 등과 협력하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의향(義鄕)]**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과 한말의병에 대해 재조명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력적인 남도의병박물관으로 조성.
- **[전통문화 - 종가]** 종가에 대한 연구와 활용을 먼저 추진하였던 경상북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라남도 종가의 체계적 정리, 종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자원의 스토리텔링화, 생활문화를 활용한 산업화 방안 모색. 향후, 경북 지역 종가와 연대하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전통문화 - 수묵]**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상설전시관에서 수묵화 전시(상설, 기획), 미디어아트실, 교육, 체험, 이벤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전라남도 수묵화의 중장기적 발전 토대 마련

- **[전통문화 - 판소리]** 남도의 전통소리를 디지털 융복합콘텐츠로 적극 육성하고, '전통문화 소리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남도소리를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

3) 핵심 프로젝트

(1)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복원과 세계화(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1-1-라)

배경 및 필요성

- 특별법 제정('20.6.), 마한문화권발전협의회 구성, 지속적인 유적발굴, 비전선포 등으로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인식 확산. 마한사 복원을 통한 전라남도 고대역사 정체성 확립 및 세계화
- 고대 동아시아 해상교역을 통해 독자적 문화체계와 국제성을 기반으로 성장한 고대 마한역사문화의 복원·진흥, 세계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필요
- 마한문화권 복원으로 고대사회 문화 교류의 다양성을 파악하여 동서 화합과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협력 증진
- 마한문화권 중심지였던 영산강 주변 자원 활용에 대한 청사진 제시

주요 사업

- 발굴조사, 학술대회, 문화재 지정, 자료집성, 유적 정비 등 마한 역사의 실체 규명
- 마한역사문화촌, 마한역사테마파크, 마한역사길 등 조성하여 마한 역사의 향유 기반 마련
- (가칭)동아시아 고대교류 박물관 등 권역별 거점 종합박물관 확충
-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으로 마한사 정책 및 사업 추진 거점 구축
- 초광역 마한유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한 마한역사문화의 세계화 추진

(2) '의향(義鄕)' 자원을 활용한 관광 거점 구축

배경 및 필요성

- 전라남도 지역은 전국을 대표하는 의향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소규모의 추모공간에서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
- 또한 의향 자원을 활용한 랜드마크적인 공간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계기 마련 필요
- 건립 추진 중에 있지만,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박제된 공간이 아닌 의향의 자원을 전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창출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 필요

주요 사업

- 도의병역사공원 조성(2019~2024)(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2-3-가, 2-3-라)
  - 의병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추모와 전시공간
  - 의병 역사의 교육과 연구 공간
  -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공간
  - 아이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의병 체험 공간
  - 사계절 내내 매력적인 역사테마 체류공간

(3) 전라남도의 고유한 전통문화자산 활용

배경 및 필요성

- 종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 종가 조사사업(4차) 추진을 통해 기존에 누락되었던 주로 해안가에 위치한 광양, 여수, 고흥, 완도, 진도, 목포, 신안 등지의 시군의 종가를 조사하고 있음. 조사 이후 종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필요
-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의 경우 우리 지역의 새로운 관광축제로 성장해가고 있으나, 상설전시관이 부재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없음
- 남도의 전통소리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자원의 관점 뿐만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융복합콘텐츠로 육성하고, '전통문화 소리융합 클러스터' 구축 등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주요 사업

- 종가문화의 활성화(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2-3-가, 2-3-라)
  - 대중화를 위한 '전남 종가 총서' 단행본 발간 추진
  - '전남 종가 학술심포지엄' 지원 확대 및 경북 종가와의 연대 강화
  - '남도종가음식문화보존회' 조직 구성 등을 통한 종가문화의 보존 및 계승
  - 전라남도 지정, "아름다운 전남종가" 문패 제작 및 종가 상징 문장(紋章) 디자인 및 종문기(宗門旗) 제작 지원 사업
  - 국립종가박물관 건립 추진
  - 종가문화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자원화 사업
-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상설전시관 건립(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2-3-가, 2-3-라)
  - 수묵화 전시(상설, 기획), 미디어아트실, 교육, 체험, 이벤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전라남도 수묵화의 중장기적 발전 토대 마련
  - 주요시설 : (전시관) 전시·수장시설, 교육·체험시설, 편의시설 등 (야외) 힐링정원, 산책로, 야외공연장 등

- 전통문화 소리융합 클러스터 구축
  - 남도전통소리 기반 구축 : 전통문화 어울림터, 소리 컬렉션 및 체험관 건립·운영, 남도 국악창작 스튜디오 구축·운영
  - 소리융합산업 활성화 지원 : 전통 소리 및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 디지털 소리 콘텐츠 창작 지원, 아시아-태평양권 최초 국제 사운드 엑스포 개최·운영

2021~2040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제 4 편
계획의 실행방안

제1장 행정계획

제2장 재정계획

제1장

행정계획

제1절 현황

제2절 공공가치를 지향하는 행정

제3절 정책추진과정의 민주적 참여와 협력

제4절 창의적이고 일 잘하는 유능한 조직문화 혁신

제1절

현황

행정구역 현황

- 전라남도의 행정구역은 5개 시, 17개 군, 33개 읍, 196개 면, 68개 동(192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체 인구는 2020년 기준 약 185만여명이고, 전체 인구밀도는 약 150명임
  - 인구밀도가 300명 이상인 지역은 목포시(4,340명), 여수시(547명), 순천시(310명), 광양시(327명)이고, 인구밀도 50명대인 지역은 곡성군(51명), 구례군(58명), 신안군(59명)
  - 시지역의 평균 인구밀도는 414명, 군지역은 평균 81명임

표 IV-1-1
전라남도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구분	인구	면적	인구밀도	계	읍	면	동	법정동
전라남도	1,851,549	12348.09	150	297	33	196	68	192
목포시	224,044	51.62	4340	23			23	64
여수시	280,242	512.25	547	27	1	6	20	51
순천시	282,189	911.03	310	24	1	10	13	33
나주시	115,613	608.37	190	20	1	12	7	34
광양시	151,769	464.13	327	12	1	6	5	10
담양군	46,280	455.09	102	12	1	11		
곡성군	28,039	547.5	51	11	1	10		
구례군	25,719	442.93	58	8	1	7		
고흥군	63,922	807.33	79	16	2	14		
보성군	40,482	664.06	61	12	2	10		
화순군	62,522	787.05	79	13	1	12		
장흥군	37,800	622.35	61	10	3	7		
강진군	34,597	500.9	69	11	1	10		
해남군	68,806	1,032.96	67	14	1	13		
영암군	53,699	612.49	88	11	2	9		
무안군	86,132	450.37	191	9	3	6		
함평군	32,050	392.1	82	9	1	8		
영광군	53,099	474.89	112	11	3	8		
장성군	44,464	518.28	86	11	1	10		
완도군	49,916	396.72	126	12	3	9		
진도군	31,227	440.1	71	7	1	6		
신안군	38,938	655.57	59	14	2	12		

자료 :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020.12.31.기준)

공무원 현황

-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등 정원 6,250명, 시군 공무원 정원은 18,850명으로, 4급 이상 공무원은 여수시·순천시(12명), 광양시(11명), 목포시(10명) 순으로 많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여수시(1,729명), 순천시(1,463명), 목포시(1,196명), 나주시(1,052명) 순으로 많음

- 전라남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순천시(177명), 목포시(173명), 여수시(150명) 순으로 많고, 곡성군(45명), 구례군(46명), 신안군(48명)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시와 군단위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시지역 150명, 군지역 68명으로 나타나 격차가 존재하여 지역주민 간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는 조정 방안이 필요함

표 IV-1-2
전라남도 및 시군 공무원 직종별 정원 현황

구분	계	고위공무원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정무직	별정직	교원직	기타직	소방직
			소계	3급이상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합계	25,100	6	19,910	23	195	11	1,215	4,954	5,584	4,376	3,512	40	426	614	23	42	69	2	4,008
전라남도	6,250	6	1,846	18	82		327	632	657	85	27	18	269	29	1	22	69	0	4,008
시군계	18,850		18,064	5	113	11	888	4,322	4,927	4,291	3,485	22	157	585	22	20		2	
목포시	1,296		1,275	1	9		69	256	328	336	276		17	3	1				
여수시	1,872		1,828	1	11		84	379	459	473	418	3	9	33	1	1			
순천시	1,594		1,554	1	11		79	351	390	372	350		7	29	1	3			
나주시	1,157		1,113	1	6		54	242	299	277	234		8	34	1	1			
광양시	1,119		1,086	1	10		60	267	266	244	237	1	5	26	1	1			
담양군	690		656		5		33	161	173	148	136		14	18	1	1			
곡성군	622		597		4	1	26	145	165	138	118		3	21	1				
구례군	559		523		4	1	25	150	139	121	80	3	8	27	1				
고흥군	805		764		4	1	35	196	213	178	136	1	9	29	1	2			
보성군	667		625		3		32	149	170	145	125	1	9	30	1	1		1	

구분	계	고위공무원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정무직	별정직	교원직	기타직	소방직
			소계	3급이상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화순군	746		708		3	1	31	195	211	187	80		1	35	1	1			
장흥군	644		611		4	1	27	166	183	126	104		4	27	1	1			
강진군	644		608		4	1	29	144	153	135	138	4	9	25	1	1			
해남군	844		801		4	1	37	195	280	193	90	1	9	33	1				
영암군	742		700		2	2	31	152	199	161	153		8	32	1	1			
무안군	769		737		4		35	183	197	169	149		8	22	1	1			
함평군	589		553		4		24	138	154	136	96	1	2	32	1	1			
영광군	698		667		3		32	160	171	160	138	3	4	26	1				
장성군	638		612		4	1	33	145	166	125	138		3	21	1	1			
완도군	735		707		5		35	185	217	152	112	1	3	23	1	1			
진도군	614		579		4	1	30	161	176	141	63	3	7	26	1	1			
신안군	806		760		5		47	202	218	174	114		10	33	1	1		1	

주 : 국가공무원 6명 포함

자료 : 전라남도 통계연보(2020)

제2절

공공가치를 지향하는 행정

1. 사회적 가치 중심의 행정

- 도정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 도의 예산·인사·조직·평가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 인권, 안전, 환경, 복지, 노동 등 사회적 가치의 정책에 예산을 대폭 확대, 예비타당성 평가나 재정사업평가에 환경영향평가처럼 사회적가치영향평가 도입
- 사회적 가치는 정부만의 역할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구성원들이 정의롭게 더불어 사는 사회로서의 공동체적인 가치와 공공성과 공익을 보다 존중하고 공감할 때 달성
  - 참여와 소통, 연대와 협력, 나눔과 공유, 관용과 배려, 자치와 협치 등의 가치가 민관의 관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집단과 계층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의식으로 정착할 때 가능
- 행정혁신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공감과 실천을 끌어내고 각자 실천하는데 정부정책의 중점을 두는 것임

그림 Ⅳ-1-1
전라남도가 추구할 미래사회적 가치



5대 추진 과제	
삶의 질 마을공동체	◉ 시·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행복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주거와 커뮤니티 환경(주거/생활인프라, 생활환경, 생활문화)에 대한 고민 ◉ 커뮤니티케어(돌봄, 교육(자녀), 노인복지 등), 공동체경제에 대한 고민 ◉ 인권, 자치, 협치 등 공동체적 삶과 의식에 대한 고민
스마트경제 협업과 융합	◉ 지속가능한 산업구조와 지역경제성장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 기술혁신, 핵심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의 고민 ◉ 현장 문제 해결 중심과 과제 발굴, 통합지원체계, 혁신 플랫폼 시스템 구축 ◉ 농업과 유통의 스마트 적용 및 선순환체계 구축에 대한 고민
지속가능성 생태, 순환, 경관	◉ 도시, 농촌, 마을, 자원 등 환경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 환경/문화 기반 도시 및 자원 관리, 재생, 브랜드화에 대한 고민 ◉ 섬과 다도해, 연륙연도 및 연안지역 개발, 보존, 활용에 대한 고민 ◉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체계, 저탄소, 미세먼지 감축 등의 고민
국내외 연결 네트워크와 거점	◉ 국내외 연결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연결과 효율적 운영은? ◉ 국내외 교류, 교육, 관광, 문화, 투자를 위한 국제사회와 협력과 연대 ◉ 국제사회에서 전남의 위상 제고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 지역, 도시 간의 연대 협력과 상생을 위한 협력
자치분권 민주주의, 협치	◉ 국내외 연결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연결과 효율적 운영은? ◉ 국내외 교류, 교육, 관광, 문화, 투자를 위한 국제사회와 협력과 연대 ◉ 국제사회에서 전남의 위상 제고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 지역, 도시 간의 연대 협력과 상생을 위한 협력

2. 사회적 가치에 부합한 혁신정책 설계

- 더불어 사는 좋은 전남,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한 혁신정책 개발
  - 도민 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관계가 형성되고, 이웃과 시민에 대한 연대와 협력, 나눔과 공유, 관용과 배려, 자치와 협치 등의 공감을 통해 문제를 해결
  - 인권이 신장되고 범죄가 줄어 안전하며, 사회적 소외계층이 보호받으며, 공공성을 존중하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서로 신뢰하는 사회적 행복지수 제고
  - 도, 시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기업과 민간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비율이 높은 사회를 실현하도록 정책설계
  -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정책과 예산 확대는 기존의 사회복지나 취약계층에 대한 관점보다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살아가는 공익적이고 공동체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정책개발과 예산확대에 중점

●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재정혁신

– 각 부서에서 개발하고 기획한 정책과 소요예산이 사회적 가치실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투자를 통해 사회 전체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지를 판단하여 예산편성과 확대 지원

–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토대로 민관 협력사업 및 주민주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민간과 주민참여 사업을 확대

– 공익과 공공성을 실현하는 민간사업의 성과에 따라 사후에 인센티브로 보상해주는 사회적 가치 성과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추진

– 민간기업의 CSR 차원에서 복지, 교육, 도시재생 등의 사업을 비롯한 개인 소유 재산의 공익적 활용(공유)에 대한 세제지원 등 감면제도 실시

–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사회적 가치실현 중심 구조개선 및 공공성과 공익성 지표를 중심으로 사전, 사후평가 강화

표 IV-1-3
재정혁신 방안

주요 재정 혁신 제도	• 민간, 기업의 협력사업 및 공익활동 예산 지원확대 • 기존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공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선정과 평가 • 사회적 가치성과 사업에 대한 보상 및 인센티브 제공 • 기업이나 단체, 개인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지원 등

●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조직, 인사, 평가체계 구축

– 각종 공공기관의 고용과 인사에서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의 비중을 높이고 차별을 없애는 제도 강화는 당연한 것으로 조직과 평가에 대한 제도 도입

– 공직자의 인사에서 공익활동의 가점제도를 도입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가치실현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민관의 소통과 이해의 폭 제고

– 환경영향평가나 인권영향평가처럼 정책 입안 및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와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하거나 정책이나 제도의 실행으로 사회적 약자계층이 상대적 불이익이 없는지 평가한 후 시행

– 사회적 가치의 실현은 모든 부서가 참여하여 실천해야 하므로 인권, 사회적경제, 공동체사업 등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사회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총괄하는 부서 신설

– 각 부서 BSC지표에 사회적가치 실현 항목을 신설하여 그와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하여 사회적 가치의 철학과 정책개발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혁신으로 확산

표 IV-1-4
조직·인사평가제도 혁신

인 사	• 공직자 승진 등 인사에 공익활동에 대한 가점 • 공공기관 고용과 승진에 사회적 약자 비중 확대 및 차별금지 • 위원회에 이해관계의 사회적 약자 참여 비중 확대
조 직	• 사회적가치 실현 총괄조직 신설(인권, 사회혁신과 공동체)
평 가	• 정책과 제도의 실행 전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제도 도입, 부서 조직평가에 사회적 가치 지표 도입(사회적가치 실현사업) •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 : 보상과 인센티브

제3절

정책추진 과정의 민주적 참여와 협력

1. 도정에 주민참여와 협력 확대

- 참여와 협력은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참여민주주의 행정을 의미함
  - 누구나 참여하여 제안할 수 있는 토론광장 같은 참여방식의 혁신과 예산, 법령의 편성 및 제·개정 과정에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청원시스템 등의 혁신
- 이를 위해서는 공공시설이나 정보 그리고 데이터를 확대 개방하여 국민과 함께 공유 및 활용
  - 부서간,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범정부 협업촉진을 위해 인사, 조직,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문서도 공동기안, 결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
- 기존의 방식처럼 자문회의와 같은 절차상 회의에 단순히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의 입안부터 결정, 집행의 전과정에 공감을 얻어 함께 결정
  - 소통과 함께 모든 정보와 자원을 개방하고 공유하여 상호 신뢰를 얻는 혁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참여와 토론, 협력 도출
  -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협력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구축
-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에 걸맞게 주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공유하며 토론해서 결정하는 주민참여의 제도 강화, 주민참여예산 등 예산과 법령 그리고 제도를 확대하는 혁신 추진
- 특히 정책추진 과정에서 참여와 협력은 민관협력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협치, 주민자치에 대한 제도와 시스템의 혁신 그리고 조직내 부서간, 기관간 협업은 참여협력 분야에서도 중요하지만 도정 혁신에서 더 비중 있게 추진

2. 소통, 공유, 참여를 강화하는 민주적 행정혁신 설계

- 소통과 토론과 결정의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
  - 분권과 자치를 강조하는 도민주권시대에 주민과 어떻게 소통하고 토론하며 공감을 얻어 결정할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하고만 소통하는 시대는 지나고, 많은 분야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 추진
  - 읍면동, 시군, 시도의 행정기관에 맞게 주민이 필요한 정책이나 불편한 민원을 제안하고, 그것에 대한 토론과 해법을 공유하며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추진하는 온·오프라인의 플랫폼 도입
  - 주민과 행정을 불신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공유와 토론이 있어야 왜곡된 인식과 여론, 반대를 위한 반대와 같은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 행태가 사라질 것임

-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공유와 쉽고 상세한 설명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플랫폼(사전정보, 원문정보, 실시간예산과 지출, 정책이력정보, 통계정보, 행정서비스정보 등)도 필요
-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비롯한 수많은 위원회나 협의회가 형식적 운영을 넘어 실질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갖기 위해 참여 위원의 대표성과 객관성 그리고 운영방식이 기획단계에서부터 함께 논의되어 형성되는 운영의 혁신 필요

● 정책에 대한 갈등해결을 위한 민관정 협치(거버넌스) 운영

- 사회구성원들의 이념과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민주적 조정이 실패하면 갈등이 야기되고 추진동력이 상실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
-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며 설득하는 양보와 타협의 민주적 과정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실질적 제도와 시스템을 시군, 읍면동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도입하고 구축하는 노력 필요
- 특히 시군에서 도입할 때 의회, 행정, 시민사회의 민관정으로 협치회의체를 구성, 주민참여의 제도를 논의하고 현안을 대타협으로 결정하며, 많은 주민들과의 공론이 필요할 경우 현안마다 공론화를 주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민주적 절차로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케 할 수 있음
- 기획단계에서부터 민관정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고, 협치회의체나 공론화 위원회에 참여할 구성원은 의회나 행정에서 책임성을 갖는 사람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사람들로 대표되는 디테일한 설계 필요

● 분권과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풀뿌리 주민자치제도 혁신

- 삶의 현장인 주민에게 자치권을 부여하여 주민이 이웃과 함께 내 삶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풀뿌리 자치혁신 필요
- 법과 제도상으로 시군은 기초행정조직이지만 지방정부의 의지로서 풀뿌리 주민자치는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음.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 공익활동 주민조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이 주민간의 관계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과 마을환경을 바꾸는 혁신 추진
- 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이 총회에서 사무국의 임원을 선출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자치사업을 결정·집행하도록 주민자치단체로서의 제도적 지위를 부여하는 자치제도를 도입
- 다양한 마을자치조직과 공익적 주민조직을 육성하고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민관협력과 주민협력으로 복지, 문화,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생활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스스로 추진하는데 주민세나 주민참여예산을 지원하는 제도 혁신 검토
- 기존의 읍면동 주민센터는 시군구 민원과 복지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주민자치회는 독립적인 자치조직으로서 읍면동과 협력하고, 자치사무국을 운영하는 시스템 추진

- 도내 공공시설과 자원 그리고 민간자원을 공유하는 사회혁신 플랫폼 구축
  -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적인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공유하고 개방하며, 융합하고 협력하는 일하는 방식과 사회혁신 필요
  - 공공기관의 주차장, 회의실 등 공간과 여러 자원을 최대한 개방하여 주민들이 자치에 의해 스스로 관리하고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물적 자원과 재능을 사회혁신 차원에서 공유와 협력을 끌어내는 인센티브나 여러 제도적 장치 도입
  - 특히 공공이나 민간의 물적, 인적자원이 서로 필요에 의해 연결되고 이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며, 새로운 창조적인 해법들이 개발되는 사회혁신플랫폼의 구축과 같이 4차산업혁명시대 사회문제를 풀고 공동체를 실현하는 방법 도입

제4절

창의적이고 일 잘하는 유능한 조직 문화 혁신

1. 신뢰받는 도정 혁신 추진

- 도정의 혁신과제로서 부정부패가 없고,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 디지털 행정서비스, 창의행정의 중요성 인식
  - 공직자의 부패근절을 위한 여러 징계적 장치와 권위적 위계에 의한 권력남용, 폭력을 없애는 혁신 과제 추진
  -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편리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기존의 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창의행정 추진
  - 도 조직의 운영시스템과 공직자의 정직, 역량제고를 조직혁신의 전략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조직과 인사, 평가의 정부조직 운영시스템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해야 하며, 특히 조직과 공직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현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 기존의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조직운영의 행태와 문화 그리고 일하는 방식과 관행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슬림화
  - 상하 관계, 부서간 관계가 보다 자유롭고 수평적인 리더십으로 소통과 공유, 토론과 협업을 주민을 위한 창의적 조직문화, 보다 과학적인 업무혁신 설계

2. 창의적이고 유능한 조직문화 설계

- 창의적, 유능한 조직설계의 기본원칙은 우선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데 있음
  - 사람을 보살피고 재능을 키우는 사람 대상의 정책, 사람이 살 수 있는 자연적 환경과 물리적 시설을 보존하고 개발하며 유지·관리하는 도시와 환경 정책,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경제 진흥 정책, 마지막으로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분
  - 사람에 대한 정책은 인구학적 연령과 사회적 계층으로 구분되고, 물리적 환경과 도시는 보존, 개발, 관리 영역으로 구분되며, 경제진흥은 시장질서와 경제활동 지원 영역으로 그리고 행정지원은 조직, 인사, 예산, 평가 등의 업무로 구분됨
  - 업무는 변화에 따라서 기존 일이 없어지거나 약화되고 새로운 업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업무 및 조직 진단과 직무설계가 상시 피드백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작동되어야 함

표 IV-1-5
새로운 행정수요의 증가

구분	기존 조직	새로운 관심 분야
사람 정책	• 가정, 출산, 영유아,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사회복지 • 교육과 평생학습, 문화체육 활동	• 저출산, 지역소멸에 대한 인구정책 • 청년과 이주민에 대한 정책
환경과 도시 정책	• 도시계획과 개발, 환경보전관리 • 교통시설 확충과 관리 • 문화역사 자원 및 도시시설 관리	• 도시재생과 공유도시, 공동체 • 도시경관과 문화관광 도시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
경제진흥 정책	• 산업육성과 기업유치, 기업지원 •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전통시장	• 4차산업혁명 기반조성과 산업육성 •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창업지원 •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행정 지원 정책	•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부재 • 불필요한 일 버리기에 소극적	• 네트워크와 플랫폼 조직혁신 • 스마트 행정과 업무혁신, 빅데이터 • 분권과 자치 행정혁신

-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향하는 조직, 인사, 평가 혁신
  - 조직(부서)을 보다 유능하고 창의적이며 전문성이 높은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팀(계) 중심이 아니라 과 중심으로, 창의적 리더십, 팀플레이 중심의 학습과 교육 그리고 일하는 방법의 혁신, 내부업무의 연계성 등 조직(부서)운영 방법을 고안
  - 인사는 업무에 대한 개인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잦은 전보를 지양하는 혁신과 공정성을 위한 예측 가능한 평가 및 인사시스템 고안

표 IV-1-6
조직·인사·평가의 혁신 방법

구분	기존 방법	혁신 방법
학습과 교육	• 개인별 직무 및 혁신 교육	• 팀플레이 중심 교육과 학습
일하는 방식	• 팀(계)간 칸막이, 업무 단절 • 부서장과 담당자 중심 목표설정	• 업무의 개방, 소통, 공유, 협업 • 팀원이 함께 계획과 목표 설정
조직 리더십	• 수직적, 위계적 리더쉽과 소통 • 권위적 공간	• 수평적 소통과 개인의견 존중 • 자유롭과 창의적 공간
업무 구조조정	•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부재 • 불필요한 일 버리기에 소극적	• 자체평가를 통한 업무 리뉴얼 • 새로운 분야 업무 개발

  - 평가대상은 조직(부서), 정책, 공공기관, 근무평가로 분류하여 평가 대상에 대한 공정하고 간단명료하고 타당한 지표를 개발하고, 과정평가, 성과평가, 혁신평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시스템이 고안되어야 하는 동시에 평가전담 부서 확대
  - 과정평가는 추진과정에서 소통과 공유, 협치와 협력, 부서 및 기관간 협업 등을 지표화하고, 성과평가는 사회적 가치의 고려, 결과에 대한 효과와 타당성, 목표에 대한 실현 등을 지표화하며, 혁신평가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표 IV-1-7
예측가능한 평가 및 인사시스템 혁신

구분	기존 방법	혁신 방법
업무 전문성 제고	• 서열적 조직(부서) 위계 • 서열적 조직에 따른 잦은 전보	• 수평적 조직(부서간) 체계 • 잦은 전보 지양 및 적재적소 배치 • 개인 인사정보 및 데이터 구축 • 승진 TO의 부서간 균형 배분
투명, 공정한 인사	• 잦은 인사제도와 방침의 변경 • 지나친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 인사부서 중심의 근평	•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구축 • 연공서열과 능력 중심 트랙운영 • 발탁 승진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 근평에 대한 지표개발과 투명성

표 IV-1-8
평가방법의 변화

구분	기존 방법	혁신 방법
정책 평가	• 실질적 사전, 사후 평가부재	• 예산 규모에 따라 사전, 사후평가제 도입 • 불필요한 일과 정책 일몰제 시행
조직 평가	• BSC 평가제 한계 노출 • 평가지표의 과다와 주관적 지표화	• 업무의 과정, 성과, 혁신 평가지표화 • 부서별 자체 평가보고서 작성
공공기관 평가	• 평가지표의 획일화 및 통일화	•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화 • 과정, 성과, 혁신, 사회적 가치 구분
근무 평가	• 연공서열적 평가 보편화 • 평가지표의 신뢰성 약함	• 평가지표의 객관성과 신뢰성 강화 • 봉사활동, 현장활동 등 사회공헌 반영

- 협업과 협력으로 일하는 모듈형 업무시스템 구축
  - 지역문제는 복합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해법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협동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들이 대부분임
  - 현재의 행정조직은 분업적인 기능에 의해 구성되어 있고, 오랫동안 관행으로 칸막이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여러 부서나 기관들이 실질적 협동으로 일하는 협업과 협력이 매우 부족하고 익숙하지 않음
  - 부서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융·복합적 속성을 지닌 주요 과제는 관련 부서나 기관들로 협업팀을 구성하고 팀장의 총괄하에 업무추진계획 수립과 업무분담 그리고 분담별 예산편성 및 투자, 종합평가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단체장 직속 또는 기획조정실에 협업추진단을 두고 협업과제와 협업팀을 관리지원하고, 평가하며 인센티브를 부여
  - 협업은 기존에 운영했던 의견수렴 회의나 업무자료 공유의 수준을 넘어 관련 부서의 사업과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로서 모듈형식의 플랫폼적 네트워크 조직형태임

표 IV-1-9
협업 추진방법

구분	잘할 수 있는 방법
협업팀 구성	• 관련 사업과 업무가 있는 부서, 또는 기관, 단체로 구성 • 총괄팀장, 코디네이터, 간사 등을 팀 회의에서 총괄부서로 지정 • 협업팀 명칭과 운영방법도 협업팀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정함
신뢰 구축	• 성과에 대한 나눔과 공유 • 협엄팀 이름으로 보고 • 문서결재에 참여부서의 부서장 결재라인 포함, 문서표준화
회의 방식	•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공식, 비공식 토론식 회의 • 회의 의전, 자료 최소화. 전용회의 공간 확충

구분	잘할 수 있는 방법
추진계획 수립	• 팀 회의에서 부서별 사업과 예산 등을 공유하고 토론 • 참여부서와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모아 계획수립 • 각 부서별 역할 및 업무 부여
예산 편성 및 사업집행	• 분담 업무별 각 부서 예산편성 및 공조 • 협업팀 공유와 소통, 조정 회의를 통해 사업방식 진행 • 필요시 통합적으로 업무 시행
홍보 및 평가	• 부서별 홍보가 아닌 협업과제 통합홍보 또는 설명 • 통합자료 발간 • 세부사업별 및 협업과제 통합 평가 실시 • 우수 협업팀 인사고과 및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권위주의와 관행적 조직문화 혁신
  - 오랫동안 서열중심의 권위주의에 의해 조직문화가 경직되어 있고, 지시와 명령에만 익숙하여 자율적인 소통과 토론이 부재하며, 보다 좋은 아이디어 창출과 창의적 업무방식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
  - 실무담당자인 아래로부터 업무에 대한 고민과 문제, 해법과 효과가 있는 그대로 보고되고 소통되며 함께 해법을 찾는 자유로운 토론과 회의문화가 활성화될 제도적 시스템적 혁신 필요
  - 보고 중심의 업무문화에서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바꾸고, 불필요한 일과 업무를 수시 진단하여 버리거나 일몰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각 부서별 홍보, 회계, 정보 등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체계 혁신
  -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해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부서별 사전 예산심의제 도입과 국비사업의 내부 타당성과 심사제 도입, 사후평가자료에 기반한 예산편성 조정, 민간경상보조사업의 평가강화 등의 재정효율성 제고방안과 세부적인 예산지출내용까지 실시간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
  - 성별, 직급별 차별과 폭력이 없도록 직원 전용 고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모든 업무공간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창의적 공간으로 사무공간을 혁신

제2장

재정계획

제1절 재정 현황 분석
제2절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제3절 재정운용 기본방향
제4절 투자재원 조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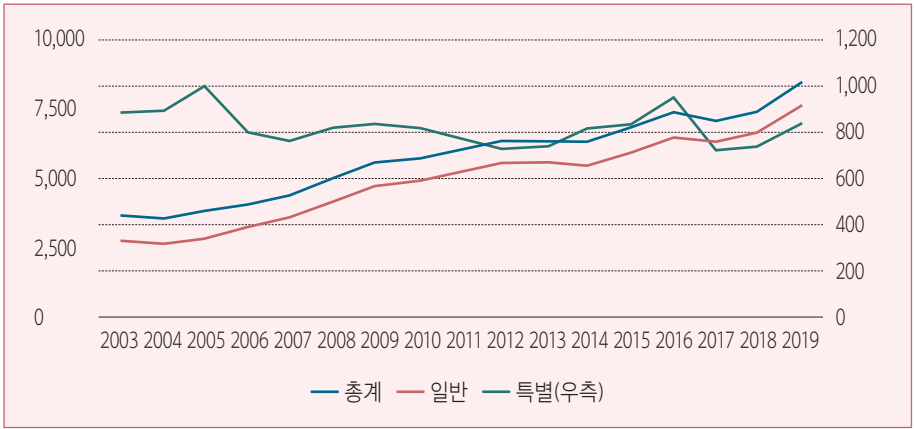
제1절

재정 현황 분석

1. 재정 규모

- 전라남도 본청의 총재정규모(예산현액)는 2010년 5조 3,392억원에서 2019년 8조 5,115억원으로 증가하여 이 기간 동안 연평균 5.3% 증가
- 일반회계는 같은 기간 동안 4.9조원에서 7.7조원으로 연평균 5.0% 증가, 특별회계는 8,190억원에서 8,460억원으로 연평균 0.4% 증가
- 전라남도 재정규모는 200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비 확보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재정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COVID-19 확산세가 진정된 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그림 Ⅳ-2-1
전라남도 본청 재정규모 추이
(단위 : 10억원)



자료 : 전라남도 기본통계(통계청)

표 Ⅳ-2-1
협업 추진방법
(단위 : 10억원, %)

구 분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10~'19	'15~'19
총 계	3,873	5,741	6,856	7,453	7,138	7,467	8,511	4.5	4.4
일반회계	2,869	4,922	6,020	6,493	6,408	6,726	7,666	5.0	5.0
특별회계	1,004	819	836	961	730	741	846	0.4	0.2

자료 : 전라남도 기본통계(통계청)

2. 세입 구조

- 전라남도 본청 세입 구조를 보면, 국고보조금 비중이 60% 안팎을 차지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까지 합할 경우, 의존재원 비중은 70% 안팎을 차지하므로, 국가의 이전재원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 국고보조금은 2010년 3조 390억원에서 2019년 4조 3,84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같은 기간 동안 8,137억원에서 1조 2,887억원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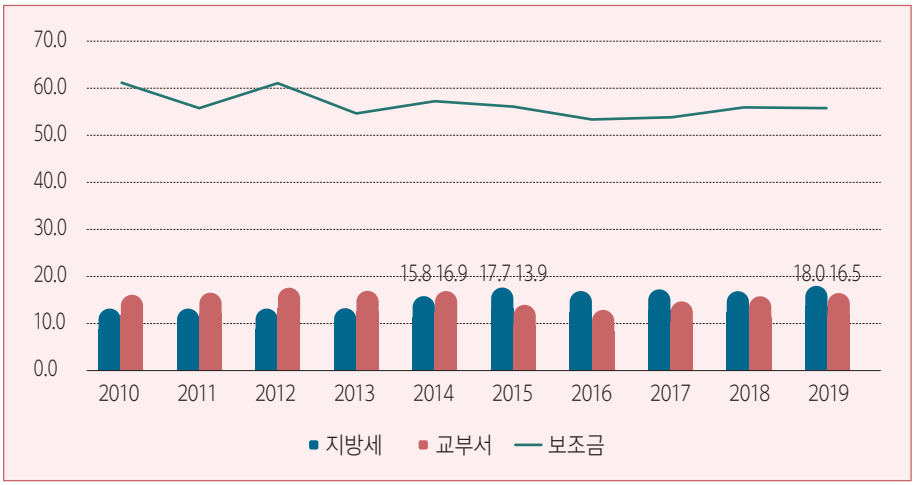
-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2015년부터 1조원대를 돌파하며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전라남도 본청 예산에서 2014년 이전까지는 지방교부세 비중이 지방세 수입 비중을 초과했으나, 2015년 이후 역전되어 2019년 기준 지방세 수입 비중은 16.2%, 지방교부세 비중은 15.1%를 보이고 있음
  -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전환으로 지방소비세 수입은 증가되나 국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의 증가율은 둔화되어 앞으로지방세 수입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수도권에 비해 세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지방세 수입 증가세보다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가 둔화세가 더 클 경우, 재정 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표 IV-2-2
전라남도 본청 세입 현황 (일반회계 결산 기준)

구분	세입 항목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세입 총계		4,996	5,945	6,594	6,501	6,842	7,818
	자체재원	소계	1,079	1,168	1,226	1,262	1,268	1,517
		지방세	654	1,052	1,112	1,128	1,165	1,405
		세외수입	425	116	114	134	103	112
	의존재원	소계	3,853	4,166	4,376	4,458	4,926	5,673
		지방교부세	814	829	853	957	1,092	1,289
		보조금	3,039	3,337	3,523	3,501	3,834	4,384
비중	자체재원	소계	21.6	19.6	18.6	19.4	18.5	19.4
		지방세	13.1	17.7	16.9	17.3	17.0	18.0
		세외수입	8.5	2.0	1.7	2.1	1.5	1.4
	의존재원	소계	77.1	70.1	66.4	68.6	72.0	72.6
		지방교부세	16.3	13.9	12.9	14.7	16.0	16.5
		보조금	60.8	56.1	53.4	53.9	56.0	56.1

자료 : 전라남도 기본통계(통계청)

그림 IV-2-2
전라남도 본청 세입 중 각 항목 비중 추이
(단위 : 세입 총계 대비 %)



자료 : 전라남도 기본통계(통계청)

3. 세출 구조

- 전라남도 본청 세출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29% 내외)이며, 그 다음이 농림해양수산(19% 내외), SOC 관련 지출(10%)이라고 할 수 있음
  - 사회복지는 2010년 1조원을 넘어선 이래 지속 증가해 2019년에는 두배가 넘는 2조 1,754억원을 기록함
  - 농림해양수산은 전통적으로 전라남도 본청 세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2010년에는 1조 1,136억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1조 3,825억원을 기록하며 큰 변동없이 1조원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음
  - SOC 관련 지출은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로서 두 지출 합계는 대략 7,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사회복지비가 세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증가율도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세출 총액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1.5%에서 2019년 29.4%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지속적인 인구고령화로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러한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인해 투자적 지출에 대한 재원 배분 여력이 떨어지고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있음
  - 정부가 세입 측면의 재정분권에 집중하고 있을 때, 세출 측면의 조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기초적인 복지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환원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관련 지출 중에서 크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전망됨
  - 지속적인 주민안전을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 소하천 정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서민생활안정 및 복지, 건강증진 분야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공질서, 안전, 보건 관련 지출의 국가 책임성과 지원필요성을 바탕으로 재원 확보 방안을 더욱더 마련해야 함

표 IV-2-3
전라남도 본청 세출 현황 (장관별 일반회계 결산 기준)
(단위 : 10억원, 세출 총계 대비 %)

구분	세출 항목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세출 총계	4,709	5,500	6,140	6,026	6,401	7,402
	일반공공행정	381	443	574	555	573	798
	공공질서 및 안전	227	236	310	378	435	534
	교육	-	196	207	237	244	230
	문화 및 관광	450	260	378	373	329	324
	환경보호	404	469	481	467	452	498
	사회복지	1,014	1,598	1,665	1,725	1,861	2,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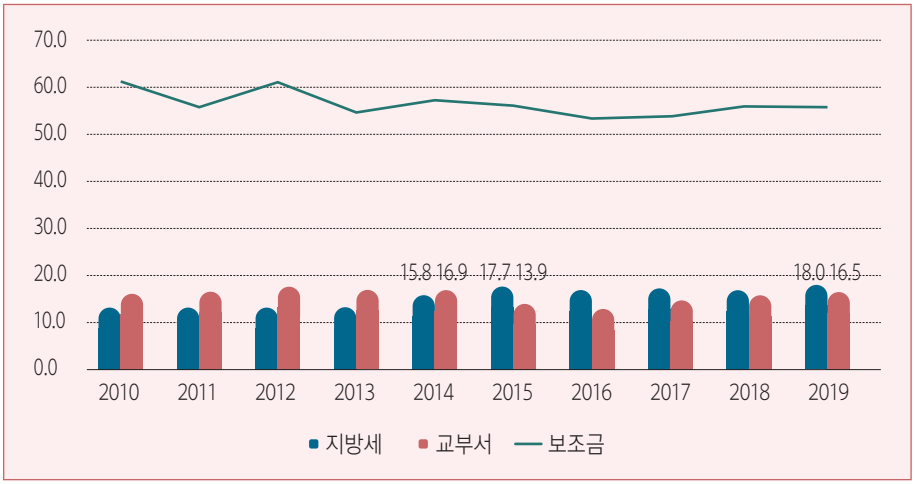
구분	세출 항목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보건	45	112	116	110	96	125
	농림해양수산	1,114	1,108	1,176	1,095	1,207	1,383
	산업, 중소기업	153	164	196	229	274	359
	수송 및 교통	385	296	327	313	302	379
	국토 및 지역개발	283	281	345	309	381	338
	과학기술	5	3	8	8	6	7
	예비비	-	-	-	-	-	-
	기타	249	335	356	226	241	251
비중	일반공공행정	8.1	8.0	9.4	9.2	9.0	10.8
	공공질서 및 안전	4.8	4.3	5.0	6.3	6.8	7.2
	교육	-	3.6	3.4	3.9	3.8	3.1
	문화 및 관광	9.6	4.7	6.2	6.2	5.1	4.4
	환경보호	8.6	8.5	7.8	7.8	7.1	6.7
	사회복지	21.5	29.0	27.1	28.6	29.1	29.4
	보건	1.0	2.0	1.9	1.8	1.5	1.7
	농림해양수산	23.6	20.1	19.2	18.2	18.9	18.7
	산업, 중소기업	3.2	3.0	3.2	3.8	4.3	4.9
	수송 및 교통	8.2	5.4	5.3	5.2	4.7	5.1
	국토 및 지역개발	6.0	5.1	5.6	5.1	6.0	4.6
	과학기술	0.1	0.0	0.1	0.1	0.1	0.1
	예비비	-	-	-	-	-	-
	기타	5.3	6.1	5.8	3.7	3.8	3.4

자료 : 전라남도 기본통계(통계청)

그림 Ⅳ-2-3

전라남도 본청 주요 세출 비중 추이

(단위 : 세출 총계 대비 %)



자료 : 전라남도 기본통계(통계청)

주 : 'SOC 관련'은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의 합계

제2절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1. 지방세 수입 비중 증가, 교부세 수입 비중 감소

- 참여정부 이후 추진해 온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결실로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2014년 준공되고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함
  - 이에 따라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의 위상이 역전되어, 지방세 수입 비중이 지방교부세 수입 비중을 초과함
- 그러나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이 주로 세입 측면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증가된 지방세의 배분은 수도권보다 낮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의 영향을 크게 받아 지방교부세 증가율은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즉, 지방세 수입 증가세보다 지방교부세 수입 감소 혹은 증가세 둔화가 더 크게 나타날 경우, 전라남도 본청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음
- 결국 향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교부세 수입 감소에 대한 보전과 균특사업의 지속 보전 등 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전라남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

2.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상승적 순환과정 촉진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은 해당 지역의 인구, 산업구조, 소득요인 등에 의해 결정되는바, 전라남도 재정의 취약성은 근본적으로 이들 요인에 근거하고 있음
  - 최근 전라남도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의 고령인구비율을 보이며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지역의 산업구조를 보더라도 농림수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 창출에 일정한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지역 내 세원 확보가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
- 다만 혁신도시 중심의 자산과세 수입 증가, 에너지밸리 구축을 포함한 새로운 산업군의 집중 육성 등으로 향후 지방세 수입의 증가 개연성은 있음
- 따라서 전라남도 경제사회의 구조가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사회 구조로 탈바꿈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지속되거나 강화된다면 재정적 취약성은 극복될 수 있음
  - 그러나 비수도권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고민없이 국가가 세입 위주의 재정분권 정책을 강행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처럼 균형발전정책이 후퇴하게 될 경우, 지역경제 성장 후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상승적 순환과정을 기대할 수 없게 됨
  - 결국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지역산업 육성을 포함한 자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해야 함

3. 사회복지지출 급증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협

- 전라남도지역에서는 호남선, 전라선 등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SOC 확충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SOC지출 감소와 지역 내 사회복지지출 급증이라는 이중고로 인해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사회복지비와 공공안전 및 보건 지출의 증가에 따라 재정 전반의 경직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자체재원의 급격한 확대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투입해야 할 투자적 지출 확보가 쉽지 않아 사회복지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의 급증은 전라남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임
- 사회복지 및 공공안전, 보건 지출의 국가 책임성을 부각시키고 100%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함
  - 예로 영유아 보육사업의 경우 성격은 저출산 대책마련을 위한 국가정책 사업이며 보편적 서비스 사업이 되었는데 재율부담은 사회안전망 개념의 분담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부담률 보다 지방비 부담률이 높을 상황임
  - 특히 COVID-19와 같은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이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건 관련 기반시설 및 인력 확충 등은 국가의 전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함
  - 또한 출산율 급감, 인구고령화 등 인구구조 측면의 위기는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추진 하에 지방비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함

제3절

재정운용 기본방향

1.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재원배분

-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투자 우선 순위를 설정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성장 촉진 및 주민복지 제고
-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국가, 전라남도, 시·군, 민간 등에 적절히 부담을 안배하는 전략 마련
- 전시성·일회성 행사나 소모성 지출 최소화

2. 계획적인 재정 운용 정착

-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고, 형식적이지 않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해 재정 성과 극대화
  -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성, 경제성, 재무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
  - 지방재정투자심사 방식을 내실 있게 개선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재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미래 예측이 쉽지 않고, 재정 운용 방식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 때문에 형식적으로 수립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
  - 실무부서, 예산부서, 기획조정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와 협력하여 중장기 재정운영 기조와 전략, 연차별 예산 수립 방향 제시

3.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 사업의 적절한 운용

- 지방세 및 국비 재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사업과 지방채를 활용할 사업에 대한 전략 마련
  - 원칙적으로 현 세대가 부담하고 현 세대가 수혜를 보는 대부분의 재정사업은 지방세 수입 등에 기초하여 추진
  - 미래세대가 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중장기 투자사업은 지방채 활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 지방채 활용에 대한 원칙과 상환계획 수립으로 지방채의 활용성 제고
  - 나치게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할 경우, 미래를 위한 투자사업 위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채의 활용도 전향적으로 고려

4. 성장과 복지를 적절히 안배하는 재정 운용 방향 설정

-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제조업 육성 정책, 사회기반시설 확충,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등 투자적 지출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예산 배분
- 고령인구 증가, 출산율 저하 등 지역사회의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원을 전제로 전향적 지원정책 추진

제4절

투자재원 조달계획

1. 세입 규모 전망

세입 전망 방법

- 각 세입 항목별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세를 바탕으로 향후 20년간의 세입을 전망함
  -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로 볼 때 지방세 수입은 8.9%, 세외수입 및 내부거래는 4.6%, 교부세는 5.2%, 보조금은 4.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지방세 수입이 연평균 8.9%로 증가할 경우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치가 도출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등은 세입 총계 연평균 증가율인 5.1%씩 증가한다고 가정함
  - 교부세와 보조금은 최근 10년 증가율을 적용함

세입 전망 결과

- 분석 결과 지방세 수입은 2040년에 약 4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입 총계는 약 20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세입 합계는 270조원으로 전망됨
  - 이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51조 9천억원, 세외수입 및 내부거래는 27조 3천억원으로 전망됨
  - 교부세 수입은 47조 6천억원, 보조금 수입은 143조 9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표 Ⅳ-2-4
전라남도 본청 세입 전망 (일반회계 기준)
(단위 : 10억원)

구 분	최근 10년 증가율	2025	2030	2035	2040	'21~'40
총계	5.1	10,225	12,796	16,022	20,070	270,696
지방세	8.9	1,894	2,429	3,115	3,994	51,872
세외수입 등	4.6	997	1,278	1,639	2,102	27,298
교부세	5.2	1,737	2,228	2,857	3,664	47,577
보조금	4.2	5,598	6,862	8,411	10,310	143,950

2. 투자 가용재원 전망

투자 가용재원 추정 방법

- 전라남도 본청의 일반회계 투자 가용재원을 추정함
  -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시계열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용이함
  - 반면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특정 목적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이며, 회계설치 수와 재원 규모가 유동적임

–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을 바탕으로 투자 가용재원을 추정함

- 투자 가용재원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에서 경상적 지출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추정
  – 세출 중에서 매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보건 등은 경상적 지출에 해당함
  – 따라서 세입 전망치에서 경상적 지출 합계를 뺀 금액을 투자 가용재원으로 추정함

투자 가용재원 추정 결과

- 경상적 지출 비중 도출
  – 전라남도 본청의 경상적 지출 비중은 2010년 35.4%였으나 2019년 49.1%로 급증함
  – 이들 지출은 추세로 볼 때 지속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라남도 본청 예산 운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경직성이 심화될 수밖에 없음
  – 만약 2019년 경상적 지출 비중을 투자 가용재원 도출에 적용하면, 향후 투자 가용재원 규모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전망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최근 10년간 경상적 지출 비중이 41.7%임을 감안하여 이 비율만큼의 경상적 지출을 세입 전망에서 차감하면 투자가용재원을 도출함

표 IV-2-5
전라남도 본청 경상적 지출 비중 추이(2010-2019)
(단위 : 세출 총계 대비 %)

구 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경상적 지출 계	35.4	43.4	43.4	45.9	46.3	49.1	41.7
일반공공행정	8.1	8.0	9.4	9.2	9.0	10.8	8.8
공공질서/안전	4.8	4.3	5.0	6.3	6.8	7.2	5.8
사회복지	21.5	29.0	27.1	28.6	29.1	29.4	25.5
보건	1.0	2.0	1.9	1.8	1.5	1.7	1.5

자료 : 전라남도 기본통계(통계청)

- 투자 가용재원 전망
  – 전라남도 본청 세입 전망치에서 경상적 지출 금액을 제외한 투자 가용재원은 2040년 약 11조 7천억원으로 전망됨
  – 계획 기간 전체적으로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약 158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표 IV-2-6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기간중 투자가용재원 전망(안)
(단위 : 10억원)

구 분	2025	2030	2035	2040	'21~'40
세입 전망 계(A)	10,225	12,796	16,022	20,070	270,696
경상적 지출(B)	4,243	5,310	6,649	8,329	112,339
투자가용 재원(A-B)	5,982	7,486	9,373	11,741	158,357

2021~2040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제 5 편
시군별 발전방향

제1장 광주근교권

제2장 동부권

제3장 서남권

제4장 중남부권

제1장

광주근교권

제1절 나주시

제2절 담양군

제3절 곡성군

제4절 화순군

제5절 함평군

제6절 영광군

제7절 장성군

제1절

나주시

1. 비전

-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호남의 중심 나주

2. 기본목표

- 미래를 대비하는 신산업 육성
- 전라도 천년 나주 역사문화관광 기반 구축
- 시민 모두가 편안한 행복도시 구현
- 원도시와 혁신도시의 조화로운 발전
- 농촌 활력 회복 및 소득 강화

3. 발전방향

미래를 대비하는 신산업 육성

- 빛가람 에너지밸리 구축을 통한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조성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관 기업, 연구소 동반 이전을 위한 기반구축
  -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빛가람 스마트시티 조성' 및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산업단지와 협력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 강소연구개발특구 중심의 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제정을 활용한 에너지밸리 국가 사업화 연계
  - 에너지밸리 및 기업유치 확대로 혁신 인재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자율주행차, VR, 헬스케어, 드론 등 미래성장 동력 발굴
-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2차 이전 적극 유치로 혁신도시 완성
  - 빛가람 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적극 유치로 지역균형발전 성장동력 확보 및 혁신도시 활성화
  - 혁신도시에 조성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관성이 높은 기관 유치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관기업, 연구소 동반 이전 추진

전라도 천년 나주 역사문화관광 기반 구축

- 2천년 시간여행이 가능한 역사·문화·관광도시 위상 정립
  - 나주 3대권(읍성권, 영산포권, 고분군권) 문화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수학여행, 문화유적 답사객 등 적극 유치
  - 영산강권 관광벨트 조성 및 나주의 대표 체류형 관광지 조성(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스토리)으로 오감만족 참여형 관광상품 개발
- 새로운 성장을 위한 영산강 유역 고대역사 재조명
  - 「역사문화권정비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마한역사문화 조사·연구 및 정비계획 수립, 문화재청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반영
  - 마한역사유적 발굴을 통한 고분중심의 마한사 규명의 한계 돌파
  - 나주 중심의 마한역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육성하여 지역정체성 회복

시민 모두가 편안한 행복도시 구현

- 나눔과 소통으로 밀착형 시민복지 구현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연계 강화 및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 저소득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활성화
  -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맞춤형 복지급여 적기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청소년 활동 육성 및 건전성장 지원
- 시민이 체감하는 배려하는 시민복지 실현
  -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경로당 및 마을회관 기능보강 및 환경정비
  - 장애인 연합회관 운영,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
  - 가족센터 건립(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원도시와 혁신도시의 조화로운 발전

-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도시기능 분담 및 차별화를 통한 상생발전 도모
  - 역사 자산과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창조를 통한 나주재생 추진
  - 혁신도시와 원도심 간 발생 가능한 갈등 해결 및 시민통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교육·문화·체육 등 균형배치 추진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원순환도시 모델을 육성하고 천년 역사 도시의 장점을 결합한 특화발전 추구
- 원도심 활성화 및 혁신도시-원도심 교류 추진
  - 원도심 전통한옥마을 조성
  - 광주 대도시로의 인규유출과 원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

– 혁신도시-원도심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추진

농촌 활력 회복 및 소득 강화

- 나주형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6차산업 활성화
  - 빛가람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로컬푸드 활성화 직매장 운영기관 협력체계 구축, 로컬푸드 출하농가 조직화 및 역량강화
  -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및 가공센터 생산품 안전성 검사 지원으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
  -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6차산업화와 연계한 가공품 브랜드화
  - 전문화된 소농·고령·영세농을 육성하여 생산, 가공, 유통 등 6차산업 발전 기여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상, 여성농업인 권익 신장, 청년 농업인 육성
- 식량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생명 융복합산업 육성
  -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
  -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
  - 지역특화 틈새 소득작목 육성 강화, 기후변화 대응 작물 보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도모
  - 농업 신기술 확대 보급 및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으로 생산비 절감
  - 나주배 경쟁력 제고, GMO 안전지대 구축

제2절

담양군

1. 비전

-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대숲맑은 생태정원도시 담양

2. 기본목표

- 아름다운 자연과 담양식 일자리 창출로 풍요로운 담양
- 문화와 품격이 묻어나는 여행자의 도시 담양
-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인문교육도시 담양

3. 발전방향

가사문화와 전통정원자원을 활용한 한국대표 「정원문화도시」 육성

- 누정, 별서정원의 명소화
  - 소쇄원, 명옥헌 등 가사문학의 산실인 전통 별서정원의 보전 및 활용, 누정·별서정원을 보전구역, 정비구역, 시설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경관 자원화
- 한국전통정원 중심지로서의 역사문화 자산 계승발전
  - 담양 가사문학면에서 봉산면으로 흐르는 증암천(창계천) 주변에는 독수정, 소쇄원, 식영정, 명옥헌, 송강정, 면안정, 남극루(이상 담양) 등과 환벽당, 취가정, 풍암정(이상 광주) 등이 군집하고 있어 이 지역의 경쟁력 강화
  - 남도,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정원문화도시로 보존하고 계승 발전
- 인문학과 생태정원도시를 담양의 지역이미지 브랜드로 육성
  - 정원산업 기반확충을 통한 정원박람회 개최로 동·서양 정원문화의 비교 및 교육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정원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
  - 전통정원 자원의 체계적인 연구 및 관리를 통해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의 발전방향 모색

친환경 농축산물 6차산업화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 담양군의 기후·토양·기술에 적합한 비교우위 품목 육성으로 부가가치 제고
  - 권역별 특성에 적합한 비교우위 특화농산물 육성

–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가격경쟁력 제고로 시장경쟁력 확보

- 친환경농업 육성
  – 유기농산물과 식품의 명품화 및 산업화,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소비자 신뢰확보로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 친환경 위생축산 및 악취저감 미생물제재 확대 보급을 통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강화
-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읍·면별 특화품목과 브랜드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산지유통조직 구축
  – 비대면 온라인 유통기반 강화를 위한 '담양몰' 구축 운영
-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및 귀농·귀촌 기반구축
  – 담양군 농업을 선도할 전문 경영인 및 농업경영체 구축
  – 귀향·귀촌에 대비하여 도시민 귀농·귀촌수요 확충기반 구축

문화에 기반한 창조적 도시재생과 보행자 중심의 시가지 조성

- 읍면 소재지 시가지 정비, 담양형 명품전원마을 조성
  – 담양읍, 창평면, 수북면, 대전면 등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명품시가지 가꾸기
  – 담양읍 문화재생 공간을 중심으로 보행자 전용의 보행공간 조성, 녹지 및 공원, 공용 주차장, 광장 등 확충으로 보행자 중심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특화
- 담양의 건축 및 역사문화 공간 자산화
  – 담양의 근대건축 가운데 보전 혹은 창조적 재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에 대한 조사 및 자료화, 이를 활용한 담양다움 강화 및 관광자원화
  – 건물이나 명소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고 건물이나 장소의 네이밍을 통해 장소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명품 관광도시 육성

- 전통시장, 음식문화 테마거리, 향토강소기업 육성
  – 담양읍, 창평면 등 전통시장의 문화·예술·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전환
  – 죽녹원 관광객의 담양읍 원도심 유도를 위한 음식문화 거리조성
  – 향토특산품가공업, 향토음식관련 산업육성 육성
-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 문화예술공간 확충, 테마마을 조성
  –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공급, 도·농교류 기회제공
  – 담빛 야외음악공원 조성을 통한 정원자원 확충과 음악회 개최기반 강화
  – 원도심 중심의 근대건축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테마의 골목길과 관광객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사람과 자연, 문화를 잇는 생태문화 테마길 명품화

- 자연과 전원, 생태적 경관이 살아 있는 자전거길, 보행길 확보
  - 영산강을 비롯한 관방천, 증암천 등 각종 하천의 수변길 명품화
  - 임도, 농로 등 자연성이 풍부한 자연탐방로의 명품화
  - 산림자원 접근성 강화를 위한 S자형 임도 조성 등 관광자원화
- 누정과 별서정원의 연계와 역사적 스토리를 활용한 정원 산책길 명품화
  - 소쇄원, 식영정, 명옥헌, 송강정, 면앙정 등을 연결하는 정원풍류길 재현
  - 수남학당, 담양향교, 수북학당, 남극루, 상월정 등의 체험학습길 복원
  - 담양의 오방길에 대한 스토리텔링 작업 강화를 통한 관광자원화
- 읍면시가지, 전통마을 골목길 등의 고향 향수길 명품화
  - 읍면 시가지의 맛집, 재래시장, 전통향토특산물 체험시설 등의 연결
  - 읍면 중심시가지의 보행자 전용 인도개설 활성화

제3절

곡성군

1. 비전

- 생태·교육 도시, 자연 속의 가족마을 곡성

2. 기본목표

- 사람과 미래를 잇는 즐거운 교육도시 육성
- 생활권별 특화전략사업 추진으로 지역 균형발전
- 청정농업, 산업자원 기반의 융복합화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
- 생태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거점 조성
-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네트워크 강화

3. 발전방향

자연,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확충

- 기차마을 콘텐츠 강화 및 브랜드 가치 향상
  - 기차마을 연계 체험프로그램 및 시설 확충, 야간관광상품 개발, 곡성읍 시가지의 문화지역 개발 등 기차마을 관광객의 지역 체류시간 증대 및 읍내 진입 유도
- 섬진강·보성강 수변자원 선형화로 체류형 관광기반 확충
  - 섬진강·보성강변 드라이브 코스 및 트레킹로드, 도깨비마을, 압록유원지, 곡성 섬진강천문대 등 생활권별 대표 관광자원간 연계 강화
-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치유 관광 네트워크 구축
  - 동악산, 곤방산 등 곡성군 내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치유의 숲 조성 및 산악 레포츠 체험마을 조성 등 연계시설·프로그램 개발
- 심청, 의병 등 설화와 역사자원을 활용한 교육·체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 곡성 심청의 배경이 된 관음사가 위치한 오산면 일원과 임란 의병전적지 등을 활용한 효(孝)·의(義)문화 계승·전파 및 교육프로그램 연계·강화
  - 도깨비 테마숲 조성

농산물의 융·복합화, 고부가가치화

- 농업 6차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및 소득 창출
  - 가공, 체험, 판매, 관광을 아우르는 융복합산업을 기반으로 농가 소득과 연계
  - 토란, 멜론 등 대표작목을 웰니스 관광, 테라피 체험, 디톡스 푸드 분야까지 확대한 디톡스테라피 융복합산업 구축
  - 1인 가구, 도시민을 위한 간편식 분야 가공산업 육성
- 곡성군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소득품목 개발 및 명품화
  - 토란, 멜론, 딸기, 체리 등 곡성군 우위 농산물 면적확대, 기반조성, 품질향상, 유통시설, 가공연계 프리미엄 브랜드화로 시장경쟁력 확보
  - 기후변화 대응 전략 품목 개발
- 미래 선도 농업 육성
  - 공공주도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 생물방제산업, 미생물산업, 곤충산업과 연계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확대
  - 경관농업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 드론을 활용한 농사 지원 및 단계적 확대

청년인구 유입 촉진,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산업육성기반 마련
  -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호남센터와 연계한 전기산업 특화단지 조성
  - 운곡 농공단지 활성화로 지역활성화 견인
  - 지역재생과 연계한 청년창업 공간 조성 및 청년창업기업 인큐베이팅
- 청년 유입 정주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인구구조 형성
  - 체류형 거점공간, 농촌유학 프로젝트 추진으로 학령인구, 청년인구 유입
  -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 추진을 통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

생활권별 전략적인 거점화 추진 및 정주환경 개선

- 권역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제 활력 증진 사업 추진
  - 곡성읍권, 옥과권, 석곡권 각 생활권별 특화산업 육성 및 경제·문화기반 강화
  - 권역별 도심기능 회복을 위한 특화된 도시재생 추진
- 읍면지역 중심지 거점 기능 강화
  - 읍·면별 중심기능 분석을 통해 중심성이 높은 읍면은 거점기능 중심으로, 중심성이 낮은 읍면은 기초인프라 투자 확대
-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생활개선을 위한 도로망 조기확충
  -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추진

지속 가능한 교육도시, 학습생태계 확산 구축

- 미래교육재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곡성형 교육 추진
  - 자연속 창의교육, 예술로 화합하는 인재양성, 자기주도 역량강화, 성장지원 플랫폼 운영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창의융합협 인재육성
  - 곡성꿈키움마루 운영, 창의융합 프로그램 운영
-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학습공동체 조성
  - 교육생태계 운영체계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지원협의회 운영
  - 꿈놀자학교, 꿈키움마루,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곡성형 교육도시 완성
- 마을공동체 회복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
  -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일자리창출)를 아우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으로 지역 활성화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민·관 협력네트워크 강화, 중간지원조직의 역량 제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 맞춤형 복지체계구축 강화

- 노인인구 비율증가에 따른 치매, 만성질환 치료시설 및 노인욕구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복지시스템 마련
  -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응급환자네트워크, 취약계층 건강 모니터링 사업 등 강화
- 지속적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청년인구 유입,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한 육아지원책 마련
  - 맞춤형 산후조리 지원, 임신출산시 대체 노동력 지원, 양육상담, 교육지원, 부모강좌, 지역주민의 육아지원, 난임부부 지원 등 종합 지원방안 모색
- 교육과 복지를 연계한 아동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확대, 마을교육 공동체 실현
  - 지역의 다양한 교육주체와 협력하여 마을학교의 교육환경개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 안심 맞춤 돌봄 통합 공공복지 네트워크 강화
  - 공공복지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 복지 사각지대(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 서비스 지원

제4절

화순군

1. 비전

- 바이오·생물의약을 선도하는 미래 명품도시 화순

2. 기본목표

- 바이오·백신·생물의약산업을 선도하는 신경제 1번지 구축
- 청년의 꿈과 희망이 살아나고 누구도 소외됨 없는 포용복지 사회 구현
- 살맛나는 부자농촌, 풍요로운 스마트농업 육성
- 풍부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특색있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
-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건설

3. 발전방향

바이오·의생명분야 선도 국가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 전남대 의과대학 이전, 의료특성화고교 설립, 의생명 연구기반 확충 등 의생명 교육·연구 거점 조성
-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 천연물 의약품원료 생산시설,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동물대체시험센터, 국가 백신 제품화 기술지원센터,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등
- 숲, 온천, 청정 농수산물을 활용한 치유와 장기체류형 의료관광 기반 확충
- 고령자·장애인용 헬스케어 용품산업 육성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 읍·면 소재지 도시재생으로 중심기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
  - 구도심 노후주거지 정비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 농산촌 정주여건 개선
  - 마을단위 주택, 공동작업장, 경로당, 주차장, 골목길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 폐광대체산업 활성화, 폐광지역 탄광촌 보전 및 주거환경 개선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주민 자립기반 및 역량강화

- 마을공동체 리더양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및 마을활동가 양성, 컨설팅, 마을계획수립 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전원·교육도시 조성

- 신규 공동주거단지 개발 및 공급
  - 노후 아파트 단지의 대체 수요 확보,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배후단지 등 조성
- 수요자 맞춤형 중·소규모 전원주거단지 조성
- 자연·경관자원 보전, 도시공원·도시숲·수변공원 등 신규 조성
  - 너릿재 여가녹지 조성 등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생활편익시설 확충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입으로 안심 공공환경 조성
- 기후변화, 감염병, 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 평생학습도시에 부합한 교육환경 조성
  - 명품화순교육 실현 5개년 계획 수립, 학교교육 여건 개선으로 인재양성 및 인구유출 억제
  - 명품 아카데미 등 지역주민 맞춤형 강좌 운영으로 평생학습 모범도시 육성

자연·문화자원을 연계한 휴양·관광명소 조성

- 문화·관광 명소의 발굴 및 브랜드화
  - 세계문화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의 글로벌 브랜드 활용
  - 돌(石) 관련 자연 및 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및 명소화
  - 중국,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명소 육성
- 음식·숙박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을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계 문화관광벨트 조성, 무등산 생태·문화관광 활성화 등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 확충

- 광주시, 혁신도시, 동부권, 서남권 등 성장거점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연계·협력을 통한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조기 확충 건의
- 단기 및 중장기 과제
  - 앵남-남평간 국가지원지방도 제55호선, 능주-남평간 지방도 822호선, 광주-화순전남대병원간 광역철도망, 광주 제3순환 고속도로 4·5구간, 화순-장흥간 지방도 818호선

    ※ 광주도시철도 연장 : 광주(소태역)~화순군~전대병원, 광주~순천간 경전선 연결사업, 12.4㎞, 6,320억원)

    ※ 제3순환고속도로 건설 : 담양 대덕~화순 백년~화순 도곡 연결 순환도로 건설(32㎞, 4,500억원)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자치분권 등 외부 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 기후변화, 감염병 확산 등에 대응해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인공지능 기반 4차 산업혁명 대응 스마트행정 구현, 자치분권시대 행정 및 사회혁신체계 구축

연계·협력을 통한 발전 잠재력 극대화

- 광주대도시권의 중심기능, 산업 및 R&D 기반, 발전전략 등과 연계
  - 광주 R&D 특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에너지밸리와 기타 주력 분야 등
- 광주·전남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발굴
  - 무등산국립공원 및 무등산세계지질공원 활용,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정비 등
- 화순, 나주, 장흥을 연결하는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의 중심기능 수행
- 주요 국가·도시간 자연·문화유산 교류 네트워크 구축
  - 거석문화 네트워크,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돌(石)문화도시 네트워크 등

제5절

함평군

1. 비전

- 자연과 사람이 머무는, 오감만족 함평

2. 기본목표

-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과 체험의 메카, 체류형 관광 허브 구축
- 함평읍권 공동화 및 쇠퇴화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심 활성화
- 농어촌 지속가능 발전 기반 강화
- 신 성장 동력 마련으로 지속성장 추구
- 군민 누구나 생활·복지 서비스를 누리는 스마트 압축 도시 조성
- 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역성장 거점 마련

3. 발전방향

⬡ 지속가능하고 차별화된 생태·관광 도시 육성

- 잠재적 자원의 개발과 기존자원의 연계를 통한 건강·문화관광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마한역사테마공원 조성
  - 특산물 쇼핑 및 건강 먹거리 거리 조성, 농촌 체험 교육공간 마련
  - 지속가능한 지역 어촌관광산업 육성, 지역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관광자원 개발
  - 해안도로 관광코스 개발과 수려한 경관을 이용한 관광 명품화, 산림레포츠 산업 육성
  - 함평엑스포공원, 자연생태공원, 휴양지 및 각종 관광지의 연계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 사계절·체류형 관광 클러스터 구축
  - 사계절 및 야간 관광 인프라를 구축, 체류형 관광 콘텐츠 생산, 사포관광지 개발 사업
  - 2025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추진 * 함평엑스포공원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추진

⬡ 지역주민상생 및 공유기반 구축

- 4차 산업혁명시대 지역 청년의 다양한 혁신 창작·창업 활동과 상호 교류·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 플랫폼 공간 구성
- 인근 시군에 비해 낙후 된 지역균형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주민역량 강화, 지역리더 육성을 고루 추진

- 빛그린국가산단 및 빛그린산단 내 주거시설, 월야·해보면 민간공동주택 등 배후단지 조성
- 빛그린국가산단 주변지역에 IT를 접목한 스마트 시티 조성
- 함평읍 중심지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함평읍 농협중앙회~국토정보공사간 도로 4차선 확장 등

●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 자연재난 위험과 복합재난 발생에 대비한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지하매설물 관리를 통해 기반시설 안전성 강화
- 개발지구 선정 시 재해 취약성 검토를 강화하고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예방적 조치 계획 수립

⬡ 농어촌 지속가능 발전 기반 강화

● 기존 농업인, 귀농인, 청년농 등의 역량강화로 ICT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을 확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온라인 시스템 확충 등을 통한 농촌 융·복합 산업 추진
- 축산업의 고부가가치 6차 산업의 육성, 대한민국 국향대전과 연계 국화 기능물질 연구 및 상품화 추진
- 곤충산업연구원 설립, 나비·곤충 브랜드 강화 및 새로운 농가 소득원 개발
-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및 농촌협약 추진, 농생명 치유·힐링 밸리 조성
- 농산물 “함평천지”, 축산물 “함평천지한우” 통합 브랜드 고도화 추진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연계한 축산창업교육기관 구축
- 낙지, 장어 등 유통·가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산물 대표 브랜드 선점, 비대면 통합브랜드 온라인 마케팅

● 주거환경정비 및 확충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
- 농어촌 지역 빈집 활용(정비)방안 마련 및 노후주택 정비
- 치유휴양마을, 치매안심마을 조성 등 특화마을 육성, 농어촌 스마트 빌리지 육성
- 주포항 등 주변지역을 연계 개발하여 해양관광 및 여가활동의 거점 공간 확보
- 함평읍 도시뉴딜 추진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지역 특색에 맞는 아름다운 경관 조성

● 풍수해 등 기후변화 영향에 대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유통·소비 기반 조성과 비대면 농산물 통합브랜드 온라인 마케팅 추진

⬡ 신 성장 동력 마련, 튼튼한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분양 완료 및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마련으로 튼튼한 지역순환경제 구축
- 자동차, 첨단부품소재, 디지털정보가전, 광산업, 연구개발 등 업종 유치
- 청정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 산업단지를 통해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연구개발, 산업, 공원녹지, 주거, 공공지원 등이 결합된 첨단단지 조성
  - 해보농공단지 확장,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 및 노후농공단지 현대화 추진

선진 복지를 통한 군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

- 농어촌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 노인 의료 타운 조성, 참여형 노인돌봄체계 구축
  - 의료수준 개선과 원격 의료시설 조성
  - 맞춤형 산후조리 지원, 임신·출산 시 대체 노동력 지원, 양육 상담 등 출산친화 도시 조성
- 청년을 위한 지역 환경 조성으로 고용 안전망 강화
  - 청년 창업 기반을 구축하고 역량강화를 통한 고급 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로 고용 안정화 도모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포용 기반 강화
  -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센터,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적 복지전달체계 마련
  - 대도시권 대형의료기관 이동 및 방문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교육·문화·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 문화·공연·체육 기반 시설 확충
  - 인프라 확충, 문화·예술지원 확대, 특색 있는 지역문화 육성, 문화자원을 향유 거점 공간 육성
  - 체육시설 확충, 전국·도단위 스포츠대회 유치
- 선진형·맞춤형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풀뿌리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공교육 및 평생교육 등 교육이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AI,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학습 추진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 인근 시군간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체계의 연계성 제고
  - 광주·장성·무안 등 대중교통의 환승체계 구축, 광주시내버스를 해보권역(해보농공단지) 연장 운행
- 농촌형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운영 체계 구축
  - 대중교통 노선 확대, 대중교통, 희망택시 차량 친환경차 전환, 도보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 단절된 교통망 보완 및 도로시설 개량

– 주요 거점 간 교통망 확충, 광역교통망 보완을 위한 간선도로 정비

- 동강면~학교면(국도23호선), 함평읍~해보면(국도24호선) 도로 시설 개량
- 빛그린국가산단 주 진입로에서 함평 월야면 소재지 방면의 진입 도로 확장·개량
- 나산면 나산 삼거리~광주 광산구 삼도동 구역 간 광역도로 확충
- 광주광역시 북송정역~빛그린국가산단~해보면까지 광주지하철 노선 연장

제6절

영광군

1. 비전

- 자연·문화·기술이 함께하는 행복 영광

2. 기본목표

-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 지역성장을 이끌 신산업 육성
- 자연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웰니스산업 육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친환경 생명산업 육성
- 상생하는 균형적 지역발전

3. 발전방향

성장주도 신재생에너지 생산 산업구조 구축 및 원전 기반 산업 고도화

-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중심 e-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 정부의 미래자동차산업 정책과 연계하여 중소·중견기업이 공동활용 가능한 원스톱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e-모빌리티산업을 영광의 미래 신정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
  - 국내 e-모비리티 산업을 태동기로 배터리, 인버터, 충전기 등 핵심부품 국산화를 지원해 선도적 전·후방산업 생태계 구축
  -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시형(신도심,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농촌형(대중교통 취약지), 대중교통 연계, 관광지, 섬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이동서비스 개발 및 시장수요 창출
  - (산업인프라) 실외테스트베드, 충돌시험장 등 e-모빌리티 개발·평가·인증·실증 기반 구축, 전국 최초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 (관련기관 집적화) e-모빌리티 연구센터 및 관련 기업 유치
-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고도화 기반 구축
  - SS생산과 연구 및 실증단지, 수리, 체험 교육, 홍보 등을 위한 기반구축
  - 에너지(원자력, 태양광, ESS 등)의 발전, 송배선과 관련된 과학, 공학, 물리학 등의 실험과 실증 가능한 테마파크 조성
  - 에너지 관련 과학교실 운영, 에너지 절약 및 안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 원자력과 방사선 산업의 고도화 기반구축
  - 2025년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원자력발전소 해체 및 관련인력양성과 산업육성
  - 의료, 산업체, 연구, 교육기관 등에서 활용되는 방사선 산업 육성

여가·레저 수요에 대응하는 인프라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 내륙~해안~섬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 해안으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SOC 확충
  - 편리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 및 연계교통 시스템 구축
  - 소규모 항·포구의 기항지 노후인프라 확충 및 안전성 확보
- 서해안고속철도 체계 완성
  - 인적·물적 교류 촉진 및 동반 성장기반 마련으로 상호 지역경제 활성화
-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연장 검토
- 내륙, 해안, 바다, 갯벌, 섬 등의 지역특화 관광자원개발
  -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
  -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해안절경, 해빈(해수욕장과 송림 등), 갯벌 등 특화
  - 송이도 자갈해빈과 칠산도 천연기념물 등 환경·생태·지질자원 특화
  -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 특화
-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관광루트 프로그램 개발
  - 4대 종교성지 체험프로그램
  - 서부해안 노을테마체험프로그램
- 문화유산과 연계한 축제·체험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스마트 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 농어업 실현

- 미래특화 고부가가치의 농업소득 기반 구축
  - 권역별 특화 소득작목 고부가가치화
  - ICT·BT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 및 거점단지 육성
- 4차산업혁명과 융복화를 통한 차별적·미래지향적 농업구조 전환
  - 농업과 IOT, AI, Big Data, Robot 등 4차산업혁명 요소기술들을 활용한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발전기반 조성
  - 정보통신·바이오·에너지 분야 기술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농업의 신성장산업화 전략 마련
- 농·어촌의 융복합화를 통한 6차산업화 대표 브랜드 발굴·육성
  - 농수산물(식품)의 생산과 가공·유통을 관광·레저와 연계한 6차산업화

- 지속가능한 양질의 수산물 생산
  - 조기, 뱀장어 등 스마트 양식으로 어획량 감소 극복 및 안정적 원료 공급 추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특화된 기능중심의 지역발전 전략 추진

- 중심도시권(영광읍) : 영광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정주여건 개선 테마마을 조성
- 북부해안권(홍농읍, 법성면, 낙월면) : 친환경에너지 및 미래에너지 기술 고도화
- 서부해안권(백수읍, 염산면) : 웰니스 해양리조트 조성을 위한 명품해안 정비, 광역 교통 결절중심지 구축
- 남동내륙권(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남면) : 친환경 6차농업 전진기지 구축, 산림자원 활용형 치유벨트 조성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생활권 구현
  -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한 소규모 생활권 단위 주거지, 상업지 재생
  - 스마트 기반 농어촌 마을 조성
  - 영광군 고품질 환경 서비스 제공

제7절

장성군

1. 비전

- 아름답고 살기 좋은 미래형 전원도시 장성

2. 기본목표

- 전원형 주거환경과 전국적인 휴양문화관광 조성
- 청년층과 중장년층 대상 취농·거촌 활성화로 농촌마을에 새로운 활력 제공
-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기업하기 좋은 첨단산업 유치
- 대표 이미지인 '건강'과 '친환경'을 기반으로 장성군이 지향하는 미래 도시상 반영

3. 발전방향

첨단의료와 건강식품 기반 치유산업 도시

- 광주연구개발특구 내(진원면, 남면일원) 국립심뇌혈관센터 유치
- 첨단3지구 나노·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 에너지자립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 등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구축
- 푸드플랜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과 농가 조직화를 통한 안전먹거리 생산
- 고령친화도시로서 고령친화산업 육성
- 치유목적 체류형 6차산업 육성
- 주민 품으로 돌아온 전통시장 조성
- 복합화물터미널 자동차산업단지 조성
- 수소시대 대비 기업유치·지원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젊은 농업인이 찾아오는 생명농업 도시

- 아열대 컬러푸드 작물 재배단지 조성 등 컬러테라피 접목한 컬러푸드 활성화
- 청년창업 연계 장성형 창업허브마을
-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과 활용 산업지원

- 나무와 휴식이 있는 장성형 산림관리
- 농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영농지원
- 돌아오는 장성을 위한 연어프로젝트 추진
- 농촌 유휴공간 체류형 주말농장 분양

역사문화 기반 체류형 휴양관광도시

- 황룡강 르네상스 색채치유 관광자원화
-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 활용 선비문화 보급
- 축령산 휴양타운 인프라 개발 및 편백숲 목재타워 건립
- 홍길동테마파크 역사관광콘텐츠 확충
- 글로벌 감염병 시대 장성호수변100리길 개선
- 친수공간 기반 수상 레저관광 육성
- 지속가능한 평림댐 장미공원 운영
- 상무평화공원 개발 및 이용 활성화
- 생활SOC 군민 예체능 인프라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미래도시

- 에너지제로 테마 환경친화적 명품 전원주택단지 덕성행복마을 조성
- 문화·교육 기반의 고려시멘트 부지 친환경주택단지 조성
- 공공건축물 에너지 고효율화 추진
- 플로깅으로 가꾸는 쓰레기 없는 장성, 이웃 간 정을 나누는 친환경 녹색공원
- 빈집활용 주민공간·청년창업허브 확대
- 컬러태양전지 활용 도시경관 구축
-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 장성대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 장성군 자원순환체계 개선
- 교통인프라 개선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한발 먼저 이웃이 돌보는 건강행복도시

- 고령사회 대비 보건시설 확충

- 치매어르신 통합복지용구 개발 및 보급
- 마을에서 돌보는 어르신 안심돌봄 사업
- 독거노인 개인맞춤형 통합식단관리
- 고령자 대상 데이터 활용 인프라 지원
- 장성사랑상품권 다목적통합카드 발급
-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인구증가 대응 위한 창의교육 도시

- 어린이집 교육환경 및 프로그램 혁신
- 삼계고등학교 마이스터고 특성화
- 감염병 확산시대의 장성아카데미 대응방안
- 디지털 원격의료 시대 대비 생존디지털교육
- 공립종합학교 활용 통합적 전문교육
- 취업연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 공설운동장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 강화
- 홍길동체육관 종합스포츠단지화

민관협치 행정혁신 기반 스마트 협치도시

- 장성형 주민자치회 사업 확대
- 민관협치·공동체 강화 주민정책동아리 육성
- 주민참여연구단 및 공공디자인단 운영
- 부서간 칸막이 해소 융합행정 활성화
- 주민참여 지속가능발전 평가
- 1인미디어 활용한 소통 환경 개선

제2장

동부권

제1절 여수시
제2절 순천시
제3절 광양시
제4절 구례군
제5절 고흥군

제1절

여수시

1. 비전

-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2. 기본목표

- 지역경제의 생동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산업육성정책 추진
-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천만 관광도시 위상 지속 확보
-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기반 확보 및 국제행사 유치와 성공적 개최
- 미래 농수산 기술 도입으로 지역 농수산업의 활력 강화
- 시민이 모두 행복한 복지 선도도시 조성

3. 발전방향

기반산업과 미래산업의 조화로운 경제생태계 조성

- 석유화학산업 중심지로서 위상을 유지하면서 미래산업 육성 병행
  -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활용한 주력산업의 지속적 성장 도모
  - R&D 기반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 및 수소특화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 기존 산단 에너지 공급을 담당했던 호남화력발전소 퇴역 후 LNG복합 및 연료전지발전소 전환과 발맞춘 에너지공급시스템 혁신
-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등 기존 산업기반의 디지털화에 대응한 도시 전체의 디지털화 추진 및 관련 산업 육성
  - 산업단지, 도시행정, 문화관광 부문의 디지털 트윈 도입으로 미래도시 여수 조성

해양레저 거점 도시 조성 및 국제행사 유치

- 코로나19 확산 이전 이미 천만 관광객 시대 이후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명품 해양레저산업 거점 조성 준비
  - 가막만,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지역 명품해양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해양레저산업 육성

– 해양관광 거점 간 연계성 강화 및 융복합형 관광산업 활성화

- COP33 유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연계한 국제적 마이스산업 거점으로 위상 강화
  – 남해안남중권 공동으로 COP33을 유치하고 이와 연계한 마이스산업 기반 확충
  –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2028년 COP33 개최 등 연차별 국제행사 개최 기본계획 수립

생산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스마트 농수산업 육성

- 농업인력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팜 도입
  – 인공지능기술, 로봇기술이 접목된 농업로봇(Agrobot) 도입 실증사업 추진
  – 해양 및 섬 지역 기후여건을 고려한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
-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스마트양식 도입 확대 및 아쿠아팜 클러스터 조성
  – 거문도, 금오도 등 외해 지역에 고급 어종 중심 스마트 외해양식산업 육성

여수·순천 1019사건 지원 특별법 제정에 부응한 사업 추진

- 특별법 관련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 강화
  – 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여수시 차원의 대응 체제 확립
- 여순사건 추모공간 및 추모 박물관 건립 추진
  – 여수·순천은 물론 해당 사건 관련 지역들의 광역적 협력을 통해 추모공간 조성 및 시너지효과 창출

육·해·공 기반 확충으로 트라이포트(Tri-port) 구현

- 전라선 철도 기점, 항만과 공항 등 기반시설의 양적·질적 확충으로 3차원 접근성 제고
  – 여수공항 국제화를 위한 활주로 확장 및 기반시설 간 연계망 확충
  – 전라선 고속철도 개량 및 순천완주고속도로 여수 연장 등 광역도로망 확충
- 섬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와 함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상교통인프라 구축
  – 여수신항, 거문도항 등 중소규모 항구 정비
  – 섬 주민 및 섬 관광객 교통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상교통체계 개선

도시재생과 연계한 복지 서비스 강화

- 지속적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스마트 압축도시 구현
  - 농어촌 및 섬 지역과 원도심 지역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미니 압축 도시 조성
- 노인,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친화형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감안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돌봄서비스의 양적·질적 제고
  - 사회적 약자 돌봄 체계의 통합화 및 스마트화를 통한 취약계층 삶의 질 제고

권역 간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효율성 증대

- 1998년 삼려 통합 이후, 하나의 여수로서 정체성 확립 중
- 그럼에도 아직 남아있는 소지역감정과 함께, 행정서비스가 시 전체로 파급되기 어려운 공간적 구조로 인해 비효율성 지속
- 통합 여수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행정서비스 공급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 행정체계 도입 필요

제2절

순천시

1. 비전

-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2. 기본목표

- 정원을 품은 지속가능한 정주도시
  - 물과 숲이 어우러진 정원 특화
  - 언제, 어디를 거닐어도 새롭게 만나는 힐링
  -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선순환 재생
- 미래산업으로 풍요로운 경제도시
  - 대한민국 정원 문화를 이끄는 정원산업 확대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춤형 디지털 산업 육성
  - 골목경제와 미래산업을 견인하는 창의 인재육성
- 전통과 미래가 조화로운 문화도시
  - 걸어서 5분 이내에 만나는 생활문화 공간 확대
  - 지역 문화 정체성 확보 및 품격 제고
  -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문화·관광 브랜드화
- 모두의 일상이 행복한 복지도시
  - 서로를 지켜주는 행복한 돌봄
  - 누구나 보장받는 복지 서비스 제공
  - 질병과 위기에 강한 안전 인프라 구축
- 직접민주주의로 성장하는 자치도시
  -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공동체 형성
  - 공유와 공정의 민주주의 시정 확산
  - 참여와 혁신의 스마트시티 실현

3. 발전방향

⬡ 정원을 품은 지속가능한 정주도시

- (그린 스마트) 언제, 어디를 거닐어도 새롭게 만나는 힐링

- 2023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7개 분야 98개 사업)
- 은퇴자를 위한 차별화된 고품격 새꿈도시(실버타운)건설 - 안풍동 등
- 도심 물순환 시스템 구축(해룡천, 동천 등 지하댐 건설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
- 경전선 전철화 사업 도심구간 지중화, 클린업환경센터 건립
-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경전선 폐철도 등 3개소, 7ha), 신청사 착공
-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 장천동 청수원(淸水園)빗물정원 조성 등

● (순천형 뉴딜) 3E+한국판 뉴딜2.0융합 지역균형 뉴딜 추진
- 수도권 공공기관 순천 유치(6개 후보기관) 총력
- 범시민 온누리 와이파이(Wi-Fi)단계별 구축(2022년/신규설치 200개소)
- 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치유의 숲, 제2의 자연휴양림 조성)
- 그린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공간 조성

미래산업으로 풍요로운 경제도시

● (정원산업) 전 도심 정원화, 시민참여, 기후변화 대응 및 경제 활성화
- 2023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및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사후활용 계획수립
- 분야별 수익사업(입장권, 시설임대) 발굴, 가든마켓, 정원 커넥팅 추진 등

● (신성장동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 NHN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전남 디지털 애니메이션센터 유치
- 순천형 창업특구 조성 - 창업보육센터, 역세권 재생, 브루웍스 등 인근 자원 연계
- 전남 VR·AR 제작거점센터 운영, 순천만잡월드 개관, 목재문화체험장 건립

● (미래농업)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선순환 재생
- 농촌협약(농촌공간 및 생활권 전략계획 수립 및 정주여건 개선) 추진
-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착공 및 운영 체계 확립
- 순천매실 농촌융·복합산업 인프라 조성(매실가공 및 저온저장시설 건축)
-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조성, 어촌뉴딜300(화포·와온·용두항) 사업 추진

전통과 미래가 조화로운 문화도시

● (문화·교육) 지역 문화 정체성 확보 및 품격 제고
-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총력, 2022세계유산 축전 유치(선암사, 순천만)
-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브랜드 구축 → 낙안읍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
- 봉화산·여순 등 마을교육 과정 발굴,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
- 도서관 4.0시대 선도 → 지역자료 아카이브, 순천형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양성

● (관광·체육)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관광 브랜드화 및 스포츠 복지
- 관광인프라 조성(유네스코 순천만갯벌 힐링 치유센터, 거차뻘배체험장 오토캠핑장)
- K-푸드축제 개최(K-FOOD 페스티벌, 제6회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미식투어)

– 제61회 전남체전 성공 개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어울림체육센터, 순천 파크골프장, 순천형 종합 스포츠파크), 읍면동 스포츠 리그전 등 생활체육 활성화

모두의 일상이 행복한 복지도시

- (의료인프라) 질병과 위기에 강한 안전 인프라 구축
  –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성가롤로병원)지정 추진,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현대여성아동병원)개원, 3T(검사·추적·치료)감염병 관리,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 난임부부·치매 치료비 지원 확대, 거동불편자 및 의료취약지역 건강주치의 확대
- (포용복지) 누구나 보장받는 복지서비스, 행복한 돌봄
  – AI활용 노인돌봄시스템 구축(루미뚱이 로봇), 공립 노인쉼터(치매 예방 공간)조성
  – 동고동락 통합돌봄 인프라 확대, 노인일자리 확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 초등돌봄 및 아동돌봄 시설 확대 → 다함께돌봄센터(2), 보육스테이션(3)
  –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행복주택 공급(140세대), 민원콜센터 운영

직접민주주의로 성장하는 자치도시

- (참여와 혁신) 나눔과 배려의 주민자치
  – 직접민주주의 디지털 플랫폼 및 광장민주주의 활성화, 생태수도 기본조례 실행
  – 시민주도 정책박람회 개최, 시민참여 공론 의무제 도입(시 정책)
- (공정과 공유) 공유와 공정의 공동체 확산
  – 공동체 문화 확산,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중장기 마을계획 수립 등

제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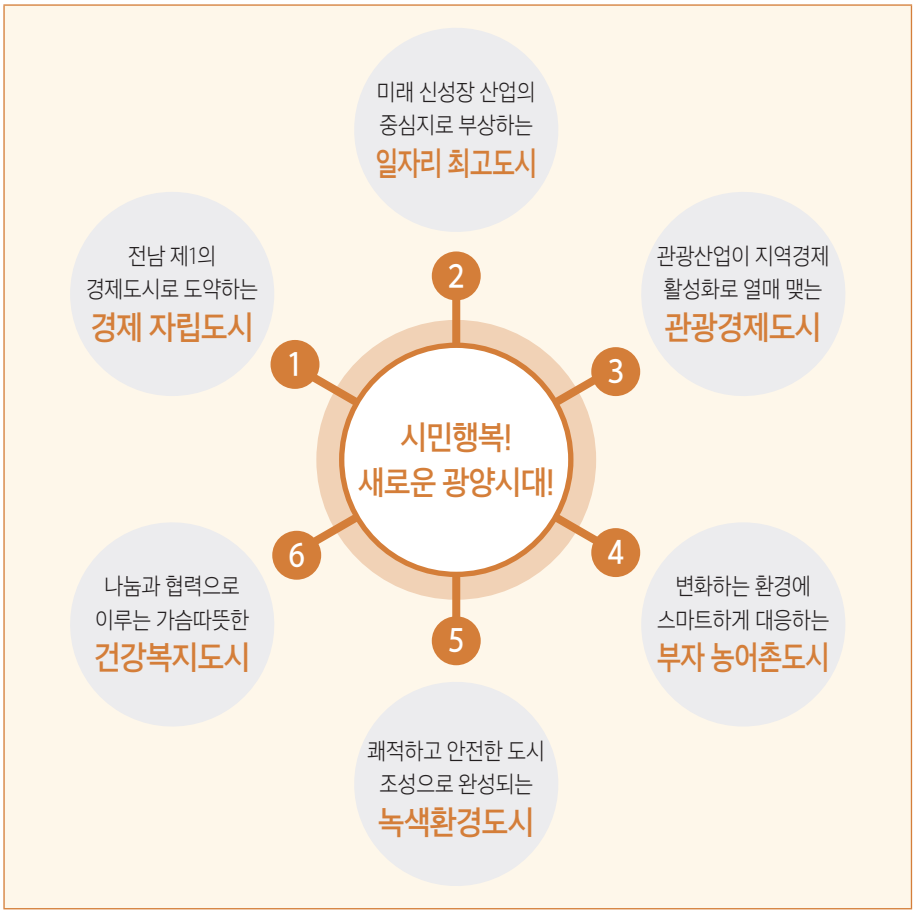
광양시

1. 비전

- 세계로 도약하는, 스마트그린 경제도시 광양

2. 기본목표

- 전라남도 제1의 경제도시로 도약
-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산업 육성
-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복지도시 실현
- 매력 있는 문화예술·관광도시 조성
- 누구나 살고 싶은 부자 농어촌 건설
-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환경도시 구축
-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



3. 발전방향

컨테이너 터미널 완전자동화 기술 도입 및 운영,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수소 항만 조성을 통한 광양항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광양항 3-2단계 완전자동화 기술 도입과 관련 시설·장비의 R&D 확대, 운영시스템 개발을 통한 스마트 항만 기술 선도
- 수소추진선박, 수소화물차 등 수소를 활용한 운송수단 확대에 대응한 수소항만 조성을 통한 수소 경제 선도

미래 신산업 육성,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기존의 철강산업에 첨단부품·신소재·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을 부가하여 산업 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
- 친환경 항만·산업단지 전환, 택지개발과 SOC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스마트·수소 경제 환경 조성
-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지원

변화하는 관광 수요 대응, 개별적·고품격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로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구현

- 지역 역사·문화 기반의 콘텐츠 개발과 백운산·섬진강 등의 자연자원을 연계하는 역사문화관광 권역으로의 발전 모색
- 도심 및 주변지에 분산되어 있는 역사성·장소성을 지닌 유·무형문화자원을 관광 마케팅에 활용, 누구나 찾고 싶은 매력있는 도시로의 발전
- 지역 간 경계로 단절되어 연계 협력의 시너지효과가 미미했던 섬진강유역에 친수공간 개발을 통한 광역연계 생태문화 거점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재생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 구현

-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주거기능 및 지역중심 상업기능 강화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한 시민 편의 맞춤형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
- 기후변화 대응 강화에 따른 산업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경관 플랫폼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도심 녹지 조성
- 녹색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개선, 체감 만족도 향상

일자리 창출 및 생활·문화환경 개선 등 청년 맞춤형 복지 추진

- 미래 신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창업 육성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 청년인구의 외부유출 방지
- 청년 주거·복지 문제 해결, 청년문화 활력공동체 조성 등 지역 청년들의 여가·문화·생활기반 구축

미래인재 육성 및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지원체계 구축
  – 전 연령대별 맞춤형 디지털·그린 교육으로 미래형 인재 육성
- AI를 접목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 광양창의융합교육체험센터 활성화, 유비쿼터스 교육환경 조성
- 지역 고등교육기관 유치 및 활성화 추진
  – 포항공대 광양캠퍼스 유치 추진, 보건대학교 정상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ICT 융복합 농업 육성

- 백운산권(고로쇠), 섬진강권(매실) 향토자원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한고부가가치 농촌융복합(6차)산업화 추진
- 자동·원격제어시스템, 농업용 웨어러블 로봇 등 ICT 융복합형 스마트팜생산단지 조성을 통해 노동력 절감 및 농업생산성 증진 유도

체감형 생활복지 확대 및 수요맞춤형 정주환경 조성

- 생애주기별 토탈돌봄케어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체감형 생활복지 확대 및 사람 중심의 더불어 행복공동체 조성
- 누구나 살고 싶고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안전·안락한 수요맞춤형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인구소멸위기에 대응

제4절

구례군

1. 비전

- 자연을 품은 도시, 함께하는 미래도시 구례

2. 기본목표

- 지역산업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마련
- 힐링 치유의 관광생태도시 구현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고부가가치 농림산업 육성
- 자연과 어우러지는 정주여건 조성
- 군민이 행복한 생활서비스 제공

3. 발전방향

회복탄력성이 높은 도시 구례

- 구례형 선순환 경제(내발적+외생적=Hybrid) 구축
- 정명 126년의 “구례” 지속을 위한 인구 회복
- 정주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례형 회복도시 조성
- 구례군 동-서를 관류하는 섬진강과 험준한 산세의 지리산을 주민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닌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의 기반으로 활용
  - 드론을 활용한 지리산(산불, 조난 등), 섬진강(홍수 등) 재난재해의 적극적 사전 예방 체계 구축
  - 섬진강 생태계 복원, 저류지 위험관리 등을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 스마트 기술 기반의 양정지구 재건 촉구
-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자원 활용의 균형을 통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 재구성
  - 구례읍 권역의 도심 재정비 및 특화 거리 조성을 통한 새로운 구례로의 재도약
  - 지역맞춤형, 생활밀착형 사회기반 시설 공급을 통한 지역사회 거주 만족도 제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풍요로운 문화관광도시 구례

-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 백두대간 제일의 명품관광도시 조성
- 신성장 미래 전략적 스포츠산업 육성
- 섬진강, 지리산을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섬진강 수변, 지리산 국립공원 등 자연자원의 훼손 최소화 및 생태적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방향 추구
  - 섬진강, 지리산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하는 거버넌스 활동 강화
- 전통성과 산업성의 융·복합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
  - 천년의 역사를 가진 지리산 남악제의 전통 보존·계승
  - 동편제의 본고장이라는 명성에 걸 맞은 전통소리자원의 진흥과 국악인재 육성으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확대
  - 여자씨름의 발상지로서의 가치 제고 및 여자씨름의 진흥 기반 조성
- 지역내 경관자원, 치유숲, 커뮤니티형 건강치유센터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치유·힐링의 웰니스 관광 고도화
  - 지역자원과 연계한 지역 특화산업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구례자연드림 3단지 유치·조성

스마트한 생활환경도시 구례

-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 발전기반 구축
- 깨끗한 물 지속 공급을 위한 자연친화형 물순환체계 구축
- 동서통합지대 조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발전 및 연계·협력의 중심지 역할 강화를 위한 단절 구간 및 인접지역과의 연결 확대
  - 동서간 인적·물적 교류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초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반달곰·수달·사람 모두가 살기 좋은 녹색안전도시 구례

- 선도적 자연환경 보전관리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실현
- 재난·재해 및 범죄피해 걱정없는 통합 안전망 구축

선순환형 농업도시 구례

- 전통적 방식의 농축산업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농축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농축산업의 미래적 가치 실현과 지역 고유성 계승

– 전통방식의 농축산업의 한계 극복을 위한 첨단 기술 접목 및 도입 확대

– 구례군 전략작목 고부가가치화 추진

희망을 키우는 미래형 복지도시 구례

- 보건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 구축
- 민관이 함께 만드는 다양하고 안전한 복지환경 조성

배움과 소통으로 미래를 여는 교육행정도시 구례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구례교육 혁신
- 평생교육을 통해 품격 있는 교육도시 조성
- 군민과 소통하는 똑똑한 참여 행정 구현

제5절

고흥군

1. 비전

- 남해안의 블루오션 고흥

2. 기본목표

- 대한민국 유일한 우주센터의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인 개선하여 관광 명소화 추진
-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명품콘텐츠 개발과 관광인프라 구축·활용으로 남해안 관광 신흥 메카로 발돋움
- 전국 최대의 공역을 이용한 드론산업 기술특화단지, 융·복합 청정식품 단지, 유통·시설 현대화, 농수축산물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초고령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인구문제 선제적 대응 및 사회안전망 확충, 읍면 맞춤형 고용·복지체계 구축, 교육환경개선 등 「고흥형 소확행(小確幸) 복지 강화」
- 내·외부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 접근성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촉진 및 서남해안 관광벨트 「Stopover 도시」 실현

3. 발전방향

‘남해안 관광 신흥 메카’ 정착을 위한 관광인프라강화와 맞춤형 신관광 프로그램 운영

- ‘고흥 관광 1천만 시대’ 비전 추진 본격화
  - 단기(~’18) 4.5백만명 → 중기(~’22) 7백만명 → 장기(~’28) 1천만명
  - 5대 전략분야 (인프라 확충, 콘텐츠 개발, 마케팅 강화, 관광생태계조성, 관광도시로의 도약), 24개 핵심 프로젝트 적극 추진
- 고흥의 역사·인물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 목일신, 김일, 이순신 등 고흥의 역사·문화·인물 활용 관광자원화 적극 추진
- 기존 관광자원의 강점을 더욱 두텁게 활용하여 차별화된 관광상품 확대
  - 소록도와 우주센터 관광자원을 더욱 특화 발전
  - 근대역사문화인 소록도와 미래지향적인 우주센터를 양대 축으로 관광 프로그램 및 연계 관광자원 개발 집중

- 섬·해양자원의 관광명소화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745km 해안선, 230개 섬, 청정 바다를 관광자원화
- 분산되는 신규 관광지 개발 지양, 기존 관광거점 연계 개발
  - 신규 분산보다는 주요 거점 관광지와 연계(인접) 개발 추진
  - 관광지별 체류시간 증대 추진
  - 고흥 3대 관광거점 : 소록도권, 나로도권, 팔영산권
- 연중 관광객 유치, 4계절 축제 개최
  - 군 주관 2개 대표축제(우주항공, 유자·석류) 이외 연중 관광객 유치 이벤트로써의 소규모 지역축제(이벤트) 육성
- 음식관광 활성화 "한 끼" 관광객 유치
  - 대표음식 개발 심혈 및 음식점 시설환경 선진화사업을 통해 "한 끼"를 찾는 관광 트렌드 반영

우주·항공·드론산업, 융·복합 스마트팜 단지와 농수축산물 고부가가치화 추진

-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 우주분야(나로도 일원)
    - 한국형 발사체개발 및 달탐사 사업, 과학로켓개발센터·초소형위성개발센터
    - 전문 인력 훈련시설 구축 등 한국형 발사체 후속사업 준비
  - 항공산업 분야(고흥만 일원)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건립과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연계하여 드론 및 항공 관련 소규모 제조공장과 기업입주 공간 조성
    - 무인기사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통해 농·어업용 드론 실증단지 구축 및 활성화
  - 문화 관광 분야
    - 기 구축된 우주항공 연관시설의 클러스터화 추진과 향후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2) 시험발사 계획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방안 확립
    -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확장으로 체험형 콘텐츠 공간 재구성을 통해 관람객 지속 유치, 고흥우주랜드 및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사업 추진
- 지역특화 농수축산물 스마트 융·복합단지 확충 및 고효율·고소득 농수축산물 명품화로 고소득 농림어가 근착(根着) 유도
  -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마무리와 기업유치 총력: 농수산물 및 식료품 가공 전문단지로 조성, 관련 입주기업 성공적 안착을 위한 맞춤형 행정지원
  - 지역특화 품목 6차산업화 지구조성 및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 고소득 과수(유자, 석류, 참다래, 매실 등) 및 틈새 소득 작물(화훼단지 등) 생산기반시설 구축 및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 고흥커피 : 「고흥커피협동조합 설립-생산기반시설 현대화-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체험·교육시설 지원-고흥커피 브랜드 홍보-일자리 창출 및 관광자원화」
  - 동물복지형 축산 스마트팜 단지 조성(개량단지, 가공·유통시설 현대화 등)

- 명품 고흥한우 생산기반 조성, 가축 분뇨 퇴·액비 자원화 확대

– 스마트 수산양식 시범 단지 조성(첨단 양식장, 해상가두리, 가공수출 시설 등)
- 기후변화 대응 지역 특화 고소득 수산양식품목(무지개송어, 황금송어, 황금송어 굴비, 사마연어) 육성을 통한 양식 산업의 발전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수산물 가공·유통 기반 구축
- 해조류 부산물 자원화 시설(부산물 사료화 가공공장 등) 및 해안쓰레기(폐어구, 어망 등) 수거·처리, 어업기자재 보관 등 편익시설 지원 사업

「고흥형 소확행(小確幸) 복지정책」 강화로 초고령사회 탈피

● 인구정책 구체화 및 맞춤형 고용체계 구축 강화
– 고흥 인구정책 종합대책 마련 및 구체화: 「2022년 고흥인구 감소 제로화」를 위한 인구정책 로드맵 수립('18. 12.)에 따른 5대시책 지속 추진
– 일자리 창출 컨트롤타워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마련 및 활성화
– 일자리 창출 우선 지원 재정운영 및 사업 추진
– 마을·사회적기업 지속 발굴 및 체계적 관리

● 여성, 청소년, 가족이 행복한 건강가족도시 조성
– 여성지원센터 개관으로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고흥
–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조성,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고흥군청 가족친화 기관 재인증(여성가족부 주관)

●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추진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환경 조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으로 안전지원, 일상생활지원 연계
– 치매대상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 통합관리 사업운영
– 노인의 여가 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다양화
– 노후된 경로당 시설 현대화 추진

● 장애인의 권익 증진, 장애인과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및 보호자를 위한 장애인전용 목욕탕 건립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화

●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지역사회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 찾아가는 복지-보건소 방문건강관리 협력팀 운영
– 마을순회 이동복지상담소 운영
–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들의 지역에 필요한 특화사업 추진

● 행복주거 공동체 실현 및 교육환경 개선
– 지역사회 건강한 환경조성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보건소를 중심으로 행정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활용
– 농어촌 리모델링사업: 기존 경로당, 마을회관, 폐교를 활용한 공동생활시설 리모델링 및 개보수 사업, 혹서기/혹한기 대비 마을 쉘터 구축, 농어촌 공가

정비사업, 마을안길 & 연결도로 정비 등

–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의 체계적 연계 및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지역 청·장년, 여성, 노인 대상 학습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혁신 인적자원 확충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의 강화

내·외부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 접근성 개선을 통한 서남해안 관광벨트 Stopover 도시 실현

- '20년 개통된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 고흥~완도 간 연도교와 旣완공된 연륙·연도교 연계를 통한 서남해안 일주 관광루트 Stopover 도시화
  –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 건설
    • 영남~적금(L=2.98㎞, 교량1개소 1.34㎞): 팔영대교, '16.12월 준공
    • 적금~화양(L=16.8㎞, 교량 4개소, 2.96㎞): '20. 2월 개통
    •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 연결도로 정비
  – 고흥~완도 간 연도교 건설 및 국도 기점 변경
    • (고흥)금산~금당~신도~금일~약산~고금(완도) (지방도 830호선)
    • 국도 27호선 기점 연장 42.4㎞ : 미개설 27.4㎞ (해상교량 10.22㎞, 접속도로 17.18㎞), 旣개설 15.0㎞
  –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2조 9,000억원)
    • 1단계(광주~고흥), 2단계(고흥~나로도) : 국가계획 반영 추진

- 고흥 내부 연계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 편의성 도모
  – 내부 도로망 중에서 간선급인 국도급 이상의 도로는 4차로 확장(고흥~봉래간)
  – 미연결도로, 경관도로, 지역 간 연결도로에 대한 수요 진단 및 계획 수립 : 고흥 동쪽 해안일주도로(청송리 하송~망주리~신흥리~연등리~신곡리~영남면 강산리 오산마을),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 및 미구간 연장, 지방도 830, 851, 843, 845 호선 확·포장, 국도 15호선 우회도로, 서부권 연결도로, 팔영대교~남열해수욕장 도로연장 및 확·포장, 남열리~영남면 도로 확·포장, 교동교차로~나로우주센터 해안 우회도로, 발포~덕흥삼거리~구암삼거리~구암항~황촌 해안도로, 녹동 우회도로 등 신설, 오마리~발포역사관 해안도로 확·포장, 신규 산업단지 진입도로

제3장

서남권

제1절 목포시
제2절 해남군
제3절 영암군
제4절 무안군
제5절 진도군
제6절 신안군

제1절

목포시

1. 비전

-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서남해안 중심도시 목포

2. 기본목표

- 천오백만이 찾는 세계적인 명품 관광도시 도약
- 전국 제1의 수산식품도시 실현
- 신재생에너지산업 거점 도시 조성
-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제고
-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활력 창출

3. 발전방향

천오백만이 찾는 세계적 명품 관광도시 도약

- 권역별 핵심 콘텐츠 확충 및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하여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마련
- 스마트 관광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보여행의 메카 조성 및 민간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과 외래객 확대 서비스 환경 조성으로 관광수용 태세 구축
- 목포으뜸맛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목포의 맛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차별화된 축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
- 체류형 대규모 리조트, 생태공원 등 신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춤추는 바다분수 등 주요 관광시설 리뉴얼 사업 지속 추진
- 다양한 프로그램 및 공연 콘텐츠와 관광상품 지속 개발, 전방위적인 미디어 마케팅을 통한 목포의 브랜드 파워 강화

전국 제1의 수산식품도시 실현

- 수출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원물 중심 수출에서 고부가가치 가공 연구 및 수출상품 개발, 수출마케팅 지원으로 개선
- 대부분 소규모·영세 구조로 식품위생 기준 적합화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과 새로운 수출모델 가공 산업 집중 육성

- 양식어업 증가, 어업생산, 가공 산업 연계에 다른 생산 효율화 및 가공 품질 향상을 위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 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물류 기능을 집적화한 종합 벨트를 구축해 수산활동 전반을 원스톱으로 지원

신재생에너지산업 거점 도시 조성

- 서남해안 8.2GW 해상풍력 생산 거점 조성
  -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집적화 실현 및 민간투자 촉진
  - 입지 개발, 기술지원, 유지보수 등 전 단계 종합 지원시스템 구축
  -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기자재 조립 및 생산·이송을 위한 배후단지와 지원부두 건설
  - 국내 제1호 국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대양산단, 신항)으로 해상풍력산업 기자재·부품생산 기업 유치 여건 조성
- 국내 최초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구축
  - 강화되는 온실가스 규제의 대응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LNG추진선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인 다양한 친환경 연료기술의 해상테스트베드 구축
  - 미세먼지 및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우리나라 연안 환경에 맞는 연안 운송체(전기추진차도선)기술 개발 및 도서지역 전원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추진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UTS) 캠퍼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를 유치하여 전문인력 교육 및 연구기관 조성하여 세계 수준의 친환경선박 연구개발 및 산업 경쟁력을 확보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제고

-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정책 수립 및 콘텐츠 개발 등 문화관광도시 구축
  - 예비문화도시사업인 문화다방, 문화갯물학교, 문화파시 플랫폼 구축 사업 등 목포의 문화적·역사적 강점을 자산으로 문화콘텐츠 강화
- 고유 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거점 도시 브랜드 창출 및 문학행사를 통합한 독창적 문학 축제 콘텐츠 발굴, 지역 역사문화정체성 확립과 도시 경쟁력 확보
  - 문학을 주제로 전국최초 문학박람회(격년제 개최)개최, 축제와 박람회 연계를 통한 독창적인 문학 브랜드 선점
- 목포가을페스티벌을 통한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집중 개최, 근대음악극과 목포 항구버스킹 활성화 등 문화예술공연 상설·집적화
  - 세계마당페스티벌, 항구축제, 근대음악극 '청춘연가' 등 통합한 통합문화예술 축제 개최

– 근대문화재 활용한 야간콘텐트 운영, 문화재 야간 개방 등 목포 대표 야간 문화관광콘텐츠로 브랜드 가치 향상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활력 창출

-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1897 개항문화거리, 서산동 보리마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활력 도모 및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
  – 개항문화거리 디자인 가로 조성, 건맥 1897축제,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등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재생사업 추진
- 국내 최초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경쟁력 확보
  – 아카이브 구축, 근대건축자산 매입·보수, 거리 경관 회복, 관광자원 조성
  – 구)호남은행, 구)세관창고, 갑자옥모자점 등 보수정비하여 새로운 콘텐츠 구축
-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이 지역 활성화의 주역이 될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협의체 구성, 도시재생대학 등을 운영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도모
  – 건맥 1897 협동조합, 1897개항문화거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어 도시재생 지역 내 마을 공동체를 잇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
- 새뜰마을사업(동명동 송도마을, 유달동 대반마을) 추진으로 생활 여건 취약지역의 인프라 확충 및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성 제고
- 우리나라 최초의 자주적 근대 개항도시인 목포의 정체성을 활용, 우리나라의 개항역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국립 개항역사문화센터 건립 추진으로 근대역사문화도시 브랜드 가치 확립
  – 지붕없는 박물관인 근대역사공간의 에코뮤지엄화 추진 및 에코투어리즘 상품 개발로 원도심 일대를 근대역사문화 올드타운 조성
  – 근대역사 자원을 종합 연계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도심 관광트램을 도입하여 앤티크한 근대문화와 스마트모빌리티와의 조화로 미래지향적인 문화관광도시의 면모 확립
- 도시재생과 연계한 목포시 고유의 청년문화 브랜드 시책 개발하여 추진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산업분야에 대응한 청년 일자리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서남권 거점도시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서남해안 철도 구축 및 목포역 기능 개선으로 국토균형발전 및 효율적 물류·관광 기반 확보
  – 군산~목포 서해안철도 건설로 대량수송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해 침체하고 낙후한 서해안권 경제발전에 기여

-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으로 국토 서남권 거점역의 위상 정립
  - 한반도 서남권 거점역으로서 위상에 걸맞는 랜드마크형 친환경 생태역사를 조성하고, '시민의 숲' 조성 등 목포역을 시민공유 공간으로 복원
- 명품 섬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섬을 조성하여 섬지역 생활인프라 확충 등 섬해양관광의 거점으로 도약
  -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개설, 달리고~외달도간 보행연도교 개설 등 섬의 연륙화로 섬지역 접근성을 대폭 향상
  -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로 섬지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섬주민 정주여건 개선
  - 서남해안 섬벨트 지역에 2028 세계 섬엑스포 개최로 세계적 섬·해양 문화관광의 거점이자 섬기반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

제2절

해남군

1. 비전

- 빛나라 땅끝 다시뛰는 해남

2. 기본목표

- 현장중심 소통행정 - 군민 눈높이에 맞는 공감행정 추진
- 살기좋은 부자농촌 - 농촌활력증진 및 미래 농수축산업 육성
- 체류하는 문화관광 -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자원 개발
- 생동하는 지역경제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경쟁력 강화
- 감동주는 맞춤복지 - 행복이 보장된 맞춤형 통합서비스 확대

3. 발전방향

군민 눈높이에 맞는 공감행정 추진

- 군민이 공감하는 공정행정, 청렴행정 추진
  - 양방향 SNS 소통채널 확대, 해남소통넷, 군민과의 공감대화 등 참여형 군정
  - 민원상담관제 운영,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민·관 합동 복합민원 무료컨설팅
  - 스스로 지키는 공직 자세 정립 및 청렴의식 생활화
  - 공직자 역량강화교육, 친절마인드 함양교육
  - 군정 전반에 ESG 개념 도입으로 윤리경영 역량 강화 등
- 주민 주도의 자치분권 강화
  - 주민자치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기반으로 주민주도 자치분권 강화
  - 읍면 전략사업을 포함한 마을 만들기
- 군민이 참여하는 선진교육·행정서비스 강화
  - 평생학습도시 선정('19년)으로 교육서비스 향상 및 미래 인재육성
  - 아동, 청소년, 노년까지 평생동안 학습하는 프로그램 지원, 공동체 문화 확산
  - 장학사업기금 500억 조성으로 교육여건 개선, 인재양성, 장기 교육발전 방안 마련

농촌활력증진 및 미래 농수축산업 육성

- 친환경 농산물 등 청정먹거리 생산 기반 구축
  -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친환경 미생물 배양관, 과학영농종합시설
- 재배작물 및 품종의 다향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미래 농업
  -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시설 스마트팜 보급으로 정밀농업 실현,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 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발굴과 미래 농업 선도역할 농업인 집중 육성
  -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로 기후변화 대응 클러스터 조성
    ※ 道 과수연구소, 郡 과학영농실증시험, 고구마 연구센터 등 전문적 농업연구단지 조성
  - 틈새 소득작물 재배, 신소득 아열대(바나나, 파인애플 등)작목 확대 보급
-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등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촌융복합지구 조성사업,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 농식품 제조업체 가공시설 HACCP, 현대화 등을 통한 가공산업 기반 구축
  -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농산물 출하조절시설 조성
-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어업 경쟁력 확보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
  - 어촌 뉴딜 300사업 추진(9개소), 지방어항 정비, 마을 공동어항 및 연안 정비, 어촌·어항 재생사업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수산물 브랜드화 사업, 수산물 안전성 관리, 김 산업 특화단지 조성
-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한 판로 확보 및 안전먹거리 체계 구축
  - 온라인: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의 직거래장터,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판매채널 확보
  - 오프라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주축으로 중소농, 귀농인들의 지역 청정농산물 판로확보를 통한 안정적 소득 보장
- 농촌 고령화에 대비한 노동력 절감정책, 미래 인력 확보 노력
  - 전문화된 소농·고령·영세농 육성, 첨단 농업 개발 및 적용, 귀농·귀촌 육성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자원 개발

- 관광 인프라 구축 확대를 통한 관광객 400만 시대 글로컬 관광지화
  - (우수영권역) 명량 해상케이블카, 스카이워크, 역사관광촌, 법정스님 마을도서관, 목포구 등대, 오시아노 관광단지, 고천암 철새 도래지, 공룡화석지
  - (땅끝권역) 미황사, 달마고도, 세계의 땅끝공원,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땅끝해안처음길 조성, 땅끝 꿈길랜드 조성사업
  - (두륜산권역) 두륜산도립공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천년고찰 대흥사, 두륜산

복합레저 테마파크(생태 힐링파크)

- (해남읍권역) 금강산 명품둘레길, 흑석산 치유의 숲, 인문학 성지(고산유적지, 땅끝순례문학관, 백련재 문학의 집)

●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 생태자원 체험 및 생태 역량강화: 꼼지락 캠핑, 흑석산 치유의 숲, 365일 달마고도 워킹데이
- 지역의 경쟁력있는 콘텐츠와 연계한 지역축제 육성: 해남미남축제, 송호해변 여름축제, 오시아노 뮤직 페스티벌, 명량대첩축제, 해넘이·해맞이축제 등

●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유산 보전

- 전라우수영 종합정비, 청자요지 발굴(세계유산등재 추진 중), 마한 고분군 발굴 등
- 신미제국 해남 마한역사테마단지 조성: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마한역사문화촌, 신미제국 테마길, 테마파크 조성 등

● 빅데이터 분석, 언택트 시대의 관광트렌드 분석 및 반영

- 5G, AI 기술 기반의 정보집약, 트렌드 변화에 따른 AR·VR 활용한 스마트 관광

생활 속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재해·재난에 대비한 대책 마련

-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위험구역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재해지도 작성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만들기 및 교통복지 실현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군민 안전보험 가입
- 회전교차로 조성, 교통정온화시설, 지중화사업, 활주로형 횡단보도
- 광역BIS시스템 구축,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해남사랑택시

●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건강 증진

- 치매안심센터, 방역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건강 프로그램 운영, 의료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마음건강사업 등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사회 실현

●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한 저탄소 그린 도시 조성

- (에너지 전환) 솔라시도 RE100 국가산단 지정, 신재생에너지 전환, 그린 리모델링
- (탄소 배출원 축소) 주민참여형 재활용품 유가보상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전기차·전기충전소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 (탄소 흡수원 확대) 산림 조림사업, 정책 숲가꾸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 (주민 인식개선 교육) 탄소중립 에듀센터, 에코플랫폼

활력있는 지역경제 만들기

- 해남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 카드상품권 출시, 카드수수료 지원, 할인행사
- 해남읍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신규 주차장 조성 지역상권 활력
  - 청년카페, 일자리 연계 청년자립기반 구축 지속,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추진
-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확장정책 추진
  - 금융지원(특례보증대출, 특례보증수수료, 이차보전 등)
  - 경영지원(소규모 점포경영개선, 카드수수료,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 풍수해보험 등)
  - 민생지원(사회보험료 지원, 방역물품 지원 등)
-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지속적인 균형발전으로 살기좋은 해남
- 일자리 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
  - 창업 지원, 취업 연계, 역량강화를 통한 일자리 지원: 청년두드림센터, 땅끝해남시니어클럽 등
  - 귀농인 정착 지원: 정착 소득기반 조성, 주거환경 조성(빈집 리모델링), 귀농귀촌 희망센터

행복이 보장된 맞춤형 통합서비스 확대

- 가족친화적 복합화시설 제공 및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실현
  - 땅끝가족어울림센터, 청소년누림문화센터, 청년두드림센터, 해남시네마, 땅끝해남시니어클럽 운영
- 미래희망 아이를 키우는 편안한 양육환경 조성
  - 출산정책 추진: 결혼장려금,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등
  - 양육환경 조성정책: 신생아 양육비, 아동수당,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일·가정 양립 아이돌봄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 등
- 초고령 사회 대응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통합건강 돌봄서비스, 남도광역추모공원 환경 개선(교차로 개선, 화장로 추가)

제3절

영암군

1. 비전

- 활력이 넘치는 미래 도시 영암

2. 기본목표

- 미래 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기업 유치로 부자 되는 영암
- 융·복합 생명산업 육성으로 풍요로운 영암
-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와 문화를 품은 영암
-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로 군민이 행복한 영암

3. 발전방향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지역 소득·고용 증대를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친환경 해양에너지 융·복합산업 육성
    - 해양에너지 부품·기자재 융·복합산업 생산집적 단지 조성, 해양에너지 R&D 인프라 구축, 부유식 조류발전 실증사업, 해양에너지 활용 수소제조 기술 고도화 및 실증화 사업
  - 중소형·경량 수소선박 개발 및 실증
    - 중소형 수소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 친환경 마리나용 수소선박 실증사업, 중소형 수소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구축, 중소형 수소선박 부품·기자재산업 육성
  - 수소열차 특화산업 육성
    - 수소열차 특화단지 조성, 수소열차 운행 실증사업, 수소연료전지 기반 항만 무인트램 구축사업
  - 탄소중립 기반 마련 및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감축 기반구축,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영암 조성, 생태 네트워크 구축, 체계적·과학적 미세먼지 관리 기반구축, 자원순환사회 구축
  - 지역특화자원 연계 상권 르네상스 추진
- 드론·경비행기 항공산업 육성
  - 미래 파일럿·엔진국제전문가 양성
  -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 항공레저 관광 활성화

- 모터스포츠 산업 클러스터 연관 산업 육성
  - 미래형 자동차튜닝 규제자유특구 지정
  - 자동차튜닝산업 클러스터 구축

-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 정착을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 대불국가산업단지 산단 대개조사업
  - 대불국가산단 해상풍력 전진기지 조성
  - 중소 조선사 고도화 및 다각화 인프라 구축
  - 영암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 서남권 해양 방위·안전사업 거점 구축

고부가가치 생명농업 육성으로 첨단농업 실현

- 국립종자원 벼정선시설 및 아시아 종묘원 활용 종자산업 선도·육성
  - 고품질 쌀 산업 경쟁력 강화
  -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특화단지 육성
  - 돈 되는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
  - 명품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및 종자 관리 체계 개편

- 지역특화작물 활용 농·공·상 융복합 산업화
  - 유기농업 기반 조성으로 생태유기농업 확산
  - 로컬푸드 활성화
  - 친환경농산물 연계 가공·발효식품산업 육성
  - 농촌융복합형 산업지구 조성
  -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영암군 국가중요농업유산 발굴 및 복합산업화
  - 대봉감 가공산업 활성화사업 및 6차 산업화지구 조성, 무화과 클러스터 구축

- IT기술 결합 스마트팜 사업 육성
  -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 및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
  - 노지 스마트팜 보급 확대
  - 축산 ICT 융복합사업 지원, 축산의 첨단화 '스마트 축산' 추진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역사·문화 자원 활용 관광·레저스포츠 거점 조성

- 자연자원을 연계한 복합 관광벨트화 추진

- 국립공원 월출산 권역 관광거점 구축
  - 월출산 스테이션-F, 도갑사 선(禪) 문화공원,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산악형 스포츠· 레저기반 구축
- 영산강 권역 관광거점 구축
  - 영산호 관광지 복합레저공간 조성, 수변레저형 관광단지 조성, 영산강 유역 마한 테마길 조성, 영산강 수변길 연계 관광상품 개발

● 전통문화 체험 및 향유를 위한 체류형 테마관광 거점 개발
- 마한 역사문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마한 역사문화 테마 관광지 조성
- 트로트 국제문화교류 사업
- 왕인문화축제, 월출산 국화 축제 등 지역축제 활성화
- 환황해권 교류 역사·문화 체험거점 조성
- 생생(生生) 기(氣)·차(茶) 클러스터 구축
- 남도문화 삼매경 탐방루트 조성사업
- 도포 줄다리기 세계문화유산 등재, 갈곡들소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 영보정 일대 전통 마을정원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부자정승 기념관 건립
- 서호권 복합관광 프로그램 구축
- 색깔있는 전통시장 조성, 거점상권별 집객 효과 향상을 위한 테마형 공공시설 조성

● 문화·관광자원 연계 스피드레저 특구 조성

●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 영암군 전통 씨름 도시브랜드 사업, 민속씨름 역사문화공원 조성
- 야구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
- 영암군 수상레저 복합센터 건립

⬡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로 군민이 행복한 영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 확충으로 잘사는 복지 실현
- 문화기반시설 확충
  - 생활문화센터 확충, 복합문화센터 건립, 작은미술관(마을갤러리) 건립
  - 문화도시 지정, 문화예술교육 거점공간 설립,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기반 확충
  - 스마트 교통관리체계 구축, 미래형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구축,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구축
  -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서비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치, 주차환경 개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
  - 위험도로 선행개선, 재해위험 노후교량 보수, 지역 광역교통망 연계강화, 간선도로망 강화
- 스마트한 지역공간구조 조성

-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마을 및 지역단위 개발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LPG 배관망 지원, 빈집정비
- 대불주거단지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대불산업단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 교동지구 개발사업,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 공동체 기반의 건강한 물관리 체계 구축
-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 하천 자연성 회복 및 공공수역 수질 개선

– 도시 경관 숲 만들기
- 쾌적한 가로녹지대 조성, 주민 참여 숲 조성, 자녀 안심 그린 숲 조성

● 복지시설 확충 및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사회 복지제도 내실화

– 마을공동체 기반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영암 소셜캠퍼스 조성·운영

– 미래교육 혁신 플랫폼 및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 농업경영 안전망 구축 및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 취약농가 인력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 지역의료서비스 확충, 영암군장애인체육센터 건립

– 지역 인구유입을 위한 정주기반 조성
-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스마트 빌리지 조성, 전남형 안심 공동-홈 조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자연친화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 커뮤니티 공간 확충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공동체 기반 군민 주도 복지 관계망 구축
- 존엄한 노후가 있는 영암형 커뮤니티 케어, 생애주기별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기반구축, 영암군 행복버스 운영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및 안전·건강마을 조성

제4절

무안군

1. 비전

- 전남의 수도, 플랫폼 무안

2. 기본목표

- 무안국제공항의 서남권 거점 공항 및 항공 관련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4차 산업혁명 주도의 신산업 거점 기반 인프라 구축
- 인구 증가와 시 승격에 대비한 도시행정 기반 구축과 행정운영 혁신
-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역통합력 제고
- 융복합 농어촌산업 육성과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력 증진
- 주민의 삶의 행복 증진을 위한 포용적 복지서비스 확충

3. 발전방향

무안국제공항을 국토 서남권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

-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을 연결하는 동북아 관문공항으로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안개일수가 적은 장점을 갖추어 인천·제주 등 국제공항 기상이변 시 대체 공항으로서 기능 수행
- 활주로 연장, 계류장 확장, 신속한 국제선 수화물 처리를 위한 컨베이어 벨트 증설 등

무안국제공항 중심의 항공 관련 신성장 동력 확보

- 무안국제공항 중심의 항공특화산단(MRO) 및 항공 분야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서남권 첨단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 항공정비 등 항공 관련 교육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특화 교육여건 마련으로 항공 인재 양성과 지역 내 취업 유도
- 무안국제공항 중심의 항공 물류 및 유통거점 클러스터 조성으로 동북아 국제물류 허브 역할 기대

지역특화 R&D(농수산 분야) 거점 플랫폼 구축

- 산학연 연계 4차산업형 지역특화(농수산 분야) R&D 거점 조성
- R&D 인프라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 유치

인구증가 및 시 승격에 따른 행정조직 및 행정 서비스 혁신

- 남악신도시 조성으로 도농복합형 행정중심도시 '인구 10만 시대' 대비
- 시 승격에 어울리는 행정규모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
- 행정의 주민참여 확대, 시민조직의 활성화 등을 통한 민관 협치 기반 조성

도시와 농촌의 공존을 위한 도농 균형발전 촉진

-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도시발전(2+1) 전략 추구
  - 농촌권역의 중심인 무안읍의 상징성 및 기능성 강화
  - 성장이 정체된 남악신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 확장 등 기능 강화
  -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망운면 일원 KTX 역세권 주변지역 발전전략 강화
- 농촌지역 읍면단위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을 통한 정주여건 향상

감성체험 여가시대를 선도하는 4계절 감성체류관광도시 조성

-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체험과 레저, 먹거리 등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지 육성
- 서해안과 영산강을 잇는 관광거점지역 간 네트워크형 관광루트를 구축하고, 각 구간에 역사·문화 자원을 연결하는 관광 상품 개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 중심적 개발과 관리

- 안정성, 쾌적성, 편리성과 더불어 환경훼손 최소화 및 경관을 고려한 계획 방향 제시로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개발에 따른 주민의 생활권 보호와 생태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주민참여 관리 위원회 구성 운영

활발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지역의 활력 증진

- 노후화된 기존 시가지와 쇠락한 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참여
- 구도심의 재생과 신시가지 거점 구축 및 비도시 지역의 낙후 요인을 극복함으로써

도·농 통합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공간구조 확립

- 농촌지역 보건·복지·문화서비스 등의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 대비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경제 기반 확대

- 지역특산물인 갯벌낙지, 양파, 마늘, 고구마, 백련, 한우 등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농산업의 고도화전략 수립을 통해 잘 사는 농어촌 만들기
- 황토, 갯벌, 바다 등 풍부한 자원을 활용, 생산·유통·관광·휴양을 아우르는 농어촌 융복합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전통 농업생산 중심에서 로컬푸드 확대, 아열대작물 재배, 6차 산업화 등 다각화
- 농업 외 2·3차 산업기반의 확충 및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농촌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지역특산품 육성과 브랜드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현대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고령화 시대 포용적 복지와 주민의 행복 증진

- 도농 간 삶의 질을 규정하는 사회문화 인프라의 차이, 고령화 시대 노인의 안정된 삶, 다문화인구의 증가 등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복지과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민 행복을 추구하고, 주민의 역량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 체계 강화
- 노인인구 문제를 사회참여 확대의 관점에서 접근,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 및 여가 복지시설 확충

제5절

진도군

1. 비전

- 서남해안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해양강군 진도

2. 기본목표

- 국제 교역·물류 및 해상풍력발전 거점 육성
- 진도 발전을 견인할 광역 교통망 확충
- 기후변화 대응 농어업 생산기반 구축
- 민속·문화·예술 자원의 세계화
- 의료·교육·복지·환경의 선진화

3. 발전방향

⬡ 진도국제무역항 배후단지 조기 활성화 및 미래 먹거리, 융·복합 신산업 육성

- 중국 상해권, 동남아권 물류·교역 중심지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 진도항을 서남해 거점항으로 개발하여, 환황해 경제벨트 구상의 실효성있는 성과 창출
  - 통일 시대 대비, 북한산 원재료를 가공하여 중국(상해권)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국제무역항으로 육성
-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친환경·해양에너지 산업 메카 구축
  - 화석에너지 및 원자력에너지 산업 쇠퇴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등 대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
  -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등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 정책 선도
- 항만·어항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강화
- 다기능 어항 정비·개발을 통한 어업 경쟁력 제고

⬡ 쾌적하고 활력넘지는 정주여건 조성 및 내륙·해양 연계 교통 인프라 구축

- 지역특성을 고려한 집약적 도시공간구조 구축

- 농어촌 주거여건 및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 네트워크형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 기능 강화
  - 남북축 위주의 교통망 확충에 집중되어 발생되는 교통 단절구간 및 교통 수단간 연계, 지역 간 연결성 확충을 통한 교통 낙후지역 해소를 위한 생활권 및 지역간 연계교통망 체계 확충
-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형 도시·교통관리시스템 강화
  -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교통사고 제로화 기반 확립
  - 기존의 협소한 가로망으로 진도읍에 모든 교통이 집결과는 기능 수행에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 교통관리시스템 도입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섬·해양 관광지 개발

- 체류와 여가활동 중심의 섬·해양 관광 거점시설 확충
- 다시 찾는 블루투어 섬·해양 명품 관광도시 육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남도 생활관광 중심도시 육성
- 품격과 매력의 섬, 정감넘치는 경관 연출

지역특화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차별화된 농어업 육성

- 지속가능한 농산업기반 구축 및 내실화
  - 농어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기존의 노동집약적 농수산업에서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속가능한 미래 농수산업으로 전환
  -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 농업 확대, 수산물 생산성 향상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 양식장 관리시스템 도입
- 기후변화 대응 및 ICT 기술을 접목한 미래농업 육성
-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자원의 소득사업화
- 농축수산물 안전·안심 유통체계 구축
-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생태계 기반 구축
  - 수산물 신선도 유지,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한 단계적 유통구조 개선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 기반 확충
- 양식의 미래산업화 및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남도 문화예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문화·역사 활력지대 조성

- 지역특화성 자원의 극대화를 통한 문화·예술 클러스터 구축
  - 진도 “민속문화 예술도시” 의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통한 고유의 전통·문화·예술 전승·보존 기반 마련
  - 남종화, 국악 등 전통문화예술 인재 발굴 및 전통 상장례 문화의 전승·보전 기반 구축
- 고유의 전통·문화·예술 전승·보존 기반 마련
- 남도 민속·문화·예술 자산의 세계화
  - 침체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남도 민속·문화·예술 자산의 진흥을 위한 한류문화 열풍에 맞춘 새로운 세계화 비전 제시
- 역사와 예술이 조화된 호국역사 체험지대 조성
  - 명량대첩지, 삼별초 항몽지 등 진도군에 산재한 호국 역사·예술·문화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체험관광 활성화 및 진도군의 이미지 제고

군민행복 실현을 위한 보건복지 시스템 구축 및 친환경 안전도시

- 군민과 함께하는 농어촌 돌봄·육아 지원 확대
  - 아이키우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ICT 기반 생활밀착형 돌봄 등 생애주기별 육아지원 강화
-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보건·의료·교육·복지시스템 구축
  -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기반 구축을 통한 공공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및 인프라 접근성 개선
  -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실현을 위한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 모두가 안심하는 무재해 안전도시 조성

제6절

신안군

1. 비전

- 21세기 '섬의 시대'의 중심, 신안군

2. 기본목표

- 21세기는 '해양의 시대', '섬의 시대'
- 섬의 가치와 장점 재발견
- 섬 특성화 심화
- 다도해 낙원 건설

3. 발전방향

살아 있는 섬(생태)

- 섬 생태계의 보전
  - 섬과 갯벌 주요 생태계의 적극적 보전을 위한 전략 수립
  - 해수욕장, 사구, 식생, 생물서식처, 해양생물에 대한 모니터링
  - 기후온난화에 의한 섬 생태계 변화 면밀하게 대응
  - 보호구역에 대한 보전 및 활용 방안
- 자연의 가치 창조
  - 에코 아일랜드 개념의 구현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보전, 갯벌도립공원, 갯벌국립공원 지정
  - 섬 생물문화다양성 자원 발굴과 보전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갯벌자연유산 지정으로 자연의 가치 창조
  - 신안군 고유 자생식물, 생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살기 좋은 섬(산업, 경제)

- 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 감성마케팅 개발 : 과학적 성분분석+생태환경 개선+문화 스토리텔링 접목

* 예) 소금 : 소금의 성분분석+염전의 생태환경 개선+소금이야기

- 섬 음식문화 : 섬에서 나오는 식재료로 '섬 밥상' 개발 및 보급
- 상품의 다품목, 다양화, 소규모 고급화 전략 추구(관광과 연계)

- 생산지와 가공지의 통합, 유통체계 정비
  - 섬별 특화 농수산 가공시설 건설
  - 합리적 유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생산(1차)과 가공(2차)과 체험관광(3차)을 연계한 6차 산업화

살고 싶은 섬(복지, 정주조건, 공동체문화)

- '섬 복지'의 개념 도입
  - 고령화에 대비하는 고도의 생활 전략 수립
  - 의료, 교육, 문화, 환경 등 복지시설 확충
  - 전기,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환경 수준 향상
  - 섬 관광 활성화에 의한 도서 주민들의 적응 및 대응

- 물 문제 해결
  - 천사대교 개통, 흑산공항 개항에 따른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물 부족 대응
  - 빗물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 권역별 상수관 시설의 연계

-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
  - 연륙, 연도교를 이용한 신안군 십자형 도로망 구축
  - 도로개선, 거주지 개선, 에너지 자립을 통한 풍요롭고 편리한 섬
  - 연안여객선 시스템의 개선(공영제 도입)

- 안전한 섬 생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비 확충
  - 태풍, 지진, 해일, 적조 등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 안전한 섬 생활 유지
  - 주요 관광지 환경오염 방지 및 관광교육
  - 무인도, 해양쓰레기 처리, 산업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
  - 비점오염원 확산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

가고 싶은 섬(주민, 관광객, 이주민)

- 주민 역량강화
  - 섬 주민에 의한 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관광 수용능력 증진 프로그램 실행
  - 품격있는 섬 관광을 위한 생활 개선
  - 섬 주민은 섬 발전의 주체, 섬 주민에 의한 정책제안

- 섬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 섬의 가치를 주민 스스로 인식

- 섬 자원의 수집과 활용
  - 섬의 정확한 파악 : 섬의 기준 설정
  - 섬 자원의 DB화, 지속적 업데이트
  - 자연자원(생물, 무생물, 생태환경), 문화자원(역사, 민속 등), 생활자원(토착지식), 특산품 등
  - 세계 섬 지역 자원과 비교, 교류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 섬 관광자원의 발굴과 활용
  - 섬 생태자원의 활용
  - 섬 문화 유산의 창조적 활용
  - 섬 스토리텔링 개발
  - 관광 인프라 구축
  - 섬 거점의 다양한 해양관광 프로그램 개발

- U-턴, I-턴 전략
  - 귀농귀어민 증가 전략을 통한 영구적 인구 유입
  - '섬 유학'의 개념 도입을 통한 육지 학생 섬 유학 유치
  - 젊은 층 섬 유입을 위한 정주지원사업
  - 청년 유입 노력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주민 협의체 구성

제4장

중남부권

제1절 보성군
제2절 장흥군
제3절 강진군
제4절 완도군

제1절

보성군

1. 비전

- 쉼이 있는 고품격 차문화도시 보성

2. 기본목표

- 지역 향토자원(보성쌀, 녹차, 감자, 키위, 꼬막, 친환경농수산물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친환경생명산업 육성
- 녹차, 산, 바다, 강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활력 있고 매력 있는 생태관광도시 조성
- 사람 중심의 주민 만족형 행정서비스체계 및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함께 누리는 복지교육도시 조성
- 광주~보성간 경전선, 목포(임성)~보성간 남해안철도 개통에 대비한 사통팔달의 교통도시 조성
- 녹차밭, 보성강 수변공간의 수려한 자연환경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살기 좋은 전원도시 조성

3. 발전방향

남해안의 쉼이 있는 힐빙(Healbeing)관광거점 조성

- 해양자원 및 녹차를 융합한 체험·레저형 휴양지 조성
- 소설 태백산맥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학 테마기행과 전통생활문화 휴양지 조성
- 주암호 주변 산악과 호반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자연체험 휴양지 조성

세계인이 선호하는 명품 녹차산업 육성

- 녹차산업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녹차 가공 및 식품산업 육성
- 녹차, 녹차체험, 녹차음식, 민박을 융합한 녹차 6차 산업화 지구 조성
- 공세적 녹차수출 기반 조성을 통한 세계인이 즐기는 명품녹차 육성

지속가능한 고소득 생명농수산업 육성

- 지역특성 및 향토자원을 고려한 권역별 특화농산물 육성
- 고소득 유기농 허브 1번지 유기농·식품 6차 산업화
- 보성군 농림축수산물 생산·체험·관광·유통·판매 기반 구축 및 활성화
- 미래농업 육성 및 고소득 신규 성장동력사업 개발
- 벌교갯벌의 환경과 수산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체계 구축
- 해역 특성별 수산자원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 등 활력 있는 지역경제 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정비
  -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문화·관광지와 연계한 녹차골 보성향토시장 활성화
-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녹차, 꼬막 등)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신규 발굴 육성
  -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농공단지 조성

사통팔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지속적 확충

-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 국도77호선 이설·확장, 보성 복내~화순 남면간 도로 개설, 국도 18호~보성읍 간 진입도로 개설 등
  - 광주~보성간 경전선 고속전철화, 목포 임성~보성간 남해안 고속철도 준공 등

군민이 행복한 교육, 복지, 의료 등 서비스 기능 강화

- 생활체감형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 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포함 공공·민간의료를 연계한 종합의료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구강관리,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등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활성화
  - 산부인과, 외과, 치과, 한의과, 물리치료 등 5개 영역의 통합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오·벽지 순회 통합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 병·의원,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마을 등에 역학조사반 운영을 통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구축
  - 공공보건기관 의료환경 개선, 출산장력 및 신생아 양육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난임부부, 영유아 건강검진 등
-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반 확대
  - 고교 공교육 특성화를 통해 보성 내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장학재단 장학기금의 효율적 활용과 현실적인 장학사업을 통해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 분야별(학업, 예체능, 특기 등) 고교 특성화 항목 선정, 보성군 초·중·고등학생 대상 명문·심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군민이 공감하는 세심한 사회안전망 구축
– 일자리 교육 및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및 구직활동, 일자리 창출 서비스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 보성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운영 및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지원(최저 생활 보장, 정부양곡 할인), 보훈회관 운영
– 노후생활 지원 강화, 지역 중심의 노인 일자리, 취업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정 지원 등

아름답고 살고 싶은 생활환경 조성

● 쉼이 있는 녹색터전 조성
– 권역단위 종합정비(일림산 권역·득량만 권역·미력면 권역·예당 권역)
–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
  • 친환경 3都4村 생태마을 조성, 문화마을 조성, 인구과소화마을 정비, 농어촌형 임대주택 공공 도입 등

● 살기 좋은 마을환경 개선
– 회천면 전일리 팽나무숲, 웅치면 용반리 솔숲, 용추마을 숲 등 전통 마을 숲 보전 및 복원을 통한 군민 휴식공간 제공
–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정비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보성강 생태하천 정비, 율어천 생태하천 복원, 보성강 생태하천 복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등
–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
– 읍 주변 지역 정주여건 개선

제2절

장흥군

1. 비전

- 중남부권 중핵도시 힐링강소특구 장흥

2. 기본목표

- 전산업 동반성장 미래경제 선도도시
- 靜과 動이 조화로운 남해연안 중심도시
- 세대통합 주민통합 주민행복 복지도시
- 쾌적하고 안전한 지속가능 생태도시
-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균형 잡힌 정주도시

3. 발전방향

⬡ 지역 지속발전 및 미래성장 '4(four)메카' 비전 실현

- '스포츠 메카'로 전국 최고의 스포츠 도시 육성
  - 대한체육회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대상지 최종 확정
    - 장흥댐 생태공원 일원을 친환경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문화·관광·스포츠 명소로 개발
  - 종합스포츠타운 신축으로 체육시설 클러스터 조성
    - 동계·하계 전지훈련 및 전국규모 체육행사 유치 등
  - 정남진 파크골프랜드 조성(탐진강변), 장흥승마체육공원 운영 활성화 등
- 역사를 기억하고 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림의향 메카' 실현
  - 옛 장흥교도소 부지,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 교도소 체험공간, 문화·예술인 창작·교류공간 조성 등
  - 국내 유일 안중근의사 사당 해동사, 청소년 인문교육 공간 조성
    - 안중근의사 추모공간, 역사·체험 교육시설, 애국탐방로 등
  - 국가위인공원 조성(탐진강 일원)으로 문림의향 장흥의 역사·위인을 재조명
    - 국가위인기념관, 추모광장, 시대별 역사테마공원 등
  - 역사 향기 숲 테마공원 조성(예양공원 일원)으로 체류형 관광거점 육성

- 한반도 사방진(정남진, 정동진, 정서진, 정북진) 미니어처 테마공원, 숲속 문화·예술 공방 등

– 가칭) 장흥문학상 제정, 지역출신 작가 선양사업,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문학작품 배경지 정비 등

● 호남권 소방·안전 중심지 '안전 메카' 장흥 실현

– 전라남도 소방안전체험관 유치(우드랜드 일원)

- 전남소방본부 개청, 전남소방학교 등 집적화 이점 최대 활용

● 안전한 먹거리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 메카'로 주민소득 창출

–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 벼 외 품목 다양화, 민·관·농협 협력체계 강화

– 장흥 10대 수산물 집중 육성,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ASC) 지원

– 장흥한우 명품화 사업, 스마트 환경친화형 축산환경 조성

– 대규모 친환경 장흥 표고버섯 재배단지 육성 등

– 슬로시티 재지정 추진

⬡ 광역 이동 및 지역내 접근 편리성을 갖춘 SOC 확충

● 장흥~고흥 연륙·연도교 건설, 국도 시설개량, 지방도 확포장 등 SOC 지속 확충

⬡ 농어촌 거점과 배후마을 활성화 기반 구축

●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연차적 추진

● 도시정책 패러다임에 대응한 도시재생(칠거리 골목 르네상스 등)

● 남해안 철도 개통 대응 역세권 개발(장흥역, 장동역 등)

⬡ 농업인이 행복한 지역특화 농업·농촌 육성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

– 농업인 공익수당 지속 지급, 농업인 월급제 확대, 고령·취약농가 인력 지원, 여성 농업인 삶의 질 제고, 귀농인 지원 및 도시민 농촌 유치

● 친환경농업 내실화 및 융복합산업화

– 유기농업 자율 실천기반 및 전문 생산단지 조성

● 지역특화품목 산업경쟁력 제고

– 태전 세계농업유산 등재, 장흥표고 6차산업화 지구 조성, 장흥한우 고품질 생산기지 구축,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대,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 만들기

● 안전·안심 먹거리 유통체계 고도화

– 관광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 온라인 판매촉진 강화 및 중소농 유통 인프라 구축 지원

- 미래농업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
  - 기후변화 대응 작목 육성 및 지역특화 산업화
  - ICT 기반 친환경 축산 확대
  - 장흥형 스마트팜 시설 보급 확대

- 임산물 산업화 기반 조성
  - 임산물 산지유통 기반 확충, 원목표고 재배단지 확대 조성 및 지원

수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

- SOC 확충을 통한 정주기반 조성
  -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한 항·포구 재정비, 해양레저 기반구축을 위한 다기능 어항개발 관리

- 연안자원을 활용한 어촌마을 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육성과 어촌관광 활성화

- 수산업 기반 확대
  - 지역 고유 수산자원(어·패류) 회복, 친환경 스마트 양식기반 확충, 지역 수산특산품 명품화 및 특화산업 육성

- 어업생산시설 기반조성 및 구축
  - 거점형 청정 위판장 건립, ICT 활용 스마트 해조류 소재센터 구축

성장주도 미래첨단산업 육성 및 전통산업 구조 고도화로 지역경쟁력 강화

- 그린에너지 생산기지 구축
  -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구축 및 운영, 장흥댐·탐진강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단지 구축

-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추출 및 표준화 기반 구축, 미세먼지·기후 온난화 질환 제어소재 개발센터 구축, 진균류 의약품 원료 생산시설 구축, 펩타이드 의약품 원료 생산시설 구축

- 목재문화 창의지대 조성
  - 목재산업화 복합시설 조성, 스마트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편백 활용 장흥목재산업 특화 육성 및 품목 다변화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강화
  -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지자체 연구소 연구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장흥관광 새로운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 구축

- GREEN SEA 장흥 비전 설정
  - G(Generation) :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열린 관광지 조성
    - 무장애 관광플랫폼, 관광안내체계 개선, 지정 관광지 주변 정비
  - R(Region) : 지역민이 만들어가는 장흥관광 프로젝트 추진
    - 장흥관광 민간 거버넌스 구축, 지역민 관광역량강화사업
  - E(Edutainment) : 생생한 문화관광체험벨트 조성
    - 정남진 나룻터 이야기촌 조성, 지역역사 문화관광자원 정비사업
  - E(Exhibition) : 4차산업과 장흥의 문화가 융복합된 장흥문화전시장 조성
    - 소등섬, 정남진 전망대 명소화
  - N(Network) : 인접지역과 연계한 관광진흥협의회 구축
    - 중남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중남권 관광브랜드 개발 및 상품화
  - S(Staycation) : 머물면서 쉴 수 있는 복합휴양관광명소 조성
    - 탐진강 생태테마파크, 장흥댐 경관 둘레길, 억불산 모노레일
  - E(Economics) : 칠거리 골목 르네상스 프로젝트
    - 칠거리 부흥, 북적북적 토요시장 문화장터 프로그램
  - A(Amenity) : 품격있는 그린시 장흥, 지역관광 이미지 개발
    - 장흥 지역관광 브랜드 개발, 전략적 홍보 마케팅 추진

쾌적하고 활력있는 정주여건 개선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기능 강화
  - 돌봄 및 안전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확보, 다양한 재가서비스 확대,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강화
-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고령친화 인프라 조성
  - 장흥형 마을단위 주거모델 개발, 헬스케어 스마트 홈 서비스 인프라 구축
- 예방 중심의 군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
-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교육 명품화 및 특성화고 지역산업 연계성 강화
-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 군민 모두가 향유하는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 생태계 보전·관리기반 선진화 및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 향상

제3절

강진군

1. 비전

- 사람으로 활기찬 남도 1번지 강진

2. 기본목표

- 농축수산인이 행복한 강진
- 지속가능한 미래경제 도시
- 고루고루 잘사는 균형도시
- 평생 성장하고 나누는 도시
- 누구나 편안하고 든든한 도시
- 내가 만족하는 복지도시

3. 발전방향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강진산단 입주기업 조기 정착 지원
  - 관외 거주자 유입 등 미래 주택수요 대비 신규마을 조성
    - 마을정비형 LH 공공임대주택
    - 신규 전원마을 조성
    -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 구(舊) 성화대 기숙사 임대
  - 각종 직업교육·훈련 위탁실시 및 경비 지원 등
  - 제2 강진산업단지 추가 확장 추진
- 인구감소, 저출산 대응사업 추진
  - 결혼이주여성의 예비 창업공간 '누구나 가게'
  - 외국인 주민쉼터 조성
  - 강진청사진 프로젝트 : 빈집 활용 청년 일터·삶터·놀이터 조성
  - 맘(mom) 편한 우리아이 돌봄종합지원센터
  - 강진품애(愛) 살기 운동 등

- 청년 귀농귀촌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 문화예술 체험 수요 충족(강진군 작은영화관 건립)
  - 첨단농업밸리 조성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
  - '주경야독(晝耕夜讀)' 농업학교 개설
  - 젊은 사회적 기업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책 마련
    - 서울시와 연계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운영 중

머물다가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

- 체류형 관광지 핵심 콘텐츠 지속 확충
  - 지방정원, 생태체험관 등 강진만을 자연학습 체험공간이자 생태계 보전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생태공원으로 조성
  - 가우도 일대 민자유치 관광단지 조성으로 남해안 거점 관광지로 조성
  - 맛집 육성(집중 육성 및 홍보)
  - 전라남도 공모사업 「병영 돼지불고기거리」 조성
  - 호텔·리조트 등 숙박시설 지속 확충
  - 강진관광택시 운영(개별·소규모 자유 여행객 유치)
  - 생활관광 활성화사업(강진에서 1주일 살기)
  - '강진에서 일주일, 강진에서 맘 확! 푸소(FU-SO)
  - 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100선 선정 '강진 나이트 드림' 운영
  - 지역민 스스로 만드는 관광 콘텐츠 '조만간' 프로젝트 운영
- 지역문화자원과 연계, 테마파크형 관광도시 조성
  - 고려 역사문화테마 관광 프로젝트 "고려하라! 강진" 추진
  - 강진만의 고유한 '고려시대 관광콘텐츠' 구축
  - 고려청자박물관, 민간요 전시판매장, 한국민화뮤지엄, 청자촌오토캠핑장에 복합콘텐츠, 전시 공간 확충
- 관광과 연계·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국내·외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 적극 유치
  - 체육시설(탁구전용경기장, 축구 전용경기장) 조성

생태문화관광 도시로의 도약

- 생태계의 서식지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
  - 자연생태, 경관, 생물종 다양성 보전 및 증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
  - 환경오염 등 인위적 관리를 최소화한 생태공원화 추진 필요
- 전라남도 3대강 탐진강의 '생태공원화사업' 추진

- 탐진강의 물줄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경관 활용
- 탐진강 스토리를 활용한 강진 고유의 공원 조성
-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화훼를 활용한 탐진강 사계절 자전거 꽃길 조성

● 강진 지방정원 조성
- 강진읍 갯남당포구 일원 대상
- 백운동별서정원-다산초당-초당림을 연계한 '정원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친환경, 스마트 농업 육성

● 영농환경 개선 및 귀농인 안전 정착 지원
-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추가 설치(도암, 칠량)
-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운영 : 연 12세대 유치

● 최고품질의 농·특산물 생산으로 제값 받는 선진농업 적극 육성
- 친환경 인증농가 지속 확대 지원, 벼 타작목 전환 대비·과수, 채소, 조사료 등 인증품목 다변화 지원
- 친환경 축산 육성
- 첨단 유리온실 및 지열 냉난방 사업, 수출전문 스마트 유리온실 및 지열냉난방 사업

● 지역 특화작목과 관광을 연계, 시너지 효과 창출
- 대규모 장미공원(지방정원 내)과 수국길(보은산 V랜드) 조성
- 화훼 1번지로서의 위상 제고 및 관광 자원화
- 관광지 인근 국·공유지 활용·관광지와 연계한 아열대 관수 올리브 식재(0.2ha)

● 아열대 과일 재배농가 확대 및 신규 유망과수 발굴 전력
- 아열대 과일 재배농가 확대
- '강진품애'와 연계·유망과수 통합브랜드화 사업 추진
- 과수 적정재배 유도, 주요 관광지(가우도, 청자촌, 월출산 등) 연계 판매 및 과수 체험농장 조성
- 레몬 실증재배 등 미래 신규 유망과수 발굴 등

● 가공·유통과 연계한 농업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 묵은지, 쌀귀리 국수, 장류, 전통 주(酒) 등 식품산업화(10억 원)
- 농수산물 가공유통 업체 육성, DSC(벼 건조 저장시설) 건립, 공공급식센터 및 농촌인력 지원센터 운영 등

군민 모두가 잘사는 복지공동체 실현

●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복지시책 확대 추진
- 장애인·홀몸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경로당 지원, 100원 마을택시 등
-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 경로당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 사업 추진
- 군민안전공제 보험가입으로 안부 살피기
- 대상 포진 예방접종 확대(60세 이상 → 50세 이상)

● 실버은퇴자를 위한 귀농타운 조성

- 은퇴자를 위한 전원도시 조성
- 노인돌봄종합시스템 구축
- 보건의료시설 확충, 찾아가는 방문간호서비스 특화

제4절

완도군

1. 비전

- 해양치유산업 메카 청정바다수도 완도

2. 기본목표

- 해양치유 및 바이오산업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창출
- 해양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중심 지역 육성
- 광역접근성 강화 및 해상교통망 확충으로 해상교통중심지 도약
- 완도 자연그대로의 친환경 산물로 신뢰받는 청정산업 활성화
-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맞춤형 생활복지 구현
- 지속가능한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살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

3. 발전방향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집중 육성

- 해양치유센터 등 공공기관 인프라 확충
- ICT,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미래성장 동력의 확보와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
- 해양치유 관련 민간투자 확대
-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 해양치유센터, 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
-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및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 해조류기반 유효성 소재 실증지원센터 구축
- 청정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 기능성 연구개발사업 추진

해양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중심 지역 육성

- 국립난대수목원(완도수목원) 조성을 통한 산림치유 기반 육성

– 해양치유 및 산림치유 등 기반조성을 통해 치유산업 중심지 도약

- 4개 권역별 테마형 관광지 조성
  – 체험관광(체도권), 힐링관광(동부권), 문화관광(남부권), 생태관광(청산권)
  –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역사, 문화, 생태 관광기반 조성
- 도서별 특성을 반영한 해양치유산업 연계형 관광프로그램 운영
- 지속적 관광콘텐츠 개발로 5백만 완도관광시대 달성
- 문화예술 단체 지원, 협력체계 강화
- 대규모 행사를 통하여 지역의 활력 회복

광역접근성 강화 및 해상교통망 확충으로 해상교통중심지 도약

-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조기 준공
-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건설
- 완도 경유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건설
- 노화~소안간 연도교 건설로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완도 자연그대로의 친환경 산물로 신뢰받는 청정산업 활성화

- 비대면 코로나시대 대응 국내외 시장개척 확대 및 유통체계 확립
- 친환경수산물 ASC-MSC 인증 확대
- 해조류 양식산업 활성화와 해조류 중심지 재도약
-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바다정화사업 추진
- 완도자연 그대로 농축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시설 운영 및 소득작목 육성
- 어촌뉴딜사업 등 어촌마을 재생사업의 지속적인 관심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맞춤형 생활복지 구현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연령별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복복지재단 운영
- 도서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기능 확대 등 건강관리 기반 확충
- 의료복합시설 구축을 통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 다문화가정, 여성 등 취약계층 복지향상

- 아이기르기 좋은환경 조성 등을 통한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
- 인구감소시대 인구정책지원 사업비 확충으로 지역 인구정책사업 추진 여건 제고

지속가능한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살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

- 도서종합개발 및 어항 개발 등 지속적 발전 추진
- 도서민 해상교통 편의 지원
- 명품 생활체육도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활력사업 지속 추진
- 안정적인 주택 공급의 실현과 주민참여형 주택 및 주거환경 정비
- 하수도 침수예방 및 하수도 정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참여연구진

분야		연구진
연구총괄		김대성 |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본방향		김현철 |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 철 |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공간연구	공간기능	신동훈 |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도시계획	최우람 |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SOC	김병진 | 광주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
농수산연구	농업	조창완 |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방욱 | ㈜농본 이사
	수산업	김동주 | 광주전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박은옥 |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주력·미래산업	주력산업	김진이 |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신산업	한경록 |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바이오	황성웅 | 광주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
생활공간	주거	나강열 |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보건의료	심미경 |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사회복지	민현정 |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재난·안전	김대성 |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재철 |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환경·경관	환경보전	조승희 |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종일 |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경관계획	송태갑 | 광주전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은일 | 전남대학교 교수 권윤구 | 전남대학교 교수
문화·관광	관광	곽행구 |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창규 | 전남도립대학교 교수
	역사·문화	김만호 |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행정계획		김재철 |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재정계획		오병기 |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지원		차정현 |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원 이준희 | 광주전남연구원 공동연구원 김주희 | 광주전남연구원 공동연구원